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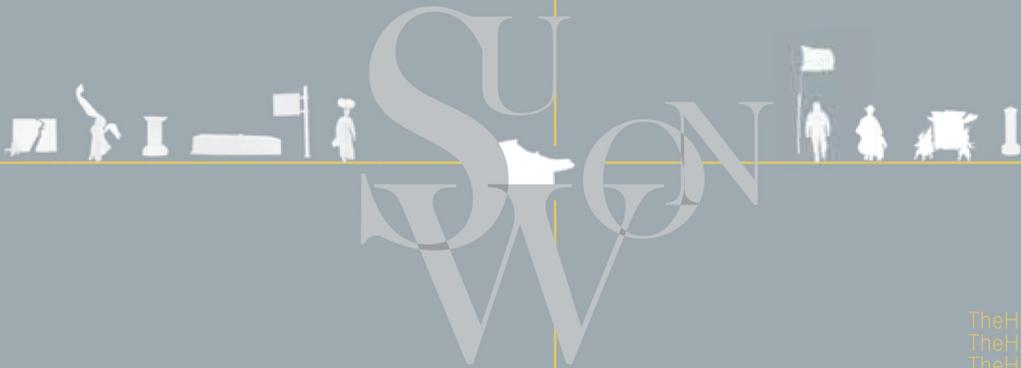
TheHistoryofSuwonCity
TheHistoryofSuwonCity

TheHistory
TheHistoryofSuwonCity
TheHistoryofSuwonCity
TheHistoryof
TheHistoryof
TheHistoryofSu
TheHistoryofSuwonCity
TheHistoryof

Industries and Economic Growth in Suwon

수원의 산업과 경제 성장

수원시사
6



TheHistory
TheHistoryofSuwon
TheHistoryofSuwon

TheHistory
TheHistoryofSuwonCity

수원시사편찬위원회

TheHistoryof
TheHistoryof
TheHistoryof
TheHistoryof
TheHistoryofSuwonCity
TheHistoryofSuwonCity
TheHistory
TheHistoryofSuwon
TheHistoryofSuwon
TheHistoryofSuwon

TheHistory
TheHistory
TheHistory
TheHistoryofSuwon

수원시사 6

수원의 산업과 경제 성장



일 | 리 | 두 | 기

기획 방향과 구성

□ 수원시사는 총 20권으로 제작되었다.

권	제목	권	제목
1	수원의 지리적 환경	11	수원 토박이의 생애 경험과 정체성
2	수원의 도시공간과 도시구조	12	수원 이주민의 정착과 정체성
3	수원의 통치체제와 지방세력	13	수원 여성의 생활과 정체성
4	수원의 정치 변동과 지방자치	14	수원 노동자의 노동세계와 노동문화
5	수원의 토지 소유구조와 농업 경영	15	수원 아파트 주민의 생활과 문화
6	수원의 산업과 경제 성장	16	이곳에 가면 수원의 역사가 보인다
7	수원의 사회 변동과 주민생활	17	수원 화성
8	수원의 민족운동과 사회운동	18	세월과 함께한 수원의 옛 문서
9	수원의 문화와 예술	19	개발과 동원 그리고 일상 : 1960~1970년대 수원
10	수원의 종교와 교육	20	수원 자료 목록집

- 제1~10권은 수원시의 지리적 환경과 공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분야별로 구성하였다.
- 제11~15권은 수원 시민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자 토박이, 이주민, 여성, 노동자, 아파트 주민 등으로 구분하여 그 특성에 맞게 주제를 선정하였다.
- 제16권은 수원의 역사와 문화를 답사기의 형식으로 구성하였고, 제17권은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을 다루었다.
- 제18~20권은 수원시사 편찬 과정에서 조사된 문서와 사진 자료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제18권에서는 수원 지역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는 옛 문서를, 제19권에서는 1960~1970년대 사진 자료를 통해 수원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제20권에는 수원시사 편찬 과정에서 조사된 주요 근현대 문서의 목록과 해제를 수록하였다.

서술의 범위와 원칙

- 공간적 범위 : 행정구역상 수원시를 대상으로 하여 서술하되, 역사적 연원을 공유하고 문화적 동질성을 지닌 주변 지역에 대한 이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범위를 확대하여 서술하였다.
- 시간적 범위 : 권별로 주제 및 특성에 맞게 시간적 범위를 설정하여 서술하였다.
- 내용적 범위 : 권별로 주제와 기획 의도를 고려하여 해당 주제가 요구하는 범위에 부합하도록 서술하였다. 수원시사의 전체적인 체제 통일과 내용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필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출 원고에 대한 윤문과 첨삭이 이루어졌다.

저작권과 출처 표기

- 이 책의 저작권은 수원시에 있다. 이 책에 사용된 도표와 사진 등의 자료에 대해서는 출처와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 두었으며, 출처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수원시가 제작·소장하거나 집필자가 제공한 자료이다. 집필자가 제출한 자료로 발생하는 저작권 및 관련 문제의 책임은 해당 집필자에게 있다.
- 이 책에 수록된 내용과 도표·사진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하며,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 별도의 원 저작자가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저작권자의 동의를 구해 사용해야 한다.

● 일러두기

제1부
장시와 상업의
발달

제1장 수원의 장시체계 변화 ————— 정승모

1. 화성 축조 이전의 수원장 _13
2. 화성 건설과 장길의 변화 _15
3. 장길 변화에 따른 장시체계의 재편 _22
4. 철도교통과 장시체계의 변화 _28

제2장 일제하 수원의 상업과 상권 변화 ————— 정승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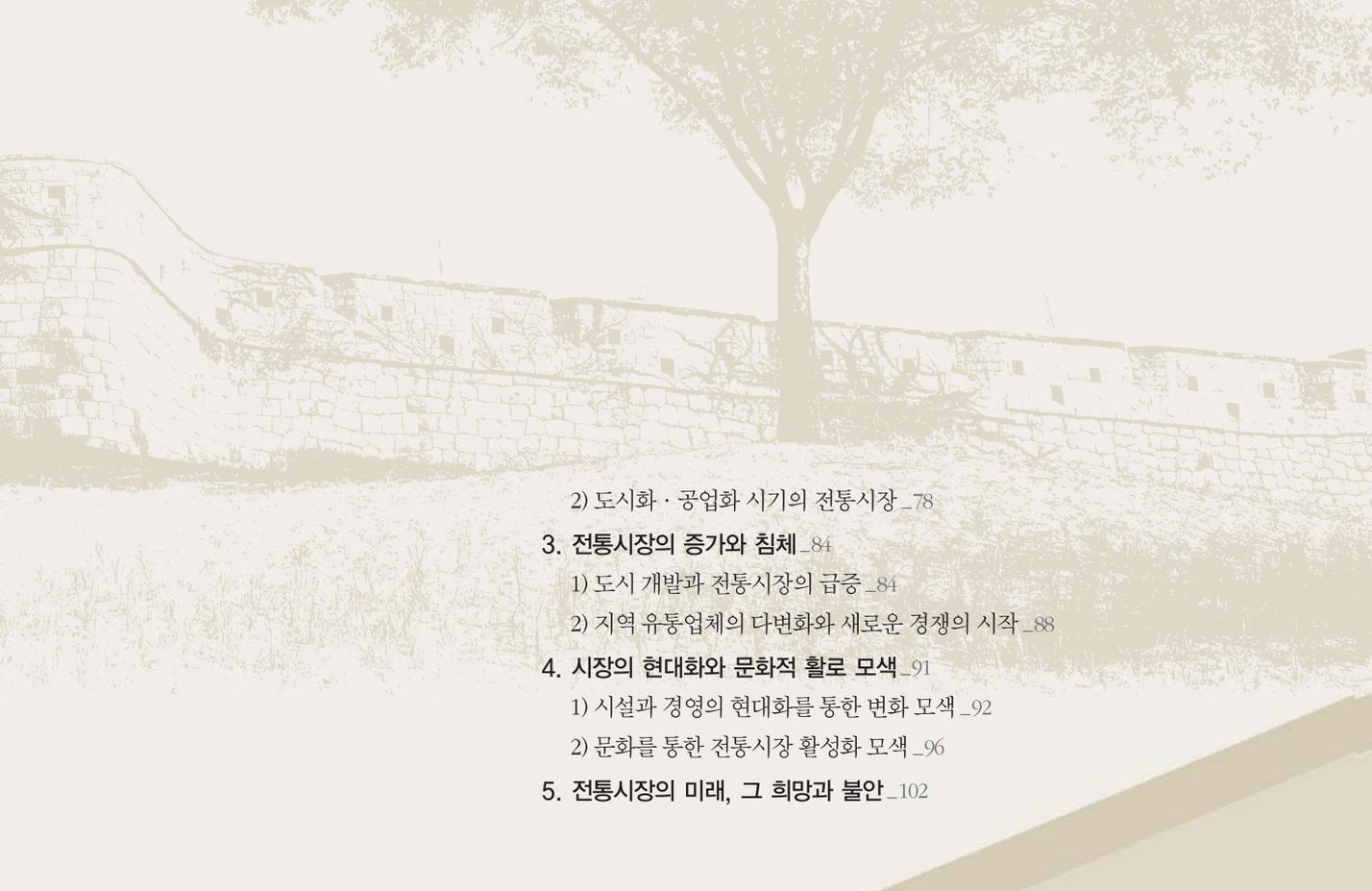
1. 시전과 정기시장의 변화 _35
2. 일본인의 상권 장악과 상점 분포 _41

제3장 수원 우시장의 성장과 변화 ————— 정승모

1. 둔전 경영과 소의 사육 _54
2. 소의 유통과 우시장의 발달 _56
3. 주변 우시장의 변화 _63

제4장 해방 후 수원의 전통시장 변화 ————— 이상열

1. 재래시장에서 전통시장으로의 변화 _68
2. 도시화와 전통시장의 성장 _72
 - 1) 해방 후 혼란기의 전통시장 _72



- 2) 도시화 · 공업화 시기의 전통시장 _78
- 3. 전통시장의 증가와 침체 _84
 - 1) 도시 개발과 전통시장의 급증 _84
 - 2) 지역 유통업체의 다변화와 새로운 경쟁의 시작 _88
- 4. 시장의 현대화와 문화적 활로 모색 _91
 - 1) 시설과 경영의 현대화를 통한 변화 모색 _92
 - 2)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모색 _96
- 5. 전통시장의 미래, 그 희망과 불안 _102

제2부
한말 · 일제하 경제의
변화와 특성

제1장 한말 · 일제 초기 염업정책과
수원 · 남양의 소금 생산

박민웅

- 1. 수원 · 남양 지역의 소금 생산과 생산환경의 변화 _109
 - 1) 제염도구와 제염법 _110
 - 2) 염전 경영과 소금 판매 _114
 - 3) 생산환경의 변화 _수입염의 증대 _118
- 2. 관영(官營) 천일염 이전의 염업정책과 수원 · 남양 염민 _122
 - 1) 1906년 이전의 염업정책과 수원 · 남양염전 _122
 - 2) 1906년 「염세규정」과 염민의 저항 _125
- 3. 1907년 관영 천일염전의 설치와 수원 · 남양 염민의 몰락 _129
 - 1) 일제의 소금 증산정책 _129
 - 2) 새로운 활로 모색과 수원 · 남양 염민의 몰락 _131

제2장 한말·일제하 수원의 금융조합 설립과 활동

최재성

1. 식민체제 기반구축기 지방금융조합의 활동 _138
2. 1920년대 '산미증식계획'기 금융조합의 활동 _144
3. 1930년대 '농촌진흥운동'기 금융조합의 활동 _149
4. 전시체제기 금융조합의 강제저축과 대출억제 _154

제3장 식민지 금융경제와 조선식산은행 수원지점의 운영

정병욱

1. 조선식산은행의 수원지점 설치 _161
2. 1920년대 지역경제와 조선식산은행 수원지점 _164
3. 1930~1940년대 지역경제와 조선식산은행 수원지점 _169
4. 조선식산은행 수원지점의 이용자와 직원 _173

제4장 일제하 수원의 회사 현황과 성격

조재곤

1. 1910년 전후 수원의 주요 회사 _181
 2. 1920년대 수원의 주요 회사 _184
 3. 1930년대 수원의 주요 회사 _188
 4. 1940년대 수원의 주요 회사 _191
- 부록 : 『수원상공인명록(水原商工人名錄)』
(수원상공회의소, 1942) _196

제5장 수원상공회의소의 설립과 변화

조재곤

1. 수원상업회의소의 설립 _217
2. 수원실업협회의 설립과 운영 _224
 - 1) 수원실업협회의 운영 _224
 - 2) 수원상업강습소의 운영 _228
 - 3) 화성학원의 운영 _230
3. 수원상공회의소의 창립과 활동 _232
4. 수원상공회의소의 해산과 경기도상공경제회 수원지부 조직 _241

제6장 일제하 수원 산업의 형성과 성격

김인호

1. 전통 직물업과 신흥 소공업 _246
 - 1) 연명하는 전통 직물업 _246
 - 2) 신흥 소공업의 성장 _250
2. 전쟁과 직물업의 변화 _252
 - 1) 중일전쟁과 조선인 직물업 확장 _252
 - 2) 태평양전쟁과 직물업 정리 _257
 - 3) 선경직물의 성립 _262
3. 수원 산업의 성격 _264

제3부
해방 후 경제의
변화와 특성

제1장 해방 후 수원의 귀속기업체 불하와 지역경제

배석만

1. 귀속기업체의 현황 _269
2. 귀속기업체의 불하 _279
3. 1950년대 지역경제의 변화 _284
 - 1) 신흥자본가의 성장 _284
 - 2) 설경동과 대한방직의 설립 _286
 - 3) 지역산업 동향 _287

제2장 경제개발기 수원의 경제구조

김보현

1. 1960년대 수원 경제의 변화 _295
2. 1970년대 수원 경제의 변화 _304
3. 1980년대 수원 경제의 변화 _315

제3장 수원시의 경제여건과 발전방향

조현수

1. 수원시의 경제여건 _333
 - 1) 재정자립도 _333
 - 2) 지역내총생산과 1인당 지역내총생산 _334
 - 3) 규모별·업종별 기업체 현황 _335
 - 4) 수원시 예산 _337
2. 수원시의 산업환경 _338
 - 1) 수원의 산업 _338
 - 2) 공업과 상업지역 _340
 - 3) 산업대분류별 사업체와 종사자수 현황 _3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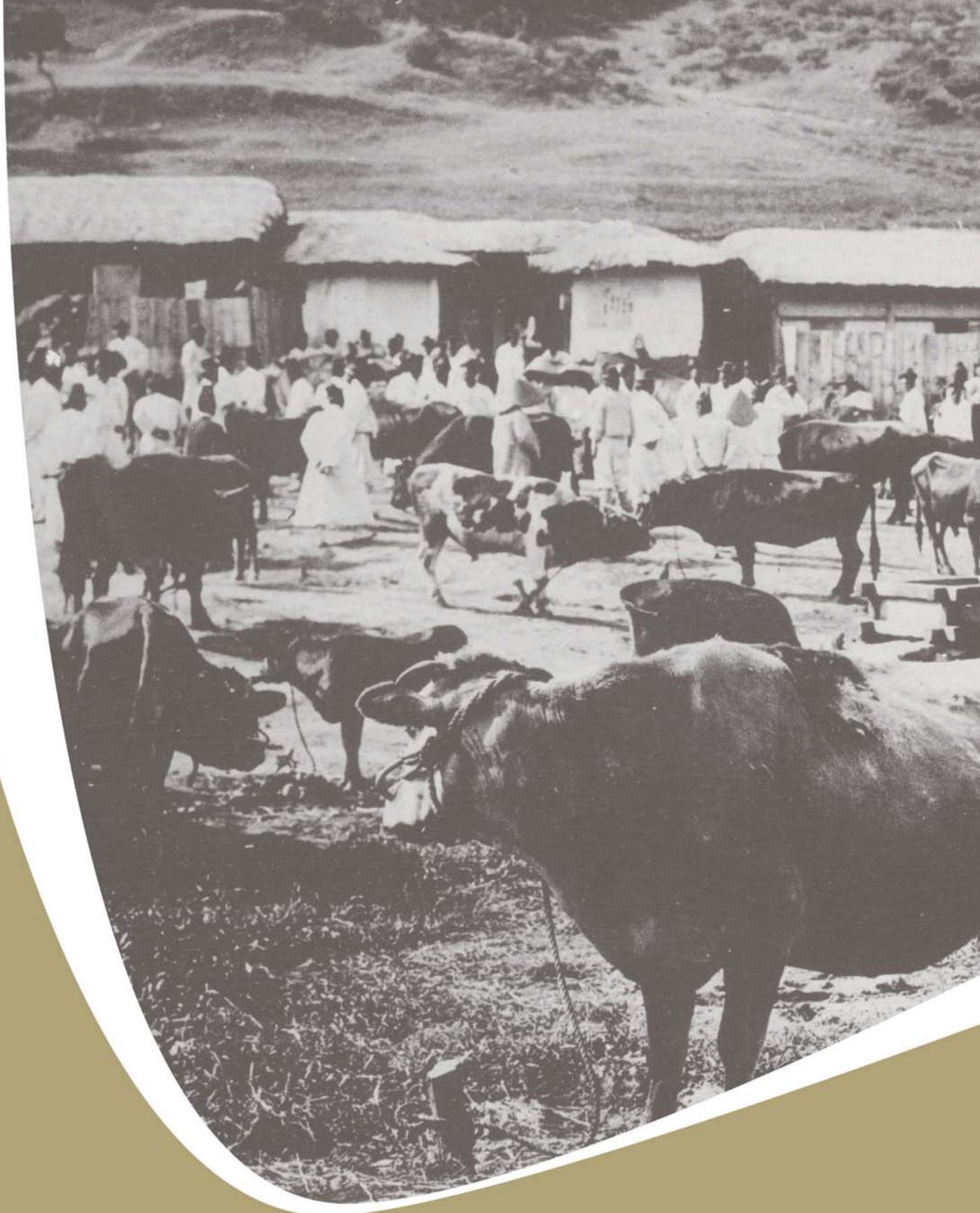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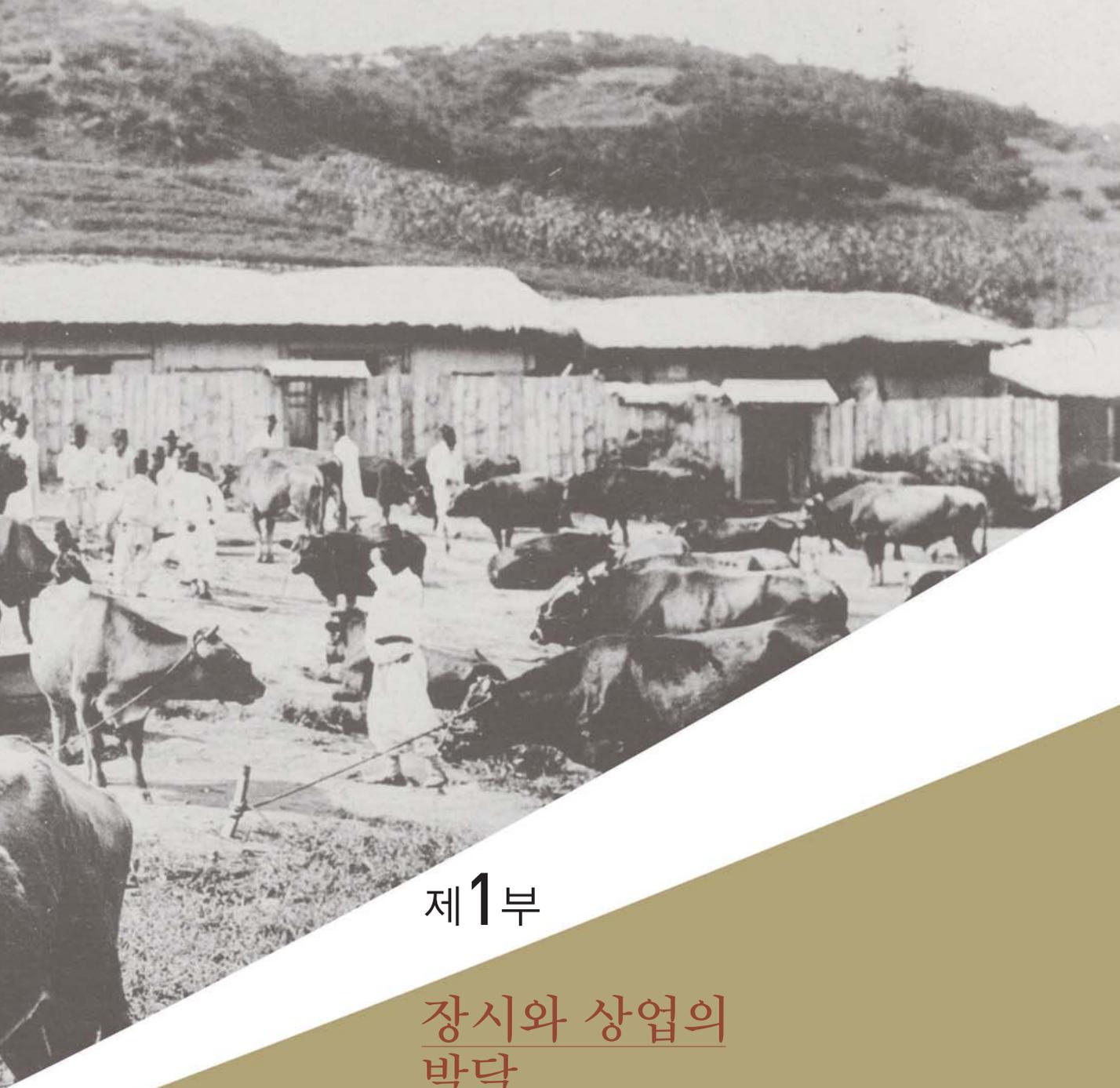
- 4) 사업체와 종사자수의 변화 _342
- 5) 산업부문별 종사자수의 증가 _344
- 6) 수원시 산업 집중도 _345
- 7) 수원시 구별 사업체와 종사자수 현황 _347

3. 수원시의 발전방향 _349

- 1) 수원시의 성장 잠재력 _349
- 2) 수원시의 경쟁력 분석(SWOT 분석) _351
- 3) 수원시의 발전방향 _353

- 참고자료 _358
- 찾아보기 _366
- 집필위원





제1부

장시와 상업의 발달

제1장 수원의 장시체계 변화

제2장 일제하 수원의 상업과 상권 변화

제3장 수원 우시장의 성장과 변화

제4장 해방 후 수원의 전통시장 변화



정승모 전 지역문화연구소 이사장

1. 화성 축조 이전의 수원장
2. 화성 건설과 장길의 변화
3. 장길 변화에 따른 장시체계의 재편
4. 철도교통과 장시체계의 변화



제1장

수원의 장시체계 변화

1. 화성 축조 이전의 수원장

경기 지역 장시들은 서울을 구심점으로 방사선상에 위치하고 있다. 다른 지방의 장들과 달리 이웃하는 장의 개시일이 순차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도 중요한 특징이다. 중심 소비도시인 서울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한강 본류와 남한강 및 북한강을 이용하는 강상교통과의 연결이 순환을 혼드는 변수가 되기 때문이다.

수원장도 정조의 화성 축조 이전에는 이웃 장들과 마찬가지로 서울로 모이는 유통로에 위치한 장에 불과하였으며 주변 장들의 중심에 서지 못했다. 이읍(移邑) 이전인 1770년에 편찬된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에 따르면 당시 수원읍내장은 1·6장이었다. 수원 관내의 장시로는 안중장(安中場: 1·6), 오타장(吾朶場: 1·6), 석현장(石峴場: 2·7), 오산장(鰲山場: 3·8), 신기장(新機場: 4·9), 사슬곶장(沙瑟串場: 4·9), 팔탄장(八呑場: 5·10)이 있었다. 남양 관내에는 남양읍내장이 2·7장이고 구포장(鳩浦場: 1·6), 기지장(機池場: 4·9) 등이 있었다. 그 밖에 주변장으로 양성읍내장(4·9), 소사장(5·10), 진위읍내장(2·7), 군포천장(3·8), 안성읍내장(2·7)이 있었다.¹



1770년 수원 관내 잠시 분포

옛 읍치에 있던 수원장 자리는 새 읍치보다 남쪽이어서 위도상 남양장과 대등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서해안의 섬과 포구를 거쳐 들어오는 물자를 서울로 연결하는 남양장을 포섭할 수 없었다. 또한 수원장의 배후 하천인 진위-안성천 유역은 아산만을 하구로 하는 안성천에 진위천, 삼교천, 곡교천, 무한천이 지류로 연결되어 있어 수운의 종착지인 안성장과는 비교가 되지 못했다. 반면 안성장은 주변의 백암장, 이보장, 죽산장, 양성장, 소사장, 평택읍장 및 충청도의 직산읍장, 입장, 성환장까지 포섭하는 지역 중심장이었다.

화성 축조 이전에 수원을 경유하던 역로(驛路)를 추적하는 일은 현재의 주 도로망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쉽지 않다. 역로로 추정되는 지점에는 단지 '역말'이라는 지명만 남아 있을 뿐인데, 이 중 수원 주변의 역을 보면 북쪽으로 광주 낙생역, 동쪽으로 장족역(長足驛: 현 수원시 우만동 역말), 그리고 남쪽으로 동화역(同化驛: 현 화성시 봉담면 동화리)이 있다. 이상의 역들을 연결하면 현재 국도 43호선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즉 수원을 경유하는 역로는 양재역에서 시작하여 용인을 거쳐 삼남으로 향하는 대로(大路) 도중에 낙생역이나 구흥역에서 분기(分岐)하는 간로(間路)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역을 수원의 읍치로 천장(遷葬)함과 동시에 화성(華城)이라는 신도시를 건설하고 능행로(陵幸路)를 새로이 개설함으로써 수원장은 호서와 호남으로 가는 대로(大路)에 놓이게 되었고, 지역 중심장이 되었다.

1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 권72, 부(附) 향시(鄉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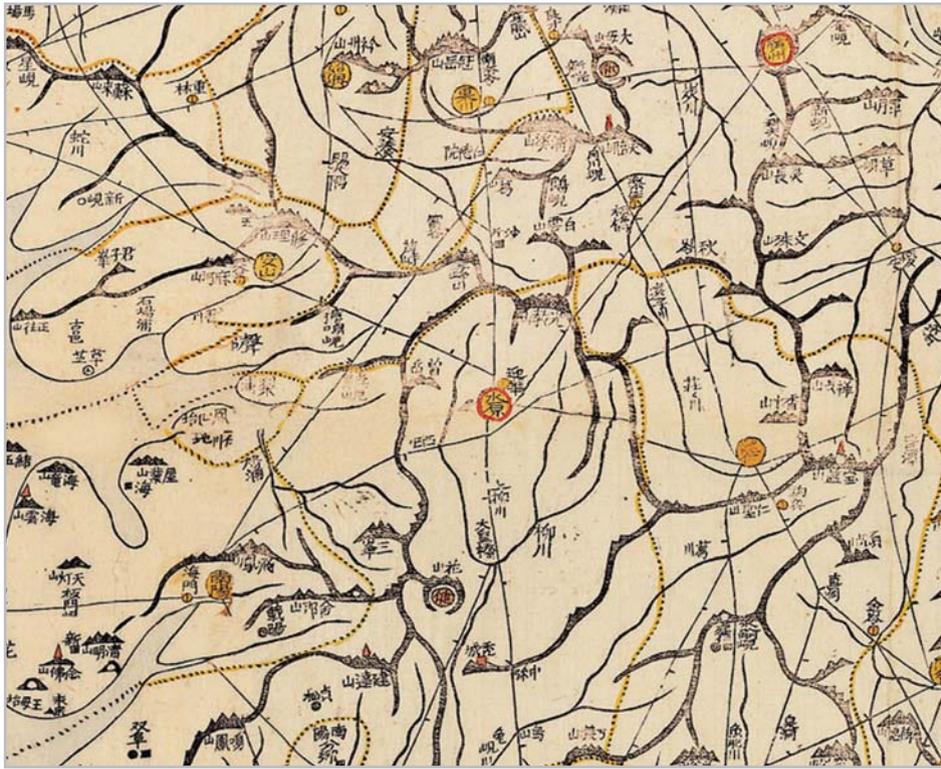


『팔도지도』에 나타난 수원과 그 주변 지역의 광역교통로(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

2. 화성 건설과 장길의 변화

수원은 조선 정조 때 화성 축조와 관련하여 새롭게 조성된 읍치 지역이다. 이를 계기로 수원은 광주(廣州)와 더불어 삼남(三南)으로 가는 주요 길목으로 부각되었다.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를 보면 수원을 거쳐 천안과 공주로 가는 길과 광주를 거쳐 충주로 가는 길이 있는데, 수원을 경유하는 역로는 정조 이후에 발달한 것이며 그 중심 역원(驛院)이 바로 장안문 밖에 있던 영화역(迎華驛)이다.

과거 장길은 상인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이용하는 일상적인 교통로였다. 이읍 이후로 수원장은 주변 지역을 포섭하는 중심지에 위치한 까닭에 장길 또한 장을 중심으로 방사선처럼 여러 방향으로 뻗어 있다. 동쪽으로는 수원장보다 규모가 컸던 용인 김량장이 있다. 두 장시를 연결하는 길은 현재의 국도 42호선과 거의 일치하는데, 현 동수원사거리부터 용인시 경계까지의 구간은 일제시기 이후 수여선(水麗線) 철로가 국도와 나란히 놓였던



「대동여지도」에 나타난 수원과 그 주변 지역의 광역교통로

곳이다. 수원의 북동쪽으로는 관교장(현 성남시 분당구 관교동)이 있었으며, 일제시기에는 풍덕천장(豐德川場 : 현 용인시 수지읍 풍덕천리)이 신설되었다.

수원 서쪽으로는 반월장이 있다. 반월장으로 가는 길은 화서문을 나와 정자동과 천천동 일원에 넓게 펼쳐진 들판을 가로질러 입북동과 당수동을 경유한다. 수원 남쪽으로는 오산(烏山 : 鰲山)에 장시가 번성하였다. 넓은 들판에 역로가 비교적 곧게 뻗었던 까닭에 수원과 오산장을 잇는 장길은 국도 1호선으로서 역로와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경부선과 거의 일치한다. 이 길은 이읍과 화성 축조의 효과로 수원을 거쳐 북쪽으로 시흥길과 곧게 연결된다.

수원 북쪽으로는 군포천장(軍浦川場)이 있었다. 수원에서 군포로 가는 길은 기존의 역로가 최단거리다. 정조는 과천과 시흥에 각각 행궁을 설치하고 사근평(肆覲坪)에는 창사(倉舍)를, 안양참(安養站)에는 발사(撥舍 : 驛舍)를, 노량(鷺梁)에는 진정(鎭亭)을 두어 원침 배알 때 연로(輦路)가 머물 곳을 마련하였다. 이후 충청우도와 전라우도는 금천(衿川)

과 수원의 통로, 즉 시흥길을 경유하고, 충청좌도와 경상좌도는 광주(廣州)·이천의 통로를 경유하며, 전라좌도와 경상우도는 과천(果川)의 통로를 경유하게 되었다.

시흥길이 열린 것은 정조의 잦은 원행(園幸)이 낳은 결과다. 어가(御駕)가 기존의 과천길 고개를 넘어가기란 매우 고단한 일이었다. 1794년은 화성 축조가 시작되어 이에 따르는 자금이 필요한 때인데, 『정조실록』 기사에 따르면 당시 관찰사 서용보(徐龍輔)가 칠중하(七重河), 즉 임진강 연읍(沿邑)에서 세금으로 낸 곡식을 고가(高價)로 거두면서, “이는 금천, 즉 시흥의 도로를 수치(修治)하기 위해 마련한 비용이니 싼 값으로 거둘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소민(小民)들이 원망하면서, “괴롭다, 화성(華城)이여! 과천(果川)에도 길이 있는데 어찌하여 금천으로 길을 닦으려 하는고.”라고 하였다. 시흥길 역사는 이미 이때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시흥길은 임금의 잦은 거동에 대비하기 위해 만들었지만, 결과적으로 호서와 호남으로 가는 대로(大路)로 발전하였다. 수원이 교통의 요충지로 부각되었음은 화성 축성 이후 수원 북문(장안문) 밖에 영화역이 신설되고, 양재에 위치했던 찰방역이 영화역으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잘 드러난다.

영화역은 장안문 밖 동쪽 1리쯤 되는 곳에 있었다. 화성 건설과 함께 영화역은 양재역을 대신하여 일대의 중심역이 되는데, 그때는 1796년(정조 20) 8월 29일로 우치(郵治)를 화성 북문 밖에 옮겨 설치하였다고 하였다. 그해 8월 29일자 『일성록』 기사에 의하면 정조는 당시 양재찰방(良才察訪) 이오진(李五鎭)을 불러 간심(看審)한 내용을 참조하여 역을 옮기는 데 따른 후속조치를 지시하였다. 지시에 앞서 이찰방은 간심 결과 이곳은 역사 기지로 만족스럽지만 단지 인가가 조성되어 있지 않아 흩어져 있는 역민(驛民) 20여 호를 입주하도록 권유하였다. 이에 정조는 둔전을 설치하여 세금을 걷든지 곡식을 사서 작환(作還)하는 방법으로 재력을 마련할 것과 양재도찰방(良才道察訪)을 영화도찰방(迎華道察訪)으로 이름을 바꿀 것을 지시하였다. 그 영향인지 1797년 정월에는 새로 들어온 민가가 약 50호가 된다고 하였다.

본래 양재도의 관할 범위는 서울에서부터 양재-용인-양지-죽산-충주 방면의 역로와 과천-수원-진위 등으로 이어지는 역로이다. 이에 속하는 역은 광주(廣州)의 낙생역(樂生驛), 용인의 구흥역(駒興驛)과 김령역(金嶺驛), 죽산과 음죽의 좌찬역(佐贊驛)·분행역(分行驛)·무극역(無極驛), 안성의 강복역(康福驛), 양성의 가천역(加川驛), 수원의 청호역(菁好驛)·장족역(長足驛)·동화역(同化驛), 남양의 해문(海門) 등 12개 역이었다. 그런데 1796년에 양재도가 영화도(迎華道)로 개편되면서 새로이 과천역과 영화역을 두게 되었고 청호·장족·동화 등 3개 역은 혁파되었다. 그 후 중심역은 양재역에서 영화역으로

바뀌게 되었고, 관할 역은 11개 역이 되었다. 양재·낙생·구흥역은 대로(大路) 또는 대역(大驛)에 속하고, 김령·좌찬·분행·무극·가천역 등은 중로 또는 중역에, 그리고 강북·해문역 등은 소로 또는 소역에 속하였다. 이 역도는 1894년 갑오경장 때까지 존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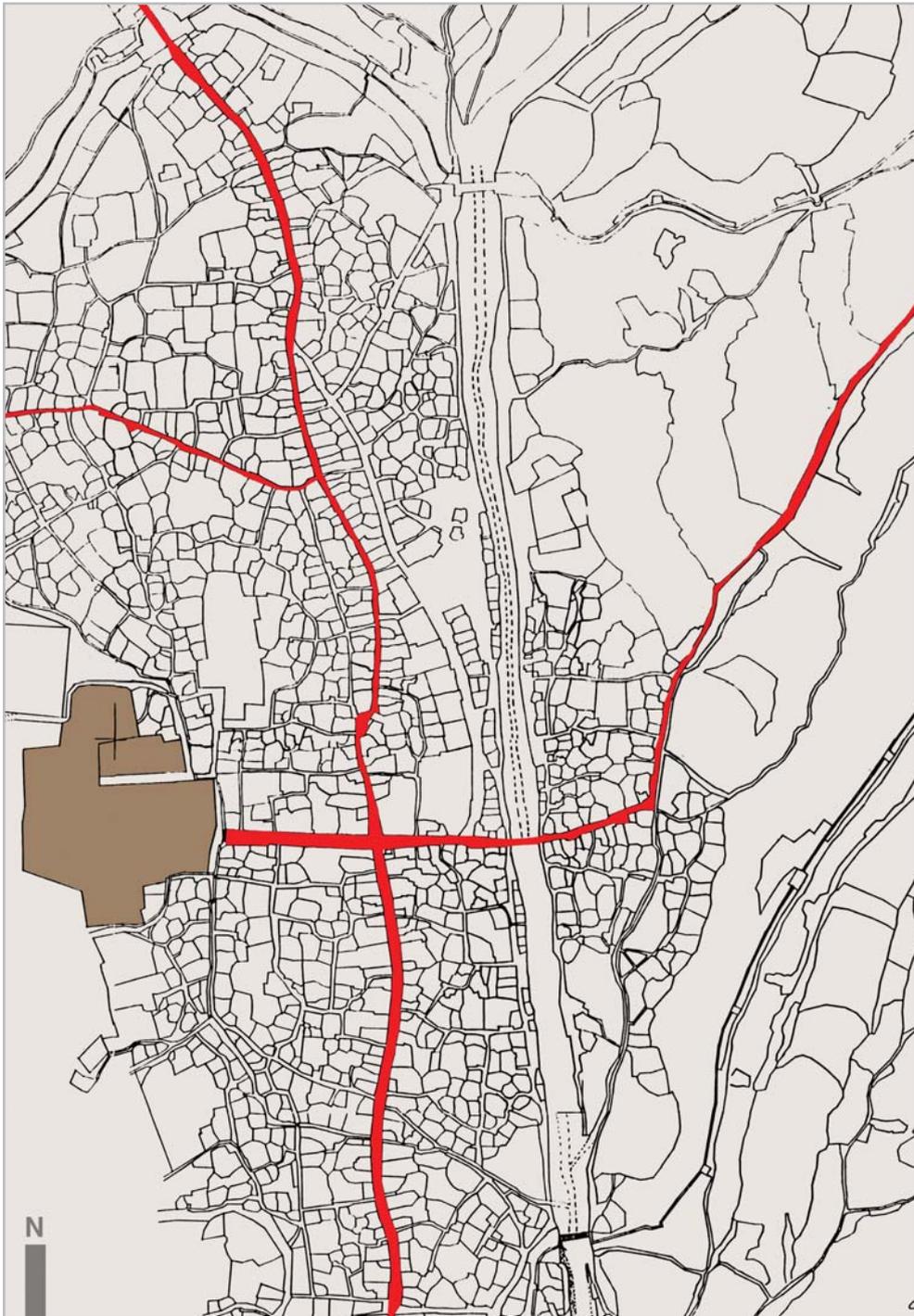
역말, 역촌(驛村), 장죽역말, 윗역말, 아랫역말 등의 지명들은 원천동 1번지에서 120번지 일대를 일컫던 마을 이름이다. 현 아주대학교 병원 동쪽, 법원과 검찰청 주변 일대이다. 이곳은 원래 양재도에 속한 장죽역이 있었다고 해서, '장죽역말'이라고도 불린다. 장죽역의 역말은 현재 원천동 1통, 6통, 7통, 8통, 9통, 18통, 19통, 25통과 원천아파트 8개 동 일대였다고 한다. 『여지도서(輿地圖書)』에 따르면 장죽역에는 대마(大馬) 1필, 기마(騎馬) 2필, 복마(卜馬) 2필, 노(奴) 5명이 배정되어 있었고, 『수원부읍지(水原府邑誌)』(1792년)에 따르면 대마 2필, 기마 9필, 복마 2필, 노 13명이 있었다고 한다. 원천 쪽에 있는 마을을 '윗역말', 그 반대쪽에 있는 마을을 '아랫역말'이라 나누어 부르기도 한다.

십자가(十字街)나 십자로(十字路)는 화성의 장안문과 팔달문을 잇는 남북도로와 창룡문과 화성행궁에 이르는 동서도로를 말한다. 남북도로와 동서도로가 직교(直交)한 형태의 '열십자'를 닮았다 하여 '십자가'라고 이름을 지었다. 『화성성역의궤』에는 '십자로'라고 나와 있다.

18세기 말에 새로 조성된 읍치에서 시작된 수원은 여러 측면에서 종래의 도시들과는 달랐다. 그러나 흔히 이야기되듯 상업이 활발한 도시로 자리를 잡기까지는 짧지 않은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에 지방도시는 물론이고 서울에서도 동서남북이 교차하는 도로는 쉽게 볼 수 없다. 화성 도로의 중심부를 십자로라고 명명한 것은 시통팔달의 이념이 담겨 있다고 해석되기도 한다. 이는 다른 읍성과는 달리 동서남북 네 방향에 문을 내었다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물론 서쪽에 주산인 팔달산이 있고 또 서쪽 방향 도로의 정점에 관아와 행궁을 두었기 때문에 십자로는 완전한 직로는 되지 못하고 화서문으로 연결되기 위해 우회하게 된다.

남북도로로 팔달문을 나오면 이후에는 수원천을 건넌 것으로 짐작되는데, 현재의 위치보다 약간 남쪽에 있었다고 하는 매교(梅橋)에 표석(表石)이 남아 있다. 그 남쪽으로도 상류천(上柳川 : 버드내마을, 세류3동 130번지)과 하류천(장지동 44-7번지)의 표석이 남아 있으나 길의 모습은 예전과는 다르다.

1789년(정조 13) 9월 20일자 『일성록』에는 병조(兵曹)에서 사도세자의 묘를 현릉원으로 옮기는 발인(發靛)과 관련하여 「도로절목(道路節目)」을 임금에게 올렸는데, 다음은 그 내용의 일부다.



화성 내 도로체계(이상해, 『화성 도시 구조의 변화』, 『화성안 마을지』, 수원박물관, 2012)

自龍洞前路至水原新邑晝停所 五里 其間新基里隱溝一處. 自水原新邑至上柳川店 五里 其間鄉校前路柳川大橋. 自柳川店至下柳川後坪 五里. 自下柳川後坪至禿峯 五里 其間小橋一處. 自禿峯至鵲峴洞 五里 其間新作路鰲沐川大橋隱溝二處. 自鵲峴洞至細藍橋隅 五里 其間鵲峴新作路隱溝二處. 自細藍橋隅至園所洞口 五里 其間隱溝二處.

이 중 작현동에서 세람교(細藍橋)까지가 5리이고 그 사이 신작로에 은구, 즉 땅속에 묻은 수채가 두 곳이라고 한 대목에서 세람교우(細藍橋隅), 즉 세람교의 모퉁이라고 한 것은 천원(遷園) 행차가 세람교를 건넌 것이 아니었음을 말한다. 이는 독봉(禿峯)에서 작현(鵲峴 : 까치고개) 그리고 세람교의 북단까지 난 신작로를 이용하여 행차가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신작로는 이 행차를 위해 닦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로는 당시의 행차뿐만 아니라 이후 능행 경로에서도 재차 반복되고 있다. 즉 기존의 삼남으로 가는 제주로의 방향이 수원 구 읍성의 서쪽을 지나 세람교를 건넌 후 독산성 방향으로 내려가는 남행이라면, 이 능행은 수원 신읍인 화성을 들른 이후여서 구읍성의 동쪽을 지나는 남행이 된다.

정조 문집인 『홍재전서(弘齋全書)』 천원사실(遷園事實)에는 다음과 같이 그 과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날 신시(申時)가 될 무렵 대여가 과천현에 이르러 찬궁에 안치되었다. 압구정, 사평, 반초동, 도리정, 태봉, 화락동에서 여섯 번 교대하여 운구한 것이다. 6일에 달이 올라 대여가 과천을 출발하여 진시에 사천에 이르렀다. 은행정, 독백리, 자전동에서 세 번 교대하여 운구한 것이다. 대여를 맨 사람들을 먹고 오시에 수원의 신읍에 도착하였다. 일용리와 용연에서 두 번 교대하여 운구한 것이다. 신시에 신원에 도착하였는데 상류천, 하류천, 독봉, 학현, 세람교에서 다섯 번 교대하여 운구한 것이다. 채궁은 정자각에 안치하고 찬궁에는 영좌를 모셔 지방을 안치하고 찬을 놓는 탁자를 설치하였다. 명정, 소선, 소개, 증옥함, 증백함은 좌우로 나누어 열을 짓고 길복의 흰 의장은 물려서 머물게 하였으며, 유문 안에 빈소를 만들고 묶은 끈을 풀고 네 번째로 옷칠을 하였다.²

유통체제로 볼 때 화성 축조 이전까지 세람교는 육로로 올라온 남쪽의 물산들이 수원구읍에 이르는 마지막 관문이었다. 세람교를 건넌 물자들은 동북쪽으로 과천을 통과하여 올라간 것이 아니라 서북쪽으로 현 화성시 봉담면 동화리에 있던 동화역을 지나 매송면 어천리를 거쳐 노량진을 향해 올라갔다. 이것은 정조의 원행으로 열리게 된 시흥길이 없던 상황에서의 선택이므로, 서울이 목적지라면 과천보다는 매송 어천을 경유하는 것이

2 『홍재전서(弘齋全書)』 권58, 잡저5, 천원사실(遷園事實).

편하고 빠르다. 그러므로 수원 구읍 시절에 읍치를 앞둔 세람교의 기능은 그만큼 컸다. 그러나 원행로의 개설로 호서와 호남으로 가는 대로와 신작로가 생기면서 화성을 통과한 역로는 팔달문을 나와 수원천을 따라 세람교 동쪽으로 비켜 남진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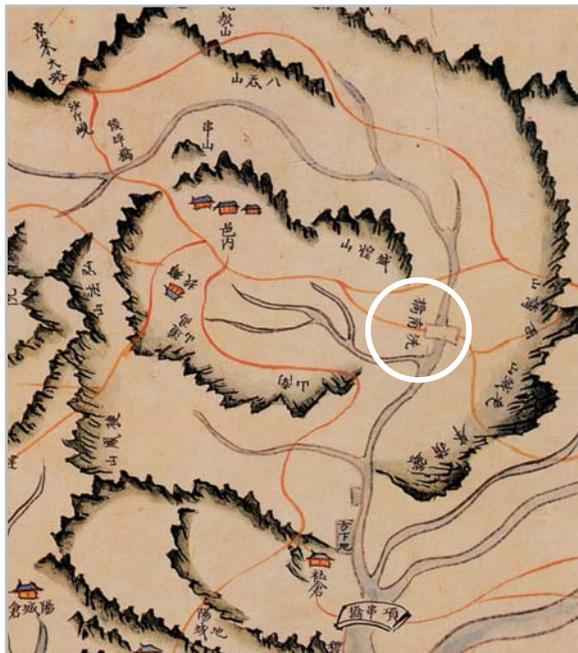
한편 현재 국도 1호선으로 되어 있는 신작로는 지지대고개를 넘어 과장동으로 이르는 과거의 옛길로부터 약간 서쪽으로 옮겨 확장되었다. 지금은 마을 안길처럼 변해 버린 이 길을 따라가면 서호천 상류를 가로지르는 다리 남쪽에 수령 200년이 넘는 느티나무군락이

있고, 「괴목정교(槐木亭橋)」라고 쓴 표석이 남아 있어서 이것이 옛 길임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과거 서울로 가던 길손들이 묵었다고 하는 안죽골마을(일명 쑥뎡이 마을), 그리고 원(院)이 있었다고 전해지는 원지봉(院地峰 : 은지봉) 또한 옛길의 흔적을 짐작할 수 있다.

육로에 비하면 수로는 수원장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다. 『화성성역의궤(華城城役儀軌)』에는 당시 수로 운영을 짐작할 수 있는 기사들이 눈에 띈다.

전라도 관찰사 이서구의 장계

이번 성루 재목을 여러 섬과 연해(沿海) 봉산처(封山處)에서 베어냈는데, 그 이유는 대개 그것이 토산물(土産物)로 자못 넉넉하고 선운(船運)이 약간 편하기 때문이었습니다. …… 그런데 육로에서는 각 읍·진을 왕복할 때에 혹 관예(官隸)를 빌리고 혹 일할 장정을 모집해서 양미(糧米)를 헤아려 지급하고, 이들로 하여금 뱃나무를 끌어내리게 했으며, 수로(水路)에서는 내왕하는 빈 배를 얻어서 역시 양미를 지급하고 나무를 실어 왔사옵고, 원래 이교배(吏校輩)들이 육읍(陸邑)을 두루 돌아다닌 일은 없다고 하옵니다.³



화성 축조 이전까지 남쪽 물산들이 수원 구읍에 이르는 마지막 관문이었던 세람교 (『해동여지도』, 「수원부」, 1735,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3 『화성성역의궤』, 갑인(1794년) 3월 2일.

상고할 일

문루 재목은 수상(水上)으로부터 경강(京江)에 도착(到泊)하였는데, 이 재목을 영남으로 돌아가는 조선 편에 실어 나를 뜻을 총리대신의 연품에서 출거한 건(件)이라 합니다. 방금 접수한 남양부사 첩정에 “재목을 실은 영남 조선의 호송(護送)건은 주야로 동척하였기에 감히 흑시라도 소홀함이 없습니다. 다만, 경강에서 구포에 이르는 수로는 인천(仁川) 팔미도(八尾島) 내양(內洋)을 지나 안산(安山)의 옥구도(玉溝島) 내양과 본부의 쌍서도(雙嶼島) 및 우음도(牛音島)를 거쳐야 비로소 구포 항구에 정박(定泊)하게 됩니다. 그러나 조선들이 늘상 왕래하는 길은 팔미도 외양(外洋)으로 항행하기 때문에 팔미도는 내외양(內外洋)의 갈림길이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영남의 조군(漕軍)들이 일찍이 이러한 뱃길로 다녀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4척의 배가 지체하게 된 것입니다.⁴……”라고 하였습니다.

수원의 남쪽과 서쪽에서 수원장에 이르기 바로 전에 만나게 되는 세 지점인 오산, 발안, 남양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로와 연결되어 있고, 그중에는 포구와 같은 수상교통의 거점을 두고 있다. 진위-안성천 유역은 안성천과 황구지천을 제외하면 수운은 발달하지 않았다. 지형으로 볼 때 현재 신갈저수지 부근의 불당골을 기점으로 남쪽으로 흐르는 신갈천은 오산천으로 모여 아산만에 이르고, 북쪽의 하천들은 탄천으로 모여 한강에 합류되었다. 현재 오산천은 신갈저수지로 모였다가 금곡천을 이루고 동탄면과 오산시를 흘러 평택시 서탄면 회화리에서 진위천과 합류한다. 안성천의 지류인 진위천은 이 오산천과 황구지천을 만나 서해로 흘러간다.

발안천은 발안장까지 배를 올려 이후 수원장의 유통경로를 만드는 기반이 된다. 그리고 그 중간에 양성현의 비지(飛地)인 옹포(瓮浦)를 두어 세수를 보태고 거리비용을 줄였다. 옹포는 우리말로 ‘독개’라고 부르는데 현재 평택시 청북면 삼계리 독개마을로 그 이름만 남아 있다. 구포, 옹포(柳浦) 및 빈정포(濱汀浦)는 남양에 속한 주요 포구로 앞서의 언급대로 수원장과 연결되면서 그 기능이 확대되었다.

3. 장길 변화에 따른 장시체계의 재편

화성 건설에 따른 주요 도로망의 변화는 수원 인근의 장시체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수원장을 중심에 놓으면 주변 장시는 북쪽으로 서울 방면, 동쪽으로 용인 방면, 남동쪽으로

4 『화성성역의궤』, 갑인(1794년) 6월 22일.

양성 및 안성 방면, 남서쪽으로 남양 방면, 그리고 남쪽으로 평택 방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장시들의 위치는 모두 삼남에서 서울로 향하는 길목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 구조에서 서울 방면 외에 나머지 네 방면은 화성 건설 이후 수원장과 새롭게 형성된 관계망으로, 이는 이음이 일으킨 결과이기도 하다.

읍치 이전 후 도로망의 변화로 발생한 수원 지역 장시의 변동을 정리해 보면 첫째, 신읍치에 북문외장과 남문외장이 신설되었고, 둘째 구읍치 읍내장이 이설되어 세람장으로 개칭되었으며, 셋째 오타장이 폐지 혹은 흡수되었다.

수원에서 남양 방면의 역로를 따라가다가 오목천삼거리에서 봉담을 거쳐 발안으로 가

〈표 1〉 『임원경제지』(1830)의 수원장과 인근 장시 현황

방면	장시명	개시일	소속 군현	현 위치
서울	군포장(軍浦場)	1·6	과천 하서면(下西面)	인양시
	안양장(安養場)	3·8	과천 하서면	인양시
수원	부내장 북문외(北門外)	2·7	수원	수원시 장안문 밖
	부내장 남문외(南門外)	4·9	수원	수원시 팔달문 밖
안산	상직곶리장(上職串里場)	2·7	안산 초산면(草山面)	시흥시 물왕동
	석곡산대장(石谷山垔場)	3·8	안산 대월면(大月面)	시흥시 거모동
남양	부내장(府內場)	2·7	남양	화성시 남양면 남양리
	신기장(新基場)	4·9	남양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용교장(春橋場)	1·6	남양 팔탄면(樸八面)	화성시 팔탄면 구장리
평택	오산장(烏山場)	1·6	수원	오산시
용인	현내장(縣內場)	2·7	용인	용인시 구성면 연남리
	김량장(金良場)	5·10	용인	용인시

〈표 2〉 19세기 수원의 장시⁵

『화성지』(1831)	『여도비지』(1851~1856)		『대동지지』(1863년경)		『수원부지도』(1872)
장시명	장시명	개시일	장시명	개시일	장시명
남문외장	남문외장	4·9	남문외장	4·9	남문외장
오산장	오산장	3·8	오산장	3·8	오산장
세람장	세람장	1·6	세람장	1·6	
팔탄장	팔탄장	5·10	팔탄장	5·10	발안장
석현장	석현장	1·6	토진장	1·6	
안중장	안중장	2·7	안중장	2·7	안중장
사슬곶장	사슬곶장	4·9	사슬곶장	4·9	사슬곶장

5 이정일, 「조선후기 수원지역 장시 연구」, 『경기사학』 6, 경기사학회, 2002.



1860년대 수원 장시권

는 길은 원래 역로가 아니었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충청남도 서북부인 내포 지역에서 서울을 왕래할 때 흔히 이 길을 이용하였다. 삼교천은 조수의 영향이 매우 커서 육로를 이용하려면 멀리 우회하여야 했고, 따라서 주민들은 아산만을 건너거나 아니면 인천까지 배로 직항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그런 까닭에 아산만에 산재한 나무를 건넌 충청도 물산은 새로 난 시흥길을 타기 위해 안중과 조암 혹은 그 사이의 지름길을 따라 발안 등을 거쳐 수원장으로 모였다.

결국 화성이 소재한 수원은 오산을 경유하는 역로는 물론이고 아산만에서 남양과 발안에 이르는 서해안의 물산을 모두 집결시키는 상업 요충지가 될 수 있었다. 수원장을 지역의 중심시장으로 만든 것은 서울을 향해 가는 여러 방면의 물류를 포섭하는 중간 경유지로서의 기능이였다.

안산의 장시는 수원으로부터 20km가 넘을 뿐만 아니라 치소(治所)의 서쪽 방면에 위치하고 있어서 수원보다는 서울이 가깝다. 따라서 안산장 역시 수원장과 서로 연결되기 힘들었다. 수원에서 안산으로 향하는 길목에 위치한 반월장은 조선 후기에는 없었고 1910

년 자료에 처음 보인다. 수원 입북동부터 반월장에 이르는 구간도 대체로 국도 42호선과 일치한다. 반월장은 중심시장인 수원장의 입지에 힘입어 만들어진 장이다.

발안장은 현재 버스터미널 옆길에서 중심부를 통과하는 도로변에 위치한다. 원래 팔탄면 구장리에 있던 장이 일제 초기에 신작로가 만들어지면서 현 위치인 향남면으로 옮겨 오게 되었다. 개시일은 5·10일인데, 이웃의 조암장이 4·9일장이고 수원장도 4·9일장이어서 그곳에 들른 장꾼이 다음 날 이곳으로 오기 쉬웠다. 발안장은 향남면, 팔탄면, 양감면, 우정면, 장안면과 봉담면 일부, 평택의 청북면 일부 지역 주민이 주로 이용한다. 주요 거래품목은 의류, 해산물, 기타 일용품 등으로 그중 해산물은 미역, 다시마, 북어, 조기, 청어, 쾡치 등이다. 과거에는 우시장과 도축장이 있어 비록 수원에 큰 우시장이 있었지만, 가축거래도 활발한 편이었고 인근 마을에서 만든 명석, 자리, 질그릇 등의 수공품, 팔탄면 구장리에서 만든 가마솥, 보습 등의 철물이나 농기구도 거래되었다.

조암장은 우정면 조암리에 있다. 원래는 이웃면인 장안면 어은리 면소재지에 있었던 것이 일제 초기에 발안장과 마찬가지로 신작로 개설로 옮겨졌다. 발안장이 5·10일장이어서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장안면과 우정면의 2개 면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지역단위 장이다.

반월장의 남쪽은 내륙 깊숙이 만입(灣入)한 지형을 이룬다. 이곳에 구포와 유포, 그리고 빈정포가 있다. 화성의 팔달문을 나와 국도 43호선으로 발안을 향하는 도중에 만나는 지방도 306호선은 수원에서 남양을 거쳐 송산면 사강까지 가는 길인데, 어천리에서 서북 방향으로 빠지면 구포와 빈정포로 갈 수 있다. 이 길은 남양 방면의 주요 장시를 연결하여 소금을 비롯한 해산물이 유통되었다. 수원에서 발안으로 향하는 국도 43호선은 남양은 물론 안중을 경유하여 아산만을 건너 충청도의 내포 지역으로 향하는 주요 도로이다. 남양, 발안, 구포 등지에서 수원 신읍으로 가는 길은 수원시 오목천동-고색동-세류동으로 이어지는 구간이다.

남양장은 현 지명으로 화성시 남양동에 있는데 과거 도호부 관아가 위치하던 곳이다. 뱃길을 따라 올라온 물산과 서신면과 송산면 일대의 각종 산물이 서울로 가려면 이곳을 거쳐야 했으므로 우시장이 있을 정도로 장 규모가 컸고 해창(海倉)도 있었다. 장에서 거래되던 물산은 이러한 지역적인 특징을 반영하여 바닷가에서 생산되는 해물과 소금이 육지의 농산물과 교환되는 지점으로 기능하였다. 앞서 언급한 대로 화성 축조 이전에는 남양장을 거쳐 서울로 가는 물자들이 수원장을 거칠 수 없었다. 그러나 시흥길이 열리고 그 경로에 새 수원장이 놓이면서 남양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물자들은 기존의 어천리에서 군포로 올라가는 옛 장길과 함께 두 가지 선택의 여지가 생긴 것이었다.



팔달문 밖에 위치한 남문외장(수원부지도, 1872, 수원박물관 소장)

서해안 일대에서 소금을 생산할 때 필요한 장작이 이곳 남양장에서 거래되었기 때문에 장작을 파는 장수도 많았다고 하며, 수원으로 가는 중간지점으로서 음식업도 발달하여 떡전거리도 있었다고 한다. 조선시대까지는 2·7일장이었고, 일제 때 3·8일장으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1·6일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일제시기 이후 2·7일에 운영되어 온 송산면의 사강장과 앞뒤가 바뀐 셈이다. 지역장인 조암장이나 사강장과는 달리 교통여건의 변화에 따라 영향을 크게 받아 온 것이다.

사강장은 현 송산면 사강리에 있으며, 조수가 드나들어 모래강이라는 명칭이 붙을 정도로 뱃길이 닿는 지역이

였으나 일제시기 이후 육지화하였다. 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송산면, 서신면, 마도면 일대의 사람들이고, 대부도·형도·어도·우음도 등 일대의 섬 주민들도 이곳 장을 이용하였다.

수원장보다 컸던 안성장과 연결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새 수원장의 포섭 범위가 바뀌면서 안성장에 도착한 소와 물자가 오산장을 거쳐 수원장으로 향하는 경향이 나타난 것이다. 일제시기의 통계이지만 경기도 내에서 출장(出場)한 소의 두수가 400두가 넘는 우시장은 수원 우시장(4·9일), 안성 우시장(2·7일), 오산 우시장(3·8일), 그리고 파주 금촌시장(1·6일)의 네 곳으로 그중 세 곳인 안성장, 오산장, 수원장이 장날로 이어져 소의 주요 유통경로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수원의 동쪽인 용인의 김량장은 송파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장시였기 때문에 수원이 커지면서 수원장과 김량장은 경합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한편 수원장의 개시일은 시대에 따라 다소간의 변화가 있었다. 앞서 『동국문헌비고』(권72, 附 鄕市)에 따르면 화성 건설 이전에 수원읍내장의 개시일은 1·6일이었다. 화성 건설 이후의 상황을 반영하는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 간행 당시에 수원에는 북문 밖과 남문 밖에 각각 2·7일과 4·9일에 장시가 개설되었다. 남문 밖의 장시는 현재의 영동

시장임을 알 수 있으나 북문 밖 장시의 위치는 불명확하다. 그런데 『기전읍지(畿甸邑誌)』(1894년)에는 남암문(南暗門) 바깥의 남문외장(南門外場)만이 기록되어 있는 반면, 16년이 지나 1910년에 간행된 『한국수산지(韓國水産誌)』에는 장시가 남암문 안팎에 있어서 격번(隔番)으로 개시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기록을 통해서 볼 때 북문밖장은 19세기 중·후반에 이미 소멸하였고, 1904년에 새로이 성안장이 생겨났다. 그리고 그 위치로 미루어 보아 조선 말기의 혼란 속에서 화성의 시전(市塵)이 있던 자리를 시전상인이 아닌 시장상인들이 침투하면서 정기시장으로 변화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성안장은 뒤늦게 설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급격히 성장하여 1926년에는 성밖장을 압도할 정도가 되었다.

조선 후기 삼남, 특히 경상도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많은 양의 물산은 송파를 경유하였다고 할 수 있다. 수원 동쪽의 용인 김량장은 송파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장시여서 수원장과 김량장은 경쟁관계라기보다는 보완관계에 있었다. 그러나 안성장·죽산장과의 관계

〈표 3〉 18~20세기 수원과 용인 지역 장시의 변화

장시명 출처	수원			용인		
	북문(문안)장	남문(문밖)장	오산장	읍내장	김량장	풍덕천장
『동국문헌비고』 (1770)	읍내 (邑內 : 1·6일)		오산 (鰲山 : 3·8일)	읍내 (邑內 : 2·7일)	김량 (金良 : 5·10일)	
『임원경제지』 (1830)	북문외 (北門外 : 2·7일)	남문외 (南門外 : 4·9일)	오산 (烏山 : 1·6일)	현내 (縣內 : 2·7일)	김량 (5·10일)	
『경기지』 (1842~1843)	-	-	-	읍내 (-)	김량 (-)	
『기전영지』 (1894)	×	남문외	오산	-	-	
『수원군읍지』 (1899)	×	남문외 (4·9일)	오산 (3·8일)	-	-	
『조선산업지』 (1909년 조사)	문내 (門內 : 9일)	문외 (門外 : 4일)	오산 (3일)	×	김량 (5·10일)	풍덕천 (豐德川 : 1·6일)
『市街地の商圏』 (1923년 조사)	성내 (城內 : 9일)	성외 (城外 : 4일)	오산 (3·8일)	×	김량 (5·10일)	풍덕천 (休止)
『朝鮮の市場經濟』 (1926년 조사)	성내 (9일)	성외 (4일)	오산 (3·8일)	×	김량 (5·10일)	풍덕천 (1·6일)
『상공수산통계』 (1931년 조사)	성내 (9일)	성외 (4일)	오산 (3·8일)	×	김량 (5·10일)	풍덕천 (1·6일)
『朝鮮の市場』 (1938년 조사)	성내 (4·9일)	성외 (4·9일)	오산 (3·8일)	×	김량 (5·10일)	×
김성훈(1977) (1976년 조사)	상설시장화 (남문밖 4·9일장은 지속)		오산 (3·8일)	×	김량 (5·10일)	×

에 비하면 보완의 수준은 크게 떨어진다.

그러다가 1925년 을축년 대홍수로 송과장이 침수되면서 상로의 일부가 죽전으로 이어졌다. 이미 그 이전인 1905년에 경부선이 수원을 경유하고 이후 1930년에 개통한 수역선과 1937년에 개통한 수인선이 수원을 기점으로 삼으면서, 서해안의 소금을 비롯한 해산물과 여주 일원의 쌀이 수원을 경유하여 집산하는 등 물산의 경유지로서나 지역경제의 중심지로서 수원의 위치는 확고해졌다.

4. 철도교통과 장시체계의 변화



수원 장시체계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친 경부철도 노선(『대한전도』, 『경기도』)

수원은 경부선 건설로 역사 앞에 수원역장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하나 더 갖게 되었다. 『한국수산지(韓國水産誌)』에 따르면 일제 강점 바로 전해인 1909년 당시 수원역에서 1년간 쌀(약 1만 1,500t), 콩(大豆 : 약 450t), 조(苧 : 약 130t), 팥감(薪 : 약 1,000t), 석재(石材 : 약 500t), 목재(木材 : 약 150t)이 발송되었으며, 명태(明太 : 약 230t), 금건(金巾 : 약 270t), 술(酒類 : 약 170t), 석유(石油 : 약 250t), 가구(家具 : 약 300t), 목재(木材 : 약 470t) 등이 도착하였다고 한다.⁶

『조선철도연선시장일반(朝鮮鐵道沿線市場一斑)』에는 경부선 개통 이후인 1911년 수원 지역 수운 상황이 언급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빈정포에서 인천으로 사시사철 운항하는 배가 15척이

6 조선총독부 농상공부수산물국, 『한국수산지(韓國水産誌)』 제4권, 1910, 61쪽.

있으며 곡식을 200섬에서 500섬 정도를 실을 수 있다고 하였다. 배 운임은 인천까지 곡류 한 섬에 5전(錢), 마포까지 8전을 받았고, 시장에서 선착장까지 운반하는 데는 우마차 1대에 1원 80전, 소짐으로 45전, 짐꾼은 1리(4km)당 15전을,⁷ 그 밖에 용인·남양·양지·인천까지 각기 운임을 적어 놓은 것을 보면 육운을 통한 수원장의 포섭 범위가 매우 넓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1905년은 경부선이 개통된 해이다. 이전에는 장거리 대량운송을 거의 수운에 의존하였으나 철도가 개통되면서 수운과 철도라는 두 운송방식으로 나뉘게 되었다. 일제시기인 1911년부터는 신작로 개설 작업이 대대적으로 벌어졌고 그 영향으로 지역마다 우마차 사용빈도도 높아졌다.

경부선 개통 이후 수원장을 비롯하여 그 밖의 철로 주변 장시의 장세에 관해서는 앞서 언급한 『조선철도연선시장일반』이 참조된다. 이에 따르면 일제의 농장들은 대부분의 농산물을 수원장을 거쳐 서울과 인천 그리고 일본으로 보내는데, 1911년 한 해에 동양척식주식회사의 경우 벼 8,962섬과 콩 2,086섬을, 동산농장은 벼 6,800섬과 콩 1,285섬을, 그리고 국무농장은 벼 1,690섬과 콩 220섬을 철도편으로 보냈다. 수원 지역 내에서 시장에 모인 주요 곡물의 수량은 쌀이 6만 섬, 콩이 1만 1,353섬, 팥이 2,116섬이었다. 수원장에는 상설 상점들이 있었는데, 미곡상점이 12곳, 정미(精米)상점이 2곳, 잡화상점이 29곳, 직물상점이 4곳, 연초상점이 6곳, 우피상점이 3곳, 제지(製紙)상점이 1곳, 일본인이 운영하는 재목상(材木商)이 1곳이었다.

경부선은 경기도 서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수원 및 그 일대는 다른 지역에 비해 철도 개통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경부선은 서해안 해운의 상당 부분을 대체하는 효과를 가졌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변화도 살펴보아야 한다.

경부선은 시흥대로를 기반으로 수원을 경유하였고 이후에 생긴 수여선과 수인선 또한 수원을 매개로 인천과 내륙의 여주가 동서로 연결되면서 교통요지로서 수원의 우위는 확고해졌다. 이미 서울과 공주·전주를 연결하는 요충에 위치한 수원의 수원장은 인천 개항과 경부선 개통으로 더욱 번창하였다. 반면 경기 일대에서 가장 큰 장인 안성장도 경부선 운송과 연계되어 유통의 효과를 보아 거래액은 늘었지만 안성천의 수운 기반이 약해져 규모에서 수원장에 밀리게 되었다.

수원 남쪽으로는 오산장의 번영이 눈에 띈다. 수원장과 오산장을 잇는 장길은 역로와 크게 다르지 않아 경부선의 효과를 가장 많이 받았다. 수원장과 오산장은 근처 주민들에

7 조선총독부 철도국, 『조선철도연선시장일반(朝鮮鐵道沿線市場一斑)』, 1912.

게 물자를 공급하는 소매시장일 뿐만 아니라 용인, 이천, 여주, 그리고 안성, 양성, 죽산 등의 다른 장시에도 물자를 공급하는 도매시장으로도 기능하였다.

1913년경 수원의 장시는 경기 남부에서 최대의 거래량을 보였고 오산장 역시 가장 장시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 안성장도 비록 순위는 뒤집혔지만 규모가 커진 것은 분명하다. 이는 경부선 개통의 효과로 다른 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철도역에 위치한 장시가 급성장하는 현상을 보인 것이다. 이러한 효과로 성장한 수원장, 오산장 및 안성장은 철도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장시와의 관계에서 한 단계 높은 위치에 서게 된다. 여기에 신작로 개설이 가해지면서 철도역 주변 장시들의 중심지적 성격은 더욱 강화되었다.

1920년에 간행된 『치수급수리답사서(治水及水利踏査書)』(조선총독부 관방토목부)와 1929년에 간행된 『조선하천조사서(朝鮮河川調査書)』(조선총독부)는 1910년대 이후의 물자유통 상황을 기록해 놓았는데, 그중 각 역에 모이는 물자의 출처에 대한 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수원역으로 유입되는 곡류·우피(牛皮)·엽랑(葉蔴)의 산지로 용인·양지 그리고 남양 등이 나오는데, 이천 지역이 빠져 있는 것을 보면 여전히 물자유통은 철도와 수운의 두 수단이 지역경계를 이를 정도로 구분되어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오산역의 경우 미(米), 대두(大豆), 기타 잡곡의 유입처로 수원, 양성, 안성, 용인, 진위군 각지가 언급되어 있는데, 이 기록에도 이천 지역과의 유통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변화가 수원장의 성장에 도움을 준 것은 아니다. 평택역의 경우 죽산이나 진천 등지에서 안성시장으로 모인 물자 중에는 이 역을 통해 서울과 지방으로 유출되기도 한다. 즉 안성에서 수원으로 연결되던 유통라인 중 일부가 평택 쪽으로 빠져나간 것이다.

1927년 9월 15일에는 천안에서 장호원까지 연결되는 사설 철도(私設鐵道)가 개통되었는데, 이 철도는 1931년 12월 1일에 전 구간 개통되는 수여선과



1920년대 초반 시장의 발달(조선총독부, 『朝鮮の市場』, 1924) ▲표는 20만 이상의 큰 시장을 의미하는데, 경부선을 따라 수원장과 오산장 등이 성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함께 경부선과 연결되어 주로 남한강 유역에서 생산되는 곡물을 일본으로 수출하는 역할을 하였다. 경부선의 개통과 남한강 수운의 쇠퇴는 여주와 이천 등 남한강 아래 지역의 유통체계에 타격을 주었지만, 수여선 부설로 다시 활로를 찾게 되었다. 특히 이전에 물길이 잘 닿던 여주보다 그렇지 못했던 이천이 수여선 철도를 타고 수원장의 영향권으로 들어가면서 경제규모에서 오히려 여주를 앞서게 되었다.



미국 집산지 수원역 주변의 우마차들(조선총독부, 『생활상태조사 - 수원군』, 1929)

이와 같이 천안-장호원 간, 수원-여주 간 철도가 개통됨으로써 특히 타격을 받은 부분은 수운, 특히 남한강을 이용한 유통구조이다. 이들 노선의 개통으로 철도가 유출 부분에서 여주·이천 남쪽 지역의 대부분을 장악하게 되었고, 유입 부분에서는 경부선 역 장시들을 통하지 않고 직접 들어오게 됨에 따라 수원장, 오산장, 그리고 안성장의 중심지적 위치가 흔들리게 되었다. 또한 이들 노선의 개통과 함께 모든 지역이 한나절 유통권에 들어오게 되면서 위의 3개 장은 중심지적 위치를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일제 중반 이후로는 주요 간선도로에 승합자동차가 운행되었다. 1929년에 발간된 『생활상태조사(生活狀態調査) 기일(其一) 수원군』을 보면 현재 수원 신평동에서 발안까지 승합자동차가 하루 1회 왕복하였는데, 편도로 1시간 30여 분이 걸렸고 요금은 1원(圓) 70전(錢)이었으며 주요 경과 지역은 매산리와 상리였다. 지금도 이 일대의 나이 많은 주민들은 일제 말엽에 수원으로 통학하기 위해서 혹은 장에 가기 위해 목탄차를 탔던 기억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수원과 발안 사이의 건달산을 오를 때 승객 모두 하차하여 차를 밀어 올렸던 추억을 말하기도 한다.

이 길은 1979년에 삽교천 방조제가 생기면서 국도 39호선과 연결되어 안중을 거쳐 충청남도 아산과 당진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특히 경부고속도로가 생기기 전에 당진에 이르기 위해서는 평택 포승면의 만호나루를 건너야 했으므로 만호나루부터는 안중을 거치지 않고 청북면의 덕우리와 옥길리로 이어지는 지름길을 이용하여 발안에 도착하였다. 발안이 나름대로 지역의 중심지인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발안장을 가운데 두



1920년대 수원장(조선총독부, 『생활상태조사 - 수원군』, 1929) 사진 속의 장터는 현재 팔달문시장이 자리한 곳이다.

고 조암장과 오산장을 잇는 지방도 82호선도 이 일대의 교통망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는 특히 우시장이 번성했을 때인 1970년대에 이 일대의 소 매매가 오산으로 집결하는 배경이 되었다.

천안과 장호원을 연결하는 사설철도는 천안에서 출발하면 직산-고지-미양-안성-죽산-주천-장호원에 이른다. 철도는 조선경동철도주식회사(朝鮮京東鐵道株式會社)가 건설하였다. 1930년대에 들어서면 조치원-충주 간 노선이 보완되어 충청북도 북부와 경기 남부의 지역들이 화차(貨車)를 통한 화물운송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 이는 그만큼 수원장이나 안성장 등이 갖는 중심적인 위치가 약화되어 감을 뜻한다.

이천과 여주 지역에서 장호원선이 담당했던 운송은 조선경동철도주식회사에서 수여선을 부설하면서 역할이 옮겨지게 되었다. 수여선을 경과하는 역은 다음과 같다.

본수원(本水原) - 원천(遠川) - 덕곡(德谷) - 신갈(新葛) - 어정(漁汀) - 삼가(三街) - 용인(龍仁) - 마평(麻坪) - 양지(陽智) - 재일(齋日) - 오천(午川) - 표교(標橋) - 유산(酉山) - 이천(利川) - 무촌(茂村) - 죽당(竹堂) - 매류(梅柳) - 신대(新岱) - 여주(驪州)

수여선은 1931년 12월 7일 총연장 73.4km의 전 구간이 개통되어 남한강 하류 지역의 물자 유통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 결과 수여선을 통해 집하된 쌀 등 곡물의 대부분은 경부선을 통해 서울, 인천, 일본, 만주 등으로 유출되었다. 물자 유입 측면에서도 경부선에서 수여선으로 옮겨 현지로 가기도 하였지만 수원역에서 바로 발송되는 경우도 있어 이를 모두를 합치면 이전에 수운으로 움직이던 물동량을 모두 합한 양이 되었다.

그러나 수원역이 중개역할을 하는 동안 수원장 자체의 역할은 오히려 줄어 예전의 중심성은 더 위축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즉 철도역 부근에 위치한 장의 이점이 점점 사라져 감을 의미한다. 1930년대에 들어서 조치원선, 장호원선, 수여선 등의 노선이 생기게 되었다는 사실은 결국 그 영향을 골고루 받아 거의 모든 지역들이 장거리 유통과 관련한 접근성의 불균등성이 해소되어 갔음을 의미하였다.

수인선은 경기만(京畿灣)의 소래(蘇來)·남동(南洞)·군자(君子) 등의 염전지대에서 생산되는 소금을 수송할 목적으로 1935년 9월 23일에 착공하였으며 1937년 8월 6일에 총연장 52km의 철로가 완공되었다. 수여선과 마찬가지로 조선경동철도주식회사의 사설철도로 건설되었으며, 수원장의 중심성을 높여 주는 변수가 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주 등지의 곡물과 염전지대의 소금이 수원을 거치지 않고 직거래되는 측면도 있어 긍정적으로만 작용한 것은 아니었다.

해방 이후인 1946년 5월 10일에 사설철도 및 부대사업 일체에 대한 국유화 조치로 이것들도 다른 사설철도와 함께 국유화되었다. 이 당시는 미곡수송의 의미도 많이 사라졌다. 1970년대 이후 각 노선들의 경제성이 크게 낮아지면서 수여선은 1972년 3월에 폐선되었고 수인선도 1977년부터 화물운송이 중단되었다.



정승모 전 지역문화연구소 이사장

1. 시전과 정기시장의 변화
2. 일본인의 상권 장악과 상점 분포



제2장

일제하 수원의 상업과 상권 변화

1. 시전과 정기시장의 변화

수원 주민들이 최근까지 관내에서 이용해 온 대표적인 시장은 북수동시장과 영동시장이다. 북수동시장은 주로 우시장으로만 기억되고 있으나 성안시장 또는 남문안시장 등으로도 부른다. 영동시장은 성밖시장 또는 남문밖시장 등의 이칭이 있다. 이러한 이칭의 역사는 화성이 건설된 18세기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새 읍치 수원의 상업시설로는 서울처럼 상설점포인 시전(市廛) 상가가 있고 반영구적인 가가(假家) 상가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다른 읍치처럼 읍내시장으로 정기 시장이 있었는데, 화성 4개 대문 중 북문과 남문 밖에 각기 5일에 한 번씩 번갈아 열려 10일에 네 번 서는 읍내장을 구성하였다. 그러다가 19세기 중후반에 북문밖장이 소멸되었다. 『수원부읍지(水原府邑誌)』(『기전영지』, 1894)에는 장시로 남문외장을 언급하면서 남쪽 암문(暗門) 밖에 있다고 하였다. 1904년에 성안장, 즉 남문안장이 새로 신설되었다. 이로써 수원장은 성안장과 성밖장으로 나뉘어 번갈아 개시되었으며 성안장은 매달 9일, 19일, 29일에, 성밖장은 4일, 14일, 24일에 장이 섰다.¹



광목과 짚신 등의 생활 집회를 파는 수원의 상점(헤르만 산더, 1906년,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장 주변은 둔토로 운영되던 넓은 논이 있어 이곳에서 농산물과 북쪽 석산(石山)에서 채취한 양질의 석재, 그리고 주변 장에서 모인 소와 각종 물자 등이 장에 나온다. 수원 주변 지역 장시에서는 쌀·어염·소·채소·담배 등의 집산과 교역량이 많았다. 수원장에는 남양만에서 생산되는 어염과 수원 및 주변 농촌지역에서 수확된 쌀이 모여 거래되면서 염상(鹽商)과 미상(米商)의 거래가 더욱 활기를 띠었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교역 중심지로서의 상황은 일제시기에도 이어졌다.

1912년에 작성된 『조선철도연선시장일반(朝鮮鐵道沿線市場一斑)』(조선총독부 철도국 편)에 의하면 1911년 10월 장날 하루 평균거래액은 2만 원(圓)으로 조선 3대 시장으로 일컫는 안성장의 1만 5,000원보다 많았다. 부근에 동양척식주식회사 출장소, 동산농장(東山農場) 그리고 국무농장(國武農場) 등 일본인 농장이 들어선 것은 수원역과 함께 수원장의 장세(場勢) 형성에 변수가 되었다.

젠쇼 에이스케(善生永助)가 1929년에 낸 『朝鮮の市場經濟』에서도 1909년 당시의 성내 시장(城內市場)의 현황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일제시기의 성안장은 시전을 이

1 한동민, 『수원을 걷는다—근대 수원 읽기』, 수원박물관, 2012.

〈표 1〉 일제시기 수원장 및 오산장 매매 규모²

시장명	소재지	연도	개시 횟수	1개년 매매고(圓)						개시일
				농산물	수산물	직물(織物)	축류(畜類)	기타	계	
수원 성내시 (城內市)	수원면 북수리	1909							288,900	9
		1923	37	39,410	530	5,050	373,500	46,380	464,870	9
		1926	28	47,625	8,310	35,900	195,150	121,186	408,171	9
		1938							1,323,355	
수원 성외시 (城外市)	수원면 산루리	1923	37	41,100	510	5,210	270,890	45,980	363,690	4
		1926	28	68,701	11,375	48,120	227,824	147,402	503,422	4
		1938							329,859	
오산시 (烏山市)	성호면 오산리	1923	72	23,300	3,850	17,110	148,520	19,870	212,650	3·8
		1926	72	18,258	2,320	5,468	187,404	25,114	238,564	3·8
		1938							913,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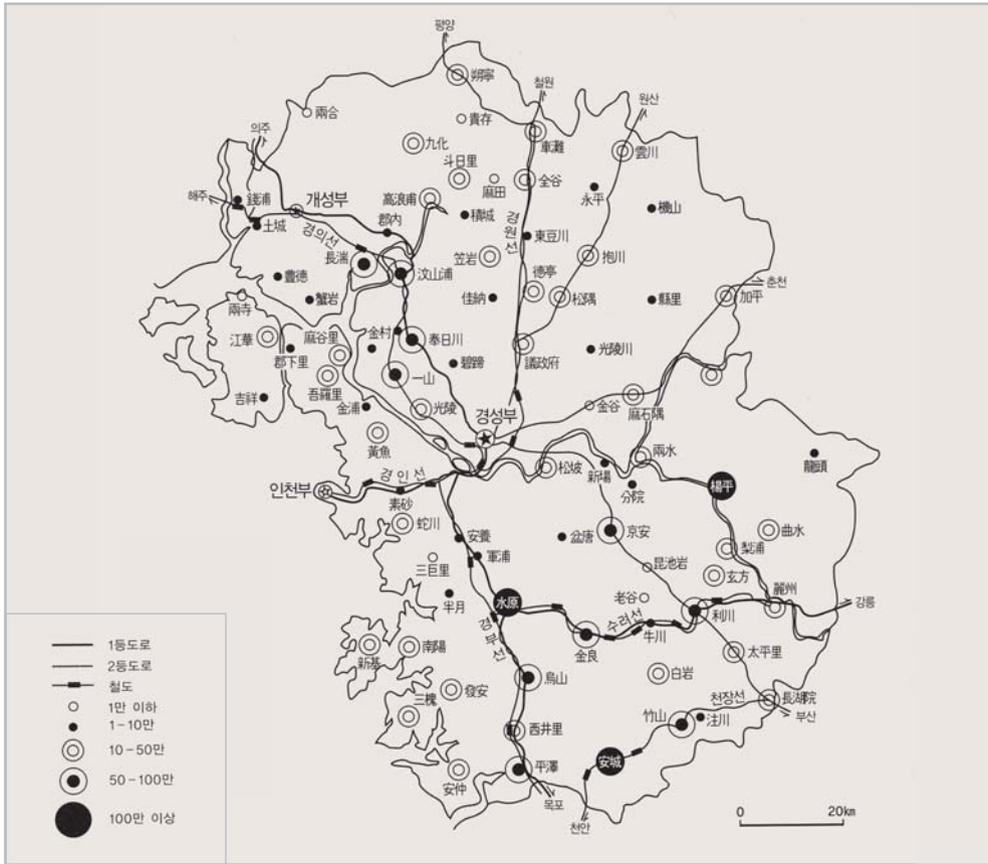
어 받아 뒤늦게 신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급격히 성장하여 1926년에는 성밖장을 압도할 정도가 되었다고 한다. 1909~1938년 수원장과 바로 이웃한 오산장의 매매 규모 변화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에서 특히 수원 성안장의 성장이 주목되는데, 1909년에서 1923년 사이에 약 1.6배 성장한 데 이어서, 1938년에는 약 4.6배로 거래 규모가 커짐을 확인할 수 있다. 오산장의 경우도 1923년에서 1938년 사이에 약 4.3배의 신장세를 보였다. 반면 이 시기 김량장은 1923년에 이미 연 20만 원 이상이 거래되는 주요 시장에 속하지 못했고, 1926년에도 주요 시장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 1938년의 경우 김량장의 연 거래량은 51만 3,276원으로 수원 성안장의 40%를 넘지 못하였다.³

성안장은 수원 동쪽 인근 지역에서도 이용하였다. 수원 동쪽으로는 한때 수원장보다 규모가 컸던 용인 김량장이 개설되어 있었다. 두 장시를 연결하는 길은 현재의 국도 42호선과 거의 일치하는데, 동수원사거리부터 용인시 경계까지의 구간은 과거 수여선 철로가 국도와 나란히 놓여 있었다. 성북리, 신봉리 등 길마재와 연결되어 있는 용인 주민들은 수원의 문안장, 즉 성안장을 주로 이용하였다. 신봉리에서 수원장을 출입하는 장길은 맨몸 또는 지게를 지고 가는 길과 소나 우마차를 끌고 가는 길이 달랐다. 소나 우마차로 가는 길은 대체로 현재의 국도와 일치하는 신작로를 따라서였다. 그러나 단신으로 가는 장길

² 1923년은 조선총독부, 『市街地の商圖』, 1926, 423쪽; 1926년은 善生永助, 『朝鮮の市場經濟』, 1929, 313쪽; 1938년은 文定昌, 『朝鮮の市場』, 1941, 244~245쪽 참조.

³ 文定昌, 『朝鮮の市場』, 1941, 244~255쪽.



1930년대 경기도 장시 분포도(수원상공회의소, 『수원상공회의소 100년사』, 2008)

은 신봉리 → 도마치고개 → 성북리 → 버들치고개 → 이의리 성죽골 → 전나무재(가재울 고개, 현 경기대학교 옆) → 뒷고개(현 경기도경찰청) → 모골 → 동문으로 들어가는 길을 택한다.

과거 남양 시장권에 있던 남양읍이나 비봉면에서 수원장으로 가는 장길은 같은 면 삼화리 샛굴(이화동) → 구포리 검다지(능새) → 매송면 어천리 → 같은 면 천천리 →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오목내 → 같은 구 고색동 고색이 → 팔달문(남문) 앞으로 갔다. 수원장으로 가는 길에는 여러 곳에 주막이 있었는데, 순서대로 보면 구포리 검다지 주막, 매송면 숙곡리 장승재 주막, 매송면 어천리 주막, 매송면 원평리 원뜰 주막, 매송면 천천리 샘내 주막, 수원시 오목천동 오목내 쉼터, 고색동 큰말 주막 등이다.

성밖장 또는 성외시장은 수원 주민들에게는 영동시장이란 이름으로 더욱 친숙하다. 남

문외장 또는 남문박장이라고도 부른다. 앞서의 『수원부읍지』(『기전영지』, 1894) 장시조(場市條)를 보면 남문외장은 성 남쪽 암문(暗門) 밖에 있고 세람장(細藍場)은 남쪽으로 30리 떨어진 안녕면(安寧面)에 있다고 하였다.

성박장은 일제가 임의로 만든 「시장규칙」에 의해 1919년 1월에 성외시장이란 이름으로 등록되었다. 1924년에 성외시장의 1년 거래액은 50만 3,422원(圓), 성내가 40만 8,171원이던 것이, 1926년에는 1일 매출고가 성외 2만 2,000원, 성내 2만 원이라는 차이가 있으나, 1시(市) 평균 출장수(상인)와 구매수(소비자)는 오히려 증가하였다. 그리고 수원의 시장뿐 아니라 당시 지방장의 특징은 구매자보다 상인수가 많아졌다는 사실이다. 상인이 최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가 증가된 것은 열악해진 경제력 속에서도 활성화된 장의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또한 시장에는 많은 행상(行商)이 활동하였는데 1928년 행상 현황은 <표 2>와 같다.

<표 2> 1928년 수원군 내 시장 행상인 현황⁴

(단위 : 명)

시장명	해산물	곡물류	가축류	직물 및 사류 (絲類)	잡화	기타	계
성내	39	59	10	80	194	133	515
성외	41	63	10	83	196	137	530
오산	32	60	10	40	80	106	328
반월	2	5		5	5	8	25
남양	10	15	10	5	30	20	90
신기	10	15	10	10	20	25	90
발안	15	20	20	15	30	20	120
계	149	237	70	238	555	449	1,698

『朝鮮の市場經濟』에 따르면 1923년 당시 성박장에서는 도소매를 함께했다고 한다. 수원 남쪽에 사는 인근 주민들에 의하면 수원장을 이용하는 경우 남문까지는 가지 않고, 매교동에서부터 남문장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부근에서 장을 봤다고 한다. 장에 갈 때는 열무나 나물 같은 것을 들고 가서 돈으로 바꾸는데, 소나 콩 같은 곡식을 파는 경우는 성안장에 가야 제값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성안장까지 갔다. 또한 옷이나 약 종류가 저렴했기 때문에 이러한 종류의 물건을 살 때에도 성안장을 들렀다.

수원 서남쪽 지역에서도 주로 남문장, 즉 성박장을 많이 다녔다. 발안장(5·10일)까지

4 조선총독부, 『生活狀態調査(其一) 水原郡』, 조사자료 28집, 1929.



조선인 노점상(조선총독부, 『생활상태조사 - 수원군』, 1929)



1920년대 수원장날 풍경(조선총독부, 『생활상태조사 - 수원군』, 1929)

는 20리 거리이지만 시골장이어서 “물건이 없는 게 많았고 오히려 장사꾼이 와서 사가는 것이 많았다.”고 한다. 수원 남문장까지는 40리로 현 43번 도로가 대체로 옛길에 해당한다. 곡식을 팔 때도 당연히 이 장을 이용하였다. 주로 쌀, 보리, 콩 등을 가지고 갔는데 보통 곡식 닷 말은 짊어지고 갈 수 있었다고 한다. 땀감도 소에 싣고 수원으로 가지고 갔는데 장까지 가지 않고 길 가다가 살 사람을 만나는 대로 팔았다.

수원 나무전 또는 나무장은 현재 남문을 복개한 자리에 있는 전기회사 다리 근처에 있었으며 매일 열렸다. 사람들이 와서 땀나무를 보고 흥정을 하면 집까지 나무를 갖다 주었다. 나무전에 도착하기 전에 사겠다는 사람을 만나면 그 자리에서 팔기도 하였다. 한 지게에 나무 한 동을 실었다. 대개 땀나무 장사는 음력 10월부터 시작해서 이듬해 2월까지 했다. 장에 가지 않는 날에 나무를 장만하였다가 장에는 지게에 지고 가거나 우마차가

있는 사람은 마차로 싣고 갔다. 이러한 상황은 일제강점기 때나 해방 이후나 마찬가지였다고 한다.

채소장사는 더러 남자들도 하였지만 주로 여자들 몫이었다. 대부분 직접 밭일을 해서 거기서 나온 배추 등 채소들을 ‘미나리광시장’에 내다 팔았다. 이 시장은 매일 여는 시장으로 영동시장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그 주변의 편편한 곳에 자리한 노상시장을 의미한다. 주변에 미나리가 많이 났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으로 중년 여자들이 일렬로 앉아 장사를 하였다.

용인 등 수원 동쪽에서 미나리광시장으로 가려면 숙청골, 형미소(형무소)고개, 아리랑 고개 등을 넘어가야 했는데, 지금은 그 고개가 다 알아졌지만 예전에는 몹시 높고 험했으며 형무소고개는 어느새 없어졌다. 아침에 장에 갔다가 물건을 못 팔면 저녁까지 있다가 날이 저물어서야 돌아오는 길이었다. 광주리에 이고 가기 때문에 많이 못 가지고 가지만 보리쌀 두어 말 값은 벌어들일 수 있었다.

동탄 일대에서는 오산장과 수원장을 모두 많이 이용하지만 둘 중에 더 많이 이용하는 곳은 수원장이다. 거리로 따지면 수원이 30리, 오산이 20리인데도 수원장에 더 많이 가는 이유는 비료를 사거나 곡식을 팔려면 수원이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오산에도 싸전이 있고 수원에도 싸전이 있지만 오산의 싸전에서 사들여서 수원에 가서 팔아도 이문이 남는다는 것이다.

2. 일본인의 상권 장악과 상점 분포

도시는 산에 의해 외곽의 형태가 결정되고 하천에 의해 시가지가 자리하는 경향을 갖는다. 화성은 팔달산을 주산으로 동쪽으로 야트막한 산이 있어 안산을 이루고, 광고산에서 내려오는 광고천이 북에서 남으로 흐르면서 만든 남과 북의 분지를 시가지로, 남북대로를 주생활축으로 삼고 있다.

이와 같이 자연지형을 따라 입지를 조성한 결과 팔달산 동사면으로 행궁과 관아가 들어서고 관아 우측으로 양반주택이, 좌측으로 서민주택과 시장이 자리하였다. 이 동서축과 앞서의 남북축은 행궁 앞에서 종로 십자로를 이루는데, 여기에 시전과 같은 주요 상업 시설을 배치하였다. 다음은 『수원부읍지』(1792년)에 실린 시전의 위치인데, 십자로의 서쪽에 관아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시전은 다음과 같이 동쪽, 남쪽, 북쪽으로 각기 배치되었다.

- 입색전(立色廛): 관문 밖 도로 북쪽
- 어물전(魚物廛): 입색전과 방으로 통하는 곳에 위치
- 목포전(木布廛): 관문 밖 도로 남쪽
- 미곡전(米穀廛): 관문 밖 도로 동쪽
- 유철전(鎗鐵廛): 북리(北里) 부근
- 관곽전(棺槨廛): 미곡전과 통하는 곳에 위치
- 지혜전(紙鞋廛): 관곽전 아래 위치



팔달문 주변 성 안의 일본인 상점들(서울대학교박물관 소장)



1920년대 성 안의 상점가(조선총독부, 『생활상태조사 - 수원군』, 1929)

『화성성역의궤』 1794년 3월 4일자에는 남북의 성지(城址) 및 개울을 뚫고 길을 내기 위해 그곳에 범입해 있는 가사(家舍)와 전답(田畝)을 사들이는 비용을 마련하는 일과 관련하여 품(稟)을 올리는 기사가 실려 있다. 그중 남리(南里) 구역에 혜전(鞋塵)을 설치할 목적으로 5칸 기와집을 사기 위해 75냥을, 유문전(栖文塵)용으로 기와집 3칸 값 45냥과 초가 5칸 값 15냥을, 그리고 싸전(米塵)용으로 기와집 5칸 값 75냥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다. 즉 이 돈은 기존 가옥을 시전 상점으로 바꾸기 위한 보상비라고 할 수 있다.

시전 건물은 서울시전의 경우와 유사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대부분이 4~5칸 기와집이고 초가가 섞여 있었을 것이며, 도로에 접한 전면은 관벽이나 여단이 관장문을 달아 판매품을 전시하고 기둥을 높이 세워 다락을 만들고 점포 뒤에는 살림채를 두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일제 초기 수원의 시가(市街) 사진에서 볼 수 있듯

이 초가로 된 가가(假家)가 기존 점포 앞에 설치되었다.

한말에서 일제에 걸쳐 사진기가 담은 수원 근대 모습들을 보면 위와 같은 조선시대 수원시전을 찾기는 힘들고, 대신 일본인들이 차지한 팔달문 안팎의 상가 전경이 대부분이어서 아쉽다. 1920년대 사진을 통해 팔달문 안의 상가 상점들을 보면 화윤재봉점(華潤裁縫店), 청광당서점(淸光堂書店), 나카지마기쿠상점(中島キク商店), 간자키고후쿠점(神崎呉服店) 등의 간판을 단 일본인 상점들이 있고, 상구사(喪具師)라는 간판도 보인다. 한국인 상점인 듯한 대륙(大陸)고무라는 간판이 보이고 화흥원(和興園)이라는 중화요리점도

있다.

팔달문 밖 전경은 전봇대가 있고 마쓰나가약방(松永藥房), 인단(仁丹)이나 액체 치통약인 곤지수이(今治水)라고 쓴 간판을 단 일본인 약방과 상점들, 그리고 인력거와 인력거꾼들이 보인다. 1911년에 찍은 노르베르트 베버 사진에는 제부환(濟扶丸), 인단 등의 간판을 건 상점들이 보인다.

1929년 즈음에 팔달문의 남용성이 철거되면서 이 일대 시가의 모습도 크게 변한다. 그러나 자료사진이 많지 않아 태창상점(泰昌商店) 정도가 눈에 띈다. 수원의 야시장은 1934년에 처음 생겼으며, 김형기와 일본인 에구치 모리오(江口守夫) 등 10여 명이 설립하였다고 한다. 이들은 수원시 당국과 교섭한 끝에 팔달문 밖에서부터 수원극장(水原劇場) 앞까지의 대로변에 70~80개의 간이점포를 마련하였다.

이처럼 수원 상권은 경부선 수원역이 생기면서 많은 부분이 역 쪽으로 옮겨졌는데 역전거리 상권은 주로 일본인들이 장악하였다.

상계(商界)에는 아직까지 우리에게 상권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다른 곳에 비하여서) 근년에 와서는 차츰차츰 일본 사람에게도 옮겨가는 영적(影蹟)이 보이는 것 같으니 수원 시내만 볼지라도 일본 사람들이 많이 사는 역에서부터 남문 외까지에 날로 번성하여 가는 것과 조선 사람들이 많이 사는 종로 일대가 날로 쓸쓸해 가는 것으로만 보아도 많이 그렇다고 부인치는 못하겠다.⁵



1911년 팔달문 밖 거리 풍경(노르베르트 베버,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서 : 한국에 대한 기행문』, 세이텔출판사, 1915)



1930년대 팔달문 밖 거리 풍경(수원박물관 소장) '仁丹', '今治水'라는 간판을 내건 일본인 약방과 인력거가 눈에 띈다.

특히 일본정부는 식민통치 기간 여러 가지 이권사업을 규제하였는데 이를 통해 이주일본인들은 건축토목업·양잠업·제지업·정미업 등에 집중하였다. 또한 일본인들은 근대적 회사를 설립하여 수원의 상권을 장악하였다. 1920년대 수원의 상권을 장악한 일본인의 주요 상공업 현황은 <표 3>과 같다.

<표 3> 1920년대 수원 지역 일본인 상공업자 현황⁶

상점명	주요 사업 또는 취급품	소재지	점주	비고
이다상점(飯田商店)	면류 제조 판매	성내 본정	이다 분타로(飯田文太郎)	
이소자키상점(磯崎商店)	잡화	수원역전		
이마무라상점(今村商店)	모자, 메리아스, 초자, 잡화	남문 앞	이마무라 우타로(今村卯太郎)	
이로하(いろは)	고급음식점	성내 중정		
하라다신문점(原田新聞店)	각국 신문 보급	수원역전		
백양사(白洋舎)	우유	성내 본정		
박다옥(博多屋)	고급 요리점	성내 본정		
호소카와상점(細川商店)	수원역 구내 판매	소학교 앞	호소카와 오카노스케(細川岡之助)	오자키도수원부(尾崎桃樹園部) 운영
토월(吐月)	고급 음식점	성내 본정		
파상회(巴商會)	양복	수원역전	요시우라 히데노부(吉浦英信)	
도이자동차부(土肥自動車部)	승합자동차	수원역전		
오자키상점(尾崎商店)	신탄, 연탄, 과수	수원역전	오자키 히데하치(尾崎秀八)	
오카모토시계점(岡本時計店)	각국 시계	수원역전	오카모토 기헤이(岡本喜平)	
오노상점(大野商店)	재목상, 건축청부	수원역전	오노 마사이치(大野政市)	
와키다상점(脇田商店)	잡화, 화장품, 식료품 등	성내 중정	와키다 고지(脇田光二)	
가야마상점(香山商店)	종묘, 과수	소학교 앞		
가모게다점(加茂下駄店)	이물일식	성내 본정		
화화성관(花華城館)	여관	수원역전		
가모약점(加茂藥店)	매약, 화장품	성내 본정		
간자키상점(神崎商店)	양복	성내 중정	간자키 유사요시(神崎房吉)	
다케시타상점(竹下商店)	쌀, 잡곡, 무역	남문 앞	다케시타 헤이사부로(竹下平三郎)	
다카기상점(高木商店)	농잡구, 과수, 양계 등	남문 앞	다카기 도쿠지(高木徳治)	
다니구치소간물점(谷口小間物店)	소모품	성내 본정		
요리오카 류조(頼岡龍藏)	건축, 청부	성내 본정	요리오카 류조(頼岡龍藏)	
요리오카 지쓰이치(頼岡實一)	토목건축, 청부	성내 본정	요리오카 지쓰이치(頼岡實一)	
소에지마상점(副島商店)	도자기	성내 중각		
무라카미구미(村上組)	토목건축, 청부	수원역전	무라카미 히사이치(村上久一)	

5 「정차장 근처부터 일인이 잠식, 대오를 요할 우리」, 『동아일보』, 1927년 1월 14일.

6 酒井政之助, 『水原』, 酒井出版部, 1923.

상점명	주요 사업 또는 취급품	소재지	점주	비고
무사시노(武藏野)	고급 음식점	남문밖시장		
노나카상점(野中商店)	총포, 화약	남문 앞	노나카 스에요시(野中末吉)	
고츠나상회(忽那商會)	소 매매	남문밖시장	구쓰나 신파치(忽那新八)	
아마자키오복점(山崎呉服店)	양복	성내 본정		
아나다상회(梁田商會)	각국 자동차	성내 본정		
아마모토여관(山本旅館)	여관	수원역전	게쓰레게(桀レゲ)	
마루미즈운송조(丸水運送組)	운송	역전		
마쓰나기약국(松永藥局)	각종 약조제	남문 앞	마쓰나가(松永壽作)	
부사정(富士亭)	고급 음식점	성내 풍창정	사사다 유키(笹田ユキ)	
부국원(富國園)	종묘, 비료, 농잠구, 농산물 등 매매	수원역전	기타자와 쇼하치로(北澤小八郎)	농학사 잠업부 및 일본 나가노현(長野縣)에 출장소 설치
곤도상점인쇄소(近藤商店印刷所)	종이, 인쇄, 활판	성내 본정		
데라사와상회(寺澤商會)	미국, 잡곡 무역 등	수원역전	데라사와 스테사부로(寺澤善三郎)	데라나와과수원(寺澤果樹園) 운영
아오키여관(青木旅館)	여관	성내 본정		
아오키상회(青木商會)	미국 무역, 정미	수원역전		
사카테상회(坂手商會)	석탄 등 연료 일체	남문 앞	사카테 주사부로(坂手重三郎)	1910년 1대는 가마니 제작 기계 판매
산요여관(山陽旅館)	여관	성내 본정	마치다(町田代友章)	
화성관(華城館)	숙박업	수원역전	모리나가 헤나(守永ヘナ)	
사누키상회(讃岐商會)	정미	역전 앞	이가와 고타로(井川好太郎)	
기쿠노야상점(喜久野屋商店)	잡화	교동(校洞)학교 앞	기쿠 노야(喜久野屋)	
기타무리양복점(喜多村洋服店)	양복 및 부속품	성내 중정	기타무리 다다시(喜多村忠)	
미야자키재목점(宮崎材木店)	재목, 연료	학교 전통(前通)	미야자키 조고로(宮崎長五郎)	
히후미(一二三)	고급 음식점	성내 중정	가노 사이(加納サ イ)	
히라다상점(平田商店)	잡화, 종계, 종돈	성내 중정		
청광당서점(淸光堂書店)	서적, 잡지, 문방구	성내 본정	에구치 모리오(江口守夫)	
수원물산상회(水原物産商會)	내외 잡화, 해산물 등	남대문 앞		
취향원(淸香園)	고급 음식점	역전		
수월당(水月堂)	과자	역전		
수에히로(末廣)	고급 음식점	성내 중정		
수원인쇄회사(水原印刷會社)	각종 활판, 인쇄	학교 앞		
수원상사주식회사(水原商事株式會社)	승입, 운송, 창고업 기타	수원역전		금융 화재보험 등
수원사진관(水原寫眞館)	사진	성내 본정		
수원연초원매팔조합(水原煙草元賣捌組合)	관제 연초	남대문 앞		경기도 내 오산 평택 등 13개 영업소 운영
수원양조합자회사(水原釀造合資會社)	양조	성내시장	우에하라 로쿠로(上原陸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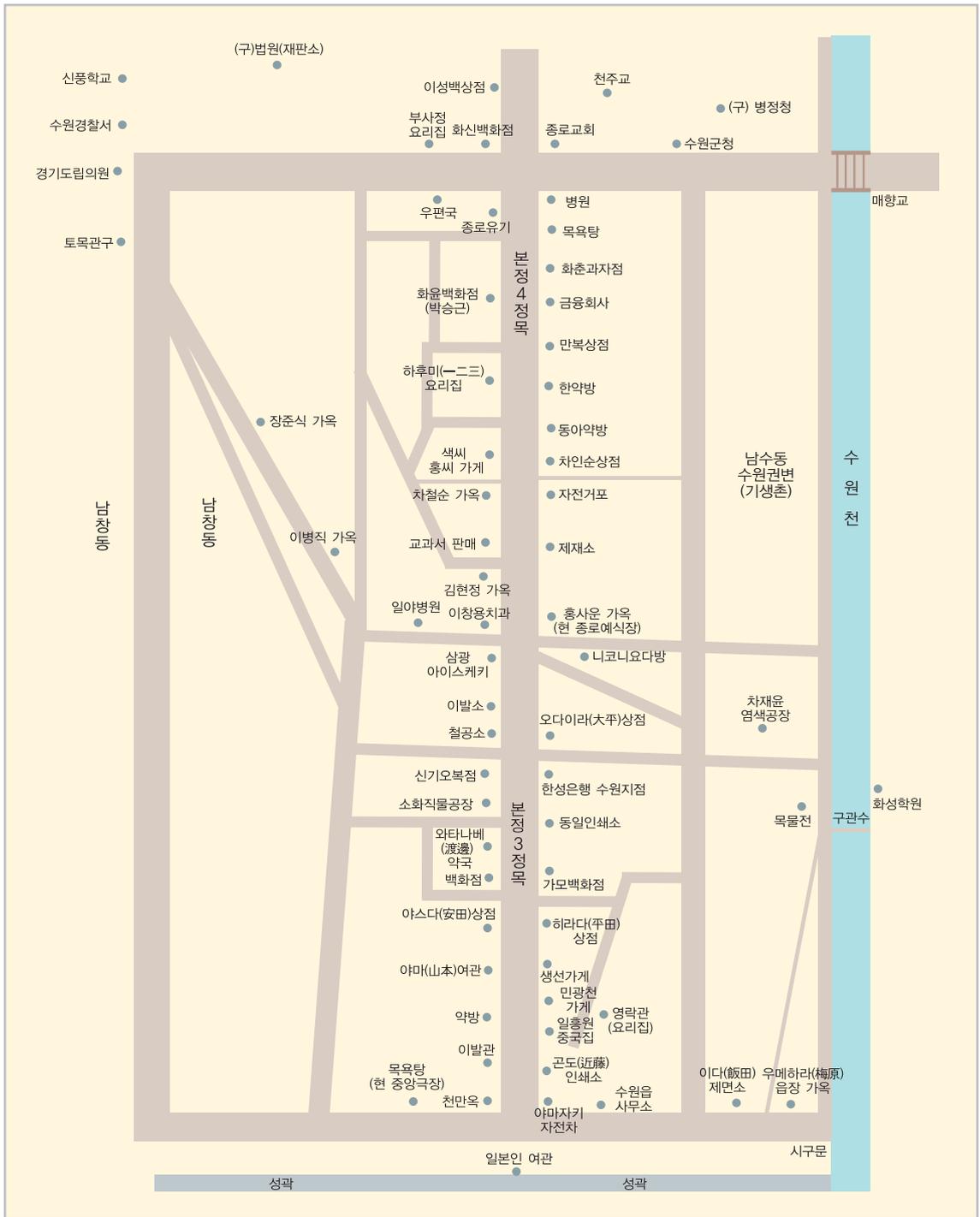
상점명	주요 사업 또는 취급품	소재지	점주	비고
수원전기주식회사 (水原電氣株式會社)	전등, 전기구 보급	신루리		
내국통운주식회사취인점 (內國通運株式會社取引店)	운수	수원역전	다카시마 스에히코(高島未彦)	
원세포소(原洗布所)	세탁	성내 풍창정 (豊昌町)		
세나다자전차상회 (セナダ自轉車商會)	자전거 판매	수원 성내		

활발한 일본인의 상권에 비해 조선인의 상권은 ‘별무(別無)’라고 할 정도로 크게 위축되었다. 1926년 당시 조선인의 상권은 “가장 발전성(發展性)이 있을 것 같으면서도 가장 미약(微弱)하며 예전에 비하여 퇴보(退步)한 듯하다.”⁷고 지적하고 있다. 즉 조선인의 상업활동으로는 수원곡물협회(水原穀物協會)를 비롯하여 9개의 곡물도매상회(穀物都賣商會), 안영순(安永舜) 외 5개의 해륙물산객주업(海陸物産客主業), 차남순(車南舜)의 포목도매상(布木都賣商)인 수원상회(水原商會), 이경의(李敬儀) 등 수십 개의 주단포목점(綢緞布木店), 박선대(朴善泰)의 상신상회(相信商會)와 김병호(金炳浩)의 한영상회(韓永商會) 등의 잡화상, 박일룡(朴一龍)이 경영하는 인쇄소 1개, 10여 대의 중앙자동차상회(中央自動車商會)와 합자회사 시내자동차상회(市内自動車商會) 정도였다. 그리고 이처럼 조선인의 상권이 발달하지 못한 원인에 대해서는 “조선인 상인의 보수성과 개인주의 그리고 교통 등 주변의 환경”에서 기인한다고 보았으며, 특히 조선인 상인이 일본인 상인보다 사업성에서 뒤떨어진다고 말하고 있다. 즉 수원 지역의 조선인 상권이 약화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이에 원인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도 수원 상인은 수고적(守古的)이며 진보도 변동성(變通性)이 없는 것이 큰 원인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너무도 개인주의에 치우치며 단결력(團結力)은 아주 박약(薄弱)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런데다 대소 상점을 물론하고 사팔지(仕八地)가 거의 경성인데다가 매주(買主)들은 생각에 도리어 경성보다도 많이 비싸졌거니 하는 데서 일이십원(一二十圓)엿치만 바꾸려고 해도 경성으로 가는 까닭에 더욱 말이 못 되어 갔다. 이것이 경성이 너무 가깝고 따라서 교통이 지나치게 편리한 연고(緣故)라고 걱정하는 것이다.⁸

7 『동아일보』, 1927년 1월 16일.

8 『동아일보』, 1927년 1월 16일.



1940년대 성 안 시가지



일본인이 운영하던 철물점(수원박물관 소장)



조선인 상점(조선총독부, 『생활상태조사 - 수원군』, 1929)



조선인이 운영하는 여관(조선총독부, 『생활상태조사 - 수원군』, 1929)

이러한 상황에서 1920년대에 수원 상계(商界)는 점포수가 505개로 증가하였고, 따라서 상인을 중심으로 실업협회(實業協會)를 조직하고 회두(會頭) 1명, 부회두 2명, 상의원(常議員) 5명, 평의원(評議員) 20명과 상담법률 및 고문 등을 둘 정도로 향상되었다. 그리고 이들의 활동으로 수원은 우수한 상업 중심지로 성장하였다. 1929년부터 1935년 사이에 개설된 주요 상점은 <표 4>와 같다.

한편 1942년에 발간된 『수원상공인명록(水原商工人名錄)』에 따르면 수원읍에는 93개 업종에 총 866개 업체가 등재되어 있다. 이 중 음식점이 82개소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는 잡화(57개소), 식품점(49개소), 미곡(43개소), 가구(35개소), 약종상(34개소), 양복(31개소), 청과(28개소), 여관(26개소), 연초(26개소), 면견포(21개소), 자동차(21개소) 순이다. 이들 업종 중 제조업은 인쇄, 주물, 직물, 제화, 양조, 제철 등 10여 종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가공 또는 판매업에 해당한다.

민족별로는 한국인이 74개 업종에 696개소, 일본인이 67개 업종에 121개소, 중국인이 2개 업종에 11개소를 운영하고 38개소의 법인이 등재되어 있다. 일본인들은 수익이 낮거나 사회적으로 꺼려지는 업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업종에 진출해 있는 상태이다. 특히 법인체의 대다수가 일본인들이 설립한 업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권업종에 해당하는 금융업, 자동차업, 종묘업, 농기구, 철도, 운송업, 토목업, 포목업 등 20개 업종은 일본인들이 독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4〉 1920~1930년대 개설된 주요 상점⁹

회사명	형태	설립일	대표자	업종	자본금(圓)	주소	중역
수원양조 (水原釀造)	주식회사	1929. 3.22.	양규룡 (梁奎龍)	양조업, 조선주 (酒) 제조, 그 부 대사업 및 일반 상업	200,000	수원읍 산루리 203	이사 : 박승옥(朴勝玉), 이강헌(李康憲), 소옥영(蘇玉英), 조응순(趙應順), 이노현(李老鉉) 감사 : 고광업(高光業), 양규봉(梁奎鳳), 이대현(李大鉉)
수원물산상회 (水原物産商會)	합자회사	1931. 2.24.	미조카미 (溝上太久馬)	식품품, 기타 일 체의 물품 판매 업 및 보험 대리 업	12,000	수원읍 산루리 135	미조카미(2,000무) 사원 : 유아사 오토요 (湯淺音代 : 2,000무), 유아 사 이헤이(湯淺 伊平 : 8,000유)
오니오상회 (鬼追商會)	합자회사	1931.11.28.	오니오이 스에지로 (鬼追末治郎)	자전거, 자동차 매매	5,000	수원읍 매산리 134	
스기모토상점 (杉本商店)	합자회사	1932. 3. 3.	스기모토 슌이치 (杉本俊一)	일용 제잡화 및 기계 판매	15,000	수원읍 매산리 43	스기모토 슌이치(杉本 俊一 : 5,000무), 스기 모토 다이치로(杉本太 一郎 : 5,000), 스기모 토 노부(杉本ノブ : 5,000유)
에구치청광당 (江口淸光堂)	합자회사	1933. 1. 5.	에구치 모리오 (江口守夫)	서적, 잡지, 문방 구, 이과학기상	5,000	수원읍 남창리 244	
시바상점 (斯波商店)	합자회사	1933. 1.24.	시바 도쿠노리 (斯波徳則)	석유, 곡류, 일용 품, 잡화 판매	5,000	수원읍 산루리 130	
다나카상점 (田中商店)	합자회사	1934.10. 5.	다나카 시와키치 (田中澤吉)	침첩표(疊疊表), 가공품 판매	3,000	수원읍 남수리 209	
제일관 (第一館)	주식회사	1935.10.19.	김종억 (金鍾億)	요리옥 영업	27,500	수원읍 본정 3정목 51	이사 : 김형기(金亨基), 서기덕(徐基惠), 신용우(申用雨) 감사 : 김학배(金學培), 이재정(李在楨)

〈표 5〉 1942년 상공업체 현황

(단위 : 개소)

업종	조선인	일본인	중국인	법인	계	업종	조선인	일본인	중국인	법인	계
인쇄	6	1		1	8	포목		1			1
도장	2	1			3	철도				1	1
주물	1				1	고물	8			2	10
음식점	65	10	7		82	식용유	5				5
신발	8	2			10	고무신	10				10
푸줏간	9				9	얼음	1	2			3

9 中村資良,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録』, 東亞經濟時報社, 1931~1937.

업종	조선인	일본인	중국인	법인	계	업종	조선인	일본인	중국인	법인	계
보험대리점	3				3	전기	2	1		1	4
쌀집	41	2			43	철공	11	1			12
페인트	3				3	편자	3				3
도시락		1			1	주류	6			2	8
도자기	7	1			8	미장이		1			1
두부	4	2			6	잡화	50	5		2	57
시계	11	1			12	목재	6	3			9
숫돌	1				1	재봉기	2				2
토목	1	10			11	금융				4	4
레코드	1				1	전당포	12	3			15
요리	2	3	4	1	10	기계공구	4	2			6
여관, 하숙	17	9			26	금은방	3				3
이발	12	2			14	곡자회사				1	1
누비포단	2				2	유희장	1	1			2
직물	6				6	목욕탕		2			2
통집	3	1			4	면견포	29				29
솜, 솜틀집	1	1		1	3	제면(製麵) 및 국수집	15	1			16
철물, 솔	6				6	종묘				5	5
지물포	6				6	서적	4	2			6
과자	14	1			15	간장	1	1			2
해산물	10			1	11	식품점	45	4			49
가구	31	4			35	사진	5	1			6
유리	4	1			5	연료 제작 판매		2		2	4
화약		1			1	자동차				3	3
기와	2				2	자전거	19	1		1	21
피혁	1				1	인력거	2	1			3
양복	28	3			31	복덕방	6				6
다다미	1	1			2	극장				1	1
죽세공	5				5	표구		2			2
담배	20	6			26	비료	1				1
장, 훈구	2	1			3	미용		1			1
새끼, 가마니	1			1	2	정미소	10	2			12
운송				4	4	세탁	6	1			7
운모				1	1	제분소	5				5
농기구		1		1	2	시멘트 가공	3	1			4
양화	12				12	생선	3	1			4
약종	30	4			34	청과	23	5			28
성냥				1	1	석유	1				1
선물가게		2			2	음료공장				1	1
빵집	8	1			9	염료	1				1
철물	6				6	합계	696	121	11	38	866



정승모 전 지역문화연구소 이사장

1. 둔전 경영과 소의 사육
2. 소의 유통과 우시장의 발달
3. 주변 우시장의 변화



제3장

수원 우시장의 성장과 변화

과거 한국사회에서도 소가 농사수단이 아닌 고기로 거래되고 소비되던 지역이 있었다. 이는 물론 서울과 같은 일부 대도시에 국한된 일이다. 그러나 이것은 18세기 말 이후 수원 우시장의 역사를 설명하는 데 매우 중요한 변수인데, 수원 우시장의 위치가 서울로 가는 주요 길목이었기 때문이다.

19세기 후반 이후 한동안 우피(牛皮), 즉 소가죽이 일본에 대량으로 수출되었는데, 이와 병행하여 술 소비량도 급증하였고, 정부에서는 금주령(禁酒令)으로 이에 대처할 정도였다. 이 두 현상이 어떻게 상호연관되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술안주로서의 쇠고기 소비현상에 주목해야 하고, 그 배경의 하나로 어느 지역에서 우력(牛力)보다는 비육(肥肉)을 목적으로 소를 사육하고 거래되었는지도 파악해야 한다.

수원의 우시장은 안성장, 용인의 김량장, 광주의 송과장 등과 함께 지리적 지역적 특수성에서 성장해 온 경기도의 대표적 우시장이다. 수원 우시장은 우선 화성 건설 이후 둔전(屯田) 경영에 필요한 소의 체계적인 사육과 소비, 그리고 19세기 중반 이후 특히 충청도의 소가 대량 거래되는 경향에 힘입어 크게 성장한 장이다.

1. 둔전 경영과 소의 사육

유수 박기수(朴綺壽 : 1774~1845)가 편찬한 『화성지(華城誌)』(1831) 재용(財用)편에 현방세전(懸房稅錢)이란 항목이 있다. 1797년(정조 21)에 화성에서 운영하는 장예고(獎藝庫)의 돈으로 화영(華營)과 이아(貳衙)에 현방, 즉 쇠고기를 판매하는 집과 소에게 먹일 여물죽을 쑤는 가마솥을 사서 지급한 일이 있었다. 현방세전은 매년 현방으로부터 받는 세전으로 장예고에 귀속되었다. 장예고는 화성 축조 때 설치한 26개의 고(庫) 중 1795년에 만든 공고(公庫)의 하나로, 1883년에 혁파되었다.

현방에서 내는 세금액의 경우 화영 현방에서는 매일 6전씩, 이아 현방에서는 매일 5전씩으로, 1년을 354일로 쳐서 389냥 4전의 세를 장예고에 내야 했다. 즉 이때 수원 관아에서는 이미 서울의 성균관처럼 소에 대한 도축권(屠畜權)을 가지고 있어서 쇠고기가 관아의 현방을 통해 유통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재용편에는 우도조(牛賭租)라는 항목이 있는데, 1825년(순조 25) 남제(南堤)를 축조할 때와 1829년 번와(燔瓦), 즉 기와를 구울 때 소를 사서 사역한 후 역사(役事)가 끝나자 도지를 받고 개인에게 나누어 준 데서 비롯된 세목이다. 남제를 만들 때 구입한 소 4마리와 번와 때 구입한 소 5마리를 더해 1년에 소 9마리에 대한 도지로 각기 쌀 1섬씩 모두 9섬이 호방소(戶房所)에 납부되었다. 소를 빌려 주고 받는 도지가 하나의 세목으로 책정되어 있었음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소를 개인에게 분배하고 도지를 받는 방식은 화성 축조 때 동원된 소의 처리와 둔전 경영방식에서 이미 잘 드러나 있으며, 그 규모 또한 컸다. 화성은 1794년 1월에 착공되어 1796년 9월에 완공을 보았으므로 2년 반 이상이 걸린 대규모 역사였다. 『화성성역의궤』를 보면 대규모 성역을 수행하기 위해 여러 지역에서 많은 소를 구입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황해감영에서 올린 1795년 10월 25일 기사는 그 한 예다.

상고할 일

성역의 느리고 빠른 것은 전적으로 수레 끄는 소의 실하고 부실한 데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기내(畿內)에서 산 것들은 몸집도 작고 힘도 약해서 부리는 일을 이겨내지 못한다 합니다. 언뜻 들으니 도내 신계(新溪)·토산(兔山)·곡산(谷山)·봉산(鳳山) 등지의 수레 끄는 소는 옛날부터 견실하고 또 거센 소가 많으며 병이 없다고 하므로 그 소를 사기 위해서 따로 장교(將校)를 정해서 하송합니다. 본영 역시 장교를 정하여 100마리를 한도로 시가대로 사서 흘리(流伊)로 상송하게 하십시오. 가본은 역소에 구획한 본영 소재의 장용영전(壯勇營錢) 2,600냥을 우선 차하하고 그 밖에 부족한 수는 본목(本牧) 및 인근의 각 읍을 물론하고 경 상납전 중 상환(相換) 출급한 후 한결같이 실제

수대로 책으로 꾸며 보래하여 변통할 자료로 삼게 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소가 끄는 수레 중에 대거(大車)의 경우만 보면 장대석 등 큰 돌과 큰 아릅드리나무 재목을 운반하기 위해 8채를 만들었는데, 수레 1채에 40마리의 소를 매어 끌었다고 한다. 이렇게 동원된 소가 많은 만큼 이를 관리하는 소지기[牛直]와 꼴을 해 오는 꼴꾼을 두는 일도 필요하였다. 성역 초창기의 상황을 보면 대개 소 8필에 소지기 한 사람꼴로 나누어서 돌보도록 하고 별도로 패장과 색리를 정하여 잘 돌보는지를 감시하게 하였다. 소 1필에 매일 3끼씩 콩 9되, 겨 3말, 꼴 2뭇, 나무 2뭇 반이 들었고, 소 4필에 가마솔 하나씩이 지급되었으며 소지기는 매일 2전 5푼의 품삯을 받았다. 또한 소를 관리하기 위해 큰 냇가에 동소(東所)와 서소(西所)로 두 장소를 나누어 만들었고 수레 끄는 소의 외양간으로 모두 54칸을 지었다고 하니 동원된 소와 인력 및 비용 등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초창기에는 자재 운반을 위해 특히 많은 소가 동원되었지만 이후로는 그만큼의 운반 수요가 없으므로 소의 처분이 무엇보다 급하고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 이에 대해 그 시급성은 당시에든 논의되었으나 처분방식이나 결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된 기록은 없다. 추정컨대 일부는 도축하여 현방으로 보내고, 일부는 팔고, 일부는 도지소를 놓았을 것인데, 둔전 운영과 관련지어 생각하면 많은 소들이 새로운 둔전 경작자들에게 도지를 받고 분양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둔토(屯土)의 설치 목적은 크게 두 가지, 즉 군자(軍資)를 충용(充用)하기 위한 것과 지방관아의 경비를 충용하기 위한 것으로 나뉘는데, 수원의 경우는 후자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것은 화성 축조와 병행하여 수원과 주변 지역의 땅, 그리고 한광지(閑曠地)의 개간을 통해 마련되었다.

화성 운영을 위해 많은 둔전이 설치되었지만 그중에서 남쪽 포내면의 포내둔(浦內屯)의 경우는 수원을 유수로 올리기 전인 1793년 이전에 설치한 둔전이고, 각 면에 설치한 양향둔(糧餉屯)은 1793년에, 버드내의 유천둔(柳川屯)은 축성기간인 1796년에, 그리고 간척의 결과인 축만제둔(祝萬堤屯)은 축성이 끝난 1799년에 마련되었다. 『화성성역의궤』 1798년 10월 기사에서 수성고(修城庫)를 설치하고 시행하는 절목에는 이러한 사정이 담겨 있다.

황무지를 개간하여 둔전을 만들어 성의 백성 중에서 일정한 수입이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 경작하게 하였다. 그 세금을 거두어 본부의 창고에 주어 성을 보수하는 자금으로 삼게 하였다.

2. 소의 유통과 우시장의 발달¹⁾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에서 아산만 해협을 건너면 경기도 평택시 포승면을 경유하여 수원으로 가는 길이 있다. 육로를 잇는 두 나루 중 충청도 쪽의 나루가 한진나루이고 경기도 쪽이 만호나루이다. 이 길로 사람은 물론 소나 생필품 등의 물자들이 운반되었는데, 그 중 특기할 만한 것이 소의 이동이다. “송아지는 한진나루를 통해 충청도 산골로 보내 길러지고, 다 기른 큰 소는 만호나루로 건너와 경기도 일대에서 부렸다.”는 이야기가 전해 오기 때문이다.

경기도 주민들이 “충청도 사람들은 소를 키울 줄만 알고 부릴 줄은 모른다.”고 말할 정도였는데, 이러한 지역 간의 분업은 자연조건과 농사 규모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소를 키우려면 벼짚을 여물로 쓰는 겨울철 외에는 꼴을 마련하거나 소를 놓아 먹일 산이 근처에 있어야 하는데, 이 점에서는 한진나루 아래의 충청 지역은 산이 많아 사정이 훨씬 나았다. 대개 평야지대에 소가 귀한 것은 꼴을 구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서울로 가는 전국의 소가 경기 지역을 거쳐 가므로 다른 지역과 달리 경기 일대는 산이 부족해도 송아지를 키우는 부담은 덜 수 있었다. 그렇지만 일시적이거나 화성 축조로 소의 공급이 많아진 수원 일대는 사육에 대한 부담을 인근 지역으로 분산시킬 수밖에 없었다.

수원장은 1904년 이후 성안장과 성밖장으로 나누어 개설되었다. 이에 따라 우시장도 성밖우시장과 성안우시장으로 나누어 개설되었다. 성밖장과 성안장이 날짜를 달리해서 썼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시장도 장시의 날짜에 맞춰 성안팎에 각기 썼던 것이다.

성안우시장은 매향여중을 마주보는 수원천 서쪽 북수동 274번지 일원에 있었다. 『수원시세일람(水原市勢一覽)』에 따르면 북수동 우시장은 일제가 만든 「시장규칙」에 따라 1919년 7월에 등록되었다.²⁾ 성밖우시장은 남수문 밖 수원천 서쪽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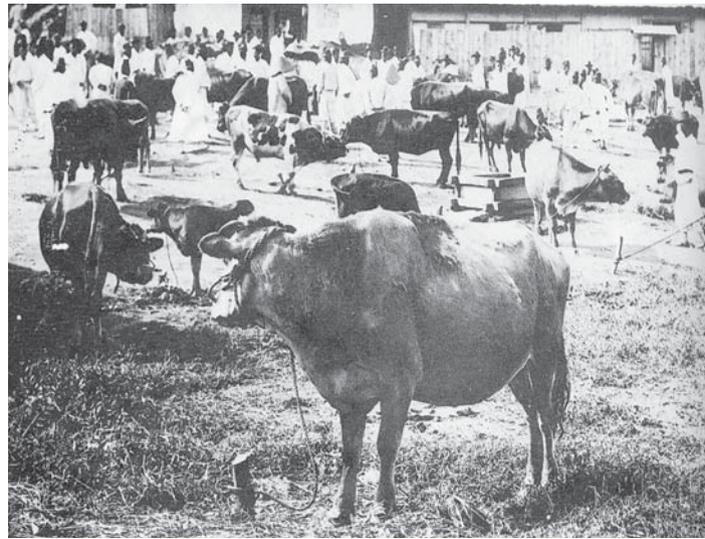
1918년 총독부 조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우시장이 655개소였는데, 경기 도내에 47개소가 있었다. 이를 도별로 살펴보면 경상북도가 91개로 가장 많았고, 강원도 67군데, 황해도 63개소, 전라남도 58개소, 충남 52개소, 평남·경남 50개소, 경기 47개소였다. 가장 거래량이 많았던 우시장은 함경북도 명천군 명주장과 길주군 길주장으로 1년에 2만 5,000마리가 거래되었다. 그다음으로 큰 장이 수원군 성밖장으로, 1년에 2만여 마리가 거래되

1 한동민, 『수원을 걷는다—근대 수원 읽기』, 수원박물관, 2012를 참조하여 정리하였다.

2 수원시, 『수원시세일람(水原市勢一覽)』, 1958, 64쪽.



수원천변에 있었던 성안우시장(조선총독부, 『생활상태조사-수원군』, 1929)



일제시기 수원 우시장(수원박물관 소장)

었다. 일제시기 전국적으로 3대 우시장의 명성을 얻었던 것이다.

『朝鮮の市場經濟』를 보면 시장 부지는 2,965평이며, 축우중개인이 3명 있어 매매가의 2%를 징수하며, 그 절반을 축산조합(畜産組合)에 납부한다고 하였다.³ 1937년 4월 2일 『경성일보』에는 수원 가축시장의 사용요금이 제대로 읍으로 귀속되지 않고 군농회(郡農會)가 중개료 명목으로 가져가는 것이 부당하다는 기사가 실렸다. 본래 성우(成牛) 한 마리당 7~8전(錢)의 사용요금을 받게 되어 있는데, 군농회는 중개료로 읍에서 책정한 것보다 훨씬 초과하는 액수인 매매가의 100분의 3, 즉 3%를 받아 연간 4만 7,290원(圓)을 징수하였다. 이는 곧 이즈음에 소값도 상승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의 거래량도 증가하였음을 나타낸다.

1937년 12월 장시 개시일을 읍력에서 양력으로 바뀌게 되었다. 일제에 의해서 양력의 사용이 강제되면서 가장 중요한 장날부터 양력으로 바꾸었던 것인데 수원군의 7개 장시는 1938년 1월 1일부터 개시일을 양력으로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와중에 수원장은 성안장을 우시장으로, 성밖장을 일반장으로 4·9일에 함께 개시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통적으로 성밖장이 성안장을 능가하고 있었는데 1938년 이후 거래액에서 성안장은 성밖장을 압도하게 되었다. 이는 성안우시장의 활성화에 따른 것으로 단일 거래물품 가운데

3 善生永助, 『朝鮮の市場經濟』, 조선총독부, 1929, 219쪽.



1950년대 수원 우시장 풍경(수원박물관 소장)

소 값을 증가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성밖우시장은 1930년대 후반 성안우시장으로 합설되었다. 1935~1936년 성밖장·성안장의 합설을 논의하였는데, 당시 합설에 관한 첫째 안은 성안장을 가축장으로 하고 성밖장을 일반장으로 같은 날 서게 한다는 것이었다. 둘째 안은 성안시장과 성밖시장을 합병하여 다른 곳으로 이설하는 것이었다. 둘째 안은 일본인들이 수원 상권을 장악하고자 제시한 것이었는데, 조선인들의 반발에 따라 첫째 안이 수용된 것으로 보인다.

한때 한국전쟁으로 쇠퇴하고 피난민들이 잠식하기도 하였지만, 다시금 활기를 찾은 1958년 수원의 우시장은 서울, 대구와 더불어 '3대 쇠전'으로 일컬어졌다. 700여 필의 소가 출장하는 1958년 11월 당시 마차용 황소가 최고 22만 환이었고, 간난 송아지는 최하 7,000환에 거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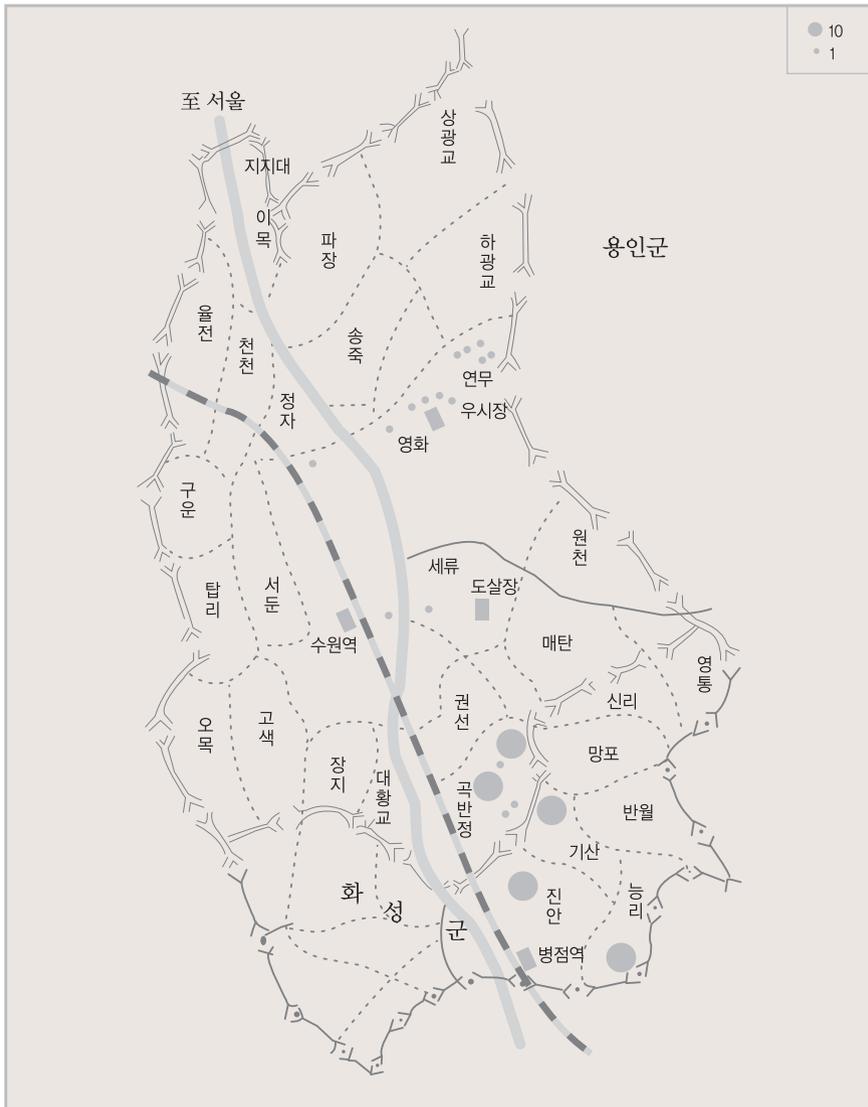
그러나 해방 후 수원의 우시장은 수원 읍내의 변화에 따라 우시장 이전의 압력을 받게 되었다. 이에 5·16군사쿠데타 직후 이백일 수원시장은 우시장의 이전을 명령하였다. 새로 등장한 군사정권의 조치에 저항할 수 있는 세력은 없었다. 기존 우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북수동 전통 상인들의 반발은 당연한 것이었지만 노골적인 저항은 불가능한 사회적 분위기였던 것이다.



영화동 우시장(1979년)



영화동 우시장으로 소를 팔러 온 농민



1960년대 수원 지방 분포 (농촌진흥청 농업경제연구소, 『한우시장에 관한 연구』, 1967)

이에 따라 수원 우시장은 1962년 성 밖 영화동으로 이전하게 되었다. 1962년 1월 19일 당시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시설을 갖춘 우시장의 준공식이 영화동에서 거행되었다. 지금의 국도 1호선 옆 한조체육관이 위치한 영화동 380번지 일대였다.

농우(農牛)가 주로 거래되고 농민들이 직접 소를 끌고 오던 1970년대까지 우시장은 점심 이후에 개장하여 해질 무렵 혹은 그보다 늦게 파장하였다. 이동거리가 먼 소장수들은



인계동 도살장

더욱 서둘러서 장을 파하고 어두워지기 전에 다음 장으로 옮기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그 장에서 하룻밤을 묵고 다음 날 새벽에 다음 장으로 이동하였다. 이때는 마방에 머물면서 다음 날 장을 기다렸다. 구입한 소를 다른 장까지 몰고 가는 일은 소몰이꾼의 일이었다.

1970년대가 되면서 수원 우시장의 명성은 더욱 커졌다. 영화동 우시장 시절인 1976년 조사에 의하면 수원 일대의 우시장의 출장 소 두수는 수원 우시장이 500두로 더욱 증가하였다. 그다음으로 오산장 400두, 평택장 250두, 시흥의 신천리 우시장 200두, 안중장 150두, 안양장 120두, 사강장 100두 등이었다.

1978년 1월 24일 장날에는 700여 마리가 나왔는데, 소 가격은 연초보다 3만~4만 원이 오른 상황이었다. 소장사와 정육업자들의 승용차와 트럭 50여 대가 밀려 혼잡을 이룰 정도였다. 당시 12개월 황소는 40만 2,000원, 5개월 된 암소 56만, 613kg의 4살 된 황소는 94만 원에 거래되어 최고가였다. 1970년대 수원 영화동 우시장 1년 거래량은 평균 2만 4,000 마리 정도로 최전성기를 구가하였던 셈이다.

그러나 서울에서 수원으로 오가는 교통량이 증가하면서 1번 국도의 확장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에 우시장의 일부가 1번 국도로 편입되는 상황이 됨에 따라 수원 우시장은 좀



곡반정동 가축시장 이전(1979년 12월 4일)



곡반정동 우시장(1980년)

더 한적한 곳을 찾아가야 했다. 따라서 1979년 수원의 최남단 곡반정동 신촌으로 이전하게 되었다.

1978년 6월 21일 곡반정동 381-1번지 일원의 3만 167㎡에 시장시설 결정이 내려졌다.

1년여의 공사 끝에 현대적 시설을 갖추고 '수원가축시장'이라는 이름으로 1979년 12월 4일 곡반정동 우시장이 개장하였다.

1980년대가 되면서 농촌의 도시화와 기계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소를 사육하는 방식도 변화하였다. 소를 1~2마리 키우던 전통적인 방식에서 한우를 대량으로 사육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우시장의 거래 양상이 크게 바뀌게 되었다. 더욱이 농민들이 직접 소를 몰고 와서 거래하는 방식은 거의 사라지고 소장수들이 트럭을 사서 마을을 돌아다니며 소를 사고파는 방식으로 바뀌었던 것이다. 이에 소규모 거래보다 대규모 거래 방식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최신 시설을 갖춘 우시장이 생긴 것이다.

그러나 농업의 기계화에 따라 한우 수요의 급격한 감소와 비육우의 등장으로 전통적인 우시장의 거래량과 내용이 점차 줄어들게 되었다. 이에 곡반정동 우시장은 1986년 시장규모가 1만 6,499㎡로 축소되었는데 이는 설립 당시의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면서 1990년대 중반 수원 우시장이 폐쇄되기에 이른다. 즉 1996년 9월 23일 우시장의 폐지가 결정됨에 따라 곡반정동의 수원 우시장은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

3. 주변 우시장의 변화

김성훈(金成勳)의 1977년 조사⁴에 따르면 수원 일대 우시장의 출장 소 두수는 수원 우시장이 500두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오산시장의 400두, 평택장이 250두, 시흥의 신천리 우시장이 200두, 안중장이 150두, 안양시장이 120두, 사강시장이 100두 등으로 나와 있다.

사강 우시장에는 서해안 섬에서 키운 소가 출두하였고 사강장에서 팔지 못한 소는 오산장(3·8일), 수원장(4·9일), 발안장(5·10일)으로 가지고 가서 팔기도 하였다. 사강장에서 매매된 소는 수원장으로 많이 갔는데 소물이꾼에게 소를 맡기면 인근 마방에서 재우고 이튿날 출발하여 수원 오목내나 고색에 있는 마방에서 하룻밤 자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 수원장을 보았다. 사강과 발안은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거리이므로 하루 목을 일이 없으나 사강과 오산 사이는 그렇지 않아 양감면 송산리 부처 내에 마방이 있었다.

4 김성훈, 『한국농촌시장의 제도와 기능연구』, 국립농업경제연구소, 1977.



1996년까지 운영되던 오산의 우시장터(화성시청 포토갤러리 제공) 소를 묶는 데 사용했던 말뚝이 남아 있다.

화성시 우정면 일대의 주민들은 걸어서 장에 다니던 시절에 일반 생활물자의 거래는 조암장과 발안장을, 우시장은 발안장과 오산장을 주로 이용하였다. 발안 우시장과 오산 우시장 중에서는 발안 우시장을 이용하는 일이 많았으며, 조암장과 발안장 중에서는 조암장을 이용하는 일이 많았다. 조암과 사강은 바다를 끼고 있어 해산물이 많이 나기 때문에 해방 후 노점상들이 많아졌다. 이들은 비가 와서 조암과 사강의 장이 깨지면 밥을 굽을 정도였다고 한다. 우정면 일대에서 발안까지는 질러가는 장길로 30리 길인데, 사거리 → 금의리 → 두레비 → 사노내 → 느락골 → 해창리 → 발안장으로 연결된다.

소는 남쪽 먼 곳으로부터 계속 올라오는데, 소장수들은 주로 오산에서 소를 팔고 남으면 수원으로 갔고, 수원까지 오면 더 올라가지는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서울이 가까워질수록 소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오산장이 수원장에 비해서 소값이 쌀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오산장에서 소를 사다가 수원에서 소를 파는 소장수들도 많았다고 한다.

시흥시 관내에는 뱀내장(1·6)과 도일장(3·8)에 우시장이 있었다. 1960년대에는 군자면에 군자장, 소래면에 소래장, 수암면에 안산장, 남면에 군포장, 서이면에 안양장, 반월면에 반월장 등이 있었다. 반월장의 개시일은 1·6일이었는데 생긴 후 곧 폐지되었다. 군

자장은 일제 때, 군포장과 수암장은 해방 후에 생겼으나 군포장은 1960년 전후에, 수암장은 1970년 전후에, 군자장은 1980년 전후에 각각 없어졌다.



이상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

1. 재래시장에서 전통시장으로의 변화
2. 도시화와 전통시장의 성장
3. 전통시장의 증가와 침체
4. 시장의 현대화와 문화적 활로 모색
5. 전통시장의 미래, 그 희망과 불안



제4장

해방 후 수원의 전통시장 변화

먼 옛날부터 사람들은 재화를 교환하기 위해서 시장을 형성하였고, 우리나라에서는 시장을 ‘저자’, ‘장시(場市)’, ‘장마당’ 등으로도 불렀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시장을 “여러 가지 상품을 사고파는 일정한 장소”, “상품으로서의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추상적인 영역”으로 정의하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시장에 간다.” 혹은 “장보러 간다.”고 할 때 그것은 전자를 의미한다. 즉, 구체적 장소로서의 시장을 의미한다. 이러한 시장의 대표적 사례로 우리가 사는 동네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재래시장을 들 수 있다. 재래시장은 사전적으로 “예전부터 있어 오던 시장을 백화점 따위의 물건 판매 장소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로 정의된다. 이 정의에 의하면, 재래시장은 현대적인 유통기관과 대비되는 물건 판매 장소다.

그런데 이 정의에 나타난 장소란 단지 하나의 구체적인 공간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장소는 매우 다차원적인 현상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구체적 장소로서 시장도 사회제도와 사회적 행위자들, 생산물, 거래 관계, 거래의 실행, 이러한 요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문화적 의미로 구성되고, 그 속에 다양한 주체 간 관계와 상호작용이 결부되어 있다.¹ 즉, 재래시장에서도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만나고, 그들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

어지는 과정에서 다양한 상호작용이 발생한다. 이렇게 시장을 이해한다면, 재래시장을 다룰 때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측면 등 다른 방향에서 접근해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이러한 접근은 최근에 재래시장이 전통시장이라는 이름을 얻으면서 변화하는 상황을 이해하려 할 경우에 더욱 유의미하다. 이 글에서도 재래시장 대신에 전통시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경제적 측면과 사회문화적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해방 이후 수원시 전통시장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며, 그에 앞서 전통시장이라는 용어의 사용 배경과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1. 재래시장에서 전통시장으로의 변화

재래시장과 달리, 전통시장이라는 용어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없다. 이 용어는 기존에도 언론 등에서 종종 사용되었지만, 제도상으로는 2008년이 되어서 재래시장을 대신하여 공식 호명되었다.² 기존의 재래시장이라는 용어가 ‘낙후되었다.’는 이미지가 강해 어감이 좋지 않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중소기업청이 상인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사용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중소기업청은 2008년 4월 3일에 대전광역시 소재 중앙시장에서 매월 마지막 토요일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선포하면서 이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³

그러나 전통시장이라는 용어가 제도적으로 사용되는 근본적 배경은 이보다 더 오래 전인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한 세계화가 확산되고 정보통신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세계경제의 개방과 통합이 빠르게 진전되었다. 우리나라도 1981년 7월에 소매업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제한적으로 허용(단일

1 T. C. Bestor, "Markets: Anthropological Aspects", Neil J. Smelser and Paul B. Baltes ed.,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 Behavioral Sciences*, Elsevier Ltd., 2001, pp. 9227-9231.

2 이 글에 언급된 전통시장 관련 정책 및 유통시장 개방 전후의 변화에 대해서는 이상열, 「재래시장 정책과 오일장의 변화」,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에 정리되어 있으며, 이하 글의 전개에서는 필요한 경우 외에는 이에 대한 출처 표시를 생략한다.

3 중소기업청은 2008년 3월에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재래시장 명칭의 변경 및 ‘전통시장’, ‘시장’, ‘교유시장’, ‘서민시장’, ‘재래시장’이라는 5개의 명칭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당시 조사는 각 시도별로 5개씩 전국 80개 전시장의 상인 1,21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선호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62.6%가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그중 82.6%가 5개 명칭 중에서 ‘전통시장’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민권·김영기, 『전통시장 개념 재정립 연구』, 시장경영진흥원, 2010, 5쪽). 그 후 중소기업청은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기존에 사용하던 재래시장이라는 명칭을 ‘전통시장’으로 변경하는 한편, ‘전통시장 가는 날’을 선포하였다. 그 목적에 대해 “새정부의 새로운 출발과 희망 시작인 ‘New Start 2008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앞장서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시장을 이용하지는 데 뜻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품목에 한해 100평 이하까지 매장설치 허용)한 이래 점차적으로 유통시장을 개방하기 시작하였다. 1988년 10월에는 ‘유통시장 3단계 개방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고, 1989년부터 순차적으로 개방의 폭을 확대하였다. 그리고 1996년 1월에 이르러 도매업 9개 업종과 소매업 13개 업종을 제외한 모든 도·소매 업종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 허용과 소유 점포 수 및 매장면적 제한을 철폐하는 전면 개방을 단행하였다.

유통시장 개방은 자영소매상과 전통시장, 슈퍼마켓 등으로 단순화되어 있던 중소 유통업계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왔다. 또한 1980년대 후반부터는 경제규모의 성장과 소득 증가, 라이프스타일과 소비 패턴의 변화 등과 맞물려 자동차 소유자가 증가하면서 원거리 및 주말 쇼핑도 증가하는 추세였다. 이러한 유통환경 변화 속에서 국내 및 외국계 대형 할인점이 급격히 증가하고, 전자미디어의 발달에 따라 TV홈쇼핑 및 인터넷홈쇼핑 등과 같은 전자상거래도 급증하였다.⁴ 이로써 전통시장, 특히 도시지역의 상설 전통시장이 타격을 받게 되었고, 상인들의 불만과 위기의식이 고조되었다. 전통시장의 상권 위축은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쳐서 그즈음 영세 상인들과 지역사회에서는 “재래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산다.”는 구호가 화두로 떠올랐다.

전통시장 상권의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부와 정치권은 유통시장 전면 개방을 앞두고 전통시장 지원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지원 사업을 담당할 기구를 설치하였다. 1995년 12월 29일에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법률 제5093호)이 제정되어 전통시장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⁵ 이 법에 의거하여 1996년 2월 9일에 중소기업청이 신설된 것이다. 또한 2004년 10월 22일에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7235호)이 제정되어 전통시장만을 대상으로 하는 관련 법률이 갖추어졌고, 이 법률은 수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

4 예를 들어, TV 및 인터넷 홈쇼핑을 포함한 통신판매업 규모는 1996년에 사업체수 68개, 종사자수 469명, 매출액 266억 1,200만 원에서 2009년에 사업체수 4,966개, 종사자수 3만 949명, 매출액 9조 4,563억 100만 원으로 급격히 성장하였다. 또한 대형 할인점이 포함된 3,000㎡ 이상 대형 종합 소매업은 1996년에 사업체수 138개, 종사자수 9만 2,170명, 매출액 11조 2,096억 4,000만 원에서 2009년에 사업체수 525개소, 종사자수 8만 7,579명, 매출액 48조 3,732억 4,700만 원으로 성장하였다(이상열, 「재래시장 정책과 오일장의 변화」,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112-113쪽).

5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법률 제5093호)은 2002년 1월 26일에 전통시장에 관한 사항을 보다 분명하게 포함한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법률 제6639호)으로 대체되었다. 새로 제정된 법률에서는 당시 사용하던 재래시장을 “일정 구역 안의 건물 또는 지하도에 설치된 다수의 점포에서 도매업자·소매업자 또는 용역업자가 상시 또는 정기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근대적인 유통기능이 취약하여 경영현대화 및 정보화를 필요로 하거나 건물시설이 노후화되어 개·보수 또는 재개발·재건축을 필요로 하는 장소”로 정의하였다. 이에 따르면, 재래시장은 경영현대화와 정보화가 필요한 장소 또는 건물시설이 노후하여 재개발·재건축이 필요한 장소다. 그리고 2004년 10월 22일에는 재래시장만을 대상으로 하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7235호)이 제정되었다. 이 법률은 다시 2006년 4월 28일에 상점가 지원을 포함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7945호)으로 개정되었고, 유효기간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다. 또한 2009년 12월 30일에 이 법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9887호)으로 명칭이 개정되었고, 그에 따라 법률적으로 재래시장은 전통시장으로 불리게 되었다.

별법」으로 개정되어 전통시장 지원의 근거가 되고 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전통시장을 크게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으로 구분하는데,⁶ 2012년 말 기준으로 수원시의 등록시장 및 인정시장은 총 22개다. 그 중 등록시장은 영동시장, 지동시장, 역전시장이고, 나머지 19개 시장은 모두 인정시장이다. 그러나 수원시에 소재한 전통시장의 실제 숫자는 22개보다 더 많다. 장안구 영화동의 서문시장이나 권선구 세류동의 신수원종합시장처럼 등록시장이나 인정시장이 되지 못하여 통계연보에 그 수가 집계되지 않는 시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이 되지 못한 시장들은 기타시장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법률이 규정한 규모와 상인회 또는 조합 설립 등의 지정 요건을 갖추면 등록시장이나 인정시장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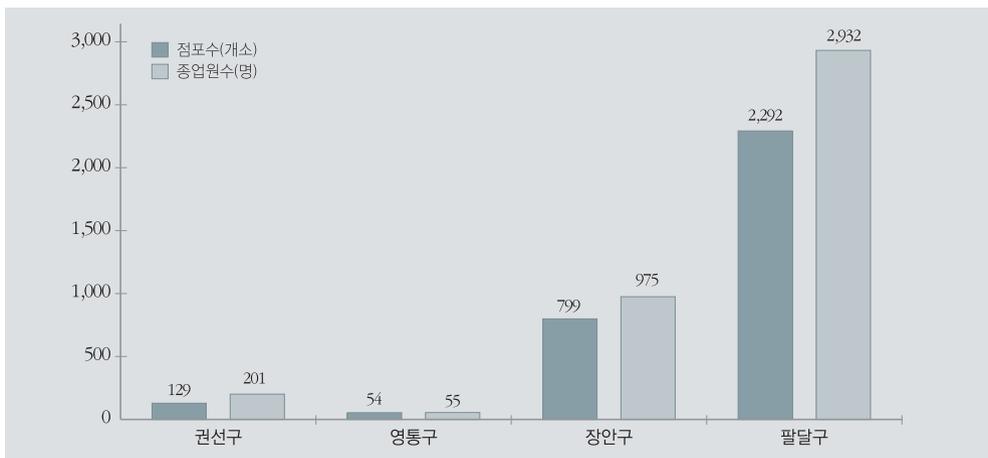
그런데 <표 1>을 보면, 3개 등록시장을 제외한 인정시장들은 모두 2005년 이후에 인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 이유는 이들 시장이 실제 개설된 날짜와 상관없이, 2004년 10월에 재래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이듬해에 이 법률 시행령에서 등록시장 이외의 시장도 법률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인정시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시장 등록을 가능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즉, 그 이후로 기존 전통시장들이 법인 설립 등을 통하여 인정시장 지정을 받았거나, 위 특별법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골목상권이나 상점가가 상인회를 구성하여 시장으로 전환하여 인정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한편, 대형 할인점(대형마트)이 수원시 관내 4개 구에 고르게 분포하는 것과 달리, 전통시장은 팔달구에 집중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권선구에 2개, 영통구에 1개, 장안구에 5개가 소재하고, 나머지는 모두 팔달구에 소재한다. 또한 그 위치를 보면, 화성의 팔달문에서 수원역에 이르는 구간에서 서로 접하거나 인접하여 형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공간 분포는 그 구간이 경부철도 개통 이후 수원시의 상업중심지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여러 개의 시장으로 분리되어 있지만, 주민들은 그들 시장을 하나로 인식하기도 한다. 팔달문 일대 시장들을 통칭하여 흔히 ‘남문시장’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남문시장이란 팔달문이 화성의 남쪽 문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며, 팔달문시장 하나만을 지칭할 때도 있지만, 대체로 그 일대에 분포하는 9개 시장을 통칭하여 사용된다. 하나의 상권을 형성해 온 시장들이 도시의 발달, 별도 상인회 구성, 시장 건물 건축 또는 도시 재개발

6 등록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 대규모 점포로 등록된 시장을 말하는데, 매장이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어 있으면서 ‘상시 운영’되고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때 지정될 수 있다. 이에 비해서 인정시장은 등록시장과 같은 기능을 하면서도 대규모 점포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시장 중에서 1,000㎡의 면적에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 중에서 자치단체장이 지정하게 된다.

〈표 1〉 수원시의 등록시장과 인정시장 현황⁷⁾

소재지	시장명	등록·인정일	시장 구분	점포수	종사자수	주요 취급품목
권선구	권선동 권선지구거리상점가	2010. 1.27.	인정	53	110	가구, 사무용품
	권선동 권선종합시장	2005. 8.19.	인정	76	91	농수축산물, 공산품, 순대, 족발
영통구	매탄동 구매탄시장	2006. 5. 9.	인정	54	55	농수축산물, 공산품
장안구	파장동 파장시장	2005. 6.27.	인정	114	155	농수축산물, 공산품
	연무동 연무시장	2011.12.30.	인정	190	250	농수축산물, 공산품
	영화동 장안문거북시장	2008.11.19.	인정	230	259	농수축산물, 공산품, 음식점
	정자동 정자동종합시장	2009. 9.28.	인정	135	155	농수축산물, 공산품
	조원동 조원시장	2008. 5.22.	인정	130	156	농수축산물, 공산품
팔달구	영동 영동시장	1919. 1.17.	등록	300	440	한복, 의류
	교동 남문로테오시장	2005. 7.20.	인정	224	268	음식점, 공산품
	영동 남문패션1번가시장	2005. 6.27.	인정	198	237	의류
	팔달로2가 팔달문시장	2005. 6.16.	인정	215	323	의류, 먹거리
	지동 지동시장	1966.12.29.	등록	221	243	농수축산물, 공산품
	매산로1가 역전지하도상가시장	2006.12.18.	인정	143	180	가전제품
	영동 시민상가시장	2005. 6.14.	인정	54	70	의류
	화서동 화서시장	2005. 7.21.	인정	150	180	농수축산물, 반찬, 의류
	매산로1가 매산시장	2011. 1.10.	인정	110	200	농수축산물, 공산품
	매산로1가 수원역전시장	1969.12.28.	등록	230	300	농수축산물, 공산품
	지동 못골종합시장	2005. 8.19.	인정	87	95	반찬, 채소
	구천동 구천동공구시장	2005. 9.22.	인정	96	107	공구, 공산품
	매산로1가 매산로테마거리상점가	2007.10.31.	인정	212	234	의류, 공산품, 음식점
	지동 미나리광시장	2006. 9.19.	인정	52	55	농수축산물, 공산품



구별 시장의 점포수와 종업원수

7 수원시청(<http://stat.suwon.go.kr>), '경제·기업', 2012년 12월 31일 검색 기준.

등의 이유로 차츰 분화되어 왔음을 알려 주면서 시민들에게 이들 시장이 지닌 의미를 알려 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래서 수원박물관에는 1960년대 남문시장의 모습이 모형으로 복원, 전시되어 있다. 전시장에는 팔달문을 벽화로 그려 배경으로 삼고, 당시 남문의 중앙극장과 예쁘다양장점, 천덕상회, 화춘옥, 아씨한복, 대창라사 등 그 시절을 수원에서 보낸 사람들에게 친근한 상점들이 복원되어 있다. 그리고 음향효과와 조명효과를 통해서 시장 분위기와 시간대 변화에 따른 분위기를 살리도록 연출함으로써 주민들의 소중한 기억을 되살려 주는 장치로 기능한다.

2. 도시화와 전통시장의 성장

전통시장들은 해방 이후 한국전쟁과 도시화·공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인구 증가와 도시 발전, 시장 근대화 정책 등으로 그 수가 증가하고 상권의 규모도 커졌다. 수원시도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도시 발전을 경험하였고, 그러한 과정에서 전통시장은 양적·질적으로 성장하였다. 여기서는 해방 이후부터 동수원과 서수원의 개발 이전인 1980년대 전반까지를 시간적 범위로 하여 전통시장이 성장하는 과정을 살펴보려 한다.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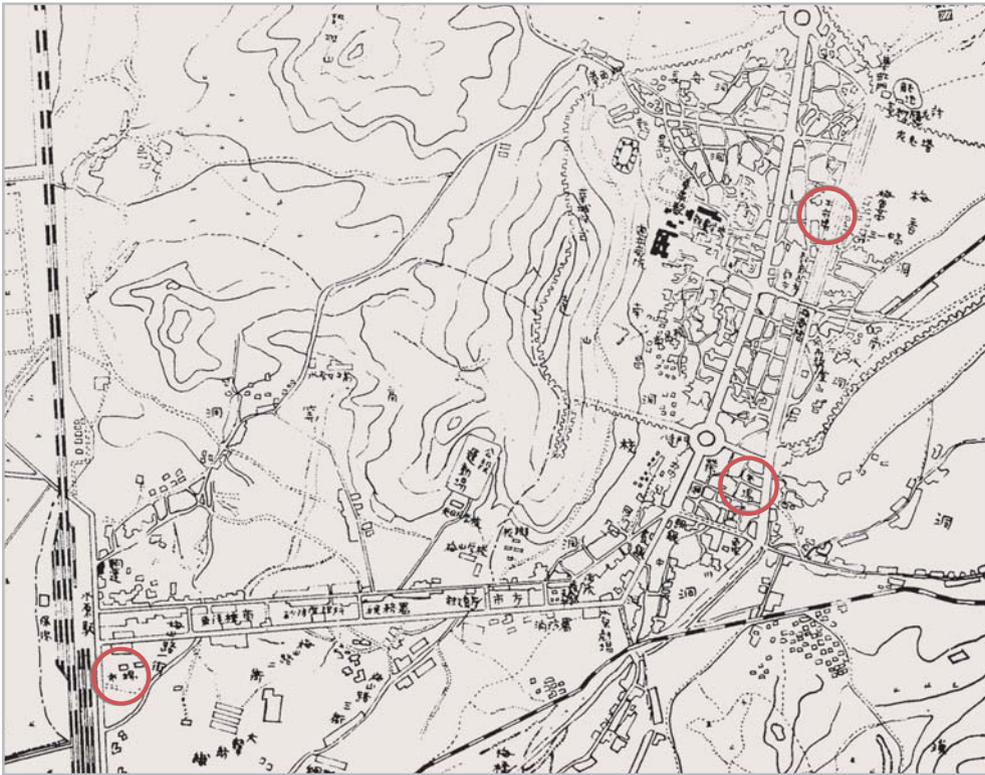
1) 해방 후 혼란기의 전통시장

해방 이후 수원시의 전통시장 현황은 195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야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1956년에 편찬된 『경기도지』 중권에 의하면,⁹ 1954년 12월 말 기준으로 수원시 관내에는 3개의 시장이 있었다.¹⁰ 이들 시장의 연간 거래액은 농산물 1,906만 원, 수산물 1,095만 원, 직물 1,380만 원, 축산물 6,580만 원, 기타 잡화 8,670만 원 등 총 1억 9,631만 원이었다. 전체 거래액 규모로만 보면, 양주, 포천, 파주에 이어 경기도에서 네 번째였으나, 시장당 평균 거래액은 약 3,510만 원으로 도내에서 가장 많았다. 이러한 점은 당시에도 수원시가 상업 중심지의 면모를 갖추었음을 보여 준다.

8 여기에서 수원시의 도시 성장에 관한 내용은 『수원도시계획사』(수원시, 1997)와 『수원 도시변천사』(수원시, 2004)를 참조하였다.

9 경기도사편찬위원회, 『경기도지』 중권, 1956, 669쪽.

10 이 기록에는 개별 시장의 명칭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첨부된 「경기도시장분포도」 등으로 미루어 영동시장, 매산시장, 가축시장으로 판단된다.



1955년 당시 수원시의 주요 시장 분포(수원시, 『시세일람』, 1956)

이에 비해서 1956년에 수원시가 간행한 『시세일람(市勢一覽)』에 따르면,¹¹ 1955년 12월 말 기준으로 4개의 시장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그중에 북수동에서 개설되던 가축시장을 제외한 생필품시장은 영동의 영동시장, 매산로1가의 매산시장, 남수동의 신탄시장(薪炭市場)이었다. 영동시장은 346개 점포, 매산시장은 154개 점포의 규모였으며, 이 두 시장은 현재도 활발하게 기능하고 있다. 신탄시장은 현재 남아 있지 않은데, 『시세일람』에서는 이 시장이 1949년 6월 10일에 설립되었다고 기록하였다. 점포수는 기록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땀감을 사고파는 전문시장이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즉, 일반적으로 신탄시장은 땀감을 팔려는 사람과 그것을 사려는 사람이 특정 시간대를 중심으로 모였다가 흩어지는 반짝시장 혹은 번개시장 형태로 개설되기 때문이다. 당시에 도 수원시는 경기 남부의 중심 도시였고 대부분의 주민들이 연탄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근 지역 주

11 수원시 공보과 편, 『시세일람』, 1956, 153~154쪽.

민들이 광고산, 수리산, 청계산 등지에서 채취한 땀감을 이 시장에 내다 팔았다. 연탄은 1950년대 들어서 가정용으로 보급되기 시작하였고, 산림녹화사업이 추진된 1960년대 이후 널리 보급되었다. 따라서 이 기록이 작성될 당시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나무를 이용하여 난방과 조리를 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기록상의 설립일 이전에도 이미 신탄시장이 존재하였음을 반증한다. 한편, 이 시장은 1961년 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수원시의 『제2회 통계연보』에는 기록되어 있으나, 그 이후의 기록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제3공화국 수립 이후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산림녹화가 진행되고 산림계에 의한 입산금지조치가 강력하게 시행되면서 더 이상 나무를 판매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수원시의 현존하는 시장 중에 가장 긴 역사를 간직한 곳은 영동시장이다. 현재 포목, 한복 등 의류와 원단이 특화된 시장이며, 1956년 『시세일람』에 따르면, 1919년 1월 17일 설립되었다. 각종 언론보도에서 수원시의 전통시장을 언급할 때 영동시장이 빠짐없이 등장하는 까닭 중 하나는 근 100년의 역사를 지닌 시장이자, 한때 경기 남부에서 가장 큰 시장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영동시장은 수원시에서 상인조직이 가장 먼저 설립된 시장이기도 하다. 1953년 3월 30일에 영동시장변영회(대표 박도의)가 설립되었는데, 당시 수원시에 업종별로 여러 상인조직이 있었지만, 전통시장 중에서는 이 시장이 유일하였다. 변영회의 구성원은 임원 21명, 직원 4명, 조합원 370명이었다.¹²

영동시장은 한국전쟁으로 파괴되었다가 수복 후인 1951년 4월 4일에 복구되었고,¹³ 그 즈음에는 시장 내에 별도의 미곡시장이 설치되었다.¹⁴ 당시에는 전쟁 피해 복구를 위해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영동 일대에서는 시가지 구획정리가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서 영동시장변영회는 상가를 정리하여 점포를 신축, 분양하려 하였다. 그런데 상가 분양과 관련하여, 영동시장 일대에서 노점에 종사하던 전쟁 피난민들의 반발이 적지 않았던 듯하다. 이에 대해 1951년 10월 17일자 『자유일보』에는 “..... 영동시장변영회에서는 전화(戰火)로 파괴된 터에서 무질서하게 버려진 상가를 정리하여 165점포를 신축하기로 되었는바 현존 노점피난상인 김영범 등 99명은 지난 4일 도, 시, 경 당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반대의사를 표시하며 그 귀추가 주목된다는데, 이에 의하면 한 점포 공사비는 70만~80

12 수원시 공보과 편, 『시세일람』, 1956, 147쪽.

13 영동시장은 복구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그해 12월에 다시 화재로 피해를 보았다. 이로 인하여 1952년 2월에 구천동 쪽으로 임시 이전하였다가 12월 19일에 목조건물이 복구되면서 본래 자리로 재이전하였다고 한다(최지운·김상범, 「영동시장과 수원」, 『수원학연구』 제7호, 수원학연구소, 2010, 184쪽). 그 후의 신문기사들과 비교하면, 1951년 12월의 화재는 시장 전체가 아니라 일부에 국한된 것으로 보인다.

14 『제3회 통계연보』에는 미곡시장의 개설일이 1951년 12월 14일로 기록되었으나(수원시, 『제3회 통계연보』, 1963, 40쪽), 이후 통계연보에는 1월 14일로 기록되었다. 그해 12월 1일에 대통령령으로 「미곡의 도정 및 매매제한에 관한 건」이 제정된 점으로 미루어 미곡시장의 개설일은 12월 14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만 원에 달하여 결국 차등 점포가 유력상인인 원주민에게 돌아가고 노점상인은 실직되고 만다는 것이다.”라는 기사가 실렸다. 시장의 시설 현대화 또는 재건축 과정에서 점포상인과 노점상인 간에 나타날 수 있는 갈등이 드러난 사례라고 하겠다.

한편, 예나 지금이나 전통시장은 화재에 취약하다. 영동시장도 오랜 역사만큼 수차례 화마를 입었는데, 특히 목조건물이던 때에는 화재에 더욱 취약하였다. 신문 기사를 보면,¹⁵ 영동시장은 1952년 11월 27일 새벽에



1950년대 영교 부근의 천변시장(수원시, 『수원사진대관』, 19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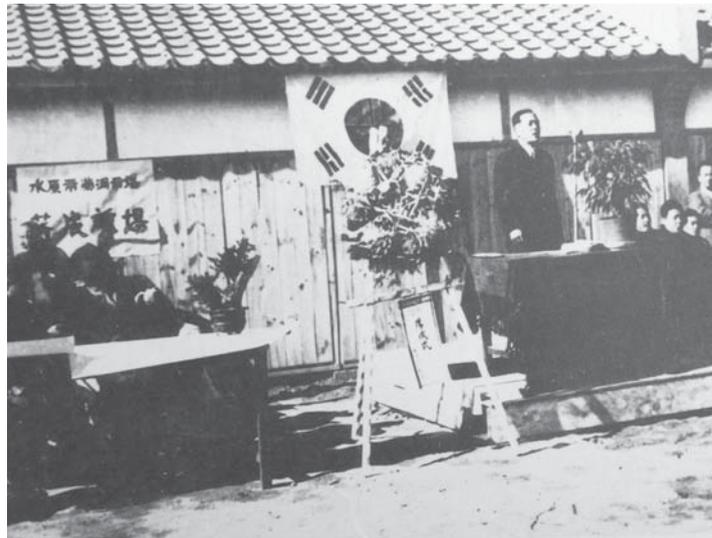
화장품 상점에서 촛불 부주의로 시작된 불이 휘발유 초롱에 옮겨 붙으면서 발생한 화재로 점포 25개 동이 흔적도 없이 타버리는 피해를 입었다. 그리고 이 화재가 일어난 지 두 달도 되지 않아서 더 큰 화재를 입었다. 전체 점포의 과반수 이상이 불에 타 버린 것이다. 1953년 1월 19일에 일어난 화재로 시 소유건물 294동과 개인 소유건물 6동이 전소되었고, 그 피해액은 59억 1,624만 원에 달하였다.¹⁶ 이 화재로 전소된 건물들은 운크라(UNKRA : United Nations Korean Reconstruction Agency)¹⁷의 자재 지원을 받아서 1954년 1월 시멘트 블록조의 2층 건물로 준공되었고, 그달 26일 낙성식이 거행되었다. 그 후로도 영동시장은 1957년 2월 4일, 1970년 3월 21일 등에 크고 작은 화재를 겪었다.¹⁸

15 「수원영동시장에 대화재」, 『경향신문』, 1952년 11월 27일, 2면; 「수원영동시장에 대화」, 『동아일보』, 1953년 1월 25일, 2면; 「피해액 60억 수원시 화재」, 『경향신문』, 1953년 1월 24일, 2면; 「영동시장준공 26일 낙성식 거행」, 『조선일보』, 1954년 1월 23일, 2면.

16 당시는 한국전쟁의 혼란기였기에 인플레이션이 극심하였고 화폐 가치도 매우 낮았다. 예를 들어, 화재 당일 부산시 도매물가(『도매물가』, 『동아일보』, 1953년 1월 20일, 2면)를 보면, 오징어 10축(200마리)에 15만 원, 백미 두입(斗入) 한 가마니에 46만 5,000원, 보리는 같은 양에 40만 원이었다. 이 화재가 일어난 지 1개월여 뒤인 2월 17일에 화폐 단위를 원에서 환으로 변경하는 통화조치가 단행되었고, 그에 따라 기존 100원이 1환으로 교환되었다.

17 운크라란 유엔 가맹국들이 자금을 출연하여 원조를 추진하였으며, 1958년 7월에 해체되었다.

18 영동시장과 화재의 관련성은 시장 입구에 위치한 거북산당에서도 잘 드러난다. 거북산이라는 명칭은 이 일대에 거북이 모양의 산이 있었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라고 전한다. 이 당은 본래 짚으로 만들어진 터줏가리 형태였으나, 1964년에 백운남에 의해서 현재의 맞배지붕 형태 기와집으로 중수되었고, 1986년 4월 8일에 서호(축만제)에 위치한 향미정과 함께 수원시 향토유적으로 지정되었다. 경기도도당곳 보유자였던 고 오수복과 이 당의 당주였던 임복례는 ‘이 양반(임복례의 외숙모)이 옛날에 태극기를, 남문에 올라가서 ‘영동시장에 불바다 된다.’고 흔들어 가지고 파출소를 수두 없이 끌려갔었어. 그랬는데 육이오사변에 영동시장이 폭격해서 다 타고 한중도 안 남았었어. 불바다 댜서, 그 양반(임복례의 외삼촌 백운남)이 육이오사변 나서 여기 모두 불바다 되고 그래니까 죄 집들을 짓고 그러니까 너 마지기 땅을 사다가 영동 당을 지었다구. 그래서 여기 당이 있



1954년 재건축 후 영동시장과 시장 낙성식(수원시, 『수원사진대관』, 1956) 왼쪽 사진은 수원천변의 영동시장 일대를 촬영한 것으로, 1953년 화재로 소실된 영동시장의 점포를 재건축한 모습을 담고 있다. 이 사진에서는 수원의 중심이었음에도 적지 않은 수의 초가가 발견된다. 오른쪽 사진은 영동시장 준공을 기념하여 진행된 낙성식을 촬영한 것이다.

영동시장의 화재들, 특히 1953년 1월에 일어난 화재는 매산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 화재로 수원시는 세수가 4분의 1이나 감소하면서 재정난에 봉착하였다. 이렇다 할 산업 기반이 없던 상황에서 시장세(市場稅)가 세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였기 때문이다. 더욱이 시장 재건축사를 위한 재원도 필요하였다. 그래서 수원시는 매산시장의 점포들을 매수하여 직영하려 하였다.¹⁹ 이 계획이 실제로 실행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지만, 1960년대에 간행된 통계연보에 매산시장이 사설시장으로 기록된 점으로 미루어 계획에 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매산시장은 수원시에서 영동시장에 이어 두 번째로 설치된 상설시장이다. 1956년 『시세일람』에 의하면, 매산시장의 설립일은 1949년 2월 5일이다. 그런데 1948년 12월 14일자 『동아일보』에는 「매산시장 19일 개시(수원)」라는 제하에 매산시장 상인들이 기성회를 조직하고 1,000여 만 원을 건어 현대식 점포 113호를 신축하여 12월 6일에 완성하였고, 그달 19일부터 상설시장으로 개시한다는 기사가 실렸다. 또한 이듬해 12월 24일자 『자유신문』

지.”(2002년 11월 11일에 거북산당에서 진행된 인터뷰)라며, 거북산당 관련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 당에서는 음력 10월 7일에 영동시장과 상인들의 안녕과 번영을 위한 굿이 행해지는데, 상인들 사이에서는 영동시장에 불이 자주 나서 굿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남아 있다. 거북이라는 이름과 당 중수 이야기, 지금은 없어졌지만 거북산당에 있었던 연못의 존재 등은 영동시장과 화재의 관련성을 알려 준다.

19 「매산시장을 시직영」, 『조선일보』, 1954년 1월 21일, 2면.

에는 「수원 매산시장 개시, 1주년 기념식 거행」이라는 제하에 그달 29일에 매산시장에서 개장 1주년 기념식을 거행하고, 백미(白米)와 시계 등을 상품으로 걸고 농악과 척사대회를 개최한다는 기사가 실렸다.²⁰ 이들 기사로 미루어 매산시장이 상설시장으로서 실제 영업을 개시한 때는 『시세일람』의 기록보다 다소 앞선 1948년 12월로 추정된다.



1950년대 매산시장(수원시, 『수원사진대관』, 1956)

한국전쟁 직후의 혼란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시에도 1950년대에는 백화점이 생기기 시작한다.

『동아일보』 1957년 12월 20일자 3면에는 「백화점입주응모공고」 광고가 실렸다.

수원의 심장(心臟)인 영동시장의 중심지에 현대식 철근콘크리트 건물(33평) 최신장비로서 좌와 여허 개점코저 하오니 물실기회(勿失機會)하시고 다수응모(多數應募)하심을 양망(仰望)하오며 자(茲)에 공고함.

이 광고에서 백화점의 명칭은 드러나지 않지만 1957년 10월에 개점하였다는 시민백화점으로 추정된다. 시민백화점은 1964년 4월에 소유권이 수원시청으로 이전되었다가 1969년 5월에 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고 그해 10월에 (주)시민백화점으로 설립 등기를 마쳤다. 또한 그해 12월에 사설시장으로 개설허가를 취득하였다. 통계연보에 설립 연월일이 1969년 12월 30일로 기록된 것도 이 때문으로 판단된다. 시민백화점은 이후 여러 차례 변화를 거쳐 1998년에는 대규모 소매점(백화점) 개설 면허증을 반납하고, 2003년부터 시장 환경 개선공사를 추진하여 현 시민상가시장의 모습을 갖추었다.²¹ 그 결과, 2011년 1월에 인정시장으로 지정되었다. 이 외에 1960년경 제일산업주식회사가 영동에 건립한 제1백화점이 있다.

20 「매산시장 19일 개시(수원)」, 『동아일보』, 1948년 12월 14일, 2면; 「수원 매산시장 개시, 1주년 기념식 거행」, 『자유신문』, 1949년 12월 24일, 2면.

21 수원시 팔달구 전통시장(<http://paldal.suwon.go.kr/market>), '시민상가시장'.



1970년대 시민백화점(수원상공회의소 소장)



영동에 설립된 제1백화점(시사통신 수원지사, 『수원의 역정』, 1960)

2) 도시화 · 공업화 시기의 전통시장

1960년대부터는 한국사회의 도시화와 공업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이촌향도 현상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도시화의 경우 용도지역 인구 기준으로 1970년에 40.7%였던 도시화율은 1975년 48.0%, 1980년 56.7%, 1985년 64.9%, 1990년 73.8%로 증가하였다. 수원 시도 도시화 과정에서 유입된 인구로 도시 규모가 급성장하게 된다. 외국인을 포함한 인구 증가를 보면, 1960년 1만 6,498가구 9만 806명이던 인구는 1965년 2만 1,665가구 12만 3,134명, 1970년 3만 3,451가구 17만 518명, 1975년 4만 6,645가구 22만 4,177명, 1980년 7만 1,154가구 31만 757명, 1985년 10만 6,909가구 43만 834명으로 급증하였다.²² 또한 1964년의 경기도청 이전도 수원시의 성장에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인천 · 안양 등지와와의 유치 경쟁 결과, 1963년 12월 10일 경기도청의 수원시 이전이 결정되었다. 인구 증가와 도청 이전은 전통시장에도 큰 활력소가 되었다.

이 시기 정부는 1962년에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근대화’ 담론을 확산시키며 경제개발에 매진하였다. 유통산업에서도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났다. 「구법령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659호)에 의한 구법령 정비계획의 결과, 일제강점기 이래

²² 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kr>), ‘주제별통계’; 수원시, 『통계연보』, 각 연도.



수원청과물도매시장(1975년)

유지되던 「시장규칙」이 폐지되고 이를 대체한 「시장법」이 1961년 8월 31일에 제정되었다. 이 법률에서는 기존 「시장규칙」의 주요 내용인 시장에 대한 경찰의 단속과 통제 조항을 삭제하고, 별도 법률이 제정된 중앙도매시장과 가축시장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 무렵부터 공식적인 통계연보가 발간되기 시작하여 1960년 이후 전통시장의 변화를 알려 준다.²³ 그에 따르면, 1960년 12월 말 기준으로 수원시에는 영동시장, 매산시장, 제1수원천시장, 제2수원천시장, 신탄시장, 가축시장이 개설되었다. 그중 가축시장은 북수동에, 신탄시장은 남수동에 개설되었다. 제1수원천시장과 제2수원천시장은 각각 1955년과 1956년에 개설되었다. 제1수원천시장은 수원시 사업보호회가, 제2수원천시장은 대한군인유족회 경기도지부가 관리하였다.²⁴ 그리고 전통시장을 포함하여 당시 수원에는 1,893

23 이렇다 할 산업 기반이 없던 당시에 전통시장은 세수 확보의 중요한 대상이었다. 그로 인해서 상인들과 세무당국 사이에 마찰도 종종 발생하였는데, 영동시장에서도 그러한 일이 발생하였다. 1960년 6월 15일 『동아일보』에는 「세금인하요구 수원상인들 데모」라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리기도 하였다.

“14일 상오 9시 수원 영동(榮洞)시장 상인 약 300명은 철시하고 수원세무서에 이르러 ‘약질세리 물러가라’, ‘부당과세 시정하라’는 푸라카드를 앞세우고 구호를 외치며 약 5시간 동안 농성을 하였다. 이들 데모대들이 주장하는 것은 현재 4기로 나누어져 있는 영업세 납기를 2기로 시정해 달라는 것과 1/4분기 과세액을 무조건 5할 감세해 달라는 것인데 세무당국자와 상인대표자 간에 장시간 협의 끝에 영업세 1할을 감세하겠다고 말했으나 상인 측에서는 최저 2할을 감세해 달라고 주장하여 별다른 해결책을 보지 못하고 세무서장이 사세청 당국자와 절충해서 해결하기로 약속하고 해산했다.”

〈표 2〉 1960년 수원시 시장 현황²⁵

(단위: 평, 개)

시장명	소재지	설립일자	면적	점포수
영동시장	영동 16	1919. 1.17.	3,525	346
매산시장	매산로1가 57	1949. 2. 5.	6,863	154
가축시장	복수동	1919. 7.29.	2,332	7
신탄시장	남수동 103	1949. 6.10.	1,836	
제1수원천시장	영동 35-6	1955.10.15.	325	107
제2수원천시장	팔달로1가 36, 남수동 159	1956. 1.31.	406	132

개의 소매상점에서 2,099명이 종사하고 있었고, 전통시장 외에도 1961년 8월 복수동 274번지에 청과물도매시장이 설치되었다.

통계연보를 통해서 1960년대 이후 전통시장, 그중에서 생활용품 시장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1960년대에는 그 수에 큰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줄어든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결

과는 「시장법」 제정에 따른 시장 정비 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1960년대에 비해서 1970년대의 전통시장은 안정적으로 성장하며 상권을 형성하였다. 이후의 변화와 연계하기 위해서 신탄시장과 가축시장, 도매시장을 제외하고 생활용품 소매시장의 수를 보면 1960년 4개에서 1970년 3개로 큰 변화는 없었지만, 이후 조금씩 증가하여 1985년에는 8개로 증가한다. 이 시기에는 소매상점의 수도 1960년 1,893개에서 1980년 4,424개로 증가하였다. 이 시기에는 크로바백화점(1974년), 남문백화점(1977년), 수원백화점(1980년) 등 중소 규모 백화점도 신설되어 유통업태의 다양화가 이루어졌다.



크로바백화점(수원상공회의소 소장)

24 수원시사편찬위원회, 『수원시사』, 1986, 978쪽.

25 수원시, 『제1회 통계연보』, 1961, 56쪽. 통계연보에 기술된 점포 구조 관련 용어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로 수정하였다.



1977년 9월 23일 삼원백화점 개점

〈표 3〉 도시화·공업화 시기 전통시장과 소매상점 현황²⁶

(단위 : 개)

연도	시장		소매상점수
	시장수	점포수	
1960	4	739	1,893
1965	3	561	1,605
1970	3	501	2,404
1975	5	890	3,043
1980	6	1,415	4,424
1985	8		

한편, 오일장 중심이던 기존 유통체계를 근대화하기 위하여 상설시장과 연쇄점을 육성하는 정책이 추진되었다. 그 일환으로 1969년에는 유통근대화 5개년 작업계획이 수립되었는데, 이 계획에서는 ‘유통수단의 조직 및 협업화’, ‘경영과 시설의 현대화’, ‘유통금융의 원활화’, ‘유통관계 종사자 및 소비자의 자질 향상’, ‘정부 기능 강화’ 등을 추진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이후 이러한 방향은 지속되었고, 현재의 전통시장 정책에서도 반복되고

²⁶ 수원시, 『통계연보』, 각 연도. 신탄시장, 가축시장, 도매시장을 제외한 수치이다.



1970년대 역전시장

점포 임대개시!

드디어 수원영동시장 신축개점 박두!!

※ 2층점포 임대를 원하시는 분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선착순으로 분양합니다

신청접수마감 1972년 9월 20일
개점 예정일 1972년 11월 1일
접 수 처 영동시장주식회사

수원 영동시장주식회사 TEL 2613

영동시장 점포 임대 광고(『경향신문』 1972년 8월 28일)

하여 『경향신문』 1972년 8월 28일자 광고에는 영동시장주식회사 명의의 「점포 임대개시! 드디어 수원영동시장 신축개점 박두!!」라는 제하로 2층 점포의 임대를 위한 선착순 분양 광고가 실렸다. 이 광고에서는 개점 예정일을 1972년 11월 1일로 적고 있다.²⁷ 또한 이 시기 수원역전시장(1969년)과 역전지하도상가시장(1979년), 조원시장(1984년) 등 다수의 시장이 개설되거나 기존 시장에서 분화하였다. 이 시기에 수원시 전통시장의 성장은 교통 발달 및 도시 발전에 따른 과밀화와 도시기반시설 부족을 다룬 1979년 6월 2일 신문기사

있다.

이처럼 유통근대화 추진 결과 상설 시장이 증가하는 한편, 기존 시장의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1970년대 후반에도 시장 정책은 그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당시에 소매업 유통정책은 유통근대화론에 입각하여 상설시장 확충과 시설 개선, 농협의 연쇄점과 새마을구판장 확충, 소매상 연쇄화 등으로 진행되었다. 1977년부터는 유통근대화 재정자금을 중점 지원하여 상설시장의 시설개선사업을 촉진하였다. 이러한 정책으로 전국의 상설시장수는 1974년 492개소, 1977년 686개소, 1979년 776개소, 1981년 785개소로 증가하였다.²⁷

수원시에서도 그러한 사업들이 진행되었다. 예를 들어, 1953년 1월의 화재로 재건축되었던 영동시장은 1970년대 들어 시장현대화를 거쳐 새롭게 건물을 신축하여 개장하게 된다. 이와 관련

27 경제기획원, 『75년도 유통근대화 종합시책』, 1975(국가기록원 소장, 관리번호 BA0143095); 상공부, 『상공백서』, 1987, 523쪽; 조병찬, 『한국시장경제사』, 동국대학교 출판부, 1992, 340·362쪽.

28 「점포 임대 개시! 드디어 수원영동시장 신축개점 박두!!」, 『경향신문』, 1972년 8월 28일, 5면.

에 잘 드러난다. 이 신문에서는 팔달문 일대, 특히 영동시장을 다루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북대문을 지나 남대문까지에 이르는 성내는 비교적 한산한 편이다. 역시 수원은 수원답게 조용한 도시로구나 하는 인상이다. 한테 남대문에 이르자 그 생각이 얼마나 큰 오산이었나 하는 것을 순식간에 뉘우치게 된다. 팔달문(南門) 밖으로 나오는 순간 길은 자동차로 꽉 차 있고, 보도 위엔 시장 한복판처럼 붐비고 있다. 그것도 그럴 것이 팔달문의 동쪽은 예부터 이 지방에서는 가장 큰 시장으로 이름이 나 있는 영동시장이다. 아득한 옛날부터 이 시장은 인근 지방의 물산이 집산하는 곳이었다. …… 영동시장이란 간판이 붙은 아득하게 길고 높은 회색 건물이 거의 완성단계에 있음을 본다. 아직도 올라가고 있는 건물의 다른 한편에는 벌써부터 시장이 번창하고 있다.²⁹

또한 이 시기에는 기존 상권도 정비되었는데, 눈여겨볼 것 중 하나는 영동시장 일대 노점상 정비다. 영동시장은 수원뿐만 아니라 경기 남부에서 가장 큰 시장이었기 때문에 항상 노점상들이 운집하였고, 그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장이 개설되었다. 시장의 분화가 일어난 것인데, 1966년 지동시장, 1971년 매교시장, 1977년에 화서시장 등이 영동시장 일대 노점상인들을 집단 수용한 것이 계기가 되어 형성되었다.³⁰



영동시장 신축 기공식(경인일보사, 『경기근현대사전집』, 2010)



1970년대 초 영동시장 일대 노점 풍경

29 『팔달문 저자거리엔 서울의 과일이 번져온 차륜(車輪) 홍수』, 『조선일보』, 1979년 6월 2일, 6면.
30 남선녀, 『수원시 노점상에 관한 지리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16쪽.



1980년대 지동시장 일대(<http://www.jdmarket.co.kr>)

3. 전통시장의 증가와 침체

1980년대 후반부터 수원시에서는 기존의 중심지를 벗어나 외곽 지역의 도시 개발이 진행되면서 인구가 크게 증가하였고, 전통시장도 급격히 늘어나면서 황금기를 맞았다. 그러나 도시 개발은 전통시장에 긍정적 영향만 미친 것은 아니었다. 더욱이 유통환경의 변화와 시장 개방으로 전통시장은 급격한 침체를 경험하게 되었다. 여기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2004년까지 상황을 중심으로 수원시 전통시장의 변화를 살펴보려 한다.

1) 도시 개발과 전통시장의 급증

1970년대를 지나 1980년대 초반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하던 수원시 전통시장의 수는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 크게 증가한다. 특히 1988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하였는데, 1988년 9개이던 전통시장은 2년 후인 1990년에는 17개, 1995년에는 36개소로 급증하였다. 그

이후부터 2012년 말 현재까지 30여 개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전반 사이에 전통시장의 수가 급증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우선 인구 증가에 따른 전통시장 수요 증가에서 찾을 수 있다. 수원시의 인구(외국인 제외)는 1985년 43만 752명, 1990년 64만 4,805명, 1995년 75만 5,550명, 2000년 94만 6,704명으로 급증하였다.³¹ 이처럼 인구가 증가한 배경은 기존의 시가지를 벗어나서 신시가지들이 도시 외곽에 건설되었기 때문이다. 즉, 동수원과 서수원 일대가 개발되면서 인구가 급증하게 된 것이다. 동수원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우만동, 인계동, 권선동 등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이루어졌고, 1990년대 들어서는 영통 일대도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권선1지구, 원천지구, 영통지구, 영덕지구 등이 동수원에서 개발된 택지지구들이다. 서수원에서도 화서지구, 천천지구, 정자지구 등의 택지지구가 개발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권선종합시장, 정자종합시장 등의 시장이 개설되었고, 지금은 사라진 세류종합시장,³² 인정시장으로 지정되지 않아서 통계에 잡히지 않고 있는 신수원종합시장도 이 시기에 개설되었다.

한편, 1980년대는 86서울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이라는 양대 체육행사를 앞두고 미관 저해 등을 이유로 전국적인 노점상 단속이 진행된 시기다. 노점상들이 전통시장 주변에 다수 분포하기 때문에 노점상 단속은 전통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 1987년에 수원시 노점상의 상황을 다룬 연구³³에 따르면, 당시 노점상들은 팔달문 및 수원역 일대의 전통시장에 주로 분포하였다. 그들 중에는 수원시 출신이 13.6%였고, 수원시와 화성군, 서울시 출신을 합하면 36.6%였다. 그 외에는 전국 각지에서 수원으로 유입된 노점상들이었다. 또한 그들이 유입된 시기는 1959년 이전 7.0%, 1960년대 15.2%, 1970년대 38.6%, 1980년대 39.2%로 나타났다. 팔달문 일대 노점상들은 노점시장이라 불릴 만큼 번성하였지만, 당시 강력하게 추진된 노점상 정비, 팔달문과 경수산업도로를 연결하는 왕복 4차선 도로의 개통으로 분산되었고, 분산된 노점상들이 도시 개발 과정에서 여러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전통시장의 성장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도시 개발이 전통시장에 긍정적 영향만 미친 것은 아니었다. 도시 개발로 인구

31 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kr>), '주제별통계'; 수원시, 『통계연보』, 각 연도.

32 세류종합시장은 세류3동 351번지 일대에 개설되었던 시장이다. 지하주차장을 갖추고, 1~2층에는 시장, 3~4층에는 아파트가 들어선 저층 주상복합 건물에 들어서 있던 시장이었다. 시장의 운영주체는 세류시장(주)이었으며, 2000년대 들어서 시장이 침체하자 2004년 8월에 세류시장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설립되어 재건축을 추진하였다. 2007년 3월에 세류시장정비사업조합이 설립 인가되어 본격적으로 세류시장정비사업을 통한 재건축이 진행되었고, 2010년 4월 22일 주상복합아파트로 준공되었다.

33 남선녀, 「수원시 노점상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가 급증하였지만, 늘어난 인구의 생필품 수요가 기존 전통시장으로만 유입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도시 개발 과정에서 늘어난 시장들로 전통시장 간에 경쟁이 심해지면서 기존 상권을 위협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전통시장과 경쟁하는 대형 백화점도 늘어났다. 대형 백화점들은 도시 개발과 더불어, 점차적으로 유통시장이 개방되고, 통신 판매업 등 새로운 형태의 유통업체가 출현하는 한편,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 변화 등의 요인과 맞물리면서 증가하였다. 수원시의 사정도 마찬가지였다. 대형 백화점 진출의 서막은 뉴코아백화점 수원점(현 2001아울렛)이 1991년 12월에 영동시장과 멀지 않은 인계동에서 개점한 것이다. 이듬해 12월에는 같은 백화점의 동수원점이 개점하였고, 이후 대형 백화점들이 동수원 쪽에 차례로 들어섰다.

〈표 4〉 동수원·서수원 개발 시기 전통시장과 백화점 현황³⁴

연도	시장	백화점	연도	시장	백화점
1986	8	5	1991	19	5
1987	8	5	1992	23	6
1988	9	5	1993	31	6
1989	14	5	1994	35	5
1990	17	4	1995	36	7

대형 백화점의 등장으로 전통시장 상권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고, 개점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장보다도 시설이 더 열악하였던 기존 전통시장들이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에 상인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았다. 인계동에 뉴코아백화점이 들어설 때 영동시장 상인 2,000여 명이 이를 막기 위해서 각계에 탄원서를 내며 반발한 사건은 전통시장과 백화점 간 갈등을 그대로 드러낸 예다. 한 신문에서는 영동시장 등 전통시장이 장악하고 있던 수원시에 대형 백화점이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표현을 사용하여 당시의 상황을 전했고,³⁵ 다른 신문의 1993년 7월 29일 기사에서는 「위성도시 재래시장 사라진다」라는 제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싣고 있어 당시의 상황을 알려 준다.

…… 대형 백화점의 본격 개점으로 한때 개성(開城) 상권과 쌍벽을 이루며 100여 년 동안 번영을

34 수원시, 『통계연보』, 각 연도. 백화점의 수는 기존 중소형 백화점이 포함된 것이다.

35 「울상짓는 경기도 재래시장, 백화점에 밀려 가게 매장 '뚝」, 『한겨레』, 1994년 8월 19일, 16면; 「수원 영동시장, 대형 백화점 "쿠데타"」, 『경향신문』, 1991년 12월 13일, 12면.



2001 아울렛(옛 뉴코아백화점, 김현락 제공)



갤러리아백화점 야경(김현락 제공)

누리던 수원영동시장의 경우, 울 들어 남문 일대의 금은방 2곳이 문을 닫았고, 시장 내 30여 개 점포가 매물로 나와 있으며 지난해까지만 해도 호황을 누리던 의류점 일부는 타 업종으로 전업을 서두르고 있는 등 상권의 일대 변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영동시장의 위축은 길 건너에 승용차 200여 대를 주차시킬 수 있는 연면적 7,860평의 뉴코아백화점이 문을 연 지난 91년 12월부터 시작됐다.

게다가 잠재적 수요자로 기대를 모으던 동수원지구가 본격 개발되면서 연면적 1만 5,600평의 하이웨이백화점이 지난해 12월에 문을 열었고, 오는 95년까지 한양유통, 벽산그랜드코아, 선경리빙프라자, 인계종합시장 등 비슷한 규모의 대형백화점, 복합상가 등이 줄지어 들어설 예정이어서 상권의 주도권을 빼앗기는 것은 시간만 남은 셈이다.

불황이 심화되자 시장 내 5개 상인단체 사이에는 '주차공간 확보', '서비스 개선' 문제를 둘러싼 다툼이 한창 벌어지고 있으며, 시장 내 통로를 차지한 노점상 철거문제 때문에 폭력사태까지 종종 벌어지고 있다. ……³⁶

기존 백화점들이 팔달문 인근에 개설된 소형 백화점으로서 기존 상권에 융화되어 있었던 반면, 새롭게 개설된 대형 백화점들은 현대식 편의시설을 갖추고 차별화하면서 전통시장의 수요를 흡수한 것이다. 이처럼 도시 개발과 인구 증가는 전통시장 상권의 활

36 「위성도시 재래시장 사라진다」, 『동아일보』, 1993년 7월 29일, 26면.

성화 계기가 되기도 했지만, 현대식의 편리한 시설을 갖춘 백화점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기존 상권을 위축시키고 전통시장 상인 간 경쟁과 갈등을 부채질하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

2) 지역 유통업체의 다변화와 새로운 경쟁의 시작

1980년대부터 확산되기 시작한 신자본주의는 세계화라는 이름 아래 시장의 개방과 통합을 가속화시켰다. 그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도 점차적으로 유통시장을 개방하여 1996년부터 전면 개방하였고, 새로운 형태의 유통업체가 출현하는 등의 변화가 일어났다. 그러나 1980년대 전반까지 전통시장 관련 제도와 정책은 유통산업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였다.³⁷ 이에 1987년 7월 1일에 「도·소매업진흥법」(법률 제3896호)이 제정되었

〈표 5〉 유통시장 개방 추진 과정³⁸

시기	조치명	주요 내용
1981. 7.	외국인 투자 허용 소매업종에 대해 취급품목 및 매장면적 제한 실시	• 단일품목에 한해 100평 이하까지 매장설치 허용
1982.10.	제한 범위 확대	• 단일품목에 한해 200평 이하까지 매장설치 허용
1984. 7.	취급품목 제한 철폐 및 점포 수 제한 실시	• 단일점포, 매장면적 700㎡까지 허용
1988.10.	유통시장 3단계 개방계획 발표	• 1단계(1989) : 기술도입 및 도매업 투자 폭 확대, 외국지사 규제 완화 • 2단계(1991) : 소매업의 선별 개방(점포수 및 매장면적 제한 완화 등) • 3단계(1993) : 제한 범위의 대폭 축소, 자유화의 전단계
1989. 1.	1단계 개방계획 실시	• 기술도입 및 도매업 투자자유 폭의 확대 • 외국기업 국내지사의 수입 판매업종의 확대
1991. 7.	2단계 개방계획 실시	• 점포수 10개 이하, 매장면적 1,000㎡ 미만까지 허용
1993. 1.	3단계 개방계획 내용 및 전면 개방 시기	• 3단계 개방계획 - 점포수 20개 이하, 매장면적 3,000㎡ 미만까지 허용 • 전면 개방 시기 : 1996년
1993. 7.	3단계 개방계획 실시	• 점포수 20개 이하, 매장면적 3,000㎡ 미만까지 허용
1996. 1.	유통시장 완전 개방	• UR 서비스 협상 타결(1993년 12월) • 1996년 1월부터 점포수 및 매장면적 제한 완전 철폐

37 조병찬, 『한국시장경제사』, 동국대학교 출판부, 1992, 354쪽; 상공부, 『상공백서』, 1987, 521쪽.

38 중소기업청·한국유통연구소, 『재래시장 재개발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1996, 20쪽 재인용.

다. 이 법률에서는 기존 법률과 달리 '대규모소매점', '방문판매', '통신판매' 등을 포함함으로써 유통환경 변화와 방송통신의 발달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유통업체가 출현한 상황을 반영하였다. 또한 정부는 1987년부터 1991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하는 '제2차 유통산업근대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였다. 이 계획에서는 추진방향을 '도매기능의 강화와 유통조직의 체계화', '중소상인의 조직화·협업화 추진', '재래시장의 근대화', '공산품 유통배송센터 건설과 상품별 유통구조 개선사업의 연차적 추진', '판매시점정보관리제도 도입·정착화', '유통정보센터 설치 추진', '자본자유화에 대처한 경쟁력 배양과 국제화 촉진', '유통금융의 확충', '유통법령의 정비', '유통전문인력의 양성', '상거래질서 확립'으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전통시장과 관련한 계획은 기존과 다름없이 주로 시설의 정비와 현대화에 집중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백화점 이외의 대규모 점포들이 급성장하였다. 1996년 유통시장 전면 개방 직후 한 신문에서는 「할인점이 올 시장 주도」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다음처럼 할인점과 같은 신입태가 유통산업을 주도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신입태가 유통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세계 유통업계를 휩쓸고 있는 할인점 등 신입태가 유망산업으로 부상하면서 국내유통시장에도 할인점 바람이 일고 있다. 디스카운트 스토어, 회원제 창고형업체, 슈퍼센터, 아울렛(교외형 재고전문점) 등 세계 유통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할인업체들이 전 세계로 체인망을 확장해 가면서 외국 유통업체들이 국내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유통 관련 행정규제가 완화되면서 가격 인하를 최대 무기로 한 할인점 등 신입태의 입지가 크게 강화돼 할인업체의 급성장이 기대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³⁹고 전망하였다. 이 전망처럼 대형 할인점은 지속적으로 세력을 확장해 왔고, 이러한 상황은 수원시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통계연보를 기준으로 하면, 수원시의 대형 할인점은 1999년 1개에서 2005년 9개로 증가하여 정점에 다다랐고, 그 후 8개를 유지하고 있다. 수원시에 가장 먼저 들어선 대형 할인점은 1999년에 다목적 이벤트 홀과 문화센터를 갖추고 지하 7층, 지상 5층 규모로 개점한 그랜드마트 영통점이다. 그러나 다른 대규모 점포들은 그 이전부터 개점을 시작하였다. 1995년 9월에 뉴코아백화점이 회원제 대형 할인매장인 김스클럽을 인계동에서, 1997년 8월에 의류전문 탑스아울렛이 영화동에서, 1999년에 그랜드마트&아울렛 영통점이 신시가지에 개점하였다. 2000년대 들어서는 대형마트로 지칭되는 할인점들이 본격적으로 개점하기 시작하였다. 그해 9월에 홈플러스 북수원점, 10월에 홈플러스 영통점, 11월에

39 「할인점이 올 시장 주도」, 『매일경제』, 1996년 1월 6일, 14면.

홈플러스 원천점이 차례로 개점하였고, 이듬해 9월에는 이마트 수원점이 개점하였다. 이후로도 대형할인점이 계속 늘어나면서 전통시장의 침체를 가속화시켰다. 또한 이러한 업태 간에도 경쟁이 치열해져서, 기존에 백화점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던 중소규모 백화점이 폐점하거나 시민백화점처럼 허가증을 반납하고 시장으로 전환하는 등의 변화도 일어났다.

〈표 6〉 유통시장 전면 개방 이후 주요 대규모 점포 현황⁴⁰

시점	합계	대형마트(할인점)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1996	6	-	-	6	-
1997	6	-	-	6	-
1998	5	-	-	5	-
1999	6	1	-	5	-
2000	9	3	-	5	1
2001	11	4	-	6	1
2002	11	4	-	6	1
2003	16	3	-	9	4
2004	16	7	-	6	3
2005	18	9	-	5	4
2006	19	8	-	5	6
2007	20	8	1	5	6
2008	19	8	1	4	6
2009	19	8	1	4	6
2010	18	8	1	3	6
2011	18	8	1	3	6

대규모 점포의 증가는 전통시장을 비롯한 영세 소매상뿐만 아니라 그들을 고객으로 하는 중소 도매상에게 영향을 미쳤다. 그러한 상황에 대해 한 신문에서는 「할인점 1곳이 재래시장 상인 1,100명 위협」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다음처럼 적고 있다.

98년 100개에 못 미쳤던 대형 할인점수는 지난해 280개로 늘어난 데 이어 최근에도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다. …… 98년 5조 원 대에 머물렀던 대형할인점의 매출액은 2004년 20조 원으로 증가했다. 또 신세계유통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002년 기준 할인점 1곳의 평균매출액은 연 768억 원으로 연 110억 원에 그친 재래시장 매출의 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래시장상인연합회 관계자

40 수원시, 『통계연보』, 각 연도; 경기도, 『통계연보』, 각 연도.

는 “재래시장 1개당 평균 상인이 165명인 것을 감안하면 결국 할인점 1곳이 재래시장 상인 1,100명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 수원에서 중소 슈퍼마켓에 음료수를 납품하고 있는 도매상 오 아무개 씨는 “우리 같은 중소 도매상은 대형 할인점 납품은 꿈도 꾸지 못하고 주로 동네 슈퍼마켓 위주로 납품을 하고 있다.”며 “보통 슈퍼마켓 1곳에 도매상 30~40곳이 거래를 하는데, 슈퍼마켓 1곳이 문을 닫을 경우 도매상 30~40곳이 거래처를 잃어버리게 되는 셈”이라고 밝혔다. 최씨는 그러나 “동네 도매상이 타격을 입는 것에 대해선 누구도 언급하지 않는다.”며 “시에선 세금을 걷을 수 있어 대형할인점 출점을 허가해 주겠지만 다른 한쪽에선 이 때문에 망해 가면서 세금은커녕 생계조차 이어가기 힘들다는 사실을 알아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⁴¹

이처럼 대규모 점포의 증가로 전통시장을 비롯한 영세 상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기존의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폐지되고 전통시장만을 대상으로 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7235호)이 2004년 10월 22일 제정되었다. 이 법에서는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여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제정목적으로 밝히고, 전통시장을 “시설이 노후화되어 개·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하거나 유통기능이 취약하여 경영개선 및 상거래의 현대화 촉진이 필요한 장소”로 규정하였다. 또한 전통시장을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으로 구분하고, 자치단체별로 ‘지역시장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에 따라서 많은 자치단체가 전통시장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다. 수원시도 2005년 9월 28일에 조례 2570호로 「수원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 법률이 2006년 4월 28일에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7945호)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2007년 12월 27일 「수원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로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4. 시장의 현대화와 문화적 활로 모색

자본을 갖춘 대규모 백화점과 할인점이 수원시의 전통시장 상권을 잠식한 것은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와 같은 외적 요인뿐만 아니라 내적 요인도 작용하였다. 전통시장은 흥정, 덤, 대면적 거래 등의 전통적 상거래 관행을 유지하고 있다는 장점을 지녔지만, 그와 같은

41 「할인점 1곳이 재래시장 상인 1,100명 위협」, 『오마이뉴스(www.ohmynews.com)』, 2005년 6월 7일.

상거래 관행은 합리적 소비를 지향하는 젊은 소비자에게는 단점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여기에 변화를 두려워하며 기존 관행을 고수하려는 상인들의 성향과 비좁은 주차장, 위생이 불량한 화장실 등의 열악한 편의시설도 문제로 제기되었다. 최근에 전통시장들은 정부의 지원과 자구를 통해서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며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2004년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이후부터 2012년 현재까지 수원시 전통시장의 변화상을 살펴보려 한다.

1) 시설과 경영의 현대화를 통한 변화 모색

유통시장 개방 이후 새로운 유통업체가 영세 상권을 잠식하며 영향력을 확대하자, 전통시장 상권 및 영세 소상공인 보호·지원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었고, 2004년에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에서는 전통시장을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으로 나누는데, 이에 따라서 관련 각 자치단체의 통계연보에도 등록시장과 인정시장 현황이 수록된다.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0년 말 기준으로 수원시의 등록시장은 3개, 인정시장은 16개, 상점가는 2개였고, 2011년 말 기준으로 등록시장은 3개, 인정시장은 17개, 상점가는 3개였다. 그런데 기준을 갖추지 못하여 인정시장이 되지 못한 시장들이 통계에서 누락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앞서 언급한 서문시장이나 신수원종합시장 등이 그러한 경우에 속한다. 또한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의 기준을 오해함으로써 각 자치단체 통계연보의 시장현황 통계에 오류가 생겨서 짧은 기간에 전통시장의 수가 급변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기도 한다.⁴²

한편, 유통시장 전면 개방 이후 전통시장 지원은 주로 시설 현대화에 두어졌다. 전통시장 활성화의 주요 사업 중 하나는 시설 및 환경 개선사업이다. 이를 위해서 2002년부터 2010년 동안에만 총 1조 1,853억여 원⁴³이 지원되었고, 현재도 시설개선 사업은 지속되고 있다. 수원시에서는 화성이 1997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고부터 주변 전통시장의 현대화사업이 추진되었다. 특히 2002년 월드컵 개최를 앞두고 정부가 ‘팔달문시장’을 국

42 예를 들면, 통계연보에서 수원시의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의 총수는 2004년 37개, 2005~2007년 47개, 2008년 48개, 2009년 49개였다가 2010년 19개소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통계적 오류로 보인다. 세부적으로 보면, 2009년 기준 통계연보에는 등록시장 33개, 인정시장 16개로 기록되었지만, 2010년 기준으로는 등록시장 3개, 인정시장 16개로 기록되었다. 이것은 실제로 시장수가 급감한 것이 아니라,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여 2009년까지 전체 시장수를 기록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2004~2009년 기준 통계에서 전체 시장수는 등록시장의 시장수와 동일하다고 판단된다.

43 중소기업청 시장상권과, 「'02~'10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국비 지원 현황」(2010년 3월 23일).

비 지원 대상 시범 시장으로 지정하면서 시설 현대화사업이 본격화되었다. 그 결과, 2002년에 팔달문시장 고객지원센터 등의 편의시설 설치와 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시설 현대화의 대표적인 것이 아케이드 설치다. 아케이드 설치하는 골목형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그 까닭은 이러한 시장이 우천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수원시에서도 미나리광시장이 2009년 12월에, 못골시장이 2010년 10월에, 구매단시장과 팔달문시장이 각각 2011년 4월과 10월에 아케이드를 부분 또는 전체 구역에 설치하는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해 왔다. 아케이드 설치 외에 주차장과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 설치, 통행로 및 진입로 확보를 위한 구획선 정리 등도 시설 및 환경 개선사업의 주요 부분이다. 이외에도 다양한 개선사업이 추진되는데, 지동시장의 예를 보면, 총 4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세계문화유산 '화성'을 조형화한 외벽 리모델링, 전천후 쇼핑공간 아케이드 조성, 콜센터 구축 등의 사업을 시행, 2005년 4월에 준공하여 현재와 같은 모습을 갖추었다. 이와 같은 시설 개선사업은 상대적으로 큰 예산이 소요되며, 2012년에도 12개 시장에 약 73억 3,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될 계획이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을 들인 시설 현대화가 곧바로 전통시장의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한



리모델링을 마친 지동시장



아케이드가 설치된 팔달문시장

〈표 7〉 2012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결정 내역⁴⁴

(단위 : 천원)

시장명	사업내용	내역		
		국비	지방비 및 자부담	계
지동시장	소방시설	28,380	18,920	47,300
	실외기 보수	7,495	4,996	12,491
	엘리베이터 보수	9,438	6,292	15,730
	CCTV 설치	35,244	23,496	58,740
	소계	80,557	53,704	134,261
못골시장	LED 전광판 설치	127,608	85,073	212,681
	고객휴게실 설치	108,720	72,480	181,200
	소계	236,328	157,553	393,881
영동시장	Brand Sign	59,640	39,760	99,400
	출입계단 정비	77,280	51,520	128,800
	소계	136,920	91,280	228,200
권선시장	옥상주차장 방수 및 체크플레이트	171,300	114,200	285,500
구매탄시장	주차타워 건립	1,499,498	1,000,000	2,499,498
남문로데오시장	공연장 설치	291,000	194,000	485,000
미나리광시장	아케이드 설치	546,000	364,000	910,000
조원시장	방송설비 및 보안등 설치	36,402	24,268	60,670
	바닥 정비	81,000	54,000	135,000
	홍보아치 설치	114,000	76,000	190,000
	소계	231,402	154,268	385,670
거북시장	도시가스 배관 설치	9,901	6,602	16,503
정자시장	CCTV 설치	76,521	51,014	127,535
역전지하도상가	캐노피 설치	164,770	227,540	392,310
	에스컬레이터 설치	180,495	249,255	429,750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	57,960	80,040	138,000
	소계	403,225	556,835	960,060
가구거리상점가	상징조형물 설치	159,384	106,256	265,640
	쉼터공간, 태양광 가로등 설치 등	385,236	256,824	642,060
	소계	544,620	363,080	907,700

것이 현실이었고, 상인들과 관계자들도 그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2003년 1월 22일자 지역신문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는데, 이는 수원시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기된 문제다.

44 중소기업청, 「2012년 시설 현대화사업 교부결정 내역」, 2012.

15일 도에 따르면 도는 할인점 등에 고객을 빼앗기면서 상가 대부분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도내 재래시장 63개소의 활성화를 위해 열악한 시설과 진입로 부족, 화장실 개·보수, 주차장 미확보 등 구조개선 문제에 초점을 두고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 그러나 이 같은 시설투자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의 발길은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어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도내 재래시장 대부분이 식료품과 생활용품 판매에 집중하고 있어 같은 품목을 판매하면서도 현대시설을 갖춘 할인점과 경쟁에서 뒤처지는 만큼 할인점과 중복되는 식료품 및 생활용품 판매를 지양하고 재래시장만이 갖는 관광화 및 특성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해 도와 수원시가 집중 투자했던 팔달문시장의 한 관계자는 “우선 청결하고 깨끗해 단기적 매출은 증가했다고 볼 수 있지만, 이 같은 성과가 얼마나 오래 갈지는 미지수”라며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대형 할인점에 맞서기 위해서는 도내에 산재한 재래시장을 각기 특성화시키는 집중투자를 통해 ‘구경하면서 물건을 살 수 있는’ 관광단지화하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⁴⁵

이처럼 시설 현대화는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한 필요조건은 되지만 충분조건은 되지 못하였다. 시설과 경영의 현대화가 어느 정도 진척되었지만, 그 결과가 기대만큼 드러나지 않은 것이다. 이에 중소기업청은 2005년에 기존의 시설 현대화 지원 중심에서 시장의 특성별 육성으로 정책방향을 다양화하고, 전통시장 공동상품권인 온누리상품권 발행, 방송(KBS ‘6시 내 고향’)을 활용한 전통시장 홍보,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등의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⁴⁶ 또한 당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경영개선과 상거래 현대화를 규정한 것처럼, 관련 사업을 추진할 시장경영진흥원을 설립하였다. 이어서 2006년에는 기존의 정책들을 체계화하여 「재래시장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중소상인에게 안정적 영업기반 제



2009년 팔달문시장 상인대학 졸업식

45 「재래시장 활성화 재검토해야」, 『수원신문』(<http://www.suwon.com>), 2003년 1월 22일.

46 중소기업청, 「05년 재래시장 활성화 종합대책」(2005년 2월 22일); 재정경제부·중소기업청,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2005년 5월 21일).

공', '시장 고유의 틈새 경쟁력 확보'를 정책 목표로 정하고, 경영혁신, 시장관리 선진화, 시설현대화, 상권 활성화를 정책과제로 설정하였다. 그에 따라서 그간 시설 현대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았던 경영 현대화에 대한 지원이 늘어났고, 전통시장별로 상인대학(혹은 경영대학)이라는 이름의 경영교육이 실시되었다. 또한 지역의 학교와 전통 시장이 자매결연하는 지원책도 추진되었는데, 수원시에서도 2009년 8월에 팔달문시장과 아주대학교, 영동시장과 경기대학교가 자매결연하는 사업 등이 추진되었다.

정부나 자치단체의 지원뿐만 아니라 위기의식을 느낀 전통시장들이 상호 간에 경쟁을 지양하고 협력을 모색하는 일도 잦아졌다. 수원시의 전통시장들은 2012년 5월부터 매달 2회씩 세일 데이를 개최하고 있다. 할인점이나 백화점에 맞서는 동시다발적 할인행사인데, 이날에는 10% 할인과 더불어 덤 없어 주기 등의 할인서비스가 시행된다. 그해 5월 27일에 시행된 행사에서는 지동시장의 주요 품목인 순대곱창집들은 6,000원짜리 순대국을 5,000원에 판매하고, 못골시장에서는 1만 원 이상 구입한 손님들에게 장바구니를 나누어 주었다.⁴⁷ 이와 더불어 고객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가 개최되고 있다. 수원천 복원으로 설치된 지동교 위 상설무대에서는 매주 수요일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토요일 상설 공연이 행해진다. 2012년의 경우 9~12월에 개최되었다. 이 공연은 팔달문 일대 9개 시장, 즉 구천동공구상가, 남문로데오, 남문패션1번가, 못골종합시장, 미나리광시장, 시민상가, 영동시장, 지동시장, 팔달문시장 상인들의 연합체인 팔달문지역 전통시장연합회가 주관한다. 이 외에도 팔달문시장거리축제, 로데오거리축제 등이 개최되면서 전통시장이 상품만 사고파는 장소가 아니라, 문화적 장소로 기능함으로써 활로를 모색하려는 것이 최근 전통시장의 변화 모습이다.

2)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모색

시장은 경제적 공간이면서 사회문화적 공간이다. 우리 사회의 근대화 과정에서 오일장이 신문기사나 연구자 또는 여행 작가 등의 글에서 주로 사회문화적 공간으로 다루어져 왔던 반면, 상설시장은 주로 경제적 공간으로서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상설시장들도 문화적 측면에서 다루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다. 그것은 단순히 시장이 지닌 문화사적 의미에서가 아니라, 실제로 이들 시장이 문화공간으로서도 기능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의 전통시장 정책도 단순히 시장을 경제적 공간으로서가

47 「재래시장의 반격... '세일 데이'를 아세요?」, 『조선일보』, 2012년 6월 4일, A14면.

아니라 문화적 공간으로 바라보고, 문화를 통해서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여기서 짚어 볼 것이 바로 전통시장이라는 용어에 대한 법률상의 정의다. 앞에서 2008년부터 정책적으로 재래시장 대신에 전통시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고 기술한 바 있는데, 이 용어가 법률에서 사용된 것은 2009년 12월 30일 기존 법률의 명칭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9887호)으로 개정되면서부터였다. 그에 따라 법률적으로 재래시장은 전통시장으로 불리게 되었다. 그러나 이 용어에 대한 법적 정의는 기존과 큰 차이가 없었다. 기존 법률에서는 재래시장을 “근대적인 유통기능이 취약하여 경영현대화 및 정보화를 필요로 하거나 건물시설이 노후화되어 개·보수 또는 재개발·재건축을 필요로 하는 장소”로 규정하였다. 전통시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도 전통시장은 “상업기반시설이 오래되고 낡아 개수·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하거나 유통기능이 취약하여 경영 개선 및 상거래의 현대화 촉진이 필요한 장소”였다. 이러한 정의는 전통시장이 지닌 사회문화적 의미와는 무관하게 시설과 경영의 현대화라는 법률 제정 목적에 의한 선택의 결과이다.

그런데 이 정의를 따르게 되면, 현대화 사업을 마친 시장은 전통시장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이 정의에 근거하여 관련 연구자나 정책 담당자들은 1980년 이전, 늦어도 1985년 이전에 설립된 시장을 재래시장으로 파악하였는데, 이렇게 본다면 늦어도 1985년 이후에 새로 생긴 시장은 전통시장이 아니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수원시에서 가장 오래된 영동시장이나 매산시장도 현대화 사업을 마쳤다면 이미 전통시장이 아니게 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전통의 의미를 매우 협소하게, 그리고 전통을 현대와 대립하는 개념으로 파악하면서 생긴 결과다. 또한 이 정의에서 전통시장은 그것이 지닌 사회문화적 의미, 기능과는 관계없이 단지 경제활동의 장소로 파악된다. 이와 같은 문제점 등으로 전통시장이 지닌 다양한 의미와 기능을 포함하도록 법률적 정의를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그 결과, 2012년 12월에 개정된 법률에서는 전통시장을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 정의하게 되었다. 앞서 언급한 최근 전통시장의 변화에서처럼 법률에서도 문화적 접근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에 따라 향후 전통시장 정책도 시설 현대화보다는 그것이 지닌 사회문화적 의미를 강조하고, 문화를 통해서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수원시의 전통시장들은 그러한 변화에서 선도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히는 시장이 바로 못골종합시장(이하 ‘못골시장’)으로 약칭)이다.⁴⁸ 못골시장은 팔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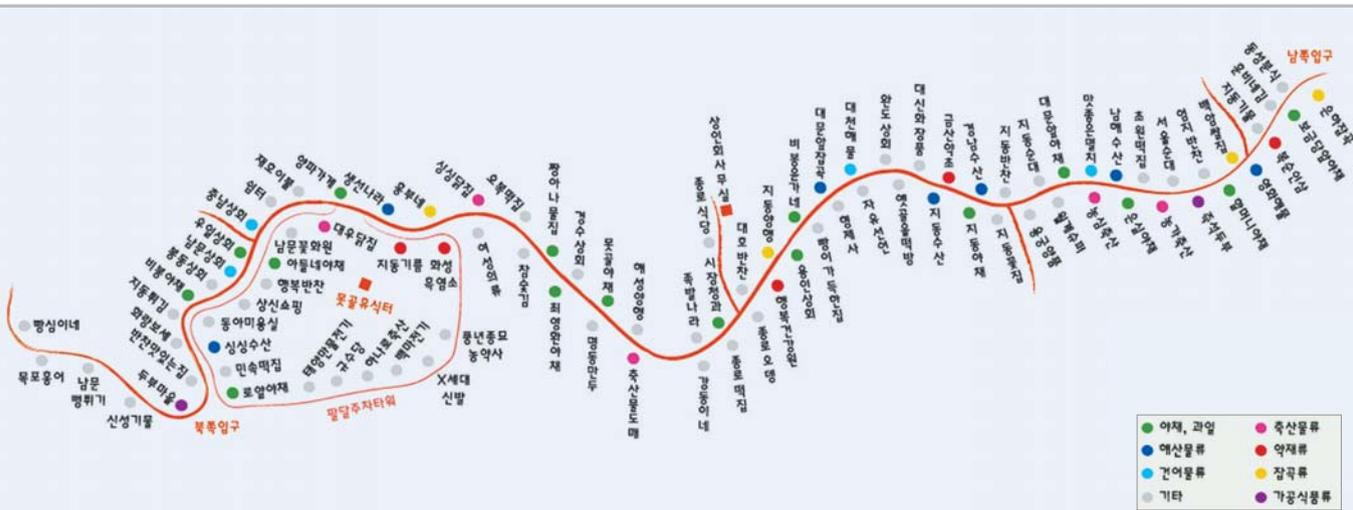


현대화된 못골시장

문 일대 전통시장 중에서 규모가 작은 시장이다. 본래 팔달문 일대에 있던 노점상들이 모여 1975년경 형성되었고, 2003년에 상인회가 설립되어 2005년 8월에 인정시장으로 지정되었다. 이 시장은 전통시장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시장인데, 2008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문전성시 사업을 통해서 대외적으로 알려졌다. 당시에 못골 시장은 강원도 강릉시 소재 주문진시장과 함께 문전성시 사업의 첫 번째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문전성시는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의 약자이며, “상업적으로 침체된 전통시장에 숨결을 불어넣어, 전통시장을 지역문화공간이자 일상의 관광지로 활성화” 하고 주민의 문화향유를 제고하는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여러 전통시장 중에서 못골 시장이 대상지로 선정된 이유는 이 시장이 지역성과 자원성 그리고 시장다움이라는 요소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인데, 당시 사업 기획자는 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은 여러 시장 중에서

48 이하 못골시장 사례에 대해서는 못골시장 홈페이지(<http://www.motgol.com>); 『못골시장 이야기바구니』(지역활성화센터, 2010);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문전성시 프로젝트) 2011년 사업설명회(2010년 10월 28일) 자료집」(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과, 2010)을 주로 참조하였다.



못골시장 점포지도(<http://www.motgol.com>)

못골시장을 대상지로 선정한 이유를 다음처럼 설명한다.

문전성시 프로젝트를 위해 지난 4월, 건축·문화기획·공공디자인·스토리텔링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컨설팅단이 꾸려졌다.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 추천받은 수십 곳의 재래시장 가운데 후보군을 추려 냈다. 그다음 다시 하나하나 현장답사한 끝에 수원 못골시장을 시범사업 대상 시장으로 결정했다. 선택 기준은 ‘사람들의 마음을 끌 만한 이야기가 있을 것’, ‘근처에 관광지를 비롯해 사람들을 유인할 만한 요소가 있을 것’, ‘전통시장의 원형을 갖추고 있을 것’ 등이었다. 수원 못골시장은 수원의 변화가인 팔달문 상권에 속해 있다. 점포수 87개의 작은 규모 때문에 ‘팔달문 막내시장’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못골시장이 선정된 가장 큰 이유는 이곳이 전통시장의 원형을 비교적 잘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⁴⁹

한편, 이 사업이 기존 정책과 다른 점은 시설이 아닌 전통시장의 문화적 특성과 커뮤니티 기능 회복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이 사업에서는 문화를 ‘예술(art)’과 ‘전통(heritage)’과 ‘생활(lifestyle)’의 결합체로 파악한다. 여기서 예술은 “전통시장의 장소성을 기반으로 한 풍부한 창작활동, 상인과 주민의 관계 맺기 활동, 전통과 현재를 잇는 매개활동 등”으로, 전통은 “덤, 흥, 정으로 대변되는 고유한 문화적 가치의 총체”로, 생활은 “지역의 정보

49 정영선, 「누가 시장에 장 보러 오나? 사람 구경하러 오지! 수원 문전성시 못골시장 프로젝트」, 『너울』 통권 107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8년 10월.

교환과 유통의 장이자 지역주민의 애환을 나누는 커뮤니티, 오래 전부터 내려온 서민의 삶의 터전”으로 개념화된다. 그렇기에 문화기획자 등의 사업담당자뿐만 아니라 시장 상인들이 사업의 주체로서 적극 참여하고, 이러한 과정은 상인과 주민, 시장과 지역이 소통하는 계기가 된다. 못골시장의 문전성시는 많은 전통시장과 자치단체에서 문화를 전통시장 활성화의 중요한 매개로 보면서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문전성시 사업은 못골시장에 기존에 없던 변화를 가져왔다. 2008년 10월부터 2010년 5월까지 행해진 이 사업에는 지방비 등까지 합쳐 14억 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다. 그 이유는 시장에 필요한 문화공간 조성과 출판물 발간, 축제 개최, 상인과 학생, 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 상인동아리 활동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상인들 스스로가 시장을 역동적으로 변화시키는 주역이 되었다. 특히 당시에 결성된 못골줍마블평합창단, 온에어상인DJ, POP상급자반, 못골소식지기자단, 늦바람밴드, 상인 요리장사 등 6개의 상인동아리는 문화를 통한 시장 활성화와 상인 자치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시장운영진으로 구성된 기자단은 자발적으로 못골시장이 지닌 문제점들을 짚어 내며 해결책을 모색하였다. 또한 젊은 상인들이 주축이 되어 진행된 온에어라디오방송은 시장을 시장답게, 그리고 시장의 이야기를 주민과 함께 나누는 데 기여하였다. 합창단과 밴드, 요리장사 등은 자신들이 가진 문화적 끼를 발산하고 키우면서 그 성과를 상인들 및 지역 주민과 공유하였다. 이러한 문화적 변화는 그 자체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시장 수익의 확대로도 이어졌다. 사업기간의 매출액을 조사한 결과 이전보다 22.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 나타났다.

못골시장의 사례는 문화가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 결과, 최근에는 전통시장에 문화시설을 결합하거나 문화 활동 또는 프로그램이 결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과거에 오일장이나 지역의 유명한 전통시장을 관광자원화하던 것보다 진일보한 변화의 모습이라고 하겠다. 수원시에서도 이러한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정부나 자치단체가 사업을 지원하고 주도하던 초기 양상과 달



못골시장 온에어라디오방송

문화공간으로 변신하였는데, 이 시장의 A동 2층에 복합문화예술공간인 '수원영동 아트포라'가 개관한 것이다. 아트포라란 'Art'와 라틴어로 시장을 뜻하는 'forum'의 복수형 'Fora'를 조합한 단어다. 아트포라 조성사업은 2010년에 시장 2층 유휴공간을 문화공간화하기 위하여 수원시와 영동시장, 경기대학교가 공동으로 추진하기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서 영동시장 측은 공간을 무상임대하고, 수원시는 공사비와 운영비를 지원하였다. 2012년 7월에 행해진 입주 예술가 공모를 보면, "시장(또는 상인)과 협업을 통해 시장 활성화와 문화예술 창작 및 저변확대"를 목적으로 함을 밝히고, 신청자격으로 '영동시장 내 상인과 연계하여 창작물 창안, 지역주민 및 방문객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가능한 예술 창작 집단' 또는 '시장(또는 상인) 등과 연계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팀'으로 제한하였다.⁵⁰ 단순히 문화공간 하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와 전통시장, 학교 등이 협력하여 시장을 문화예술 인큐베이팅 공간으로 변신시키고, 다양한 사람이 교류함으로써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5. 전통시장의 미래, 그 희망과 불안

최근에 많은 전통시장이 문화를 통해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앞의 사례들뿐만 아니라, 팔달문시장에서도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다. 팔달문시장은 2011년에 중소기업청의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에 선정되어 '왕이 만든 시장'을 테마로 왕의 길 조성, 유상박물관 설치, 불취무귀 동상 제작 등의 사업을 진행하였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이 유상박물관이다. 이 박물관에는 팔달문 일대 시장들이 그려져 있고, 상인들의 미니어처, 시장에서 장사를 하면서 아들을 복서로 키운 어머니의 이야기와 그 아들의 글러브처럼 상인들과 관련된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서 '유상(柳商)'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유상은 일반적으로 개성의 송상(松商), 의주의 만상(灣商), 동래의 내상(萊商 혹은 南商)처럼 평양의 상인을 지칭하는 용어다. 그 이유는 평양을 유경(柳京)이라 지칭했던 데서 비롯되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수원도 유경이라 불렀고, 그래서 수원의 상인을 유상이라고 불렀다는 이야기가 확산되고 있다. 수원시의 발전은 화성 건설에서 비롯되었다. 당시에 화성을 축성(築城)하고

50 「남문로테오시장, 빈 가게가 갤러리로 변신」, 『수원일보』(http://www.suwon.com), 2012년 8월 6일; 수원문화재단 (http://www.swcf.or.kr); 「수원 영동시장에 창작공간 조성」, 『조선일보』, 2010년 8월 3일, A31면.

주민들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많은 재화와 인력이 필요하였다. 정조는 내탕금을 주어서 화성의 상업 진흥에 힘썼다. 그에 따라 화성행궁 신평루 앞 대로 좌우로 비단, 무명, 모시, 어물, 쌀, 종이, 신발, 소금, 상(床)과 유기 등을 취급하는 시전(市廛)이 설치되었지만, 시전은 정조의 기대만큼 활성화되지는 못하였다. 또한 당시에 정조는 사도세자와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묘를 수원부 화산으로 옮기면서 수원천에 버드나무를 심게 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정조의 효심에 감동하고 개혁에 동참하려는 선비들이 몰려들어 장사한 것이 유상의 유래라는 것이다. 그에 따라서 수원시와 팔달문시장은 2012년 2월 29일에 시장 안내센터 앞에서 수원 상인의 정체성을 유상에서 찾는 ‘유상선포식’을 개최하였다.

정조 대에 실학자들이 상업의 부흥을 중요하게 여기며, 정조의 개혁에 동참하였던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수원시의 한 지역신문에서는 그와 같은 상황과 실학자들의 양반상인론을 소개하는 글이 연재된 바 있다. 그 글들에는 실학자들의 양반상인론, 화성 건설 당시의 상황 등이 소개되었는데,⁵¹ 그 내용들이 팔달문시장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확대 재생산되면서 ‘수원 상인(특히 팔달문시장 상인)=유상’으로 변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최근에 지역언론들을 통해서 ‘수원=유경’, ‘수원 상인=유상’이라는 등식이 공식화되고 있다.⁵²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전통의 계승일까 아니면 왜곡으로 보아야 할까? 그렇지 않다면, 새로운 전통의 창조로 보아야 할까?

수원시의 전통시장은 화성 건설로 기틀을 마련하여 한국사회의 도시화 과정에서 성장하였고, 도시 개발 과정에서 잠시 황금기를 맞았다. 그러나 도시의 발전이 반드시 전통시장에 긍정적 영향만 미친 것은 아니었다. 그 과정에서 늘어난 대형 백화점들과 경쟁하였고, 그 이후로는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유통시장 개방과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따른 환경 변화, 새롭게 생겨난 유통업체, 특히 대형 할인점과 경쟁하면서 침체되어 왔다. 최근에 전통시장의 침체는 한국사회의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대두되었고,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시장의 경제적 측면이 부각되었다. 그 결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 현대화와 경영 현대화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것은 서민들이 즐겨 찾으면서도 대형 할인점의 확산과 온라인 쇼핑의 보급에 따라 위기에 처한 전통시장에 어느 정도 단비가 되었다. 그럼에도 전통시장의 현재는 여전히 불안하다. 못골종합시장상인회가 발행하는 시장신문에는 다음처럼 한 상인이 쓴 기사가 실려 있어 상인들의 불안감을 알려 준다.

51 2011년 12월부터 1월까지 5회에 걸쳐 『수원신문』(<http://www.suwon.com>)에 「팔달문시장 기획연재 ‘선비상인, 유상의 뿌리를 찾아서」라는 글이 실렸다.

52 조선시대에 수원을 유경이라 하고 수원시 전통상인을 유상이라고 하였다는 주장의 문제점은 『수원화성신문』(<http://www.esuwon.net>)에 2011년 7월 23일자에 실린 정해득의 「수원을 유경(柳京)이라 할 수 있나?」라는 기고문에 잘 정리되어 있다.



2010년 9월 19일 화서시장



2011년 4월 23일 거북시장 새술막 술축제



2005년 2월 5일 영동시장

재개발사업과 전통시장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지동 115-10구역 재개발지역에 전국을 대표하는 못골시장, 미나리광시장이 정비구역에 포함되어 있다. 못골시장에서는 전국이 아닌 해외 전통시장에서 벤치마킹을 오게 하는 야심찬 목표와 함께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 못골시장 상인들은 재개발을 반대하는 것이 아닌 못골시장과 미나리광시장을 살릴 수 있는 설계 변경을 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다. 아파트 주변에 전통시장이 3곳이나 있다는 것은 입주자들에게도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조합 측이나 수원시에서는 시장을 살리는 방법을 찾고 있는 것으로 시간을 끌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는 대안을 하루 빨리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못골시장과 미나리광시장 상인들은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재개발 문제가 해결되어야 별 걱정 없이 생업에 열중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일부 상인들은 용산참사와 같은 상황이 재연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스런 말들도 하고 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전통시장이 재개발로 사라지게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⁵³

정부의 많은 지원과 상인들의 지구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의 미래가 밝다고 말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며, 유상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현상도 이러한 배경에서 이해해 볼 수 있다. 즉, 유상은 전통시장의 침체를 보며 상인들이 느낀 위기감을 반영하는 한편, 그들이 역사적 사실과 연결시킴으로써 수원시 전통시장의 정통성과 자신들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용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전통시장이 처한 위기와 상인들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굳이 역사적 배경을 끌어들이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시장이 지닌 본래적 기능을 회복하는 데서 전통시장의 정체성과 활로를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전통시장은 경제적 행위만 이루어지는 장소가 아니다. 장소로서 시장은 지역 공동체 내부에 뿌리 박혀 있고, 그곳에서 각종 상품이 대면적으로 거래되면서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관계가 형성된다.⁵⁴ 이것이 전통시장을 시장답게 만든다. 결국, 전통시장의 활성화는 해당 시장의 상인들과 그 시장이 위치한 지역사회와 주민들이 ‘사람 냄새’를 잊지 않는 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데 달려 있다고 판단된다.

53 못골종합시장상인회, 『못골시장이야기』 24호, 2011년 9월 30일.

54 T. C. Bestor, “Markets: Anthropological Aspects”, Neil J. Smelser and Paul B. Baltes ed.,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 Behavioral Sciences*, Elsevier Ltd., 2001, pp. 9227-9231.





제2부

한말 · 일제하 경제의 변화와 특성

제1장 한말 · 일제 초기 영업정책과 수원 · 남양의 소금 생산

제2장 한말 · 일제하 수원의 금융조합 설립과 활동

제3장 식민지 금융경제와 조선식산은행 수원지점의 운영

제4장 일제하 수원의 회사 현황과 성격

제5장 수원상공회의소의 설립과 변화

제6장 일제하 수원 산업의 형성과 성격



박민웅 한신대학교 한국사학과 석사

1. 수원 · 남양 지역의 소금 생산과 생산환경의 변화
2. 관영(官營) 천일염 이전의 염업정책과 수원 · 남양 염민
3. 1907년 관영 천일염전의 설치와 수원 · 남양 염민의 몰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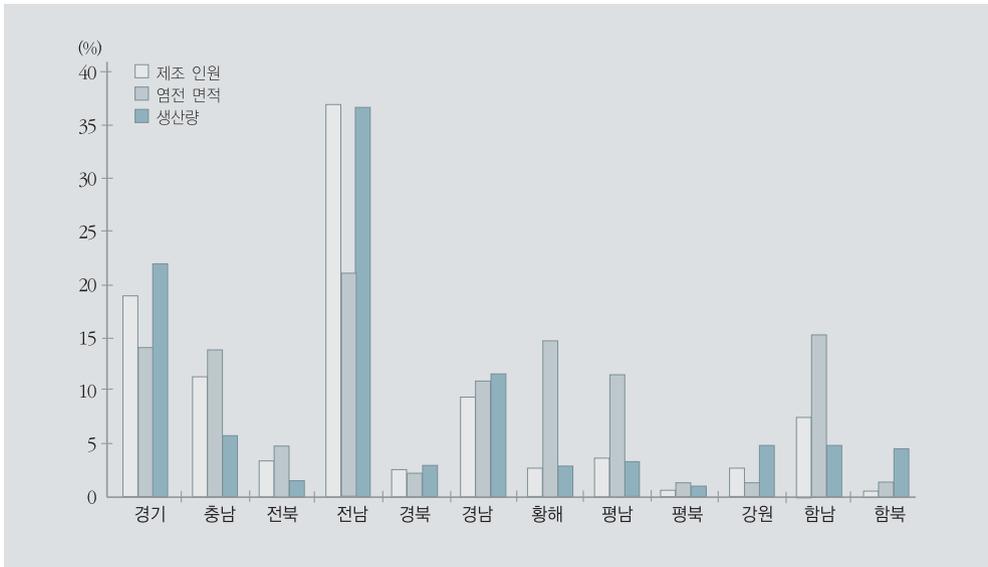
제1장

한말 · 일제 초기 염업정책과 수원 · 남양의 소금 생산

1. 수원 · 남양 지역의 소금 생산과 생산환경의 변화

우리나라는 바다 이외에 소금을 얻을 길이 없었기 때문에 예로부터 해안가를 중심으로 염전이 발달하였다. 해안가 중에서도 서해안은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넓은 갯벌을 형성하고 있어서 염전을 만들기에 더없이 좋은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하여 유명한 소금 산지는 주로 서해안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전라남도과 경기도가 주요한 소금 산지였다.

〈그림 1〉에서 보듯이 전라남도는 제조인원과 생산량에서 전체의 3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염업계에서의 비중이 가장 컸으며, 그다음으로 경기도가 제조인원과 생산량에서 20% 내외를 차지하고 있었다. 경기도에서는 수원 · 남양 지역이 인천과 함께 염업의 중심지였다. 이 지역은 자연적 입지조건 외에도 한양과 같은 배후 소비지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제염(製鹽)을 하기에 더욱 알맞은 곳이었다. 수원 · 남양에서 제염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다. 그러나 1446년(세종 28)에 실시된 자연 실험에 남양이 거론되고¹ 있는 것으로 봐서, 그 이전부터 자연 생산이 활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개항 이후



〈그림 1〉 1907-1910년경 도별 자염(煮鹽) 생산²

수원·남양 지역에서 소금 생산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지는 1907년 통감부에 의한 조사보고서³에 잘 나타나 있는데, 그 내용을 중심으로 당시 이 지역의 염전 경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제염도구와 제염법

이 시기 제염업은 대체로 농가의 부업이었다. 따라서 염전도구들도 농업에서 사용하는 것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표 1〉은 제염에 쓰이는 주요 도구들이다.

이들 제염도구 중에서 소금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도구는 소금가마였다. 소금가마의 경우 근대적인 대형 철부(鐵釜)가 나타나기 전에는 주로 토부(土釜)가 사용되었다. 토부는 〈표 1〉에서 보듯이 보존연한이 짧은 단점이 있지만 가격이 저렴하고 철부처럼 녹슬 염려가 없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었다.

1 “경기도 남양에는 토분 13개에 사역한 선군 140명이 18일 동안에 소금을 구어 만든 것이 644석인데, 화매하여 얻은 배[布]가 248필, 잡곡이 31석, 경구(耕區)의 소값(牛價)으로 지불한 소금이 34석이고, 남은 소금이 79석이며 ……”(『세종실록』 권111, 세종 28년 1월 1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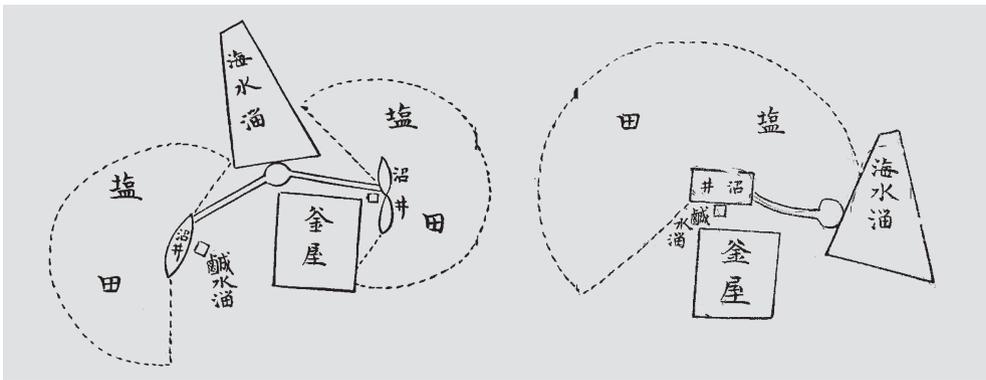
2 朝鮮總督府 專賣局, 『朝鮮專賣史』, 1936, 276쪽의 ‘염업조사성적’ 참고.

3 한국정부재정고문본부, 『경기도 수원군 남양군 일부염업조사』, 재무주보 30호 부록, 1907.

〈표 1〉 1907년경 남양군의 주요 제염도구⁴

품 목	개수	보존연한	제작비(錢)	용 도	
가마	철부(鐵釜)	1	3	100,000	소금을 끓이는 데 사용
	토부(土釜)	1	(40일)	40,000	
씨래	3	3	150	소나 말을 이용해 염전을 가는 데 사용	
가래	2	3	50	살포한 모래를 흩어지게 하거나 구덩이를 파는 데 사용	
나래	4	3	150	함사(鹹砂)를 운반하는 데 사용	
국자	2	3	10	국자	
고무래	1	5	30	함사를 소정(沼井)에 고르게 하는 데 사용	
번지	2	3	40	갈아 놓은 염전을 다시 평평하게 하는 도구	
바가지	1	1	20	조수(潮水)를 소정에 넣는 데 사용	

토부의 제작 과정을 보면, 우선 조개를 모아 구운 다음 뺏아서 조개가루를 만든다. 그리고 이것을 소금물로 반죽한 다음, 나무기둥을 걸쳐 놓고 그 위에 짚을 깐다. 여기에 다시 뿔개 갠 조개회를 얇게 깔아 토부의 바닥을 만든다. 조개회가 굳어지면 가락(灼鐵)을 만들어 굳기 시작하는 조개회 사이에 놓고 끈을 만들어 위에 있는 기둥에 매어 단다. 이어서 가마솥 밑으로 불을 서서히 지피면 짚이 타면서 조개회가 더욱 굳어진다. 이때 나무를 제거하면 조개회가 완전히 굳어지고, 토부를 떼어 고정시킨다. 가장자리는 토부 바닥이 완전히 굳어진 후에 얇은 돌이나 조개껍질을 세워 회를 발라 만든다. 가마솥의 크기는 가로 4m, 세로 3m, 높이 15cm 정도였다.⁵



〈그림 2〉 1907년경 수원·남양의 염전 구조⁶

4 한국정부재정고문본부, 『경기도 수원군 남양군 일부염업조사』, 재무주보 30호 부록, 1907, 5쪽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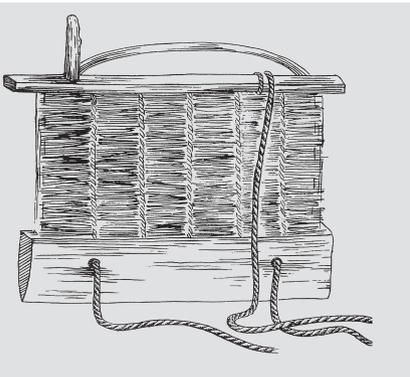
5 김일기, 「전염염 제조법에 관한 연구」, 『문화역사지리』 제3호, 1991, 6쪽.

6 한국정부재정고문본부, 『경기도 수원군 남양군 일부염업조사』, 재무주보 30호 부록, 1907. 그림의 용어와 쓰임을 간략히 설명

토부를 비롯한 제염도구를 가지고 소금을 만드는 과정은 크게 3단계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⁷

(1) 함사(鹹沙)를 만드는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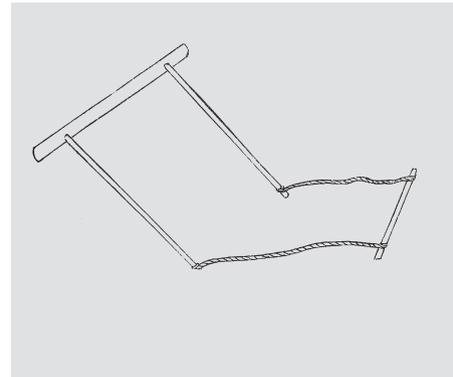
- ① 우선 채함(採鹹)작업이 끝나고 한쪽에 쌓아 두었던 모래를 소가 끄는 나래를 이용해서 소정대(沼井埕) 주변의 염전면(鹽田面) 곳곳에 옮겨 놓는다. 이때 두 사람이 작업을 하는데, 한 사람은 소의 입을 잡고 한 사람은 나래로 눌러 쌓아 둔 모래를 다시 흐트러지게 하는 작업을 한다.
- ② 그것을 끝내면 계속해서 써래를 이용하여 옮겨진 모래를 평탄하게 끼는 작업을 한다. 이때 소를 끄는 방향은 소정대를 중심으로 원형이 된다. 소정대 주위는 약간 높은데 바깥쪽으로 갈수록 완만한 경사를 이루도록 되어 있어서 대조(大潮) 시에 조수(潮水)가 침입하여도 쉽사리 무너지지 않도록 되어 있다.
- ③ 조수에 의해 축축해진 모래는 2일 정도가 지나면 표면이 대략 건조해지는데, 이때 써래를 이용해서 함사를 만들기 시작한다.
- ④ 그 후 3일 정도 써래와 번지라는 두 가지 도구를 소를 이용해 끌게 하여 염전면의 모래를 갈고 평탄화하는 작업을 번갈아 한다. 이렇게 하면 염전면의 모래는 대부분 건조되어 소금기를 머금



〈그림 3〉 나래



〈그림 4〉 써래



〈그림 5〉 번지

하면 다음과 같다.

- 염전(鹽田)은 진흙 위에 모래를 뿌리고 그것을 갈아서 함사(鹹沙)를 만드는 곳이다.
- 소정(沼井)은 바닷물에 함사를 녹여서 함수(鹹水)를 만드는 웅덩이이다.
- 함수류(鹹水溜)는 소정에서 만들어진 함수를 모아 두는 곳이다.
- 해수류(海水溜)는 만조(滿潮) 시 바닷물을 받아 두었다가 소정에 바닷물이 필요할 때 공급해 주는 웅덩이이다.
- 부옥(釜屋)은 소금가마가 있는 움막이다.

7 남양 지역의 소금 생산 방식은 한국정부재정고문본부, 『경기도 수원군 남양군 일부염업조사』, 재무주보 30호 부록, 1907을 참조하였다. 제염도구와 제염시설은 농상공부 수산국, 『한국수산지』 1, 1908, 589~598쪽과 김의환, 「조선후기 충청도의 소금생산과 생산방식」, 『조선시대사학보』 28, 2004, 103~115쪽을 참조할 수 있다.

- 은 함사가 되는데, 이 작업을 하는 3일 동안은 날씨가 맑아야 한다.
- ② 만들어진 함사는 나래를 이용해서 소정대 주변에 쌓아 놓는다.

(2) 함수(鹹水)를 만드는 과정

- ① 채함을 하는 기간에는 매일 5~6명이 가래를 이용하여 함사를 소정에 넣는다.
- ② 함사를 소정에 넣은 후에는 고무래를 이용하여 함사를 고르게 흐트린다.
- ③ 그리고 나서 소정대 주변에 있는 해수류(海水溜)에서 바닷물을 퍼 올려 소정에 넣는데 이렇게 하면 바닷물과 함사가 섞이면서 염분이 농후한 함수가 만들어진다.
- ④ 이렇게 만들어진 함수는 소정대 주변에 만들어진 함수류(鹹水溜)에 저장시킨다.

(3) 소금을 만드는 과정

- ① 소금가마에 함수를 가득 채우고 소나무 가지를 불쏘시개로 점화하여 소나무를 연소시켜서 함수를 끓인다. 그리고 불을 때는 동안에는 1회 혹은 2회 정도 불순물을 제거해 주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하지 않는다.
- ② 불을 때기 시작해서 7시간 정도가 지나면 결정도(結晶度)가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점차 소금이 나타나게 된다. 수분이 다 증발되면 결정염(結晶鹽)을 가마의 한 모서리에 끌어 모아 둔다.
- ③ 결정염을 삼태기를 이용하여 부옥(釜屋)의 한 모서리에 쌓아 둔다.

소금을 만드는 과정에는 대체로 소 1마리와 4~6명 정도의 일꾼이 필요하였다. 이들은 염한(鹽漢), 판일꾼, 두루치기, 잡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염한은 소금가마를 만들고 손질하며, 소금가마로 함수를 나르는 일 등 주로 소금가마와 관련하는 작업에 종사하는데 작업이 매우 힘들어서 노임(勞賃)도 가장 높았다고 한다.⁸ 판일꾼은 염전과 소정을 조성하는 일을 맡았으며, 두루치기는 염전의 모래를 써래로 갈고 번지로 부수는 일을 주로 하였다. 잡부는 기타 잡일을 담당하였다.⁹

이러한 제염법은 조선 후기 이래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1913년에는 당시 몰락해 가는 조선염을 살리고자 부분적으로 천일염의 방식이 도입되기도 하였다. 그것은 처음부터 함수를 끓이는 방식이 아니라 천일염처럼 증발지(蒸發地)를 두고 거기에서 일부 증발을 통

8 김일기, 「전오염 제조법에 관한 연구」, 『문화역사지리』 제3호, 1991, 4쪽; KBS, 「잊혀진 맛의 신비-자염(煮鹽)」, KBS 영상사업단(비디오), 2003.

9 김일기, 「전오염 제조법에 관한 연구」, 『문화역사지리』 제3호, 1991, 4쪽.

해 더욱 농도가 진한 함수를 만든 후에 그것을 가마에 끓여서 소금을 만드는 방식이었다.¹⁰ 이러한 방식은 자연 생산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연료비를 줄이고 또 자연의 맛을 유지시킬 수 있어서 일정 정도 생산과 판매의 증가를 가져온 것으로 보이며, 해방을 전후해서 천일염이 들어올 때까지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¹¹ 1913년 현재 남양 지역의 염전은 면적이 67만여 평, 영업자수는 1,003명이었다고 한다.¹²

2) 염전 경영과 소금 판매

(1) 경영방식과 경영수지

1907년경 수원과 남양 지역의 염전면적을 각 면별로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표 2>에서 보이는 수원군의 토진면, 포내면, 현암면 등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이후 진위군에 통

<표 2> 수원·남양 지역의 면별 염전면적

(단위: 개, 명)

군명	면명	염전면적 ¹³	소정수 (沼井數)	부옥수 (釜屋數)	염전주	소작인
수원	토진(土津)	1정 2단 6무 12보	8	2	3	0
	포내(浦內)	10정 1단 1무 6보	60	11	29	14
	외야곶(外也串)	2정 5단 2무 24보	16	3	7	2
	현암(玄岩)	7단 9무	5	1	1	1
	가사(佳士)	2정 5단 2무 24보	16	3	5	10
	청룡(靑龍)	9단 4무 24보	6	1	1	4
	소계	18정 1단 7무(≒54,510평)	111	21	46	31
남양	장안(長安)	7정 5단 8무 12보	48	9	39	7
	초장(艸長)	10정 4단 2무 24보	66	9	48	27
	마도(麻道)	18정 1단 8무 13보	37	15	29	25
	음덕(陰德)	6정 8단 9무 4보	25	8	22	5
	우정(雨井)	14정 6무 6보	89	12	63	25
	압정(鴨汀)	7정 4단 2무 18보	33	4	28	4
	신리(新里)	18정 4단 8무 12보	53	19	30	20
	소계	83정 6무(≒249,180평)	351	76	259	113
합계	101정 2단 3무(≒303,690평)	462	97	305	144	

10 「南陽鹽의 復活」, 『매일신보』, 1913년 1월 14일, 2면.

11 한신대학교 박물관, 『화옹지구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2003, 131~139쪽.

12 『매일신보』, 1913년 7월 10일.

13 1정=10단=100무=3,000보=3,000평으로 계산한다.

합되었으며 현재는 대부분 평택 지역에 속하고, 남양군의 장안, 초장, 마도, 신리 등은 수원 지역에 있다가 현재는 화성시에 편입된 지역이다. 당시 수원·남양의 주요 소금산지는 이 지역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수원 지역은 총면적 5만 4,000여 평의 염전에 21개의 부옥(소금 끓이는 곳)을 갖고 있었고, 이보다 염전이 발달한 남양에는 약 25만 평의 땅에 76개의 부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수원군은 약 2,595평의 염전마다 1개의 부옥이 있었던 반면, 남양은 약 3,280평의 염전마다 부옥이 1개씩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지역의 소작인은 수원군이 염전지주 1명당 0.67명, 남양군이 0.43명이며, 전체 평균은 약 0.5명으로 염전지주의 절반 정도만이 소작인 1명을 두고 염전을 경영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 제염업 경영방식은 세 가지였다. 첫째는 염전은 지주의 소유이고 소작자가 노동자를 고용해서 염업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둘째는 염전은 지주의 소유이고 소작자가 스스로 노동에 종사하는 운영방식이며, 셋째는 염전의 지주가 스스로 노동에 종사하는 경우이다.

위의 세 가지 중에서 염전주가 직접 노동에 종사하는 경우는 자산이 매우 적고 지식의 정도도 낮은 하층민뿐이었다.¹⁴ 염업은 조선에서 매우 천시되는 산업으로, 염전주(鹽田主)는 스스로 염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쉬쉬하였다.¹⁵ 일례로 수원과 남양의 염전주들도 1907년의 통감부 조사보고서에 ‘정(鄭) 주사(主事)’, ‘최(崔) 교리(敎吏)’ 등으로 자신들의 직위를 기재한 경우가 종종 보인다.

이 지역의 경우는 위의 세 가지 방식 중에서 두 번째 방식, 즉 염전의 소유주들이 직접 노동하기보다는 소작을 통해서 경영하는 것이었다. 소작인들은 유동이 심하기 때문에 기간을 확실히 정해 놓지 못하고 1년 혹은 1기간 단위로 계약을 하였다. 계약은 소작인의 유동이 심한 탓에 문서로 하지 않고 주로 구두로 했는데, 소작료는 연 2회 각 제염기간이 끝나면 지불하고 염전에 붙는 공과금도 소작인이 부담하였다.¹⁶

소작료 외에 각종 공과금을 소작인이 지불하는 방식은 19세기 이래 지주제가 강화되는 과정에서 일반화된 방법이었다. 이 시기에는 농민의 80~90%가 하호(下戶)로서 영세 농이었다. 따라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소작은 선택이 아닌 필수상황이었다. 그러나 지주들은 자신들에게 순종적인 소작인을 원했으며, 좀 더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소작

14 농상공부 수산국, 『한국수산지』 1, 1908, 587~588쪽.

15 山口精, 『朝鮮産業誌』, 實文館, 1910, 296쪽.

16 한국정부재정고문본부, 『경기도 수원군 남양군 일부염업조사』, 재무주보 30호 부록, 1907, 21쪽.

계약을 맺고자 하였다. 그런 과정에서 소작인 간에도 계급 분화가 일어나고 소작에서 탈락하는 자들이 발생하였다.¹⁷ 지주제의 소작관행이 염업에서도 일반화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수원·남양 지역의 소금 생산은 주로 전업(專業)이 아닌 부업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당시 염업은 경영수지가 그리 높지 않았기 때문에 몰락의 길을 걷고 있었다. 1907년의 조사에 따르면 손해를 보고 있는 지역도 다수 나타나고 있었는데,¹⁸ 수원·남양의 경우는 어떠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표 3〉 1907년경 수원·남양 지역 염업의 경영수지¹⁹

항목		비용	비율(%)	비고
임금	함사(鹹少)작업	① 2원 40전(2인×1일×20전×6일간)	36.8	함수생산고 10석 기준
	함수(鹹水)작업	② 1원(5인×1일×20전×1일간)	15.3	
	불때는 작업	③ 50전(2인×1일×25전×1일간)	7.7	함수 10석에 대한 염생산량 35석 기준
연료	④ 2원 40전	36.8		
포장대	⑤ 22전 5리	3.4		
총계(지출)		6원 52전 5리	100.0	
수입		7원		
순이익(수입-지출)		47전 5리		

〈표 3〉은 비고에서 보듯이 함수 10석을 얻는 데 필요한 노동임금과 그 10석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소금의 양 35석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가장 큰 지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역시 임금이었다. 임금은 채함 과정에서 필요한 노동임금(①+②)=3원 40전과 불을 때는데 들어가는 임금(③ 50전)을 합하면 3원 90전으로 전체 백분율에서 무려 59.8%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지출항목은 연료로서 연료는 36.8%에 달한다. 이렇듯 임금과 연료비용의 지출이 커서 순수익은 소금 35석 생산을 기준으로 47전 5리에 지나지 않았다. 당시 남양군의 소금 생산 예상치는 1개년 약 73정보에서 2만 8,093석²⁰ 정도로 전체적인 순수익은 약 381원에 달하였다. 그리고 이를 다시 73정보로 나누면 1정보당 5원 정도의

17 김용섭, 『한국근현대농업사연구』, 일조각, 1992.

18 농상공부 수산국, 『한국수산지』 1, 1908, 579-583쪽의 '제염업수지계산표' 참조. 1907년 염업조사는 그 목적이 염세수입의 확보에 있었으며, 당시의 염민들은 일제의 염세정책에 대해 강하게 저항하고 있었다. 따라서 경영수지 조사에서 염민들이 고의적으로 수입을 누락시켰을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생각된다.

19 한국정부제정고문본부, 『경기도 수원군 남양군 일부염업조사』, 재무주보 30호 부록, 1907, 22-23쪽.

20 한국정부제정고문본부, 『경기도 수원군 남양군 일부염업조사』, 재무주보 30호 부록, 1907, 15쪽.

수익이 나온다. 여기에 다시 지출항목으로 염전운영자금의 이자(2%)나 염전작업에 이용되는 소의 가격, 소의 사료 값 등을 계산해 보면 이익금은 5월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보다 높은 수준의 수익을 올렸던 것으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염전주들은 대부분 동네의 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그곳에서 연료를 공급받고 있었고 가족노동을 동원하거나 농업의 소작인을 염전에 투입하는 경우,²¹ 노동임금을 그만큼 줄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즉 <표 3>에서 ①번과 ④번만 제외해도 4원 80전의 경비절감 효과를 가져온다. 그러면 소금 35석당 발생하는 수익은 47전 5리+4원 80전=5원 27전 5리이므로 1정보당 수익도 약 54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하게 된다. 또한 강원도 등 교통이 불편한 지역으로 소금을 직접 지고 갈 경우 더욱 높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어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었다.

(2) 소금 판매법과 판로

수원·남양 지역에서 만든 소금은 9할이 마포 상인의 손을 경유해서 서울과 그 부근에 공급되었다. 마포시장은 1년간 집산물화(集散物貨)가 곡물 2,500석, 과물(果物) 400관, 야채 4만 관, 소고기 500두, 기타 어류, 잡화를 합하여 7만 2,500원에 달했으며, 고객으로는 마포에서 2리 이내의 3만 2,681호, 19만 1,753인의 인구를 가지고 있었다. 집산구역은 한강연안을 통하여 멀리 충청과 전라에 걸치는데, 수원·남양의 소금은 거의 마포시장을 통하여 팔리고 있었다.²² 나머지는 인천과 군포장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운임은 대개 20~30전으로 소금을 사는 상인이 부담하였다.²³

1907년을 전후로 한 시기는 수입염의 증가로 조선염이 점차 몰락하는 과정에 있었다. 조선염의 몰락은 수입염과의 가격차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수입염은 대부분 조선의 자염에 비해 순도가 떨어지는 천일염이었기 때문에 맛에서는 조선염을 따라 잡을 수 없었다. 따라서 굴비, 젓갈, 김치 등에 사용되는 식염(食鹽)으로서 조선염은 큰 장점을 지니고 있었다.²⁴ 이는 곧 한양, 수원과 같은 거대 소비지를 안고 있는 이 지역의 소금이 김장철과 같이 대규모로 소금의 수요가 발생하는 시기에 염상(鹽商)들의 손을 타고 한양의 마포나 루로 팔려 나갔음을 알 수 있다.

21 실제로 <표 3>의 임금 ①번 항목은 주로 가족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었다고 한다(한국정부제정고문본부, 『경기도 수원군 남양군 일부염업조사』, 재무주보 30호 부록, 1907, 22쪽).

22 『매일신보』, 1913년 8월 31일.

23 한국정부제정고문본부, 『경기도 수원군 남양군 일부염업조사』, 재무주보 30호 부록, 1907, 15~16쪽.

24 김일기, 「전오염 제조법에 관한 연구」, 『문화역사지리』 제3호, 1991, 5쪽.

염업자들은 염상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 당시 염업자들은 자본이 풍부하지 않아서 대부분은 염상으로부터 염업에 필요한 물자와 자금을 공급받고 그 대가로 염상에게 판매권을 위임하는 방식으로 염전을 운영하였다.²⁵ 이러한 방식은 염업자가 염상의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으며, 다소간의 불이익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가져왔다.

이 지역에서는 대략 다음의 세 가지 방법으로 소금이 판매되었다. 우선 첫 번째 방식은 판매업자에게 돈을 빌리고 판매권 일체를 그에게 일임하여 후일 정산(精算)하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판매업자와 염업자가 가격을 먼저 확정하는 경우였다. 세 번째는 염업자 전체와 판매업자가 상담을 통해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인데, 이러한 경우는 극히 드문 일이며 이 지역에서는 남양의 백석리(白石里) 일대에서만 이러한 방식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²⁶ 세 가지 방식 중에서 첫 번째 방식은 염상에게 유리한 판매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두 번째와 세 번째, 특히 백석리에서 보이는 판매방식은 염업자의 입장도 많이 반영된 방식이었다.

3) 생산환경의 변화 _ 수입염의 증대

근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소금을 만드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한 가지는 자염 혹은 전오염(煎熬鹽)²⁷으로 불리는 방식이고, 다른 한 가지는 천일염(天日鹽)이며, 나머지 한 가지는 해수직자식염(海水直煮式鹽)이다.

자염은 전통시대부터 우리나라에서 써 오던 용어인데, 염전을 통해서 함수²⁸를 채취하고 이를 가마에 끓여서 소금을 얻는 방식이다. 이와 달리 천일염은 염전을 저수지, 증발지(蒸發地), 결정지(結晶地)로 구획해 놓고, 바닷물을 증발시켜 결정지에서 소금 결정을 얻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해수직자식은 바닷물을 직접 끓여서 소금을 만드는 방식인데, 이는 소금 생산이 부족한 일부 지역에서만 행해지던 방식이다.

자염은 주로 우리나라 전 해안과 일본 해안에서 발달했으며, 천일염은 중국의 동해안에서 주로 발달했는데 17세기경 선교사에 의해 보급되었다고 한다. 천일염은 상대적으로

25 농상공부 수산국, 『한국수산지』 1, 1908, 58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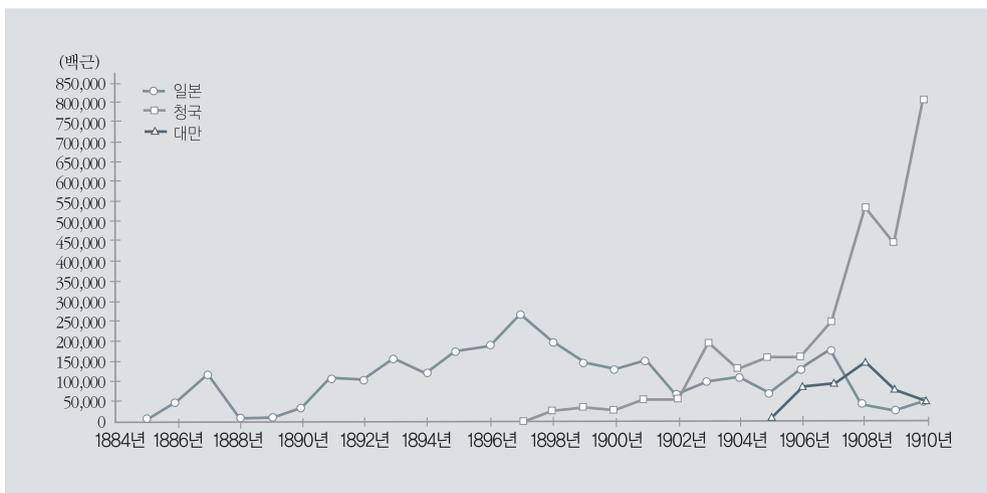
26 한국정부제정고문본부, 『경기도 수원군 남양군 일부염업조사』, 재무주보 30호 부록, 1907, 15-16쪽.

27 염전을 이용해서 얻은 함수를 가마에 끓여 소금을 얻는 방식으로, 일본에서는 주로 '전오염'이라 하였다. 따라서 개항 이후 발간된 많은 일본어 자료에는 전오염이라는 용어가 쓰인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시대부터 '자염' 혹은 '화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문헌적으로는 자염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28 '함수'란 소금기를 머금은 모래를 바닷물에 용해시켜서 소금 농도를 더욱 높인 것을 말한다.

넓은 간석지와 염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초기 자본 투입이 많다. 이에 반해, 자염은 함수를 만드는 과정이나 불을 때는 과정에서 많은 노동력과 연료비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초기 투입 자본이 많다는 것 외에는 천일염이 자염보다 생산비가 훨씬 저렴한 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07년 천일염 시험장이 생기기 전까지 자염법에 의한 제염이 일반적이었는데, 개항과 함께 상륙한 수입염은 가격경쟁에서 한국염을 압도하면서 우리나라의 제염시장을 잠식해 갔다. 즉 개항 이후 1910년까지 우리나라 제염업의 흐름은 외국염의 수입과 일제의 대응 그리고 조선 염민의 몰락으로 귀결되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들을 중심으로 외국염의 수입을 국가별로 살펴보자.



(그림 6) 국가별 소금 수입량²⁹

(1) 일본염

우리나라 최초의 수입염은 일본산이었다. 일본은 세토나이카이(瀬戸内海) 지역을 중심으로 소금 생산이 활발했으며, 생산의 과잉으로 새로운 판로를 모색하고 있던 중³⁰ 조선의 개항을 기회로 1885년 부산항을 통해서 수입되었다. 이해에는 낙동강 하구의 홍수로 이 지역의 염전시설이 크게 파괴되었는데, 이것이 곧 일본염의 수입으로 이어졌다.³¹ <그림 6>에

29 1885~1895년은 『통상휘찬』 17호(1895)와 『통상휘찬』 36호(1896)를 참조하였다. 1896~1910년은 이영학, 「開港期 製鹽業에 대한 연구」, 『한국문화』 12, 서울대 인문학연구소, 1991와 田中正敬, 「統監府の鹽業政策について」, 『一橋論叢』 115권 2호, 1996을 참조하였다.

30 永原慶二 외, 『鹽業·漁業』, 『講座 日本技術의 社會史』 第II卷, 日本論評社, 1985, 134쪽.

서 보듯이 일본염은 1890년까지는 수입 규모가 미미한 편이었다. 하지만 1891년부터 1897년까지는 수입량이 점차 증가하여 3,000만 근에 근접하고 있으며, 다시 1898년부터 1907년까지는 점차 하락해서 1902년에는 700만 근까지 떨어지고, 1907년에는 1,800만 근 정도로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경향적으로는 1897년을 기점으로 점차 감소 추세에 있었으며, 1908년부터는 500만 근까지 떨어지면서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염의 이러한 감소 추세는 청국염의 수입 급증과 그 궤를 같이하는데, 일본염은 조선의 자염과 비슷한 전오염으로 소금을 굽는 방식이어서 천일염인 청국염과 가격경쟁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일본염의 수입에서 특기할 만한 사항은 수입 지역이 매우 제한적이었던 사실이다.

〈표 4〉 1910년경 도별 염 소비 예상고³²

(단위 : 백근)

도명	종류	한국염 생산 예상고	공급지별 소비 예상고			
			한국염	청국염	일본염	대만염
경기도		275,000	150,000	170,000		
충청북도			108,000	40,000	2,000	
충청남도		79,000	150,000	50,000		
전라북도		47,000	180,000			
전라남도		574,000	260,000			
경상북도		78,000	237,000		38,000	45,000
경상남도		321,000	287,000		41,000	52,000
강원도		90,000	179,000		11,000	
황해도		123,000	80,000	200,000		
평안남도		132,000	110,000	130,000		
평안북도		12,000	9,000	181,000		
함경남도		249,000	177,000		3,000	
함경북도		20,000	73,000		37,000	
합계		2,000,000	2,000,000	771,000	132,000	97,000

〈표 4〉에서 보듯이 일본염의 소비지는 주로 경상도와 강원도, 함경북도임을 알 수 있다. 이 세 곳을 제외하고 일본염의 소비는 매우 미미한 편이었다. 전체 4개국(대만, 일본, 청국, 한국)의 염 소비액은 300만 담³³에 이르렀는데, 그중에서 일본염이 차지하는 비중은 13만여 담인 4.4%에 불과하였다. 이 세 곳 중에서 함경북도는 소금의 자체 생산량이 2만 담밖에 되

31 러시아 대장성, 『한국지』, 1900(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국역한국지』, 1984).

32 탁지부 임시제원조사국, 『한국염무행정요령』, 1910, 2-3쪽.

지 않아서 소금이 부족한 지역이었으므로 외부로부터의 소금 수입이 필요하였다. 그리고 경상도와 강원도는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부산과 원산의 개항장 주변 지역이다. 즉 일본염은 주로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두 개항장 주변에서 소비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대만염

일본은 청국염을 견제하기 위해서 대만염을 수입하였다. 대만염의 수입량은 1908년 15만 담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로는 점차 하락했는데, 이 또한 청국염 때문이었다. 대만염은 청국염처럼 천일염이었기 때문에 생산비 면에서는 가격경쟁이 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청국염들이 대체로 200해리 내외의 거리에 있었던 반면, 대만염은 부산까지 700해리 이상이었기 때문에 운임비에서 비교가 되지 않았다. 따라서 대만염은 점차 수입량이 감소했으며, 경부철도를 통한 청국염의 부산 진출로 점차 그 설 자리를 잃게 되었다.³⁴

(3) 청국염

청국염은 <그림 6>에서 보듯이 1903년 20만 담을 넘어선 이래 부침을 겪다가 1907년 25만 담까지 그 수입량이 급증했으며, 이후에는 훨씬 더 큰 폭으로 급증하여 1910년에는 무려 83만 담이나 되었다. 청국염의 경쟁력은 가격에 있었는데 청국염, 일본염, 조선염, 대만염의 가격을 비교하면 <표 5>와 같다.

<표 5>에서 보듯이 청국염은 소매가격이 100근당 1,399엔으로 조선염이나 일본염에 비해서 거의 절반 수준이었기 때문에 가격경쟁에서 월등하였다. 단, 천일염은 자염에 비해서 맛이 떨어졌기 때문에 하층민들은 청국염을 사용했지만, 상류층들을 여전히 자염을

<표 5> 1907~1910년경 각국 염의 평균 시장가격³⁵

(단위 : 엔)

가격		종류	한국 자염	청국 천일염	대만 천일염	일본 전오염
도매 (100근당)	최고		2,055	1,255	1,110	1,390
	최저		1,384	0,815	0,923	1,280
	평균		1,832	1,000	1,017	1,335
소매 (100근당)	최고		4,370	1,800		4,370
	최저		1,440	1,160		1,500
	평균		2,522	1,399		2,935

33 1담(擔)=100근(斤).

34 유승훈, 「20세기 초 인천지역의 소금생산」, 『인천학연구』 3, 인천학연구원, 2004.

35 탁지부 임시재원조사국, 『한국염무개황』, 1910, 32~33쪽.

선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³⁶

청국염의 수입 급증에서 또한 주목되는 것은 통계에 나타나지 않는 밀수입염이었다. 청국인의 밀수출입은 비단 소금에만 국한되는 문제는 아니었는데, 한국과 청국의 해안에는 많은 섬들이 널려 있고 안개가 자주 끼며 해안에 초소가 없다는 것이 밀수출입을 하기에 대단히 좋은 조건을 형성해 주고 있었다.³⁷

밀수입염의 양이 얼마나 많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세관을 통과하는 양만큼 많다.”라고도 하였고, “인천부 이북 각지에 정식으로 수입된 양이 12만 석인데, 밀수입염은 30만 석을 상회한다.”라고도 하였다.³⁸ 1907년 이후 청국염의 수입 급증은 <그림 6>에서 보듯이 일본염을 압도하면서 소비시장을 주도하게 되었다.

2. 관영(官營) 천일염 이전의 염업정책과 수원·남양 염민

1) 1906년 이전의 염업정책과 수원·남양염전

(1) 개항 이전의 염업정책과 수원·남양염전

양란 이후 염업의 가장 큰 문제는 궁방(宮房)과 아문(衙門)의 절수지(折受地) 확대였다. 양란으로 국토가 황폐화되어 궁방과 아문에 지급할 재원이 부족해지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는 이윤이 보장되는 염전의 수세권을 궁방과 아문에 절수하게 되었다. 그런데 염분(鹽盆)을 절수받게 된 궁방과 아문들은 단순히 절수받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사점(私占)과 매득(買得) 등의 방법을 통해서 염분을 더욱 확대시켰으며, 차인(差人)이나 도장(導掌)을 파견하여 염세액을 징수하였다.³⁹

그러나 17세기 초부터는 국가재정의 확보라는 측면과도 맞물려서 절수지를 제한하고 농민에게 부담을 주는 각종 폐단을 막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그 결실은 18세기 중반 염세의 균역청 이속으로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균역법에 따른 염세수취는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였다. 균역법 시행으로 염세는 매년 실상을 파악하여 세안(稅案)을 수정하도록 되어 있었다. 하지만 생산 현황의 변동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 지방의

36 탁지부, 「密輸入鹽狀況調査」, 『재무주보』 36호 부록, 1907, 21쪽.

3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국역)한국지』, 1984, 586쪽.

38 탁지부, 『재무주보』 36호 부록, 1907.

39 김의환, 「17·18세기 염세정책의 변동」, 『조선시대사학보』 6, 조선시대사학회, 1998.

수령이나 이서층들은 균역법의 시행으로 재원의 상당 부분을 상실하였다. 이에 이를 만회하고자 신설 염전을 누락시키는 등의 농간을 부렸으며, 염전들에 대해 사사로이 수세하였다. 결국 균역청의 세입은 날로 줄어들게 되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18세기 후반 도비총수세(道比總收稅)가 도입되었다.⁴⁰

도비총수세는 총세액을 결정하기 전에 각 도의 도신(道臣)들이 염전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여 세액을 결정하고 이를 균역청에 보고하여, 이때 결정된 세액을 납부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정부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이었으며, 18세기 이래 부세 운영의 기본 방침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일정 세액의 확보만을 목표로 하였을 뿐 그 이외의 관리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은 전적으로 각 도에 일임하였는데, 이는 수세 과정에서 지방관리의 각종 폐단을 야기시켰다. 또한 당시 상품화폐경제가 발전하고 포구를 중심으로 한 전국적인 유통망이 형성되면서, 소금은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되었고, 포구에서는 상업세의 주요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상업세에 관심이 없었으며, 상업세는 정부기관에게 비공식적으로 흡수되고 있었고 염민들에게 중첩 과세되는 현상을 보였다.⁴¹

한편 이 시기 남양염전은 일찍부터 소금 생산지로 주목받아 각 궁방이나 아문의 표적이 되었다. 그리하여 1708년 당시 궁방과 아문이 절수했거나 빼앗은 염분이 총 240개에 달할 정도로 많았으며,⁴² 다른 지역이 대부분 염부(鹽釜)의 크기를 염세액의 기준으로 삼은 반면 이 지역은 염정(鹽井)의 크기를 기준으로 해서 4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었다. 경기도 광주 의 경우에도 염정을 기준으로 해서 염세를 걷고 있었지만 이 지역은 등급을 나누지 않고 염정 1개당 일정한 세율로써 염세를 매기고 있었다.⁴³ 이렇듯 염정의 크기에 따라 4등급으로 염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말하자면 「염세규정」을 다른 지역보다 세밀하게 정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이 일대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남양의 염업이 매우 발전하였음을 반증하는 것이었다. 당시 조선 제일의 소금 생산지였던 전남의 경우는 이러한 「염세규정」이 더욱 자세하고 세밀하였다. 전라도의 염세는 염부의 크기, 입지조건과 함께 지역적 위치까지 감안하여 세액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즉 염업이 발달한 지역은 일찍부터 궁방이나 아문의 절수지가 되었고, 세세한 「염세규정」을 두어서 염전으로부터 최대한으

40 이육, 「조선후기 어염정책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41 이육, 「조선후기 어염정책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박성준, 「대한제국기 해세(海稅) 징수와 어염의 유통」,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42 『비변사등록』 59책, 숙종 34년 12월 30일.

43 이육, 「조선후기 어염정책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232~234쪽.

로 수세하고자 했던 것이다.⁴⁴

(2) 개항 이후 1905년까지의 염업정책과 수원·남양 염민

개항 이후의 염업정책은 기본적으로 전근대 체제를 계승하고 있었다. 그러나 갑오개혁기에는 국가의 정규세목 이외의 모든 잡세를 혁파하여 염세 정비가 간접적으로나마 추진되었다. 염세 정비가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대한제국에 의해서였다. 대한제국의 염세 정책에서 이전 시대와 다른 점은 과세 대상을 생산수단뿐만 아니라 생산물까지 확대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염부세와 같이 생산수단은 생산자에게, 생산물은 상인에게 세를 부과하였다.

궁내부가 생산수단뿐만 아니라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유통된 소금에 대해 과세 규정을 마련한 것은 상업 발달이라는 추세를 세제 운영에 반영한 것이었다. 즉 당시 상업세의 주요 세원(稅源)으로 주목되었던 소금 등의 상품을 대상으로 상인에게 가장 먼저 과세하여 상업세를 확보함으로써 유통·영업 과정에서 상업 이윤의 일부를 흡수하고자 했다.

그러나 생산물에 대한 과세는 다른 기관과 아무런 연계 없이 궁내부가 독자적으로 과세 대상을 확대한 것이었다. 상업세와 관련된 세목의 체계적인 정리와 징수 주체의 설정이라는 총괄적인 작업이 진행되지 못한 채, 생산물에 대한 과세와는 별개로 유통·영업과 관련해 상품에 부과되었던 상업세가 여전히 존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생산물에 대한 과세는 오히려 또 하나의 잡세만 증가시키는 양상이 되었다.⁴⁵ 따라서 이러한 염민의 수탈은 당시 수원·남양군 지역에서도 일반적인 현상이었을 것이고, 이에 대한 불만은 1894년 농민전쟁기에 터져 나왔던 듯하다. 1894년 6월 남양 지역에서도 농민봉기가 일어나게 되었다. 당시 남양의 부사는 임치재(任稹宰)였다. 임치재는 1893년 3월 남양부사에 임명되었으며,⁴⁶ 12월에는 바람 피해로 손실된 남양의 토지 3결(結) 30부(負)에 대해 재결(災結)을 요청하기도 하였다.⁴⁷ 그러나 그로부터 불과 6개월 만에 그는 농민봉기로 유배길에 오르게 되었는데 그의 죄목은 무명잡세를 거둬들이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백성들에게 형장을 가혹하게 했다는 것이다. 당시 농민봉기에 참여했던 주요 인사는 정인식(鄭寅植), 이군옥(李君玉), 최원녕(崔元寧), 황익재(黃益才) 등이었다. 당시의 농민봉기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자세히 알 길은 없다. 다만 최원녕이 모의하여 사람들을 모았고, 정인식

44 이육, 「조선 후기 어염정책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232~234쪽.

45 박성준, 「대한제국기 해세(海稅) 징수와 어염의 유통」,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46 『승정원일기』, 고종 30년 3월 26일.

47 『승정원일기』, 고종 30년 12월 28일.

은 통문(通文) 돌리는 일을 도와주었다고 한다. 이균옥은 자기 아버지가 뇌형(牢刑)을 받은 것에 원한을 품고 무리들의 선봉이 되어 명리(命吏)를 구타하고 결박하는 등의 일에 앞장섰으며, 황익재는 인장(印章)과 부신(符信)을 빼앗았다고 한다. 임치재는 족쇄와 형틀이 채워진 채로 백성들에게 끌려가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고, 조정에서는 호남의 농민봉기 이후 한양 부근에서 일어난 이와 같은 변란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던 듯하다.⁴⁸ 정부는 이 조참의 이태용(李泰容)을 안핵사(按覈使)로 파견하여 봉기의 원인과 주모자, 추종자를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였는데,⁴⁹ 이때 이태용이 남양 지역에서 가장 먼저 시정한 것은 염세와 환곡의 폐단을 바로잡는 일이었다.⁵⁰ 그 후에도 남양의 염민들은 염세에 대한 불만을 종종 관(官)에 호소하고 있었다. 1900년에는 남양 대부도 염민 김덕여(金德汝, 임평삼(林平三) 등이 의정부에 청원하여 서상학(徐相鶴)이 임의로 염정(鹽井)에 3냥, 6냥씩 걷은 세금을 혁파하여 줄 것을 호소하기도 하였다.⁵¹

1902년에는 남양군 염민들이 내장원에 호소하기를 염정세(鹽井稅)로 매년 45냥씩을 수납하고 또 시세(柴稅)로 염정마다 80냥씩 내고 있는데 7월 초에 다시 대정(大井)에 70냥, 중정(中井)에 50냥, 소정(小井)에 40냥씩을 내도록 하여 1염정에 3세(三稅)를 내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해 달라고 하였다.⁵² 이 외에도 남양 염민들은 군수가 염세를 가로채거나⁵³ 세무관이 임의로 세금을 징수하는 일⁵⁴ 등에 대해 중앙의 국가기관에 호소하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잡세 혁파나 「염세규정」 등을 통해 염업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을 혁파하고, 조세 수취기구를 일원화하려고 하였으나, 염세의 폐단은 쉽게 해결되지 않았다.

2) 1906년 「염세규정」과 염민의 저항

(1) 조세 증대방안과 「염세규정」

1905년 체결된 을사조약은 통감부의 설치와 외교권의 박탈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이로써 한국은 대외적으로 주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내적으로도 일본 통감의 감독을 받는 사실상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1906년에 통감부가 설치되면서

48 『승정원일기』, 고종 31년 7월 15일.

49 『고종실록』 권31, 고종 31년 6월 28일.

50 『승정원일기』, 고종 31년 7월 15일.

51 『황성신문』, 1900년 8월 6일, 1면, 잡보.

52 『황성신문』, 1902년 9월 2일, 2면, 잡보.

53 『대한매일신보』, 1906년 7월 20일, 잡보.

54 『대한매일신보』, 1907년 5월 28일, 잡보.

일제의 식민화 정책은 급속히 추진되어 갔다. 따라서 한국 재정을 장악하여 식민지 재정으로 전환시키는 작업도 본격화되었다.⁵⁵

일제는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 제도를 정비하고 시설자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하여 지세(地稅), 호세(戶稅), 연초세(煙草稅), 염세(鹽稅) 등에 주목하였다. 이 중에서 소금은 재원을 개발하여 전매제나 관업(官業)으로 경영할 경우 거액의 세입 증가를 꾀할 수 있는 품목이지만 우선은 한국 내의 생산자와 수입품에 과세하는 것을 계획하였다.⁵⁶ 그리하여 소금에 대한 수세방안은 1906년 11월의 「염세규정」으로 정리되었다. 「염세규정」에는 염민들에게 까다로운 조항이 많았다. 우선 제1조⁵⁷의 신고내용을 중심으로 염전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사정과 생산량의 정확한 파악을 노리고 있었다. 그리고 염민의 부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6조와 제7조⁵⁸를 통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다. 덧붙여서 제9조, 제10조, 제11조⁵⁹에는 관리·감독을 방해할 경우, 금전적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염민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와 세원(稅源)의 확보를 노리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염세규정」이 염민들에게 제대로 먹혀들지는 않았다. 당시 한국의 염민은 청국 천일염의 영향으로 점차 몰락하고 있었고 이토록 까다로운 조항들을 준수할 만큼 교육 수준도 높지 않았다. 개항 이후 증가하던 반일감정이 을사조약을 기화로 극에 달해 있는 상태에서 염세가 제대로 징수되었을 가능성은 별로 없었다.

〈표 6〉 1907~1910년 염세·수산세(水産稅)의 예·결산 추이⁶⁰

(단위 : 원)

종류	1907		1908		1909		1910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세입총액	13,189,336	16,458,760	20,286,732	22,073,745	21,434,723	28,465,717	20,915,678	23,765,594
염세	13,540	13,540	102,000	13,001	102,000	28,013	36,670	36,670
수산세			100,000	9,487	100,000	11,026		

55 이윤상, 「1894-1910년 재정 제도와 운영의 변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225쪽.

56 이영호, 「한국근대 지세제도와 농민운동」,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545-548쪽.

57 조선총독부 전매국, 「염세규정」, 『조선전매사』, 1936. “제1조 : 염(鹽)을 제조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래의 사항에 기재된 염제조면허신청서(鹽製造免許申請書)를 관할 세무감(稅務監)을 경유해서 탁지부(度支部) 대신(大臣)에 염세 제출해 면허를 받는다. 채합지명(採鹹地名), 염전의 면적, 제조장(製造場) 및 저장장(貯藏場)의 위치 및 개수, 염정(鹽井) 또는 염부(鹽釜)의 수, 제조방법, 1년의 예상제조근수(豫想製造斤數), 제조자의 주소씨명(住所氏名)……”

58 조선총독부 전매국, 「염세규정」, 『조선전매사』, 1936. “제6조 : 염제조자는 장부를 만들고 세무관리의 지시에 따라 영업에 관한 요건을 기재한다.” “제7조 : 세무관리는 채합지, 제조장, 저장장, 기타 염의 제조에 관해서 필요한 기구, 기계, 장부서류를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59 조선총독부 전매국, 「염세규정」, 『조선전매사』, 1936. “제9조 : 제1조 및 제2조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서 염을 제조하는 자는 3원 이상 3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조 : 제3조, 제6조, 제7조의 경우에 있어서 장부의 기재나 사실의 신고를 태만히 하는 자는 3원 이상 5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조 : 염제조자로서 세무관리의 직무집행을 거절하거나 기피해 그것에 지장을 주는 때는 3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0 김대준, 『고종시대의 국가재정 연구』, 2004, 175-251쪽.

〈표 6〉에 따르면, 1908년 염세의 예산액은 1907년 결산액 1만 3,540환보다 8만 8,460환이나 많은 10만 2,000환으로 책정되어 있다. 이것은 염세에 거는 기대치가 그만큼 높았음을 말해 준다. 통감부에서 소금이나 담배와 같은 새로운 세원에 기대를 갖는 것은 세입의 장악을 꾀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기 때문이었다.⁶¹ 즉 1906년 「관세관관제(管稅官官制)」와 「조세징수규정(租稅徵收規程)」의 제정으로 세무행정은 세무감·세무관·세무주사⁶² 그리고 최말단의 면장⁶³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계통을 수립하게 되었다. 이는 기존의 지방관(郡守, 府尹, 吏胥層)들을 세무행정에서 배제시키고 중앙에서 철저히 관리·감독함으로써 세무행정 체계를 일제에 맞게 수정하여 세원을 확보하고자 했던 것이다.⁶⁴

1907년 소위 ‘정미 7조약’에 따라 한국 군대가 해산되고 일본인들의 관리임명이 허용되었다. 다시 말해 일본인들이 이전까지 관리나 감독에 치중했다면, 이때부터는 직접 행정 업무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2) 염세 저항

1906년과 1907년 조치들로 통감부의 세입 증대 노력은 성공을 거둘 것처럼 보였다.⁶⁵ 하지만 백성들의 조세저항운동은 높아진 반일감정을 타고 한층 고조되고 있었으며, 여기에 징세행정업무에서 탈락한 지방관(군수, 부윤, 이서층)들이 합세하면서 그 기세는 더욱 맹렬해졌다.⁶⁶

염민들도 예외는 아니어서 함경남도 함흥 연포(連浦)에서는 조직적인 염세운동으로 주동자들이 징역형을 언도받는 사태까지 일어나고 있었다. 이 사건은 당시 『대한매일신보』의 영자 신문인 『The Korea Daily News』 1907년 7월 10일자에 「함흥에서 무서운 대량학살(Terrible Massacre at Hamheung)」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되었다.⁶⁷ 수원·남양 염민들도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강력한 염세저항운동을 벌이고 있었다.

61 이윤상, 「1894~1910년 재정 제도와 운영의 변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62 1906년 현재 세무감은 각 도 관찰사가 겸임하고, 세무관은 지방의 요지에 36명, 세무주사는 각 군에 136명이 파견되었다.

63 면장은 지세와 호세에 대한 징세권만을 가지고 있었으며, 남부한 세금의 2%를 가질 수 있었다.

64 황하현, 「일제의 대한식민지 지배구조의 형성과정」, 『동양학』 제12집, 동양학연구소, 1982, 331쪽.

65 이와 관련하여서는 이윤상, 「1894~1910년 재정 제도와 운영의 변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황하현, 「일제의 대한식민지 지배구조의 형성과정」, 『동양학』 제12집, 동양학연구소, 1982; 강창석, 「한국통감부 연구」, 『국사관논총』 제53집, 국사편찬위원회, 1994; 권태억, 「1904~1910년 일제의 한국 침략구상과 '시정개선」, 『한국사론』 31,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94 등의 논문이 참고가 된다.

66 황하현, 「일제의 대한식민지 지배구조의 형성과정」, 『동양학』 제12집, 동양학연구소, 1982, 332쪽.

67 김승태, 「한말 캐나다장로회 선교사들의 선교활동과 일제와의 갈등, 1898~1910」, 『한국 기독교와 역사』 12호, 한국기독교연구소, 2000, 162쪽.



마도면 석교리의 천연염전(조선총독부, 『생활상태조사-수원군』, 1929)

수원, 안산, 남양 각 군에 파견된 세무주사에게 명령함.

염세의 징수성적이 매우 불량해서 안산군이 납부한 것이 전부이고, 남양군은 전혀 납부하지 않았다. 생각건대, 봄에 과세한 금액에 따르지 않고 소요를 계속적으로 일으켜서 각지가 온전하지 못하게 되고 (이에) 자연스럽게 (염세가) 연체되고 있는 모양이지만, (염세납부)를 등한시하는 것은 간과할 수 없다. 그리고 징세법도 1년을 1기(期)로 해서 납부하는 것, 봄·가을 2기에 납부하는 것, 4기에 분납하는 것 등으로 조금도 통일되지 않았다. 따라서 염 제208호에 보고된 바처럼 세금미납액이 매우 많다.

지금 가을철 제조(製造)에 들어가 있고, 점차 끝날 시기가 가까워지는 이 기간을 놓치지 말고 완납을 시키도록 하라고 수원, 안산, 남양 각 세무주사에게 명령하였다.⁶⁸

이 기사에서 보듯이, 이 시기 수원·남양 염민들은 염세저항운동을 벌이며 염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특히 남양 지역은 전혀 납부하지 않고 있었다. 이 외에도 염제조면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염 생산량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제조 즉시 반출하는 등의 사태가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었다.⁶⁹

68 「水産稅鹽稅=關スル件」, 『財務週報』 제38호, 1907년 12월, 521-522쪽.

통감부는 이러한 염세저항에 대해 헌병과 경찰을 동원하여 대대적인 탄압으로 맞서고 있었지만, 결국 1909년부터는 염세 수입 예산을 낮출 수밖에 없게 되었다. <표 6>에서 보듯이 염세 수입에 걸었던 기대심리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1910년에는 전년도의 3분의 1 수준에서 염세 수입 예산이 책정되었다. 그러나 염세정책의 실패가 염업에 대한 포기로 이어진 것은 아니다. 일제는 이전부터 염업에 대한 전매제를 염두에 두고 있었으며,⁷⁰ 한국에서 제염업의 주류를 천일염업으로 바꾸고자 하였고 관에서 직접 경영하는 운영 방식을 취하고자 하였다.

3. 1907년 관영 천일염전의 설치와 수원·남양 염민의 몰락

1) 일제의 소금 증산정책

일제는 소금을 통한 관련 산업의 발전⁷¹과 수입대체 효과를 위해 소금의 증산을 도모하였다. 당시 일제의 공업 기술은 발전 정도가 미약하였는데, 특히 산업의 한 축이며 섬유공업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던 소다공업의 발전은 일본으로서도 경시할 수 없었으나 아직은 발전 정도가 미약하였다.

1909년 말에 있어서 소다회(灰), 가성(苛性)소다의 수입액은 220만 원을 상회하는데, 일본의 제조액은 겨우 만 원에 지나지 않는다.⁷²

세계에서 염의 생산량은 260억 근 정도이고 해마다 그 생산액이 증가한다. 산액(産額)이 가장 큰 것은 미국이고 영국, 독일이 그 다음이다. 그리고 염의 소비액에 대해서는 아직 정밀한 통계가 보이지 않지만, 인구의 증가와 공업 등의 발전에 따라 점차 산액이 증가하는 것은 의심할 수 없다. 소비의 용도는 식용(食用)과 식용 외로 구별할 수 있는데, 독일처럼 공업이 성한 나라에서는 식용 외의 소비액이 55%로써 전 소비액의 반 이상을 차지한다. 오스트리아, 이태리에 있어서는 식용

69 이영호, 『한국근대 지세제도와 농민운동』,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574쪽.

70 일제는 러일전쟁의 발발과 함께 소금 전매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식민지 대만에서도 1899년 소금 전매제를 실시하였다.

71 소금은 식용 이외에 화학공업의 원료로 쓰인다. 소다공업에 90% 이상 사용되며, 그 밖에 염료·합성고무·화학약품·피혁·요업·유지 등의 공업에 쓰인다. 소다공업은 염화나트륨을 원료로 해서 소다회(탄산나트륨), 가성소다(수산화나트륨), 염소 등을 생산하는 것이다. 소다회는 유리제품·판유리·무기약품·세제 등을 만드는 데 사용되며, 가성소다는 무기약품·유기화학·석유화학 등 화학공업과 종이·펄프·화학섬유·조미료 등에 사용한다. 또 염소는 염화비닐·무기약품·종이·펄프 등에 이용되고 있다. 소다공업은 유럽의 산업혁명기에 발전한 섬유공업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진 산업이다.

72 日本内閣 拓殖局, 『鹽=關スル調査』, 1911, 46쪽.

이외의 염 소비액은 전 소비액의 39% 또는 14%에 해당한다. 그러나 일본에서 식용염 소비액은 97%로써 전 소비액의 대부분을 점하고 있어 구주(九州) 각국에 비해 특이한 현상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일본공업발달의 미약함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⁷³

위의 두 기사에 따르면 일본의 소다공업 수준이 매우 낮은 단계여서 소다회, 가성소다 등을 서구열강으로부터 거의 전액 수입하고 있었으며, 소금의 사용도 대부분 식용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장래 일본의 공업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 공업용 소금의 수요는 엄청나게 증대될 것이므로 값싸고 품질 좋은 공업용 소금의 확보는 일제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하지만 일본의 소금은 “대개 품질이 나빠서 정부의 방침으로써 나쁜 품질을 증액 생산할 필요가 없다.”⁷⁴고 하여 오히려 몇몇 좋지 않은 염전을 정리하는 추세였다.⁷⁵ 또한 가격이 천일염에 비해 비싸기 때문에 공업용으로 쓰기에는 부적절하였다.

이에 새로운 소금 공급지를 확보해야 했는데, 그곳은 바로 식민지인 대만과 조선, 그리고 관동주였다. 대만과 관동주⁷⁶는 일찍부터 천일제염을 해 오던 지역으로 싸고 품질 좋은 소금이 대량으로 생산되고 있었고, 조선도 1907년 천일염 실험결과 양호할 것이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세 곳을 연결하는 생산망을 형성하면 값싼 천일제염을 바탕으로 공업용 소금의 확보를 기대할 수 있었다.

물론 한국에서는 청국염을 몰아내고 소비량을 충족시키는 것이 급선무였다. 하지만 이후 한국염의 장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어 공업 발전에 대비한 증산을 도모하고 있다.

(한국에서) 현재의 생산고로써는 도저히 국내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청국염, 관동염(關東鹽) 및 일본염의 수입에 의지해서 겨우 수급의 균형을 맞추고 있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장래 공업의 발달 및 인구의 증가에 따른 수요의 증진에 응하지 못할 것은 명확하다.⁷⁷

다시 말하면 일제의 한국 염업정책에는 앞에서 밝힌 세입의 증가, 수입염에 대한 방어 외에 값싸고 품질 좋은 소금의 증산도 포함되었던 것이며, 관영 천일염업 계획은 이 세 가지 정책에 부합하는 산물이었다. 즉 일제에 의한 천일염의 도입과 관영화는 청국염의 수

73 日本内閣 拓殖局, 『緒言』, 『鹽=關スル調査』, 1911.

74 日本内閣 拓殖局, 『鹽=關スル調査』, 1911.

75 日本内閣 拓殖局, 『鹽=關スル調査』, 1911.

76 관동주(關東州)는 1864년 천진(天津)을 시작으로 천일제염이 시작되었다.

77 大倉一郎, 『關東州の鹽業-附 朝鮮の鹽業』, 1923, 3쪽.

입증대를 막고자 하는 정책일 뿐만 아니라, 조선의 식민재정 확보와 일제의 섬유공업 발 전 도모의 차원에서 나온 것이기도 하였다.

2) 새로운 활로 모색과 수원·남양 염민의 몰락

(1) 관영 천일염과 남양군염업회의소

일제는 1907년 경기도 주안 등을 시작으로 관영 천일염전을 축조해 갔다. 관영 천일염전은 식민지시기 염업의 중추로 성장해 나갔지만, 초기에는 예상만큼 생산량이 빠르게 오르지 않았으며 청국염을 막고 재정을 확충하려던 통감부의 정책은 그리 성공적이지 못하였다. 그러나 천일염전의 관영화는 그 자체만으로 조선 염민들에게 큰 타격이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당시 한국의 염업계는 청국염에 빠르게 시장을 잠식당하고 있었다. 이에 여러 가지 대응방안을 모색할 수 있겠지만 가장 유력한 방안은 청국염과 같은 천일염전을 개발하는 일이었다. 그런데 통감부는 천일염전 개발을 민간업자에게 허락하지 않음으로써 염민들은 활로 모색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었다. 이에 통감부는 재래(在來)의 자염업자(煮鹽業者)들을 구제하기 위해 정부가 자염전을 사들이는 방안을 내놓기도 하였다.

(천일제염의) 관영과 동시에 구래의 염전(煮鹽田)은 정부에서 사들여 구래의 제염업자에게 전염의 자금을 언도록 하고, 또 정부는 사들인 염전에 종래의 종업자(從業者)가 참여할 수 있도록 천일제염의 노동 등에 종사할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구 염업의 예지로 갑자기 실업의 비경에 빠지게 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⁷⁸

그러나 관영화 정책 추진 이후에 “염전을 매수하는 것은 상당한 자금을 필요로 해서 재정상 실행하지 못하게 되었고,”⁷⁹ “달리 전업하는 자가 적지 않았다.”⁸⁰고 하여 사실상 자염업자에 대한 구제를 포기하고 전업을 방관하는 입장으로 돌변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외국 수입염과 국내 관염의 경쟁 속에서 한국의 염민들이 이중으로 피해를 입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재래의 염업자에게 그것은 곧 위기였으며, 이러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활로 모색이 필요하였다.

78 조선총독부 전매국, 『조선전매사』, 1936, 287쪽.

79 조선총독부 전매국, 『조선전매사』, 1936, 293쪽.

80 조선총독부 전매국, 『조선전매사』, 1936, 293쪽.

이 시기 남양의 염민들은 자신들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남양군염업회의소(南陽郡鹽業會議所)를 설치하여 외국염에 대항하였다. 남양군염업회의소의 시말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길이 없지만, 의도하는 바가 무엇이었는지는 그들의 염업회의소 취지서에 잘 나타나 있다.

염업회의소 취지서에는 당시 국내의 문제로 사농공상(士農工商)을 언급하며 오직 사(士)만이 높임을 받고 농공상(農工商)이 천시되는 현상을 비판하였다. 국외의 문제로 수출은 부족하고 수입은 호황을 이루는 현실을 개탄하였다. 그리고 염업과 관련해서는 남양군 백성들이 농업과 염업을 겸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조세 징수의 문란과 제조 방법의 후진성 등으로 염업에 이익이 남지 않아서 소금농사를 짓는 것도 어렵고 폐지하는 것도 어려운 시점에 이르렀음을 호소하였다. 그리하여 이러한 시점에 염업회의소를 만들고 “인민(人民)의 개명(開明)과 실업(實業)의 증진(增進)”을 통해서 난국을 타개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⁸¹

남양군염업회의소의 발기인은 최성대(崔成大)와 홍은후(洪閻厚) 등이었는데, 최성대는 당시 남양군 서여제면의 면장이었다. 염업회의소를 조직하기 위해 모인 인사들은 최성대 외에 각 동 동장과 지사인(知事人) 수십여 명이 있었다는 기사⁸²로 봐서 홍은후는 동장이거나 이 지역의 유력 지식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당시 남양군의 염업 상태를 “농사를 지을 수도 짓지 않을 수도 없는 상태”라고 요약하며, 제염업의 난맥상을 말하고 있다. 당시 한국의 제염업계는 수입염에 대항하기 위해 염업의 이익을 감소시켜 가면서 가격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였다.⁸³ 또한 일제의 염업정책에 반발하여 염세거부운동과 같은 저항운동을 전국적으로 벌여 나가는 시점이었다. 남양 염민들도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에 내용하면서 새로운 전망을 갖고자 했을 것으로 추측되나, 제염업 성장의 길은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여겨진다.

(2) 수원 · 남양 염민의 몰락

수입염과 관영 천일염의 이중고 속에서 1900년대 2억 근에 이르던 한국의 소금 생산량은 1920년에 벌써 7,000만 근 정도로 떨어졌으며, 이후에도 점차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81 『대한매일신보』, 1907년 7월 24일, 3쪽.

82 『대한매일신보』, 1907년 7월 10일, 2쪽.

83 田中正敬, 「統監府の鹽業政策について」, 『一橋論叢』 115券 2號, 1996, 142쪽.

〈표 7〉 1920~1930년 자염 생산고⁸⁴

(단위 : 근)

연도	1920	1921	1922	1923	1924	1925
생산액	72,901,236	68,218,375	64,457,296	66,976,041	56,381,621	50,600,826
연도	1926	1927	1928	1929	1930	-
생산액	67,155,827	57,884,672	57,742,690	69,358,822	56,922,740	-

이러한 하락세는 남양에서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음의 표들은 그러한 사정을 짐작하게 해 준다.

〈표 8〉 1912~1915년 주안천일염의 수원 지역 판매량⁸⁵

구분 \ 연도	1912	1913	1914	1915
판매량(斤)	188,070	3,160	265,431	587,206
판매가격(円)	1,256	16	965	2,521

〈표 8〉은 수원 지역에서 주안천일염의 판매량⁸⁶을 기록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이미 1912년부터 수원 지역으로 천일염이 들어오고 있으며, 1915년에는 판매량이 60만 근에 육박할 정도로 판매량이 늘어났다. 판매가격은 1912년 1,256엔에 머물던 것이 1915년에는 2,521엔으로 뛰어오르고 있다. 한편 같은 시기 경기도 지역의 소금 생산량은 점차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표 9〉 1910~1915년 경기도 소금 생산⁸⁷

구분 \ 연도	1910	1913	1914	1915
염전면적(町步)	525.57	585.61	410.01	353.17
제조예상고(斤)	52,481,264	10,174,050	3,726,750	6,443,900
가격(円)		91,562	26,087	71,645

〈표 9〉는 경기도의 소금 생산 현황으로 간접적으로나마 남양의 소금 생산에 대한 추세를 추측해 볼 수 있는 자료라 생각된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1910년대 중반까지 경기도

84 조선총독부 전매국, 『조선전매사』, 1936, 278쪽.

85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 경기도통계연보』, 해당연도.

86 1914년의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서 남양군은 대부분 수원군에 통합되었다.

87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 경기도통계연보』, 해당연도.



마도면 석교리의 조합염전(조선총독부, 『생활상태조사-수원군』, 1929)

지역은 염전면적이 현저히 줄어들기 시작하였으며, 제염 생산고도 이전 시대에 비해서 차츰 떨어지고 있다. 특히 1910년 이전의 생산량에 비하면 그 차이는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1910년대 수원역의 주요 이입(移入) 화물 연표를 통해서도 수원 지역의 소금 생산 현황을 볼 수 있다.

〈표 10〉에 보듯이 수원역에 들어오는 주요 수입품 중에서 소금은 쌀보다도 그 수량이 많았다. 수원역에 내리는 화물이 모두 수원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었겠지만 이처럼 수

〈표 10〉 1917~1922년 수원역 이입 화물 연표⁸⁸

종류	연도	1917	1918	1919	1920	1921	1922
쌀		606	157	767	674	3,822	2,788
소금		2,306	3,149	2,865	3,826	3,623	2,649
석탄		714	996	1,164	876	1,203	1,558
목재		604	491	959	1,172	1,127	1,446
기타		772	981	1,454	1,308	922	864

88 酒井政之助, 『水原』, 1923, 7쪽.

원지역으로 소금이 많이 들어왔다는 것은 이 시기 기존의 수원·남양 염전이 많이 쇠퇴했음을 반증해 준다.

앞서 언급한 대로 1913년 염전개량사업을 통해서 이 지역의 소금 생산량은 어느 정도 증가하였다. 그리하여 염전면적은 67만 평, 영업자수는 1,003명에 달하게 되었는데,⁸⁹ 1924년에는 염전면적이 11만 평이었고, 영업자수는 500명 내외로 감소하였다.⁹⁰ 즉, 1913년에 일시적인 생산력 증가가 있었지만 점차 몰락의 길로 빠져들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89 「남양염의 부활」, 『매일신보』, 1913년 1월 14일, 2쪽.

90 「수원군 염업상황」, 『동아일보』, 1924년 4월 23일, 3쪽.



최재성 성균관대학교 연구교수

1. 식민체제 기반구축기 지방금융조합의 활동
2. 1920년대 '산미증식계획'기 금융조합의 활동
3. 1930년대 '농촌진흥운동'기 금융조합의 활동
4. 전시체제기 금융조합의 강제저축과 대출억제



제2장

한말 · 일제하 수원의 금융조합 설립과 활동

해방 직전 수원군 지역에는 8개의 금융조합이 있었다. 본소 6개, 지소 2개였다. 1931년 설립되었다가 1942년 오산금융조합에 통합된 오산제2금융조합을 포함하면, 설립되어 활동한 조합수는 9개이다. 당시 전국 240여 부·군에는 910개(본소 613개, 지소 297개)의 금융조합이 있어서 평균 1부·군당 3~4개씩의 금융조합이 있었던 것에 비하면 2배 정도 많은 숫자였다. 이는 경기도 내에서 한 지역 안에 가장 많은 수의 금융조합이 설립된 것으로, 이를 통해 경기도 대표도시로서 수원의 위상을 짐작할 수 있다.

금융조합¹⁾은 금융(기관)과 (협동)조합을 합쳐 놓은 성격을 갖고 있었다. 금융기관이란 수신과 여신, 즉 예금업무와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말하며, 협동조합은 소생산자 또는 소비자들이 대기업과 중간상인에 대해 자신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조직한 단체를 의미한다. 금융조합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업무를 중심에 두고, 관계 협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은 시기에 따라 강화되거나 폐지되는 부침의 과정을 겪었다.

금융조합은 대한제국 재정고문 메가타 다네타로(目賀田種太郎)가 주도하여 '지방금융

1 이하 최재성, 『식민지 조선의 사회경제와 금융조합』, 경인문화사, 2006 참조.

조합'이란 이름으로 1907년부터 전국 각지에 설립되었다. 이후 1918년에 이르면 종래의 지방금융조합은 '지방'이란 두 글자가 삭제된 '금융조합'으로 개칭되어 촌락금융조합(약칭 촌락금조)으로 변경되고, 시가지세 부과지역에는 도시금융조합(약칭 도시금조)이, 그리고 이들 일선 조합에 대한 도 단위 상부기구로서 각 도 금융조합연합회가 각각 신설되었다. 이어 1933년에는 중앙에 조선금융조합연합회가 설립되고, 1935년에 금융조합 산하에 식산계가 조직되어 '조선금융조합연합회-금융조합-식산계'라는 계통이 완성되었다.

금융조합은 일제의 식민지 금융정책 틀 속에서 식민지 금융기구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하였다. 식민지 금융정책은 식민지가 식민 본국을 위한 식량과 원료 생산지로서, 상품 시장으로서, 또 자본 투자처로서 기능하도록 금융 면에서 원조하는 정책이다. 식민지시기 금융조합은 일본 제국주의를 위해 조선 농촌에서 미곡과 원료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생산되도록, 그리고 일본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된 상품이 지속적으로 소비되도록 농민들에게 자금을 대부하는 기능을 하였다.

금융조합의 활동을 살펴보면 네 단계로 시기를 구분할 수 있는데, 각 시기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한말에서 1910년대에 걸친 식민체제 기반구축기에 식민 본국을 위한 식량과 원료 공급지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금융조합 활동은 농업생산성 증대에 중점이 두어졌고, 1920년대에는 '산미증식계획'을 위해 기능하였으며, 1930년대에는 '농촌진흥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또한 전시총동원체제기에는 강제저축 등으로 일제의 침략전쟁을 뒷받침하였다. 이에 수원 지역 금융조합의 각 시기별 활동을 보다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1. 식민체제 기반구축기 지방금융조합의 활동

1) 수원 지역 지방금융조합의 설립

지방금융조합은 대한제국의 경제구조를 일본의 경제구조에 맞게 재편하기 위해 실시된 이른바 '메가타(目賀田) 개혁'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그 설립은 1907년 「지방금융조합규칙」의 제정과 함께였다. 이 규칙의 제정 작업은 메가타의 구상에 따라 재정고문부의 주도로 진행되었고, 식민지화 이후 식민지 금융정책에 따라 1914년에 「지방금융조합령」으로 변경되었다.

「지방금융조합규칙」의 제정에 따라 지방금융조합은 처음에는 세무관 소재지 50곳에 설립되었고, 이후 1909년 100개, 1910년 130개, 1911년 158개 등으로 매년 증설되어 조선

총독부는 1912년에 1개 군에 1개 조합을 설립할 방침을 정하였다. 그리고 1915~1916년에 240~250개로 그 목표가 달성되었다. 수원 지역에도 1907년 수원지방금융조합이 설립되었다. 조합구역은 수원·용인·남양·안산·진위군 등 5개 군이었다. 이어 1908년 5개 군 가운데 남양·안산군을 조합구역으로 하는 남양지방금융조합이 설립되었고, 수원지방금융조합 구역은 나머지 3개 군으로 축소되었다. 이들 2개 지방금융조합의 조합원수와 대부금액을 보면 <표 1>과 같다.

<표 1> 대한제국기 수원 지역 지방금융조합 설립과 금융활동²

조합명	개업일(인가)	조합구역(군수)	조합원수(명)	조합자금(원)	대부금액(원)
수원	1907년 10월 8일	3	346	10,000	4,337
남양	1908년 5월 29일	2	200	10,000	7,618

이 시기 남양지방금융조합이 설립되는 과정을 통해 당시 지방금융조합 설립 관련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³ 1908년 3월부터 4월 30일에 걸쳐 남양·안산군을 수원지방금융조합 구역으로부터 분리하였다. 이어 일본인 바바 다모쓰(馬場保 : 25세, 1884년생)가 남양지방금융조합 설립위원에 임명되어 1908년 5월 3일부터 수원재무서(재무관 오가사와라(小笠原))에서 설립 사무를 시작하였다. 5월 6일 경기도관찰사(이규환)와 한성재무감독국장 고바야시(小林重)가 탁지부대신(고영희)에게 남양지방금융조합 설립위원 10명을 추천하여 보고하였다.⁴ 이에 탁지부대신이 5월 25일 설립위원을, 5월 29일 조합 설립을 인가하였다.

6월 8일 남양지방금융조합 설립위원 바바가 탁지부에 조합자금 1만 원을 신청했고, 6월 12일에 자금 1만 원이 탁지부로부터 남양지방금융조합에 하부되었다. 당시 이 조합자금은 탁지부로부터 신설 지방금융조합에 1만 원씩 하부되어 대출금 운용재원으로 쓰였는데, 대한제국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차관을 통해 도입한 외채로 대한제국의 족쇄로 작용하여 ‘국채보상운동’을 불러일으킨 원인이 되었다.

6월 16일 수원공립보통학교에서 조합 창립총회가 개최되었는데, 역원 선거결과 조합장

2 『제3차 통감부통계연보』, 1908.

3 『남양관개서류』(규 22048).

4 10명 중 남양군 인사는 음덕리면 상동 홍익선(洪益善), 둔지곶면과 활초면 홍준(洪俊), 수산면 사강동 문구락(文龜洛), 마도면 백곡동 홍석후(洪奭厚), 수산면 육교동 한만교(韓晩敎), 수산면 사강동 한용현(韓龍鉉) 등 6명이고, 안산군 출신은 군내면 점성리 이행구(李行九), 대월면 거포리 원휘상(元徽常), 초산면 하중리 권호(權灝), 군내면 수암리 정종식(鄭鍾澁) 등 4명이다. 그중 안산군 출신 4명은 이력서가 남아 있어 그들의 당시 사회적 지위를 엿볼 수 있다. 그들의 이력을 간략히 보면, 다음과 같다. 이행구는 1873년생으로 6품 전 철도원 주사였고, 원휘상은 1874년생으로 장의였다. 권호는 1886년생으로 이장을 역임하였으며, 정종식은 1861년생으로 전라북도 지계위원이었다.

에 홍익선, 평의원에 홍준·문구락·홍석후·한용현·한만교·김상호(金商濩)·김종원(金鐘元)·손영기(孫永琦)·이성구(李聲九)·정종식(鄭鐘湜) 등이 당선되었다. 대체로 설립위원 10명 가운데서 역원으로 당선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남양군 인사들은 설립위원이 그대로 역원으로 당선된 데 비해, 안산군 출신 이사들은 정종식을 제외하고는 모두 새로운 인물들로 교체되었음이 특이하다.

이튿날인 6월 17일 재무관이 탁지부차관에게 남양지방금융조합 역원 인가 신청을 했고, 6월 24일 한성재무감독국장이 탁지부대신에게 남양지방금융조합 창립위원 바바 다모쓰(馬場保)를 이사로 추천하여 상신하였다. 또 6월 29일 수원재무서 재무관이 탁지부차관에게 조합 설립을 보고하였다. 이로써 조합 설립 절차가 마무리되었다.

앞에서 살펴본 바대로 지방금융조합이 설립되는 과정에서 조합 설립위원이 임명되었다. 구역 내 유력한 한국인들 외에 1명씩의 일본인이 반드시 같이 임명되었는데, 이들은 조합 설립 이후 그 조합의 이사로 임명되었다. 당시 일본인 조합 설립위원들은 20대 청년들로 주로 동양협회 전문학교 출신들이 많았는데, 이들은 식민지 개척의 첨병 역할을 맡았다.⁵

다음으로 당시 조합원을 보자. <표 1>에서 수원지방금융조합 조합원은 346명이었는데, 그 가운데 직업을 알 수 있는 조합원은 47명이었다. 그들의 직업을 보면, 농업 33명, 상업 12명, 농상 겸업 2명이었다.⁶ 역시 농업자가 다수이지만, 상업자의 비율도 상당하여 수원이 조선 후기 이래 인근 지역에서 상업 중심지 역할을 해 왔던 것을 떠올리게 한다.

또 남양지방금융조합 창립총회 당시 “소농자와 염업자를 위해 설립” 되었다는 재무관의 창립경과 보고와 설립위원 바바가 조합원 모집을 위해 안산·남양 두 군에 출장하여 “금융조합은 농민의 복리를 주안으로 하지만, 당 조합은 염업자의 복리도 합” 한다고 설명했던 것에 비춰 남양지방금융조합의 조합원 가운데 제염업을 영위하는 사람도 다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1912년 1군당 1조합을 설립하려는 조선총독부의 계획에 따라 수원·용인·진위 3개 군을 조합구역으로 하고 있던 수원지방금융조합 관내에서는 1913년 용인군에 용인지방금융조합이, 1914년 진위군에 평택지방금융조합이 설립되었다. 이에 따라 수원지방금융조합은 수원군만을 조합구역으로 하게 되었다. 그 후 조선총독부의 조합 증설정책에 따라 1917년 수원·진위·용인군의 각 일부를 구역으로 한 오산지방금융조합이 설립되었다. 1907년 5개 군에 걸쳐 1개 지방금융조합이 있었는데, 10년 만인 1917년에 그 5개 군 지역

5 최재성, 『식민지 조선의 사회경제와 금융조합』, 경인문화사, 2006, 184~190쪽.

6 『수원지방금융조합 대부금순보』(규26492).

에 5개의 조합이 설립된 것이었다.

2) 수원 지역 지방금융조합의 활동

(1) 1908년 수원지방금융조합의 대부활동

초창기 지방금융조합의 금융활동은 대출업무가 중심이었는데, 창설과 함께 각 조합에 내려 보내는 기본금이 주요 대출 자원이었다. 그 후 차입금, 출자금, 예금 등이 포함되기도 했으나 아직까지는 미약하였다. 대출 가운데 소 구입자금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농사 개량을 위한 종자·비료·농기구 구입자금이 그 뒤를 이었다. 아울러 농공은 행과 밀접한 관련으로 예금과 대부에 대한 중개업무도 실시하였다.

수원지방금융조합의 대부활동에 대해 살펴보겠다. <표 1>에는 수원지방금융조합의 1908년 대부금이 4,337원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1908년 12월 말 기준 대출금 잔액을 표시한 것으로, 그 이전에 상환된 실적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당시 지방금융조합의 대부 활동을 상세히 알 수 있는 것은 『대부금순보』인데, 1908년 『수원지방금융조합 대부금순보』를 통해 수원 지역 대부 실상을 살펴볼 수 있다.⁷ 이 자료는 1908년 6월 20일자와 30일자 2건이 있는데, 6월 11일까지 174건, 대출금액 7,012원(건당 40.3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건별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6월 12일부터 30일 사이에 대출된 47건 1,900원(건당 40.4원)이다. 대출금액별로 보면, 1명의 조합원이 50원을 대출한 것이 가장 많은 21건이고, 45원 5건, 40원 8건, 30원 6건, 25원 2건, 20원 2건, 15원 1건, 10원 2건이다.

대출금 사용 목적별로 보면, 농업 관련 자금 대출이 11건 460원으로 11건 모두 소 구입을 위한 자금 대출이었는데, 건당 약 42원씩 대출한 셈이다. 다음으로는 상업 관련 자금 대출 11건 530원인데, 세부적으로 잡화상자금 7건 330원, □상(□商)자금 3건 150원, 우상(牛商)자금 1건 50원이다. 이어 식료품 21건 775원(건당 약 37원)이고, 사용처를 알 수 없는 대출은 4건 135원이다. 대출기간인 6월 중·하순은 보리를 수확하고, 모내기를 시작하는 시기여서 식료품 21건, 소 구입자금 11건은 그 시기 대출활동 특성을 잘 보여 준다.

대출기간은 5개월 23건, 6개월 24건으로 모두 5~6개월 만기 대출이고, 대출 이자율은 일보(日步) 4전은 39건, 일보 6전은 8건이다.⁸ 이 정도의 이자율은 당시 전국 12개 지역 대

7 『대부금순보』는 조합 이사가 열흘마다 작성한 보고서이다. 관할 재무감독국장을 거쳐 탁지부 이재국 감독과에 제출되었다. 『대부금순보』의 대출 실적 분석은 최재성, 「지방금융조합 설립 초기 활동에 관한 연구 : 1907, 1908년 대부금순보 분석을 중심으로」, 성균관대 대학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996.
8 일보(日步) 6전은 100원에 대한 하루 이자 6전이란 뜻으로, 0.06%에 해당한다. 한 달 30일에 1.8%, 1년 360일에 21.6%이다.

금업자 이자율이 1개월 평균 6.5~11.8%였음에 비춰 볼 때 상당히 낮은 것이었다.⁹ 금융조합의 조합원에 가입하여 자금을 대금업자에 비해 저리로 융통받는 것은 일종의 특혜였다. 그래서 초창기 조합원은 일제 측과 상당한 유착성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이자율을 담보와 비교해서 살펴보면, 일보 4전의 대출은 모두 부동산 담보이고, 일보 6전의 대출은 신용대출이다. 이자율은 담보 유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부동산 담보 대출 37건을 담보평가액 구간별로 살펴보면, 37건의 대출금 총액은 1,590원으로 건당 평균 43원이다. 47건 평균 40.4원과 비교하면 약간 더 높아 부동산 담보 대출 금액이 신용대출에 비해 더 많은 금액을 대출했음을 알 수 있다. 담보물 평가액이 50원 이하는 2건, 50~100원은 21건, 100~150원은 8건, 150~200원은 6건이다. 이를 통해 부동산 담보대출자들의 자산 소유 상황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2) 1910년대 남양지방금융조합의 활동

1910년대 수원 지역 지방금융조합의 활동을 알 수 있는 자료는, 1915년 10월 7일부터 3일간 개최되었던 지방금융조합 이사회 이후 조선총독부에서 자료를 취합하고 만들어 배포했던 『지방금융조합이사회동답신서(地方金融組合理事會同答申書)』이다. 이 회의에 남양지방금융조합 이사 오자키(尾崎俊甫)가 참석하여 답신서를 제출했는데, 이 자료에는 1912년부터 1915년 8월까지 남양지방금융조합 활동 실적이 담겨 있다.¹⁰

먼저 조합원수에 대해 살펴보면, 1908년 창립 시 200명으로 출발하여 1914년 358명이 되었으나 「지방금융조합령」 실시에 따라 111명의 탈퇴자가 발생하여 1915년 3월 말에는 247명으로 줄었다. 지방금융조합은 1914년 「지방금융조합령」 제정을 계기로 ‘건설’한 조합원 정선에 착수하여 전국적으로 2만여 명에 달하는 ‘불량’ 조합원을 도태시켰다.

다음으로 대부 활동에 대해 살펴보면, 1912~1914년 남양지방금융조합의 대부금 용도별 금액은 <표 2>와 같다.

<표 2>를 보면 대출금 용도는 제염업과 경작용 소 구입이 3년 내내 75~81%로 대부분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그 가운데 제염업 자금 대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남양지방금융조합 대출의 특징이다. 제염자금과 양식자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농업자금이다. 1907년 「지방금융조합규칙」과 1914년 「지방금융조합령」 모두 ‘농업상 필요한 자금 대부’를 지방금융조합의 주요 업무로 규정하였는데, 농사자금 대부는 농업생산

9 『제3차 통감부통계연보』, 1908, 371~372쪽.

10 조선총독부 편, 『대정 4년 10월 지방금융조합이사회동답신서(地方金融組合理事會同答申書)』, 1915, 4~14쪽.

〈표 2〉 1912~1914년 남양지방금융조합의 대부금 용도별 금액¹¹

(단위 : 원)

종별	1912		1913		1914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부업자금(주로 제업업)	7,086	57	10,408	61	8,243	49
농업재료, 경우(耕牛) 구입자금	2,570	21	2,430	14	5,311	32
자작용 토지 구입자금	500	4	2,075	12	1,570	9
토지 개량자금	285	2	440	3	620	4
인부임금, 기타 농사비	1,175	9	295	2	443.75	3
경작기간 중 양식자금	850	7	1,375	8	355	2
농업용 건물에 요한 자금					130	1
계	12,466	100	17,023	100	16,673	100

력 증대와 농산물의 상품화 촉진을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는 조선의 농업구조를 일제의 식량 및 원료 생산지에 맞게 재편하기 위한 일제의 식민정책에 따른 것이었다.

다음은 위탁판매 실적인데, 위탁판매는 지방금융조합이 1908년부터 취급했던 사업이다. 남양지방금융조합은 1912년부터 벼·백미·식염 등을 수탁(受託)받아 위탁판매를 시작하였다. 그 실적은 〈표 3〉과 같다.

〈표 3〉 1912~1914년 남양지방금융조합의 위탁판매 실적¹²

(단위 : 원)

연도	품명	수탁				판매		차익	잔고
		이월	수량	계	평가액	수량	금액		
1912	인(석)		224	224	1,477.9	73	513.6	29.2	151
	백미(석)		7	7	122	5	96	10	2
	식염(석)		250	250	550				250
	엽랑(葉糞 : 연)		700	700	119				700
	계				2,268.9		609.6	39.2	
1913	인	151	160	311	1,979.5	174	1,254.78	103.78	137
	백미	2	22	24	396	12	244.6	28.6	12
	식염	250	2,118.8	2,368.8	3,790.09	1,328.8	2,523.65	397.57	1,040
	엽랑	700		700	119	700	141	22	0
	계				6,284.59		4,164.03	551.95	
1914	인	137	75	212	1,158	212	1,170.74	12.74	0
	백미	12	1	13	187	13	191	4	0
	식염	1,040	9.2	1,049.2	1,678.72	781.2	1,385.24	135.32	268
	계				3,023.72		2,746.98	152.06	

11 조선총독부 편, 『대정 4년 10월 지방금융조합이사회동담신서(地方金融組合理事會同答申書)』, 1915.

12 조선총독부 편, 『대정 4년 10월 지방금융조합이사회동담신서(地方金融組合理事會同答申書)』, 1915.

〈표 3〉 가운데 인(粃:벼)을 예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남양지방금융조합은 1912년에 조합원에게서 벼 224석을 수탁하였다. 평가액은 약 1,478원으로 벼 1석당 6.6원 정도였다. 그 가운데 73석을 약 514원에 판매하였다. 1석당 7원 정도에 매각한 것이다. 그래서 1석당 40전씩 29여 원의 차익을 거두었다. 가을 추수기에 낮은 평가를 받았던 벼를 창고에 보관하다가 겨울과 초봄 벼 가격이 상승할 때 판매했기 때문에 거둘 수 있는 이익이었다. 이어 1913년에는 이월된 151석에 새로 수탁한 160석을 합한 311석에서 174석을 팔고 137석을 이월시켰다. 판매한 174석의 대금은 1,255원 정도로 1석당 7원 20전 정도였다. 그러나 남양지방금융조합 위탁판매 실적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식염이었다. 1913년과 1914년도 수탁금액, 판매금액 모두 벼의 그것보다 훨씬 많았기 때문이다.

그 밖에 조합원을 위한 공동구입 실적도 있는데, 품목은 법씨(개량종), 깻묵(荳子糶), 소채 종자, 과수 묘목, 도급기(稻扱機), 사탕수수 등이었다. 법씨는 대체로 일본인의 구미에 맞는 일본종(早神力 등)이었고, 깻묵은 비료로 사용된 것이었다. 또 도급기는 곡식을 탈곡하는 기구이다. 이를 통해 볼 때 공동구입 품목은 모두 농사와 관련된 것이다.

위탁판매 물품은 주로 미곡과 농업 생산을 통한 원료 등이었는데, 이는 식민지가 식민 본국에 대해서 갖는 제1차적 기능인 원료 공급지로서의 역할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또한 공동구입은 종자·농기구 등으로서 농사개량을 위해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리고 이는 일본의 수요를 겨냥한 미곡 개량이 중심이었다.

2. 1920년대 ‘산미증식계획’ 기 금융조합의 활동

1) 수원 지역 금융조합의 증설

1918년 조선식산은행의 창설과 함께 「금융조합령」이 개정되었다. 개정된 「금융조합령」의 골자는 도 연합회, 도시금융조합의 신설과 관련된 것들이다. 이는 1910년대 후반기 일련의 식민지 금융정책의 변경에 따른 것이다. 「금융조합령」의 개정과 그에 따른 도 금융조합연합회의 신설로 ‘조선식산은행-도 금융조합연합회-금융조합’이라는 식산은행 계통의 금융기구가 갖추어졌다.

또 이전의 지방금융조합이 ‘지방’이란 두 글자가 삭제되어 금융조합으로 개칭되었다. 그에 따라 이전에 설립되었던 각 지방금융조합은 ‘촌락금융조합’으로 분류되어 계속 증설되었다. 촌락조합 증설을 위해 조선총독부는 처음에는 ‘1면 1조합’ 방침을 채택하였지

만, 결국 '3면 1조합' 방침으로 후퇴하였다. 부와 지정면을 중심으로 도시조합이 신설되었는데, 1920년대 중반까지 집중적으로 설치되었다.

이에 따라 수원지방금융조합·남양지방금융조합·오산지방금융조합은 각각 화성금융조합·남양금융조합·오산금융조합으로 개칭되었다. 수원면에 도시조합으로서 수원금융조합을 신설하면서 그 이름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기존 수원지방금융조합의 이름을 화성으로 바꾼 것이었다. 그 밖에 발안금융조합이 촌락조합으로서 신설되었다. 이로써 수원 지역에는 1919년에 모두 5개의 금융조합(촌락조합 4, 도시조합 1)이 설치되어 활동하게 되었다.

도시조합인 수원금융조합은 1919년 2월 13일, 촌락조합인 발안금융조합은 1919년 3월 14일에 설립되었다. 수원금융조합은 노나카 스에요시(野中末吉)의 제의로 20여 명이 발기한 경기도내 최초의 도시조합이었다.¹³ 또 발안금융조합은 향남면을 중심으로 한 수원군의 서남 지역을 조합구역으로 했다.

1920년대 수원 지역 금융조합의 조합원 증가 추이는 <표 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두 자료에 수록된 정보가 상이하여 조합원수를 제외하면, 양 시기의 통계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화성금융조합(수원상공회의소, 『수원상공회의소 100년사』, 2008) 화성금융조합은 수원지방금융조합이 개칭된 것으로, 조합 건물은 수원읍 산무리(현 교동)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원금융조합(사카이 마사노스케, 『수원』, 1923)

13 藤澤清次郎 編, 『朝鮮金融組合と人物』, 大陸民友社, 1937, 634쪽.

〈표 4〉 1920년대 수원 지역 금융조합의 조합원수¹⁴

조합명	1920년 3월 말				1931년 3월 말			
	농업	상공업	기타	계	조합구역	조합원수	세대수	비율(%)
화성	612	1		613	9면	1,134	12,564	9
남양	718	1		719	5면	1,494	5,999	25
오산	361			361	6면	1,482	6,871	22
발안	277			277	5면	1,063	5,980	18
수원(도시)	17	180	63	260	수원읍	493	2,581	19

어느 정도의 특징은 파악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표 4〉에서 두 시기를 비교하면, 모든 조합에서 조합원이 증가하였다. 그런데 1931년 기준으로 설립된 지 20년이 넘는 화성금융조합·남양금융조합에서는 2배가량의 증가를 보이지만, 1917년과 1919년에 각각 설립된 오산금융조합·발안금융조합은 약 4배의 증가를 보였다. 신설 조합의 조합원 가입 속도가 빨랐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나머지 4개 조합의 조합원 가입률(조합구역 내 전체 세대수 대비)이 20% 전후임에 반해, 가장 오래된 화성금융조합의 그것은 10%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이는 1931년 3월 말 화성금융조합 구역 내 세대수가 특히 높기 때문인데, 이처럼 매우 높은 수치는 도시조합인 수원금융조합 구역 내 세대수와 중복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또 1920년 3월 기준 직업별 조합원수를 보면, 촌락조합과 도시조합 사이에 확연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도시조합인 수원금융조합에서는 상공업자가 거의 70%에 해당하고, 기타 업자가 두 번째이며 농업자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극소수이지만, 나머지 4개 촌락조합에서는 농업자가 100% 또는 그에 가까운 것을 볼 수 있다.

2) 수원 지역 금융조합의 활동

1920년대 금융조합의 금융활동 특징을 자금 조달과 운용으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조합기본금, 출자금, 차입금, 예·적금 등이 조달자금이 되었다. 조합기본금은 1907년 지방금융조합 신설 때부터 탁지부에서 각 조합으로 하부한 것인데, 점차 조달자금 가운데 그 비중이 감소하였다. 출자금은 1914년 「지방금융조합령」 제정 때

14 조선총독부 재무국조사, 『금융조합요람(제1차, 1921년 7월)』, 조선경제협회, 1922; 조선금융조합협회, 『금융조합요람(1930년)』, 1931년 3월 말 기준인 것은 1914년도부터 금융조합 회계연도가 변경(1월 1일~12월 31일 → 4월 1일~익년 3월 31일)되었기 때문이다.

도입·시행된 것으로, 이 출자금제 도입으로 조합원 자격이 중농 이상으로 강화되는 결과를 낳았다. 차입금은 주로 도 금융조합연합회와 조선식산은행으로부터 차입한 보통 차입금이었다. 우편저금 등을 통해 조성된 자금이 일본 대장성 예금부자금이 되었고, 대장성 예금부자금은 조선식산은행을 통해 도 연합회를 거쳐 일선 금융조합의 차입금이 되거나 도 연합회를 거치지 않고 식산은행에서 바로 금융조합으로 융통되기도 했다. 예금은 1914년 「지방금융조합령」 제정과 함께 금융조합에서 취급하기 시작한 이래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그런데 예금은 조합원 예금에 비해 비조합원 예금이 더 많았다. 촌락조합보다는 도시조합에서 더 높은 실적을 거두었는데, 도시조합 예금은 1918년부터 신설된 도 금융조합연합회에 예치되었고, 그 자금은 자금이 부족한 도내 촌락조합에 융통되었다.

촌락조합 금융활동을 보면, 예금과 차입금을 위주로 조달하여 농사자금으로 운용하였다. 1920년대 수원 지역 금융조합의 자금조달 상황은 <표 5>와 같다.

<표 5> 1920년대 수원 지역 금융조합의 자금조달¹⁵

(단위 : 원)

조합명	출자금		차입금		예·적금		계	
	1920년 3월 말	1931년 3월 말						
화성	3,385	28,270	42,000	79,099	9,699	145,526	55,084	252,895
남양	5,087	34,340	37,169	121,100	7,248	65,934	49,504	221,374
오산	1,387	32,580	45,000	170,200	1,047	100,790	47,434	303,570
발안	585	22,900	50,000	108,800	338	74,691	50,923	206,391
수원	13,350	75,650	65,927	35,000	14,345	275,174	93,622	385,824

각 금융조합 조달자금 가운데 양 시기 모두 대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차입금이었다. 이어 예·적금이 그다음으로 많고, 출자금이 셋 중 가장 적다. 다만 1931년 3월 말 기준 화성금융조합·수원금융조합에서만 예·적금액이 차입금보다 많을 뿐이다.

이렇게 조달된 자금이 얼마나 융통되었는지 보자. 같은 기간 수원 지역 금융조합의 대부금액은 <표 6>과 같다. <표 6>에서 양 시기의 연도 말 잔액을 비교해서 보면, 모든 조합에서 대부금액 규모가 커졌음을 알 수 있다. 또 앞의 자금조달과 비교하면, 대체로 자금조달금액보다 대부금액이 더 적는데, 그 이유는 조합원에 대한 자금대부 외에도 연합회,

15 조선총독부 재무국조사, 『금융조합요람(제1차, 1921년 7월)』, 조선경제협회, 1922; 조선금융조합협회, 『금융조합요람(1930년)』, 1931년 3월 말 기준인 것은 1914년도부터 금융조합 회계연도가 변경(1월 1일~12월 31일 → 4월 1일~익년 3월 31일)되었기 때문이다.

〈표 6〉 1920년대 수원 지역 금융조합의 대부금

(단위 : 원)

조합명	1920년 3월 말				1931년 3월 말
	전년도 말 잔액	연도 중 대부액	연도 중 회수액	연도 말 잔액	잔액
화성	30,447	56,837	29,786	57,098	192,527
남양	33,372	66,019	41,382	58,009	190,751
오산	13,185	68,726	25,968	55,943	280,715
발안		58,792	9,612	49,180	169,888
수원		404,542	315,517	89,025	299,588

식산은행, 우편관서에 예치한 금액도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대부금의 용도를 살펴보자. 개별 조합의 실적 통계 자료는 없고 도별 통계 실적만 남아 있으므로, 도별 통계 실적을 통한 간접 방식으로 추정해 보겠다. 기준은 1931년 3월 말 경기도 실적이다.¹⁶

먼저 대부금은 특별대부금과 보통대부금으로 구분되었다. 특별대부금은 농사개량자금 장기대부금, 특수산업자금 장기대부금, 농사개량자금 단기대부금, 특수산업자금 단기대부금 등 4종이다. 경기도 내 촌락금융조합에서 융통한 4종 각각의 대부금액은 1,930원, 7만 5,765원, 5만 984원, 32만 2,635원이며, 합하면 8,182구에 45만 1,314원이다. 이를 다시 용도별로 살펴보면, 소 구입 자금이 13만 2,352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자작용 토지구입 자금은 7만 8,687원이고, 비료구입 자금은 5만 984원 등이다.

보통대부금은 장기대부금, 단기 담보대부금, 단기 보증 및 신용대부금 등 3종인데, 각각의 대부금액은 213만 8,739원, 138만 4,931원, 425만 6,365원이고, 합해서 6만 6,360구 778만 35원이다. 이 중 장기대부금 213만 8,739원을 용도별로 살펴보면, 농업자금이 188만 7,525원으로 가장 많고(88%), 상공업자금이 17만 8,363원(8.4%)으로 다음이며, 잡자금 6만 9,470원(3.2%), 수산업자금 3,380원 등이다.

특별대부금과 보통대부금 가운데 보통대부금이 95%가량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농업자금이 압도적으로 많다. 그러나 ‘토지개량’을 위한 대규모 자금 융통은 보이지 않는다. 1920년대 금융조합 조합원은 대체로 중농 이상이었고, ‘산미증식계획’기에 수리시설·관개·황무지 개간 등을 통한 토지개량사업은 지주나 농사단체 주도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산미증식계획을 위한 일본 대장성 예금부자금은 식산은행과 동양척식주식회사를 통해 주로 수리조합과 지주에게 방출되었기 때문에, 금융조합의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 조선금융조합협회, 『금융조합요람(1930년)』, 1931.



오산금융조합(조선총독부, 『생활상태조사-수원군』, 1929) 왼쪽 건물이 금융조합이고, 오른쪽은 우편소이다.



남양금융조합(수원상공회의소, 『수원상공회의소 100년사』, 2008) '南陽金融組合'이라고 쓴 간판이 보인다.

미미하다. 다만, 산미증식계획의 또 다른 축이었던 '농사개량' 사업을 위한 저리자금이 금융조합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융통되었다.

3. 1930년대 '농촌진흥운동' 기 금융조합의 활동

1) 수원 지역 금융조합의 증설

1929년에 「금융조합령」이 개정되었다. 개정 「금융조합령」의 특징은 모든 이사를 관선제로 바꾼 점, 조합원 총회 대신 총대회제를 도입한 점, 경영업무를 폐지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또 1933년 금융조합의 중앙기구로서 조선금융조합연합회가 설치되었다. 이는 1920년대 이래 꾸준히 제기되었던 중앙회 설립 요구가 마침내 결실을 맺은 것으로, 금융조합 내의 여유자금도 영향을 미쳤다.

1930년대 전반기에 조선총독부는 조합원 배가를 목표로 확대운동을 벌이면서 이에 맞춰 더욱 조합을 증가시킬 방침이었는데, 조선금융조합연합회 창설 직후인 1933년 10월 총독부에서는 '소조합 분산주의'를 채택하였다. 즉, 기존 조합 중 가입구역이 넓은 곳을 분할하여 가입구역이 좁고, 조합원이 밀집한 조합을 신설할 방침이었다. 이를 위해 먼저 기설 조합의 지소를 설치하여 점차 조합으로 승격시켰다.

수원 지역에서도 1930년대 들어와 2개의 조합과 2개의 지소가 증설되었다. 2개의 조합은 오산제2금융조합, 사강금융조합이었다. 오산제2금융조합은 1931년 12월 23일 오산금융조합에서, 사강금융조합은 1931년 12월 7일 남양금융조합에서 분리·신설되었다. 2개의 지소는 반월·조암지소로 각각 화성금융조합·발안금융조합의 지소였으며 반월지소는 1933년, 조암지소는 1931년에 설치되었다.¹⁷ 이들 조합의 구역과 조합원수를 보면 <표 7>과 같다.

<표 7> 1930년대 수원 지역 금융조합의 조합원수¹⁸

조합명	1932년 3월 말				1937년 3월 말		
	구역	조합원수	세대수	비율	조합명	구역	조합원수
화성	8면 1읍	1,314	11,693	11	화성	1읍 6면	3,403
					반월지소	2면(반월·매송)	1,445
남양	3면	961	2,954	32	남양	3면(음덕·비봉·마도)	2,154
오산	3면	1,107	4,205	26	오산	3면	2,799
발안	5면	1,237	6,015	20	발안		2,023
					조암지소	2면(우정·장안)	1,819
오산제2	3면	747	2,764	27	오산제2		2,265
사강	3면 5리	775	3,903	19	사강	송산·서신	2,670
수원	1읍	459	2,585	17	수원	수원읍, 9개 리	1,132

<표 7>을 보면, 1932년에서 1937년 사이 5년 동안 조합원수 증가 현상이 현저한 것을 알 수 있다. 화성금융조합 3.8배를 선두로, 사강금융조합 3.4배, 발안금융조합 3.1배, 오산제2금융조합 3.0배, 오산금융조합 2.3배, 남양금융조합 2.1배 순이다. 이를 통해 1932년 3월 말 기준으로 평균 20%대 가입률이었던 것이 5년 사이에 40~50%대가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1929년에 개최된 금융조합중앙대회에서 표방하였던 ‘조합원 3할 포용’에 따라 조합원은 급속히 증가하였다. 일제는 ‘3할 포용’을 위해 1929년부터 1933년까지 5개년간 계획을 수립했는데, 조선 농가 총호수의 약 30%인 89만 5,000명을 목표로 하였다. 그 후 1933년부터는 다시 5개년 목표로 ‘5할 포용’을 내세웠다.

농촌진흥운동의 전개와 함께 시작된 ‘5할 포용’ 운동의 일환으로 갱생지도부락, 자체

17 藤澤清次郎 編, 『朝鮮金融組合と人物』, 大陸民友社, 1937.

18 조선금융조합협회, 『금융조합요람(1931년)』, 1932; 조선금융조합연합회 편, 『朝鮮金融組合の現勢』, 1937; 藤澤清次郎 編, 『朝鮮金融組合と人物』, 大陸民友社, 1937.

지도부락, 상호연대보증조, 농촌진흥회 등을 이용하여 조합원 증모를 도모하였다. 금융조합은 지도부락에 존재하는 농가를 전부 가입시킬 방침을 정했고, 농촌진흥회를 단위로 하여 집단으로 가입시켰으며, 식산계장·총대·평의원 등을 동원하여 증모에 나섰다. 특히 금융조합이 담당했던 부채정리사업은 농민들을 유인하는 좋은 도구였다. 수원 지역 금융조합은 이와 같은 사정을 배경으로 하여 조합원수가 증가하였다.

2) 수원 지역 금융조합의 활동

1930년대는 금융조합사에서 ‘극성기’로 평가받는 시기였다. 당시 전개된 ‘농촌진흥운동’과 금융조합사업의 성격이 잘 맞았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 금융조합의 금융활동도 농촌진흥운동과 연결되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자작농 창정과 고리채 정리를 위한 자금 대출이다.

이제 1930년대 수원 지역 금융조합의 활동을 두 시기로 나눠 비교하여 살펴보자. 먼저 1932년 3월 말 현재 자금 조달과 운용 상황을 보면 <표 8>과 같다.

<표 8> 1932년 3월 말 수원 지역 금융조합의 금융활동¹⁹

조합명	조달					운용	
	출자금	차입금	예금			대출금	예치금
			조합원	비조합원	계		
화성	29,670	92,932	32,699	113,744	146,443	173,046	98,430
남양	36,170	27,880	9,103	37,780	46,883	88,191	31,630
오산	34,530	90,875	16,386	71,890	88,276	180,016	47,330
발안	24,110	86,710	13,719	69,708	83,427	154,021	42,223
오산제2	7,610	86,000	5,627	19,930	25,557	99,873	16,151
사강	8,110	73,000	11,572	19,138	30,710	74,080	31,780
수원	71,800	36,900	87,031	213,382	300,413	248,004	202,916

<표 8>에서 보이듯이 조달자금 가운데 조합에 따라 차입금의 비중이 큰 조합이 있고, 예금의 비중이 큰 조합이 있다. 촌락조합 가운데 화성금융조합·남양금융조합은 예금의 비중이 차입금보다 크고, 오산금융조합·발안금융조합은 양자가 대체로 비슷하며, 오산제2금융조합·사강금융조합은 차입금의 비중이 예금에 비해 2~3배 이상 크다. 이 현상은

¹⁹ 조선금융조합협회, 『금융조합요람(1931년)』, 1932.

조합 설립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화성금융조합·남양금융조합은 설립된 지 20년 이상, 오산금융조합·발안금융조합은 10년 이상 지났으며, 오산제2금융조합·사강금융조합은 신설조합이었다. 반면 도시조합인 수원금융조합에서는 예금이 차입금에 비해 8배 이상 압도적 비중을 보임이 주목된다. 양 지역민의 자산 상태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또 예금에서는 촌락·도시 조합을 막론하고 조합원에 비해 비조합원들이 더 많은 예금을 했는데, 이는 1920년대와 같은 양상이 계속 이어진 것이다.

자금 운용에서 보면 대출금이 예치금에 비해 많다. 특히 촌락조합에서 전자의 비중이 도시조합의 그것보다 훨씬 크다. 도시지역에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자산가들이 집중 거주했고, 그들의 예금이 조선금융조합연합회와 식산은행에 예치되었고, 조선금융조합연합회에 예치된 예치금은 다시 촌락조합의 차입금으로 운용되었다.

이제 농촌진흥운동이 추진되고 난 뒤의 상황을 보자. 이 시기 수원 지역 금융조합의 금융활동을 보면 <표 9>와 같다.

<표 9> 1936년 수원 지역 금융조합의 금융활동²⁰

조합명	조달			운용		
	출자금	차입금	예금	대부금		예치금
				특별	보통	
화성	58,610	287,000	244,876	67,045	272,935	153,000
반월지소			51,543	16,329	110,647	
남양	27,973	108,322	117,320	33,091	169,885	42,722
오산	37,610	360,000	136,435	138,915	339,746	50,000
발안	47,520		87,531	16,991	175,260	
조암지소		96,000	62,265	16,095	134,065	
오산제2	23,360		120,508	144,644	255,579	
사강	27,480		62,695	39,846	197,347	
수원	52,904		355,543	35,052	406,082	

조달 재원 중 출자금과 예금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히 1937년 3월 말 기준 국내 전체 금융조합 예금은 1억 6,335만 원에 달하였다. 그중 저축예금 47.22%, 정기예금 38.56%, 거치예금 6.26%, 정기적금 4.98%, 당좌예금 2.94%였다. 이는 대부분 저축성 성질을 띠고 있는 예금이며, 대중 영세저축의 집적이었다.²¹

20 조선금융조합연합회 편, 『朝鮮金融組合の現勢』, 1937; 藤澤清次郎 編, 『朝鮮金融組合と人物』, 大陸民友社, 1937.

21 조선금융조합연합회, 『제5회 금융조합연감』, 1938, 42쪽.



1930년대 화성금융조합 출자증권(의왕시사편찬위원회, 『의왕시사』,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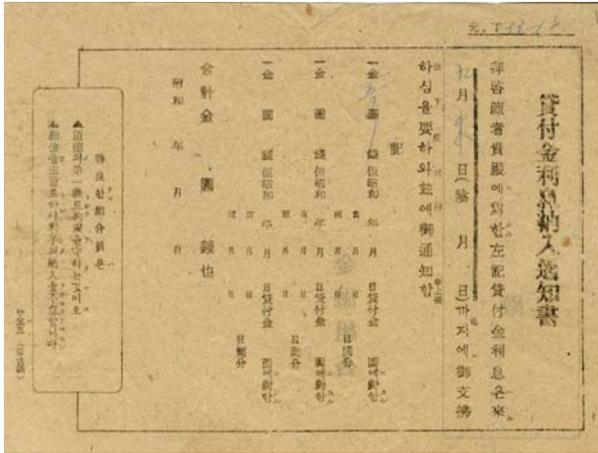


차용금 기간갱신계약서(의왕시사편찬위원회, 『의왕시사』, 2007)
차용금 잔금 완납 기간을 5년 연장하면서 새로운 대출이율을 적용하였다.

다음으로 대부금을 보면, 1937년 3월 말 기준 국내 전체 대부금 총액은 2억 2,846만 원으로, 그중 보통대부금은 84.49%, 특별대부금은 15.51%로 보통대부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보통대부금 가운데서는 단기대부가 1억 2,000여 만 원으로 압도적이었다. 보통대부금(1억 9,300만 원) 가운데 농업자금이 63%인데, 농업자금(1억 2,274만 원)의 용도를 상세히 보면, 토지구입(46.3%), 구채 상환(30.7%)이 전체의 4분의 3 이상이다. 이어 우마 매입(9.5%), 기타(6.6%), 노임 및 양식(3.3%), 비료·종자(2.1%), 농사(農舍) 건설(1.0%), 농기구 매입(0.5%), 부업 자금 순이다. 또 특별대부금(3,500만 원)은 부채정리자금(1,788만 원), 특수산업 저리자금(1,097만 원), 농사개량 저리자금(390만 원) 등이다. 그중 특수산업 저리자금은 자작용 토지구입, 농우 구입, 점포·주택 설비, 기타 미곡자금 등에 사용하게 한 것이고, 농사개량 저리자금은 비료 구입자금에 충당토록 한 것이다.²²

1930년대 수원 지역 금융조합 대부금의 상세한 용도를 알려 주는 자료는 없다. 하지만 이상과 같은 조선 전체의 통계를 통해 수원 지역 금융조합들도 유사한 추세였을 것으로 보인다. <표 9>에서와 같이 수원 지역 금융조합에서도 모두 보통대부금이 특별대부금보

22 조선금융조합연합회, 『제5회 금융조합연감』, 1938, 31~42쪽.



대부금 이자납입통지서(의왕시사편찬위원회, 『의왕시사』, 2007) “善良한 組合員은 道徳의 第一義로 約束을 守하는 것이요 勤儉을 主旨로 하여 利子의 納入을 不怠합니다.”라는 좌측의 문구가 이채롭다.

다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도시조합인 수원금융조합에서 그 현상이 현저하다. 특별대부자금이 도시보다는 촌락의 조합원에게 유용한 것이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1930년대 ‘농촌진흥운동’기에 금융조합 활동의 3대 목표는 ‘고리부채 정리, 자작농 창설, 농사개량 시설’이었다. 그러나 자작농 창설자금을 통한 일부 농가의 계층 상승은 결국

이웃 영세 빈농의 대량 탈농의 대가였고, 그나마 자작농지 설정사업도 ‘갱생 실적이 현저한’ 농가를 중심대상으로 전개되어 매우 제한적이었다. 고리채 정리사업은 초기 자금 규모가 소액이라 수요에 충분히 응할 수 없었다. 또 담보를 제공할 만한 능력이 있는 계층에게나 유용한 제도였다. 그리고 채무자에게 도움이 되는 채무액 조정 감액 등을 위해 조합 이사 등 지역 유지들의 ‘알선’ 압력이 이 사업의 실적을 높여 주는 수단이 되었을 뿐이다.

4. 전시체제기 금융조합의 강제저축과 대출억제

1) 수원 지역 금융조합 조합원 가입률

1937년 7월 7일 일제는 중일전쟁을 일으켰다. 이후 일제는 전쟁 수행을 위한 물자와 인력동원을 위한 전시총동원체제를 구축하고, 1938년 5월 「국가총동원법」을 조선에 적용하였다. 그 과정 속에 1937년 9월과 10월에 「수출입품등임시조치법」과 「임시자금조정법」이 각각 조선에도 적용되면서 조선 내 전시경제통제가 본격화되어 조선경제는 무역, 자금, 물자수급, 소비에 이르기까지 광범한 통제를 받게 되었다.

한편 이 시기에 이르러 일부 금융조합의 수지 악화에 따라 금융조합 감축사태가 벌어지게 되었다. 1940년 조선금융조합연합회에서는 적자를 보고 있는 금융조합에 대해 타개

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동시에 자금을 지원하던 종래의 방침 대신에 구역 내 경제력 빈곤으로 자립할 수 없는 조합에 대해서는 행정관청과 협의 후 해체시켰던 것이다. 아울러 전 시 총동원체제기에 급속한 조직률을 보였던 식산계의 설립으로 금융조합은 '조선금융조합연합회-금융조합-식산계'라는 3단계 체제를 완성하고, 그를 통해 조선 농촌에 대한 완전한 조직화와 통제를 달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수원 지역에서도 1942년 오산제2금융조합이 오산금융조합에 합병되었다. 1931년 분리·설립된 지 11년 만에 원상회복된 것이다. 또 이 시기 수원 지역 금융조합의 조합원 가입률도 급격히 높아졌다. 그 양상은 <표 10>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10> 1941년 3월 말 수원 지역 금융조합의 조합원수²³

조합명	구역	조합원수(A)	식산계수	세대수(B)	비율(A/B)
화성(반월지소)	1읍 7면	5,543	94	8,901	62.3
남양	2면 5리	2,543	61	3,256	78.1
오산	3면	3,074	53	4,532	67.8
오산제2	2면 8리	2,592	73	3,109	83.4
발안(조암지소)	5면	4,989	109	6,034	82.7
사강	2면 5리	2,460	29	3,170	77.6
수원	수원읍	2,252		5,828	38.6

<표 10>에서 각 조합구역 내 세대 총수에 비해 조합원수를 나타낸 비율(가입률)을 보면, 도시조합인 수원조합만 38%대에 머물러 있고, 나머지 촌락조합에서는 60~80%대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1929년 10월 '3할 포용'을 내걸고 시작된 1930년대 이후 금융조합의 조합원 증모사업에 따른 것이다. 조합원 증모사업은 1933년의 '5할 포용'과 1938년의 '8할 포용'의 표방을 거쳐, 1943년에는 '전호 포용'을 목표로 추진되었다.

대대적 조합원 증모사업에 따라 조합원 가입률이 가파르게 상승한 1940년대를 거친 해방 직전 수원 지역 금융조합 조합원수를 보면 <표 11>과 같다.

4년 전에 비해 모든 조합에서 조합원이 크게 늘었다. 그에 따라 조합원 가입률도 90% 이상을 보이는 조합이 많다. 남양금융조합·오산금융조합은 90%대이고, 발안금융조합·사강금융조합은 102%에 가깝다. 100%를 넘긴 것은 한 세대 안에 복수의 조합원이 있다는 의미이다. 대체로 한 세대의 가장이 조합원으로 가입했는데, 가장이 아닌 가족 구성

23 조선금융조합연합회 조사과, 『조선금융조합통계연보(1940년)』, 조선금융조합연합회, 1942.

원도 금융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했다는 것은 그만큼 일제의 조합원 가입 독려가 맹렬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또 그 과정에 식산계의 역할도 경시할 수 없다. 금융조합에 직접 조합원 가입을 하지 않고 식산계에 가입한 것만으로도 금융조합 가입의 효과를 거둘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식산계원수가 구역 내 세대수에 거의 근접할 만큼 식산계가 잘 조직된 지역에서는 금융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농민들이 식산계원으로 가입됨으로써, 식산계를 통해 금융조합에 간접 가입한 셈이 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되는 사실은 도시조합인 수원금융조합과 촌락조합인 화성 금융조합의 조합원 가입률이 4년 전에 비해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사실이다. 조선 사회 전체적으로 보나, 수원 지역으로 보나 조합원 증가 추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역행하는 현상을 보인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 이유는 조합원 가입자수는 늘었음에도 구역 내 세대수가 급속히 늘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구역 내 세대수의 급증은 또 무슨 이유로 인해서일까. 그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위의 양 시기 사이 3년간의 추이를 살펴보자. 중간 3년간 조합원 증가 추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11〉 1945년 3월 말 수원 지역 금융조합의 조합원수²⁴

조합명	구역	조합원수(A)	식산계수	계원수	세대수(B)	비율(A/B)
화성	1읍 6면	8,789	122	6,723	12,731	59.9
반월지소			38	1,906	1,936	
남양	2면 5리	3,285	60	3,225	3,374	97.4
오산	5면 8리	7,091	156	6,855	7,640	92.8
발안	5면	5,881	75	3,231	3,251	101.8
조암지소			55	2,523	2,525	
사강	2면 5리	3,194	59	3,135	3,144	101.6
수원	27정 1리	3,077			8,271	37.2

〈표 12〉 1942~1944년 화성·수원 금융조합의 조합원수²⁵

구분	화성금융조합				수원금융조합		
	조합원수	식산계	세대수	비율	조합원수	세대수	비율
1942년 3월 말	5,652	164	8,804	64.2	2,440	3,877	62.9
1943년 3월 말	6,193	164	8,684	71.3	2,628	6,591	39.9
1944년 3월 말	7,373	164	8,792	83.9	2,936	8,271	35.5

24 조선금융조합연합회 조사과, 『조선금융조합통계연보(1944년)』, 조선금융조합연합회, 1947.

25 조선금융조합연합회 조사과, 『조선금융조합통계연보』, 해당연도.

〈표 12〉를 보면, 화성금융조합 구역 내 세대수는 1944년 3월 말까지 소폭의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어 세대수 급증 현상을 찾아볼 수 없다. 세대수 급증은 1945년 3월 말 통계에만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다. 이에 반해 수원금융조합 구역 내 세대수 증가는 1943년 3월 말 통계에서부터 나타난다. 1년 동안 2,714세대가 증가하여 무려 70%의 증가세를 보여 주고 있다. 이 같은 통계 수치 급증 이유 중 하나는 도시조합과 촌락조합 구역 내 세대수의 중복 계산이다. 〈표 12〉 가운데 1943년 3월 말 수원금융조합 구역 내 세대수 6,591명 가운데 981명이 중복 계산된 것이다. 그렇다면 앞의 1945년 3월 말 기준 화성금융조합·수원금융조합 구역 내 세대수 급증은 촌락조합·도시조합 구역 내 세대수를 각각 분리하지 않고 중복 집계한 것이 원인 중 하나일 것이다.

전시체제가 대대적인 조합원 증모운동에 따라 조합원 가입률은 크게 신장되었다. 특히 식산계의 폭발적 확산으로 1943년 3월 말 현재 조선 전체 촌락조합의 평균 가입률은 98%에 달하게 되었다. 수원 지역도 예외는 아니었음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2) 수원 지역 금융조합의 활동

이제 전시체제가 금융조합의 활동을 살펴보자. 앞서와 마찬가지로 1941년 3월 말과 1945년 3월 말을 비교하여 수원 지역 금융조합의 자금 조달과 운용 상황을 보면 〈표 1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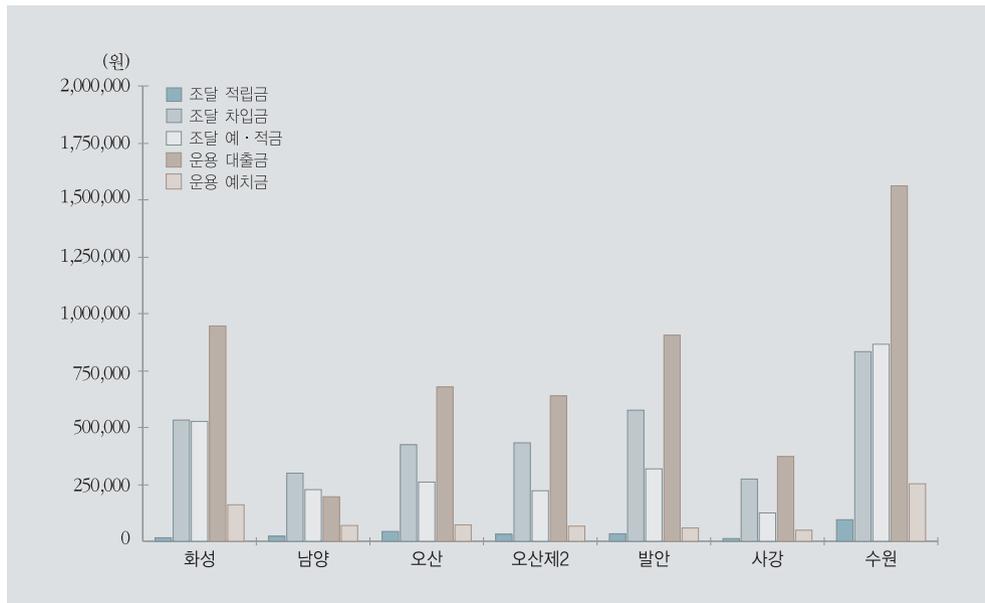
〈표 13〉을 보면, 자금 조달과 운용에서 변화가 뚜렷하다. 먼저 조달 면에서 보면, 적립금 증가는 추세적인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외하면, 차입금과 예·적금을 비교할 때 예·적금의 비중이 크게 커졌음을 알 수 있다. 1941년 3월 말 실적에서는 도시조합인 수원금융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6개 촌락조합들에서는 모두 예·적금에 비해 차입금의 비중이 크다. 화성금융조합처럼 근소한 차이를 보이는 곳도 있지만, 오산금융조합·오산제2금융조합·발안금융조합·사강금융조합에서는 차입금의 비중이 조달액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던 것이 4년 후인 1945년 3월 말에는 모든 조합에서 차입금 절대 액수가 감소할 뿐만 아니라 차입금 대(對) 예·적금의 비율이 역전되었고, 나아가 조달액 가운데 예·적금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커졌다. 예·적금의 증가는 조합원수가 '전가 포용'에 근접했고, 전시총동원정책에 따라 강제저축(공제 저금)이 급격히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자금 운용 면에서의 변화를 보면 대출금 비중 감소, 예치금 증가가 두드러졌음을 알 수 있다. 1941년 3월 말 실적을 보면, 촌락조합·도시조합을 막론하고 모든 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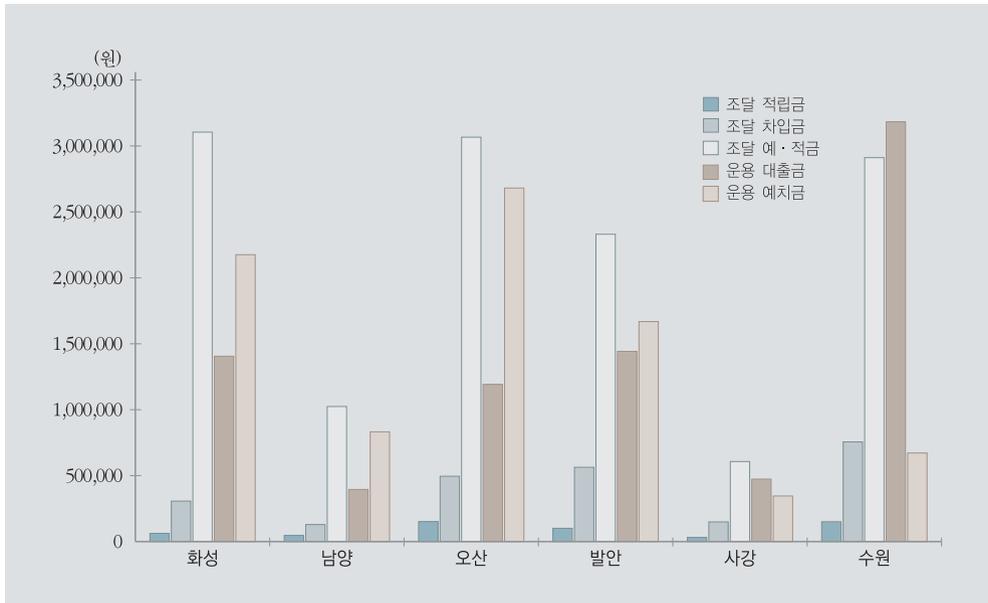
〈표 13〉 1940년대 수원 지역 금융조합의 금융활동²⁶

시기	조합명	조달			운용	
		적립금	차입금	예·적금	대출금	예치금
1941년 3월 말	화성	15,410	532,386	526,512	945,880	160,324
	남양	21,905	298,936	226,667	195,415	69,243
	오산	43,098	424,126	259,967	677,720	72,002
	오산제2	30,814	432,355	221,886	638,898	66,363
	발안	32,970	575,768	317,926	904,971	58,310
	사강	11,943	273,412	124,342	371,985	48,565
	수원	94,676	832,950	865,542	1,561,376	252,623
1945년 3월 말	화성	62,116	306,724	3,104,889	1,405,493	2,175,549
	남양	46,234	129,024	1,024,328	395,252	832,080
	오산	150,953	495,362	3,066,497	1,191,642	2,680,814
	발안	100,772	563,323	2,330,576	1,442,358	1,668,206
	사강	31,030	149,163	606,906	473,557	345,696
	수원	150,541	755,852	2,911,425	3,183,432	671,724



1941년 3월 말 수원 지역 금융조합의 금융활동

26 조선금융조합연합회 조사과, 『조선금융조합통계연보(1940년)』, 조선금융조합연합회, 1942; 조선금융조합연합회 조사과, 『조선금융조합통계연보(1944년)』, 조선금융조합연합회, 1947.



1945년 3월 말 수원 지역 금융조합의 금융활동

에서 대출금이 예치금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45년 3월 말에 이르면, 수원금융조합과 사강금융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촌락조합에서는 예치금이 대출금에 비해 더 큰 비중을 차지하며, 남양금융조합·오산금융조합에서는 대출금에 비해 2배 이상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전시체제가, 특히 태평양전쟁기에 들어서면 채권 발행, 차입금 비중은 현저히 낮아지고 강제저축으로 예금 비율이 압도적으로 증가하였던 것이 금융조합 자금조달의 특징이었다. 또 운용 면에서는 일제의 전쟁비용 조달에 동원하기 위해 금융조합 대출을 극력 억제하는 분위기 속에 전시통제를 위한 정책 대출에 제한되고, 대신 유가증권 매입 비중이 압도적으로 커졌다.



정병욱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HK교수

1. 조선식산은행의 수원지점 설치
2. 1920년대 지역경제와 조선식산은행 수원지점
3. 1930~1940년대 지역경제와 조선식산은행 수원지점
4. 조선식산은행 수원지점의 이용자와 직원



제3장

식민지 금융경제와 조선식산은행 수원지점의 운영

1. 조선식산은행의 수원지점 설치

조선총독부는 1918년 6월 「조선식산은행령(朝鮮殖産銀行令)」(제령 제7호)을 공포하고 동년 10월 전국의 여섯 농공은행을 강제 통합하여 자본금 1,000만 원의 조선식산은행을 설립하였다. 이후 조선식산은행은 1945년 8월 일본이 패전할 때까지 조선총독부의 경제 정책을 금융 면에서 뒷받침했던 정책금융기관으로서 기능하였다. 조선식산은행은 설립된 그해 12월 25일 수원역이 위치한 매산리에 은행 파출소를 설치하였고, 다음 해 1919년 4월 10일 지점으로 승격시켰다.¹ 조선식산은행의 수원지점과 그 자료를 통해 일제강점기 수원의 금융과 경제의 일면을 파악해 보자.

우선 조선식산은행이 수원에 지점을 설치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조선식산은행

¹ 조선식산은행 조사과, 『조선식산은행연감(제1차분)』, 1929, 42쪽. 파출소의 주소는 수원면 매산리 124번지였고, 지점이 되면서 수원군 수원면 매산리 12번지로 이전했다가 1922년 10월 29일 다시 수원면 매산리 124번지로 옮겼다. 1943년 자료에 따르면 지점 주소는 수원군 수원읍 매산정(梅山町) 2정목 18번지였으며(조선식산은행, 『직원명부』, 1943년 4월, 40쪽), 이후 『직원명부』를 보면 해방 이후 1954년 4월 한국산업은행으로 출범할 때까지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다.

이 지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야 했다(「조선식산은행령」 제42조).² 당시 은행 측이 조선총독의 인가를 위해 제출했던 문서를 보면 ‘수원지점 설치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경기도 수원군 수원읍은 수원, 용인, 이천, 시흥, 진위, 안성 여러 군의 태반에 걸친 경제중심이다. 수원역에서 주요 물화의 출입은 1917년 통계에 비추어 보면 이출(移出)은 미(米) 4,615톤을 수위로 하여, 대두(大豆) 2,781톤, 잡곡 2,788톤, 생우(生牛) 1,598두(頭)를 헤아리고, 기타 여러 화물을 합쳐서 이출액 총계 1만 4,800여 톤에 달한다. 이입(移入)은 식염 2,306톤을 제일로 하여, 명태 443톤, 석유 399톤, 염간어(鹽干漁) 329톤, 선어(鮮魚) 251톤을 주로 하여 그 이입 총계는 1만 3,200여 톤의 거액에 달한다.

당행은 위의 상황에 비추어 먼저 지난해 12월 25일에 우선 동지(同地)에 본점의 파출소를 설치하여 영업을 개시하였는데, 이후 거래는 날로 번망해져 본년 2월 말 현재 대출금 52만 1,000여 원, 예금 10만 2,000여 원에 달하고, 동월 중의 금은출납은 입금 167만 8,000여 원, 출금 166만 9,000여 원을 헤아리고, 환거래고는 수입금(受入金) 16만 6,000여 원, 불출금(拂出金) 47만 4,000여 원, 합계 64만여 원으로, 예금을 제외하면 경부연선(京釜沿線) 중의 당행 지점 조치원을 능가하는 상황이다. 더욱이 장래 동지의 지위는 권업금융(勸業金融)의 개척 여지가 있으므로 다른 지점과 균형상, 이를 독립의 지점으로 함이 지당하다고 믿는다.³

위의 자료는 1910년대 후반 수원역을 통한 물류 상황과 그를 기반으로 한 은행 파출소의 거래 상황을 보여 준다. 설치된 지 1년도 안 된 수원파출소의 영업 규모가 한호농공은행 때 설치된 조치원지점의 그것을 능가하였다.

당시 수원역의 상황에 대해 기술한 자료를 보면 수원은 사통팔달의 요충지이자 물자집산지였다. 용인·양지·수원군에서 미·대두·잡곡 등 농산물, 여주·이천·용인 등지에서 우피와 소를 반입하여 철도편으로 경성·인천에 반출하였다. 반면 인천·부산·경성·오사카 등지에서 철도편으로 식염, 염간어, 명태, 옥양묵(金巾), 석유 등을 이입하여 수원과 부근의 소비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용인·이천·여주로 반출하였다.⁴ 조선식산은행은 위의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상업 활동을 영업 기반으로 하여 수원에 지점을 설치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상업금융은 조선식산은행 본연의 업무는 아니다. 주로 연부와 정기상환

2 조선식산은행 조사과, 『조선식산은행연감(제1차분)』, 1929, 22쪽.

3 주식회사조선식산은행 두취대리이사(頭取代理理事) 아리가(有賀光豊)가 조선총독 백작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에게 보낸 문서, 「水原支店設置申請ノ件」, 1919년 3월 18일(조선식산은행 비서실, 『중요서류-1918년 상반기 계(季)』).

4 조선총독부 철도국, 『조선철도역세일반』 상권, 1914, 427~429쪽.

에 의한 장기 산업·공공금융이 본연의 업무로 위의 자료 말미에 언급된 '권업금융'이 이에 해당한다.⁵ 수원은 주변의 농지가 넓고 비옥하여 농사경영에 적합해서 지주제가 발달했고,⁶ 조선총독부의 권업모범장과 동양척식주식회사(이하 '동척'으로 줄임), 동산(東山)농사주식회사, 국무(國武)농장이 자리 잡았던 지역이다. '권업금융의 개척 여지'란 주로 농업 부문의 투자를 의미하였다.



수원역전 거리에 있던 조선식산은행 수원지점(사카이 마사노스케, 『수원』, 1923)

조선식산은행이 지점을 설치할 당시 수원에는 이미 1906년에 설치된

한성은행의 지점이 있었다. 경성을 제외한 경기도 지역의 은행지점 설치의 대체로 개항장(19세기 말)→내륙 철도역 소재지(1900년대 후반~1910년대 전반)→내륙 상업 중심지(1910년대 후반 이후)로 확대되었다. 개항장 인천에는 1883년 일본 제일은행(第一銀行 : 1909년 이후 한국은행에서 인수, 1911년 이후 조선은행)을 필두로, 1890년 제십팔은행(第十八銀行), 1892년 제백삼십은행(第百三十銀行 : 1923년 이후 安田銀行이 인수)이 점포를 설치하였고, 1899년 한국인이 설립한 대한천일은행(大韓天一銀行)도 인천에 지점을 설치하였다. 철도가 부설됨에 따라 내륙 철도역 소재지에도 은행 지점이 설치되었는데, 수원에는 1906년 한성은행이, 그리고 1919년 조선식산은행이 지점을 설치하였다. 개성⁷에는 1907년 한호농공은행이 지점을 설치했고, 1918년 조선식산은행이 인수하였다. 1915년에는 한성은행이 지점을 설치하였다. 평택에는 1912년 조선상업은행이 지점을 설치하였다. 그 후 철도연선은 아니지만 전통적인 상업중심지인 이천(1918년 조선상업은행), 안성(1919년 호서은행), 장호원(1928년 호서은행), 여주(1932년 한성은행)로 은행 지점이 확대되었다.⁸

5 정병욱, 『한국근대금융연구 - 조선식산은행과 식민지경제』, 역사비평사, 2004, 39·85-8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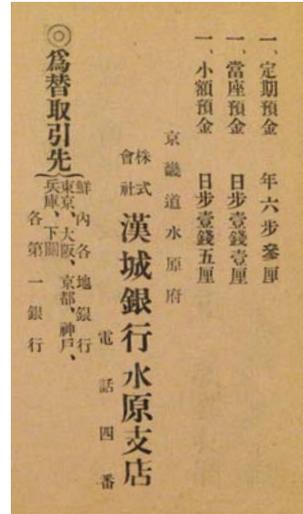
6 김인호, 「근대도시 수원의 산업적 변화와 특징」, 『수원역사문화연구』 창간호, 수원박물관, 2011, 127-132쪽.

7 개성은 1899년 대한천일은행이 지점을 설치하였으나, 1905년 '화폐공황'으로 은행이 폐점되고 재개업하는 과정에서 개성지점은 복구되지 않았다.

8 1930년대 중반 이후 소사(1936년 한성은행), 강화(1939년 한성은행), 부평(1942년 조선식산은행)에도 은행 지점이 설치되었다. 소사와 부평은 경인공업지대의 주요 지역으로, 이 시기 지점은 (군수)공업화와 관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주식회사 한성은행 수원지점(사카이 마사노스케, 『수원』, 1923)



1910년대 한성은행 수원지점 광고(사카이 마사노스케, 『발전하는 수원』, 1914)

2. 1920년대 지역경제와 조선식산은행 수원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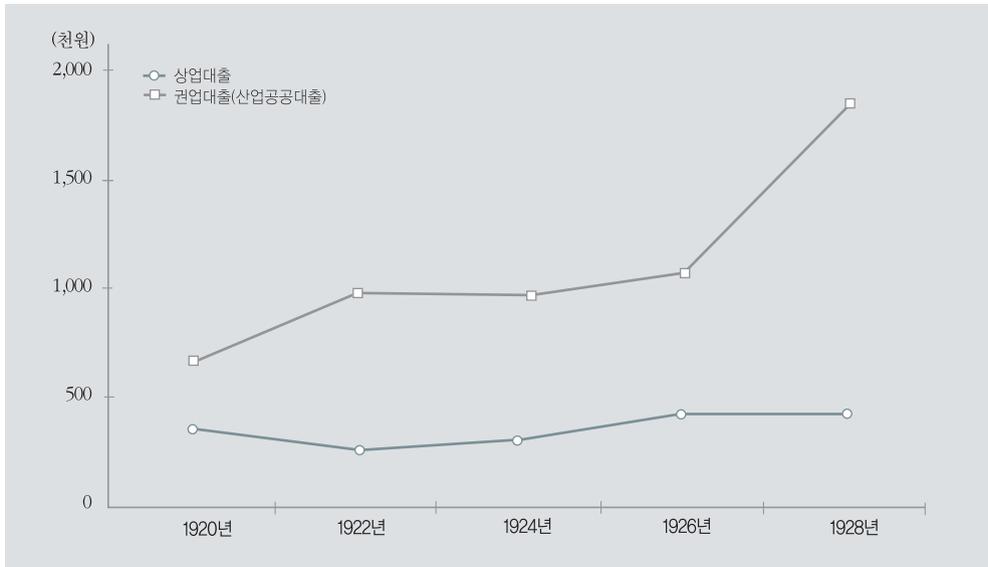
〈표 1〉은 1920년대 수원지점의 대출액을 단기의 상업대출과 장기의 권업대출(산업공공대출)로 나누어 본 것이다. 지점 설치 당시 ‘권업금융’의 개척의 여지를 증명이라도 하듯 초반부터 권업대출액이 상업대출액을 능가하였으며, 1928년경이면 4배에 이른다. 그러나 이 수치는 잔고이다. 상업대출은 절대액은 적지만 산업대출에 비해 단기대출로 회전이 높기 때문에 대출 누적액은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었다.

〈표 1〉 1920년대 조선식산은행 수원지점의 대출 추이⁹

(단위: 천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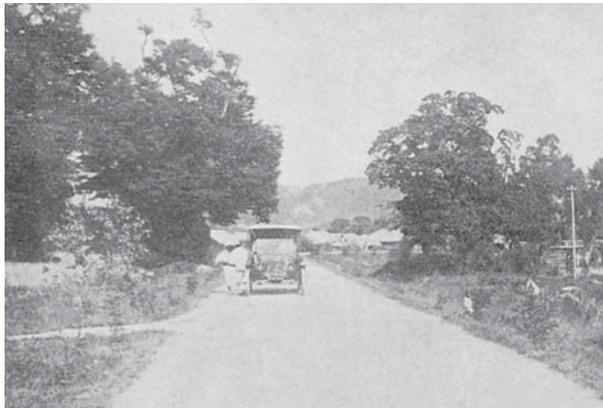
연도	상업대출		권업대출(산업공공대출)		합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1920	346	34	674	66	1,020
1922	265	21	972	79	1,237
1924	306	24	967	76	1,273
1926	417	28	1,071	72	1,488
1928	424	19	1,843	81	2,267

9 조선식산은행 조사과, 『조선식산은행연감(제1차분)』, 1929, 223·284-285쪽.



1920년대 조선식산은행 수원지점의 대출 추이

상업대출의 중심은 미곡거래 자금이었던 것 같다. 미국에 대한 대출액은 1919년 4월부터 1920년 3월까지 436만 8,043원, 1920년 4월부터 1921년 3월까지 174만 7,360원(누적 수치)이었다. 상업대출의 계절별 추이를 보면 대체로 추곡이 시작되어 집중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가을, 겨울에 대출액이 많았다. 지점 담당자는 “당 지방 미곡거래 금융기관으로서 지방재계에 직익(稷益 : 裨益)하는 바” 있다고 했다. 이러한 미곡 금융은 수원을 넘어 오산, 서정리(西井里), 여주, 이천 등지로 확장되었다.¹⁰ 수원지점의 보고에 따르면 수원과 여주를 잇는 3등도로가 개수(改修)됨에 따라 종전의 ‘이천·여주-(남



수원 지역 금융기관의 미국 경영 확장에 영향을 준 수원-여주 간 도로(사카이 마사노스케, 『화성지영』, 1915)

10 조선식산은행, 『제2회 지점장회의 자문사항답신서(갑)』, 1921 중 질문 1(각 점 경제권 내에서 산업추이의 상황 및 당점과 관계)에 대한 답변; 조선식산은행 조사과, 『조선식산은행연감(제1차분)』, 1929, 317~318쪽.

한강-경성'을 잇는 수운에 비해 '이천·여주-(도로)-수원-(철도)-경성'의 육운이 경쟁력을 갖추어 수원과 이천·여주의 상거래가 빈번해졌다고 한다. 이에 따라 이천·여주 방향의 진출을 희망하고 있었다."¹¹

권업대출(산업공공대출)은 어떤 방면에 용자되었을까? <표 2>는 1920년대 초 권업대출의 항목을 정리한 것이다. 1919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토지가옥'은 주로 시가지에서 주택과 대가용(貸家用) 토지가옥 구입 및 건축자금으로, 이는 수원에서 시가지가 성장하고 상업이 발달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1920년 수위를 차지한 '한해조합(旱害組合)'은 1919년 한해를 맞이하여 조선식산은행이 대장성예금부 인수하에 400만 원의 채권을 발행하여 한해지에 식량자금으로 대출했던 것이다. 면을 단위로 한 공조조합을 조직하여 자금을 받도록 했다. 1921년 가장 많았던 '구채(舊債)정리'는 단기금융자금의 부동산 고정 또는 고리채무자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이자율이 높은 구채를 상대적으로 저리인 조선식산은행의 자금으로 교체한 것이다.¹² 이러한 자금 외에 본래 주목적이었던 농사자금도 꾸준히 증가하였다. 이와 관련된 '토지개량', '수리', '개간'을 합친 비중이 1919년 16%에서 1921년 42%로 늘었다.

<표 2> 1920년대 초 조선식산은행 수원지점의 권업대출¹³

(단위: 원, %)

구분	1919			1920			1921		
	대출 구수	금액	비중	대출 구수	금액	비중	대출 구수	금액	비중
토지가옥	75	399,990	57	3	19,300	9			
토지개량	38	111,700	16	9	20,900	10	7	10,350	9
구채정리	11	123,870	18	1	4,000	2	6	54,400	47
잡업	7	15,410	2						
교화	1	3,000		21	42,540	20	1	10,000	9
행정	4	1,000		25	24,350	12			
양조업	2	1,400							
위생				1	1,500	1			
수리				1	3,600	2	1	19,700	17
한해조합				17	78,114	38			
상업	16	49,110	7	5	8,700	4			
식림				1	5,000	2	1	3,000	3
개간							10	18,400	16
합계	154	705,480	100	84	208,004	100	26	115,850	100

11 조선식산은행, 『제2회 지점장회의 자문사항답신서(갑)』, 1921 중 질문 2(교통관계의 변화에 의거한 물자이동의 변천 및 그에 대한 당행 업무상의 필요한 시설에 관한 의견)에 대한 답변.

12 항목 설명은 조선식산은행, 『조선식산은행 10년지』, 1928, 159~163쪽.

13 조선식산은행, 『제2회 지점장회의 자문사항답신서(갑)』, 1921 중 질문 6(각종 권업대부 차입 신청 취사의 상황)에 대한 답변.

조선식산은행 수원지점의 금융이 갖는 의미를 수원 및 인근 지역의 은행과 비교를 통해 알아보자. <표 3>을 보면 1920년대 중반 예금 대출에서 수원이 안성, 평택, 이천에 비해 절대액이 많았으며, 수원에서도 조선식산은행 수원지점의 비중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1926년 하반기 이 지역 전체 예금액과 대출액에서 수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1%, 75%였다. 수원의 전체 예금액과 대출액에서 조선식산은행 수원지점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62%, 63%였다. 지역경제의 중심으로서 수원, 지역 금융의 중심으로서 조선식산은행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 1920년대 중반 수원 지역 은행의 예금 대출금¹⁴

(단위 : 엔)

지역	은행	예금				대출금			
		1925년 상반기	1925년 하반기	1926년 상반기	1926년 하반기	1925년 상반기	1925년 하반기	1926년 상반기	1926년 하반기
수원	식산은행	1,087,051	1,202,458	1,592,962	1,415,040	1,321,156	1,512,508	1,398,655	1,505,164
	한성은행	787,495	766,519	775,012	859,811	862,093	929,402	914,699	880,552
	계	1,874,546	1,968,977	2,367,974	2,274,851	2,183,249	2,441,910	2,313,354	2,385,716
안성	호서은행	159,277	129,283	151,582	152,265	171,579	558,967	373,008	315,955
평택	조선상업	579,403	598,834	640,795	1,857,707	244,726	440,457	224,198	336,850
이천	조선상업	307,022	214,580	143,297	160,385	151,175	120,271	116,494	125,926

<표 4> 1920년대 중반 수원 지역 은행의 산업별 대출액¹⁵

(단위 : 엔, %)

구분	은행	농업		공업		상업		기타	합계	
		대출액	비중	대출액	비중	대출액	비중			
1925년 말	수원	식산은행	1,041,030	74.43	2,000	0.14	300,951	21.52	3.91	1,398,635
		한성은행	78,650	8.60	18,000	1.97	805,816	88.10	1.34	914,699
		계	1,119,680	48.40	20,000	0.86	1,106,767	47.84	2.89	2,313,334
	안성	호서은행	32,530	8.72	560	0.15	269,188	72.17	18.96	373,008
	평택	조선상업					224,198	100.00		224,198
	이천	조선상업	50,555	43.40			35,789	30.72	25.88	116,494
1926년 말	수원	식산은행	1,069,371	70.66	2,000	0.13	365,860	24.17	5.04	1,513,508
		한성은행	51,039	5.49	20,000	2.15	841,290	90.52	1.84	929,402
		계	1,120,410	45.86	22,000	0.90	1,207,150	49.41	3.82	2,442,910
	안성	호서은행	48,200	14.22			146,447	43.20	42.58	338,967
	평택	조선상업					440,457	100.00		440,457
	이천	조선상업	24,430	18.75			64,616	49.60	31.65	130,271

14 조선총독부, 『조선금융경제조사자료』 기일, 1927년 6월.

15 조선총독부, 『조선금융경제조사자료』 기일, 1927년 6월.

〈표 5〉 1920년대 중반 수원 지역 은행의 민족별 대출액¹⁶

(단위: 엔, %)

구분	은행	일본인		조선인		외국인		합계	
		대출액	비중	대출액	비중	대출액	비중		
1924년 말	수원	식산은행	315,884	26.3	883,168	73.7		1,199,052	
		한성은행	192,861	21.2	718,068	78.8		910,929	
		계	508,745	24.1	1,601,236	75.9		2,109,981	
	안성	호서은행	3,700	2.6	137,719	97.3	100	0.1	141,519
	평택	조선상업	139,929	29.0	342,799	71.0		482,728	
	이천	조선상업	7,260	3.5	200,381	96.5		207,641	
1925년 말	수원	식산은행	372,547	25.7	1,076,324	74.3		1,448,871	
		한성은행	162,718	17.5	766,684	82.5		929,402	
		계	535,265	22.5	1,843,008	77.5		2,378,273	
	안성	호서은행	5,600	1.7	331,967	97.9	1,400	0.4	338,967
	평택	조선상업	141,520	32.1	298,937	67.9		440,457	
	이천	조선상업	6,300	4.8	123,971	95.2		130,271	

산업별 관계를 보면 농업 분야 대출에서 조선식산은행은 압도적인 지위를 차지하였다. 수원지점의 산업별 대출에서 농업의 비중이 70%를 상회하며, 이는 수원과 인근 지역 전체 은행의 농업대출액 중 90% 이상을 차지하였다. 채권 발행을 통해 농업에 필요한 장기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던 조선식산은행으로서는 당연한 결과이다. 공업 분야는 전 은행의 대출액이 적어 이 지역의 산업이 농업에 편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상업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일반은행의 비중이 높았다. 평택의 조선상업은행은 100% 상업대출만 취급했으며, 수원의 한성은행도 90%가량을 상업에 대출하였다. 조선식산은행 수원지점은 약 20%를 상업에 융통하였다. 상업대출액도 대부분 쌀을 중심으로 한 농산물 거래와 관련된 것이라 한다면 수원과 인근 지역의 금융은 지역의 중심 산업인 농업과 그 유통(상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은행의 대출액을 민족별로 보면 모든 은행에서 조선인의 비중이 높았다. 특히 안성의 호서은행과 이천의 조선상업은행은 95% 이상이 조선인에게 집중되었다. 나머지 지역에서도 70% 전후가 조선인에게 대출되었다. 수원에서도 한성은행은 80%, 조선식산은행은 74% 정도를 조선인에게 대출하였다. 그런데 당시 인구 구성비를 보면 그렇게 높은 수치가 아니다. 1925년 수원군 인구 15만 3,227명 중 조선인은 14만 9,916명 98%, 일본인은 3,127명 2%였다. 이에 1925년 말 민족별 대출액을 대입해 보면 수원군 조선인 1인당 대출

¹⁶ 조선총독부, 『조선금융경제조사자료』 기일, 1927년 6월.

액은 12원으로 일본인 1인당 대출액 171원과 비료하면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조선인 대출액 비율이 가장 높았던 안성도 같은 식으로 산출해 보면 조선인 1인당 대출액은 4원으로 일본인 16원의 4분의 1에 불과하였다.¹⁷ 인구 구성비를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일본인에 대한 용자가 많았다고 할 수 있다.

대출액의 민족별 비중은 민족별 경제력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안성·이천과 같은 전통적인 내륙 상업 중심지에서 주로 상업대출을 담당하는 일반은행의 조선인 대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던 것은 이 지역 상권에서 조선인 상인의 세력을 반영한 것이다. 내륙의 철도역 소재지라 할 수 있는 수원과 평택은 조선인 상인이 우위를 점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일본인 상인의 침투가 많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수원에도 면화, 원염, 석유, 해산물과 같은 상품은 일본인 도매상이 진출하여 자리 잡고 있었다.¹⁸

다만 민족별 대출액에 따른 비교는 평면적인 것으로 상업의 지역별·규모별 분화를 고려해야 한다. 1910년대에는 이미 일본인 상인과 조선인 상인 사이에 지역별·규모별 분화가 두드러졌다. 일본인 상인은 개항장을 넘어 내륙 중심지로 진출하였으며 주로 무역업과 중개업에 종사했으며, 조선인 상인은 개항장에서 밀려나 내륙 중심지로, 다시 주변 배후지로 후퇴하면서 일부 중개업과 소매업에 종사하는 형국이었다.¹⁹ 수원과 인근 지역이 주로 거래하는 경성과 인천의 경우 그곳 은행의 조선인, 일본인의 대출액 비중을 보면 경성이 각각 26%, 73%, 인천이 각각 7%, 91%였다.²⁰ 대일무역의 관문인 인천과 식민지 조선의 중심인 경성의 경제권은 이미 일본인이 장악하였으며, 이와 거래하는 내륙 중심지의 상업도 대체로 일본인이 장악한 대일무역체계, 상업유통망의 하부구조를 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1930~1940년대 지역경제와 조선식산은행 수원지점

1930년대 수원 지역의 은행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로 1936년 6월 『조선일보』에 실린 ‘수원지방소개관’이 있다. 금융에 관한 설명을 보면 “일찍부터 한성은행 수원지점이 수원 중심지에 엄립(嚴立)해야 내외의 경제를 지도해야 왔었으나 이 기관 하나 가지고는 도저히 충분

17 1925년 인구 수치는 조선총독부 편, 『조선국세조사보고(1925)』, 496~498쪽.

18 조선총독부, 『市街地の商圏』, 1926, 49~53쪽.

19 정병욱, 『한국근대금융연구 - 조선식산은행과 식민지 경제』, 역사비평사, 2004, 253~266쪽.

20 조선총독부, 『조선금융경제조사자료』 기일, 1927년 6월.

한 사명을 다 못하겠기 때문에 식산은행 수원지점이 창설하게” 되어 “일반 상공업에 대발전을 계획” 하고 있다고 했다. 같은 지면에 조선식산은행 수원지점장 안도 마사야키(安東政昭)의 말에 따르면 1936년 4월 말 대출금은 산업공공대출액이 384만 677원, 상업대출액 49만 5,856원으로 각각 89%, 11%를 차지하였다. 1920년대에 비해 본연의 업무인 산업공공대출 비중이 더 늘었다. 수원지점장은 “산업금융에 경주(傾注) 하였는데, 금후 수인선 개통을 맞이 하여 상공업 발전을 기대하면서 “상업금융에 대해서도 가급적 진전을 기필” 한다고 했다.²¹

또한 신문에서는 은행과 금융조합 외에 동척을 주요한 금융기관으로 소개하고 있다. “동척은 대지주로 소작인의 융용자금(融用資金)은 물론이지만 일반상공업자에게까지 극저리로 대출해야 줌으로 상공, 산업발전상 지중(至重)한 사명을 가지고 은행과 취급방법은 다르나 그 실적은 막대하다.”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주요 고객은 대지주일 가능성이 높고, 농업금융에서 조선식산은행과 경쟁관계였을 것이다. 당시 천안과 아산에 대규모 경지를 소유하였던 윤치소(尹致昭)는 1930년대 초까지 토지집적과 농사경영자금을 조선식산은행과 동척을 통해 조달했는데, 1935년 이후 거래 금융기관은 동척으로 일원화하였다. 조선식산은행 수원지점은 낮은 금리로 윤치소를 유인했으나, 그는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한 동양척식주식회사 경성지점으로 거래선을 단일화하였다.²²

1940년대 조선식산은행 수원지점이나 기타 은행의 금융 상황을 직접 알려 주지는 않지만 당시 지역경제를 살필 수 있는 자료가 있다. 조선식산은행이 “전시통제경제의 진전에 수반한 각 산업경제 부분의 상황보고를 각 지점에 의뢰” 하여 그 결과를 자료집으로 간행했는데, 수원지점이 보고한 내용도 담겨 있다. 1940년 1월 말 현재 상황으로 당시 실정을 보여주는 드문 자료이기 때문에 요약 정리하였다.²³ 1939년 대한발(大旱魃)의 영향에 따른 농업과 식량 조달의 어려움, 일제의 전시경제 추진에 따른 하층민의 곤경을 읽을 수 있다.

1. 농작물 수확상황은? 1939년도 맥작(麥作)은 순조롭지만 도작(稻作)은 식부(植付) 당시부터 극도로 물이 부족하였고 그 후에도 강우 부족. 8할 정도 식부했어도 실수

21 「수원지방소개관 - 기설기관으로 본 수원지방의 현세」, 『조선일보』, 1936년 6월 12일(수원박물관, 『일제강점기 ‘조선일보’ (1920~1940) 수원(水原) 관련기사 자료집』, 2011, 320~321쪽). 이 신문기사에 따르면 당시 예금 및 대출금이 조선식산은행 지점은 각각 165만 9,553원, 433만 6,583원, 한성은행은 각각 2,441만 6,371원, 1,698만 4,711원으로 나온다. 이는 한성은행 쪽의 수치가 지나치게 많은 것으로, 착오가 있는 듯하다.

22 오미일, 「근대 한국인 대지주층의 자본축적 경로와 그 양상 - 윤치소 일가의 기업투자와 농업 경영」, 『한국사학보』 제47호, 2012년 5월, 191~194쪽.

23 조선식산은행 조사부, 『지방경제상황조사보고』, 1940, 10~17쪽.

는 2할 3푼 정도에 불과. 면화도 3할 감소, 기타 일반작물도 고사하는 것이 많아 예상 외의 감수.

(1) 미곡수확예상과 실수의 비교는? 수원군 제2회 예상 7만 4,720석, 실수 7만 8,170석.

(2) 대용작물의 작황은? 교맥(蕎麥), 기타를 상당수 식부했어도 강우 부족 때문에 대부분 고사.

2. 한해지에서 한해구제공사의 진척상황은? 주로 도로공사. 그 외에 1면에 10개소의 관개용 우물을 만들고, 수리조합, 보, 저수 등의 계획. 도로공사 우물 등의 공사는 대부분 준공함.

(1) 이재민에 효과 여하? 전기(前記) 공사는 대체로 부락 단위로 청부된 것으로서 1일 임금 70전 이상 1원 이하이다. 이 임금으로써 각 면에 배급된 식량을 구입하기 하여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음.

(2) 부업에 의한 이재민의 수입증가는? 부업은 주로 고(藁) 가공으로 원료 구입, 생산품 판매를 군·면에서 알선. 비교적 순조로워 1인당 40-50전 수입이 있는 모양.

3. 귀 지방에서 식량품, 기타 수급관계는 어떠한 모양인가? 대체로 부족한 상태. 식량품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꽤 부족해도 우선 지장 없을 정도.

(1) 미곡수급상황은? 전기(前記)대로 실수고는 7만 8,170석으로 3만 590석가량 부족이 예상되지만 이 중 2만 석가량은 대용식으로 충당, 나머지 미곡 1만 석의 부족이 예상.

(2) 지장미(地場米)로 족한가? 부족하다. (1)에 기재한 대로다.

(3) 이입미가 있는가? 현재 없다.

(4) 외미(外米)는 들여오고 있지 않은가? 현재 없다.

(5) 잡곡의 수급상황은? 1939년 11월 및 12월 중에 이수입(移輸入)하여 각 읍면 이재자(罹災者)용으로 배급한 것이 1만 2,721.56석이고 금후 이재자용으로 2만 2,000석, 일반 식량으로서 2만 석 이상의 이수입(移輸入)을 요함.

(6) 연료의 수급상황은?

A. 목탄 : 작년 말은 상당히 부족했어도 금년에 들어와 비교적 공급량이 윤택하고 현재 상태는 양호.

B. 석탄 : 당 지방은 공장이 적어 일반 난열용 탄의 수요만 있지만, 이번 겨울분에 대해서는 충분하다고 말하기 어려워도 우선 지장 없을 정도.

C. 신(薪) : 가격은 올랐어도 공급지인 용인이 근접해 있기 때문에 우선 지장 없음.

(7) 기타 농어업용 필수품의 수급상황은?

A. 농구 : 작년의 대한발에 의해 수급이 격감함에 따라 현재 보유분이 근소하나 이 입 혹은 지장(地場) 생산품으로 지장 없는 상태.

- B. 지하족대(地下足袋 : 작업화) : 이입이 전혀 없고 보유품도 없어 부족.
- C. 군수(軍手 : 목장갑) : 올해 들어 전혀 이입이 없는 상태.
- D. 성냥 : 꽤 부족하여도 우선 지장 없는 정도.
- E. 설탕 : 동일함.
4. 각 지방의 공장 생산 상황은 어떠한 형편인가? 벽돌, 연와, 성냥, 직물 등의 소공장이 있을 뿐이다.
- (1) 석탄은 부족하지 않은가? 윤택하다고 하기 어려위로 상당량의 입수는 가능한 모양.
- (2) 원료입수는 어떤가? 성냥은 지류(紙類) 입수 곤란, 원목 등도 공정가로는 입수 곤란. 직물원사는 비교적 순조롭게 입수하는 상태. 벽돌, 원토는 현지에서 있어 전혀 걱정 없음.
- (3) 제품의 판매상황은? 최근 걱정 없을 정도로 양호한 상태.
- (4) 생산 비용상에 영향은 없는가? 원료, 석탄의 입수난 및 가격의 등귀에 의해 비용 상승의 영향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
5. 농민, 어민, 일반노동자, 일반봉급생활자의 생활상황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한해구제사업, 기타 부업 장려 등으로 일반농민의 상태는 비교적 양호. 일반봉급생활자, 특히 하급자는 생활필수품의 고등(高騰)에 더하여 물품 부족 때문에 꽤 생활상태 꺾박한 상황.
6. 과연 농·산·어촌은 호경기인가? 물론 당 지방과 같이 대한밭의 영향을 받은 곳은 일반적으로 경기는 좋지 않다. 다만 토지가 고등, 특히 산림의 고등에 의해서 비교적 양호한 계급도 상당 있는 모양.
- (1) 견가고(繭價高)로 농민의 호주머니 사정은 좋은가? 일반적으로 양잠 호수가 적어 불 만한 좋은 영향은 없다.
- (2) 면화고는? 한밭에 의해 3할 정도 감수, 큰 영향은 없다.
7. 일용필수품 가격등귀상황? 미가 1할 2푼, 단 품질 저하에 의해 실제는 3할 이상. 선어(鮮魚) 5-6할, 야채 배(倍) 이상, 일본 된장·간장·설탕은 1할 이상 3할쯤. 델 나무 3할.
8. 상거래상황은? 일반적으로 원활하지 않고, 특히 현금이 아니면 입수 불가능한 것이 많음.
- (1) 예년에 비해서 어떤가? 물품의 입수가 적기 때문에 활발하지 않다.
- (2) 소매상인은 곤란하지 않은가? 물품 부족에 의해 영업이 곤란.
- (3) 암거래의 실상은 없는가? 상당히 있는 모양. 특히 무지에 의한(공정가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거래가 많은 상황.
- (4) 암시세의 실상은? 성냥 1상(箱) 10전의 것이 14전 5리, 설탕도 27전을 32전, 삼면포(三綿布 : 30% 혼방) 308원 80전인 것이 520원에 거래.

9. 노동자의 수급상황은? 한발의 영향을 받아서 노동자 증가, 수급상대는 도리어 여유 있는 상황.
- (1) 인부는 부족하지 않은가? 부족하지 않다.
- (2) 임금의 상황은? 1원이 중심.
10. 비료의 수급상황은? 한발 때문에 전년도분 사용이 적어 현재까지 남는 상황.
11. 저수지에 물은 고여 있는가? 수용수리(水龍水利)는 3분의 1 정도, 나머지는 그 이하로서 총독부시험장 저수지 서호(西湖) 등도 거의 없다고 할 상태.
12. 운수관계 상황? 당 지방은 미곡의 출회(出廻)가 없기 때문에 한산.
13. 지방민의 민심은 어떠한 상황인가? 사국이 지방 여러 층의 민심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 그 생활에 안정을 얻음이 있는가에 달려 있다. 예를 들면 일부 상인은 보유 원료의 폭등으로 인해 거리(巨利)를 획득하고 혹은 토지 투기, 특히 임야 등의 투기에 의해 벼락부자가 속출하고 있는 반면, 지역 상인들은 원료 구입난에 더해 현금 거래 경향이 다분하여 금후 영업 유지에 불안을 느끼고 있다. 특히 소작인 계급의 소위 최하층민은 작년의 한발 및 곡가 폭등에 따라 식료 입수가 매우 좋지 않고, 일부 정부구제사업에 의해 구제되고 있는 자를 제외하면 생활 불안이 엄습한 자도 적지 않다. 하급생활자도 또한 같은 상태에 있음.

4. 조선식산은행 수원지점의 이용자와 직원

1) 조선식산은행 수원지점 이용자

조선식산은행 수원지점으로부터 대출받았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조선식산은행은 1921년 흥신소와 각 지점의 조사보고서를 기초로 해서 본 지점의 당좌거래 고객의 신용 개황을 조사하였다. 그중 수원지점 거래 고객을 정리한 것이 <표 6>과 <표 7>이다. 한국인으로 1929년 설립된 수원양조(주)의 사장 홍사안, 1928년 설립된 경남주조(주)의 이사 안영태, 1928년 설립된 조선국자(朝鮮麴子 : 합자) 사장 최익환(안영태는 이사)이 눈에 띈다. 이들은 해산물, 곡물, 포목 거래에 필요한 금융상 편의를 조선식산은행으로부터 제공받았으며, 1920년대 말 양조업에 진출하였던 것 같다.²⁴ 수원곡물상회와 관련해서는 1923년에 금고도난 기사가 신문에 실렸는데, 금고에는 현금 170원과 수표 등이 들어 있었다고 한다.²⁵

〈표 6〉 조선식산은행 수원지점 당좌거래 개인²⁶

성명	직업	주소	실제재산	거래 실적 혹은 수입	성쇠	대인(對人) 신용도
이와미치 사이치(岩滿佐一)	미곡	수원군 오산면	1,000	60,000	상태(常態)	보통
오쿠이 사다카치(奥井定吉)	미곡	수원군 오산면	1,000	40,000	쇠(衰)	보통
오니시 헤이지(大西平次)	미곡	수원군 오산면	1,000	35,000	상태(常態)	보통
와키다 모토지로(脇田元次郎)	잡화	수원군 수원면	20,000	100,000	성(盛)	보통
타키자와(湧澤和七)	미곡	수원군 오산면	5,000	40,000	상태(常態)	보통
다케시타 헤이사부로(竹下平三郎)	무역	수원군 수원면	30,000	1,000,000	최성(最盛)	최후(最厚)
무라카미 히사이치(村上久一)	청부(請負)	수원군 수원면	10,000	100,000	상태(常態)	후(厚)
무라타 겐지로(村田源次郎)	주조(酒造)	수원군 수원면	10,000	20,000	상태(常態)	후(厚)
우에하라 로쿠로(上原陸郎)	양조(釀造)	수원군 수원면	3,000	10,000	상태(常態)	보통
아부우치 데이조(藪内貞三)	목재	수원군 수원면	8,000	15,000	상태(常態)	보통
데라사와 스테사부로(寺澤捨三郎)	미곡	수원군 수원면	35,000	1,500,000	최성(最盛)	최후(最厚)
시마 쿠니와카(島邦若)	목재	수원군 안흥면	15,000	100,000	상태(常態)	보통
남태희(南泰熙)	곡물, 포목	진위, 평택	15,000	300,000	성(盛)	후(厚)
홍사안(洪思安)	해산물객주	수원군 수원면	60,000	200,000	성(盛)	후(厚)
안영태(安永台)	곡물, 포목	수원군 수원면	100,000	120,000	성(盛)	후(厚)
최익환(崔翼煥)	해산물객주	수원군 수원면	70,000	100,000	최성(最盛)	최후(最厚)
최명윤(崔明潤)	포목	수원군 수원면	62,000	100,000	성(盛)	후(厚)
김흥선(金興善)	객주	수원군 수원면	100,000	300,000	최성(最盛)	최후(最厚)
김인환(金仁煥)	포목	수원군 수원면	30,000	50,000	쇠(衰)	박(薄)
김종권(金宗權)	포목	수원군 수원면	16,000	30,000	성(盛)	후(厚)

〈표 7〉 조선식산은행 수원지점 당좌거래 회사²⁷

상호/대표자/개업연월	목적	소재지	총자본/ 불입자본	이익배당률	영업성쇠	신용도
수원곡물상회(水原穀物商會)	곡물(穀物)	수원군 수원면	20,000	700,000	최성(最盛)	최후(最厚)
동산농사(주) 수원지점/ 아이시마(相島像一)/ 1913년 5월	농림업, 목축, 토지위탁관리	(본점) 도쿄, 수원군 수원면	20,000,000/ 7,000,000	-	상태(常態)	후(厚)

산업대출금은 부동산을 담보로 하였기 때문에 주로 지주가 대출받은 경우가 많았을 것이다. 대부액은 감정가의 3분의 2 내로 한정되었는데, 보통 2분의 1인 점을 감안하여 1구 당 대출액의 2배로 계산해 나온 경지가격을 당시 지가에 따라 면적으로 환산해 볼 수 있다. 〈표 2〉의 토지개량과 개간 항목을 1921년 당시 중등 논 의 지가(1단보 42원)를 대입하

24 회사 정보는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 해당연도(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 베이스).

25 「백주에 금고도란 - 수원곡물상회에서」, 『동아일보』, 1923년 8월 28일.

26 조선식산은행, 『당좌취인선자산신용록(當座取引先資産信用録)』, 1921, 17~18 · 145쪽.

27 조선식산은행, 『당좌취인선자산신용록』, 1921, 17~18 · 145쪽.

〈표 8〉 1925년 말 수원 지역 은행의 대출이자율(연리환산)²⁸

(단위 : %)

지역	은행	부동산담보	신용	어음할인
수원	식산은행	13.14	13.14	13.14
	한성은행	13.51	14.24	13.14
안성	호서은행	15.70	14.97	15.33
평택	조선상업	14.60	15.33	14.60
이천	조선상업	15.70	15.70	15.33

여 계산해 보면, 1구좌당 7~8정보의 토지를 담보로 맡겼다는 계산이 나온다. 은행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층은 적어도 중규모 이상의 지주인 셈이다. 한때 수원지점의 고객이었던 윤치소는 1,000여 정보의 토지를 소유한 대지주였다. 영농자도 수확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금융조합 면장 군수를 통해야 가능했던 것 같다.²⁹

조선식산은행은 같은 지역 다른 은행에 비해 대출 금리가 낮았다(표 8 참조). 따라서 조선식산은행을 이용할 수 있는 지주와 상인은 상대적으로 자금조달 비용을 낮출 수 있었다.

2) 조선식산은행 수원지점 직원

일제강점기 조선식산은행은 다른 직장에 비해 임금이 높았다.³⁰ 1935년 취직하여 수원 지점에 근무했던 송인상은 “은행 내부에서는 조선인과 일본인을 차별하지 않고 30~50%의 재근수당을 다른 은행보다 특별히 더 주었다. 따라서 졸업을 앞둔 학생의 입장에서 본다면 다른 기관이나 은행에 비해 적게는 50%, 많게는 70%까지 봉급을 더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좋은 일터였던 것만은 분명하였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대학 졸업생은 70원, 전문학교 졸업생은 55원, 상업학교 졸업생은 35원을 받았는데 여기서 40% 정도의 재근수당과 연간 600%의 상여금이 나왔으므로 경제적으로 보면 매우 좋은 대우를 해 주었던 것이다.” 고 한다.³¹

28 조선총독부, 『조선금융경제조사자료』 기일, 1927년 6월.

29 조선식산은행, 『제2회 지점장회의 자문사항답신서(갑)』, 1921 중 질문 9(지난번부터 실행 중인 영농자에 대한 대출 상황 및 그 회수 산업 추이의 상황 및 당점과 관계)에 대한 답변. 그나마 지점은 “소농, 중농은 이미 방매한 뒤라 대출을 할 수 없고”, 대농은 보유 현금이 여유 있어 대출이 필요 없다고 보고하였다. 농업에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금융 면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났다.

30 이하 조선식산은행의 조선인 은행원에 대한 서술은 정병욱, 『한국인의 식민지 경험과 근대주체 형성 - 조선식산은행원을 중심으로』, 『역사문제연구』 11, 2003년 12월; 정병욱, 『조선식산은행원, 식민지를 살다』, 『역사비평』 통권 78호, 2007년 봄호를 참조하였다. 별도로 인용하지 않았다.



1930년대 조선식산은행 수원지점 직원(이임광, 『어둠 속에서도 한 걸음을-대 한민국 경제의 큰 그림을 그린 회남 송인상 이야기』, 공감의기쁨, 2012) 서 있는 사람 중 왼쪽에서 두 번째가 송인상이다.

조선인 사이에 조선식산은행에 취직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였다. 조선식산은행은 일본인과 조선인 직원 비율을 7 대 3으로 유지하기 위해 조선인 채용을 제한하였다. 이런 불리한 상황에서나마 취직하기 위해서는 중등학교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였다. 최종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올려 학교의 추천을 받아야 했고, 은행의 취직 시험에 합격해야 했다. 앞의 송인상의 경우 선린상업학교 입학 때 경쟁률은 13 대 1, 경성고등상업학교 입학 때는 6.7 대 1, 조선식산은행 취직 때는 7~8 대 1이었다.

그런데 월급은 많았지만 진급은 일본인 우선이었고, 조선인은 최고로 올라가도 2~3류 지점장이었다. 채용 시 조선인에게 배당된 인원이 적었고,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높은 경쟁을 뚫고 입사한 조선인은 같은 신입 일본인에 비해 우수하기 마련이었다. 그럼에도 진급이 늦었고, 그에 따라 수당 등에 차이가 나기 시작하였다. “십년이 지나면 일본인은 책임자 자리에 앉아 지점장, 부장, 중역을 바라보았고, 우리는 잘해야 계주임으로 주관과 펜의 노예로 남았다.” 고 한다. 송인상의 다음과 같은 회고는 그런 상황을 잘 말해 준다.

당시 수원지점에서 함께 근무한 분들로는 상업대부(商業貸付) 주임 이대용(李大容), 산업대부(産業貸付) 주임 권석신(權石臣) 씨가 있다. 뒷날 한국저축은행장(韓國貯蓄銀行長)이 된 권석신 씨는 두주불사(斗酒不辭)의 주호로서 토요일 날 수원역장, 수원경찰서 사법주임 등 ‘한국인 거물’ 셋이서 요정으로 술 마시러 갔다 하면, 이틀 밤을 새우고 월요일 아침에 직장으로 바로 출근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이런 날 아침이면 그는 “송 군, 나는 오늘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실수가 있을지 모르니 서류를 잘 검토해 주게.” 라고 하면서 부지런히 인삼엑기스를 마시곤 했다. 평소 술을 못하는 나는 “저렇게까지 술을 마실 필요가 있는가.” 하고 의아하게 생각했었다. 그러나 각도를 달리하면 한국인의 출세가 한정돼 있던 시대에서 비슷한 처지의 한국인들끼리 맺힌 울분과 한을 그런 방법으로 달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³²

31 송인상, 『회남 송인상 회고록 - 부흥과 성장』, 21세기북스, 1994, 44~45쪽.

실의(失意) 속에서도 은행원들은 엘리트 의식을 갖고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취미활동을 즐겼다. 은행 역시 높은 임금, 행우회(行友會), 각종 운동부를 통해 조선인 행원을 통합하려 했다. 조선식산은행 수원지점의 경우 사택 부속의 코트에서 정구시합이 빈번히 열렸다. 1921년 5월에 열린 시합을 보면 일본인, 조선인 은행원만이 아니라 권업모범장, 농림전문학교, 농업회사 부국원, 국무농장, 한성은행의 관계자가 참여하였다.³³ 이들의 사고 범위를 알 수 있다. 철 따라 야유회도 자주 가졌는데, 1930년에는 무박 2일로 금강산을 다녀오기도 했다.³⁴

조선식산은행 수원지점은 초장기 10명 남짓의 인원으로 운영되다가 전시기에 들어서 직원이 많이 증가한 것 같다. 1922년 1월 조선식산은행 행우회 잡지인 『회심(會心)』의 ‘근하신년’ 인사란에 실린 수원지점 직원의 명단을 보면, 지점장 나카무라 다카시(中村孝嗣) 등 10명이 나온다. 윤태은(尹泰殷), 서운(徐鎭), 전세영(全世榮), 임만수(林萬壽)와 같은 조선인의 이름도 보인다.³⁵ 1935년 5월 송인상이 수원지점으로 발령을 받았을 때 지점장을 포함해서 11명의 행원이 근무했다고 했다.³⁶ 1943년 『직원명부』를 보면 직원이 24명이었는데, 이 중 고원(雇員)과 외무원(外務員)을 빼면 행원은 22명이다. 이 외에도 용원이 5명 있었다. ‘창씨개명’으로 민족별 구분이 잘 안 되지만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9〉 1943년 수원지점 직원 명부³⁷

직책	이름	직책	이름
지점장	가쿠 에이타로(隔英太郎)	출납	기고 도시카시(木子歲勝)
지점장대리	마쓰다 유키오(松田幸雄)	감정	이노우에 미노루(井上實)
공공대부	모리(森員一)	산업대부	최영린(崔榮蘭)
예금	아마오카 시게노부(山岡重信)	저은(貯銀)대리점	마쓰마에 야스히로(松前保弘)
감정	시모카와 가즈오(下川一雄)	감정	산조 데쓰난(山上哲南)
점내(店內) 점장대리	후지와라 슈이치(藤原修一)	계산	마쓰우라(松浦載鵬)
조사(調査)	오하라 미노루(大原實)	서무, 채권	마쓰바라 유타카(松原豊)
산업대부	구보 미쓰하루(久保光晴)	저은대리점	아마모토 다카오(山本隆夫)
산업대부	마쓰바라(松原秉武)	취립(取立)	요시무라 후미오(吉村文雄)
예금	기요하라(清原天洙)	출납	우메바야시 다쓰오(梅林龍雄)
산업대부	김성현(金聲漢)	예금(雇員)	후지오 미사오(藤尾みさを)
위체(爲替)	니야마(丹山芳樹)	저축 외무원	고석훈(高錫勳)

32 송인상, 『회남 송인상 회고록 - 부흥과 성장』, 21세기북스, 1994, 49쪽.

33 수원지부, 「정구(庭球)」, 『회심(會心)』 2-7, 1921년 7월, 30~31쪽.

34 수원지부, 「금강산행」, 『회심』 11-10, 1930년 10월, 59-65쪽.

35 조선식산은행 행우회, 『회심』 3-1, 1922년 1월.

36 송인상, 『회남 송인상 회고록 - 부흥과 성장』, 21세기북스, 1994, 47쪽.

37 조선식산은행, 『직원명부』, 1943년 4월, 41~42쪽.



조재곤 덕성여자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연구교수

1. 1910년 전후 수원의 주요 회사
2. 1920년대 수원의 주요 회사
3. 1930년대 수원의 주요 회사
4. 1940년대 수원의 주요 회사



제4장

일제하 수원의 회사 현황과 성격

수원 지역은 서울과 인접하고 국제 무역항인 인천의 성장과 경부선 등 철도와 도로의 발달 등의 요인과 관련하여 경제단위가 크게 향상되었고, 그 결과 다양한 형태의 수많은 회사들이 출현하게 되었다. 수원은 식민지시기 후반 신흥공업도시로 부각되었다. 그러나 수원 지역은 다른 대도시와는 달리 회사 전체를 통할하는 상업(공)회의소의 존속기간이 매우 짧았고, 오랜 기간 임의단체인 수원실업협회(水原實業協會)로 있었던 관계로 지속적인 보호와 지도를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수십 년간 장기 지속되는 회사보다는 단명에 그치는 회사가 많았다는 특징을 보인다.

한편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물가 폭등과 경제통제정책으로 한때 호황을 누렸던 수원의 상황(商況)은 침체 상태에 직면하게 된다. 원료가격의 폭등과 생필품 수급의 혼란, 배급제 실시, 경제경찰의 단속 등의 결과 이 지역 회사들도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이후 태평양전쟁 시기에도 비슷한 형태로 지속되었고, 그러한 상태에서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게 되었다.

개항장과는 달리 수원은 조선인 중심의 전통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거대 상권은 일본인들이 장악하고 있었고, 따라서 경제적 잉여와 부는 대부분 그들의 손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이 지역 노동자들은 피해를 받게 되었다. 조선총독부 권력을 등에 업은 일부 일본인 자본가들의 부당고용 행위와 독점의 폐해는 조선인 노동자들의 파업과 태업, 군소업자의 반발 등의 형태로 나타났다.

먼저 일본인 가야마 히로시(香山弘)는 일찍이 1907년 도한 후 수원에서 기업 경영을 하였는데, 그가 운영하는 수원인쇄주식회사의 노동자 10여 명은 1927년 3월 22일 대우 개선, 근무시간 준수, 무리한 임금 감하 금지, 적립금 은행공탁 등의 요구를 내걸고 파업하였다. 그러나 이탈자가 발생하여 파업은 와해되고 지도자 5명이 해고되는 것으로 끝나게 되었다.¹ 한편 1928년 6월, 수원역전 7~8개소의 군소운송점은 당시 전국적인 '운합(運合)' 조치에 따라 주식회사 수원합동운송점을 설립하게 되었다. 이어 그해 12월 임시의장 사카히라(坂平) 사회로 임시 주총을 개최하여 중역이 사원을 겸직하는 내용을 규정하였다. 이는 조선인 주주를 감소하고 일본인 주주를 확충하는 것까지 포함된 것으로, 그 결과 군소 하주인 한국인 5명과 일본인 2명의 비율이 일본인 7명이 독점하는 형태로 바뀌게 되어 거센 반발을 초래하지 않을 수 없었다.² 그뿐만 아니라 수원인쇄주식회사 파업 등으로 문제를 일으켰던 가야마 히로시가 설립한 또 다른 회사인 수원자동차주식회사에서도 1936년 1월 운전수들이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동맹파업을 하였고,³ 1937년 9월에는 해직 종업원 복직과 감독 해고를 요구하는 태업 사실도 확인된다.⁴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선인 자산가들에 의해 수원의 회사들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 지역의 회사 중 가장 특징적인 점은 직물회사의 성장이라 할 수 있다. 1940년 당시 조선 내에서 업종별·민족별 100만 원 이상 자본금을 가진 방직업 분야의 액수와 비율 통계조사를 보면, 일본인은 7,660만 원이고 한국인은 1,400만 원으로 각기 85%와 15%를 차지하고 있었다.⁵ 이에 따르면, 특히 화학과 가스, 전기는 일본자본이 100% 장악하여 일제 말기까지 일본인의 자본 지배가 심화됨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런데 수원에는 자본금 100만 원 이상의 대규모 제조업체는 없었지만, 다른 지역의 경우와는 다르게 직물업 분야만큼은 일본인 기업과 경쟁하면서 조선인 중소기업들의 활동 또한 일제 후반까지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음이 자료상에 나타난다.

1 『조선일보』, 1927년 3월 30일.

2 수원상의사편찬위원회, 『수원상의사』, 수원상공회의소, 1986, 512~513쪽.

3 『동아일보』, 1936년 1월 26일.

4 『동아일보』, 1937년 9월 11일.

5 조선은행 조사부, 『조선경제연보』, 1948, 101쪽.

1. 1910년 전후 수원의 주요 회사

1910년 일본 제국주의의 대한제국 강제병합을 전후로 수원에는 크고 작은 형태의 여러 회사가 설립, 운영되었다. 이들 중 기록상 가장 먼저 확인되는 업체는 금속가공업 분야로, 유기생산을 목적으로 1903년 3월 수원면 남창리에 설립된 김용서(金龍瑞)의 수원진유기제조소(水原眞鑰器製造所)를 들 수 있다. 이어 똑같은 이름의 유기제조업체인 수원진유기제조소를 1909년 9월 수원면 남수리에 권현필(權賢弼)이 설립하였다. 한상봉(韓相鳳)은 1914년 수원면 남수리에 수원철공조합을 설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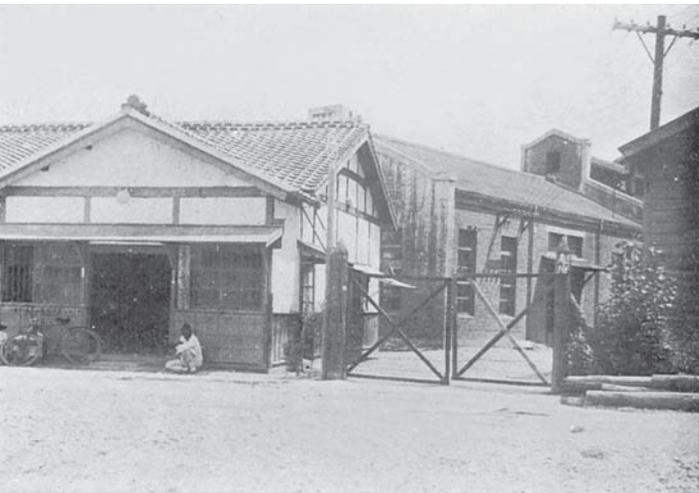
양조업과 관련하여서는 먼저 1907년 4월 수원군 안룡면 고색리에 설립되어 탁주·소주·약주 등을 생산·판매하는 합자회사 수원양조장(水仁釀造場)이 확인되는데, 박건유가 대표이고 이인자·박정환 등이 임원으로 있었다.⁶ 한편 강제병합 이후 수원양조합자회사(水原釀造合資會社)가 1919년 4월 3일 자본금 2만 원으로 수원면 북수리 316번지에 설립되었다. 이 회사는 간장, 초장, 일본된장의 제조·판매를 하였는데, 임원은 대표 우에하라 로쿠로(上原陸郎)를 비롯한 미야타 료이치(宮田良一), 이와모토 데이키치(岩本貞吉), 무라타 겐지로(村田源次郎), 구라시오 마쓰지로(藏城松次郎), 고노 마타이치(河野又一), 다카하시 히사키치(高橋久吉), 다다 준지로(多田順次郎), 나가사(名峯登喜太), 데라사와 스테사부로(寺澤捨三郎), 사카테 주사부로(坂手重三郎), 가야마 히로시(香山弘), 진나이 시게키치(陣内茂吉), 가와치 가키쓰(河内嘉吉), 오쓰지 미토시(大辻己年), 나카자키 시게조(中崎茂三)로, 운영지는 전원 일본인이었다.⁷

당시 수원 지역의 정미업 관련 업체는 4개소였다. 일본인 요시오카 와카이치(吉岡若市)가 자본금 1만 원으로 1908년 2월 남부면 구천동에서 설립한 요시오카정미소(吉岡精米所)가 있었다. 1913년 9월에는 매산리에 무라카미정미소(村上精米所)가, 1915년 11월 아오키정미소(青木精米所)가 수원면에 설립되었다. 또한 1917년 7월 자본금 4만 원으로 설립한 수원정미소(水原精米所)는 김순구(金舜九)를 대표사원으로 하여 아오키 다메이치(青木爲一), 양성관(梁聖寬), 안영태(安永台) 등이 각기 1만 원씩을 투자하여 한일합작의 형태로 운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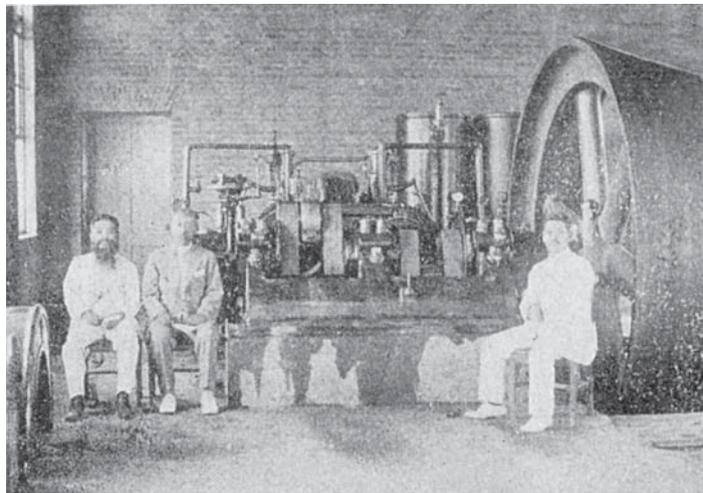
이 시기 직물업은 염직업 및 제사업 관련 회사가 있었다. 수원 지역 최초의 근대 염직공장은 1909년 7월 수원군 보시동에 건평 85평, 자본금 1만 5,000원, 기술자 3명, 여자직공

6 수원상의사편찬위원회, 『수원상의사』, 수원상공회의소, 1986, 300쪽.

7 中村資良 편, 『조선은행회사요록』, 동양경제신문사, 1921, 131쪽.



수원전기주식회사(조선총독부, 『생활상태조사-수원군』, 1929)



수원전기주식회사 발전소와 관계자들(사카이 마사노스케, 『수원』, 19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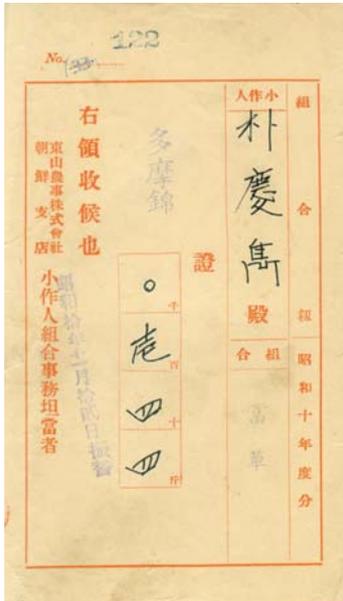
62명, 남자직공 13명 등 총 78명으로 설립된 목기계염직공장(木機械染織工場)이었다. 이 회사는 연간 1만 7,500원 가격의 제품을 생산하였다. 1910년 10월 남부면 남수동에 수원 제염조합공장이 설립되었고, 1911년 7월 남부면 남수동에 건평 63평, 자본금 3,557원, 기술자 1명, 종업원 30명으로 설립된 염직공장(染織工場)의 연간 생산품은 1만 원이었다. 1912년 4월 남부면 남수동에 건평 150평, 자본금 1만 8,500원으로 설립된 수원염직조합 직물공장은 기술자 2명과 남녀 직공 90명을 두었는데, 연간 생산량과 생산품 가격은 각기 6,000필과 1만 6,000원이었다. 제사업 관련 업체인 수원제사조합공장(水原製絲組合工場)이 1913년 7월 수원군 북부면에 설립, 운영되었다.

전력 공급 및 전기기구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수원전기주식회사(水原電氣株式會社)가 1913년 7월 수원면 산루리 253번지에 설립되었다. 곤도 도라노스케(近藤虎之助)를 대표로 하는 이 회사는 설립 당시 자본금 6만 원, 불입금 4만 5,000원으로 배당률은 10%로 정하였다. 이사는 가야마 히로시(香山弘), 홍건섭(洪健燮), 사카테 주사부로(坂手重三郎), 양성관, 감사는 한상봉, 노나카 스에요시(野中末吉), 사카이 마사노스케(酒井政之助) 등이었다. 회사의 총주식은 1,200주였고, 주주는 대주주 사토 히데미쓰(佐渡秀光 : 115주), 텐지쓰 쓰네히로(天日常次郎 : 100주), 가야마 히로시(香山弘 : 84주), 한상봉(80주), 사카테 주사부로(坂手重三郎 : 66주), 노나카 스에요시(野中末吉 : 60주), 홍건섭(60주), 오득영(吳得泳 : 57주), 마나베 기요사쿠(眞鍋喜代作 : 57주)를 포함한 78명이었다.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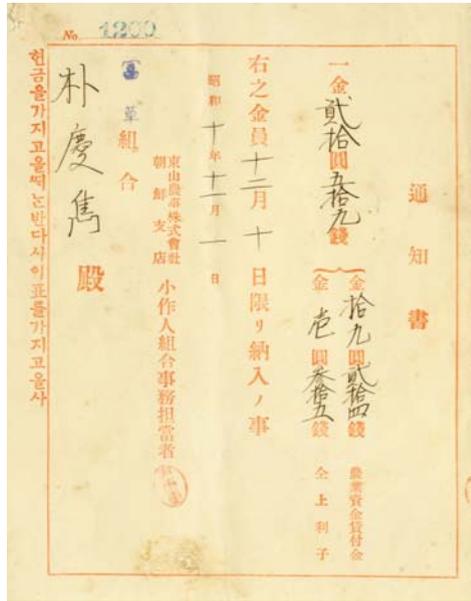
1915년 4월에는 이하라 고로베(伊原五郎兵衛) 외 7명이 수원면 매산리에 자본금 15만



동산농사주식회사 조선지점(사카이 마사노스케, 『수원』, 1923)



동산농사주식회사 조선지점 1935년도 소작료 고지서(의왕시사편찬위원회, 『의왕시사』, 2007)



동산농사주식회사 조선지점 농업자금 대출원리금 상환 통지서(의왕시사편찬위원회, 『의왕시사』, 2007)

원으로, 종묘 비료 판매, 묘포식림 경영, 잠종(蠶種) 잠구(蠶具) 제조판매, 농산물 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부국원(富國園)을 설립하였다. 1919년 8월에는 수원면 매산리에

8 中村資良 편, 『조선은행회사요록』, 동양경제신문사, 1921, 122쪽.

아이시마(相島像一) 등이 농림업 관련 회사인 히가시아마농사주식회사(東山農事株式會社 : 이하 동산농사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인쇄 관련 회사로는 수원인쇄주식회사(水原印刷株式會社)가 있었다. 이 회사는 1918년 5월 가야마 히로시(香山弘)를 대표로, 자본금 6만 원, 불입금 1만 8,000원을 기반으로 수원면 산루리에 설립된 것으로 배당률은 8%였다. 중역에는 이사 도다 마사오(戶田正夫), 사카테 주사부로(坂手重三郎), 오득영과 감사 한상봉, 사토 히데시게(佐渡秀茂) 등을 두었다. 총주식은 1,200주, 주주는 30명으로, 대주주는 가야마 히로시(342주), 토다(200주), 사카테(100주), 사토 히데시게(佐渡秀茂), 사사 키쓰네(佐佐木ツネ), 오득영, 기우라 마사노리(木浦正理 : 각 60주) 등이었다.⁹ 이 외에 1914년 7월 태장면 구봉리에 마쓰이제재소(松井製材所)가 설립되었다.

2. 1920년대 수원의 주요 회사

1920년대 설립된 수원 지역의 주요 농업관련 회사로는 수원상사주식회사(水原商事株式會社)와 수원식림종묘주식회사(水原殖林種苗株式會社)가 있다. 1920년 5월 수원면 매산리 165번지에 자본금 10만 원, 불입금 2만 5,000원으로 설립된 수원상사주식회사는 새끼, 가마니 매매, 농잡구 제조 및 위탁판매, 창고업, 보험대리업, 미곡, 비료 위탁판매를 표방한 종합상사이다. 중역은 전무이사 이토 료키치(伊藤良吉), 이사 데라사와 스테사부로(寺澤捨三郎), 무라카미 히사이치(村上久一), 가와이 다이조(河合名代藏), 야부우치 데이조(藪内貞三), 우에하라 로쿠로(上原陸郎), 감사 모리모토 슌노스케(森元俊之助), 사카테 주사부로(坂手重三郎), 모리타 기요조(森田喜代藏) 등이고, 총주식은 2,000주였다. 대주주는 데라사와 스테사부로(寺澤捨三郎 : 270주), 무라카미 히사이치(村上久一 : 200주), 모리모토 슌노스케(森元俊之助), 사카테 주사부로(坂手重三郎), 야부우치 데이조(藪内貞三), 모리타 기요조(森田喜代藏), 이토 료키치(伊藤良吉 : 각 150주), 오야 마사이치(大屋政市), 가와이 다이조(河合名代藏 : 각 130주), 호소카와 오카노스케(細川岡之助 : 100주) 등 전원 일본인이었다.¹⁰ 이 회사는 창고영업도 겸하여 수원역 구내에 목조창고 1동을 가지고 있었다. 1925년 7월 한상봉이 자본금 5만 원, 불입금 1만 2,500원으로 수원면 남수리

9 中村資良 편, 『조선은행회사요록』, 동양경제신문사, 1921, 146쪽.

10 『조선은행회사요록』, 1925.



수원양조주식회사 건물(시사통신 수원지사, 『수원의 역경』, 1960)



수원주조주식회사에서 만든 청주 '화홍학'을 담았던 술병(수원박물관 소장) 술 이름은 수원의 명소 '화홍문'에서 따온 것이다.

240번지에 설립한 수원식림종묘주식회사는 식림 묘포 경영, 종묘 판매, 식림사업 및 사방 공사 설계 및 설비 청부, 비료 위탁판매 등을 목적으로 한 회사로 차유순(車裕舜), 가야마 히로시(香山弘), 다케시타 헤이사부로(竹下平三郎), 곤도 도라노스케(近藤虎之助)가 이사로, 이환영(李桓永), 사카이 마사노스케(酒井政之助), 권태동(權泰東)이 감사로 참여하였다.¹¹

주조업과 관련하여 1927년 5월 아오키 다메이치(青木爲一)가 자본금 5만 원, 불입금 1만 2,500원으로 수원면 산루리 150번지에 설립한 수원주조주식회사(水原酒造株式會社)는 일본인 주도의 회사였다. 이사로 아오키 다메키치(青木爲吉), 박윤경(朴倫景), 감사로 아오키 하쓰지(青木初治), 니시카와 와쥬(西川和藏)를 두었으며, 총주식 1,000주에 주주는 145명이었다.¹² 홍사안(洪思安)을 대표로, 수원읍 산루리 203번지에 1929년 3월 자본금 20만 7,500원, 불입금 3만 1,875원으로 설립한 수원양조주식회사(水原釀造株式會社)는 탁주와 소주 등 조선주의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 이사는 홍사헌(洪思憲), 조한교(趙漢教), 서정옥(徐廷玉), 감사는 홍사극(洪思克), 차남순(車南舜) 등이었다.¹³ 조선인

11 『조선은행회사요록』, 1925.

12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 1929.

13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 1933.



수원국자제조합자회사(조선총독부, 『생활상태조사-수원군』, 1929)

으로 구성된 이 회사는 수원 읍내에 직매점을 설치하고 주류를 판매하였다. 이 외에 1928년 4월 최익환(崔翼煥)이 수원면 남창리에 누룩 제조판매회사인 수원국자합자회사(水原麴子合資會社)를, 1928년 10월 같은 남창리에서 차재윤(車載潤)이 주류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남주조주식회사(京南酒造株式會社)를 설립, 운영하였다.

운송업 관련 회사로 1927년 5월 수원면 매산리 165번지에서 설립된 수원합동운송주식회사(水原合同運送株式會社)는 운송 및 보험업자의 대리사무, 금융 중개, 창고업, 노동력 청구와 이상과 관련한 일체의 업무 및 위탁판매를 목적으로 하였다.

자본금 10만 원, 불입금 3만 6,000원, 적립금 4,500원으로 배당률은 4%였다. 이 회사는 한일합작 회사로, 대표 데라사와 스테사부로(寺澤捨三郎) 외에 안홍열(安弘烈), 모리모토 순노스케(森元俊之助), 다케시타 헤이사부로(竹下平三郎), 아마다 한지(山田半次), 안종열(安宗烈) 등이 이사로, 한철명(韓哲命), 사카테 주사부로(坂手重三郎)가 감사, 나카무라 구라스케(中村倉助)가 지배인을 하였다.¹⁴ 한편 1928년 10월 이재정(李在楨) 등은 자본금 7,000원을 들여 수원면 북수리에 수원시내자동차회사(水原市內自動車會社)를 설립하였다. 합자회사의 형식으로 구성된 이 회사는 여객 및 하물(荷物) 운반업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¹⁵ 이 회사는 그해 12월 2일부터 북문-수원역 간, 수원역-권업모범장 간 시내버스를 1구간 15전씩의 운임을 받고 운행하였다.¹⁶ 이 외에 1926년 3월 송병황(宋秉愷) 등이 매산리 165번지에 여객화물 운반을 영업 목적으로 하는 중앙자동차합자회사를, 1929년 7월에는 김관현(金寬鉉)이 매산리에 화성자동차주식회사를 설립, 운영하였다.

기타 상공자금 대부, 유통 회사로 1928년 5월 수원면 남수리 102번지에 대동산업주식회

14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 1929.

15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 1929.

16 수원상업사편찬위원회, 『수원상업사』, 수원상공회의소, 1986, 512쪽.



수원 읍내 일등도로변에 자리 잡은 수원시내자동차회사(조선총독부, 『생활상태조사-수원군』, 1929) 오른쪽 전봇대 옆에 간판이 보인다.



화성자동차회사(조선총독부, 『생활상태조사-수원군』, 1929)

사(대표 崔楠)와 1929년 5월 남수리에 화성흥업주식회사(대표 梁聖寬)가 차례로 설립되었다. 제조업과 관련하여 1916년 8월 수원면 산루리에 하시모토 리사부로(橋本利三郎)가 가구 제조판매회사인 합자회사 다이산공작소(大山工作所)를, 1927년 3월 수원읍 영정 39번지에 김귀산(金貴山)이 기계수리를 위한 혼마치철공소(本町鐵工所)를, 1928년 1월 수원면 남수리에 박정렬(朴貞烈)이 동양인쇄합자회사(東洋印刷合資會社)를 설립하였다. 정미업 관련 회사인 김덕물산주식회사(金德物産株式會社)는 김응덕(金應德)이 1928년 2월 수원면 중동 138번지에 운영하였다.

한편 1926년도의 수원 지역의 여타 회사 상황은 1927년 1월 15일부터 10회에 걸친 『동아일보』 기사 「순회탐방」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수원에는 조선인 경영의 수원곡물상회 외에 9개소의 곡물도매상회와 안영순(安永舜) 외 5명이 해륙물산 객주업을 하고 있었다. 또한 포목 도매상으로는 차남순(車南舜) 경영의 수원상회와 이경의(李敬儀) 외 수십 개 점포의 주단포목상이 있었다. 잡화상은 박선태(朴善泰)의 상신회사, 김병호(金炳浩)의 한수상회 및 안순복(安順福), 김주문(金周文)의 점포가 있었다. 3개의 인쇄소 중 2개는 일본인 회사와 박일룡(朴一龍) 외 3인이 동업한 중앙인쇄소가 있었다. 이 중 중앙인쇄소는 자본금 2만 원으로, 연간 수입액은 4만 원이었다. 공업분야는 조선지지류와 유기(鑄器), 기와제조 등이 중요 분야로, 수원제지공장 외 12개소로 총 건평 1,022평, 총 자본금 8,000원, 종업원은 178명에 달했다.

1926년 조선총독부 촉탁 젠쇼 에이스케(善生永助)의 조사에 의한 수원군의 공장공업

상황을 보면 공장수 10개소, 노동자수는 137명, 투자액은 38만 3,000원이었다. 생산량을 업종별로 보면 전기는 24만 5,229kW, 인쇄물 510만 매, 조선지 11만 8,000매, 백미 2,378석, 현미 1만 9,954석, 유기 3,780개, 목재 95만 재(才), 생사(生絲) 80관(貫)으로 전체 가액을 환산하면 89만 4,125원에 달하였다.¹⁷ 동 시기 조사에 의한 상업의 종류 및 매출액 상황은 다음과 같다.

〈표 1〉 1920년대 수원 지역 업종별 매출액¹⁸

종류	호수(호)	매출액(원)	종류	호수(호)	매출액(원)
물품판매업	354	6,617,176	청부업	17	501,400
금전대부업	62	94,147	요리점업	15	93,300
물품대부업	7	4,070	여인숙업	9	18,700
제조업	24	738,256	운송취급업	5	29,560
운송업	2	59,490	주선업	2	653
인쇄업	2	40,142	대리업	5	9,892
사진업	2	7,000	도매(問屋)업	6	12,600
전기공급업	1	54,132	계	514	8,281,241
창고업	1	723			

이를 보면 당시 수원 지역의 업종별 호수는 총 514호로 물품판매업 354호를 비롯하여 금전대부업, 제조업, 청부업, 요리점업, 여인숙업, 물품대부업, 도매업, 운송취급업, 대리업, 운송업, 인쇄업, 사진업, 주선업, 전기공급업, 창고업 순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매상고는 총 828만 1,241원으로 물품판매업, 제조업, 청부업, 금전대부업, 요리점업, 운송업, 전기공급업, 인쇄업, 운송취급업, 여인숙업, 도매업, 대리업, 사진업, 물품대부업, 창고업, 주선업 순으로 호수 대비 매상고는 대체로 비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3. 1930년대 수원의 주요 회사

운송업 관련 회사로 1930년 12월 수원읍 매산리 164번지에 자본금 5만 원, 불입금 1만 2,500원으로 하는 수원하주운송주식회사(水原荷主運送株式會社)가 설립되었다. 이 회사

17 조선총독부, 『조사자료 제28집, 생활상태조사(其一) 수원군』, 1929, 56~57쪽.

18 조선총독부, 『조사자료 제28집, 생활상태조사(其一) 수원군』, 1929, 62쪽.

는 일반 화물 운송 및 운송 취급, 운송업 및 보험업자의 대리업, 창고업 등을 행하는 회사로 홍사선(洪思先)을 대표로 하여, 이사는 박경근(朴慶根), 홍사헌(洪思憲), 김주문(金周文), 임백규(林白圭) 등이며, 감사는 홍사훈(洪思勛), 김응순(金應順)이었다.¹⁹ 한편 수원자동차합자회사(水原自動車合資會社)가 1931년 6월 수원읍 매산리 164번지에 설립되었다. 이 회사는 자본금 5,000원으로 일본인 데라사와 스테사부로(寺澤捨三郎) 등이 설립한 것이다.²⁰ 그런데 이 회사는 앞의 수원하주운송주식회사와 주소가 동일하다. 1932년 10월에는 수원자동차주식회사(水原自動車株式會社)가 수원읍 북수리 375번지에 자본금 4만 원, 불입금 4만 원으로 설립되었다. 이 회사는 가야마 히로시(香山弘)를 대표로 하고, 오카다(岡田美), 곤도 다이키치(近藤泰吉), 기타 사네히라(橘田實平)가 이사로, 감사는 유아사 이헤이(湯淺伊平), 쓰카네 츠키치(常包重吉) 등으로 중역은 전원 일본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²¹ 이 외에 오니오이 스에지로(鬼追末治郎)가 1931년 11월 수원읍 매산리에 자동차부품 판매회사인 합자회사 오니오상회(鬼追商會)를 설립하였고, 박송운(朴松雲)이 1930년 1월 매산로3가 28번지에 우마차 제조회사인 박송운철공소(朴松雲鐵工所)를 설립하였다.

종합상사 성격의 회사인 합자회사 수원물산상회(水原物産商會)가 1931년 2월 수원읍 산루리 135번지에 설립되었다. 이 회사는 식료품, 기타 일체의 물품 판매업 및 보험 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한 것인데, 자본금은 1만 2,000원으로, 미조카미(溝上太久馬)를 대표로, 중역은 유아사 오토요(湯淺音代)와 유아사 이헤이(湯淺伊平) 등이었다.²²

생필품 회사로는 일본 간장, 된장 등을 제조, 판매하는 수원장유합자회사(水原醬油合資會社)가 1931년 11월 자본금 6,000원으로 설립되었다. 회사의 소재지는 수원읍 남창리 234번지로 대표는 쓰시 쓰야타로(都志艶太郎)이었다.²³ 스키모토 슌이치(杉本俊一)가 1932년 3월 수원읍 산루리 43번지에 합자회사 스키모토상점(杉本商店)을, 시바 도쿠노리(斯波德則) 또한 1933년 1월 산루리에 합자회사 시바상점(斯波商店)을 설립하고, 각기 일용잡화를 판매하였다. 1937년 12월에는 수원읍 영화정 124-2번지에 수원인촌주식회사(水原麟寸株式會社)가 자본금 10만 원, 불입금 5만 원으로 설립되었다. 이 회사는 성냥의 제조 판매를 하는 회사로 대표 하나오카 요시후미(花岡芳文), 이사 가토 미치후미(加藤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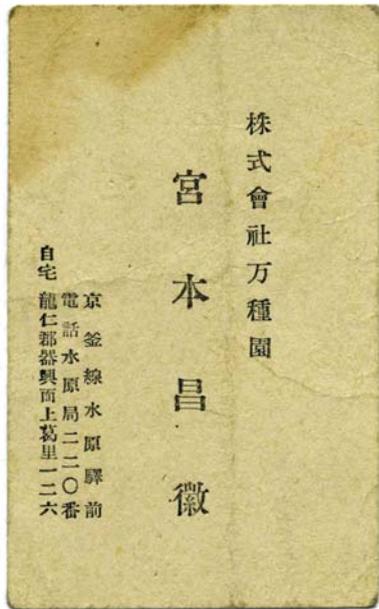
19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 1931.

20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 1933.

21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 1933.

22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 1931.

23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 1933.



주식회사 만종원 직원 명함(수원박물관 소장)

文), 오가타 기요시(緒方清), 호리 가메키치(堀龜吉), 감사 오타니 죠고로(大谷長五郎) 등으로 구성되었다.²⁴

수원 지역 극장으로 주식회사 수원극장(水原劇場)이 1933년 10월 수원읍 산루리 393-2번지에 설립되었다. 이 회사의 자본금은 1만 5,000원, 불입금은 3,750원으로 극장활동사진 연예 및 관물(觀物)을 공중에 관람하게 하거나 청문(聽聞)에 제공하였고, 공중에 대여 등을 하였다. 대표는 양규룡(梁奎龍), 전무이사는 에구치 모리오(江口守夫), 이사는 이가와 고타로(井川好太郎), 오다 구니오(荳田國雄), 윤태정(尹泰貞)이며, 감사는 아오키 다메이치(青木爲一), 홍사훈(洪思勛) 등이었다.²⁵

주조공장으로는 1930년 술의 원료인 누룩을 만

드는 조선국자주식회사(朝鮮麵子株式會社) 수원공장이 수원읍 인계정 740번지에 설립되었다. 이 회사의 본사는 서울 중로2가에 있었다.

직물회사를 보면, 1936년 현재 김학배(金學培)가 1920년대 수원군 영정 60번지에 설립한 수원직물공장(水原織物工場)과 본사를 목포에 둔 남북면업주식회사 수원공장, 수원직포주식회사가 가동되었다. 이 중 홍사훈, 김학배, 이유복, 차재윤과 일본인 데라사와 스테사부로(寺澤拾三郎) 등이 설립한 수원직포주식회사는 50만 원의 자본금과 300명 이상의 직공으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1938년에는 차재윤이 직기 180대로 수원군 본정 3정목 93번지에 소화직물공장(昭和織物工場)을, 1939년 11월에는 홍사성이 수원읍 장안정 146번지에 직기 22대로 동아직물공장을, 이유복이 신평정 160번지에 직기 21대를 갖춘 창화직물공장을 설립, 운영하였다.

농업 관련 회사로 1932년 1월 수원읍 매산리에 설립된 홍사선 경영의 주식회사 만종원(萬種園)은 종묘판매를, 1932년 11월 태장면 병점리에 사토 신이치로(佐藤慎一郎)가 설립한 합명회사 사토농장(佐藤農場)은 비료판매를, 1934년 6월 수원읍 북수리 37번지에 박경근이 설립한 합자회사 수원정미소(水原精米所)는 곡물무역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1934

24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 1939.

25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 1935.

년 10월 태장면 인계리 762번지에 홍철후가 설립한 삼정흥업주식회사(三井興業株式會社)는 가마니 제조판매회사였고, 일본인 니시무라(西村振一)는 1935년 6월 매송면 야목리에 농장 경영을 목적으로 합자회사 에가시라농장(江頭農場)을 설립, 운영하였다.

여타 제조업 관련으로 1930년 1월 수원읍 팔달로3가 90번지에 이정용(李廷鎔)이 연와 제조를 위한 대원요업사(大原窯業社)를 설립하였고, 정석규(鄭錫奎)가 1932년 1월 수원읍 팔달로1가 59번지에 칠기가구 제조업 회사인 아성공업사(亞星工業社)를, 최용민(崔鎔敏)이 영정 39번지에 중앙목재상회를 각기 설립하였다. 다나카 사와키치(田中澤吉)는 1934년 10월 수원읍 남수리 209번지에 다다미 판매회사인 합자회사 다나카상점(田中商店)을, 정용업(鄭容業)은 1935년 1월 수원읍 매향로 147번지에 송전장치업체인 조선전업사(朝鮮電業社)를, 정주교(鄭胄教)는 1938년 4월 세류정 38번지에 연탄제조공장인 천일제탄공업장(天一製炭工業場)을 설립하였다. 1939년 1월 매산로2가 13번지에 수원통제조공장(水原桶製造工場)도 설립되었다.

이 외에 양규봉은 1931년 4월 수원읍 산루리에 금융업 관련 회사인 주식회사 제일사(第一社)를, 박창근(朴昌根)은 1935년 7월 음덕면 북양리 191번지에 광물채굴 회사인 남양광산주식회사(南陽鑛山株式會社)를 설립, 운영하였다.

4. 1940년대 수원의 주요 회사

1940년대 수원에 설립된 주요 회사를 업종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²⁶ 먼저 종합상사로는 1940년 2월 수원읍 본정 1정목 3번지에 차준담(車濬潭)을 대표로 하여 수원상공주식회사(水原商工株式會社)가 설립되었다. 수원상공주식회사는 자본금 10만 원, 불입금 2만 5,000원으로 택지조성 등 건축업과 성냥, 사이다, 술, 비누, 기타 일용품 등의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였다. 중역으로는 전무이사 홍길선(洪吉善), 이사 야스하라 쓰루미쓰(安原鶴允), 홍원실(洪原實), 산와 모토나리(三和基成) 등이며, 감사 김동규(金東奎), 이종범(李鍾範) 등이었다.²⁷

농업 관련 회사로는 1940년 4월 차화선 등이 수원읍 평동 120번지에 자본금 100만 원,

26 이하 수원상의사편찬위원회, 『수원상의사』, 수원상공회의소, 1986, 381~396쪽; 수원시사편찬위원회, 『수원시사』, 1986, 960~967쪽을 참조하여 재구성함.

27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 19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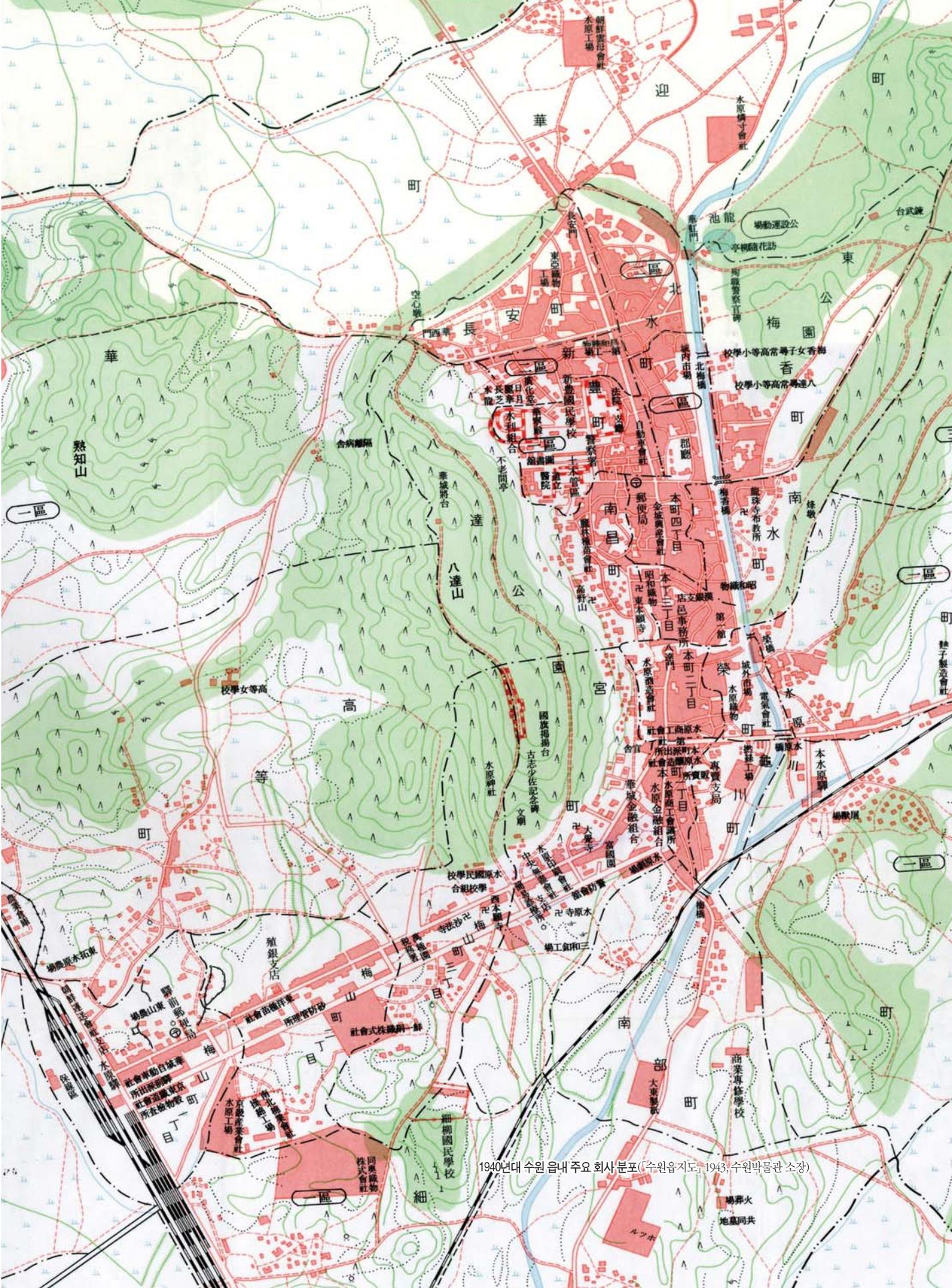
불입금 50만 원으로 농기구 생산을 목적으로 조선농기구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공장 건설 착수 예정에 있었다. 광업과 관련하여 1941년 2월에는 수원군 영화정 소재 조선운모개발 회사 선평장(選鑛場) 공사를 완료하였다. 또한 1943년 8월 산와제련주식회사(三和製鉛株式會社) 수원공장이 자본금 19만 5,000원으로 궁정의 부지 매수 후 기공식을 거행하였다.

제조업 회사로는 양지(洋紙) 제조를 목적으로 하는 대동제지주식회사 수원공장이 1943년 1월부터 수원을 남부정 161번지에 설립을 추진하여 1943년 8월 용지매수 후 1944년 6월 기공식, 10월 상량식을 행하였다. 1942년 5월 세류동 279번지에 김정진을 대표로한 목재제재업 회사인 수원임업사(水原林業社)가, 1944년 4월에는 팔달로1가 72번지에 양화(洋靴) 제조를 목적으로 하는 이화피혁상회(二和皮革商會)가 설립되었다. 또한, 1945년 4월 고스기(小杉謹八)가 태장면 병점리에 판재와 각목 생산을 위한 고스기구미제재공장(小杉組製材工場)을, 1945년 5월 김무한(金武漢)이 매산로1가 43번지에 발동기 제조회사인 무한기계공작소(武漢機械工作所)를 각기 설립하였다. 1944년 9월에는 수원읍 세류동 141번지에 조선가마공업주식회사 수원공장이 건축 중에 있었다. 이규인을 대표로 하는 이 회사는 가마를 제조하는 회사로 본점은 서울에 있었고, 자본금은 5만 원이었다.

기타 1941년 5월 자본금 3만 1,000원으로 폐품 회수를 목적으로 한 합자회사 협상회(協商會)와 식료잡화를 취급하는 합자회사 수일사(水一社 : 자본금 6,000원)가 설립되었다.

한편 1940년대 수원 지역은 직물공장이 번성하였고, 중부지방의 일대 직물공업단지를 형성하게 되었다. 그 결과 이 시기 수원회사 자료는 직물 관련 회사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를 업체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소화직물공장 : 1938년 설립된 차재윤의 소화직물공장은 1941년 7월 당시 직기단폭(織機短幅) 60대, 직공 200명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9월에는 염색공장 공사가 완공단계였다. 1942년 4월에는 직기 180대로 확장하였고, 5월에는 남수동의 소화직물 제2공장을 준공하여 조업을 개시하고, 수원읍 구천정 연사공장(燃絲工場 : 제3공장) 신축에 착수하여 7월에 완공하였다. 염색부는 이미 조업 상태로서, 이 회사는 연사, 제직, 염색 체계를 완비하였다.
- ② 수원직물공장 : 김학배가 설립한 수원직물공장은 1941년 7월 당시 직조단폭 150대, 직공 110명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1942년 4월에는 영업을 확장하여 그간의 직기 60대 외에, 새로 직기 44대 및 염사기(捻絲機) 6대를 구입하였다.
- ③ 창화직물공장 : 이유복 경영의 창화직물공장은 1942년 4월 당시 직기 21대를 운영하였고, 그해 9월에 새로운 공장을 준공하게 되었다.
- ④ 동아직물공장 : 홍사성이 1939년 설립한 동아직물공장은 1942년 4월 직기 22대를 갖춘 새로운 공장 건축을 준비하였고, 이후 시설을 대폭 확장하여 1943년 1월 신공장을 준공하고 기계설비



1940년대 수원 읍내 주요 회사 분포 (수원읍지도, 1943, 수원박물관 소장)

공사를 마쳤다.

- ⑤ 일선염공주식회사(日鮮染工株式會社) 수원공장 : 1942년 6월에는 일선염공주식회사 수원공장 이 서둔정 용지 3만 평 매수에 착수하였다.
- ⑥ 선경직물주식회사 수원공장 : 일본 조지야(丁字屋) 계의 선만주단이 교토직물(京都織物)주식회사와 합자로 설립하였다. 대평정에 1만 5,000평 규모로 공장부지를 마련하고, 1943년 10월에 생산을 개시하였으며 제1~2공장은 1944년 말에 완공되었다. 교토직물은 직기 100대와 기술을 제공하고 선만주단이 자본과 인력을 담당하였다.
- ⑦ 조선직물주식회사 수원공장 : 1942년 12월 안양 조선직물주식회사 계의 동흥직물주식회사 수원공장이 수원을 세류정 236번지에 1만 7,000평의 용지를 확보하고 매수에 착수하여 그해 8월 용지 1만 34평, 건평 2,000평, 직기 200대로 기공식을 거행하고, 1943년 9월 준공하였다.
- ⑧ 선일직물주식회사 수원공장 : 매산로2가 60번지에 김동훈이 설립한 선일직물주식회사 수원공장은 1942년 9월 12일 착공하여 1943년 6월 10일 준공되었다. 공장용지는 1만 7,000평으로, 자본은 강상주식회사(江商株式會社)에서 제공하고, 직기는 100대로 운영되었으며, 시운전을 거친 후 조업하였다.
- ⑨ 조선오우방직주식회사(朝鮮吳羽紡績株式會社) 수원공장 : 1943년 3월 조선오우방직주식회사가 수원에 공장을 설립하고자 부지를 물색하였는데, 이 공장은 자본금 500만 원으로, 대마를 주원료로 하는 직물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 ⑩ 대화유직직물주식회사(大和有職織物株式會社) 수원공장 : 1943년 10월 자본금 19만 5,000원으로 하는 대화유직직물주식회사 수원공장이 승복(僧服) 제작을 목적으로 하여 용지를 물색 중이었다. 그러나 이 공장은 원료난으로 공장 설립이 미루어지고 있던 중, 1944년 4월 홍사성의 동아직물공장과 직기 30대를 22만 5,000원에 인수하여 조업할 예정에 있었다.
- ⑪ 조선나염공업주식회사 수원공장 : 이 회사는 '스프(인조섬유)', 인견(人絹) 등을 생산하는 일본 미쓰코시 계의 회사로 자본금 30만 원을 갖추고 1943년 11월 수원에 공장 건설을 준비하고, 1944년 3월 기공식을 거행하였다.
- ⑫ 그 외에 1945년 8월 해방 이전 흥부성이 매향동 22번지에 대성직물공장을 운영하였고, 매향동 140번지에 성봉경이 성전직물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1942년 11월 1일 수원읍 공정(현재의 교동) 93번지 소재 수원상공회의소에서 발간한 『수원상공인명록(水原商工人名錄)』(부록 참조)은 총 164쪽으로, 이 책자의 편집 겸 발행자는 사에키 게이지로(佐伯敬二郎)이고, 인쇄인은 황등만(黃等萬)으로 되어 있다. 이 책의 내용을 통해 우리는 1942년 당시 수원 지역의 각종 회사와 영업체의 업종, 대표, 주소 지별 상황을 자세히 알 수 있다.

『수원상공인명록』에 따르면 수원 영업체의 업종별 총수는 93개였고, 사업자는 총 866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들 중 법인은 40개였고, 개인을 대표로 하는 업체는 826개였다.

이 중 한국인이 대표로 있는 주요 업종은 12개의 고무신 판매업을 비롯하여, 29개의 면견포 판매업체, 14개의 구두수선, 10개의 해산물, 6개의 부동산 중개와 지물포, 5개의 철물점과 제분업, 3개의 금은방, 솜틀집, 2개의 기와제조와 재봉기 판매 등으로 생활필수품 내지는 재래의 소비재와 지역사정을 이해하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업종 등으로 대부분 영세성을 면할 수 없었다. 반면 인명록에 보이는 6개 업체의 직물공장 대표가 모두 한국인이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일본인 독점 업종은 교통, 화약, 미용, 표구, 선물가게, 목욕탕, 도시락 등이었고, 당시 수원 내 총 11개의 토목 건축청부업체 중 10개는 일본인이 경영하고 있었다. 이는 대체로 근대화 과정에서 새롭게 출현한 영업체들로 수익성이 높은 업종들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운송회사의 경우에서 보듯이 일본인들은 법인의 형태로 대자본이 요구되는 업체에 다수 참여하였다. 또한 큰 규모의 영업체는 물론 소규모의 영업체에 이르기까지 한국인과 일본인이 동일 분야에서 경쟁하는 영업체가 다수였다.



동명고무공업소 수원군 남양읍 특약점 전단지(수원박물관 소장)

『수원상공인명록(水原商工人名錄)』(수원상공회의소, 1942)

(1) 가구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가구점	李鍾善	매산정 1정목 25	가구점	古賀秀次	매산정 1정목 39
華虹工作所	金斗錫	매산정 3정목 35	建具店	右田眞助	궁정 20
가구점	羽場勝次	궁정 47	建具店	渡邊長太	궁정 47
山本工務所	李圭喲	궁정 196	建具店	李商秀	본정 1정목 8
建具店	李馨鈺	본정 1정목 8	建具店	高在天	본정 1정목 41
共力家具店	安点龍	본정 2정목 12	昭和木工場	孫基奉	본정 2정목 12
八光社	洪吉善	본정 2정목 78	昌永家具店	鄭漢洙	본정 2정목 90
泰昌家具店	鄭泰永	본정 2정목 100	水原木工場	李殷武	본정 18
文化家具店	崔鳳儀	본정 4정목 15	亞星木工場	鄭錫奎	본정 4정목 59
松男工作所	金徳在	본정 4정목 91	상집	安莊星	매향정 77
大原家具店	宋駿相	신통정 307	상집	李南憲	복수정 209
상집	金聖業	복수정 224	상집	梁昌錫	복수정 282
상집	劉南先	복수정 116	長安木工場	申明植	복수정 283
상집	洪思貫	복수정 285	島原木工場	李基山	복수정 300
상집	金慶遠	복수정 333	新興木工場	朴慶和	지야정 118
近成木工場	李應烈	지야정 365	日成木工場	李鍾徳	지야정 367
松岡木工所	全春秀	지야정 404	水仁木工場	鄭昌根	인계정 749
振興木工所	金直煥	영화정 135			

(2) 가마니/새끼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京畿産業水原工場	법인	대평정 8-5	八達繩入購買組合	李致弘	매산정 1정목 25

(3) 고무신[鞞]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徳昌商店	高承復	매산정 1정목 28	水原고무商會	黃潤秀	매산정 2정목 1
고무신가게	白南圭	매산정 3	金學俊고무靴店	金學俊	본정 1정목 6
正元商店	李璟夏	본정 1정목 11	金田商店	趙殷永	본정 1정목 73
八達商會	金元成	본정 1정목 73	三徳고무商會	金明根	본정 4정목 98
光信商店	閔光千	본정 2정목 103	大聖고무商店	車明老	복수정 82

(4) 고물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豊産商會	합명회사	매산정 1정목 27	協商會	합명회사	매산정 2정목
고물상	李永完	궁정 96	고물상	沈性從	궁정 86
고물상	盧在述	궁정 8	四街里古物商店	趙漢衡	본정 1정목 31
華城古物商店	金元奇	본정 2정목 88	고물상	元聖鉉	복수정 219
고물상	崔秉權	복수정 368	고물상	朴龍采	신평정 230

(5) 교통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朝鮮京東鐵道株式會社	법인	매산정 1정목

(6) 극장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株式會社 水原劇場	법인	궁정 28

(7) 금융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殖産銀行水原支店	법인	매산정 1정목	漢城銀行水原支店	법인	본정 3정목
中央無盡水原支店	법인	궁정	華城興産株式會社	법인	본정 4정목

(8) 금은대용품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金光堂	李鍾建	본정 3정목 101	天銀房	金興天	본정 3정목 101
大原堂	李鍾秀	본정 4정목 61			

(9) 기계공구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梅野商店	梅野定	매산정 1정목 37	東亞機械店	郭炳駿	매산정 2정목 32
杉本商店	杉本俊一	매산정 2정목 51	日出電氣工業所	安昌鶴	매산정 3정목 27
興亞機械商會	朴濟完	구천정 10	玉商會	申忠	시아정 400

(10) 기와제조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天一製瓦工場	金東八	매향정 42	瓦製造所	宋寅哲	서둔정 205

(11) 농기구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朝鮮農機具 水原工場	법인	대명정	磯野鑄造出張所	萩原清五郎	매산정 1정목 67

(12) 누룩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朝鮮麴子株式會社水原支店	법인	인계정

(13) 누비집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平壤繡紙店	金仲旭	남수정 71	繡紙布團집	奉斗七	고등정 70-1

(14) 담배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연초점	市川新作	매산정 1정목 20	역구내매점	高島ミヤ	수원역 구내
長尾商店	長野伊平	매산정 1정목 49	극장매점	安仁先	수원극장 내
연초점	金安顯	본정 1정목 62	一ニ商店	金升紋	본정 2정목 102
연초점	宋相璟	본정 3정목 38	연초점	石川喜四雄	본정 4정목 123
연초점	沈鍾萬	신평정 10	연초점	李貴順	신평정 82
연초점	小野須惠子	남창정 6	연초점	張昌業	남창정 80
연초점	安相德	남창정 115	연초점	李源均	매산정 143
연초점	高南守	북수정 305	연초점	宋載靑	북수정 330
연초점	金顯模	영화정 77	연초점	李龍植	영화정 114
연초점	金知達	지아정	연초점	崔達峰	지아정 70
연초점	李德永	지아정 42	연초점	崔南洙	우만정 117
연초점	金光雲	세류정 173	연초점	李學模	세류정 250
연초점	金元貞	고등정 102	연초점	加藤重吉	서둔정 137

(15) 도기/자기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元仁商店	晔在煥	본정 1정목 8	東亞商店	鄭然陞	본정 2정목 1
副島商店	副島儀一	본정 4정목 42	柳殷永商店	柳殷永	본정 4정목 105
烏川商店	鄭專教	남수정 162	興亞商店	李成男	북수정 349
응기점	金元植	영정 54	龍光商店	韓重教	지아정 371

(16) 도시락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細川商店	細川岡之助	매산정 1정목 68

(17) 돛자리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黒木壘店	李黃龍	매산정 1정목 49	田中壘店	田中澤吉	본정 4정목 58

(18) 두부공장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두부집	八木金藏	매산정 2정목 13	두부집	橋元利三郎	본정 3정목 107
두부집	沈鍾勳	고등정 153	두부집	尹一漢	고등정 143
두부집	朴富成	고등정 233	두부집	吳元泳	고등정 259

(19) 떡집/빵집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花よりだんご	朴慶煥	매산정 2정목 22	梅山梅餅	嚴忠吉	매산정 2정목 13
빵집	寶來吉平	남창정 5	떡집	李明漢	매산정 2정목 25
떡집	閔東植	매산정 2정목 27	떡집	李載定	궁정 88
떡집	嚴壽京	매향정 148	떡집	朴範俊	남수정 111
떡집	李文成	장안정 72			

(20) 면/견포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廣成商會	林興圭	매산정 2정목 3	民衆商會	李鍾淳	매산정 2정목 15
泰和商店	金泳泰	본정 2정목 2	義昌商會	申昌祺	본정 2정목 26
三和商會	李承和	본정 2정목 42	廣德商會	趙載勳	본정 2정목 54
大榮商會	徐仁榮	본정 2정목 56	共業商店	全仁洙	본정 2정목 58
劉桂烈商店	劉桂烈	본정 2정목 63	振興商會	劉頌烈	본정 2정목 63
三友商會	李載弘	본정 2정목 72	興信商會	申泰均	본정 2정목 82
水原婦人商會	羅漢發	본정 2정목 83	光泉商會	河相善	본정 2정목 99
順昌商會	金溶近	본정 4정목 73	昌和商店	金鍾玉	본정 4정목 88
洪商會	洪思克	본정 4정목 97	洪原商會	洪思旭	본정 4정목 97
면견포	尹萬釗	신평정 30	新興商店	金元奉	신평정 300
면견포	丁英得	복수정 41	면견포	沈俊燮	복수정 69
東亞商會	禹永根	매향정 146	大昌商店	鄭文璟	영정 69
水原商會	金慶培	영정 60-1	廣興商會	金來鳳	영정 41
면견포	盧昌權	영정 37	면견포	金福善	영정 37
榮橋商店	李圭俊	지아정 404			

(21) 면류(麵類)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豊江商會	李龍大	매산정 1정목 34	梅山製麵所	洪佐燮	매산정 3정목 35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金原商店	金基順	본정 2정목 99	華虹製麵所	朴浩錫	본정 1정목 8
木村製麵所	朴武錫	본정 1정목 8	飯田製麵所	飯田末次	본정 3정목 49
水原製麵所	金顯哲	남수정 144	華城製麵所	朴勝弼	남수정 17
梅香製麵所	姜弼煥	매향정 44	協同製麵所	金慶浩	지아정 409
德永製麵所	柳淵穆	지아정 367	金杉製麵所	金希泰	구천정 66
국수집	林今成	본정 1정목 46	국수집	金春日	본정 1정목 54
국수집	李順玉	본정 1정목 59	국수집	車有麟	북수정 371

(22) 목욕탕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목욕탕	木村淺治	본정 2정목	목욕탕	永井誠一	본정 3정목

(23) 목재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柴田材木店	柴田清	매산정 1정목 41	正一社	金敎華	매산정 2정목 1
萩野商店	萩野彌太郎	매산정 2정목 32	永野材木店	李裕昌	매산정 3정목 35
天一材木店	朴齊珪	매향정 41	材木店	車正陽	북수정 52
中鮮材木店	崔鎔敏	영정 39	靑木製材所	靑木一夫	인계정
永山材木店	李源樑	세류정 279			

(24) 무력(鉞力: 양철/생철)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力집	金漢永	매산정 1정목 49	力집	黃啓弘	매산정 2정목 3
京水 力店	金四德	궁정 88	水原 力店	李点用	본정 1정목
吉本 力店	李大男	본정 4정목 91	力집	曹漢吉	인계정 752

(25) 미곡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讜岐商會	井川忠吉	매산정 1정목 41	쌀집	淺野榮次郎	매산정 2정목 27
金城商店	金鍾斗	매산정 2정목 13	쌀집	朴昌勳	매산정 2정목 1
쌀집	吳南根	매산정 2정목 56	쌀집	林孟先	궁정 201
쌀집	申永浩	본정 1정목 37	興西米店	崔熙	본정 2정목 2
朝鮮商會	金應化	본정 2정목 26	쌀집	韓舜鎬	본정 3정목
쌀집	李炳億	본정 4정목 94	쌀집	朴秀益	신풍정 12
쌀집	朴小岩四	신풍정 161	쌀집	金運泰	신풍정 184
쌀집	金顯作	창수정 27	쌀집	金德俊	북수정 43
東亞米穀店	崔龍鎭	북수정 193	쌀집	李華成	북수정 198
쌀집	姜海用	북수정 205	東信商會	金相培	북수정 305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쌀집	李起春	장안정 274	쌀집	姜昌植	영화정 316
迎華商店	金復圭	영화정 352	쌀집	金敦云	매향정 47
李家商店	李弼勳	매향정 143	쌀집	鄭一星	남수정 111
쌀집	閔雲鍾	남수정 124	쌀집	都明西	영정 1
쌀집	金壽鳳	영정 43	大興商店	韓萬洙	인계정 749
쌀집	林大根	인계정 758	쌀집	李仲洙	인계정 765-1
東亞精米所	李起善	지아정 89	大東商會	金麟植	지아정 380
쌀집	金東讚	지아정 422	쌀집	金鍾喆	세류정 656
梅橋商店	金賢泰	남부정 16	쌀집	李起萬	남부정 138
쌀집	韓煥教	고등정 148	岩本商店	閔仁植	고등정 148
쌀집	李榮奉	화서정 142	쌀집	李德三	서둔정 247
쌀집	黃奉允	대평정 10			

(26) 미용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水原美髮院	津留光子	신풍정 262

(27) 미장업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미장업	未益喜平	고등동 204

(28) 보험대리점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日本生命出張所	金奎明	매산정 1정목 41	千代田生命出張所	趙仁行	본정 2정목 84
第一徵兵出張所	宋周鎬	고등정 61			

(29) 부동산중개업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복덕방	洪道裕	본정 4정목 70	복덕방	沈宣錫	매산정 2정목 27
복덕방	金爽鎬	매산정 2정목 56	복덕방	蔡龍錫	본정 1정목
복덕방	車明麟	본정 4정목 35	복덕방	成仁峰	신풍정 235

(30) 비료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水原穀物商會	李容勳	매산정 1정목 25

(31) 빙/빙과자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제빙소	鳥飼孫太郎	매산정 2정목	氷菓子	兒玉好子	본정 2정목 97
氷菓子	林丁龍				

(32) 사진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研美寫眞館	鄭萬成	매산정 2정목 29	華虹寫眞館	金福滿	본정 3정목 39
高山寫眞館	崔壽吉	본정 3정목 40	愛光寫眞館	李又福	본정 4정목 61
タカラ屋	渡邊マサヲ	남창정 22	八達寫眞館	安吉洙	남창정 138

(33) 서적/잡지/문방구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梅山堂	原田興太郎	매산정 1정목 37	安田商店	安田正男	본정 3정목 81
水郷堂	金大均	본정 4정목 90	華陽書店	車道舜	본정 4정목 95
大成商會	朴世勳	본정 3정목 19	車仁順商店	車永順	본정 4정목 40

(34) 석유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東光商會	李根哲	본정 2정목 67

(35) 선물가게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병원선물가게	竹下正夫	도립의원 내	선물가게	矢野琳遊彌	신평정 94

(36) 선어(鮮魚)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岩見屋	梅谷幸太郎	매산정 1정목 49	생선집	李成俊	궁정 74
丸吉商店	金順天	본정 3정목 72	生魚店	李靑島	북수정 182

(37) 성냥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水原燐寸株式會社	법인	영화정 124

(38) 세탁업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大和屋	金丁濟	매산정 1정목 49	日春洗濯所	王華春	매산정 3정목 23
京染洗布所	沈茂春	매산정 3정목 44	原洗布所	曹正煥	본정 3정목 101
東京洗布所	藤田正三	본정 4정목 31	山崎洗布所	柳 昊	본정 1정목 77
國本洗布所	李仁直	매항정 53			

(39) 숫돌(砥石)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茂本商會	孫貞根	본정 1정목 41

(40) 시계/안경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廣成堂時計舖	李熙斗	매산정 1정목 29	ヤナタ時計店	築田一信	매산정 1정목 41
平山時計店	申正朝	매산정 1정목 68	大陽堂	韓裕錫	매산정 2정목 36
太陽堂	崔仁植	본정 1정목 6	水原堂時計店	崔容鎬	본정 2정목 41
東信堂	鄭載珪	본정 2정목 83	東洋堂時計店	鄭載甲	본정 3정목 98
正午堂時計店	鄭然培	본정 4정목 101	興亞堂時計店	申昌雨	북수정 363
明星堂時計店	池可旭	북수정 368	金光時計舖	金輔榮	인계정 756

(41) 시멘트 가공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柴田商店	柴田正一	매산정 1정목 77	시멘트가공	金泰景	궁정 103
水原시멘트加工場	韓舜鎬	구천정 10	시멘트가공	金英根	신풍정 197

(42) 식료품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共信商會	金在學	매산정 1정목 37	金村商店	金甲龍	매산정 1정목 45
東京パン粉販賣所	岡田仁美	매산정 1정목 49	礪崎商店	礪崎建藏	매산정 2정목 28
식료품	洪鍾錫	매산정 2정목 56	식료품	嚴麟會	매산정 3정목 28
辛島商店	白欽舜	궁정 21	식료품	鄭惠澤	궁정 23
本町食料品店	蔡洙光	본정 1정목 6	岩本食料品店	文容基	본정 1정목 27
新鮮屋	俞鎮建	본정 1정목 28	壽仁商會	李壽奉	본정 1정목 30
水原俸給者消費組合	李在萱	본정 1정목 36	金甲商會	金貞植	본정 1정목 73
物産商會	李普熙	본정 2정목 72	天一食料品店	金泰敬	본정 2정목 72
中原商店	韓禮錫	본정 3정목 7	식료품	洪思準	본정 3정목 7
平田商店	太田精	본정 3정목 9	廣昌商會	金永煥	본정 3정목 19
松美屋	溝上太久馬	본정 3정목 71	金谷商店	金南先	본정 3정목 74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伊原商店	尹大根	본정 4정목 15	金澤商店	金學俊	본정 4정목 66
鳳石食料品	李海鳳	본정 4정목 101	富永商店	金斗鉉	본정 4정목 103
鍾路食料品店	金顯裕	본정 4정목 106	金本食料品店	金龍培	본정 4정목 110
식료품	朴炳奎	신평정 33	百味堂	金道植	신평정 307
식료품	朴潤淳	남수정 61	東昌商會	金東根	남수정 107
水一商店	金今福	남수정 165	キハラ商店	李元鍾	북수정 362
식료품	宋秉浩	북수정 365	식료품	崔壽煥	북수정 368
식료품	趙敦吉	북수정 370	식료품	洪在完	영화정 332
尹重儀商店	尹重儀	영정 10	松村商店	李奇萬	영정 16
鮮華商會	吳恩泳	영정 22	共榮商會	金容直	영정 70
永東商會	盧錦仙	지아정 73	식료품	嚴敏植	지아정 325
金川商店	金元俊	지아정 335	식료품	金昆山	지아정 399
海龍商會	李龍夏	지아정 422	梁成煥商店	梁成煥	구천정 20
鄭基永商店	鄭基永	구천정 21			

(43) 신발(履物)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竹村商店	竹村和三朗	궁정 87	杉山特許下駄店	沈善澤	궁정 87
天滿屋	刀根要吉	본정 3정목 67	華虹製作所	李文壽	북수정 156
水原履物製作所	車漢成	북수정 180	履物店	金漢吉	북수정 207
履物店	朴昌業	매향정 114	履物店	宋善奎	남수정 117
履物店	姜春瑞	남수정 117	履物店	韓正龍	지아정 367

(44) 신탄(薪炭)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坂手商店	坂手芳夫	매산정 1정목 31	宮崎商店	宮崎末松	궁정 79
興亞商事	합명회사	본정 1정목	天一製炭工場	합명회사	남부정

(45) 약종상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八水堂藥房	申尙順	매산정 1정목 28	八達洋行	芮應鎬	매산정 2정목 3
山原藥房	李耕恒	본정 1정목 86	永光堂藥房	金學泳	궁정 88
濟生堂藥房	朴錫臻	본정 2정목 44	松永藥房	松永壽作	본정 2정목 97
今中家庭藥房	今中眞正	본정 3정목 76	鍾路藥房	金漢培	본정 4정목 2
東亞藥房	金德根	본정 4정목 39	天祥堂藥房	崔 楸	본정 4정목 60
一丸藥房	渡邊重輝	본정 3정목 90	百壽堂	洪淳哲	남수정 70
北門商店	孫炳洙	북수정 3	日の丸藥房	朴胤根	북수정 340
陽光堂藥房	沈陽燮	북수정 359	日鮮藥房	李鴻九	장안정 8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佐佐木西海堂	佐藤林	영정 9	東明堂藥房	李明來	본정 2정목 67
濟生堂	周米殷	매산정 2정목 3	한약방	郭世榮	매산정 54
한약방	柳來元	본정 3정목 50	洪濟藥局	高性八	본정 4정목 35
元貞藥局	李成九	신평정 225	華南藥局	林漢圭	신평정 275
한약방	李相畝	남수정 16	吉田藥局	曹秉燦	남수정 154
南興藥局	南錫祐	장안정 8	한약방	金鵬圭	영정 71
한약방	金振洙	구천정 69	回春堂藥局	全泳泰	남부정 221
光和藥局	李光澤	남창정 15	廣惠堂藥局	姜信鎬	북수정 298
약종상	金仁學	영화정 309	善隣藥房	嚴柱弘	인계정 757

(46) 양복/기성복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巴商會	吉浦大作	매산정 1정목 37	太西洋服店	崔相熙	매산정 2정목 3
英洋服店	李起英	매산정 2정목 15	朝日洋服店	車炳起	매산정 2정목 32
大衆洋服店	權英均	매산정 2정목 44	昶秀洋服店	姜畢成	매산정 3정목 35
鮮一洋服店	金長慶	본정 1정목 41	寬興洋服店	高漢昌	본정 2정목 84
水朝洋服店	金善滿	본정 2정목 95	八達洋服店	林昌根	본정 3정목 18
普信洋服店	朴八龍	본정 3정목 101	鮮光洋服店	金顯哲	본정 4정목 98
世信洋服店	池公淳	본정 4정목 106	築地洋服店	築地守	신평정 130
喜多村洋服店	喜多村毅	신평정 138	南興洋服店	韓南洙	매산정 1정목 39
朝光洋服店	田炳浩	매산정 2정목 13	世榮洋服店	金青山	매산정 2정목 14
平本商店	趙昌鎬	매산정 3정목 35	양복점	李敬石	본정 2정목 3
中央洋服店	張驥植	본정 2정목 7	萬華洋服店	李在星	본정 2정목 7
啓昌洋服店	金健榮	본정 2정목 17	華信洋服店	李應先	본정 2정목 17
昌信洋服店	韓允澤	본정 2정목 19	共榮洋服店	李 炆	본정 2정목 39
旭日洋服店	宋炳星	본정 3정목 38	大丸洋服店	朴淳錫	본정 3정목 84
新豊洋服店	金在基	본정 4정목 4	長安洋服製造所	鄭成模	장안정 24
竹井洋服店	韓甲星	인계정 202			

(47) 양화/수선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第一洋靴店	卜一男	매산정 1정목 27	구뚝방	吳泰根	매산정 2정목 44
金德潤洋靴店	金德潤	본정 1정목 166	洪樂裕洋靴店	洪樂裕	본정 2정목 27
東昌洋靴店	安觀植	본정 2정목 98	富國洋靴店	尹在叔	본정 4정목 31
世信洋靴店	柳泰慶	본정 4정목 103	金岡洋靴店	金有成	매산정 2정목 28
양화수선	金容弼	매산정 3정목 35	양화수선	金致善	본정 4정목 61
양화수선	韓在順	지아정 123	양화수선	印光洙	영화정 334

(48) 여관/하숙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華興旅館	劉泰元	매산정 1정목 17	昭和旅館	宮川トヘ	매산정 1정목 27
中津屋旅館	角金時	매산정 1정목 60	新興旅館	金雲培	매산정 1정목 65
山本旅館	榊ソゲ	매산정 1정목 69	水城旅館	朴漢用	매산정 2정목 35
第一旅館	金長龍	매산정 2정목 36	水山旅館	趙庠敦	궁정 79
山陽旅館	田代弘敬	본정 3정목 75	肥後屋	川野スズ	본정 3정목 127
三好旅館	齋仁基	본정 4정목 22	水原旅館	趙昌載	본정 4정목 22
興亞旅館	李鳳仙	본정 4정목 22	水玉旅館	李範日	남수정 142
華虹旅館	朴成鎭	북수정 167	八達旅人宿	權老味	영정 13
水南旅館	李弼龍	영정 27	和昌旅館	金成云	인계정 762
여인숙	朴德俊	영화정 325	하숙	朴昌順	매산정 1정목 25
하숙	木村トモ	매산정 1정목 48	越後屋	佐藤カメ	매산정 1정목 60
みどり屋	大久保シゲノ	매산정 1정목 68	하숙	金化俊	남창정 59
하숙	川田豊秀	남창정 114	華信旅館	鄭元環	영정 12

(49) 염료(染料)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民友洋行	金正光	본정 2정목 17

(50) 요리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吐月	外尾ミネ	본정 3정목 70	一二三	加納サイ	본정 4정목 123
富士亭	笹田ユキ	신평정 285	第一館	법인	남수정
永樂館	宋元尙	본정 3정목 66	壹興園	馮英西	본정 3정목 68
東興樓	李文恒	본정 3정목 3	恒山館	李文悅	남수정 129
迎賓館	張倫五	영정 48	百花園	李漢容	본정 1정목 45

(51) 운모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朝鮮雲母水原工場	법인	영화정

(52) 운수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朝鮮運送水原支店	법인	매산정 1정목 25	朝鮮運送出張所	법인	본정 1정목 21
朝鮮運水原트럭出張所	법인	본정 1정목 21	京仁트럭營業所	법인	궁정 6

(53) 유리/거울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大山硝子店	姜柄云	매산정 1정목 1	京畿商會	金鍾喆	본정 2정목 83
本町額縁	李奎永	본정 2정목 87	平井硝子店	平井藤吉	본정 2정목 88
朝日硝子店	金麟喜	신평정 23			

(54) 유희장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エモト撞球場	栢木ヨシ	본정 2정목 9	鐘路撞球場	申有善	본정 4정목 15

(55) 음식점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선술집	吳氏	매산정 1정목 24	선술집	孫容九	매산정 1정목 26
오랭屋	中島シカ	매산정 1정목 27	新井飲食店	朴泰浩	매산정 1정목 27
에비스카페	河岡千代子	매산정 1정목 28	長盛園	姜成恩	매산정 1정목 29
福興園	藍敬箴	매산정 1정목 37	富久美	郭起容	매산정 1정목 39
八珍屋	金起男	매산정 1정목 39	友 月	金龍八	매산정 1정목 49
大衆食堂	杉原徳市	매산정 1정목 60	선술집	鄭喜叔	매산정 1정목 65
泰興樓	初鳳坡	매산정 1정목 68	선술집	李成大	매산정 1정목 68
喜樂食堂	渡邊キヲ	매산정 1정목 69	선술집	安順西	매산정 2정목 13
선술집	吳濟善	매산정 2정목 15	兄弟屋	姜龍鎭	매산정 2정목 28
선술집	都昌奎	매산정 2정목 51	日の出	古野喜太郎	매산정 2정목 51
선술집	黃氏	궁정 22	선술집	具明翌	본정 1정목 19
선술집	李貞喜	본정 1정목 166	南美屋	李華貞	본정 2정목 32
隆昌屋	許 燻	본정 2정목 52	大 和	原口喜一	본정 2정목 71
秋村食堂	秋村マサ	본정 2정목 71	壹興樓	馬宗法	본정 2정목 95
銀 水	臼井藤太郎	본정 2정목 99	三光舍	宋純浩	본정 3정목 7
水原食堂	河萬孫	본정 4정목 15	烏山屋	金熙昌	본정 4정목 16
新豊屋	梁看蘭	본정 4정목 33	聚仙閣	黃卜成	본정 4정목 69
木村屋	細野チセ	본정 4정목 102	에비스屋	松崎圓藏	본정 4정목 104
義生樓	孫友三	본정 4정목 108	壹心園	曾昭煦	신평정 293
선술집	崔昌順	복수정 64	선술집	金龍順	복수정 91
선술집	李英順	복수정 177	선술집	表順禮	매향정 44
華城屋	林高明	매향정 57	安城屋	崔淑姬	남수정 66
鐘路屋	李慶先	남수정 72	日新屋	金鍾煥	남수정 136
梅香屋	金玉伊	남수정 159	선술집	李春子	영정 3
선술집	洪淳子	영정 3	선술집	崔石燁	영정 18
선술집	李星七	영정 45	水原屋	殷韓順	영정 69
선술집	鄭一庚	인계정 749	선술집	朴德三	인계정 756
선술집	韓顯福	지야정 223	선술집	宋德成	지야정 381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선술집	安昌潤	지아정 421	선술집	金春梅	세류정 168
선술집	李在德	세류정 279	선술집	李秋蓮	세류정 318
선술집	金五福	세류정 539	선술집	安相根	세류정 539
선술집	安琴伊	세류정 544	선술집	崔德鎭	세류정 565
선술집	申東舜	남부정 138	선술집	金元春	남부정 140
선술집	金殷洙	남부정 212	선술집	李順伊	화서정 140
선술집	金月花	서둔정 139	선술집	洪致根	서둔정 143
선술집	徐相輔	서둔정 237	선술집	奇桂月	서둔정 243
선술집	金阿其	서둔정 247	선술집	白倫伊	서둔정 247
선술집	劉應植	서둔정 247	선술집	金之煥	서둔정 247
선술집	金在禧	서둔정 247	선술집	金聖五	대평정 7
선술집	梁聖煥	대평정 10	선술집	金鍾雲	대평정 32
선술집	廉音傳	영화정 337	선술집	李富順	영화정 355

(56) 이발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光美理髮館	徐鍾基	매산정 1정목 27	이발관	濱田權吉	매산정 1정목 29
葛馬理髮館	葛馬重吉	매산정 1정목 49	이발관	宋化燁	매산정 2정목 27
三興理髮館	崔學圭	본정 1정목 81	南門理髮館	林篤同	본정 3정목 76
松村高等理髮館	朴二仁	본정 3정목 101	三昌理髮館	金學善	본정 2정목 17
本町理髮館	金興鎭	본정 4정목 4	豊昌理髮館	吳善周	신평정 292
華虹理髮館	徐漢榮	북수정 192	이발관	沈具慶	북수정 375
華城理髮館	李華鍾	지아정 427	이발관	朴鵬來	남부정 138

(57) 인력거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構內組	李京天	수원역 구내	人力車	蔡洙光	본정 1정목 6
三光組	立石ハル	본정 3정목 72			

(58) 인쇄업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水原印刷株式會社	법인	궁정 74	朝日印刷所	黃等萬	궁정 176
昭和印刷所	尹龍德	매산정 2정목 13	東一紙店印刷部	金德星	매산정 2정목 39
三和印刷所	李承宇	본정 2정목 42	文友印刷所	梁在煥	본정 2정목 70
東一印刷所	劉永學	본정 3정목 19	近藤印刷所	近藤泰吉	본정 3정목 44

(59) 인판(印版)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相信堂	朴榮模	본정 2정목 19	天寶堂	成樂禧	본정 2정목 17
印 判	栗田甚三郎	본정 4정목 6			

(60) 자동차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華城自動車株式會社		매산정 1정목 70	水原市内自動車株式會社		신평정 282
京南택시		본정 1정목			

(61) 자진거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水原自轉車店	朴億福	매산정 1정목 29	鬼進商會	합자회사	매산정 2정목
富信商店	趙信元	매산정 2정목 15	朝日自轉車店	金南洙	궁정 21
山崎自轉車支店	金福奇	본정 1정목 7	金允根自轉車店	金允根	본정 1정목 19
高自轉車店	高命守	본정 1정목 27	相信自轉車店	張敬遠	본정 2정목 19
山崎自轉車店	山崎英雄	본정 3정목 43	柳來說商店	柳來說	본정 4정목 109
興源自轉車店	安殷福	본정 4정목 41	新豊自轉車店	吳貴山	신평정 207
永達自轉車店	李燦衡	북수정 188	華城自轉車店	金文浩	북수정 197
三共自轉車店	姜淳吉	북수정 347	迎華自轉車店	林壽光	영화정 276
水仁自轉車店	鄭昌錄	지야정 368	鮮一自轉車店	許 燮	인계정 211
新興自轉車店	沈文燮	남부정 138	和信自轉車店	朴鍾律	대평정 8
自轉車店	金永錫	서둔정 275			

(62) 잡화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大久保商店	大久保シズオ	매산정 1정목 27	有信商會	朴有峰	매산정 1정목 28
兄弟商店	姜龍彩	매산정 2정목 24	東信商會	金東浩	매산정 2정목 33
德永商店	宋備榮	본정 2정목 18	原永商店	姜壽俊	본정 2정목 88
大阪屋	崔成煥	본정 3정목 9	加茂百貨店	加茂孫四郎	본정 3정목 22
不二屋	谷口重太郎	본정 3정목 82	金用玉商店	金用玉	본정 4정목 8
旭屋百貨店	佐藤卓	본정 4정목 15	萬福商店	安巨福	본정 4정목 34
華潤百貨店	朴潤錫	본정 4정목 100	李喜樂商店	李喜樂	본정 4정목 107
木村商店	朴成泰	본정 4정목 203	水原商工株式會社	법인	본정 1정목 3
第一社水原支店	법인	본정 1정목 3	일용잡화	李在信	매산정 1정목 64
일용잡화	李鍾秀	본정 1정목 6	일용잡화	韓禮錫	본정 1정목 6
大星商店	安斗星	본정 1정목 10	永信商會	宋柄益	본정 1정목 30
日光商店	朴榮緒	본정 1정목 111	明信商店	安順福	본정 4정목 36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萬物商店	吳吉伊	본정 4정목 102	松岡商店	李容錫	신풍정 1
富城商店	金溶遇	신풍정 6	新豊商會	元聖煥	신풍정 237
잡화점	安昊德	남수정 117	二和商事	林元舜	영정 2
잡화점	李年錄	영정 59	永和商店	孔慶植	영정 68
景川商店	景銀奉	복수정 26	長岡商店	張翼相	매향정 82
잡화점	車德興	복수정 171	잡화점	白南備	복수정 359
잡화점	原明子	지아정 368	永德商店	李起鳳	구천정 20
富田商會	李榮夏	인계정 738	仁溪商店	申泰永	인계정 753
東亞商會	李順根	인계정 757	잡화점	李始榮	인계정 765
잡화점	龔時鉉	세류정 536	잡화점	崔相集	세류정 544
잡화점	金德雄	세류정 660	大陸商會	李奎讚	남부정 141
잡화점	李昌順	남부정 141	잡화점	金長元	남부정 201
잡화점	高昌福	남부정 208	잡화점	李甲富	화서정 25
高農販賣部	生信富三	서둔정 103	잡화점	金學殷	서둔정 235
잡화점	劉銀金	대평정 10	水昌商店	白茂基	매산정 1정목 41
잡화점	安龍文	매산정 2정목 38	잡화점	吳世勳	영정 37
水原制帽商會	沈聖求	본정 4정목 109			

(63) 장/혼구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水原葬儀社	金正翔	지아정 328	葬儀社	鄭一庚	인계정 749
水原共盆禮社	秋村音市	궁정 6			

(64) 장유양조(醬油釀造)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水原醬油釀造場	李鶴宇	매산정 1정목 33	水原醬油合資會社	都志艶太郎	본정 3정목 252

(65) 재봉기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水原미싱商會	金必成	본정 2정목 19	中央미싱商會	李銀奉	본정 2정목 84

(66) 전기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京城電氣水原支店	법인	구천정	弘電社出張所	姜鎭浩	본정 2정목
華城라디오店	梅原靜彦	본정 2정목 41	電器具店	姜先福	본정 2정목 41

(67) 전당포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전당포	田尻熊太郎	공정 46	전당포	鄭昌玉	본정 2정목 76
永信號	嚴柱喆	본정 3정목 23	安藤號	安德根	본정 3정목 25
전당포	湯淺伊平	본정 2정목 96	新興號	金知旋	본정 4정목 10
전당포	洪昌裕	본정 4정목 60	전당포	洪旋裕	본정 4정목 60
전당포	林慶雲	북수정 199	南昌號	林圭玄	북수정 308
전당포	李明鎭	북수정 333	전당포	車允相	남수정 130
전당포	李珪寅	신평정 200	新昌號	陳起商	신평정 232
전당포	三浦吉三郎	남창정 92-1			

(68) 정미업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金德商會	金應德	본정 1정목 138	東-精米所	李學亨	지아정 89
泉川精米所	李在奉	구천정 46	金光精米所	金周成	구천정 41
馨光精米所	申今石	인계정 752	殖産精米所	金順根	인계정 762-5
정미소	寺澤正春	대평정 38	萩原精米所	萩原甚吉	영화정 333
長安精米所	秦次順	영화정 298	정미소	高性德	세류정
정미소	韓鳳洙	서둔정	정미소	千泰榮	남부정 140

(69) 정육점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푸줏간	李今出	매산정 2정목 38	푸줏간	徐相鎭	매산정 2정목 3
同成牛肉店	李成玉	본정 1정목 28	푸줏간	金正奉	본정 2정목 80
푸줏간	姜翼秀	본정 4정목 101	푸줏간	金禮獻	남수정 162
푸줏간	李黠同	남수정 164	푸줏간	金永福	북수정 239
푸줏간	崔業同	신평정 292			

(70) 제과/빙과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三水堂	白起鉉	매산정 1정목 43	水月堂	大屋政市	매산정 1정목 63
漢榮製菓店	嚴今山	매산정 2정목 52	金玉俊商店	金玉俊	매산정 2정목 27
金澤製菓店	金炯澤	본정 1정목 31	木村屋	李容浩	본정 2정목 85
福神莊	許潾	본정 2정목 87	華春菓子店	李福東	본정 4정목 9
三成商會	李元伯	영정 52	松山製菓店	李貴成	영정 53
八達米菓所	朴永勳	지아정 407	順興商店	白在天	본정 4정목 17
新豊商會	金俊萬	남수정 160	油菓집	白在龍	영정 16
富川油菓所	尹吉源	본정 4정목 17			

(71) 제분업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제분소	張成仁	매산정 1정목 39	水原製粉工場	鄭壽連	본정 2정목 1
永豊製粉所	李漢範	본정 3정목 50	제분소	崔 權	북수정 329
雲漢製粉所	李永淑	지아정 416			

(72) 제철(蹄鐵 : 편자 등 관련 업체)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대갈간	金中達	인계정 775-1	대갈간	金興瑞	지아정 344
대갈간	沈相冕	매산정 2정목 38			

(73) 종묘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東洋種苗株式會社	법인	매산정 2정목	水原植林種苗株式會社	법인	매산정 2정목
株式會社 万種園	법인	매산정 3정목	株式會社 富國園	법인	궁정
朝鮮藥草株式會社	법인	매산정 1정목			

(74) 주류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水仁藥造精餾販賣所	權翼洙	매산정 1정목 25	燒酌	崔應來	매산정 1정목 27
水原藥造株式會社	법인	본정 1정목	水原酒造株式會社	법인	본정 2정목
華春商會	李貴福	본정 4정목 9	水一社	李起玆	신몽정 307
水原藥造城大販賣所	車興一	북수정 158	三和燒酌販賣店	金衡培	본정 4정목 118

(75) 주물(鑄物)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鑄物製造	具寅書	남부정 17

(76) 죽세공(竹細工)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竹細工店	金永昌	매산정 2정목 3	原信竹工場	林春峰	궁정 22
田中籠製作所	田海先	궁정 89	竹細工店	白南永	궁정 100
竹細工店	李成九	궁정 100			

(77) 지물포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大氣堂	金東勳	매산정 2정목 51	異熙天商店	異熙天	본정 2정목 47
水原紙物舖	尹明烈	본정 2정목 76	三原商會	林炳進	영정 58
大興商店	李明淳	본정 1정목 27	문방구점	李善明	신풍정 221

(78) 직물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水原織物工場	金學培	영정 60	昭和織物工場	車載潤	본정 3정목 93
大成織物工場	洪富成	매항정 22	成田織物工場	成奉慶	매항정 140
東亞織物工場	洪思成	매항정 146	昌和織物工場	李有福	신풍정 160

(79) 철공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京南鐵工所	金東勳	매산정 2정목 33	林松雲鐵工所	林松雲	매산정 3정목 28
本町鐵工所	金貴山	궁정 125	滿助工業社	金光漢	본정 1정목 94
大垣タイヤ工業所	李一奉	본정 1정목 94	華城鐵工所	庾壽亨	본정 2정목 62
修繕所	金用云	복수정 301	修繕所	梁貴星	매항정 113
水原鐵工所	崔熙榮	영정 36	盛實鐵工所	朴盛實	영정 41
修繕所	金性俊	지아정 94	西本鐵工所	西本市之進	본정 1정목 7

(80) 철물점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白昌南金物店	白昌南	궁정 101	三興金物商店	鄭允浩	본정 2정목 48
共榮商會	申正基	인계정 757	林光植商店	林光植	매산정 2정목 14
福聚合支店	具泰會	본정 3정목 72	福本商店	朴福男	본정 3정목 73

(81) 청과물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과일가게	梁在東	매산정 1정목 27	과일가게	李京天	매산정 1정목 27
과일가게	金敦仁	매산정 1정목 27	과일가게	馬英圭	매산정 1정목 28
과일가게	金春燁	매산정 1정목 39	丸一商店	朴東根	매산정 1정목 49
金村商店	金壽慶	매산정 1정목 49	國産貿易商會	原口喜一	매산정 1정목 67
仁興商店	洪廣玉	매산정 1정목 68	과일가게	金觀洵	매산정 2정목 3
과일가게	李在植	매산정 2정목 13	과일가게	中山勸二	궁정 23
과일가게	盧載成	궁정 86	과일가게	高木德治	본정 2정목 86
과일가게	李華春	본정 4정목 1	鍾路果物店	安順男	본정 4정목 2
과일가게	成壽慶	복수정 174	과일가게	車漢容	복수정 283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과일가게	鄭順西	영정 45	과일가게	金容直	영정 70
과일가게	金水鎭	지아정 93-3	과일가게	金澤秀	지아정 93-3
과일가게	金雲錫	인계정 455	과일가게	進高藏	세류정 513
華城車賣店	李容錫	매산정 1정목	과일가게	鄭忠信	본정 3정목 84
과일가게	李大敏	남수정 141	과일가게	芝田喜市	지아정

(82) 청량음료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京仁合同飲料水原工場	법인	공정 47

(83) 축음기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水原蓄音機商會	金顯珽	본정 4정목 90

(84) 타면소(打棉所 : 솜틀집)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南北棉業水原工場	법인	매산정 2정목	솜틀집	鳥居泰三	공정 74
三和打棉所	李承和	본정 2정목 42			

(85) 토목/건축청부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건축청부	小野常一	매산정 1정목 36	賴岡組	賴岡實一	매산정 1정목 83
玉澤工務所	玉澤俊助	매산정 2정목 27	건축청부	濱崎金次郎	매산정 2정목 65
석공청부	稻葉八之資	공정 18	석공청부	高橋友一	공정 52
건축청부	岡野精能藏	공정 84	건축청부	江島喜八郎	공정 146
토목청부	金泉金次郎	본정 2정목	토목청부	竹田多十郎	본정 4정목
석공청부	李相勳	본정 1정목 67			

(86) 통류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통제조소	松川清八	매산정 1정목 28	통제조소	成雄錫	지아정 123
金谷桶屋	金相淳	지아정 375	통제조소	閔鍾綠	인계정 753

(87) 페인트/간판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正田페인트工業所	具濟憲	매산정 1정목 25	百壽堂	南宮埴	본정 1정목 11
南梁商司	梁源吉	본정 1정목 134			

(88) 포복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神崎呉服店	上岡菊松	본정 3정목 107

(89) 표구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표구점	扇チキ	궁정 22	綱島表具店	綱島秀夫	본정 4정목 58

(90) 피류(皮類)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牛豚皮	全根在	매산정 2정목 38

(91) 해산물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해산청과물	申龍浩	영정 16	共成商會	申永浩	영정 52
水原海産靑果商組合	林白圭	영정 54	해산청과물	金嘯鉉	영정 54
해산청과물	嚴興燮	영정 54	해산청과물	嚴翼鯨	영정 54
해산청과물	嚴翼昌	영정 54	日新商會	李茂成	영정 56
해산청과물	安永舜	영정 57	해산청과물	安俊榮	영정 26
해산청과물	李敬泰	영정 52			

(92) 호마유(胡麻油)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三和製油所	李承和	본정 2정목 42	水原製油所	朴繼鎬	본정 2정목 98
기름집	郭泰龍	남수정 162	東城商會	金正翊	인계정 755
花山製油所	朴永俊	대평정 32			

(93) 화약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野中火藥店	野中末吉	본정 2정목 6



조재곤 덕성여자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연구교수

1. 수원상업회의소의 설립
2. 수원실업협회의 설립과 운영
3. 수원상공회의소의 창립과 활동
4. 수원상공회의소의 해산과 경기도상공경제회 수원지부 조직



제5장

수원상공회의소의 설립과 변화

1. 수원상업회의소의 설립

1876년 개항 이후 일본인 상업회의소가 설치되기 시작하였다. 일본 상인들은 1879년 부산에 상법회의소를 설립하고 이어 1881년 원산상업회의소, 1885년 인천항상법회의소, 1887년 경성상업회의소를, 청일전쟁 이후 목포, 군산, 평양, 진남포, 마산, 청진 등 주요 도시에 상업기구를 연이어 설립하였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조선의 상인들은 권익 수호를 위해 조선인 상업회의소 설립을 서둘렀다.¹ 그 결과 1904년 목포객주회, 1905년 북청상업회의소, 1906년 대구상의소, 1907년 군산객주회, 개성상업회의소, 1908년 수원상업회의소가 연이어 설치되었다. 1910년까지 조



수원상업회의소 초대 부회두 양성관(수원상공회의소, 『수원상공회의소 100년사』, 2008)

¹ 수원상공회의소, 『수원상공회의소 100년사』, 2008, 66-67쪽.



수원상업회의소가 입주해 있던 화성금융조합(수원상공회의소, 『수원상공회의소 100년사』, 2008)

선계 16개소, 일본계 11개소 등 모두 27개소의 상업회의소가 설립되었다.²

수원상업회의소 발기인 일동은 수원 부호 양성관을 비롯한 조선인 주도로 1908년(융희 2) 4월 15일 수원군 남부면 남수동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수원상업회의소 설립을 의결하였다. 수원상업회의소는 4개월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8월 초대 의원 선거를 실시하고 이후 적극적인 활동을 하였다. 이때 양성관이 부회두로 선출되었으나 창설 당시의 회두와 의원의 이름 등은 확인할 수 없다.

1908년 설립 당시 상업회의소 의원은 보통의원 13명, 특별의원 4명 도합 17명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선거권자 40명과 피선거권자 30명을 두었다. 그러나 1909년과 1910년 상황은 확인하기 어렵다. 이후 1911년에는 일반의원 10명, 특별의원 5명, 선거권자 50명, 피선거권자 40명, 1912년에는 일반의원 10명, 특별의원 4명, 선거권자 50명, 피선거권자 30명, 1913년에는 일반의원 13명, 특별의원 4명, 선거권자 40명, 피선거권자 30명이었다. 1914년에는 일반의원 23명, 특별의원 4명, 선거권자 60명, 피선거권자 40명으로 일반의원과 선거권자, 피선거권자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표 1〉 수원상업회의소의 의원, 선거권자, 피선거권자

(단위 : 명)

연도	일반의원	특별의원	계	선거권자	피선거권자	계	총계
1908	13	4	17	40	30	70	87
1911	10	5	15	50	40	90	105
1912	10	4	14	50	30	80	94
1913	13	4	17	40	30	70	87
1914	23	4	27	60	40	100	127

² 수원상공회의소, 『수원상공회의소 100년사』, 2008, 72쪽.

1914년의 회두는 수원 남문 밖 객주 김희경이었다.³ 그는 1914년도 4월에 매일신보사에서 주관한 '대정박람회 시찰단'의 3부장으로 일본에 다녀온 적도 있었다. 수원상업회의소는 회두 외에도 부회두 홍민섭(洪敏燮), 총무 김순구(金舜九), 서기장 이희영(李熙榮) 등이 있었고, 그 밖에도 상의원 20명이 있었다. "연로(年老) 유수한 진신(縝紳) 수명(數名)"의 고문도, 수원에 있는 상인 200여 명도 상업회의소를 만드는 주역들이었다. 그들은 자신의 재력에 따라서 회비, 즉 과금(課金)을 냈다. 회비납부는 3원, 2원, 1원, 50전 등으로 등급이 나누어졌고, 각자 능력에 맞게 회비를 납부했다. 상인들의 충성도가 높아 체납자는 하나도 없었던 수원상업회의소는 조선 내 각 상업회의소를 위시하여 일본에 있는 50~60곳의 상업회의소와 교류하였다.⁴

1910년부터 「조선상업회의소령」 공포에 의해 해산되기 직전인 1915년까지 수원상업회의소의 1년 경비는 1910년 946원, 1911년 1,100원, 1912년 1,306원, 1913~1915년 1,380원 씩이었다.

〈표 2〉 1912~1915년 전국 상업회의소 현황⁵

명칭	의원		회의건수		선거		경비(원)				설립연월
	보통	특별			선거권자	피선거권자	1912	1913	1914	1915	
원산상업회의소	40		4	23	164	59	935	1,345	1,035	685	1900. 3.
인천상업회의소	24	2	4	7	150	50	957	849	971	650	1905. 3.
북청상업회의소	40	8	17	17	85	43	360	140	150	140	1905. 5.
경성상업회의소	50	8	13	45	700	700	3,891	7,520	7,520	6,552	1905. 7.
김천상업회의소	14	43	6	14	93	168	424	424	230	1,200	1906. 3.
대구상무소	30	4	16	28	250	100	260	360	1,020	1,100	1907. 7.
개성상업회의소	40	6	3	14	160	105	810	1,309	900	1,054	1907.10.
평양상업회의소	18		20	50	352	352	450	483	856	465	1908. 3.
수원상업회의소	13	4	9	13	40	30	1,306	1,380	1,380	1,380	1908. 4.
부산상업회의소	20		11	34	88	36	1,588	1,700	1,633	1,690	1908. 8.
진남포상업회의소	30	10	54	100	97	78	3,770	2,299	1,770	2,000	1908.12.
의주상업회의소	15		24	58	150	150	106	357	300	458	1910. 3.
강화상업회의소		11	8	11	125	125	130	130	140	210	1910. 5.
함흥상업회의소	30	10	32	56	100	50	396	590	542	542	1911. 3.
총계	364	106	221	470	2,554	2,091	15,383	18,886	18,447	18,126	

3 『황성신문』, 1904년 11월 25일, 3면.

4 「모범될 수원상의」, 『매일신보』, 1914년 12월 22일.

5 수원상의사편찬위원회, 『수원상의사(水原商議史)』, 수원상공회의소, 1986, 597쪽 참조. 의원, 회의건수, 선거 상황은 1908년 기준이다. 피선거권자의 총계가 각 상공회의소 피선거권자수와 일치하지 않으나, 정확한 수치를 확인할 수 없어 자료에 기재된 대로 기록하였다.

1915년 7월 15일 「조선상업회의소령」이 공포되면서 전국적으로 조선인 상업회의소와 일본인 상업회의소가 통합되었다. 양측 상업회의소를 통합하려면 먼저 각기 청산 절차를

〈표 3〉 조선인 상업회의소 운영⁶

회의소명	구분	의원수	특별의원수	회의횟수	의사건수	선거권자	피선거권자	재정규모(원)		
								1913	1914	1915
경성상업회의소		50	9	13	45	890	890	2,812	6,090	6,552
인천상업회의소		24	2	4	7	150	50	839	971	650
개성상업회의소		40	6	3	14	100	60	643	900	1,054
수원상업회의소		23	4	9	13	60	40	1,380	1,380	1,380
강화상업회의소		11		8	11	224	224	144	210	210
대구상무소		25	2	16	28	220	120	491	1,020	1,100
김천상업회의소		20		6	14	210	210	230	1,181	1,200
부산상업회의소		20	5	11	34	114	56	1,681	1,569	1,690
평양상업회의소		18		20	50	300	200	450	465	465
의주상업회의소		150	22	24	58	80	80	350	450	458
진남포상업회의소		30	10	54	100	79	61	2,409	1,870	2,000
원산상업회의소		40		4	23	110	70	822	986	685
함흥상업회의소		30	10	32	56	100	50	542	542	542
북청상업회의소		40	8	17	17	85	85	480	150	140
계		521	78	221	470	2,722	2,196	13,201	17,784	18,126

〈표 4〉 일본인 상업회의소 운영⁷

회의소명	구분	의원수	특별의원수	회의횟수	의사건수	선거권자	피선거권자	재정규모(원)		
								1913	1914	1915
경성상업회의소		32	3	23	42	261	177	6,797	9,656	9,684
인천상업회의소		24	1	38	58	359	315	5,322	6,777	6,594
군산상업회의소		10	1	29	75	101	101	1,873	1,544	1,449
목포상업회의소		16	2	20	65	113	101	5,939	7,571	6,315
대구상업회의소		12	4	45	78	205	194	2,272	2,741	2,588
부산상업회의소		22	3	25	109	224	185	7,862	8,213	7,809
마산상업회의소		20	4	34	74	152	152	1,197	1,621	1,531
진남포상업회의소		18	4	35	30	185	115	3,683	5,080	4,372
평양실업협회		29		18	50	59	59	600	960	1,440
원산상업회의소		20		36	75	178	114	7,486	7,710	7,343
청진상업회의소		12	1	12	31	40	39	1,186	1,016	1,209
계		215	23	315	687	1,877	1,552	44,217	52,889	50,334

6 대한상공회의소, 『상공회의소 100년사』, 1984, 70쪽에서 재인용.

7 대한상공회의소, 『상공회의소 100년사』, 1984, 70쪽에서 재인용.

거쳐야 했는데, 해산에 적극적인 일본인 측과는 달리 반강제적으로 해체되는 조선 측 상업회의소의 청산 과정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조선총독부 조사자료를 근거로 1915년 12월 말 현재 조선인 상업회의소와 일본인 상업회의소의 현황을 각기 살펴보면, 의원수에서는 조선인이 일본인의 2배인 반면 예산액에서는 일본인 상업회의소가 조선인 상업회의소보다 3배 정도 많았다.

일본인 상업회의소는 일찍부터 일제의 조선지배정책을 측면에서 도왔다.⁸ 그런데 당시 일본 측 입장에서 보면 이제 식민지가 된 마당에 조선과 일본의 상업회의소가 각기 있어 통일되지 않은 것은 매우 불편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또한 조선을 경제적으로 예측시키기 위한 중요 식민기구로서 이전과는 다른 형태의 상업회의소 구성은 급무이기도 하였다. 그 결과 통합회의소의 설립을 적극 추진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당시 경성상업회의소 부회두였던 예종석은 새롭게 “내선(內鮮)을 깨기 위한 일환”이라고 회고한 바 있다.⁹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총독부는 양측 상업회의소의 통합을 직접 지시하였다. 1915년 10월 1일 「조선상업회의소령」 시행 직후 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는 하라다 긴스스케(原田金之祐)와 한상룡을 불러 신·구 회의소의 인수인계를 원만히 수습할 것을 명하였다.¹⁰

1915년 7월 「조선상업회의소령」이 공포되자 각지의 상업회의소는 기구와 임원을 재편하는 한편 총독부 당국에 인가 신청을 위한 준비에 착수하였다. 서울과 인천 같이 조선인과 일본인들이 긴장관계를 가지면서 활동하던 곳은 각자의 기구를 해산하고 다시 기구와 인원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재편되었다. 일본 상인의 활동이 우세하던 군산이나 대전·청진 같은 곳은 임원과 운영체계를 일부 재편하는 방향에서 그쳤다. 반면 조선 상인들이 우세하였던 평양이나 개성은 통합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있었다.

각 지방별 상업회의소가 설립되기까지의 사정과 특성을 간략히 정리하면 <표 5>와 같다.¹¹ 그런데 기존의 회의소를 해산하고 새롭게 설립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과거의 회의소를 계승하여 정관을 일부 변경하고 상업회의소 설립을 수속하는 지역도 있는 등 지

8 이에 대해 다나카(田中麗水 : 田中市之助)는 “크게는 일청·일로 양 전역을 맞아 제국의 외교 군사상 다사다난한 그 사이에 처하여 채류방인(在留邦人)의 발전과 경제적 근거를 쌓기 위하여 각 회의소가 국책에 순응하여 위험과 불안을 무릅쓰고 조선 개척 경영에 헌신적 분투 노력”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田中麗水 編, 『全鮮商工會議所發達史』, 釜山日報社, 1936, 121쪽).

9 『경성상공회의소이십오년사』, 135쪽.

10 한상룡은 총독부의 「조선상업회의소령」 발표 이후 “조선우선사장(朝鮮郵船社長) 하라다 긴스스케(原田金之祐) 씨 및 내가 데라우치(寺內) 총독에 불려가 양 회의소를 해산하고 새 회의소의 설립 알선을 하라고 명을 받았다.”고 회고한 바 있다(한익교 편, 『韓相龍君を語る(第一卷)』, 韓相龍氏遷曆紀念會, 1941, 147쪽).

11 조재근, 「일제강점 초기 상업기구의 식민지적 재편 과정 - 1910년대 상업회의소와 조선인 자본가」, 『한국문화』 31집, 2003, 263-264쪽.

〈표 5〉 지역별 상업회의소 개편과 특성¹²

명칭	통합시기	개편과정	운영주체	비고
경성상업회의소	1915년 12월	1887년 일본인이 상업회의소 설립 1896년 조선인이 한성상업회의소 설립 1905년 재발족 1915년 10월 설립인가 신청 1915년 11월 평의원 선거	공동 운영	1918년 9월 조선상업회의소연합회, 만선상업회의소연합회 조직
인천상업회의소	1916년 1월	1885년 일본인이 상업회의소 설립 1885년 조선인이 객주상회 설립 1897년 1월 인천신상협회 조직 1905년 조선인이 상업회의소 설립	공동 운영	러일전쟁 시 전지(戰地) 조사 보고 1915년 시정5주년기념 총독 공로상
개성상업회의소		1907년 9월 개성상업회의소 설립 1915년 「조선상업회의소령」 발표로 해산 1916년 3월 설립인가 신청, 5월 반려	조선인 주도	1931년 7월 개성상공회의소 설립
군산상업회의소	1916년 5월	1907년 5월 일본인이 상업회의소 설립 1907년 조선인이 군산객주회(群山客主會) 명의로 활동	일본인 주도	1930년 11월 군산상공회의소로 개칭
목포상업회의소	1916년 6월	1898년 조선인이 목포객주회(木浦客主會 : 土商會) 설립 1899년 일본인이 상업회의소 설립 1913년 제1회 전남실업연합회 개최	일본인 주도	1912년 부속기관으로 상공연구회 설립
청진상업회의소		1908년 일본인이 청진상화회(淸津商話會) 결성 1909년 청진상업회의소로 재구성 1915년 '시기상조'를 이유로 폐쇄	일본인으로 구성	1930년 11월 청진상공회의소로 인가 활동
원산상업회의소	1916년 5월	1881년 2월 일본인이 (원산)항회의소 설립 1881년 10월 거류민총대역소와 상법회의소로 분립 1882년 조선인이 원산상의소 설립 1891년 재원산진 일본인 상업회의소 설립 1908년 8월 원산상업회의소로 개칭	공동 운영	
평양상업회의소	1916년 5월	러일전쟁 이전에 일본인이 평양일본인상화회 결성 1906년 조선인이 평양상업중의소 설립 1907년 평양상업회의소 설립 1912년 평양실업협회 설립	조선인 주도	
진남포상업회의소	1916년 6월	1907년 5월 일본인이 상업회의소 설립 1908년 12월 조선인이 진남포삼화상업회의소 설립	일본인 주도	

12 田中麗水 編, 『全鮮商工會議所發達史』, 釜山日報社, 1936, 9-33쪽; 『매일신보』, 1911년 1월 19일; 『매일신보』, 1911년 9월 22일; 『매일신보』, 1914년 12월 22일; 대한/서울상공회의소, 『상공회의소구십년사(상)』, 1976, 82쪽; 대한상공회의소, 『상공회의소백년사』, 1984, 62-64쪽을 참조.

명칭	통합시기	개편과정	운영주체	비고
대구상업회의소	1916년 5월	1906년 조선인이 대구민회소 설립 1906년 12월 일본인이 상업회의소 구성 1907년 대구상무소 설립 1908년 9월 대구상업회의소로 개칭 1910년 조선인과 일본인이 연합으로 대구상업회의소 설립	공동 운영	
부산상업회의소	1916년 3월	1879년 일본상인항회의소 설립 1889년 조선인이 부산객주상업회사 설립 1893년 1월 부산항일본인상업회의소로 개칭 1908년 부산상업회의소로 개칭 1908년 동래상업회의소 설립 1910년 부산조선인상업회의소로 개칭	공동 운영	조선에서 일본인 상업회의소의 효시 1905년 전일본상업회의소연합회 가입
수원상업회의소		1908년 4월 조선인이 상업회의소 설립 1916년 4월 해산	조선인 주도	1910년 5월 상업회의소 산하에 상업강습소 부설 1941년 12월 수원상공회의소 설립인가

역 사정에 따라 각기 달랐다.¹³ 평양과 부산·군산은 반려 후 다시 제출케 하여 설립을 인가하였고, 청진은 “상공업의 발달이 아직 이에 이르지 못한다.”는 이유로 반려되었다.¹⁴ 그 외에 대전·개성·함흥 등 여타 지역의 상업회의소는 임의단체로 활동하면서 계속해서 인가신청서를 총독부 당국에 제출하였고, 1930년 5월 「조선상공회의소령」 제정 이후에 설립이 다시 인가되었다.

「조선상업회의소령」은 대부분의 조선인 상공업자들을 배제하고 상업회의소를 일본인 위주로 구성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를 위해 총독부는 상공업상의 권한을 제한하고 감독함으로써 상업회의소를 일제의 경제정책에 순응하도록 하였다.¹⁵ 한편 1915년 당시 군·면 단위에 존재한 조선인 상업회의소는 개성상업회의소, 수원상업회의소, 강화군상업회의소, 김천상업회의소, 함흥상업회의소, 북청상업회의소 등 6개로 이들은 모두 해산될 운명에 있었다.¹⁶

전통적으로 조선인들의 경제적 기반이 강력하여 조선인 상업회의소가 존재하고 있던 지역은 상업회의소의 설립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상업회의소는 다

13 『매일신보』, 1916년 2월 3일.

14 『매일신보』, 1916년 6월 14일.

15 전성현, 「일제초기 '조선상업회의소령'의 제정과 조선인 상업회의소의 해산」, 『한국사연구』 118집, 2002, 96-97쪽.

16 「상업회의소표(商業會議所表)」, 『조선총독부관보』, 1915년 7월 6일.

른 임의단체로 변경하지 않으면 해산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정황상 수원상업회의소는 스스로 해산한 것으로 보인다.¹⁷ 당시 수원에는 일본인 상업회의소가 없었기 때문에 일본인들과 통합해야 할 까닭이 없었지만, 새로운 법령에 근거하여 새로운 형태의 상업회의소를 만들기에는 조건이 부합되지 못하였다.

「조선상업회의소령」이 공포된 지 9개월 만인 1916년 4월 수원상업회의소는 해산되었다. 원래 수원에는 일본인의 상업회의소가 없었다. 1908년 4월 조선인 중심의 상업회의소가 운영된 이후 계속 활동하고 있었다. 이 지역의 실업가들이 3,000여 원을 각출하여 수원부 내에 상업회의소를 건축하고, 회원 200여 명이 형편에 따라 각기 50전~3원의 회비를 내어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상업회의소는 초기부터 자신들의 입장을 크게 펼치지 못하고 일본인이 주도하는 새로운 상업회의소 체제로 흡수되어 갔다. 이후 1930년 4월 19일 「조선상업회의소령」을 「조선상공회의소령」으로 개정된 근거에 따라, 1941년 12월 26일 일본인과 합작한 수원상공회의소가 인가되고 1942년 4월 1일 설립될 때까지 25년 이상의 공백기를 갖게 되었다.¹⁸

2. 수원실업협회의 설립과 운영

1) 수원실업협회의 운영

수원상업회의소가 해산된 후 조선 상공업자와 일본 상공업자는 합동으로 1923년 8월 2일 수원실업협회(水原實業協會)를 창립하여 수원 실업단체의 명맥을 유지하였다. 창립 과정을 보면 “수원에 아직 통일적 상공업자에 대한 기관이 없음으로 근래 소극적 폐풍(弊風)이 생길까 하여 개선향상을 도(圖)할 목적으로 수원실업협회를 설치하였는데 지난 25일 오후 7시에 수원학교조합사무소에서 각 정(町) 대표 50여 명이 화합”¹⁹하여 김진중(金進重), 안홍렬(安弘烈) 외 4명을 규약기초위원으로 선정하였다. 이와 관련해 1923년 사카이 마사노스케(酒井政之助) 저술의 『수원(水原)』에는 “상공업의 향상 활약에 노력하는

17 『매일신보』, 1916년 3월 29일; 전성현, 『일제시기 조선 상업회의소 연구』, 도서출판 선인, 2011, 67쪽.

18 수원상의사편찬위원회, 『수원상의사(水原商議史)』, 수원상공회의소, 1986, 609쪽.

19 「수원실업협회 창립」, 『조선일보』, 1921년 8월 30일.

기관으로 근래 실업협회(實業協會)라는 것이 조직되어 회두 1명, 부회두 2명, 상의원 5명, 평의원 20명, 기타 상담역, 법률고문 등을 두고, 이들 역원들이 일치 협력해 활동 중이기 때문에 상세(商勢)도 날과 달을 더해 진전하여 가까운 장래에 전선(全鮮) 유수의 상업지가 될 것이다.”²⁰라고 서술되어 있다.

수원실업협회는 1921년 8월 25일 창립을 위한 준비가 시작되었으나 그로부터 2년 후인 1923년 7월 26일이 되어서야 처음 발기인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지난 26일 오후 9시부터 수원공회당 내에서 실업협회 발기회를 개최하였는데 이 회의는 수원에 거주하는 조선인이거나 일본인을 물론하고 실업에 종사하는 인사로서 상호 친목을 도모할 뿐 부당(不當) 타 업주의 진흥발전을 기망(期望)하여 조직할 필요가 확유(確有)하다 하여 이를 지각한 분은 다단입회(多斷入會)하기를 바란다더라.²¹

수원실업협회는 1923년 8월 2일 창립총회를 개최하면서부터 정식 발족하였다. 이날 오후 1시부터 수원공회당 내에서 총회를 개최하여, 회비 제정과 임원 선거를 행하였다. 회비는 1명당 평균 5원으로 하고 수입 비례 혹은 균일제로 의논이 분분하였으나 결국은 1명이 1년에 5원씩 균일하게 2기에 나누어 납부하도록 하였다. 임원은 회두 1명, 부회두 2명, 상의원 5명, 평의원 20명으로 정하여 선거한 결과 회두에 곤도 도라노스케(近藤虎之助), 부회두에 한상봉(韓相鳳)과 가야마 히로시(香山弘)가 당선되었다. 상의원은 5명 중 3명을, 평의원 20명 중 11명을 조선인으로 선정할 것과 상의원 2명과 평의원 9명을 일본인으로 선정할 것만을 의정하고, 선거권을 회두와 부회두에게 일임한 뒤 오후 7시경 산회하였다. 이어 8월 5일 오전 9시부터 발기인 4명이 입회하여 상의원으로 홍경섭, 권태동, 김세환, 유아사 이해이(湯淺伊平), 아오키 다메이치(青木爲一)를 평의원으로 최익환, 차동린, 홍사□, 김현동, 이완선, 박경근, 차남순, 김종권, 안순복, 박승욱, 안홍렬 등을 선정하였다. 단 일본인 측의 평의원은 미정으로 남겨 놓았다. 그리고 8월 13일 오후에 역원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²²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수원실업협회가 창립되었으나 당시 수원의 상공업계는 큰 발전을 보지 못하였다. 이는 식민지 현실에서 조선인들의 활동이 약할 수밖에 없었고, 협회 또한 공동운명을 표방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일본인 주도로 운영되었던 데 큰 원인이

20 酒井政之助, 『水原』, 1923, 50쪽.

21 「실업협회 발기회」, 『조선일보』, 1923년 7월 31일.

22 「수원실업협회 총회」, 『조선일보』, 1923년 8월 13일.

있었다.

당시 조선일보사 수원지국 기자가 쓴 장문의 보고를 통해 그 같은 사실을 생생히 알 수 있다.²³ 그는 조선인의 활약무대가 되어야 할 상업의 중추지대는 일상(日商)의 독무대가 되었고, 조선인은 구석지대로 몰리고 빼앗겨서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으며, 그나마도 중국 상인이 잠입하여 이곳저곳에서 상권(商權)을 부식 신장하고 있기 때문에 수원의 조선인 상공업자는 오직 도태와 파멸밖에 없다고 탄식하였다. 1926년 제1분기 수원 시가지의 조선인과 일본인의 세금납부액을 비교해 보면 일본인은 168명에 665.63원이고 조선인은 997명에 874.06원이었다. 납부인수와 액수의 비례를 보아도 차이가 확연하였다. 이 상태로 나간다면 불과 몇 년 안에 우리 상인들은 완전히 구축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기자는 생존을 위해서는 경제권, 즉 '상권'을 회복하여야 하며 수원 상계의 진흥은 수원 인사 전반의 노력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일본 상인들은 배후에 거대한 재벌적·정치적 보호가 있기 때문에 그들과 경쟁하여 상품을 판매하기 어려우니, 토산 장려와 우리 물품 구입으로 이를 해결할 것을 제시하였다. 기자는 수원실업협회가 있지만 조선인과 일본인의 혼합단체이므로 조선인으로서 하등의 기대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단체를 조직하여 조선인들의 발전을 도모하고 개인의 소자본을 집합하여 다수의 생산판매 등의 기관을 경영하자고 제안하였다. 결국 수원실업협회로서는 수원 조선인 상공업계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다.

수원실업협회는 창립 이후 해마다 1회씩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그중 몇몇 총회를 살펴보면 우선 1928년 제6회 정기총회는 일본인 회두 가야마 히로시(香山弘)의 사회로 개최하여 수원 발전책 현상공모안을 심사하여 선정하였고, 회두의 지명으로 일부 임원을 교체하였으나 대부분 유임되었다. 수원 발전책으로는 농과대학 설립(당시의 수원고농을 승격시키는 안도 포함), 전기회사 확장, 시장합병 등이 유력한 것으로 보도되었다.²⁴ 1934년 4월 26일 오전 11시 수원실업협회는 수원 공회당에서 제12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회무 보고와 회계보고를 한 뒤 임기만료된 평의원에 홍사선 등 8명을 다시 선출하였다.²⁵

1937년 4월 27일 수원실업협회 제15회 정기총회가 수원공회당에서 개최되었다. 주요 안건은 임기 만료에 따른 임원 전원의 개선이었는데, 조선인 회두 최재엽은 유임되고, 부회두에 정성제대 영문과 출신 차준담을 선출하였다. 이때 선출된 임원들은 다음과 같다.²⁶

23 「지방만필 水原商界相 자위책을 강구하자. 수원지국 일기자, 『조선일보』, 1927년 6월 18일.

24 「수원실업정총, 『동아일보』, 1928년 4월 30일.

25 「수원실업협회 정총, 『조선중앙일보』, 1934년 4월 29일.

26 「수원실업협회 정기총회 성황, 『매일신보』, 1937년 5월 2일.

〈표 6〉 1937년 수원실업협회 임원

직위	성명
회두	최재엽(崔在聶)
부회두	차준담(車濬潭), 곤도 다이키치(近藤泰吉)
상의원	오자키 히데하치(尾崎秀八), 사카테 요시오(坂手芳夫), 오타 겐이치(太田源市), 마스다 다케오(増田武雄), 니시자와 겐아이(西澤賢愛), 데라사와 스테사부로(寺澤舎三郎), 양규룡(梁奎龍), 정원표(鄭元杓), 김응덕(金應德), 김학배(金學培)
평의원	아사노(淺野種次郎), 최동(崔嶮), 이소구켄조(磯口建藏), 이연(李淵), 하기노 시케타(萩野茂太), 박승근(朴勝根), 아오키 다메이치(青木爲一), 이용성(李容成), 이다 스에히사(飯田未久), 이승화(李承和), 가모 마고시로(加茂孫四郎), 함석중(咸奭鍾), 야스다 마사오(安田正男), 윤택식(尹宅植), 소에지마 기이치(副島儀一), 홍창유(洪昌裕)
상담역	이완선(李完善), 이가와 고타로(井川好太郎)

수원실업협회는 1938년 5월 20일 오후 4시부터 경전(京電) 수원지점 2층에서 회두 최재엽 사회로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때 회칙 제12조를 만장일치로 변경하였는데 1개년 회비금 2원이었던 것을 삭제하고 특별회원 1급은 10원, 2급은 5원, 통상회원은 2원으로 변경하는 것이었다.²⁷ 1939년 4월 28일 상오 11시 방화수류정 앞 화홍문 누상에서 제17회 정기총회를 열고 1년간 사업보고와 회계보고가 있는 후 회두 최재엽, 부회두 곤도 다이키치(近藤泰吉), 차준담, 상의원 사카테 요시오(坂手芳夫) 외 9인, 평의원 이연(李淵) 외 15인의 임원을 선정하였다.²⁸

수원실업협회는 1936년 5월 10일 화성학원운동장에서 개최된 수원체육회 주최 수원시민대운동을 수원기자단, 수원시포목상조합, 수원곡물협회 등과 함께 후원하였다.²⁹ 1938년 6월 12일 수원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된 제10회 수원시민대운동회도 같은 방식으로 후원하였다.³⁰

그러나 이 시기는 중일전쟁에서 태평양전쟁으로 확대하는 시기였고 수원실업협회 역시 조선총독부의 침략전쟁에 적극 협조한 사실이 확인된다. 조선 각지에서 관제 배영운동(排英運動)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수원에서는 7개 신문지국, 수원동지구락부, 수원실업협회, 수원화교공회 공동주최로 1939년 6월 19일 오후 7시부터 경전광장(京電廣場)에서 배영대회를 열었다. 이때 연사로 전 대의사 노미조 덴이치로(野溝傳一郎)와 수원실업협회 간부 유아사 이헤이(湯淺伊平), 최경환, 홍길선이 참여하였다.³¹ 또한 같은 해 12월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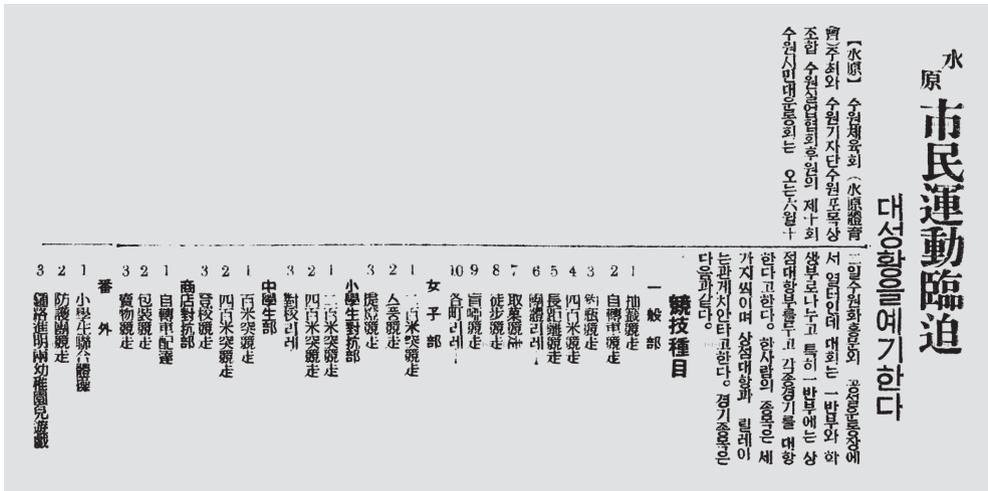
27 「수원실업협회 임시총회 개최」, 『매일신보』, 1938년 5월 23일.

28 「수원실업협회 정기총회 개최」, 『조선일보』, 1939년 5월 2일.

29 『동아일보』, 1936년 4월 29일.

30 「제10회 수원시민운동」, 『동아일보』, 1938년 6월 4일.

31 「각지에서 '打倒暴英' 수원서 배영대회 금 19일 오후 7시」, 『조선일보』, 1939년 6월 20일.



수원실업협회가 후원한 제10회 수원시민대운동회(『동아일보』, 1938년 6월 7일)

일 오전 10시 수원신사에서 수원실업협회 주최로 수원상공업자 경제보국 선서식을 거행 하였다. 이때 신전에 옥관(玉串)을 봉납하고 궁성요배, 국가합창, 묵도, 최재엽 회두의 식사와 선서문 낭독, 수원군수 허섭과 수원읍장 우메하라(梅原)의 축사가 있었고 황국신민 서사 제송, 만세삼창, 국기강하 등의 순서 후 산회하였다.³²

2) 수원상업강습소의 운영

1910년 5월 수원상업회의소에서는 “상업에 관한 지식기능의 강습을 목적”으로 별도의 경비를 마련하여 수원 성내에 수원상업강습소를 부설 운영하였다.³³ 상업강습소는 1914년에 이르기까지 110명의 생도에게 국어, 산술, 상법, 무기 등 상업에 필요한 학문을 교수하였다. 이 지역 자본가 32명은 2,100여 원을 내어 상업강습소 부설 직물공장을 설치하여 강습소 학생에게 실적에 따라 35~50전의 일당을 지급하였다. 1년 동안 순수익만 1,000여 원에 이르렀는데, 3년 동안 그 반액은 강습소의 기부금으로 기부하였다.³⁴

수원강습소는 실업 관련 교육을 하면서 암암리에 구국독립사상과 정신을 함양시켰다.

32 「경제보국선언식 수원실업협회 주최로」, 『조선일보』, 1939년 12월 23일.

33 「상업강습소 개혁」, 『동아일보』, 1922년 1월 27일.

34 「모범될 수원상의」, 『매일신보』, 1914년 12월 22일.

실제로 강습소에서 교편을 잡았던 교사 이규재, 최상훈, 정준화, 윤용희, 김노적, 최철원, 김웅백, 김세환, 최창규, 김용묵 등은 민족운동가로서 1919년 3·1운동을 전후해서 괄목할 만한 활동을 하였다. 특히 교사 김세환과 몇몇 학생들은 1919년 3·1운동 때 수원 지역의 독립운동을 주도한 바 있다.³⁵

수원상업회의소가 「조선상업회의소령」 공포 이후 1916년 해산되자 상업강습소 운영은 자금난으로 난관에 봉착하였다. 그럼에도 일부 유지들의 열성으로 주학(晝學)과 야학(夜學) 각 과에 다수 학생을 수용하여 교수하면서 겨우 유지되었다. 그러던 중 1922년 무렵 상업강습소는 화성학원(華城學園)으로 변경하고, 학령 과만자(過滿者)도 제 학교 입학 준비 또는 간이한 보통과정의 학식을 수학케 하는 방향으로 재구성하고자 하였다. 새로운 안에 따르면 주학으로는 보통과, 중등과, 고등과를 두고, 야학에는 초등과와 전수과를 두되, 교육내용을 충실히 하기로 했다. 당시 수원상업강습소는 교사로 이규재(李圭宰), 최상훈(崔相勳), 정준화(鄭駿和), 윤용희(尹龍熙) 등이 재직하였고 이들에게 교육받은 학생이 160여 명에 달하였다고 한다.³⁶ 그러나 화성학원으로의 개편 움직임은 시간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당분간 강습소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운영되었다.

『동아일보』 1921년 3월 17일자 기사에 따르면 강습소에서 주간과 야간 신입생을 보통과(주간) 80명, 본과와 초등과(야간)는 60명씩 모집하였는데, 본과는 보통학교 졸업 이상이어야 입학자격이 주어졌다.

이렇게 강습소를 어려운 상황에도 유지한 결과 1923년 3월 22일에는 제7회 졸업식을 거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같은 사정은 다음의 신문 기사를 통해 살필 수 있다.

상업회의소가 해산하게 됨을 따라 동 강습소도 존폐에 방황하였으나 원래 유지인사가 희박하고 단지 돈만 생각하는 수원사람이라 우리 조선 사람의 교육기관이라고는 적어도 3,000여 호와 만여 시민이 거주하는 수원에 오직 하나인 고독한 이 강습소가 유지에 곤란함을 알면서도 하등의 방침은 고사하고 방관할 따름이라 이리하고야 어찌 귀여운 자질(子姪)에게 원만한 교육을 보급케 하리오. 이것을 개탄히 여기는 교사 제씨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무릅쓰고 유지하기로 단결하고 소소한 백백한 개라도 절약하여 비경의 운명이 조석에 있던 동소를 팔년의 긴 세월을 유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겨울이 되면 난로불도 완전치 못한 중에 살을 에이는 듯한 모진 바람도 능히 막지 못하고 얼은 손만 부비면서 주야를 불개하고 백역의 어린 학생을 가르치며 추위에 못 견디어 덜덜 떨고 손이 얼어 연필도 들지 못하는 한 어린 학생에게는 뜨거운 피눈물로 몸을 덥게 하다 심히 하던

35 이창식, 『수원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수원문화원, 2003, 300~301쪽.

36 「상업강습소 개혁」, 『동아일보』, 1922년 1월 27일.

바 작년에는 학생의 수요가 부쩍 늘어서 지금은 삼백여 명에 달한다는데 원래 교실이 협착하나 늘릴 여망이 없어 사방으로 방황하더니 삼작 22일 상오 11시부터 동소 대강당에서 보통과 제7회 졸업식을 거행 …… 나의 할 일을 아니 하며 남에게만 미루고 등한히 방관하는 수원의 소귀 유력가를 원망하는 동시에 교사 제씨의 열성과 인내력에는 탄복함을 마지 아니 하겠으며 이번의 졸업생은 신인복 군 외 25명이라더라.³⁷

한편 수원상업강습소에서는 1923년 10월 27일에 수원청년구락부 운동장에서 추계운동을 개최하였다. 또한 1925년 2월 26일 10시에 보통과 제9회, 초등과 제2회 졸업식을 거행하였는데 졸업생은 이병극 외 25인이었다. 한편 신입생도 3월 21일까지 모집하여 보통과에는 보통학교 6년제를 3년으로 단축하여 학령 과만자를 취용(取容)하고 예비과에는 보통학교에 입학하기 어려운 아동을 수용하였다. 야학 초등과는 무산가정의 자녀를 위하여 월 전등료(電燈料) 10전씩만 징수하였다.³⁸

3) 화성학원의 운영

수원상업강습소는 1926년 5월 화성학원(華城學園)으로 개편하고 당국의 인가를 얻었다. 『동아일보』 1927년 1월 17일자에 따르면 설립 당시 화성학원은 수원 부호 홍사훈(洪思勳)의 지원과 교사 윤용희 등의 노력으로 운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기관이 변변치 못하고 내용이 충실치 못하다고 남들은 웃을지 몰라도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힘으로 경영해 나가는 오직 하나뿐인 교육기관이다. …… 대정 4년(1915)에 공포된 조선상업회의소령에 따라 수원상업회의소가 폐지하게 됨에 동교는 폐교의 비운에 빠졌다. 당시 선생이던 윤용희 씨 외 몇 분이 보수도 없이 교편을 잡는 등 열성 탓으로 다시 상업강습소를 주학(晝學)으로 증설하였다. 그 수고가 헛되지 않아 작년(1926) 5월에 화성학원(華城學園)이란 교명으로 당국의 인가를 얻었다. 현재의 학생수는 야학생이 240명, 주학생이 190여 명에 달한다. 재정문제는 수원청년회장인 홍사훈 씨가 일부를 부담하여 그럭저럭 유지해 나간다.

개명된 화성학원은 1927년에 오전, 오후, 야간 3부로 나누어 무산아동 400여 명을 수용하여 교수하였고, 그해 여름에는 후원회를 조직하여 회원을 모집하였다. 그러나 후원회원 모집 과정에서 수원 부호 이한승(李漢承)은 그를 방문한 사람에게 “누가 하라는 일들

37 「수원상업강습 졸업 급근히 지내오며 제7회 졸업까지」, 『조선일보』, 1923년 3월 28일.

38 「水原 商講 졸업식」, 『조선일보』, 1925년 3월 20일.



1927년 화성야학회 수료기념(수원고등학교 소장)



1930년대 화성학원 운동회(수원고등학교 소장)

을 하느냐, 학교가 더 있어야 필요할 경우면 책임당국에서 어렵히 하려고. 그런 학교는 없어도 좋다. 공영히 내가 까닭 없는 채무자 노릇 한다 말이나.” 며 냉담하게 거절하였다.³⁹

화성학원은 이듬해인 1928년 초에 이르면 보통과 230명, 오후과 여자 120명, 야학과 남녀 100여 명 등 모두 450여 명의 아동을 교육하게 되었다. 또한 1927년 4월 15년간 학원의 교사로 활동하다가 노령으로 사직한 학원장 윤용희의 후임으로 부호 홍사훈이 직접 참여하였고, 윤용희 또한 다시 학원감으로 취임하였다.⁴⁰ 이어 홍사훈은 1930년 1월 16일 화성학원유지회를 만들고 회장 홍사훈, 부회장 이길태, 평의원에 유하영 외 6명으로 임원진을 구성하였다. 유지회는 1만 235원의 기금을 마련하고, 화성흥한주식회사에 위탁하여 매달 100원씩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1930년 1월 23일자 『동아일보』에 실린 기탁자와 기탁금은 다음과 같다.

홍사훈 2,000원, 양성관 1,000원, 차유순 700원, 윤태정·송병욱 400원, 차태익·안영태·윤용희 200원, 이길태 150원, 김세원 120원, 박경근·이성의·이경의·이완선·임경찬·윤태인·한광석·김행권·홍철후·윤태중·화성권변 100원, 이동근 70원, 박일룡·신현익·유하영·권태동·시내자동차회사·엄주철·최혁래·홍인권·홍사선·안순복·이성연·오찬영·이정규·심원명·윤병순·차주순·김용식·남권희·박승욱·전근재·구경희·이한승 50원, 최선용·김세환·최□·홍사안 40원, 홍종환·최경우·윤택영·안영순·이상숙·박선태·윤봉섭·조한교·이창용·최익환·안거복·김영준·구연필·정태설·윤면후·윤달용·최원익·안홍열 30원, 신채균·김진수·서정옥·이진영·차재윤·조응순·최성운·한희·심순백·박동훈·한익교·차원성·이옥래·김병호 20원, 김주문·이우상 15원, 권운강·주영식·최송 5원.⁴¹

3. 수원상공회의소의 창립과 활동

「조선상업회의소령」이 공포된 1915년 7월 이후 식민지 현실에 따라 상업회의소 체제는 일정 기간 지속되었다. 그러나 상업회의소에서 상공회의소 체제로 전환한 일본 본토의 변화와 조선총독부의 식민경제정책이 안정세를 유지해 나가는 현실에서 「조선상업회의소령」에 대한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⁴² 그 결과 1930년 새롭게 「조선상공회의소령」

39 「啄木鳥 水原 李富豪에게」, 『조선일보』, 1927년 3월 6일.

40 「수원 화성학원 중학원장 사임 후임 홍사훈 씨」, 『조선일보』, 1928년 1월 24일.

41 「만여 원 기본금 어든 화성학원 서광」, 『동아일보』, 1930년 1월 23일.

42 이 점에 대해 후일 1935년 11월 조선총독부 식산국장 호즈미 신로쿠로(穂積眞六郎)가 언급하였다(田中麗水 編, 「서문」, 『全鮮商工會議所發達史』, 釜山日報社, 1936, 1~2쪽 참조).

을 발표하여 회원의 범위를 넓히고 상공회의소의 권한을 확장하였다. 5월 10일 조선총독 사이토 마코토(齋藤實)가 공포한 「조선상공회의소령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을 보면, 상공회의소 회원으로 합명회사는 사원의 반수 이상, 합자회사 또는 주식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의 반수 이상, 주식회사는 취체역(取締役)의 반수 이상을 일본 신민(臣民)으로 규정하였다(제3조). 이후 법령에는 조선인과 일본인의 특별한 구분을 두지 않았다. 선거규정으로 법인 또는 30세 이상의 남자로서 1년 이상 계속해서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는 평의원을 선거할 수 있게 하였다. 단 합명회사는 사원의 전부, 합자회사 또는 주식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 전원, 주식회사는 취체역 전원이 일본 신민이 되어야만 한다고 규정하였다(제5조). 또한 “청산인이 행위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선총독은 그 행위의 정지 혹은 취소 또는 청산인의 해임을 할 수 있”고(제21조), 청산이 종료될 때 청산인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조선총독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제22조). 이 법령은 같은 해 11월 25일부터 시행되었다.⁴³

그러나 「조선상공회의소령」은 제3조와 제5조에서 규정하듯이 조선인과 일본인을 철저히 구분하여 일본인 중심의 기구로 재편하기 위한 법령이었다. 또한 이 정관은 구 일본인 상업회의소의 정관을 일부 수정한 것에 불과하였다.⁴⁴ 결국 상업회의소를 상공회의소로 재편한 것은 1920년대 이후 조선의 공업화 진전과 일본의 경기침체로 식민지 조선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개척하려는 일본인 자본가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한 것이었다. 1930년대는 조선인 중소상공업자와 상인에게는 위기의 시대였다. 이후 일본인 대상인, 대자본가 중심으로 재편된 상공회의소는 식민지 조선의 신경제체제 구축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하였다.

1930년 11월 「조선상공회의소령」(칙령 제4호)과 「조선상공회의소령 시행령」(부령 제94호) 및 「조선상공회의소령 시행규칙」(부령 제95호)이 공포되자, 수원실업협회는 수원상공회의소 설치를 위해 1931년 조선총독부에 설립인가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신청서를 접수한 조선총독부는 수원읍의 영업세가 1만 원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인가하지 않았고 상공회의소 설치는 좌절되었다. 그로부터 10년 후인 1941년 3월 2일 창립총회, 12월 26일 설립인가를 통해 수원상공회의소가 재구성되었다. 이보다 앞서 수원실업협회는 1941년 1월 20일 회장 이하 9인이 상공회의소 창립에 관한 역원회⁴⁵를 열었고, 다시 2월 24일 경전

43 松村松盛, 「朝鮮商工會議所令の發布に就て」, 『朝鮮』 181, 1930년 6월, 1~5쪽 참조.

44 대한/서울상공회의소, 『상공회의소구십년사(상)』, 1976, 152쪽.

45 경기도 경찰부장, 京高秘 제460호, 「水原實業協會 役員會 開催에 관한 건」, 1941년 2월 22일, 『思想=關スル情報(14)』.

(京電) 수원지점 누상에서 역원회를 개최하여 최재엽(高山在燁) 외 17명이 모여 상공회의소 창립준비에 대한 경과보고를 한 후, 3월 2일 오전 10시 수원공회당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⁴⁶

1941년 3월 2일 창립총회 진행 상황을 보면, 오전 11시부터 읍 공회당에서 아사히카와(旭川) 수원군수, 우메하라(梅原) 수원읍장 및 회원 121명(위임 102명)이 출석한 가운데 최재엽이 의장이 되어 창립총회를 열었다. 식순은 궁성요배, 묵도, 황국신민 선서와 제창이 있는 후 발기인을 대표하여 최재엽이 창립경과를 보고하고 부의사항 신청 이유, 지역 사업의 개요, 사업연도의 수지, 정관 심의에 들어가 회원들의 질의응답 후 창립총회를 끝냈다. 이날 보고된 수원의 경제상황은 다음과 같다. 즉, 행정구역의 확장, 경인선의 개통, 각종 공장의 진출 등에 의해 인구 3만여 명, 상공업 종사자 1,000여 호, 그 거래액만도 1,000만 원을 넘었다. 그리고 공장의 생산고 400여만 원, 예금 4만 원, 대출금 2,000만 원, 어음결제액 1,600만 원, 발착 화물이 46만 5000여 kg에 달하는 놀라운 발전을 가져왔다. 「조선상공회의소령」에 따른 유자격자만도 314명, 세액이 1만 7,451원에 달했다. 당시 언론에서는 머지않아 신청서를 제출하게 될 것인데 읍민의 다년간에 걸친 대망이 실현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가 크다고 적고 있다.⁴⁷

창립총회를 마친 수원상공회의소 창립준비위원회는 같은 달 조선총독부에 설치인가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인가는 지체되었고, 반면 그해 6월 각종의 통제조합, 임의조합, 경제단체 등을 총망라하여 수원군경제통제협회가 창립되었다. 그러던 중 10월 조선총독부는 수원상공회의소에 대한 인가 방침을 천명하였다.

조선총독부는 수원 및 철원의 양지에 상공회의소 설치를 인정하기로 내정하고, 가까운 시일 안에 정식 신청을 받아 인가하기로 했다. 양 회의소가 인가되면 국내의 상공회의소는 28개소가 된다. 또 사리원에서 상공회의소 설치를 결정하고 있어서 인가 신청을 기다렸다가 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다.⁴⁸

결국 1941년 12월 27일 조선총독부는 『관보』 제4478호를 통해 수원상공회의소 설립을 인가하였다. 조선총독부 고시 제2071호의 설립인가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46 경기도 경찰부장, 京高秘 제460호-2, 「水原實業協會 役員會 開催에 관한 건」, 1941년 3월 4일, 『思想=關スル情報(14)』.

47 「자격자는 지금까지 300/창립총회를 열/수원상공회의소 현실로」, 『경성일보』, 1941년 3월 4일.

48 「수원 철원에 상의설치 내정」, 『경성일보』, 1941년 10월 9일.

- 명칭 : 수원상공회의소
- 지구 : 경기도 수원군 수원읍 일원
- 사무소 소재지 : 경기도 수원군 궁정(宮町 : 현 교동) 44번지
- 인가 연월일 : 1941년 12월 26일

이날 조선총독부 고시 제2072호에 따라 수원상공회의소에는 3명의 특별의원을 두었다. 수원상공회의소는 1942년 3월 23일 일반선거를 실시하여 일반의원 19명, 특별의원 3명 도합 22명의 임원을 선출하였다. 선거는 일본 상공인들과 합작한 통합 선거로 이루어졌다. 선거 결과는 정원 22명 가운데 조선인 11명(일반 10, 특별 1), 일본인 11명(일반 9, 특별 2)으로 동수였다. 며칠 후 소집된 의원총회에서 임원 선거를 실시하였다. 당시 수원상공회의소 임원 현황은 <표 7>과 같다.



제창립 당시 수원상공회의소 사무실이 입주했던 부국원(사카이 마사노스케, 『수원』, 1923)

<표 7> 1942년 수원상공회의소 임원⁴⁹

구분	임원
회장	니시자와 겐아이(西澤賢愛 : 주식회사 부국원 사장)
부회장	곤도 다이키치(近藤泰吉 : 곤도인쇄소 사장), 차준담(수원상공주식회사 사장)
상임위원	김학배(수원직물공장 사장), 사카테 요시오(坂手芳夫 : 사카데상점 대표), 임성순(한성은행 수원지점장), 상임위원 미무라 세이이치(三村誠一 : 조선국자 수원지점장)
의원	이광현(화성흥산주식회사 사장), 홍길선(수원양조주식회사 사장), 차재윤(소화직물공장 사장), 조인행(수원주조주식회사 사장), 가모 마고시로(加茂孫四郎 : 가시계백화점 사장), 이승화(삼화상회 대표), 김현정(수원축음기상회 대표), 임병진(삼원상회 대표), 이다 스에히사(飯田末久 : 이다제면소 대표), 아사노 다네지로(淺野植次郎 : 미곡상 대표), 요시우라 히데노부(吉浦英信 : 수원식림종묘주식회사 사장), 나이트 신지(内藤眞治 : 조선경동철도주식회사)
특별의원	양규봉(주식회사 제일사 사장), 도쿠히로 쿠니타로(徳弘國太郎 : 동산농장 조선지점장), 가쿠 에이타로(隔英太郎 : 식산은행 수원지점장)
상임이사	사에키 게이지로(佐伯敬二郎)

49 수원상의사편찬위원회, 『수원상의사』, 수원상공회의소, 1986, 631쪽.



수원상공회의소 초대 부회두 차준담(수원상공회의소, 『수원상공회의소 100년사』, 2008)



수원상공회의소 개소 기념사진(수원상공회의소, 『수원상공회의소 100년사』, 2008)

회두에는 주식회사 부국원(富國園) 사장 니시자와 겐아이(西澤賢愛), 부회두에는 곤도 인쇄소(近藤印刷所) 사장 곤도 다이키치(近藤泰吉)와 수원상공주식회사 사장 차준담(車濬潭)이 선출되었다. 그러나 전반적인 실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는 일본인 사에키 게이지로(佐伯敬二郎)가 선임되어 실질적인 주도권을 장악하였다.⁵⁰ 수원상공회의소의 경비는 1943년 1만 6,368원, 1944년 2만 2,170원이었다.⁵¹

이후 수원상공회의소에서는 다음과 같은 상공업 진흥사업을 추진하였다. 산술개념의 주산 능력 향상을 위한 주산경기대회, 종업원의 사기진작의 하나로 우량종업원 표창식, 상업의 경영력 강화를 위한 상점경영강습회 등을 연차적으로 실시하였다.⁵²

1942년 10월 25일에는 수원상공회의소 주최 제1회 주산경기대회가 매산로 수원공립국민학교(현 매산초등학교) 강당에서 학생부와 일반부로 나누어 개최되었다. 같은 학교에서 1943년 10월 3일 제2회 대회, 1944년 8월 27일 제3회 대회가 개최되었다. 그러나 1944년 9월 수원상공회의소가 해체됨에 따라 3회 대회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의 진전은 없었다.

수원상공회의소 주최 제1회 우량종업원 표창식을 1943년 2월 11일 수원공립국민학교에서 거행하여 수원 읍내의 상공업 종사 종업원 중 우수한 자를 선발하여 시상하였다. 1944년 2월 11일 수원상공회의소 사무실인 부국원 사옥에서 제2회 표창식이 거행되었다.

50 수원상공회의소, 『수원상공회의소 100년사』, 2008, 103쪽.
 51 수원상의사편찬위원회, 『수원상의사』, 수원상공회의소, 1986, 634쪽.
 52 수원상공회의소, 『수원상공회의소 100년사』, 2008, 104쪽.



제2회 주산경기대회 기념사진(수원상공회의소, 『수원상공회의소 100년사』, 2008)



제3회 주산경기대회 기념사진(수원상공회의소, 『수원상공회의소 100년사』,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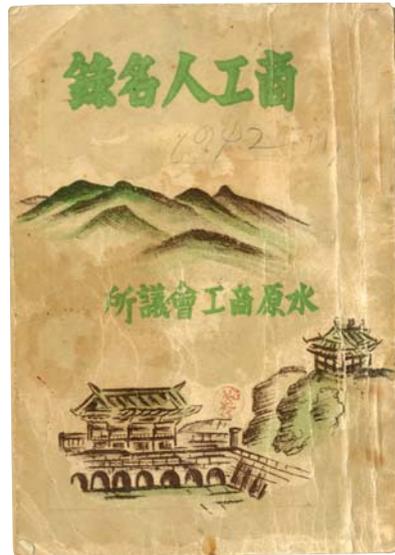
상점경영강습회는 1942년과 1943년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되었다. 이 중 제2회 강습회는 상점주 또는 종업원으로 국민학교 졸업 정도의 남녀를 대상으로 1943년 8월 23일부터 28일까지 수원금융조합 2층에서 개최되었다. 이때 70여 명이 참가하였다. 강의 내용은 상업도덕, 물자물가 조정, 기업정비, 상업부기의 개념과 기장 등이었고 좌담회도 개최하였



1943년 제2회 상점경영강습회 기념사진(이형상 제공)



1943년 제2회 상점경영강습회 자료(수원상공회의소 소장)



『수원상공인명록』(수원상공회의소 소장)

다.⁵³ 수원상공회의소에서는 1942년 11월 『수원상공인명록(水原商工人名錄)』을 발간하였다.

53 수원상의사편찬위원회, 『수원상의사』, 수원상공회의소, 1986, 632-634쪽.

〈표 8〉 수원의 주요 일본인 상공인⁵⁴

성명	주요 활동	출신
이마무라 우타로 (今村卯太郎 : 1873~?)	1903년 조선에 들어와 수원에 거주 내선잡화상을 경영하면서 한편으로는 1917년 6월 수원학교조합 회의원에 당선되어 같은 해 11월 면제실시와 더불어 수원면협의회 회의장에 당선 수원도시금융조합 상무이사로서 수원 금융계에서 역할	구마모토현
오자키 히데하치 (尾崎秀八 : 1880~?)	1905년 3월 헌병으로 한국에 들어온 이래 특무조장 및 조선총독부 경부 등을 거쳐 1912년까지 근속 퇴직하여 동양척식주식회사 수원출장소원으로 입사 실업으로 전환하여 석탄, 목탄 기타를 판매하고 과수원을 경영 정총대(町總代) 및 수원실업협회 평의원 등의 요직에서 활동	가가와현
가야마 히로시 (香山弘 : 1880~?)	1907년 12월 도한하여 토목건축청부업에 종사 종묘, 농장구, 과수원 경영 등 여러 사업에 종사 1914년 5월 수원전기주식회사 전무취체역으로 전후 7년간 활동 수원학교조합 회의원, 수원신사 조영 시 총대로 활약하여 1917년 10월 29일 천공식 (遷宮式)을 거행 수원실업협회 부회도, 수원인쇄회사 전무취체역 등의 요직에서 활동	오카야마현
간자키 유사요시 (神崎房吉 : 1885~?)	1912년 7월 도한하여 수원에 거주하면서 오복상(吳服商)을 경영 변창하여 수원 유수의 상인으로서 이름을 날림 수원실업협회 평의원으로 활동	히로시마현
요시우라 히데노부 (吉浦英信 : 1895~?)	파상회양복점(巴商會洋服店) 점주 1914년 도한하여 1916년 1월 수원으로 이주 수원유수의 양복점을 경영하는 전도유망의 청년실업가로 수원실업협회 평의원에 선출	후쿠오카현
곤도 도라노스케 (近藤虎之助)	1906년 주식회사 한성은행 수원지점 상담역으로 수원에 이주 수원면 면장, 수원학교조합 관리자, 수원신사 씨자총대(氏子總代), 수원국유보안림보 호조합장, 수원전기주식회사 전무 취체역, 수원실업협회 회도로 활동	
아오키 다메이치 (青木爲一 : 1891~?)	아버지와 같이 수원으로 이주, 잡화상을 경영 수원정미소 및 미곡상을 개시 학교조합 회의원 및 수원실업협회 상의원으로 활동	미에현
사카테 주사부로 (坂手重三郎 : 1863~?)	1906년 도한하여 수원역전 우편소장으로 부임 1920년 11월 사임하고 석탄 및 개량농구 판매 등에 종사 일본인회 의원, 학교조합 회의원 등의 공직 활동 13년 정도 수원전기주식회사 중역, 10년간은 수원인쇄주식회사와 수원상사주식회사 등의 중역 역임 농사장려회 평의원, 수원금융조합 평의원, 수원실업협회 상담역 등으로 활동	오사카부
유야사 이헤이 (湯淺伊平 : 1881~?)	물산상회(物産商會) 점주 1900년 오사카부립수리의숙중학을 졸업 후 군인이 되어 특무조장으로 승진 전역 후 1912년 도한하여 상업에 종사 수원실업협회 상무원과 기타 요직에 당선	도쿠시마현

54 酒井政之助, 「수원과 사람」, 『水原』 부록, 1923, 103-120쪽; 국사편찬위원회, 『한국근현대인물자료』 참조. 1923년 당시까지의 상황이다.

성명	주요 활동	출신
모리모토 슌노스케 (森元俊之助 : 1860~?)	수원실업계의 연장자 1895년 9월 영림주사를 역임 1906년 4월 임시군용철도 감부로서 도한 1907년 2월 농상공부에 취직하여 임무(林務)에 종사 1910년 퇴관 후 수원으로 이주 수원신사 씨자총대, 정(町)총대, 수원실업협회 상담역, 조합회의원 및 수원상사주식회사 전무로서 활동	히로시마현
다케시타 헤이사부로 (竹下平三郎 : 1890~?)	1905년 도한 1908년 10월까지 인천에서 상업에 종사 1909년 수원에서 무역상업에 종사 다케시타무역상회(竹下貿易商會 : 大竹下商店) 개설 수원면협의회 의원, 수원면 학교조합 의원, 수원금융조합 평의원, 수원금융조합 감사, 수원연초판매조합 대표, 수원곡물조합 조합장, 수원실업협회 부회두, 수원식림종묘주식회사 이사, 수원미유조합(水原米油組合) 대표, 수원아동보호자회 고문, 수원운송주식회사 이사 역임	가고시마현

〈표 9〉 수원의 주요 한국인 상공인⁵⁵

성명	주요 활동	출신
차준담 (車濬潭 : 1906~1980)	1921년 수원공업보통학교, 1926년 중앙고보, 1933년 경성제국대학 영문과 졸업 1922년 홍사훈의 누이 홍영순과 결혼 대학 졸업 후 수원상공주식회사 설립 대표이사 역임 경기도회 의원, 수원금융조합장 역임 광화문에 조선목재주식회사 설립	수원 남창리
홍길선 (洪吉善 : 1904~?)	1916년 수원상일학교, 1921년 배재중학교 졸업 한성은행 수원지점 근무 1930년대 초 조선요리집 제일관 운영, 1935년 만종원 전무이사, 1940년 수원양조주식회사 대표이사 역임	수원
양성관 (梁聖寬 : 18~?)	1908년 4월 수원명륜학교 졸업 1908년 8월 수원상업회의소 부회두에 당선 1910년 상업감속소 설립과 기타 수원 공사의 여러 사업에 진력 공업보통학교 학무위원, 수원전기회사 취체역, 수원금융조합장 역임 1929년 5월 공칭자본금 40만 원으로 화성흥업주식회사 설립하여 수원의 실업계 운영자금을 융통하는 데 노력 일본적십자사 유효회원에 천거	수원
김학배 (金學培 : 1908~1951)	1930년 수원상회 설립하여 인견, 견직, 면직물, 석유, 비누를 거래 1932년 수원직물공장 설립하여 인조견, 양단 등을 제조하여 만주와 중국에 수출 1935년 수원읍회 관선의원으로 선출되어 이후 4선을 역임, 경기도평의원 역임 1940년 성남공장, 1942년 일제의 경제통제기구인 수원석유하수조합장과 수원상공회의소 상임위원 겸임	수원
김응덕 (金應德 : 1908~1973)	선린상업학교 졸업 수원을 본정 1정목(중동) 138번지에서 금덕상회를 운영 자본을 축적하여 금덕정미소 운영	수원

55 수원상의사관찬위원회, 『수원상의사』, 수원상공회의소, 1986, 1613~1615쪽, 1622~1623쪽, 1625~1629쪽, 1631~1633쪽, 1654~1655쪽; 수원상공회의소, 『수원상공회의소 100년사』, 2008, 192~193쪽; 酒井政之助, 『水原』, 1923, 105~107쪽 참조.

성명	주요 활동	출신
임병진 (林炳進 : 1898~?)	1932년 영정 58번지의 영동시장에 삼원상회를 운영(취급상품은 해산물, 청과물, 화양지, 조선지, 포목 등 도소매) 1939년 경기도 조선지도매통제조합 부조합장, 1940년 수원청과물조합장, 1941년 조선지조합 전국지구 부조합장, 1942년 전국화양지조합연합회 부조합장, 1942~1945년 수원소비조합 이사 등으로 활약 1938년부터 일본 북해도의 다시마, 북어, 오징어 등과 일본 부채 등을 수입 판매 1937년에는 일본 오사카(大阪)의 화양지(和洋紙) 상점들과 거래, 1941년 일본 아마구치(山口)현 청과물조합과 무역거래를 맺어 청과물을 수출	경기 광주
홍시극 (洪思克 : 1906~1978)	1927년 배재고등보통학교 졸업 1933년부터 본정(팔달로1가) 4정목 47번지에 직물포목상인 홍상회(洪商會)를 운영 1942년 수원극장 감사역, 1943년 수원양주주식회사 감사역 역임	수원면 산루리
박정환 (朴廷煥 : 1913~?)	1943년 양부가 경영하던 수인양조장 인수	수원군 고색리
홍시훈 (洪思勳 : 1891~1965)	1912년 수원상업회의소 회원으로 수원상업강습소 경비 조달 1926년 수원상업강습소를 인수하여 화성학원을 설립하고 1928년에는 원장에 취임 1928년 6월 수원체육회장 역임 1930년 세류포목점을 경영하고, 1931년 용수농농주식회사 취체역, 1935년 서울에서 경성택시 주주가 되어 운수업 경영에 참여, 1936년 수원극장 대표이사와 1938년 만중원 대표이사 역임	수원
차재헌 (車載憲 : 1904~?)	1942년 4월 창립된 수원상공회의소 총무계장	수원
한상봉 (韓相鳳 : 1876~?)	1900년 1월 육군무관학교 졸업 후 육군 참위에 임명된 후 정위로 승진, 무관학교 교관과 군법회의 판사 등을 역임 1906년 9월 한성은행 수원지점 지배인 수원금융경제계의 중진으로 수원면 상담역, 경기도 도평의원, 수원실업협회 부회두 등으로 선출	수원

4. 수원상공회의소의 해산과 경기도상공경제회 수원지부 조직

조선총독부는 태평양전쟁이 인력과 물자의 소모전으로 장기화되자 기업활동에 대해서도 전시경제체제를 적용하여 통제를 가하기 시작하였다. 조선총독부는 1944년 8월 18일 제령 제30호로 「조선상공경제회령」과 조선총독부령 제300호 「조선상공경제회령 시행령」, 제301호 「조선상공경제회령 시행규칙」을 공포하였다. 「조선상공경제회령」의 골자는 도상공경제회와 조선상공경제회가 지방상공회의소를 도 단위로 통합하고 연합체로 조선상공경제회를 두기로 하는 것이었다.

「조선상공경제회령」은 제43조에 “조선상공경제회는 국민경제의 총력을 가장 유효하게

발휘시키기 위하여 국책에 협력하고 산업경제의 원활한 연락을 도모하여 개선방향에 노력하는 동시에 도상공경제회 기타 회원의 연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제45조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① 산업경제에 관한 통제에 대한 협력, ② 산업경제의 운영 또는 정비에 관한 연락, ③ 산업경제의 개선, 향상에 관한 시설, ④ 산업경제에 관한 조사 및 연구, ⑤ 도상공경제회 기타 회원의 지도 및 연락, ⑥ 전 각호에 계기(揭記)한 것 외에 조선상공경제회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사업, 조선상공경제회는 전항에 기재한 사업 외에 상업조합, 상공조합연합회, 공업조합, 공업조합연합회의 지구가 2도(道) 이외 걸치거나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서 조선총독이 지정하는 사업 및 재산상황에 대하여 감독을 행할 수 있다.”고 적시하였다.

1944년 8월 18일 「조선상공경제회령」이 공포됨에 따라 수원상공회의소는 도 단위로 통합되어 경기도상공경제회 수원지부로 개편되었고, 법령 공포와 함께 국내 상공회의소가 모두 해체되면서 수원상공회의소도 그해 9월 28일 해산되었다.

경기도상공경제회가 설립되면서 조선총독 아베 노부유키(阿部信行)는 1944년 9월 1일자로 경기도를 지구로 하는 도상공경제회 설립위원 20명을 임명하였다. 설립위원은 호즈미 신로쿠로(穂積眞六郎 : 경성부), 다가와 쓰네지로(田川常次郎 : 경성부), 다나카 데쓰사부로(田中鐵三郎 : 경성부), 구보다 유타가(久保田豊 : 경성부), 하야시 시게조(林繁藏 : 경성부), 하기와라 히코조(萩原彦三 : 경성부), 다니타 기마(谷多喜磨 : 경성부), 유바라 다쓰지로(湯原辰二郎 : 경성부), 민규식(閔奎植 : 경성부), 와타나베 토요히코(渡邊豊日子 : 경성부), 박흥식(朴興植 : 경성부), 김사연(金思演 : 경성부), 김연수(金季洙 : 경성부), 가네나가(金永泰勳 : 인천부), 가다 나오지(賀田直治 : 경성부), 모리 히데오(森秀雄 : 인천부), 오사키(尾崎俊甫 : 개성부), 차준담(車濬潭 : 수원읍), 마고다(孫田禮光 : 개성부), 곤도 다이키치(近藤泰吉 : 수원읍) 등으로 지역별로 보면 서울 14명, 인천 2명, 개성 2명, 수원 2명으로, 수원의 위원은 차준담과 곤도 다이키치의 2명이었다.⁵⁶

당시 경기도상공경제회 산하에는 인천지부, 수원지부, 개성지부가 있었는데 주요 사업과 활동 범위는 다음과 같았다.

- 전신통제경제에 대한 협력사업 : 금융조치령 설명회, 은닉물자 등 긴급조치요강 설명회, 물가통제회에 관한 지도, 가격표시방안의 간담회와 지도, 생산증강 및 생산방위강화추진 간담회, 국민생활 안정확보에 관한 연락사업

56 수원상의사편찬위원회, 『수원상의사』, 수원상공회의소, 1986, 635-636쪽.

- 산업경제 정비운영에 관한 연락사업 : 생활필수물자 통제조합 간담회, 통제조합 간담회, 저물가 조합 간담회, 중소기업 진흥방안에 대한 의견제출, 운수교통 간담회
- 조사 및 통제사업 : 물가조사, 전력요금 사정 조사, 공장전환상황 조사, 공장통합에 관한 조사⁵⁷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할 무렵 수원의 상공업계는 조선총독부로부터 가중되는 압력, 물가폭등, 자재난 등으로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때까지도 전 시동원 경제체제 아래 경기도상공경제회 수원지부가 주도하였다.

57 수원상의사편찬위원회, 『수원상의사』, 수원상공회의소, 1986, 636~637쪽.



김인호 동의대학교 사학과 교수

1. 전통 직물업과 신흥 소공업
2. 전쟁과 직물업의 변화
3. 수원 산업의 성격



제6장

일제하 수원 산업의 형성과 성격

일제강점기 수원 지역의 산업은 어떤 모습일까?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의 기억에서는 선경직물, 동흥직물 등 유난히 그 시절 조선인 직물업이 먼저 떠오를 것이다. 다른 종류의 산업도 많은데 하필 직물업일까. 그렇다면 어떤 계기로 이러한 이들만의 성장이나 발전이 가능했으며, 민족주의적이었다는 일본 측의 기록은 무엇을 의미할까? 정리하면 왜 하필 직물업이고, 왜 조선인일까라는 의문이다.

기왕의 어떤 연구는 직물업의 외적 계기를 강조하는데, 당시 수원에는 다른 지역과 달리 지주제가 1930년대 이후에도 강고했으며, 이에 수공업도 겨우 토착시장을 매개로 연명하는 정도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침략전쟁 이후 전쟁 특수가 확대되자 조선인 자산계층의 자제들이 적극적으로 신흥 직물업에 참가하여 종래 침체하던 소공업시대의 종지부를 찍고 '병참 직물의 수원'을 이루는 데 큰 역할을 한 점을 강조하였다.¹ 반대로 내적 계기를 강조한 연구는 수원 직물업 성장에는 지주제 아래서 민족주의 성향의 이유복과 홍사운 등 토착자본이 발아하였고, 이들이 1930년대 조선마직 등으로 결집한 점, 그리고 특

¹ 김인호, 「근대 수원경제의 특징과 진로」, 『수원학연구』 제2집, 수원학연구소, 2006.

히 침략전쟁 이후에도 전쟁 특수에 적극 기생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일본 자본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독립하면서 자신의 영역을 개척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²

내적 계기를 강조한 연구가 주로 토착자본의 내적 성장 동력에 주목한 것이라면 역시 외적 계기를 강조한 것은 식민지 지배정책의 영향을 강조한 관점일 것이다. 과연 이 두 가지 계기는 실제 수원 공업화 도상에서 별도로 작동하는 개별적 계기일까? 오히려 정치 및 전쟁 상황 등 외적 변수에 따라 혹은 내적인 계기인 토착시장의 요구와 지역사회의 전통(예: 지주제의 강고함과 지역 단위 인맥, 지역 특유의 민족주의적 성향이나 해방 후 각 기업가들의 반공활동 등) 등으로 성장의 동력이 다양하게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바로 이 두 가지 계기를 통하여 주체적으로 조선인 직물업자들이 일구고자 했던 '직물 수원'의 희망과 꿈이 언제, 어떻게 전개되었으며, 결국 어떤 경과로 왜곡되고 변화되었는지 살피는 데 중점을 둔다. 그것을 통해서 일제하 수원 지역 산업의 근대적 궤적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 전통 직물업과 신흥 소공업

1) 연명하는 전통 직물업

중일전쟁 이전까지 일제하 수원의 산업 발전은 그다지 드러나지 않으며, 전통 수공업과 부업적 성격의 직물업 등이 산업상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하지만 산업적 변화의 기운마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즉 대한제국시기 식산흥업정책이 발아하였는데, 특히 1904년 수원농상공학교의 설립과 1906년 6월 통감부 소속 권업모범장의 설치하는 그 의미가 크다. 그러나 1920년대까지도 수원의 산업 상태는 농촌지역에서 퇴적한 과잉인구를 포함하거나 여기서 교육을 받은 새로운 기업가층이 등장할 조짐은 보이지 않았다.

『생활상태조사—수원군』에 따르면 1926년 현재 수원군은 2만 7,182호에 인구는 조선인 14만 4,724명, 일본인 3,081명, 중국인 184명, 영국인 1명이었다. 이 시기까지 공장은 10개, 노동자는 137명, 자본금은 38만 3,000원 그리고 생산액은 89만 4,125원이었고, 생산물은 전기력 2만 4,522kW, 인쇄물 510만 매, 조선지 11만 8,000매, 백미 2,378석, 현미 1만 9,954석, 생사 80

² 김인호, 「근대도시 수원의 산업적 변화와 특징」, 『수원역사문화연구』 창간호, 수원박물관, 2012.



일제시기 정미소의 선미(選米) 작업(조선총독부, 『생활상태조사-수원군』, 1929)



일제시기 농가의 가마니 제조(조선총독부, 『생활상태조사-수원군』, 19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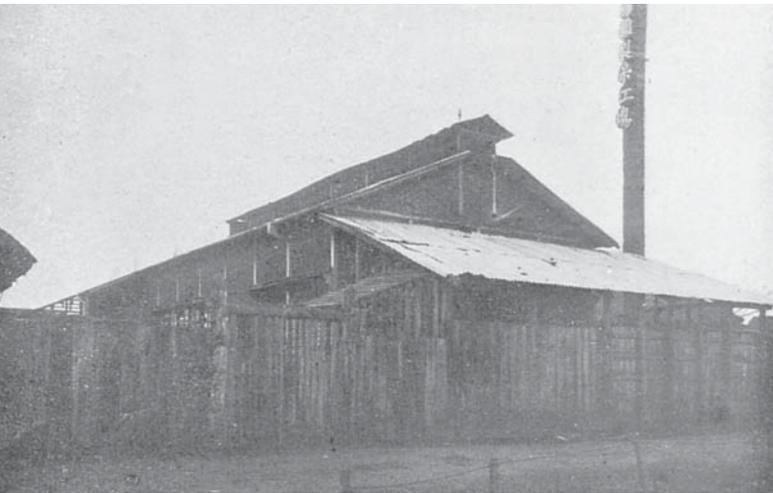
관으로 나타난다.³ 그리고 당시 수원 산업의 내용은 인쇄·제지·정미·생사업이 대부분이었다. 아울러 노동자가 겨우 137명이었다. 공장당 평균 노동자수가 13.7명으로 규모가 무척 영세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정도 규모로는 당시 하강 분해하는 소작농 1만 1,659호(1923년)~1만 6,424호(1937년)를 수용하기에는 턱없는 수준이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표 1〉 1926년 수원군 수공업 상황⁴

종류	수량(개)	생산액(원)	종사호수(호)	호당생산액(원)
도자기	156,200	17,650	36	490
소소물	72,300	14,520	12	1,210
기와	15,000	750	1	750
금은세공	3,893	2,406	6	401
조선연관	1,800	540	2	270
종이류	895	13,425	2	6,713
나막신(게다)	1,500	600	2	300
조선나막신	950	385	6	64
대나무제품	2,850	600	2	300
삿갓(笠子)	300	900	1	900
관, 망건	530	530	3	177
양복	1,900	41,700	5	8,340
조끼	12,478	11,238	43	261

3 화성군지편찬위원회, 『화성군사』(상), 461쪽.

4 조선총독부, 『생활상태조사-수원군』, 1929.



안릉면의 제사공장(조선총독부, 『생활상태조사-수원군』, 1929)



안릉면의 기와공장(조선총독부, 『생활상태조사-수원군』, 1929)

이러한 산업 미발달 상황에서도 <표 1>처럼 상당수의 수공업이 전통적인 숙련노동을 매개로 한 개인 경영 형태로 발전하고 있었다.

업종별로 보면 자기·소소물·기와·금은세공·조선연관·종이류·나막신·조선나막신·대나무제품·삿갓·모자망건류·양복·조끼 등의 업종이 눈에 띄었다. 특히 양복, 조끼와 같은 의류 생산이 두드러진다. 양복업은 호당 평균 생산액이 8,340원으로 가내공업 수준을 넘은 수준이며, 종이류도 생산액이 호당 6,713원에 달한다. 그런데 조선 의류보다 서구적인 의복 관련 수공업자가 많다는 점은 이후 수원에서 발전할 직물업의 원형을 보여주고 있다.

1930년대에도 전체 경기도 산업은 여전히 중소공업이나 가내공업 중심이었고, 수원 상공업계도 여전히 부업 중심 산업구조였는데, 1934년 말 경기도의 공장은 총 1,046개 있었고, 이 중에 상시 50인

이상 노동자를 사용하는 대공장은 겨우 81개 공장, 기타 965개 공장은 중소공업이었다.⁵ 이런 현상은 수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럼에도 일부 산업에서 조선인 업체가 증가하였다. 먼저, 1920년대에도 양복 수공업이 주목되더니 1930년대에는 마침내 직물공장이 출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수원상회직물공장은 1934년 1년당 약 7만 4,200원의 마직물을 생산하였다. 그런데 그해 경기도 공장 직물 생산총액 953만 768원에 비하면 0.78%에 불과한

5 『경기도도세개요』, 1936, 566쪽.

미미한 수준이다.⁶

반면 부업으로 이루어지는 직물 생산액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난다. 즉, <표 2>에서 1934년 부업으로 생산된 직물 생산액을 보면, 수원은 강화와 양평에 이어 경기도(21개 부군)에서 3위를 차지하였다. 그중 면직물은 경기도 생산액의 11% 정도(2만 2,772원)였다. 즉, 공장 공업은 주로 마직물, 부업은 면직물을 중심으로 생산하였다.

<표 2> 1934년 경기도와 수원의 (부업)직물 생산액⁷

부군명	면직물	견직물	마직물	인견 기타 직물	계
수원(원)	22,772	953	2,433	-	26,158
경기도(원)	207,208	61,843	199,227	763,818	1,232,096
비율(%)	10.98%	1.54%	1.22	-	2.12%

한편, 경기도 용인군 기흥면(器興面) 출신이자 전직 중추원 의관(議官)이던 오성선(吳性善)이 용인군 기흥면에 귀향한 이래 지방 개발과 산업 개량에 진력하여 용수기업조합(龍水機業組合)이 설립되었다. 경기도는 용수기업조합에 대하여 1928년부터 기업기술원 보조금을 매년 200원씩 1933년까지 총 1,200원 지급했고, 기업강습회 보조금으로 1926년과 1927년 각각 180원씩 총 360원을 지급하였다.⁸

<표 3> 기업 개량기계기구 설비비 보조 상황⁹

연차/단체	기대(機臺) 보조금(대수)	회전정리기 보조금(대수)	정련부성 (精練釜箆 : 金) 보조금(대수)		환강(統綱 : 金) 보조금(대수)	정경공동작업장 (整經共同 作業場)	염색공동작업장 (染色共同 作業場)
용수기업조합 (龍水機業組合)	600(26)	100(1)	100(1)	100(20)	-(20)		
23개 경기도 군면·농회조직	9,750(527)	820(12)	400(4)	1,117(230)	-(230)	1,050(12)	700(3)

<표 3>에서 개량기계 설비비 보조 상황을 보면, 경기도 23개 군면 농회에 대한 지원 중에서 용수기업조합에 대한 보조가 기대(機臺) 26개(600원), 회전정리기 1대(100원), 환강

6 「소화 9년 공장생산직물 생산액조, 『경기도도세개요』, 1936, 541쪽.

7 「소화 9년 (부업) 직물 생산액조, 『경기도도세개요』, 1936.

8 「機業技術員給補助狀況調, 『경기도도세개요』, 1936, 558~559쪽.

9 「기업개량기계기구설비비 보조상황조, 『경기도도세개요』, 1936, 543쪽.

20대 정도였다.

2) 신흥 소공업의 성장

직물업 이외에도 다양한 소공업이 성장하고 있었다. 먼저, 수원의 잠업은 1913년 수원에 잠종제조소를 설치하여 성장 토대를 갖추기 시작하였고, 1917년에는 수원 잠종제조소를 잠업시험소로 개칭하고 1929년에는 농사시험장 산하 잠사부로 개편하였다.¹⁰ 1935년까지 수원의 양잠호는 3,638호로 경기도 내 23개 군 중에서 8위 그리고 뽕나무 면적은 7위로 408야드, 잠종 종묘장수는 9위로 3,579개, 누에고치 생산량은 9위로 6만 6,176t, 공판액은 10위로 3만 8,553t이었다.¹¹

둘째, 수원에서는 전통적으로 소금 생산이 활발하였다. 즉, 소금은 수원군의 지정학적 특성에 기초하여 일찍부터 발달한 산업으로 1930년까지 전오염(전통적인 소금 생산방식으로 끊어서 소금을 추출하는 방법) 생산 상황은 <표 4>와 같다.

<표 4> 수원군의 전오염 생산 상황¹²

구분	업자수(명)	부수(명)	염전면적(평)	수량(근)	금액(원)	평당 생산고(근)	업자당 면적(평)	부당 생산고(근)
1930	266	125	109,660	4,082,960	36,337	37	412	32,663
1934	213	99	176,779	3,888,700	42,322	22	830	39,279

즉, 1930년에 비해 1934년은 업자수와 전오염 생산 가마수가 많이 줄고 있다. 반면 염전 면적은 60%가량 늘었는데도 생산량은 12만 근이 감소하였다. 1평당 생산고를 보면 1930년은 37근이었지만 1934년에는 22근이다. 대신 생산액이 높다. 이는 생산의 감소에 따른 가격등귀의 결과로 보인다. 가마당 생산고가 1930년 3만 2,663근에서 1934년에는 3만 9,276근으로 상승하였다. 따라서 1930년경에는 소금의 채산성이 무척 낮았고, 이에 1934년에는 상당한 생산자가 정리 통폐합하여 전오염 생산에서 이탈한 점을 알 수 있다. 즉, 업자는 266명에서 213명으로 줄었고 업자당 염전면적도 1930년 412평에서 1934년에는

10 화성군지편찬위원회, 『화성군사』(상), 399쪽.

11 경기도, 『소화 10년 잠업통계』, 1936, 1~2쪽.

12 경기도, 『상공수산통계』, 1930, 88쪽; 경기도, 『상공수산통계』, 1934, 49쪽. 1930년도 제조업자수는 주로 겸업자만 조사되었고, 1934년 제조업자는 종업자 456명을 뺀 순업자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830평으로 커졌다. 염전 확장에도 불구하고 인력 감소에 따른 생산고의 하락은 피할 수 없었다. 이는 전오염 자체가 노동집약적인 전근대적 소금제조법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가마(釜)수와 업자수 그리고 수량과의 관계는 비례할 수밖에 없었다. 즉, 수원 염업의 문제는 천혜의 입지에도 근대적 천일제염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기존방식을 고수한 데서 나타났다.

셋째, 1930년대 수원의 산업에서 주목할 것이 바로 가마니제조업과 도자기 공업이었다. 가마니 공장에서는 1937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 246만 9,267개를 생산하여 생산액으로는 39만 5,082원 72전에 달한다. 이 수치는 예년 수확보다 13만 5,396매, 1만 6,630원 5전 많았다.¹³ 또한 <표 5>에서 보듯이 1934년 경기도 내 도자기 공장은 160개인데 그중에서 18곳이 수원에 있다. 또한 종업원도 133명으로 공장이나 종업원이나 12%내외의 비중을 보이지만 생산액은 1만 6,309원으로 7%에도 미치지 못한다. 즉, 공장의 규모가 다른 지역에 비해 영세하다는 말이다. 다만, 생산액 면에서 수원은 경기도에서 시흥, 김포에 이어 3위를 보이고 있다.

<표 5> 1934년 경기도와 수원의 (부업)직물 생산액¹⁴

부군명	공장수(개소)	종업원수(명)	생산액(원)
수원	18	133	16,309
경기도	160	1,058	240,153
비율(%)	11.25	12.57	6.79

넷째, 1930년대 광산업이 증가하였다. 1930년 9월 14일 등록한 수원군 마도면의 광구 평수 98만 3,000평 규모의 홍승렬 광산, 1934년 3월 7일 등록의 수원군 마도면에 소재한 88만 7,000평 규모의 한인수 광산 그리고 1934년 6월 1일 등록하고 텅스텐·수은을 채굴하는 75만 2,000평 규모의 남양중석 광산과 1930년 9월 14일 등록한 24만 4,000평 규모의 삼봉광산 등이었다.¹⁵ 주로 1930년대 전반기에 채굴을 개시하고 조선인 소유가 많았다.

13 「水原郡内吹生産高 四十萬圓臺突破」, 『동아일보』, 1938년 3월 19일.

14 「소화 9년 각 군별 도자기 생산 상황」, 『경기도도세개요』, 1936, 558-559쪽.

15 화성군지편찬위원회, 『화성군사』(상), 490쪽.

2. 전쟁과 직물업의 변화

1) 중일전쟁과 조선인 직물업 확장

일제하 수원 지역의 농업은 지주제의 강화와 소작농의 비약적 확대 그리고 상대적인 자작농·자소작농의 몰락이라는 틀에서 지주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었다. 그리고 임노동으로 소작농이 전환하는 것도 무척 제약되어 있었는데, 이는 식민농정의 파행이 고스란히 식민지에 반영되고 있고, 특히 수원에서는 그러한 모순이 더욱 심각해진 것을 말한다. 또한 항간에서 농촌진흥운동이니 자작농 창정계획이니 하여 일정하게 자작농이 증가한 상황과는 대조적으로 수원군만큼은 식민시기 내내 자작농 감소와 소작농 급증이라는 봉건적 분해양상을 보여 준다.¹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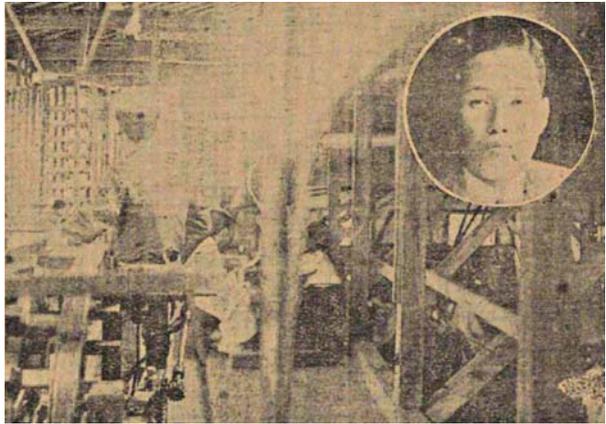
이렇듯 수원 지역은 조선인 지주제가 강한 곳으로 유난히 자산계층 자제의 기업설립운동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예를 들어 홍사훈, 이유복, 이기흥, 김학배 등 자산계층의 자제들은 1920년대 후반부터 일본에 유학하거나 신교육을 통하여 민족의식을 함양하면서 조선인 기업 설립에 적극 나섰다. 이러한 노력의 첫 단추가 바로 1936년 2월 홍사훈, 김학배, 차재운, 데라사와 스테사부로(寺澤捨三郎) 등이 합작하여 세운 자본금 50만 원의 수원마포주식회사(水原麻布株式會社)이다.

수원도 점차 공장 지대화하여 감에 따라 각종의 공장이 날로 들어 간다는 바 수년 전부터 방직공장을 설치하고자 사계에 유력자인 실업가 홍사훈(洪思勛 : 洪思運의 사촌형) 씨와 수원직물공장주 김학배(金學培) 씨 이유복(李有福) 씨 등의 발기로 전설의 계획을 수립하고 이래 활동한 결과 수일 전에 전기 삼 씨가 당 지방의 실업가인 차재운(車在潤)과 데라사와 스테사부로 등 제씨가 제휴하여 수원지방 발전상 또는 수원공업계를 번창시키고자 일방 빈궁민 구제 겸 수원마포주식회사를 창립하게 되었다. 총자본은 50만 원으로서 300명 이상의 직공을 수용할 예정이라는 바 불원간 동 공장을 건축코저 위치를 물색 중이리는데 수원에서 처음으로 되는 대공장인 만큼 앞으로 껍으로나 유망하다고 한다.¹⁷

16 일제 말 조선의 농업호수 상황을 보면 1933년 이후 자작농은 전 농가의 18% 정도로 크게 늘지 않으나 자소작농의 경우 1933-1940년 24%정도였으나 이후 28%로 상승한 반면, 소작농은 1941년까지 52-54%였으나 1943년에는 49%로 하락한다. 전체적으로 자작농 상승은 미약하나 소작농 또한 전시제체기에 들어오면 비중이 하락한다(조선은행조사부, 『조선경제연보』, 1948, 28-29쪽). 미곡 생산량의 경우 1939년까지는 『朝鮮の農業』, 1942, 198쪽을, 1941년부터는 『조선경제통계요람』, 1949, 26쪽을 참조.

17 「자본금 50만 원으로 수원엔 직물공장, 조선인을 중심으로 불원공장 착수예정」, 『동아일보』, 1936년 2월 29일.

여기에 참가한 차재운, 이유복, 홍사훈 등은 일경이 민족주의 성향으로 분류한 조선인인 만큼 그들의 행적은 위의 기사에서도 ‘빈민구제도 겸하여’라는 당대의 조선인 민족의식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수원마포공장을 설립한 데는 또 다른 영향이 있었는데, 그동안 수원에서 유일한 공장이었던 수원직물공장 공장주 김학배가 강력히 수원마포공장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한 결과이기도 했다.



김학배와 수원직물공장(『매일신보』, 1934년 6월 6일)

이러한 조선인 기업 설립은 다른 지역의 경우 일본의 대기업이 들어오면서 하청화하거나 예측되는 상황이었다. 실제 수원에서도 중일전쟁과 함께 본격적으로 수원에 일본 독점자본의 진출이 예정되었다. 우선 1937년 1월에는 대일본방(大日本紡)이 청진에 인견공장을 세우기로 하고 2월 17일에는 수원에 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하는 등 본격적으로 직물업 성장의 기회가 왔다.¹⁸ 이때 수원 유일의 금융기관인 화성흥산회사(華城興産會社)가 이 회사와 연계하여 기업으로 전환하려고 한다는 소식도 있었다.¹⁹ 하지만 대일본방은 수원 대신에 영등포에 공장을 건설(1938년 5월 3일 입찰)하기로 하면서 무산되었다.²⁰ 예정된 일본자본의 진출이 취소되면서 수원의 조선인 자본가들은 더욱 자신만의 직물공업 확충을 위해 분투하게 된다. 일본 자본과 합작하여 성장하는 ‘쉬운’ 길 보단 좀 더 개별적으로 생존해야 하는 ‘어려운’ 길을 택해야 할 상황이었다.

수원의 조선인 직물업자들은 당면의 침략전쟁을 자본축적의 유리한 조건으로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수원 지역에서 공장을 설립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매체의 기사에서 ‘수원의 공도화’, ‘확장일로의 수원공업’ 등의 용어가 등장하는 것에서 보듯이 침략전쟁을 기점으로 경부선 연변의 수원 지역에서 직물 수요가 크게 확대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조선인들은 바로 이러한 상황을 노렸던 것이다. 이런 움직임은 1939년 11월 홍사훈이 조선명주

18 『동아일보』, 1937년 2월 18일.

19 『동아일보』, 1937년 6월 29일.

20 『동아일보』, 1938년 4월 28일.



홍사운(수원시, 『수원사진대관』, 1956)

(朝鮮明紬)를 직조하고자 동아직물공장(東亞織物工場)을 설립한 데서 뚜렷이 나타났다.

수원 지방에는 최근 각 공장이 군립해야 공장지대로 화하여 가며 있
다는데 금년 11월 중 또 공장이 개소나 창립되었다는 데 동아직물공
장은 수원을 매향정애다 설치하고 수원의 교육가인 홍사운 씨가 단독
으로 경영한다는데 공장에서 순조선 명주를 제직한다고 한다.²¹

홍사운(洪思運)은 1933년에 일본에 유학했고, 경찰은 그
를 조선인 민족주의단체의 일원으로 파악하였다. 이후 조
선으로 들어와 수원의 직물업에 투신하여 1939년 동아직
물공장을 건설했으며,²² 1942년에는 직기 22대를 가진 신공장을 건설하기로 하는 등 크게
성장하였다.²³ 해방 후 홍사운은 종래 명주를 생산하는 것에서 학생복지를 생산하는 공장
으로 전환하였다. 그리고 사장이 이기홍(李起弘)으로 바뀌었다.²⁴ 창화직물공장(昌和織物
工場)의 주인이자 홍사운과 함께 마포회사를 열었던 이유복(李有福)도 마찬가지로 1942
년에는 직기 21대를 가진 중소기업가로 성장하였으며, 수원직물공장의 김학배도 직기 60
대 이상을 소유하고 시설 확장하고 있었다. 이렇게 침략전쟁 이후 수원의 직물업이 활황
인 것은 전쟁이 곧 수요였기 때문이었다. 이에 1939년 12월 24일에는 수원실업협회(소재
지 수원읍)가 주최가 되어 수원신사에서 경제보국 선서식을 개최하는 등 시국행사에도
적극 나서서 총독부가 창출하는 시장에 눈독을 들였다.²⁵

직물업의 성장은 급속히 일본 본토산 면사의 수요를 촉발하였고, 통제경제 아래서 심각
한 면사 품귀현상이 나타났다. 원자재 문제는 1940년 1월 16일 당일에 있었던 수원직물조
합이나 수원가정직물조합 등의 창립총회에서도 제기되었다.²⁶

종래 수원읍에는 삼 년 전부터 가내공업으로 직물을 가지고 생활하는 자가 상당한 수에 달하여 수

21 「東亞織物工場創立 水原工都化도 不遠」, 『동아일보』, 1939년 11월 17일.

22 「在日韓國人民族主義系團體一覽表(1933년 12월 말 현재)」(『조선민족독립운동』 III)에 따르면 홍사운은 제일한국인 민족주의
계 단체일람에서 제일유학생동창회의 일원으로 김여환, 고병국, 조홍제 등과 함께 등재되어 있다. 해방 후에도 직물공장을
계속 유지했는데 『전국기업체총람』(1956년)에는 그가 홍염직공장(洪染織工場)을 현재 수원시 장안동 30번지에서 운영하였
다고 하고, 1958년판에는 같은 장소에서 홍원직물공장(洪圓織物工場)을 운영하면서 인견직물 등을 생산하고 있다고 한다.

23 『식은조사월보』, 1942년 4월, 71쪽.

24 본점은 경기도 수원시 매향동 98(『공업및제조업사업체명부』, 1959).

25 『동아일보』, 1939년 12월 25일.

26 「수원직물조합창립총회 개최」, 『동아일보』, 1940년 1월 20일.

원에 없지 못할 산업의 부문이였었는데 금반에 물자 통제 바람은 여지없이 부러 가내공업자에게도 일대 영향을 던지고만 것이다. 즉, 면사 배급이 극소해야 종래 산업조합이 없는 가내업자로서는 사활의 문제에까지 직면하게 된 것이다. 이것을 극히 우려하던 나머지 관계당국은 물론 유지까지 분기하여 일치협력조합결성에 매진하던 중, 작 16일 정오부터 수원군 회의실에서 관민유지 다수 참석하에 수원직물조합 창립총회를 결성하였다는데 정관이의 제 결의사항은 만장일치로 가결을 짓고 내빈출사와 본군군수의 간곡한 고사로 일동 감격한 가운데 무사히 2시경에 회를 마쳤다 한다. 당일 송정된 역원은 다음과 같다.



홍길선(수원상공회의소, 『수원상공회의소 100년사』, 2008)

역원

조합장 홍길선(洪吉善)

이사 우영근(禹永根), 이유복(李有福)

감사 서정열(徐廷烈), 양성하(梁成廈)

평의원 박창숙(朴昌淑), 홍사운(洪思運)

고문 수원군수, 수원경찰서장, 수원읍장

초대 조합장 수원 출신 홍길선(洪吉善)은 1904년생으로 배재중(培材中)과 도쿄무사시노음악학교(東京武藏野音樂學校)를 졸업하고, 1929년에 설립한 수원양조주식회사 사장이 되었다. 수원금융조합 조합장, 수원주조조합 이사장, 동아일보사 수원지국장, 수원상공회의소 부회두를 역임하는 등 대표적인 수원 실업계의 거물이었다.²⁷ 한편, 수원마포주식회사에 참가하였던 이유복과 홍사운 등도 각각 이사와 평의원으로 참석하고 있다.

직물조합에는 이러한 수원의 직물업자뿐만 아니라 고문으로 수원군수와 수원읍장, 그리고 수원경찰서장까지 선임된 것으로 보아 조합에 대한 국가통제가 한층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처럼 수원 유지들이 면사 배급을 명분으로 혹은 가내공업 지원을 명분으로 수원직물조합(水原織物組合)을 창립한 다음 1940년 1월 16일에는 수원읍 본정 4정목에서 동아직물공장 등을 비롯하여 수원 지역 가정직물 소공업 등을 모아 수원가정직물조

27 그 후 수원에서 초대 민의원(제헌국회의원, 선거구 경기도 수원, 대동청년단 수원단 단장), 2대 민의원(민주국민당), 제4대와 제5대 민의원(선거구 경기도 수원, 소속정당 민주당)을 역임하였다. 수원상공회의소 회장, 사단법인 달성학원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그리고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민주당 중앙당무위원, 민주당 정책위원을 역임하였다(국가관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합(水原家庭織物組合)을 결성하였다.

수원 지방은 근년에 와서 각종 직물 소공업이 날로 확장되어 오던 중 수원군에서는 동아직물공장을 비롯하여 전 수원군에 있는 가정직물 소공업의 발전을 위하여 수원가정직물조합을 조직하고 창립총회는 16일 오후 3시 수원읍 본정 4정목에 있는 영락관에서 개최하였는데 수원군 내에서 직조한 직물은 본 조합에서 검사를 하여서 조합명의로 판매한다고 한다.²⁸

이렇게 수원직물조합과 수원가정직물조합이 같은 날 창립된 것은 당시 직물 원자재 특히 면사(綿絲)에 대한 배급량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 사활적 과제였는지를 보여 주는 것이다. 수원직물조합 평의원인 홍사운이 수원가정직물조합을 주동한 사실은 그러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 준다. 즉, 총독부가 추진하는 배급통제(配給統制)에 적극 나서는 길만이 조선인 직물업자가 살아날 유일한 길이었던 것이다.

한편, 1941년에는 수원실업협회(水原實業協會)를 중심으로 상공회의소 설립운동이 전개되었다. 1941년 1월 20일 중역회의에서 수원상공회의소 창립을 위한 발기인을 뽑고, 회의소 설립 인가를 위한 신청 수속을 하기로 했으며 이어서 2월 11일에는 수원 읍내 경전(京電) 수원지점에서 최고중역회의를 개최하여 첫째, 사회자인 최재엽(高山在燁)이 창립 운동에 대한 경위 및 경과보고를 하게 하였고,²⁹ 둘째는 상공회의소 창립 신청서에 부속하는 동의서를 받고 창립총회를 2월 25일경에 개최하며 그 사이에 회두와 사무담당자 등이 회의소 정관을 정성하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했다. 그런데 당시 동의서 제출 대상에 대해서 결정한 내용이 있는데 당시 상공회의소 회원이 될 수 있는 수원 지역 영업자 즉, 영업세를 7개월 이상 납부한 숫자가 총 330명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개인이 305명, 법인이 25개였다.³⁰ 그리고 동의서는 이들 330명의 3분의 2인 2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이어서 3월 2일 수원읍 공회당에서 수원상공회의소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2월 24일 오후 4시 수원읍에 있는 경전(京電) 수원지점 누상에서 역원회의를 개최하여 회원 다카야마(高山在燁 : 최재엽) 외 17명이 집합하여 사회자로부터 상공회의소 창립준비에 대한 경과를 보고받은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동시에 자문과 여러 가지 협의의 결과 3월 2일 오전 10시 수원

28 「수원업자들이 직물공조 창립 생산품은 조합에서 판매」, 『동아일보』, 1940년 1월 20일.

29 최재엽(崔在燁)은 1895년 수원읍 산부리에서 출생하였고, 보성전문을 졸업하였다. 배우자 김순덕(金順德 : 1911년생, 金奎煥의 딸, 평양여고보 졸업)과 결혼하였다. 조선총독부 군속(郡屬)으로 근무했으나 퇴직하고, 금융업과 무역상을 경영하였다. 1935년 현재 계목상을 하는 외에 경기도 도회의원, 수원금융조합 및 동 실업협회 역원, 보통학교 후원회 부회장의 직으로 활동하고 있었다(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30 경기도 경찰부장, 京高秘 제460호, 「수원실업협회 역원회 개최에 관한 건」, 1941년 2월 22일, 『思想에 關한 情報(14)』.

읍 공회당에서 개최할 것으로 결정하고 창립사무소는 수원읍 궁정(宮町)에다 두고 사법서사사에 키 게이지로(佐伯敬二郎) 편에 창립인가까지 설치하기로 했다.³¹

그런데 경기도 경찰부장은 이러한 수원상공회의소 설립 움직임에 대한 상세한 첩보를 1941년 3월 4일부로 경고비 제460호-2(비밀문서)로 경성지방지원 검사정, 경성헌병대장 각도 경찰부장, 부내 각 경찰서장까지 통첩하였다. 그만큼 조선인 중심의 새로운 조직에 대한 총독부의 의심은 깊었다. 1941년 12월 26일 마침내 수원상공회의소 설립 인가가 났으며, 이듬해 3월 22일 의원 선거가 완료되었다.³²

2) 태평양전쟁과 직물업 정리

태평양전쟁 직후 조선총독부는 고시 124호(1942년 1월 29일)로 「조선상업조합령」에 기초하여 수원군생활필수품소매상업조합(水原郡生活必需品小賣商業組合)을 지정하였는데,³³ 이는 직물에 대한 일반 유통을 전면적으로 국가통제하에 두겠다는 의도였다. 이런 통제에서도 수원에서는 여러 직물업이 설립되거나 증축되었다.

『식은조사월보』(1942년 4월호)에 「직물공장 발전」이라는 제하로 수원 지역의 직물공장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동아직물공장(東亞織物工場) : 경영자 홍사운(洪思運), 직기 22대, 신공장 건설 논의 중

창화직물공장(昌和織物工場) : 경영자 이유복(李有福), 직기 21대

수원직물공장(水原織物工場) : 경영자 김학배(金學培), 직기 60대, 새롭게 직기 44대 및 염사기 6대, 구입공장 확장 계획 중

소화직물공장(昭和織物工場) : 경영자 차재운(車在潤), 직기 180대, 새롭게 염사공장 건설을 계획 중, 염사기 20대

이 외에도 100대 전후의 직기공장으로 하여 현재 매수해야 할 부지를 물색인 것도 2개가 있다. 이상을 실현하면 당지는 조선에서 유수한 직물생산지가 된다.³⁴

1942년 4월 현재 조선인 직물공장 중에서 소화직물(차재운)이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31 경기도 경찰부장, 京高秘 제460호-2, 「수원실업협회 역원회 개최에 관한 건」, 1941년 3월 4일, 『思想에 關한 情報(14)』.

32 「水原商工會議所 초대의원선거 완료」, 『매일신보』, 1942년 3월 28일.

33 수원군생활필수품소매상업조합(水原郡生活必需品小賣商業組合)은 1941년 12월 23일 경기도 수원읍 본정 1정목 91에 설립하였고, 적립금은 총 8만 150원인 상업조합이었다(『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 1942).

34 『식은조사월보』, 1942년 4월, 71쪽.



동흥직물공장(대한방직주식회사, 『대한방직사사』, 1997) 한국전쟁 후의 공장 전경으로, 시설의 일부가 전쟁으로 파괴되어 있다.

나타나며, 이어서 김학배, 홍사운, 이유복 순이다. 이어서 『식은조사월보』 1942년 8월호에는 선만주단(鮮滿綢緞) 수원공장과 소화직물(昭和織物) 제3공장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조지야(丁字屋) 계열에서 자본을 대고 있는 선만주단 수원공장(대표 小林源六)은 이후 1943년 4월에 준공되어 선경직물 평동공장이 되었다. 여기서는 키모토식(木本式) 직기 100여 대와 염색가공설비, 보일러, 기숙사 등을 완비하고 종업원 200여명(남자 약 40명)으로 1943년 봄부터 인견과 시루빠(Silver)를 직조하였다.³⁵

그런데 1944년 8월 기업 정비로 조선직물(朝鮮織物) 산하 회사로 흡수되었다. 조선직물은 1934년에 경기도 안양에서 설립된 인견직 전문 생산업체로 부지 13만 5,300㎡(4만 1,000평), 건물 3만 30㎡(9,100평)였다. 안양공장이 항공기제조창으로 징발 당한 대신 수원에 산재해 있는 직물공장들을 전부 접수한 것이다.³⁶ 당시 수원에는 선경직물 외에 선일직물(鮮一織物)공장, 수원직물공장, 동흥직물(東興織物)공장 등 6개 공장이 있었는데, 접수한 직후 1944년 9월 매산동에 있던 선일직물을 조선직물 제1공장으로, 세류동으로 본사를 옮긴 선경직물을 제2공장으로 개편하였다. 이리하여 조선직물 제2공장(선경직물)은 1944년 9월부터 세류동에 있던 동흥직물로 옮겨지면서 별말의 공장과 더불어 제1, 2공장 체제가 되었다. 직공이 200명 정도인 선경직물보다 선일직물이 조선직물 제1공장이 된 것으로 보아 200대 정도의 규모로 추정할 수 있다. 이는 『식은조사월보』(1942년 4월호)에서 새로 신설될 공장의 직기가 약 200대 규모로 보인다는 기사에서도 확인된다.

35 이한구, 「한국재벌사」 10 SK편 - 1화 창업주 최종건의 구슬땀이 SK의 '초석', 『일요신문』, 2011년 12월 6일.

36 이한구, 「한국재벌사」 10 SK편 - 1화 창업주 최종건의 구슬땀이 SK의 '초석', 『일요신문』, 2011년 12월 6일.

선만주단 수원직물공장 : 조지아 계와 교토직물의 합자로 당지 대평정에 (선만주단) 수원직물공장을 설치하기로 하였고, 이미 동지 1만 5,000평의 매수를 완료하여 자재의 배당을 기다려 기공을 예정함.

기기는 100대

소화직물 제3공장 : 나카타 (차)재운 씨가 경영에 매달리고 있는 소화직물공장의 제3공장(연사공장) 예정계획 중인바, 5월 초순부터 공사를 개시하여 7월 중에 준공할 예정임. 제3공장을 완성하면 연사제직 및 염색의 일관작업이 가능하여지고 동(同) 공장의 생산고 증가가 기대된다.

이 외에도 지난번 이래 용지를 물색 중인 직물공장이 2개소(직기 각 200대)이고, 근자에 확정될 예정이다.³⁷

〈표 6〉 일제 말기 수원 지역 주요 직물(조면)공장³⁸

창립시기	명칭	위치	대표자	내용
1935년	남북면업 수원조면공장	수원역 앞 동산농장 부지	미쓰이 계열	조면기 20대(실제 설립여부 불확실)
1936년 2월	수원마포주식회사 (水原麻布株式會社)	수원읍 매향정	홍사훈, 이유복 등	마포 생산, 자본금 50만 원(『동아일보』에는 수원직포회사로 소개되기도 함)
1939년 11월	동아직물공장 (東亞織物工場)	수원읍 본정	홍사운	명주 생산, 직기 22대
1936년 이전	창화직물공장 (昌和織物工場)	수원읍	이유복	직기 21대
1935년 이전	수원직물공장 (水原織物工場)	수원읍	김학배	직기 60대
1938년 1월	소화직물공장 (昭和織物工場)	수원읍 본정 3정목	차재운	1937년경 수원국자회사를 개조하여 공장 건축, 이후 직기 180대로 확대하고 1~2공장 건축, 1942년 7월에는 염사공장(제3공장) 신설. 대성승공장(大誠繩工場)도 경영
1943년	선만주단(鮮滿聯緞) 수원공장(선경직물 평동공장)	수원읍 평동+ 세류정	황청하	키모도식 직기 100대, 종업원 200명, 1944년 8월 조선직물에 흡수됨(기업정비). 동흥직물을 흡수한 뒤 조선직물 제2공장이 됨(공장은 평동 공장+세류동 공장).
1943년경	선일직물(鮮一織物)	수원읍 매산정		1944년 9월 조선직물 제1공장으로서, 해방 당시 종업원 100여 명(해방 후 조선건직으로 추정)
1943년경	동흥직물(東興織物)	수원읍 세류정		1944년 8월 선만주단에 흡수(기업정비), 조선직물 제2공장이 됨. 선경직물의 본점이 됨.

37 『식은조사월보』, 1942년 7월, 84쪽.

38 『식은조사월보』; 『동아일보』.

그리고 차재윤의 소화직물공장도 1942년 7월에 제3공장(연사공장)을 준공하였다. 물론 이 공장도 1944년 8월의 정비 대상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새롭게 직기 200대 규모 직물 공장 2개소의 건설이 예정” 되어 용지를 물색 중이라는 내용도 있는데, 이는 1942년 말에 수원으로 상당한 규모의 공장이 이주할 상황이었음을 보여 준다. 하지만 그러한 이주계획이 실제로 실현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최종건 관련 기록에 나타나는 선일직물과 동홍직물이 그 공장이 아닐까 하는 추정을 해 볼 수 있다.

먼저 수원 세류동에 있던 동홍직물은 1944년 9월 기업 정비로 선경직물의 본사가 되었다고 하고,³⁹ 수원시 매산동에 자리한 선일직물은 극동연합군사령부가 조사한 『일본인 해외 자산 실태보고서』에 나타나는데, 해방 당시 자산평가액이 무려 38만 5천 달러로 선경직물의 16만 9,000달러보다 2배가 넘는다. 1946년 7월 3일 선일직물에서 여공 100여 명이 임금인상 등 대우개선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일으켰고, 4일 경찰의 습격으로 파국으로 치닫는 격변을 겪기도 했다.⁴⁰ 선일직물은 이후 한국전쟁 시점에 파괴된 것으로 보이며, 1953년경 최종건에게 고철 및 중고품으로 직기를 넘겼던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1949년도 『경제연감』에 따르면 수원 지역 직물회사로 대화유직직물(大和有職織物 : 수원읍, 대표 崔敏鍾),⁴¹ 조선건직(수원군 세류동 = 동홍직물 추정),⁴² 선경직물(수원읍, 대표 黃清河) 등의 명칭이 거론되고 있다. 이렇게 일제 말기까지 성장하고 있던 조선인 직물공장은 연사→제작→염색에 이르는 일관작업이 가능하였다.⁴³ 창씨개명을 한 공



수원인촌주식회사에서 제조한 성냥(수원박물관 소장)

39 나중에 최종건은 동홍직물과 선일직물에서 선경직물 계가동에 필요한 직기를 확보하게 된다. “그날로 최종건은 박윤환을 데리고 수원시 매산동 선일직물로 달려갔다. 거기에는 고철로 팔려고 내놓은 직기들이 공장 한 쪽에 가득 쌓여 있었다. 그중에 성한 것으로 10대를 골랐다. 다시 세류동에 있는 동홍직물로 가서 똑같은 방법으로 낡은 직기 50대를 주문했다.”(『최종건의 SK 창업 비사 ① 아버지 몰래 땅 문서 훔쳐다 줬』, 『중앙일보』, 2007년 5월 2일.

40 「대우개선요구고 선일직물 수원공장 파업」, 『현대일보』, 1946년 7월 8일.

41 대화유직직물이 해방 이후 어떻게 되었는지 아직 확인할 수 없지만 1955년 국제청 남세지원국에서 정세과에서 인계감사보고서를 내는 것으로 보아 이즈음 최민중이 다른 사람에게 이 회사를 인계한 것으로 보인다.

42 1944년 안양에 있던 조선직물에 기업 정비된 수원의 동홍직물이나 선일직물로 추정된다.

〈표 6〉 1937~1940년 수원 지역 주요 제조(광산·철도)회사⁴⁴

구 분	설립시기	본점 위치	자본금 (만원)	대표자	사업내용
조선경동철도	1928년 8월 27일	수원읍 매산정 1정목	300	이와사키 신유(岩崎眞雄)	철도부설, 하역
남양광산	1935년 7월 2일	음덕면 북양리 산109-1	200	에노모토 히데오(榎本秀雄)	광업
수원인촌	1937년 12월 27일	수원읍 영화정 124-2	10	하나오카 요시후미(花岡芳文)	상냥제조
수원인쇄	1918년 5월 29일	수원읍 궁정 74	6(1.8)	가야마 히로시(香山弘)	인쇄
수원양조	1929년 3월 22일	수원읍 본정 1정목 14	20(5)	양규룡(梁奎龍)	조선주
수원양조(합자)	1919년 4월 3일	수원읍 복수리 316	2	우에하라 로쿠로(上原陸郎)	양조
수원주조	1927년 5월 26일	수원읍 본정 2정목	5(2.5)	도야마 니교(富山仁行)	주조, 보험
동양인쇄	1928년 1월 16일	수원읍 남수리	0.5	박정렬(朴貞烈)	인쇄
수원장유(합자)	1918년 5월 29일	수원읍 본정 3정목	0.6	쓰시 쓰야타로(都志艶太郎)	간장, 일본된장
천일제탄공장(합자)	1940년 6월 17일	수원읍 남부정 189	0.8	이무리(井村宇祥)	목탄대응품
오산주조	1942년 7월 13일	오산면 오산리 388	8	이토 군조(伊東軍造)	주조

장주가 적은 것을 보아 그것은 총독부가 전쟁 수행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자동원을 위하여 조선인들이 적극적으로 공업에 참가하도록 하려는 ‘정치적 고려’인 듯하다.

이러한 직업업 발전과 더불어 성냥, 인쇄, 양조업 등에서도 전쟁 경기에 편승한 공업성장이 두드러졌다. 〈표 6〉은 1937년 이후 1942년까지 수원 지역에서 조사된 제조(광업·철도 포함)회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1942년까지 수원에는 성냥·인쇄·양조·제탄 등의 회사가 있었지만 비교적 큰 회사가 조선경동철도(자본금 300만 원)와 남양광산(자본금 200만 원)이었고, 수원인촌(水原燐寸)⁴⁵과 수원양조(水原釀造)⁴⁶ 정도가 자본금 10만 원, 수원인쇄(水原印刷)가 자본금 6만 원(불입 1만 8,000원) 정도였다.⁴⁷ 이 외는 대부분 자본금 2만 원 이하 혹은 1만 원 이하의 영세한 회사나 합자회사 형태를 보이고 있다. 『조선은행회사요록(朝鮮銀行會社要錄)』에는 나오지 않지만 대성승회사(차재윤 경영)나 고베본점의 대동인촌(大同燐寸)⁴⁸ 등 소규모 공장이 수원에는 많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43 『식은조사월보』, 1942년 4월, 71쪽; 『식은조사월보』, 1942년 7월, 84쪽.

44 「한국근현대 회사조합자료」(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조선은행회사요록』, 1937·1939·1942. 괄호 안은 불입액이다.

45 수원인촌(주)은 1937년 12월 27일 자본금 10만 원(불입금 100만 원)으로 성냥의 제조 및 판매, 전향의 목적에 관한 일체의 사업 경영 또는 출자를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대표 사가야마(嵯峨山作一), 이사 오카다(岡田松治), 오카다(岡田兼治), 사가야마(嵯峨山作太郎), 감사 마루오(圓尾宗次郎), 야지마(矢嶋福松)이었다. 본점은 수원읍 영화정 124이었다.

46 이 회사는 1929년 3월 22일 수원읍 본정 1정목 14에 설립되었고, 자본금 7만 원, 불입금 5만 원으로, 조선주의 제조 및 그의 부대업 및 일반 상업을 목표로 했다. 배당률은 1942년 현재 9%를 유지하고, 사장·대표가 홍길선(洪吉善)이었다. 전무는 오미네(大峰廷玉), 이사는 히로하라(洪原官利), 감사는 차남순(車南舜), 조돈갑(趙敦甲)이 맡았으며, 총 주식 2,000주 중에서 주주는 10명이며, 조돈석(趙敦錫: 538주), 홍사현(洪思憲: 361주), 오미네(300주) 등이었다.

47 이 회사는 1918년 5월 29일 경기도 수원군 수원읍 궁정 74에 설립하였고, 1942년 현재에도 기업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총 1,200주 중에서 사장이 가야마 히로시(香山弘)가 500주, 이사인 오카다(岡田義道) 300주, 고토(後藤五十子) 100주 등을 소유하고 있다(中村資良,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 東亞經濟時報社, 1942).

3) 선경직물의 성립

선경직물은 1939년 만주 일대를 대상으로 직물을 수출하던 조지야(丁字屋)가 조선에 세운 선만주단(鮮滿綢緞)과 일본의 교토직물(京都織物)이 1941년경 서로 합작하여 만든 것이다. 합작으로 생긴 수원공장은 1943년 4월에 완공되었다. 그래서 회사 이름도 선만주단⁴⁹의 '선'자와 교토직물의 '경'자를 따서 선경이라고 하였다. 교토직물은 직기를 현물 출자하고 선만주단은 공장부지와 공사비를 부담했다.

여기서 최종건(崔鍾建)의 아버지 최학배는 선만주단의 설립 단계부터 인연이 있었다고 한다. 최학배는 21세 때 결혼하여 수원군 팔탄면 해창리에서 수원 평동으로 이주한 다음 대성상회를 개설하였다. 주로 수원잡업시험장에 벗짚과 왕겨 등을 납품하고 미곡상을 경영하였다. 이재(理財)에 밝아 사업이 번성했을 뿐만 아니라 인근의 선경직물공장을 건설할 때는 골재와 자재를 납품하였다.⁵⁰ 그는 선만주단이 처음 수원 벌말에 공장부지를 조성할 때(1941년경) 일본인 공장 측과 조선인 지주 사이에서 공장 부지를 매매하는데 흥정해 준 사람이었다.

일본인 소유의 선경직물은 1940년 10월 평동 4번지였다 공장부지 8,000평을 매입했는데, 당시 선경직물은 조선인 지주에게 1차로 8,000평에 대한 토지대금 2만 4,000원을 지급하였다. 잔여분 4,000평은 2차로 5년 이내에 시가에 따라 매수기로 하며 잔여분에 대해 지주 차철순과 선만주단 측이 공동명의로 해 두었다. 그리하여 차철순과 공동명의로 된 이 4,000평은 귀속재산(적산)에서 빠졌다. 이렇듯 최종건의 부, 최학배는 일본인이 설립한 선경직물과 설립 당초부터 잘 알고 있던 사이로, 1944년 아들 최종건이 쉽사리 선경직물에 취직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1945년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벗어나면서 선경직물은 일본인 재산으로 미군정의 관리를 받다가 정부 수립 이후 정부에 귀속되었다.⁵¹

48 『동아일보』, 1937년 12월 1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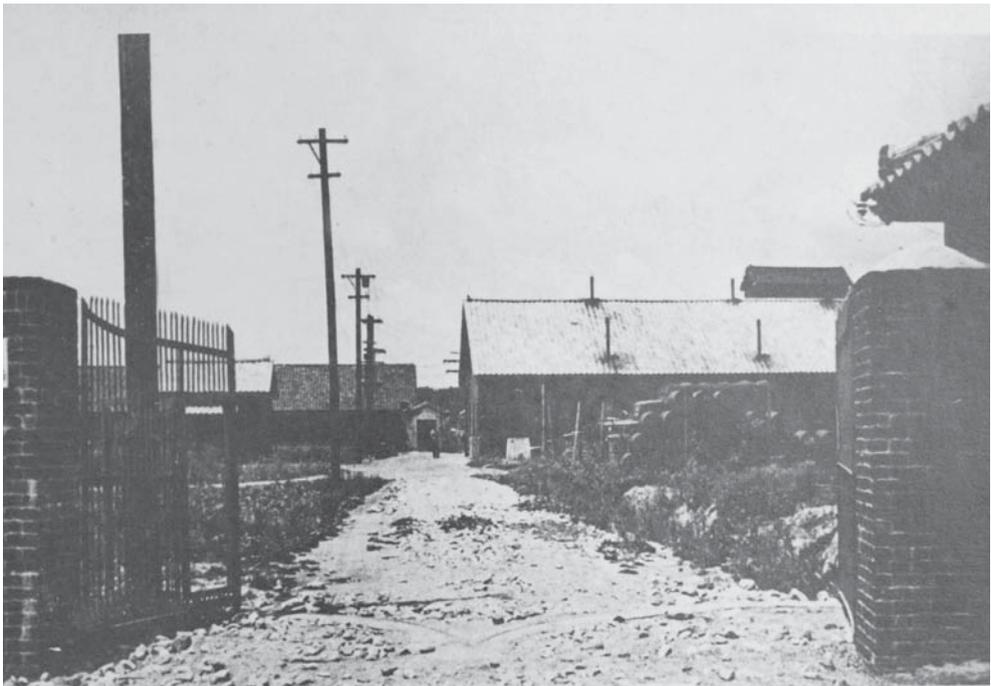
49 선만주단은 1936년 8월 15일 경성부 장곡천정 65에서 자본금 50만 원으로 설립되었고, 처음 대표자는 고바야시(小林源六)였다. 모면 건마 인건 기타의 직물 및 가공품의 매매 및 이에 부속하는 사업 및 중립대리업을 중심으로 했으며, 중역으로 이사 스즈키(鈴木文次郎), 고바야시 기타로(小林喜太郎), 고바야시 겐지로(小林源次郎), 감사 나카무라(中村宗太郎), 우에기(上木金一) 등이 있었는데, 여기서 지배인이 황청하(黃清河)였다(中村資良,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 東亞經濟時報社, 1937).

50 이한구, 「『한국재벌사』 10 SK편 - 1화 창업주 최종건의 구슬땀이 SK의 '초석」, 『일요신문』, 2011년 12월 6일.

51 해방 후 선경직물의 동향에 대해선 김인호, 「근대도시 수원의 산업적 변화와 특징」, 『수원역사문화연구』 창간호, 수원박물관, 2012, 148-151쪽 참조.



일제시기 선경직물 직원들(선경그룹홍보실, 『선경 40년사』, 1993) 둘째 줄 맨 왼쪽에 앉은 이가 견습기사로 입사한 고 최종건 회장이다.



1950년대 평동 선경직물(수원시, 『수원사진대관』, 1956)

3. 수원 산업의 성격

일제하 수원 경제의 발전 동인에는 지주제를 기반으로 한 토착 조선인 자본의 자본 축적과 이들에 의한 적극적인 직물업 도자기업 등에 대한 투자라는 내재적 계기가 작동하고 있었다. 그리고 전쟁 특수에 부응한 적극적인 시국활동과 일본인과의 교분 그리고 일본으로부터 적극적인 기술 및 설비 동원이라는 외적인 계기도 있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토착시장을 매개하여 성장한 평양메리아스처럼 수원의 직물업은 내적인 발전 요소가 유난히 큰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1930년대 이전에도 성냥·양조라든가 조선경동철도·남양광산 등 큰 자본이 투자된 기업이 있었으나 직물업 등 노동집약산업은 크게 발전하지 못하였다. 다만, 직물업에서 소공업, 가내공업, 부업 등이 직물 자급적 유형으로 수원 지역 하층경제를 광범위하게 주도하고 있었다. 물론 1937년 전쟁물자 보급과 관련하여 대일본방(大日本紡)의 수원 진출 계획이 알려지면서 직물업 발전의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대일본방이 그 계획을 취소하고 영등포로 가면서 일본인 직물업의 진출은 1941년 이후 선만주단 등의 진출 시점까지 기다려야 했다. 대신 김학배, 홍사운, 홍사훈, 이유복 등의 조선인 자본에 의한 직물업 발전이 주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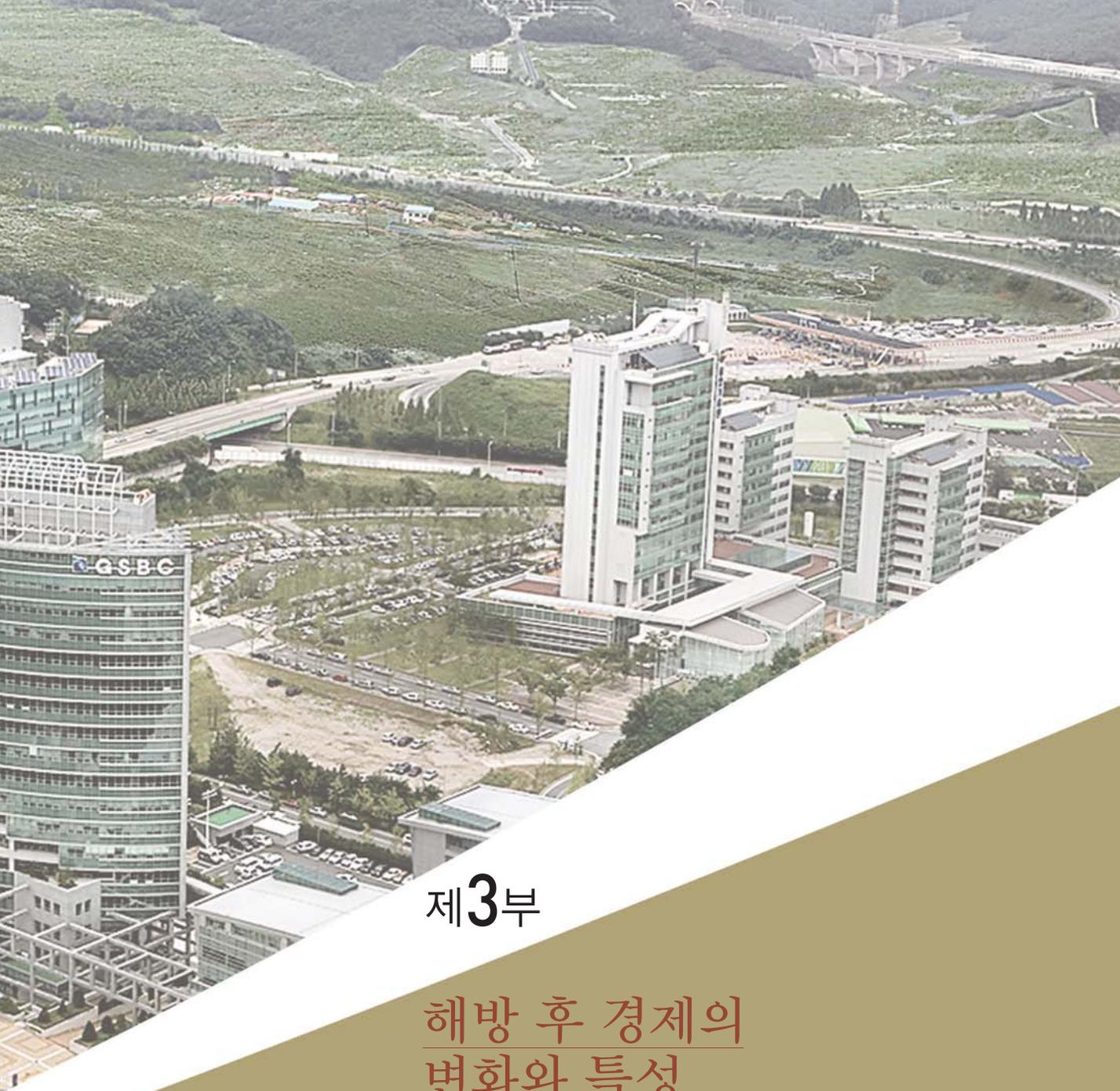
1930년대부터 지주제의 지속적인 강화와 원시적 축적의 취약이라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소공업 및 중소직물업이 대대적인 확장 국면에 있었다. 특히 홍사운, 이유복, 김학배와 같은 민족주의적 경향의 조선인 자본가들이 직물업 방면에 적극 투자를 시작하였다. 이들이 주동이 된 조선마직을 비롯하여 동아직물(홍사운), 창화직물(이유복), 수원직물(김학배) 등이 속속 설립되었다. 또한 훗날에는 최종건 등이 부친인 최학배의 재력으로 선경직물을 인수하였다.

하지만 이들 '민족적' 조선인 기업들의 판로는 역시 침략전쟁이었다. 1940년 이후 중국 지역을 석권한 일제가 조선의 황해권 지역에 공업화를 진행하면서 철도연변에 있던 수원 지역 직물업은 크게 활성화되었다. 1942년경 조선인 소유의 동아직물, 창화직물, 수원직물, 소화직물 등이 대대적으로 시설을 확장했고, 1943년에는 조지아계의 선경직물이 준공되었으며 곧바로 확장에 들어가 2개의 공장을 거느렸다. 직기 200대 규모의 대규모 공장이 부지를 고르고 있었다. 아마도 동흥직물, 선일직물로 추측된다. 전쟁 기간 동안 크게 성장한 수원의 직물업은 해방 후 원자재나 기업 관리 문제로 급속하게 쇠락하였고, 정치적인 좌우 대립과정에서 반공과 지역 인맥을 동원한 최종건이 선경직물을 인수하여 최종

적인 승리자가 되었다.

전체적으로 일제강점기 수원 산업은 시기별로 다른 지역과 달리 지주제가 오히려 강고해지는 현상을 보였다. 그것은 심각한 소작쟁의를 초래했지만 한편으로 조선인 자본가의 성장에도 일정한 기여를 한 듯하다. 지주들의 아들들은 일본 유학 등을 통하여 민족주의적 의식을 무장하거나 적극적으로 직물업 방면의 투자를 감행했고, 결국 수원에서 일본인 자본보다 먼저 직물업 발전을 선도할 수 있었다. 물론 이들은 지역 유지답게 지역 단위의 인맥과 재력 그리고 일본인과의 교분을 충분히 이용하였다. 민족주의와 친일성이 교묘히 배합되어 조선인 본위의 직물업 경제를 만들어 낸 것이다.





제3부

해방 후 경제의 변화와 특성

제1장 해방 후 수원의 귀속기업체 불하와 지역경제

제2장 경제개발기 수원의 경제구조

제3장 수원시의 경제여건과 발전방향



배석만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HK연구교수

1. 귀속기업체의 현황
2. 귀속기업체의 불하
3. 1950년대 지역경제의 변화



제1장

해방 후 수원의 귀속기업체 불하와 지역경제

1. 귀속기업체의 현황

해방이 되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독립국가 건설의 기초가 되는 자립경제 구축의 관건으로 일본인이 남기고 간 재산인 '귀속재산'에 주목하였다.¹ 당시 귀속재산의 비중은 전체 경제의 8할을 차지하는 것으로 인식되었고, 상대적으로 크고 중요한 공장의 거의 대부분이 귀속재산이었기 때문에 그 처리는 단순한 경제문제가 아닌 정치적으로도 주요한 관심사였다. 사실 8할의 비중은 과장된 표현이었지만, 귀속재산이 식민지 경제에서 탈피하여 신속하게 자립적인 근대화와 공업화를 이루는 데 가장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다는 의미에서 장기간 그대로 사용되었다. 특히 귀속기업체는 귀속재산 내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독립국가의 자립경제 건설 방향이 급속한 공업화에 맞춰지면서 그 처리는 세간의 큰 관심사였다.

당시 여론은 귀속기업체가 한국인의 수탈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므로 당연히 한국인

¹ '귀속재산'은 적국의 재산이라는 의미에서 '적산'으로도 불렸다.



대한방직주식회사 수원공장을 불하받은 설경동(시사통신 수원지사, 『수원의 역정』, 1960)과 선경직물주식회사를 불하받은 최종건(수원상공회의소 소장)

전체의 재산이고, 따라서 마땅히 독립국가가 수립된 후 이들 모두가 국유화되어 국가경제 건설에 이바지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² 귀속기업체를 국가자본화해야 한다는 것은 민간자본의 축적이 미약한 신생 독립국의 현실적 조건과 해방공간의 사회주의적 분위기로 인해 좌우 정치세력을 막론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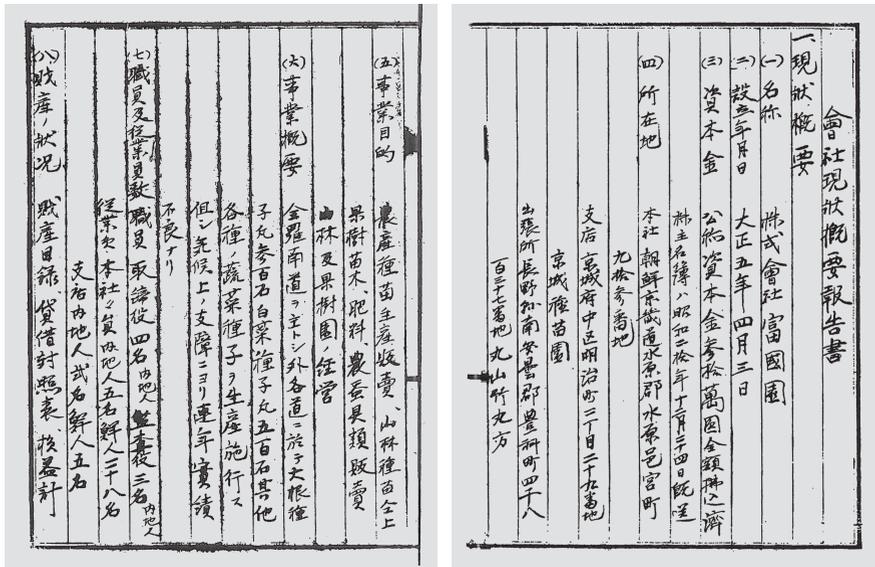
절대적 여론이었지만 실제 전개된 처리과정은 이것과 큰 차이가 있었다. 즉 귀속기업체는 해방 직후에 한국인 종업원 중심의 자치적 공장 운영을 거쳐 미군정에 귀속되어 관리된 후, 미군정기 말기에 이르러 일부 소규모 기업체가 불하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1948년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면서 공식적으로 이관되었고, 1949년 제정된 「귀속재산 처리법」에 의거하여 1950년대 말까지 대부분 민간에 불하되는 것으로 처리가 대체로 일 단락되었다.³

귀속기업체의 처리과정에서는 주요 기업체를 차지하기 위한 쟁탈전이 벌어지고, 각종 정부 특혜와 정치자금이 교환되는 정경유착이 발생하는 등 해방 후 한국 자본주의 전개 과정의 어두운 모습을 만들어 냈다. 한편으로 귀속기업체가 해방 후 초기 한국자본주의 발전과 공업화를 선도하며, 귀속기업체를 불하받은 인물들이 단기간에 대자본가로 성장하여 이후 한국 경제 발전의 주체를 형성하였다는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수원 지역도 상대적으로 큰 공장들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일본인이 경영했던 귀속기업체였다. 이 공장들 중에서 일제 말기에 집중적으로 설립된 직물공장들이 주목된다. 1950년대 5대 재벌의 반열에 올랐던 대한방직의 설경동(薛卿東)과 현재 한국 5대 재벌 중 하나인 SK그룹의 창업자 최종건(崔鍾建)이 귀속기업체인 직물공장을 불하받아

2 소규모 기업체의 경우 민영을 주장하는 의견이 있는 등 국유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일정한 시차차가 있었지만, 원칙적으로 국유화한다는 데에 좌우 정치세력의 의견이 없었다. 관련해서는 배석만, 「해방 후 지식인층의 신국가 경제건설론」, 『지역과 역사』 7, 부경역사연구소, 2000 참조.

3 귀속기업체 처리와 이를 통한 초기 자본가 형성과 관련해서는 김기원, 『미군정기의 경제구조-귀속기업체의 처리와 노동자 자주관리운동을 중심으로』, 푸른산, 1990; 공제욱, 『1950년대 한국의 자본가 연구』, 백산서당, 1993 참조.



부국원 회사 현황 보고서(『제조산업현상개요조사』, CJA0001729, 국가기록원 소장)

대자본가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하였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귀속기업체를 불하받은 인물들은 이후 수원 지역경제계의 주요 인물들로 부상했다는 측면에서 해방 후 귀속기업체와 관련한 전국적인 추세와 맥을 같이한다.

그러면 우선 해방 당시 수원 지역에 어느 정도의 귀속기업체가 존재했는지 살펴보자. 물론 이 작업은 용이한 것이 아니다. 가장 큰 이유는 자료적 제약 때문이다. 미군정이 귀속기업체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작성했을 관련 1차 자료가 아직 발굴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유용한 자료는 조선은행조사부(朝鮮銀行調査部)가 작성한 1949년판 『경제연감』이다. 그러나 『경제연감』은 이미 해방 후 몇 년이 지난 시점이라 누락된 기업체가 있고, 기재에 오류도 많다. 더욱이 일제 말과 해방 후의 혼란 속에서 기업의 통합·분리·해체 등의 이합집산이 격렬했을 뿐만 아니라, 사명(社名) 변경, 주소 변경 등이 발생했던 점은 귀속기업체 추적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해방공간에 정부 및 민간이 작성한 각종 기업명부, 일본정부의 지시로 일제 패전 당시 한국에 있던 일본인 경영 기업의 현황을 조사하여 만들어진 『제조산업현상개요조사(在朝鮮企業現狀概要調書)』⁴ 등의 관련 자료를 활용하면, 『경제연

4 일제 패전 후 조선총독부 도쿄사무소가 조선에서 철수한 해당 기업의 일본인 관계자의 보고를 취합한 자료이다. 작성연도는 표지에 1946년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정확하지 않다. 동 자료는 해방 후 조선에서 철수한 일본인이 만든 단체인 '유호쿄카이(友邦協會)'의 '유호분코(友邦文庫)'에 포함되어 있다. 유호분코는 현재 가쿠슈인대학(学習院大學) 동양문화연구소에 소장

감』의 한계를 일부 보완할 수 있지만 완벽하지는 않다. 그러나 지금의 자료 상황으로서 더 이상의 방법이 없으므로 수원 지역 귀속기업체의 현황도 이 방법으로 정리하였다.

해방 당시 수원 지역에 존재한 귀속기업체를 추적하기 위해 가장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1949년판 『경제연감』을 기본 자료로 이용하였다. 그리고 다음에서 소개하는 자료들을 이용하여 『경제연감』에 누락된 기업체를 찾아내어 추가하는 한편, 오기를 수정하고 관련 정보를 보완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재조선기업현상개요조서』 외에 정부 수립 후 상공부가 1949년 12월 시점에 작성한 『단기 4283년도관 공장광산명부』, 해방 후 출판된 기업명부 중 현존하는 가장 이른 시기(1946년 12월 1일~1947년 3월 말 조사·작성) 명부인 조선상공흥신사(朝鮮商工興信社)의 『서기 1947년도관 조선상공록-남조선종합관』, 중외상공정보사(中外商工情報社)가 1948년 조사·작성한 『전국상공신용록(全國商工信用錄)』, 수원상공회의소가 1986년 출판한 『수원상의사(水原商議史)』에 게재되어 있는 각종 업체명부, 그리고 한국은행조사부가 한국전쟁 직후인 1953년 12월 현재의 상황을 정리한 『생산기업체명부(生産企業體名簿)-단기 4286년 12월 현재』 등이다. 이 중 특히 『단기 4283년도관 공장광산명부』와 『서기 1947년도관 조선상공록-남조선종합관』은 해당 기업의 귀속기업체 여부가 부분적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기술하고 있어서 『경제연감』이 누락하고 있는 귀속기업체를 찾아내는 데 유용하다. 이들 자료를 이용하여 수원 지역에 존재했던 귀속기업체의 대체적인 실태와 규모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수원 지역 귀속기업체 현황⁵

기업체명	소재지	설립시기	생산품목	기업 형태	직공 수	비고
식산신선(殖産伸線)공장	수원읍 인계동 762		양정(洋釘), 철선	개인	23	식산신(殖産伸)공장으로도 기록됨.
조선기계제작소	수원읍		기계	개인		조선기계제작소(대표 : 丁永俊)의 오기로 보이나 확실치 않음.
조선농기구주식회사 수원공장	수원읍 평동 110	1940년 4월	농기구	주식	34	
남북면업회사 수원공장	수원읍 매산로2가 90	1935년 3월	조면(縲綿)		80	경기면업주식회사로 사명(社名) 변경.

되어 있고, 최근 국가기록원이 수집하여 공개하고 있다.

5 ① 오기가 명백한 것은 바로잡았다. 예를 들어 조선직물주식회사의 경우 1949년판 『경제연감』에는 '조선직주식회사, 수원군 세서동(細栖洞)으로 기록되어 있다. ② 자료별로 차이가 있으나 어느 쪽이 정확한지 확실하지 않은 기록은 비교란에 병기하였다. ③ 1949년 이후 화성군에 속하는 오산, 안릉, 음덕면도 포함시켰다. ④ 일제시기 동명은 해방 후 바뀐 동명으로 기록하였다. ⑤ 설립시기는 공식 설립일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공장 건설의 착공일 또는 준공일을 기입하였다.

기업체명	소재지	설립시기	생산품목	기업 형태	직공 수	비고
대화유직직물(大和有織織物)주식회사	수원읍 장안동 30	1943년 10월	직물	개인	69	대화유직(大和有織), 대화유물(大和有物), 대화유직물(大和有織物)로도 기록됨. 홍원(洪源)직물공장으로도 사명 변경
선경직물주식회사	수원읍 평동 4	1942년 5월	견직	주식	89	
선일(鮮一)견직주식회사	수원읍 매산로2가 60	1942년 9월	견직	주식	85	
조광(朝光)직물공장	수원읍 영화동 295		견직	개인	41	
조선남염(朝鮮捺染)공업주식회사	수원읍 서둔동45	1943년 7월	염색, 남염(捺染)	주식	14	동화(東和)백화점 남염(捺染)수원공장으로도 기록됨
조선직물주식회사 수원공장(同興직물)	수원읍 세류동 241	1943년 2월	견직	주식	195	1949년 12월 현재 중앙직할귀속기업체
궁기(宮崎)연탄공장	수원읍 서둔동 396-1		연탄	개인	14	
대동(大東)제지주식회사	수원읍 매교동 161	1943년 6월	선화지(仙花紙)	주식	95	
수원고무공업사	수원읍 매산로2가 40		고무신	개인	80	
수원연탄공장	수원읍 서둔동 196		연탄	개인		
수원인촌(麟寸)주식회사	수원읍 영화동 124	1937년 12월	성냥	주식	318	수원성냥주식회사로 사명 변경
수원제빙소	수원군 매산로2가 65		제빙	개인		
조선감과(柑果)제조회사	수원읍 세류동 141	1944년 1월	흑연도가니	주식	51	
고압(高鴨)정미소	수원군 오산면		정미			
삼곡(三谷)정미소	수원군		정미			『조선일보』, 1946년 9월 7일자
수원장유제조장	수원읍 팔달로2가 22	1931년 11월	간장, 된장		18	
수원정미소	수원읍 태평동		정미	개인		
수인(水仁)양조장(합자회사)	수원군 안흥면 고색리 21	1907년 4월	주조		15	
오산산업정미소	수원군 오산면		정미	개인		
오산장유제조장	수원군 오산면 오산리		간장, 된장		17	
오산주조주식회사	수원군 오산면 오산리 388	1942년 7월	주조	주식		
조선국자(朝鮮鞆子)주식회사 수원공장	수원읍 인계동	1935년 4월	누룩	주식		
통택(通澤)정미소	수원군 오산면		정미	개인		
남양광산	수원군 음덕면 북양리	1934년 7월	텡스텐광산	주식		1941년 조선특종(朝鮮特種)광업(주)에 합병
조선운모개발판매(朝鮮雲母開發販賣)주식회사 수원공장	수원읍 영화동	1941년 2월				선광장(選鑛場) 건설
보광(普光)인쇄소	수원읍 팔달로2가 44		인쇄			
(주)부국원(富國園)	수원읍 교동 93	1916년 4월	상업	주식		
동산농사(東山農事)주식회사 경기농장	수원읍 매산정 1-2	1919년 10월	농사	주식		동산농장의 조선지점
(주)수원극장	수원읍 교동 128	1933년 10월	극장			

해방 당시 수원 지역에 존재한 귀속기업체로 자료상으로 확인되는 업체는 총 33개의 기업 내지 공장이다.⁶ 가장 주목되는 것은 섬유공업 관련 업체들인데, 특히 인견을 중심으로 하여 견직물을 생산했던 직물공장들이 상대적으로 규모도 크고 여러 개가 존재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아울러 성냥 제조, 제지, 고무신 제조 등의 화학공업 관련 업체들의 규모도 큰 편이었다. 수원인촌(성냥)주식회사는 1949년 현재 가장 많은 종업원을 가진 공장이었다. 식품공업 관련 업체들은 오산면(烏山面)을 중심으로 분포한 정미소 및 장유, 주조업체 등이 양적인 측면에서 주목되지만, 소규모 업체들이었다. 전체적으로 보아 해방이 되었을 때 식민지 공업화의 유산이라는 측면에서 수원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발달한 공업은 직물업을 중심으로 한 섬유공업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한 가지 특기할 사항은 직물공장들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귀속기업체의 대부분이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제 말, 그것도 태평양전쟁에 들어간 이후 집중적으로 설립되고 있다는 점이다. 제조업의 위축이 두드러지는 이 시기에 수원 지역에서 일어난 이와 같은 현상은 분명 흥미로운 것이다. 구체적인 이유는 보다 본격적인 연구를 통해 밝혀져야 하겠지만, 전시통제에 따른 기업 정비 등으로 일본에서 유희화된 설비와 자본·기술이 진출하였던 점은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설립된 기업들의 업종을 통해 일정하게 파악이 가능하다. 1940년대 신설된 기업 중 군수공업 육성 차원의 공장 설립으로 볼 수 있는 것은 1941년 2월 조선운모개발판매주식회사가 수원에 선평장(選鑛場)을 건설한 정도이고, 대부분은 직물, 염색, 제지, 농기구, 도가니, 주조 등 생필품 생산 관련 공장들로, 전시경제에서 평화산업으로 지정되어 생산에 제약을 받고 나아가서는 기업 정비를 강요당했던 업종들이다. 물론 통제경제는 제국과 식민지 전체에서 작동되는 것이었지만, 일본에서의 작동이 보다 이른 시기에 강도 높게 진행되었다. 후술하겠지만 이들 기업의 설립이 일본 백화점·직물공장·동업조합의 적극적인 자본과 기술·설비 이전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도 이런 정황을 뒷받침한다.⁷

자료상으로 확인되는 33개의 귀속기업체 및 공장 중 일부는 일제 패전 당시의 상황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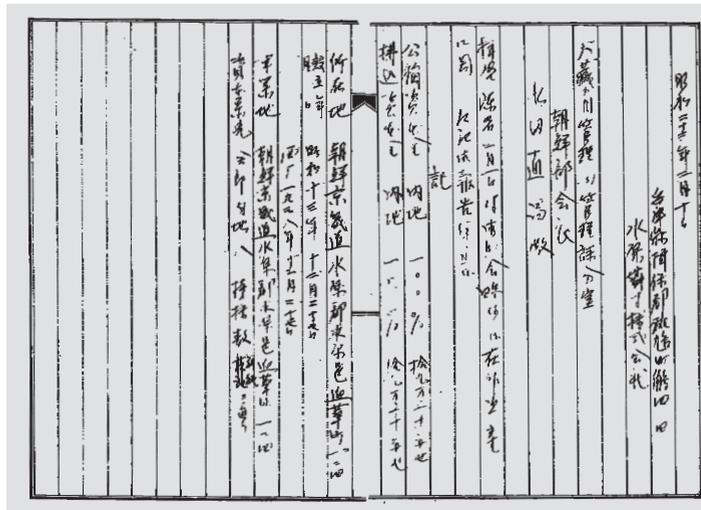
6 수원을 본정(현재의 팔달로) 2정목 84번지에 있었던 수원주조주식회사(자본금 5만 엔/2만 5,000엔 불입)도 귀속기업체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기록이 없어 제외하였다. 1927년 5월에 설립된 수원주조는 1942년 당시 토야마(富山仁行)가 사장이었고, 대주주도 전부 일본인으로 일본인 경영 기업체였다(中村資良編,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 東亞經濟時報社, 1942;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해방 후에는 1949년 말 조인행(趙仁行)이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상공부, 『단기 4283년도관 공장광산명부』), 1955년 말 김희배(金熙培)가 경영 중이었다(수원시, 『시세일람』, 1956, 152쪽).

7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들 일본의 유희설비들을 이전하는 장소로 왜 수원을 선택하였을까 하는 문제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직물공장 설립의 경우 입지조건과 수원 지역 잠업(蠶業)의 전통을 지적하지만(수원상공회의소, 『수원상의사』, 1986, 287쪽),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는 못하다.

알 수 있다. 이것은 주로 앞서 언급한 『제조선기업현상개요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다. 우선 선일견직(鮮一絹織)은 일본 오사카에 거점을 두고 유통업과 금융업을 하고 있던 고쇼(江商)주식회사의 자회사로 1942년 9월에 설립되었다. 자본금은 50만 엔으로 전액 불입되었고, 이 중 7,500엔은 한국인의 지분이었다. 패전 당시 사장은 다카모리 야스오(高森安夫)로 고쇼주식회사의 경성지점장을 역임한 인물이었다. 종업원은 총 215명으로 상급 직원 15명 중 8명이 한국인이었다. 견직물 제조·판매 및 연사(撚絲)가 공판매가 주력 업종이었으나 전시통제 속에서 원료, 노동력, 기자재 난으로 영업성적은 좋지 않았다. 1944년 60만 엔어치의 견직물을 생산하였지만 5만 5,688엔이라는 거액의 적자를 보았다.

조선날염공업(朝鮮捺染工業)은 1930년 설립된 일본 미쓰코시(三越)백화점 경성점의 자회사로 1943년 7월 설립되었다. 전액 불입된 자본금 30만 엔은 미쓰코시가 26만 엔, 동양면화주식회사가 4만 엔을 출자하였다. 섬유제품의 각종 염색공이 주력업종으로 일제 패전 시까지 사업 총투자액은 100만 엔이고, 이 중 미쓰코시의 투자가 95만 엔으로 절대 비중을 차지하였다. 생산능력은 연간 70만 엔 정도였으나 공장이 미완성인 상태로 패전을 맞았다. 해방 후 미쓰코시백화점 경성점이 동화(東和)백화점(현 신세계백화점)으로 사명을 바꾸어 경영되면서 동화백화점 날염수원공장으로 불리기도 했다.

수원성냥주식회사는 일본성냥(日本燐寸)공업조합의 진출로 1937년 12월 설립된 성냥제조공장이었다. 설립 당시 자본금은 10만 엔으로 5만 엔이 불입되었다. 1939년부터 본격 생산에 들어갔으나 초기는 시설이 불완전하여 경영상 고전을 면치 못하였다. 그러나 1940년대에 들어서 자본금을 19만 5,000엔으로 증자한 것에 힘입어 시설 확충을 통한 일관생산체제를 갖춘 결과, 패전 시에는 조선 내에서 최고 수준의 생산능력을 갖춘 공장이 되었다. 패전 당시 규모는 종업원 380명으로 성냥공장으로는 큰 공장였고, 250만 엔의 자산, 28만 엔의 성냥매상고, 2만 엔의 영입이익 등 극심한 원자재 난에도 불구하고 건실한 경영성적을 유지하고 있었다. 패전과 함께 일



수원인촌주식회사 현황 보고(『제조선간회사자산현황보고』, 국가기록원 소장, CJA0002568)



부국원 본점(사카이 마사노스케, 『수원』, 1923)

본인 경영진은 공장 내 한국인들로 조직된 자치위원회(대표자 : 徐興錫)에 공장 관리를 위탁하고 철수하였다.

부국원(富國園)은 1916년 4월 설립된 자본금 30만 엔(전액 불입)의 종묘, 묘목 생산판매업체로 서울과 일본 나가노현(長野縣)에 각각 지점과 출장소를 두었다. 경영진은 모두 일본인이었고, 종업원은 수원 본점에 33명(이 중 한국인 28명), 그리고 서울 지점에 7명(이 중 한국인 5명)이었다. 1945년 12월 1일자 일본 내무성 관리국 식산과에 일본인 경영진이 제출한 보고서를 보면 패전과 함께 가장 직급이 높은 한

국인 사원에게 모든 자산과 회사업무 일체를 위임·관리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일본으로 철수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부국원의 재산은 부동산과 기차재, 유가증권, 보유 종묘, 묘목 등을 합쳐 대략 50만 엔 정도였다.

남양광산은 1934년 7월 영국인과 미국인들이 텅스텐(重石)과 물리브덴(水鉛)의 채굴, 정제 및 판매를 위해 남양광산주식회사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다. 설립 당시 자본금은 200만 엔으로 전액 불입되었다. 이후 1938년 1월 돈베 히데오(頓部秀雄)가 영국인과 미국인들로부터 동 광산을 매수하여 경영하였고, 1941년 중요 군수자재인 텅스텐과 물리브덴 증산을 위한 조선총독부의 중용을 받아 12월 26일자로 조선특종광업(朝鮮特種鑛業)주식회사에 합병되었다. 조선특종광업은 1939년 3월 일본고주파중공업과 남양광산의 돈베가 함께 출자하여 설립한 자본금 50만 엔의 광산개발회사로, 합병을 통해 남양광산의 주식회사 체제는 해산되었고, 남양광산은 조선특종광업의 주력 광산이 되었다. 남양광산을 흡수하면서 조선특종광업은 자본금이 250만 엔으로 늘어났고, 채광 성적이 우수하여 1941년 3월과 10월에 조선총독부와 경기도지사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1943년 4월에는 조선총독부에 의해 조선 군수자재 중요 광산으로 지정되었다. 패전 당시 재산은 남양광산의 광산권과 채광, 선광장 설비 등을 합하여 450만 엔 수준이었고, 종업원은 한국인 광산

노무자 250명과 직원 34명(이 중 한국인 23명)이 있었다.⁸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과 신문자료, 사사(社史), 회고록 등의 자료에 나오는 단편적인 정보들의 조합을 통해서도 귀속기업체의 일제시기 이력에 대한 일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⁹ SK그룹의 모태인 선경직물의 경우 이런 방법을 통해 가장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귀속기업체이다.

선경직물은 선만주단(鮮滿綢緞)주식회사가 일본 견직물업계의 가장 오래된 기업 중 하나인 교토(京都)직물주식회사의 기술을 끌어들이어 설립하였다. 선만주단주식회사는 일본 백화점 대자본 중 하나인 조지야(丁子屋)상점이 1936년 각종 직물 매매를 위해 설립한 자회사였다. 구체적인 합작 방법은 선만주단이 자본과 인력을 대고, 교토직물이 직기 100대의 현물투자 및 기술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선경직물의 사명도 선만주단의 ‘선’과 교토(경도)직물의 ‘경’을 합쳐서 만들었다고 한다. 자본금은 50만 엔(전액 불입)이었고, 주로 양복 안감으로 사용하는 인견직물과 이랑주 본견직물 등도 생산하였다. 1943년부터 생산을 개시했고, 제1공장과 제2공장으로 이루어진 공장시설은 1944년 말 완성되었다.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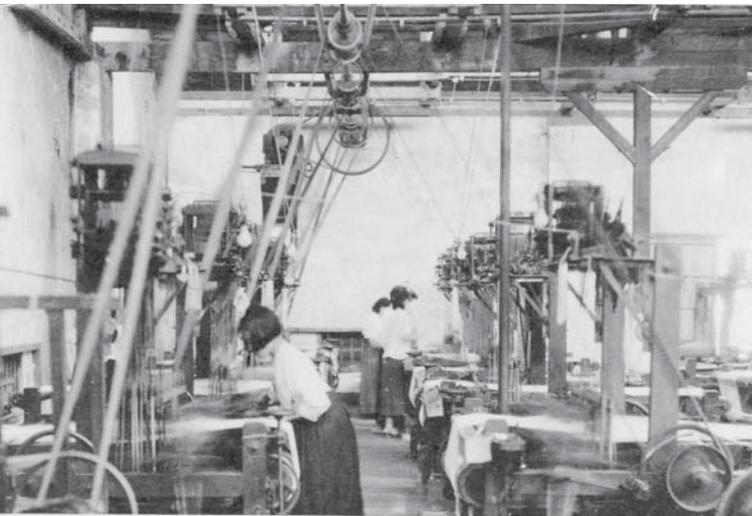
조선직물주식회사는 정확하게 ‘조선직물주식회사 수원공장’으로 1942년 세류동(細柳洞)에 부지 1만 7,000평을 확보하여 11월경부터 직기 200대 규모의 직물공장 신축을 시작하였다. 원래 조선직물은 1932년 안양에 설립된 직물회사로 1942년 수원에 부지를 매입하여 시설확장을 시도한 것이었다. 그러나 연유를 알 수는 없지만 수원공장이 신축을 시작할 무렵에는 조선직물 수원공장이 아닌 별도의 조선직물 계열사로서 1943년 2월 동흥(同興)직물주식회사가 설립되어 동흥직물 수원공장으로 불리었다. 공장은 1943년 7월 준공되었다.¹¹ 조선직물은 1944년 당시 조선 최대 자본가이자 화신백화점 사장이었던 박흥식이 일제의 중용으로 조선비행기공업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안양공장을 동 회사 부지

8 남양광산에 대해서는 자료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다. 우선 『수원상의사』의 경우 “수원군 비봉면, 음덕면, 팔탄면에 걸쳐 있는 ‘남양중석광산’은 이완석(李完石)의 것이었는데, 1930년 9월 14일 등록했고, 등록번호는 2756”이라고 기술하고 있다(322쪽). 조선총독부가 1935년 발행한 『조선광구일람(朝鮮鑛區一覽)』에 근거한 것으로 보아 예초 남양광산의 광산권을 이완석이 가지고 있었다는 의미일 것이다. 한편 1937년판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에서는 남양광산주식회사가 1935년 7월 설립되었고, 경영진에는 영국인·미국인 외에 박창근(朴昌根)이 경영진의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1939년판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에는 남양광산의 경영진에서 영국인·미국인이 사라지고 일본인 외에 한국인 윤금덕(尹金德)이 들어 있고, 사장은 예노모토 히데오(榎本秀雄)였다. 수원상공회의소가 발행한 『수원상공인명록』(1942년)에는 남양광산의 대표자가 다시 박창근이라고 기록하고 있다(수원상공회의소, 『수원상의사』, 1986, 432쪽).

9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1925년판까지는 『조선은행회사요록』)과 일제시기 신문자료, 관련 인물정보의 경우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였다(<http://db.history.go.kr>). 1940년대 이후 『매일신보』에 대해서는 한국언론재단이 구축한 신문기사데이터베이스인 카인즈(<http://www.kinds.or.kr>)를 활용하였다.

10 선경홍보실, 『선경 30년사』, 1983, 74~75쪽.

11 수원상공회의소, 『수원상의사』, 1986, 289·386~388쪽.



대화유직직물을 불하받아 운영된 홍원직물(수원시, 『수원사진대관』, 1956)

로 내어 주고, 대신 수원 지역의 크고 작은 직물회사를 통합하여 넘겨받았다. 이를 통해 동흥직물이 조선직물 본사가 되고 선일직물이 제1공장, 선경직물이 제2공장으로 개편되었다.¹²

조선농기구주식회사 수원공장은 일제시기 최대의 식민지 지주회사들인 후지흥업(不二興業)과 동양척식이 출자하여 자본금 100만 엔(전액 불입)으로 1940년 4월 1일 설립한 농업용 기계·기구 제작공장이었다. 당시 본사는 서울에 두고 주력 공장을 수원에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데, 수

원공장 외에 소사(素沙), 대전, 군산, 김천, 포항, 부산에도 공장이 있었다. 이들 공장은 신설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일제 말 「기업정비령」에 따라 조선농기구에 통합된 공장들로 생각된다.

대동제지(大東製紙)는 1943년 8월경에 공장용지 매수를 끝내고 시설공사에 들어간 회사였다. 통제경제 속에 필요한 기자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공사 진척이 예상보다 늦어졌지만, 1944년 10월 상량식이 거행되었고 연말까지 공사가 완공될 예정이었다.¹³

대화유직직물(大和有職織物)은 1943년 10월, 자본금 19만 5,000엔으로 설립되었다. 일본 교토의 니시진오리(西陣織) 기술을 도입하여 주로 승려와 신관(神官)의 의복지를 생산할 목적으로 1943년 말부터 부지매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여의치 않아서 1944년 8월 홍사성(洪思成)이 운영하던 직기 30대 규모의 동아(東亞)직물공장을 22만 5,000엔에 매입하여 1944년 말 조업에 들어갔다.¹⁴

주식회사 수원극장은 <표 1>의 근거 자료로 앞서 소개한 자료들에는 나오지 않으나, 재무부 산하 연합청산사무국이 귀속기업체 불하 상황을 정리한 『법인대장』에 1955년 6월 홍사훈(洪思勳)에게 불하되었다는 기록이 있어 기입한 것이다. 수원극장은 1933년 10월

12 담연 최중건 평전 간행위원회, 『공격경영으로 정면승부하라』, 넥서스Books, 2003, 68-69쪽.

13 수원상공회의소, 『수원상의사』, 1986, 392·396쪽.

14 수원상공회의소, 『수원상의사』, 1986, 290·392·396쪽.

자본금 1만 5,000엔(3,730엔 불입)으로 설립되었다. 출자 상황은 알 수 없지만, 사장은 당시 수원 지역 유지였던 양규룡(梁奎龍)과 홍사훈이 이어서 하고 있고, 경영진 내에 일본인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아 한국인 지역 유지들의 주도하에 일본인들과의 합작으로 설립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수원극장 사장이었던 홍사훈이 수원극장을 불하받은 것은 수원극장 내의 일본인 지분을 불하받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수원극장(수원시, 『수원사진대관』, 1956)

2. 귀속기업체의 불하

귀속기업체의 관리과정 및 불하실태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관리인 변동은 <표 1>과 동일한 자료를 통해 조사하였고, 불하실태는 『법인대장』을 주로 이용하였다. 보완자료로 국세청이 1966년 작성한 『법인주식대장(국유재산)』도 확인하였다. 그리고 별도로 1950년대 말 경영자를 조사한 이유는 불하가 확인되지 않은 기업의 존재와 그 불하 여부를 간접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불하 이후의 소유권 변동도 살펴보기 위함이다. 1950년대 말 부문은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였다.

<표 2>를 보면 33개 귀속기업체 중 불하된 것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업체는 13개 업체이다. 불하실태를 알 수 없지만 1950년대 말 현재 기업체의 존재 및 경영자가 확인되는 업체를 불하된 업체로 간주하면 20개 업체가 불하되었다고 볼 수 있다. 관리 상황은 물론 불하 여부가 불확실한 업체들은 정미소, 간장공장, 된장공장, 주조공장 등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식품공업 관련 업체들이다. 그 이유는 자료적 한계로 확인되지 않는 것일 수도 있고, 소규모였으므로 해방공간의 혼란 속에서 관리부실 등으로 유실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아 수원 지역의 경우도 일단 미군정에 접수된 주요한 귀속기업체들은 해방공간의 혼란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도 유실되지 않고 대체로 민

〈표 2〉 귀속기업체 관리인 변동 및 불하 현황¹⁵

기업체명	관리인 변동	불하				1950년대 말 경영자(社名 변경)
		불하인	일시	가격(환)	상환조건	
식산선공장	김순근(金順根)					김순근
조선기계제작소						
조선농기구 주식회사 수원공장	차화선(車化善)	장기봉	1958년 1월 28일	19,900,000		차화선
남북면업회사 수원공장	임헌인(林憲寅)→ 박병계(朴炳桂)→임헌인	임헌인	1955년 2월 16일	2,600,000	10년/우선	임헌인 (경기면업)
대화유직직물 주식회사	최민중(崔敏鍾)→암산중 (岩散鍾)→홍사운(洪思運)	홍사운	1953년 2월 2일	1,210,000	5년/경쟁	홍사운 (충원직물)
선경직물주식회사	황청하(黃淸河)	차철순 (車哲舜)	1953년 1월 28일	2,244,200	5년/우선	최종건
선일견직주식회사	주대윤(朱大允)	주대윤	1952년 5월 12일	1,072,500	7년/우선	주대윤
조광직물공장	이삼만(李參萬)					이삼만
조선날염공업 주식회사	김순갑(金淳甲)→이두철 (李斗喆)→방구현(方九鉉)					방구현
조선직물주식회사	이강현(李康賢)→이병덕 (李炳德)→김성곤(金成坤)	김성곤	1952년 1월 7일	3,845,200	5년/우선	김성곤
		이강현 (동흥직물)	1954년 1월 30일	25,000,000	5년/우선	설경동
궁기(宮崎)연탄공장	박태순(朴泰淳)					
대동제지주식회사	조종립(趙鍾立)→ 장백룡(張白龍)	장백룡	1952년 5월 13일	1,450,000	6년/우선	장백룡
수원고무공업사	김덕성(金德星)→ 박정환(朴廷煥)					박정환
수원연탄공장	김승덕(金承德), 한대수(韓大洙)	김교선 (金敎先)	1953년 5월 5일	221,000	5년/우선	김교선 (수원피혁공업사)
수원인촌주식회사	설경동(薛卿東)					
수원제빙소	강대봉(姜大鵬)					강대봉
조선감과제조회사	이규인(李珪寅)→ 한창현(韓昌鉉)	장성원 (張成源)	1955년 3월 17일	4,200,000	5년/우선	장성원 (水原進興工業)
고압(高鴨)정미소						
삼곡(三谷)정미소						
수원장유제조장	장도준(張道俊)					
수원정미소						

15 ① 상환조건이 앞은 불하대금의 분할 상환기간이고 뒤의 '우선'은 기존 관리인 내지 임차인의 우선권을 인정한 불하라는 의미이다. ② 김성곤의 조선직물 인양공장 불하를 포함시킨 것은 불하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그는 1949년 말 현재 수원 공장을 포함하여 중앙직물로 관리되는 조선직물 전체 공장의 관리인이었다.

기업체명	관리인 변동	불하				1950년대 말 경영자(社名 변경)
		불하인	일시	가격(환)	상환조건	
수인양조장(합자회사)	박정환(朴廷煥)→ 박건유(朴健裕)					
오산산업정미소						
오산장유제조장	이주찬(李柱贊)					
오산주조주식회사		김경수 (金景洙)	1956년 3월 23일	1,650,000	10년	김경수
조선국자주식회사 수원공장						
통택정미소						
남양광산	이명성(李明性)					이만중(李萬鍾)
조선운모개발판매 주식회사 수원공장		이삼수 (李三秀)	1952년 5월 8일	1,295,000	5년/우선	
보광인쇄소	박창학(朴昌學)					박창학
(주)부국원	이용기(李龍基)	박정환	1958년 12월 7일	2,312,958	9년	
동산농사주식회사 경기농장						
(주)수원극장	홍사훈(洪思勛)	홍사훈	1955년 6월 23일	2,159,000	10년/우선	

간에 순조롭게 이전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불하받은 공장대금의 상환은 짧게는 5년 부터 길게는 10년에 이르는 장기 분할상환이었고, 대부분 불하 시점에 해당 공장을 관리 내지 임대하여 경영하고 있던 관리인·임차인에게 불하받을 수 있는 우선권이 주어졌는데, 이것은 전국적 현상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었다.

주요한 귀속기업체들은 대부분 1950년대 전반기에 불하되었다. 최고액 불하는 1954년 1월 이강현(李康賢)이 2,500만 환에 불하받은 조선직물주식회사였고, 최저액 불하는 1953년 5월 김교선(金敎先)이 22만 환에 불하받은 수원연탄공장이었다. 이강현은 주지하듯이 한국 1세대 방직기술자로 일제시기 경성방직이 성장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다. 그런 그가 해방 후에 조선직물주식회사의 관리인이 되고, 산하 수원공장까지 불하받게 된 것은 도내 귀속재산을 관리하는 경기도 재산관리처 고문, 재산정리위원회 이사 등의 경력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¹⁶ <표 2>에서 보면 조선직물주식회사는 2개로 분리되어

16 이강현에 대한 인물정보는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참조.

불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쌍용그룹 설립자 김성곤(金成坤)이 불하받은 조선직물주식회사는 안양공장으로, 그가 재벌로 도약하는 토대가 된 금성방직의 공장부지로 사용되었고 이강현이 불하받은 것이 수원공장으로 앞서 언급한 대로 원래는 조선직물주식회사의 계열사로 설립한 동흥직물이었다. 수원공장은 잘 알려져 있듯이 설경동(薛敬東)이 매입하여 그 부지에 대한방직을 설립, 이승만정권기 5대 재벌로 급부상하는 계기가 된 공장이었다.¹⁷ 평북 철산 출신으로 해방 후 월남한 설경동이 수원과 인연을 맺은 것은 수원성냥주식회사의 경영을 맡게 되면서부터이다. <표 1>에서 보듯이 설경동은 수원성냥주식회사의 관리인이었고, 이 성냥공장의 경영이 제조업으로 진출한 첫 번째 사업이었다.¹⁸ 수원에 본사를 둔 조선직물이라는 귀속기업체를 통해 한국 거대 재벌 2명이 탄생한 것은 매우 흥미로운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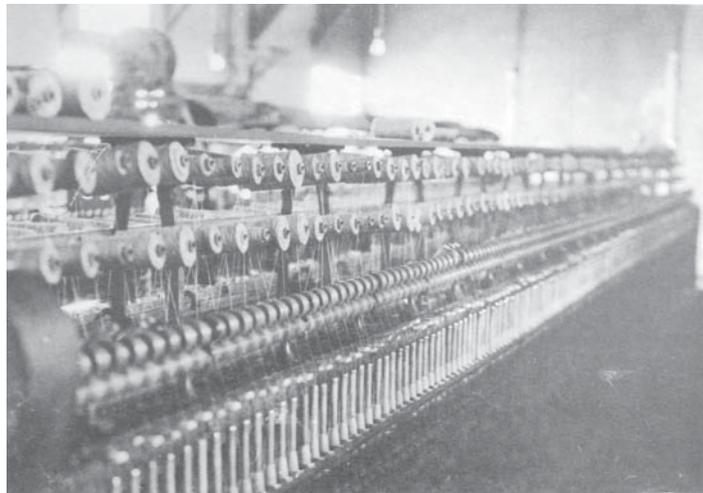
SK그룹의 창업자 최종건(崔鍾建)이 최종적으로 소유·경영하게 되는 선경직물은 최초 관리인 황청하(黃清河)를 거쳐 1953년 1월 차철순(車哲舜)이 224만 환에 불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해방 당시 선경직물의 기술자에 불과했던 최종건이 이 회사를 소유하게 되는 과정은 선경직물 기업사와 최종건 전기를 통해 비교적 상세하게 알 수 있다. 여기에 따르면 황청하는 선경직물의 주주로서 이 연고권을 가지고 관리인이 되었고, 동 공장을 불하받기 위해 노력했으나 한국전쟁으로 공장이 큰 피해를 입으면서 관리권을 포기한 상태였다. 이때 최종건은 역시 귀속기업체인 조선날염공업주식회사를 비롯한 많은 귀속업체를 불하받아 수원에서 부자행세를 하고 있던 방구현(方九鉉)의 권유와 협력으로 선경직물을 손에 넣게 되었다. 그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귀속재산 관리관청을 빈번하게 드나든 관계로 그 처리에 밝았던 방구현은 최종건에게 당시 수원공장 부지의 공동소유권자인 차철순을 설득하여 그의 불하 우선권을 이용하여 대신 불하를 받게 하고 이후 차철순이 최종건에게 공장을 넘기는 방법을 쓰도록 권유하였다. 차철순은 일제 말 선경직물이 설립될 당시 부지 1만 2,000평의 원소유주로, 이 중 8,000평은 선경직물에 매각하고 나머지 4,000평은 선경직물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경직물에 대한

17 이렇게 보면 이강현이 불하받은 수원공장을 설경동에게 다시 매각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시기적으로도 이강현이 수원공장(동흥직물)을 불하받은 것이 <표 2>에서 보듯이 1954년 1월이고, 설경동이 같은 부지를 매입한 것이 2월이다(대한방직주식회사, 『대한방직사사(大韓紡織社史)』, 1997, 649쪽). 그러나 『대한방직사사』는 동흥직물 공장부지의 소유자가 당시 주요 자본가 중 한 명인 천우사(天友社) 사장 전택보(全澤瑠)의 소유지라고 하여 그에게 구입한 것처럼 기술하고 있다(대한방직주식회사, 『대한방직사사』, 1997, 81쪽). 이 주장을 신뢰한다면 이강현이 전택보의 대리인으로 불하를 받은 것으로도 추정할 수 있지만, 확실한 것은 알 수가 없다.

18 대한방직주식회사, 『대한방직사사』, 1997, 60-61쪽; 『대한방직사사』는 1947년 수원성냥을 정식으로 불하받았다고 기술하고 있지만, 『단기 4283년도관 공장광산명부』를 보면 1949년 말 현재도 수원성냥은 불하되지 않았고, 설경동은 관리인 신분이었다. <표 2>를 보면 이후에도 수원성냥이 설경동에게 불하되었다는 기록은 확인할 수 없다.



선경직물주식회사(시사통신 수원지사, 『수원의 역정』, 1960)



선경직물주식회사 방적기(수원시, 『수원사진대관』, 1956)

연고권을 가지고 있었다. 결국 최종건은 차철순과 공동명의로 선경직물을 불하받고, 부친으로부터 받은 돈과 자신이 그동안 인건사 장사와 선경직물 경영을 통해 모은 돈으로 차철순의 지분을 양도받아 선경직물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선경 기업사나 최종건 전기의 내용은 불하시기와 액수 그리고 불하자가 차철순 단독이었다는 점 등 구체적인 부문에서 1차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것과 일정한 차이가 있지만, 소유하게 된 과정의 전체적 흐름은 대체로 부합된다.¹⁹

한편 <표 2>의 관리인 변동 상황에서 볼 수 있듯이 귀속기업체들의 최초 관리인과 불하인 내지 1950년대 말의 최종 소유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귀속기업체의 소유권을 둘러싼 경쟁이 전국적 상황과 마찬가지로 수원 지역에서도 일어났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일제 말 집중적으로 설립되어 단기간에 지역 제조업을 대표하는 존재로 부상한 직물공장의 관리인 변동이 두드러진다. 상대적으로 사업적 전망이 밝고 규모가 있는 귀속 직물공장들을 소유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²⁰

19 최종건의 선경직물 소유과정과 관련해서는 선경홍보실, 『선경 30년사』, 1983; 담연 최종건 평전 간행위원회, 『공격경영으로 정면 승부하라』, 넥서스Books, 2003 참조.

20 조선감과제조와 대동제지의 경우 관리인 경질을 둘러싼 분쟁이 자료상으로 확인된다(수원상공회의소, 『수원상의사』, 1986, 402쪽).

3. 1950년대 지역경제의 변화

1) 신흥자본가의 성장

귀속기업체 불하는 지역경제에 신흥자본가들의 등장을 견인하였다. 이런 사실은 <표 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3> 귀속기업체 불하지들의 활동²¹

귀속기업체명	불하인	일제시기 경력	해방 후 경제·사회활동(활동 시작 연도)
식산신선공장	김순근		식산정미소(1958)
조선농기구주식회사 수원공장	차화선		
남북면업회사 수원공장	임현인		수원상의 상임의원(1949), 흥한건설(興韓建設 : 1956)
대화유직직물주식회사	홍사운	동이일보사 수원지국 총무(1932)	
선경직물주식회사	최종건	선경직물 견습기술공(1944)	SK그룹 창업자, 수원시의원(1958), 수원상의 부회장(1960), 회장(1967)
선일견직주식회사	주대윤	충청북도 산업과 산업기수(産業技手)	수원상의 의원(1952), 선일특수가공공장(鮮一特洗加工工場 : 1959)
조광직물공장	이삼만		수원상의 의원(1954), 합명회사 조광산업(朝光産業 : 1958), 조광(朝光)정미소(1959)
조선날염공업주식회사	방구현	중국에서 상업활동	수원산업(1953), 수원참고(1956), 수원상의 의원(1954), 부회장(1957)
조선직물주식회사(동흥직물), 수원인촌주식회사	설경동	평북 철산 출신, 운수회사, 수산회사 경영, 해방 후 월남	대한방직(1953), 1950년대 5대 재벌
대동제지주식회사	장백룡	영인창지물포(永仁昌紙物鋪)에서 근무	한국특수제공업(韓國特殊製工業 : 1956), 동화제지(東和製紙 : 부산소재, 1956), 제지공업협회이사
수원고무공업사, (주)부국원	박정환	양조장 경영	환박(丸朴)정미소(1953), 경기도의원, 수원상의 부회장(1964)
수원연탄공장	김교선		수원피혁공업사(1956)
수원제빙소	강대봉		수원상의 의원(1949)
조선감과제조회사	장성원		진흥기계공작소(進興機械工作所 : 1956)
오산주조주식회사	김경수		
남양광산	이만중		
조선운모개발판매주식회사 수원공장	이삼수		
보광인쇄소	박창학		
(주)수원극장	홍사훈	대지주, 교육자, 운수업, 수원극장 경영	화성학원(1948)

21 ① 경제활동은 불하받은 기업 경영 이외의 활동이다. ② 해방 후 경제활동에서 기업의 경우 괄호 안의 연도는 설립연도를 의미하지만, 이것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는 처음 해당 기업이 등장하는 기업명부자료의 출판연도를 기입하였다.

〈표 3〉은 귀속기업체를 불하받은 인물들의 일제시기 활동과 불하 이후의 경제활동을 정리한 것이다. 관련해서는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와 『수원상의사(水原商議史)』의 ‘수원상공업계 인물전’을 이용하였다.

우선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유력한 지역 유지이자 경제인이었던 홍사훈(洪思勳) 정도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불하자들이 일제시기의 경우 수원 지역 경제에서 두각을 나타낸 인물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설경동은 이미 일제시기 수산업 등의 활발한 기업활동을 통해 거부를 이룬 자본가였지만 활동거점은 청진이었다. 대부분의 인물들은 귀속기업체를 불하받은 것을 계기로 단기간에 지역경제의 유력 자본가이자 중심 경제인물로 등장하였다. 〈표 3〉에서 보듯이 이들은 귀속기업체를 불하받은 것을 계기로 1950년대 후반 적극적인 사업 확장과 새로운 회사 설립 등 활발한 기업활동을 통해 빠른 성장을 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그리고 상공회의소 회원으로서 지역경제계의 중심인물로 활동하였다.

청년사업가 최종건의 등장은 귀속기업체를 통한 신흥자본가 등장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해방 당시 선경직물에 갓 입사한 20대의 기술공에 불과했던 최종건은 1950년대 지역의 유력자본가가 되었고, 1958년 수원시의원, 1960년에는 수원상공회의소 부회장으로 이미 지역경제의 중심인물이 되었다. 이때 그의 나이는 불과 34세였다. 그의 기업가로서의 성장 배경에는 부농이었던 부친의 재력이 작용했지만, 귀속기업체 선경직물을 소유하게 되었던 것을 빼고는 설명할 수 없다. 1950년대 후반에 들어 최종건의 선경직물은 성장을 거듭하였다. 1956년 선경은 태창직물로부터 직기 100대를 구입하여 기존 시설을 확장했고, 1957년에는 교직기 26대를 새롭게 구입하여 인건과 본건의 교직물 생산시설을 갖추으로써 인건직 생산 일변도에서 탈피, 공장의 상시 가동체제를 구축하였다.²² 그러나 선경직물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결정적 기회는 1958년에 찾아왔다. 한국산업은행이 관리하는 원조물자 대충자금 4만 6,000달러를 불하받은 것이다. 이것은 당시 환율 계산으로 2,700만 환에 이르는 거액으로, 이 자금으로 직포공장의 생산시설을 증설하는 한편, 염색가공시설을 새로 갖추어 일관생산체제 구축에 한발 더 다가서게 되었다. 1950년대 말 선경직물의 종업원은 1,000명에 육박했고, 지역 직물공장에서 전국구 직물회사로 성장하였다.²³

22 그동안 선경직물의 주력 생산품인 인건 안감의 경우 제품의 성질상 여름철이 비수기였으므로, 이 시기에는 공장가동을 중단하였다가 9월 이후 다시 가동하는 체제였다(선경홍보실, 『선경 30년사』, 1983, 100쪽).

23 1950년대 후반 선경직물의 성장과 관련해서는 선경홍보실, 『선경 30년사』, 1983을 참조하였다.



대한방직주식회사 수원공장 전경(시사통신 수원지사, 『수원의 역정』, 1960)



대한방직주식회사 수원공장 내부(시사통신 수원지사, 『수원의 역정』, 1960)

2) 설경동과 대한방직의 설립

1950년대 수원 지역경제의 가장 뚜렷한 변화를 꼽으라면 설경동이 조선직물 수원공장 터에 세운 대한방직일 것이다. 일제시기 수원 지역산업계를 직물업이 주도했지만, 주력업종은 견직물이었고, 면방직과는 인연이 없었다. 그러나 1953년 설경동이 대한방직을 세우면서 지역경제는 일제시기부터 이어지는 견직물업과 함께 1950년대 한국의 대표산업이었던 면방직업의 고장이 되었다.

일제시기 청진을 거점으로 정어리 가공 등의 수산업으로 거부를 축적한 설경동이 수원과 인연을 맺은 것은 귀속기업체 수원성냥공장의 관리인이 되어 경영한 것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1954년 2월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된 조선직물 수원공장 부지 2만 평을 매입하여 대한방직을 설립하면서 설경동은 단숨에 수원 지역을 대표하는 자본가로 등장하였다.

대한방직은 1953년 8월 자본금 1억 환으로 설립되었고 본사는 당시 설경동의 주력회사였던 대한산업이 위치한 서울 남대문로에 두었다. 설경동은 해방 후 월남하여 대한산업을 설립하고 홍삼 무역 등의 무역업을 통해 축재를 하였다. 제조업 분야에서 수원성냥공장 경영이 전부였던 설경동이 거대 면방직공장 설립을 추진한 계기는 1953년 정부로부터 35만 불의 외화를 불하받았기 때문이다. 설경동은 이 자금을 바탕으로 대한방직을 설립하고 면방직공장 설립을 위한 부지 물색을 하였는데, 최종적으로 결정된 곳이 조선직물 주식회사 수원공장 터 2만 평이었다. 조선직물 수원공장 터를 대한방직 공장부지로 매입

하게 된 이유는 수원이 한강 이남의 도시 중 서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사업상 유리한 점이 많았고, 수원시의 맹렬한 유치운동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²⁴ 설경동은 마련된 부지에 일본 도요타(豊田)자동차방직제작소에서 방적기 1만 추(錘)를 들여와 설치하고 1954년 5월에는 부분적인 시운전에 들어갔다. 미국산 원조 원면의 대량 도입 덕택에 저렴한 원면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물자가 절대 부족한 시절에 판로 걱정이 필요 없는 상황에서 대한방직은 공장가동 첫해에 불과 3개월 조업으로 2억 8,000만 원의 매출과 1,900만 원의 영업이익을 올려 설경동이 1950년대를 대표하는 산업자본가이자 대재벌로 성장하는 발판이 되었다.²⁵



1954년 출시한 대한방직의 첫 제품 '백마' 상표(대한방직주식회사, 『대한방직사사』, 1997)

1955년 8월 설경동이 귀속기업체 조선방직 대구공장을 7억 원에 불하받으면서 조선직물 수원공장 터에 설립된 면방직공장은 대한방직 수원공장이 되었다. 수원공장의 2배가 넘는 2만 5,000추의 방적기를 보유한 조선방직 대구공장을 소유하게 됨으로써, 대한방직은 수원과 대구공장을 합하여 방적기 설비 3만 5,000추를 보유한 대면방직 기업으로 발돋움하였다. 수원공장 역시 1957년 ICA원조자금을 통해 1만 추의 방적기를 새로 도입하고 1958년 설치를 완료하여 설비규모가 설립 당시의 2배인 2만 추까지 늘어났다.²⁶ 대한방직 수원공장의 설립은 일본인이 건설한 견직공장 터에 미국 원조원면과 정부의 외화대부 특혜가 결합한 면방직공장이 새롭게 건설된 것으로, 해방 후 지역경제 변화를 상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같은 시기 한국 경제에서 재벌 탄생의 일면을 압축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지역산업 동향

지역경제계를 한바탕 소용돌이 속에 몰아넣었던 귀속기업체의 처리가 대체로 마무리

24 대한방직주식회사, 『대한방직사사』, 1997, 81쪽.

25 대한방직주식회사, 『대한방직사사』, 1997, 83~84쪽.

26 대한방직주식회사, 『대한방직사사』, 1997, 97·104쪽.

된 1950년대 후반, 지역산업의 구성은 대한방직으로 대표되는 면방직업과 일제 말 급격히 설립된 견직업을 양대 축으로 하는 섬유공업의 압도적 우위 속에 여타 공업들이 비슷한 수준으로 병렬되는 구조로 재편되었다. <표 4>는 1950년대 수원 지역 주요 생산기업체(공장)를 정리한 것인데, 이런 상황을 잘 보여 준다.

<표 4> 1955년 12월 주요 생산기업체(공장) 현황²⁷

업종	기업체명	주력 생산품	대표자	설립시기	운전자금 (천환)	비고
섬유	대한방직	면사	설경동	1953년 8월	55,000	
	조광직물	인견직, 면직	이삼만		10,000	귀속기업체
	선일직물	인견직, 면직	주대운	1942년 9월	7,000	귀속기업체
	송도직물	소창(小倉)	박승권(朴承權)	1955년	1,000	
	흥원직물	인견	홍시운	1943년 10월	5,000	귀속기업체
	송원직물	면직	차한용(車漢容)	1953년	3,300	
	면강직물	면직	한봉수(韓鳳洙)	1953년	2,500	
	문화기업	면직	김영두(金永斗)	1953년	9,000	
	동아직물	스프사	우영근(禹永根)	1955년	1,500	
	삼창양말	양말	김창수(金昌洙)	1953년	500	
	선경직물	인견	최종건	1942년 5월	6,000	귀속기업체
	이화직물	인견	임원순(林元舜)	1952년 4월	4,000	
	송도직물	인견	허진(許鎭)	1953년	1,000	
	조선날염	날염	방구현	1943년 7월		귀속기업체/운휴 중
	조선염직	염색	차재운(車載潤)	1938년		소화직물공장으로 추정 /운휴 중
남북면업	발면(發綿)	임현인	1935년 3월		귀속기업체/운휴 중	
금속기계	박송운철공소	기계, 농구	박덕용(朴德鏞)	1930년 1월	10,000	
	복음주공소	부(釜)	구수만(具守萬)	1955년	1,500	
	수원철공장	우마차, 농구	최희영(崔熙榮)	1949년	1,500	
	진흥기계	농기구	장성원(張成源)	1953년	5,000	
	화흥개량낫공장	낫	고성목(高聖穆)	1949년	5,000	
	대봉개량낫공장	농구	김태옥(金泰玉)	1955년	1,000	
	박성실철공소	우마차, 농구	박성실(朴成實)	1953년	500	
	경남철공소	개량낫	김해수(金海洙)	1955년	500	
	수원주물	유기	정윤철(鄭允哲)	1955년	700	
	무한만물기계	발동기	장무한(張武漢)	1945년 5월	5,000	

27 수원시, 『시세일람』, 1956, 149~153쪽에서 작성. ① 오기가 확실한 경우 수정하였다. ② 설립일을 확인하는 데는 <표 1>과 동일한 자료를 이용하였다. 설립일이 확실하지 않을 경우 처음 해당 기업이 등장하는 기업명부 자료의 출판연도를 기입하였다.

업종	기업체명	주력 생산품	대표자	설립시기	운전자금 (천환)	비고
금속기계	식산신선	제정(製丁)	김순근			귀속기업체/운휴 중
	조선농기구	농기구	차화선	1940년 4월		귀속기업체/운휴 중
화학	수원비누	비누	박상복(朴尙福)	1946년	1,500	
	수원고무공업	고무신	김덕성(金德星)	1949년	5,000	
	통일기업사	비누	한병혁(韓秉赫)	1953년	4,980	
	천일연탄	분탄(粉炭)	정위교(鄭胃敎)	1938년 4월	1,480	
	대동제지	지류(紙類)	장백룡	1943년 6월	20,000	귀속기업체
	대창재생고무공업	재생고무	박천만(朴千萬)	1955년	500	
	대림산업	목재	이석구(李錫九)	1955년	50,000	
식품	수원임업사	목재	김정실(金正實)	1955년	6,000	
	수원주조	주류	김희배(金熙培)	1927년 5월	10,000	귀속기업체의 가능성
	수원양조	주류	홍길선(洪吉善)	1929년 3월	500	
	장안주조	주류	허장	1955년	500	
기타	고등주조	주류	장주규(張注奎)	1955년	1,500	
	조선감과	도가니	이규인	1944년 1월		귀속기업체/운휴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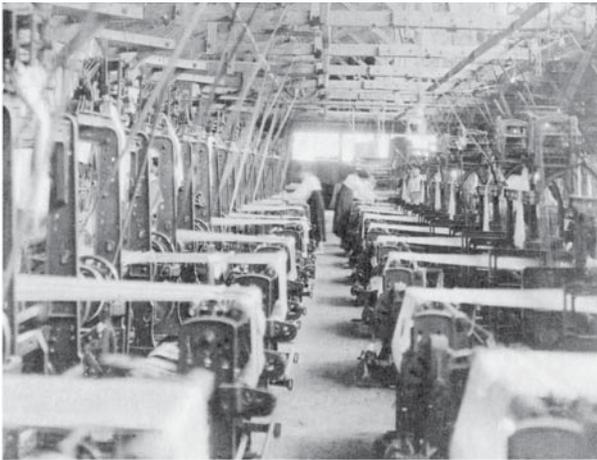
〈표 4〉를 보면 섬유공업이 급격히 성장하여 여타 공업과의 격차가 벌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견직업 외에 대한방직 설립과 여기에 연동된 군소 면직공장들의 설립 등 면방직업의 발전 때문이었다. 견직업은 일제시기부터 두각을 나타낸 것이므로 해방 후 재편과정에서 면방직업을 제외하면 산업구조상 일제시기와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지역경제의 관점에서 일정한 변화를 지적할 수 있다. 우선 귀속기업체와의 관련성 없이 많은 기업체들이 해방 후 새롭게 설립되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일제시기 성장하지 못했던 금속기계공업 분야에서 해방 후 농기구 제조를 중심으로 활발한 기업 설립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견직업의 경우도 귀속기업체들이 성장을 주도하기는 했지만, 호황 국면에 편승하여 새로운 군소 직물공장들이 설립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한편 일제시기 한국인이 설립한 기업체들이 해방공간과 한국전쟁으로 이어지는 격동기를 헤치고 여전히 지역 주요 기업으로 유지되고 있는 모습도 일정하게 확인된다. 그리고 이러한 일제시기 기업활동을 토대로 유력자본가로 성장한 인물이 해방 후 그 지위를 보다 공고히 하는 사례도 보인다. 대표적으로 일제시기 수원양조를 경영한 홍길선(洪吉善)이 있는데, 그는 해방 후 지역정재계를 대표하는 인물로 부상하였다.²⁸ 그러나 이와는

28 수원양조는 조선주(朝鮮酒)의 생산을 목적으로 1929년 3월 설립되었다. 양규룡(梁奎龍)을 사장으로 자본금은 20만 엔(5만 엔



문화기업 공장 전경(시사통신 수원지사, 『수원의 역정』, 1960) 문화기업은 1953년에 설립된 면직물 제작업체이다.



조광직물 공장 내부(수원시, 『수원사진대관』, 1956)

정반대의 모습도 존재한다. 특히 일제 말 한국인이 가장 활발하게 기업활동을 벌였던 직물업에서 해방 후 그 지위를 유지하지 못한 것은 의외이다. 일제 시기 성장이 두드러졌던 직물업에서는 앞서 언급한 대로 일제 말 일본인 직물공장들이 집중적으로 설립된 것과 병행하여 한국인 경영의 직물공장들도 활발하게 건설되었다. 1935

년 지역 유력상이었던 김학배(金學培)가 설립한 수원직물공장을 시작으로 1938년 차재윤(車載潤)의 소화(昭和)직물공장, 1939년 홍사훈의 동아(東亞)직물공장, 이유복(李有福)의 창화(昌和)직물공장 등이

불입)이었는데, 홍길선은 1940년부터 사장에 취임하여 회사를 경영하였다. 홍길선의 부친인 홍사헌(洪思憲)이 대주주였던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홍길선은 이를 발판으로 지역경제계의 유력인물로 부상하였다. 해방 후 그는 제헌의원을 시작으로 수원 지역 4선 국회의원이었고, 1949년부터 1954년까지 2대에 걸쳐 상공회의소 회장을 역임하는 등, 지역 경제계의 핵심인물로 활동하였다. 관련해서는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와 수원상공회의소, 『수원상의사』, 1986, 1614-1615쪽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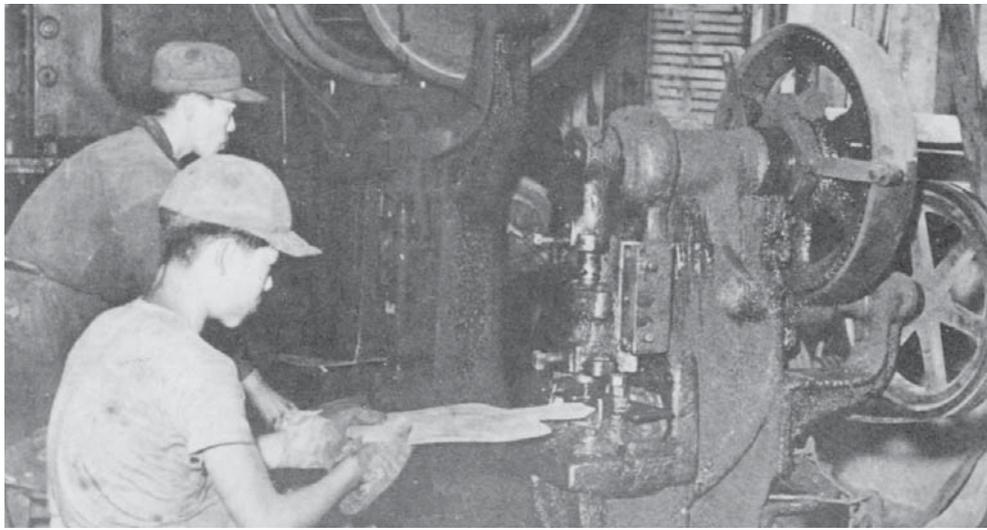
수원양조주식회사(시사통신 수원지사, 『수원의 역정』, 1960) 1940년에 수원양조주식회사 사장에 취임한 홍길선은, 제헌의원을 시작으로 수원의 4선 국회의원이었고, 1949년부터 1954년까지 2대에 걸쳐 상공회의소 회장을 역임하는 등 지역정체계의 핵심인물로 활동했다.

잇달아 설립되었다.²⁹ 그러나 <표 4>에서 이들 공장의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들의 행적을 추적해 보면 우선 동아직물은 앞서 언급했듯이 1944년 대화유직직물(大和有職織物)에 매각되어 해방 전에 사라졌다. 가장 일찍 설립된 김학배의 수원직물은 해방 후 업계를 주도할 가능성이 컸다. 김학배가 일제시기 상공회의소 상임의원까지 하면서 가장 두각을 나타낸 한국인 자본가 중 한 명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학배는 해방 직후 설립된 상공회의소 초대 부회장이었으나, 친일혐의로 옥고를 치렀고, 이후 정치활동을 통해 재기를 노렸으나 1951년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³⁰ 이유복의 창화직물은 해방 후 1949년까지 기업명부를 통해 존재가 확인되지만, 1950년대에는 그 행적이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유일하게 존재가 확인되는 것은 차재운의 소화직물로 해방 후 조선염직으로 사명을 개칭하여 유지되고 있었다. 그러나 <표 4>에서 보듯이 조선염직은 공장이 가동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한국 경제에서 해방 후부터 1950년대에 이르는 15년의 기간은 귀속재산 처리에 의한 신

29 수원상공회의소, 『수원상의사』, 1986, 286~287쪽.

30 수원상공회의소, 『수원상의사』, 1986, 1625~1626쪽.



농기구를 주로 생산하던 진흥기계제작소 내부(수원시, 『수원사진대관』, 1956)



천일연탄 석탄 하역장(수원시, 『수원사진대관』, 1956) 1938년 정주교가 설립한 천일연탄은 해방 후에 석탄운반 전용선로를 가설하는 등 사세를 확장해 나갔다.

홍자본가의 등장과 원조물자 및 정부 특혜와 결합한 재벌의 탄생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수원 지역경제도 이러한 한국 경제 전체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귀속기업체를 불하받은 사람들은 이를 바탕으로 활발한 기업활동을 통해 단시간 내에 지역경제의 주축으로 성장했고, 그중에는 정부 지원과 원조 원면(原綿)을 배경으로 5대 재벌의 반열에 오른 인물도 있었다. 이들에 의해 해방 후 1950년대 수원 지역의 경제가 새롭게 재편되

었고, 견직과 면방직을 양대 축으로 하는 섬유공업은 지역 대표산업으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일제시기 설립된 한국인 기업들도 이 시기 일정한 변화를 겪지만 여전히 지역경제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었음도 확인된다. 아울러 해방 후 경제 재편 과정에서 새롭게 많은 기업들이 설립되었다는 것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김보현 명지대학교 연구교수

1. 1960년대 수원 경제의 변화
2. 1970년대 수원 경제의 변화
3. 1980년대 수원 경제의 변화



제2장

경제개발기 수원의 경제구조

1. 1960년대 수원 경제의 변화

수원은 몇 가지 이유에서 오랫동안 농업과 밀접히 관련된 지역으로 이야기되곤 하였다. 최근에도 한 언론은 수원(특히 서둔동 일대)과 농업 사이의 역사 깊은 관계를 언급한 바 있다.¹ 1906년 통감부가 농업기술의 시험과 조사, 지도 등을 위한 ‘권업모범장(勸業模範場)’을 서둔동에 설치하였는데, 이 기관은 식민지정책 수행의 첩병 구실을 하기도 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 농업 발전에 기여하기도 하였다. 이후 1962년에는 국가가 농업 발전과 농업 복지를 위해 농업과학기술의 시험·연구사업과 농촌지도사업 등을 수행한다는 취지 아래 ‘농촌진흥청’을 발족시켜서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다. 또한 이곳 서둔동 일대에는 잠사업(蠶絲業)의 맥을 이어 주는 잠업시험장(잠사과학박물관)이 있으며, 2003년 서울로 이전하기 전까지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이 자리한 바 있다.

이러한 연유로 신품종, 종묘, 종축 그리고 개량된 새로운 영농기술이 수원 근교의 모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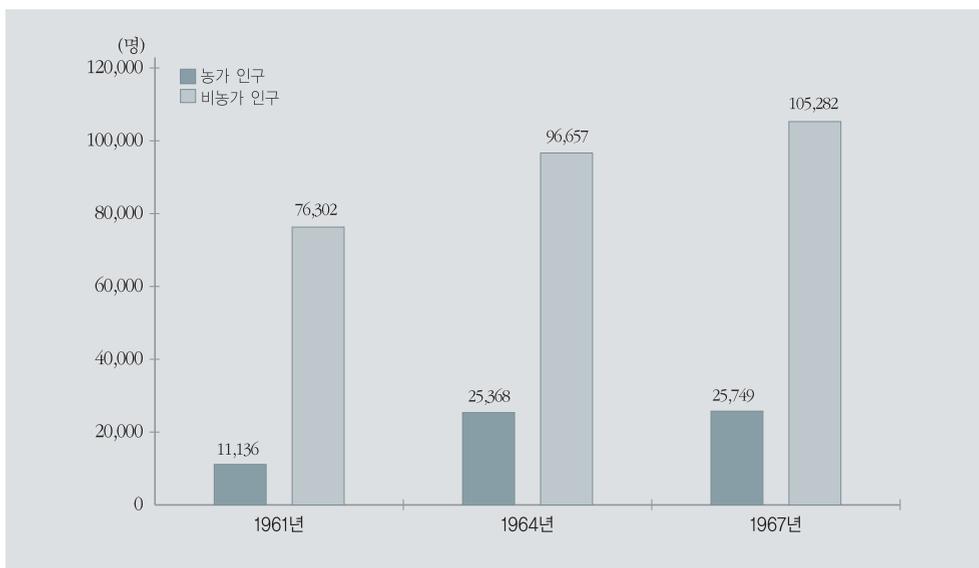
¹ 「첨단농사 풍년, 보릿고개 넘어 세계로」, 『인천일보』, 2012년 10월 31일.

영농자들에게 빨리 보급되었고, 이들이 한국사회 농업 개량을 주도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정된 경지면적과 도시화·공업화 등으로 수원 경제의 농업 생산 규모는 지속적으로 축소되었다. 좁은 경지에서 집약된 기술과 자본으로 농업을 하는 시설원예, 젓소와 사슴 사육 등이 개발연대기에 걸쳐 일정 정도 유지되었을 뿐이다.² 그리고 당초 수원 경제에서 생활하는 농가인구와 농업부문 취업자가 전체 인구 및 전 취업자 대비 다수를 차지하였던 것도 아니다. 오히려 상업·공업부문이 좀 더 발전한 상태였다. 1960년대 이래 수원 경제의 발전은 더욱더 도시부문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표 1〉 1960년대 농가인구와 비농가인구의 변화³

(단위 : 명)

연도	농가 인구	비농가 인구	전체 인구
1961	11,136(12.74%)	76,302(87.26%)	87,438(100%)
1964	25,368(20.79%)	96,657(79.21%)	122,025(100%)
1967	25,749(19.65%)	105,282(80.35%)	131,031(100%)



1960년대 농가인구와 비농가인구의 변화

² 수원시, 『수원시사』, 1986, 1184쪽.

³ 수원시, 『통계연보』, 각 연도. 1960년대 후반기까지 수원의 농가인구는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이 통계표에서 고려해야 할 것들은 1962년에 화성군의 20개 리가 수원시로 편입되었다는 점과 1963년에 경기도청의 수원 이전이 확정되어 1967년에 실제로 이전되어서 농가인구 감소를 억제하였다는 점이다. 다른 통계표에서도 그 점이 감안되어야만 한다.

〈표 2〉 1960년대 수원 산업별 주민총생산(불변가격)⁴

(단위 : 백만원, %)

구분	1963		1966	
	주민총생산액	구성비	주민총생산액	구성비
역내 주민총생산	3,494	100.0	3,973	100.0
농림 및 어업	406	11.6	452	11.4
제조업	822	23.5	1,164	29.3
건설업	46	1.3	147	3.7
도매 및 소매업	1,254	35.9	1,081	27.2
금융·보험 및 부동산업	58	1.7	59	1.5

1960년대 이전에 수원은 아주 큰 공업화 기반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러나 국가가 주도한 경제개발이 본격화되면서 1940년대부터 일정 규모가 입지해 있던 섬유업종⁵을 비롯한 일부 공업부문의 경제활동이 성장해 갔다. 특히 섬유업종은 국가가 수출제일주의를 천명하면서 중점적으로 육성한 분야였고, 이에 따라 수원의 섬유공업이 영남 지역과 함께 활력을 얻기 시작하였다.

당시 '선진국'에서 사양산업으로 접어든 직물분야야말로 품질이나 가격 면에서 국제시장에서 경쟁해 볼 만한 것이었다. 1962년 국내 직물업계의 수출실적은 '선경직물'이 홍콩으로 인견직물을 수출한 1만 1,300달러와 '조선견직'이 미국으로 수출한 견직물 대전 7만 5,600달러를 합해서 8만 6,900달러에 불과하였으나, 1963년에는 수출품목을 늘리고 수출 지역도 새로 개척하여 전년 대비 945%가 신장한 82만 1,800달러의 수출실적을 기록함으로써 그 가능성을 입증해 보였다.⁶

제1차 경제개발계획이 끝나는 1967년에는 수원 지역 제조업부문 취업인구가 총 4,882명에 이르렀는데, 이 가운데 섬유업종은 3,643명으로 전체의 74.6%를 차지하여 섬유공업이 1960년대 수원 지역 공업화의 선도업종이었음을 확인해 준다.⁷ 이에 따른 파급효과로 건설업과 다양한 서비스부문도 성장 추세를 나타냈다.

4 수원시, 『도시종합계획: 1969-78』, 1968, 44쪽.

5 후일 '계발'로 성장하는 '선경직물'이 그 예이다. 선경직물은 식민지시기에 일본계 기업이 설립한 업체로, 1940년 10월 평동에 공장이 건설되었고 해방 후 1953년 수원 출신 최중건이 소유하게 되었다(선경그룹홍보실, 『선경40년사』, 19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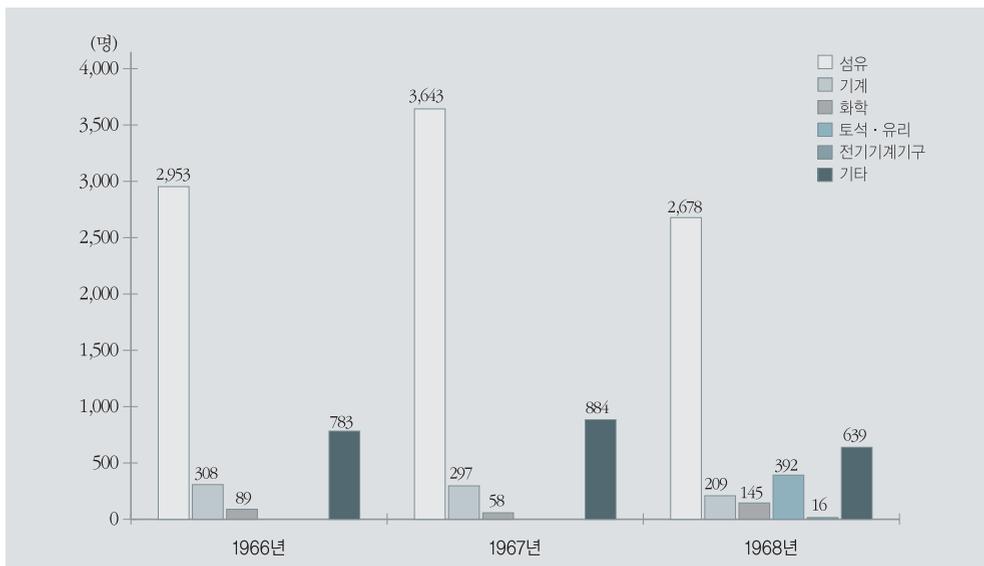
6 선경그룹홍보실, 『선경40년사』, 1993, 238쪽. 1960년대 수원 지역 섬유공업의 성장은 크게 네 가지 요소의 결합이 낳은 결과물이었다. 즉 그 성장에는 ① 식민지시기부터 1960년대 초에 이르도록 수원에 섬유공업 업체들이 입지해 있었다는 점, ② 경제개발을 주도한 국가가 '풍부하고 저렴한 여성 노동력'이 소요되는 섬유공업 생산품의 국제시장 경쟁력을 인정한 점, ③ 최중건·최종현 같은 수원 출신 인물들이 섬유업종을 통해 입신하고자 연구·노력하고 있었던 점, ④ 실제로 국내 섬유제품의 입지를 허용하고 있던 당대 국제시장의 동향 등이 상호작용하였다는 것이다. '풍부하고 저렴한 여성 노동력'과 결부된 섬유업종에 대한 국가의 판단과 관련해서는 오원철, 『한국형 경제건설: 엔지니어링 어프로치』 제1권, 가야경제연구소, 1995의 제11장과 제12장을 참고.

7 수원시, 『수원시사』, 1986, 992쪽.

〈표 3〉 1960년대 제조업 업종별 취업자⁸

(단위: 명, %)

구분	1966		1967		1968	
	취업자수	구성비	취업자수	구성비	취업자수	구성비
합계	4,133	100.00	4,882	100.00	5,208	100.00
섬유	2,953	71.45	3,643	74.62	2,678	51.42
기계	308	7.45	297	6.08	209	4.01
화학	89	2.15	58	1.19	145	2.78
토석·유리					392	7.53
전기기계기구					16	0.31
기타	783	18.95	884	18.11	639	12.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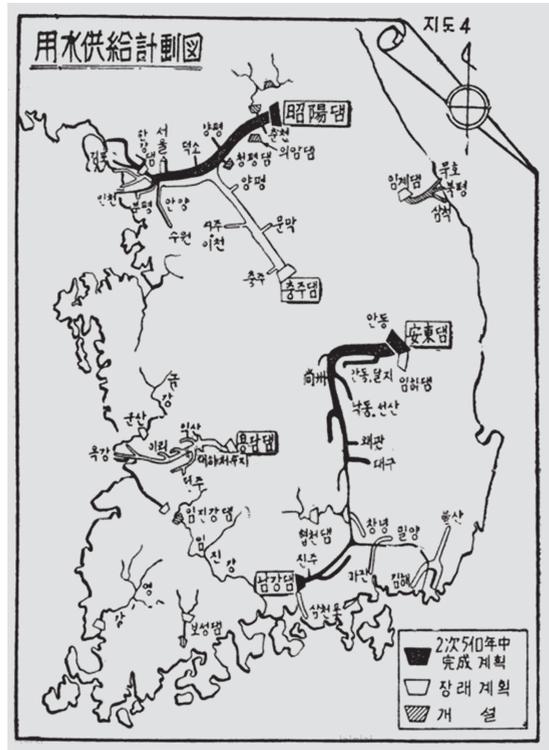
1960년대 제조업 업종별 취업자

당시 수원에서 섬유공업을 중심으로 공업 발전과 도시화가 진척될 수 있었던 우호적 환경의 조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들이 확인된다.

먼저 수원시가 수도권의 핑거 플랜(finger plan)으로 구체화된 '경인특정지구개발'에 편입되어(1965년 1월 1일, 대통령 공고 제1호) 수원 시내 한강 도수가 가능해졌고, 이것은 수원을 공업지구로 호전시켰다. 또 1967년 6월 이후로는 경기도청이 이전되어 도정 관련 20여 기관이 수원시에 유치되었다. 그리고 경부고속도로가 건설되어(1968년 2월

⁸ 수원시, 『통계연보』, 각 연도.

~1970년 7월) 수원시 동부 측면을 통과함에 따라 수원의 공업입지를 호전시켰다. 즉 서울과 부산을 잇는 대동맥을 가운데 두고 기존 영등포 공업지역과도 유관성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렇게 수원은 1960년대 후반부터 자원의 부소재지라는 약점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중앙을 흐르는 한강과 인천의 항만 사이에 위치한 외부경제체제의 광대한 배후지가 되어 갔고, 대한민국 전반의 정치적·행정적 집권화 현상과 인적·기술적 자원의 중앙 집중화 현상, 교통의 편리성 등이 수원 경제의 성장에 우호적 조건들로 작용하기 시작하였다.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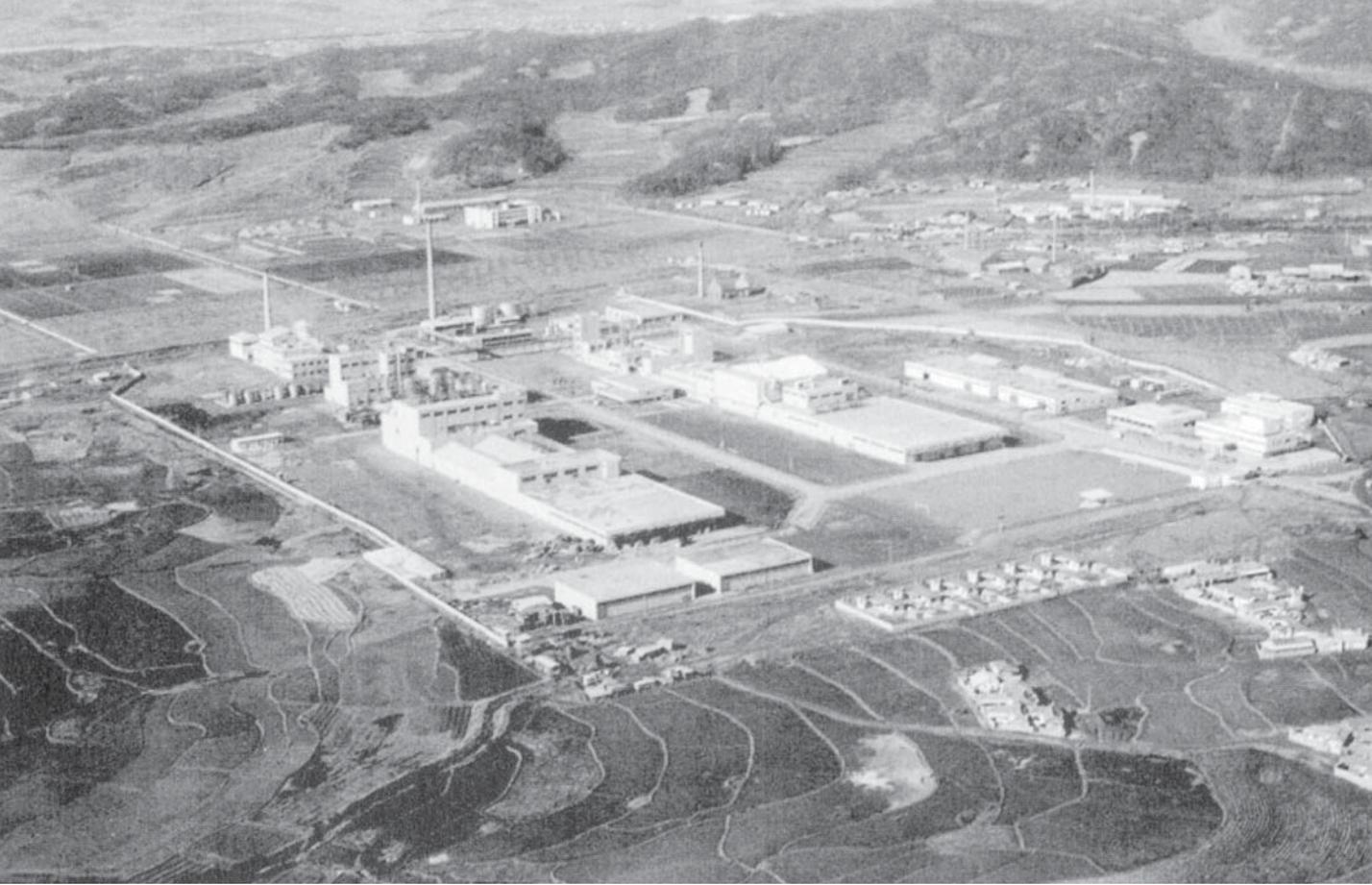
용수공급계획도(『매일경제』, 1968년 1월 1일)

1960년대 수원 경제의 성장에서 섬유업종이 차지한 위치는 그 생산 실적과 공장가동률 같은 지표들에서도 확인된다. 1965년부터 1967년까지 생산실적에서 면사와 내의, 타월 등은 감소 추세를 나타냈지만, 인견직은 300만m²대를 유지하였다. 그리고 면직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 1965년에 생산량 86만 2,624m²이었던 것이 1967년에 생산량 1,525만 1,128m²로 단기간에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그리하여 수원시는 1960년대 후반에 이르러 ‘직물도시의 면모’를 갖추게 됐다. 이와는 달리 세탁비누, 시멘트벽돌, 기와, 침목 등 화학공업이나 요업, 식료품에서는 생산실적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¹⁰

제조업 업체들의 가동 현황을 보면 1966년 현재 전체 115개 중 연평균 84개가 가동되어 73.9%의 가동률을 보였고, 이듬해인 1967년에는 73.1%의 가동률을 나타냈다. 이를 업종

9 수원시, 『도시종합계획 : 1969-78』, 1968, 219-222쪽.

10 수원시, 『수원시사』, 1986, 991쪽. 대한민국 경제의 발전이 지닌 불균형성은 공업 및 도시 부문과 여타 부문 사이에서만 아니라 공업·도시 부문 내부에서도, 좀 더 미시적 수준에서 업종 간 격차와 성장주도 업종의 대체 등을 비롯하여 다양하게 나타났다.



수원의 대표적인 섬유업체 선경합섬(김채현 외, 『미래를 향한 위대한 열정』, 2008)

별로 보면 섬유공업이 82.9%로 가장 높았고, '기타'로 분류된 업종이 72.3%, 기계공업 70.8%, 화학공업 62.5%, 식품공업 40.0% 등의 가동률을 보였다.¹¹

그런데 앞에서 말하였듯이 1967년 현재 전체 취업자 4,882명 가운데 74.6%에 해당하는 3,643명이 섬유공업 피고용인이었고, 이 인원이 같은 해 전체 기업수 119개 가운데 약 29.4%에 해당하는 35개 업체에 흡수되어 있었으며, 그 가운데 80%가 넘는 인원이 피고용인 100인 이상인 단 4개 업체에 집중되어 있었다. 즉 1960년대 수원시의 공업화와 공업경제는 섬유업종이 주도하는 상황이었고, 섬유업종 안에서도 대기업이 주도하는 실정이었다. 달리 말하면 섬유업종이 주목할 만한 성장세를 나타냈지만, 그 이면에 다수 업체들의 영세성과 불안정성 등이 내포된 채 진행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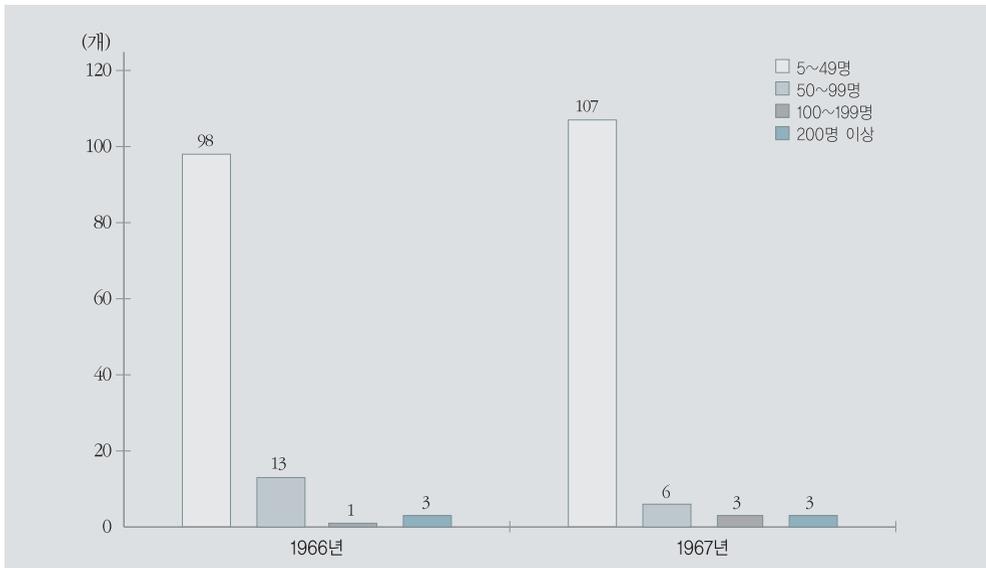
섬유업종의 성장은 섬유업종이 노동집약형인 까닭에 주변 농촌지역에서 동 업종 내부로 노동력을 흡인하고 있었음을 함축한다. 이는 1960년대에 수원 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

11 수원시, 『수원시사』, 1986, 992-993쪽.

〈표 4〉 1960년대 제조업 업종별·규모별 업체수¹²

(단위 : 개)

구분	계	5~49명	50~99명	100~199명	200명 이상	
1966	115	98	13	1	3	
1967	계	119	107	6	3	3
	섬유공업	35	28	3	1	3
	기계공업	24	24			
	화학공업	8	8			
	식품공업	5	5			
	기타	47	42	3		



1960년대 제조업 규모별 업체수

가하게 된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여겨진다. 수원시 총인구는 1960년 10만 6,133명이었던 것이 1970년 17만 6,441명으로 9년 사이에 약 7만 명이 증가하였다.¹³

수원시 인구의 유출입 내역을 좀 더 살펴보면, 1968년 인구 성장률이 8.4%였고 전입 비율이 10%였는데, 전입자 대부분이 공장노동자에 한정되지 않는 단순 피고용인과 영세상인 등으로 편입되었다. 이것은 당시 수원 경제에 실존한 각종 업체의 영세성과 상인의 양적 과잉, 상업부문의 어려운 실태 등을 시사한다. 경제활동에 필요한 물질적 재원의 75%

12 수원시, 『도시종합계획 : 1969~1978』, 1968, 252쪽.

13 장영실, 『수원시 공간구조 변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31~32쪽.

이상이 서울과 부산 등에 집중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상황이 수원 경제의 특유한 사정만은 아니었다.

수원의 경우 1967년 현재 취업자 4만 485명 중 61.3%가 3차 산업에 종사하였고, 상인의 수가 5,636명이었다. 그런데 상인을 돕는 보조인을 합치면 상업부문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이는 1만 명 이상(14명 중 1명)이 됐을 것이다. 게다가 행상인과 판매외무사원을 합치면 그 실질적 인원은 더 늘어날 것이다. 이와 같은 자본의 영세함과 수적 과잉은 상업부문에서 경영의 불안정성을 보여 주고, 인근 주민의 생활필수품 공급이라는 기능적 한계, 곧 생산재 공급 기능의 부재라는 실정을 알려 준다.¹⁴

이런 가운데서도 공업화와 도시화 진전의 추세는 상업부문의 업체 증가와 거래량 증가를 동반하였다. 1968년 현재 수원시의 상업지구는 2.68km²에 이르렀고, 가로망과 주택지를 따라 산재하였다. 상업센서스의 집계에 따르면 도매액 23억 8,494만 1,000원과 소매액 28억 2,180만 4,000원, 총합 52억 674만 5,000원이 거래되었다. 이른바 중심업무지구내 속한 영동시장에서만 62개 도매업체가 9억 7,985만 5,000원, 495개 소매업체가 12억 5,389만 1,000원, 총합 557개 업체가 22억 3,374만 6,000원을 거래하여 수원 전체의 42.4%를 차지하였다.¹⁵ 상점 일체를 총괄하였을 때 1960년도 도소매 법인상점과 개인상점을 합한 수치가 2,028개였던 것이 1965년에 2,711개, 1967년에 3,373개로 늘어났다. 이는 같은 기간에 도매상이 1960년 59개에서 1967년 87개로 증가한 데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특히 소매상이 1960년 1,969개에서 1967년 3,238개로 무려 64%의 증가율을 보인 데에 기인한 것이다.¹⁶

각종 공식 지표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1960년대 전 기간에 걸쳐 초래된 수원 경제의 변화가 ‘근대 경제’라는 방향의 점진이었다는 사실이다. 제3차 산업부문의 비중이 큰 것이 당시에는 ‘후진국 현상’으로 간주되었겠지만, 그것을 후일 나타나는 변화와 종합하여 평가하자면 이 시기 수원 경제의 변화를 전근대적 비정상성의 한 사례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1960년대에 수원시의 산업구조, 고용구조, 주민생산의 동향 등은 근대 도시경제의 한 사례가 점차 구체화되어 갔음을 시사한다.

또 하나의 종합적 자료인 주민소득 추계 현황을 살펴보면, 1960년대 수원 경제는 전국적 평균 추세나 경기도 평균 추세보다 빨리 성장하고 변화해 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4 수원시, 『도시종합계획 : 1969-78』, 1968, 247쪽.

15 수원시, 『도시종합계획 : 1969-78』, 1968, 240쪽.

16 수원시, 『수원시사』, 1986, 988-989쪽.

〈표 5〉 1960년대 실업과 취업의 변화¹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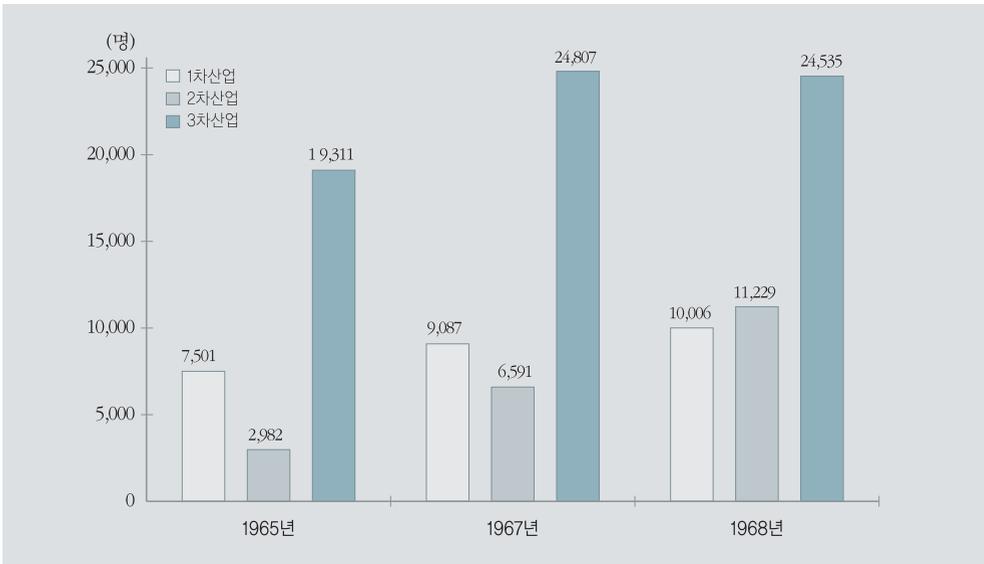
(단위 : 명)

연도	경제활동인구	실업자	취업자
1961	22,552(100%)	5,877(26.1%)	16,675(73.9%)
1964	34,110(100%)	7,301(21.4%)	26,809(78.6%)
1967	38,468(100%)	4,583(11.9%)	40,485(88.1%)

〈표 6〉 1960년대 산업별 취업자 구성¹⁸

(단위 : 명, %)

연도	취업자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1965	29,794	7,501	25.2	2,982	10.0	19,311	64.8
1967	40,485	9,087	22.4	6,591	16.3	24,807	61.3
1968	45,770	10,006	21.9	11,229	24.5	24,535	53.6



1960년대 산업별 취업자 구성

1966년 주민소득 추계 결과에 따르면 수원시의 경우 주민 1인당 소득이 3만 960원(불변가 격)으로, 같은 해 국민 1인당 소득 2만 9,935원보다 1,025원이 높았고 경기도 도민 1인당 소득보다 4,257원이 높았다.¹⁹

17 수원시, 『통계연보』, 각 연도.

18 수원시, 『도시종합계획 : 1969-78』, 1968, 239쪽.

19 수원시, 『도시종합계획 : 1969-78』, 1968, 43쪽.

〈표 7〉 1960년대 수원 1인당 주민소득(불변시장가격)²⁰

(단위 : 원)

연도	수원시	전국
1963	29,558	24,061
1967	30,960	29,935

또한 다음을 통해서도 당시 수원 경제의 성장과 주민 생활의 변화 등을 짐작할 수 있다. 먼저 자가용 승용차 보유 현황을 보면 1961년 2대, 1964년 9대, 1967년 25대 등으로 증가해 갔다.²¹ 주택용 전화 보급 상태를 보면 1964년 298대였던 것이 1967년에는 1,246대(인구 100인당 2.3대)가 되었다.²² 또 텔레비전의 보급 상황은 1961년 130대, 1964년 236대, 1967년 623대로 변화하였다.²³

2. 1970년대 수원 경제의 변화

수원은 1960년대에 이어 1970년대에도 공업화와 도시화가 가속화되었다. 또 그 성장은 내부적으로 일정한 불균형과 불안정성을 품고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계속성 안에서도 수원 경제의 세부적 상황은 1960년대와는 다른 일정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었다.

수원의 동부 지역 인근을 통과하는 경부고속도로의 완공과 여타 국도 및 지방도의 포장 작업 등이 수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고, 이는 섬유업종 이외의 자유입지형 제조업²⁴이 수원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을 높여 주었다. 또한 그것은 수원의 동부 지역을 개발의 새로운 중점권역으로 만들어 갈 환경이 조성된 것이기도 하였다.²⁵

수원의 제조업체는 1974년 6월 현재 195개가 되었다. 이 가운데 농기 제작 및 기계류 생산기업이 81개사로 전체의 41.5%를 차지하여 제일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섬유류 생산업체가 35개사(17.9%), 식료품 제조업체가 32개사(16.5%), 토석 및 시멘트 제조업체가 16개사(8.2%), 전자제품 제조업체가 7개사(3.6%), 지류 제조업체가 6개사(3.1%) 등이었다.²⁶

20 수원시, 『도시종합계획 : 1969-78』, 1968, 43쪽.

21 수원시, 『수원통계연보』,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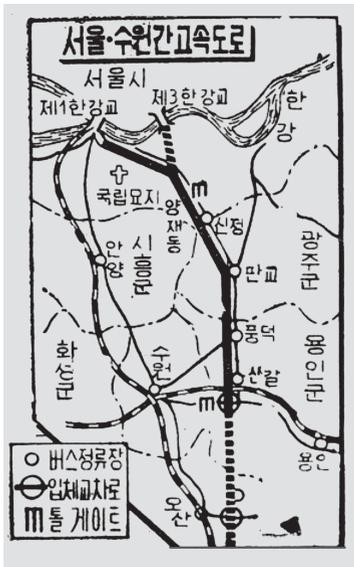
22 수원시, 『수원통계연보』, 각 연도; 내무부, 『한국도시연감』, 1969.

23 수원시, 『수원통계연보』, 각 연도.

24 생산품의 부가가치에 비해 생산품의 수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수송비가 생산설비의 입지선정에서 크게 고려되지 않는 경우를 이른다.

25 장영실, 「수원시 공간구조 변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39쪽, 45-46쪽.

26 수원시, 『수원시사』, 1986, 1000-1001쪽.



서울-수원 간 고속도로 노선도(『매일경제』, 1968년 12월 21일)



경수고속도로 개통(경인일보사, 『경기 근·현대 사진전』, 2010) 1968년 12월 경부고속도로의 첫 구간인 서울-수원 간 고속도로가 개통되어 수원의 서울 접근성이 더 좋아졌다.

이어 1975년부터 1979년까지의 그 분포를 살펴보면, 1975년과 1976년에는 섬유류 제조업체가 21.3~22.9%를 차지하여 주류를 이루더니, 1977년과 1978년에는 시멘트·토석제품 업체가 22.0~23.0%를 차지하여 주류를 이루었고, 1979년에 이르러서는 식료품 제조업체가 전체 제조업체수 316개사의 35.8%(113개사)로서 제일 많은 수를 차지하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식료품 제조업체의 수가 1975~1979년에 27개사에서 113개사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²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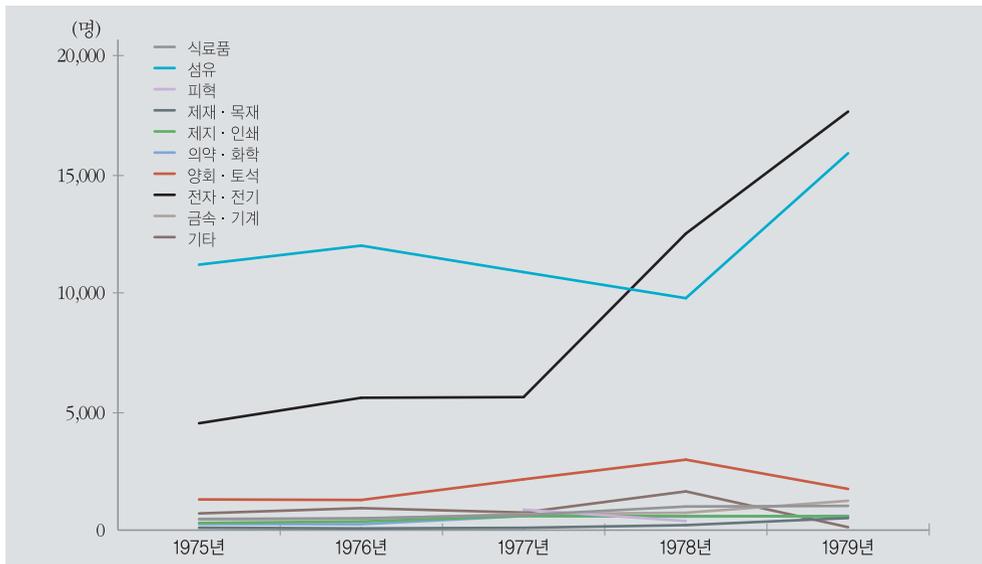
한편 제조업체의 업종별 고용 현황을 살펴보면, 섬유업종에 고용된 인원이 1975~1977년에 제조업 전체 대비 47.7~57.0%를 차지함으로써 섬유업종이 가장 높은 고용 흡수율을 유지하기는 하였지만, 그 경향 면에선 매년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이와는 다르게 전자·전기업종에 고용된 인원이 1975~1977년에 제조업 전체 대비 23.3~24.8%로 2순위였는데, 1978~1979년에는 제조업 전체 대비 41.2~43.6%로 나타나서 전자·전기업종이 가장 높은 수준의 고용 흡수율을 기록하였다. 1975년 이후 1979년까지 섬유업종의 피고용 규모가 매년 감소한 반면에, 식료품업종과 금속·기계업종의 피고용 규모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고, 특히 전자·전기업종의 피고용 규모는 매년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수원

²⁷ 수원시, 『수원시사』, 1986, 1001쪽.

〈표 8〉 1970년대 제조업 업종별 피고용인수²⁸

(단위: 명, %)

구분	1975		1976		1977		1978		1979	
	피고용인수	구성비								
식료품	465	2.4	493	2.3	629	2.8	983	3.3	1,010	2.5
섬유	11,175	57.0	11,968	55.9	10,864	47.7	9,778	32.3	15,817	39.3
피혁	305	1.6			853	3.7	376	1.2		
제재·목재	100	0.5	72	0.2	96	0.4	208	0.7	503	1.3
제지·인쇄	300	1.5	360	1.9	588	2.6	584	1.9	577	1.4
의약·화학	254	1.3	245	1.0	586	2.6	563	1.9	593	1.5
양회·토석	1,278	6.5	1,256	5.9	2,117	9.3	2,937	9.7	1,716	4.3
전자·전기	4,565	23.3	5,627	26.3	5,654	24.8	12,470	41.2	17,553	43.6
금속·기계	448	2.3	475	2.2	666	2.9	724	2.4	1,222	3.0
기타	696	3.6	916	4.3	732	3.2	1,613	5.4	1,234	3.1
계	19,586	100.0	21,412	100.0	22,785	100.0	30,236	100.0	40,225	100.0



1970년대 제조업 업종별 피고용인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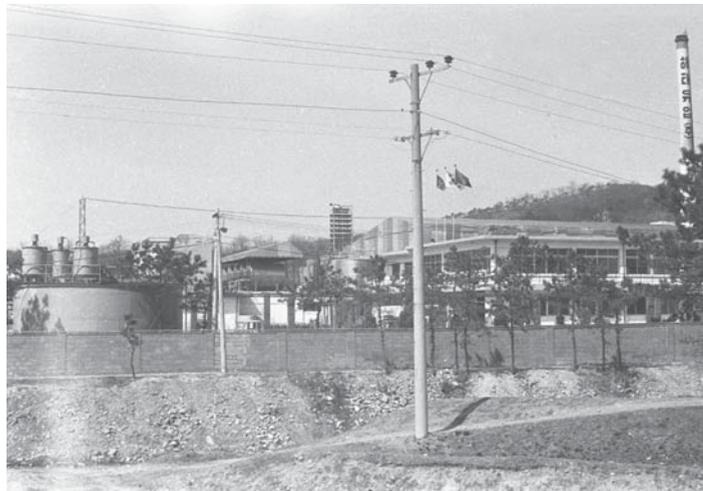
지역 주민에 대한 고용 창출에서 전자·전기업체의 기여도가 크게 높아진 반면, 섬유업체의 기여도는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었던 것이다.²⁹ 물론 이 같은 사실은 앞에서 살펴본

28 수원시, 『수원시사』, 1986, 1002쪽.

29 수원시, 『수원시사』, 1986, 1001~1002쪽.



1976년 수원역 뒤 금강스틸 공장



1977년 해태유업 1960년대 말 수원에 생산 공장을 준공한 해태유업은 현재 이목동에 대단위 공장과 연구소를 두고 있다.



1974년 11월 30일 제1회 수출의 날 행사



1971년 가발제조공장 시벨산업

업종별 사업체수 현황과 함께 수원의 공업화가 도달한 단계, 그리고 그 중심과 주변 등을 보여 준다.

당시가 '수출입국'이 크게 강조된 때였던 만큼 제조업부문의 업종별 수출 실적을 살펴 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 현황을 확인하면, 섬유업종이 수원 경제의 수출 총액에서 압도적인 제1순위의 비중을 유지하였는데 그 비중은 점차 하락하고 있었다. 반면 전자·전기업종의 수출액은 꾸준히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표 9〉 1970년대 업종별 수출 실적³⁰

(단위 : 천달러)

연도	섬유	화학	전자·전기	총액
1976	243,611(84.05%)	3,553(1.21%)	39,905(13.60%)	293,343(100%)
1977	395,323(81.61%)	7,678(1.58%)	75,204(15.52%)	484,426(100%)
1978	458,352(71.34%)	2,718(0.42%)	172,846(26.9%)	642,529(100%)
1979	492,651(72.67%)	1,342(0.20%)	174,390(25.73%)	677,898(100%)

평균적으로 보면 공업화의 진전, 각종 개발사업의 추진, 도시화의 확대 등은 단지 제조업체의 증가만이 아니라 그들의 전후방 연관효과에 의해 비제조업의 성장을 낳는다. 여기에 전형적인 상업부문의 성장이 포함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특정 지역들에 한정해서 나타나는 그 추세는 지역 내 노동인구의 수급 조건, 인근 지역경제와의 분업 및 결합 관련 등에 따라 일정하게 불균등성을 띠고 진행된다.

수원 비제조업체의 양적 현황을 보면, 1975년 총 111개이던 것이 1976년 124개, 1977년 138개, 1979년 139개 등으로 4년간 25.2%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이는 여타 비제조업체가 정체 내지 감소 추세를 보인 반면, 1977년 이후 건축설계업체와 수도공무업체 및 관광업체가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난 결과였다. 비제조업 분야는 제조업 분야에 비해 느린 성장 속도를 나타냈고, 그 안에서 성장과 쇠퇴, 성장의 격차 등을 드러낸 것이다.³¹

그 점은 비제조업에 고용된 인원의 현황, 그리고 비제조업의 업체수와 피고용인수를 제조업의 그것들과 비교한 자료에서도 확인된다. 비제조업에 고용된 인원의 수는 1975년에 총 4,644명이던 것이 1976년에 4,806명으로 3.5%의 증가를 나타냈고, 1977년에는 851명이 줄어든 3,955명이었고, 1978년에는 4,154명으로 전년 대비 5% 증가하였으나 1975년도의 4,644명에는 미달하는 수치였다. 그러다가 1979년에 다시 5,348명이 되어 전년 대비 28.7%의 증가폭을 보였다. 또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기업체수를 비교하면, 1975년도 산업 전체에서 제조업체와 비제조업체의 구성비가 62 대 38이었는데, 제조업의 점유비율이 계속 증가하여 1979년에는 69 대 31이 되었다. 고용된 인원의 수에서도 1975년도 양 부문의 구성비가 81 대 19였던 것이 1979년에는 88 대 12가 되었다.³²

한편 비제조업 가운데서도 3차 산업에 고용된 인원의 수를 보면 1975년 4,644명에서 1979년 5,348명으로 증가하여 15%의 신장률을 나타냈다. 제조업부문의 그것에는 못 미쳤

30 수원시, 『수원통계연보』, 1980, 110쪽.

31 수원시, 『수원시사』, 1986, 1004쪽.

32 수원시, 『수원시사』, 1986, 1004쪽.



팔달문에서 바라본 시가지역(1979년) 여행사, 보험회사, 사진관, 은행 등 다양한 업체들이 가로변에 들어서 있다.

〈표 10〉 1970년대 비제조업 업체수³³

(단위 :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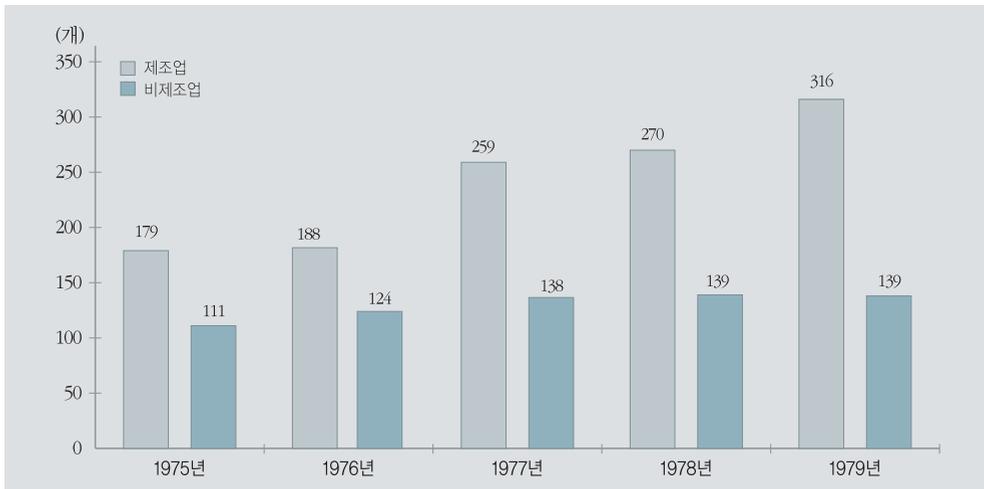
업종	1975	1976	1977	1978	1979
금융	17	19	21	21	22
보험	10	11	17	19	13
증권	-	-	2	2	3
건설	12	13	9	8	8
여객·운송·보관	41	41	3	-	-
자동차정비	-	7	6	6	6
전기공사	14	15	13	9	9
건축설계	-	-	16	16	16
수도공무	-	-	13	12	13
시장·백화점·슈퍼마켓	16	17	13	12	12
관광	1	1	7	8	8
대표서비스	-	-	-	-	2
계	111	124	138	139	139

³³ 수원시, 『수원시사』, 1986, 100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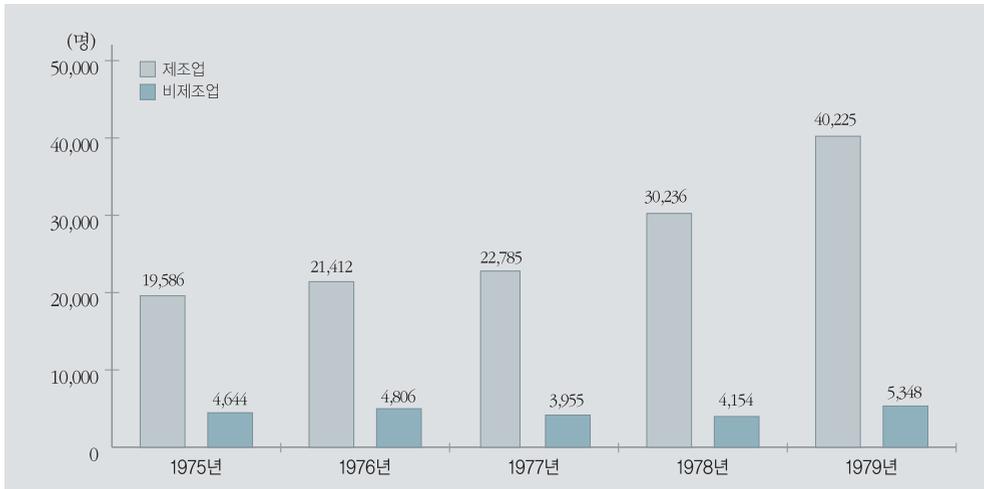
〈표 11〉 1970년대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현황³⁴

(단위 : 개, 명)

연도	업체수		피고용인수	
	제조업	비제조업	제조업	비제조업
1975	179(62%)	111(38%)	19,586(81%)	4,644(19%)
1976	188(60%)	124(40%)	21,412(82%)	4,806(18%)
1977	259(65%)	138(35%)	22,785(85%)	3,955(15%)
1978	270(66%)	139(34%)	30,236(88%)	4,154(12%)
1979	316(69%)	139(31%)	40,225(88%)	5,348(12%)



1970년대 제조업과 비제조업 업체수



1970년대 제조업과 비제조업 피고용인수

34 수원시, 『수원시사』, 1986, 1005쪽.

지만 3차 산업이 수원 경제의 기반 강화에 일정한 기여를 한 것은 분명하다.³⁵

대한민국 경제는 경제개발5개년계획 제3차, 제4차 기간(1973~1982년)을 거치는 동안 연평균 성장률 10.4%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중에서도 제조업부문은 연평균 18.3%나 성장하여 전체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무려 43.9%에 달하였다. 그런데 수원 경제는 같은 기간에 전국 수준보다도 더 높은 성장률을 보여 주었다.

수원 경제의 변화 및 위상을 확인하기 위해 지역내총생산(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의 성장률과 1인당 주민소득의 변화를 각 단위별로 비교해 보면, 수원은 전국과 경기도에 비해 높은 성장 패턴을 나타냈다. 1978~1980년은 국민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된 시기였으나 수원 경제는 이때에도 여타 지역보다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앞에서 본 바처럼 1960년대부터 성장을 주도한 섬유업종 외에 전자·전기업종의 육성 및 발전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삼성전자'가 1970년 일본 기업과 합작투자계약을 성사시키면서 수원시 매탄동에 대규모 공장을 완공·입주시켰고, 1973년에는 본사를 아예 수원시로 이전시켰다는 점이 주목된다. 같은 계열사로 전자 부품업체 '삼성전기'(당시에는 합작회사 '삼성산요파츠')가 수원에 입주한 것도 1973년이었다. 삼성전자는 효율적 생산 및 경영을 이유로 경상남도 울주군에 있던 삼성전관 내의 전탁(電卓)공장을 1974년에 수원시로 이전시켜 가동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표 12〉 1970년대 지역내총생산의 성장률³⁶

(단위 : %)

기간	전국	경기도	수원
1975~1977	11.3	14.8	18.0
1978~1980	3.2	4.1	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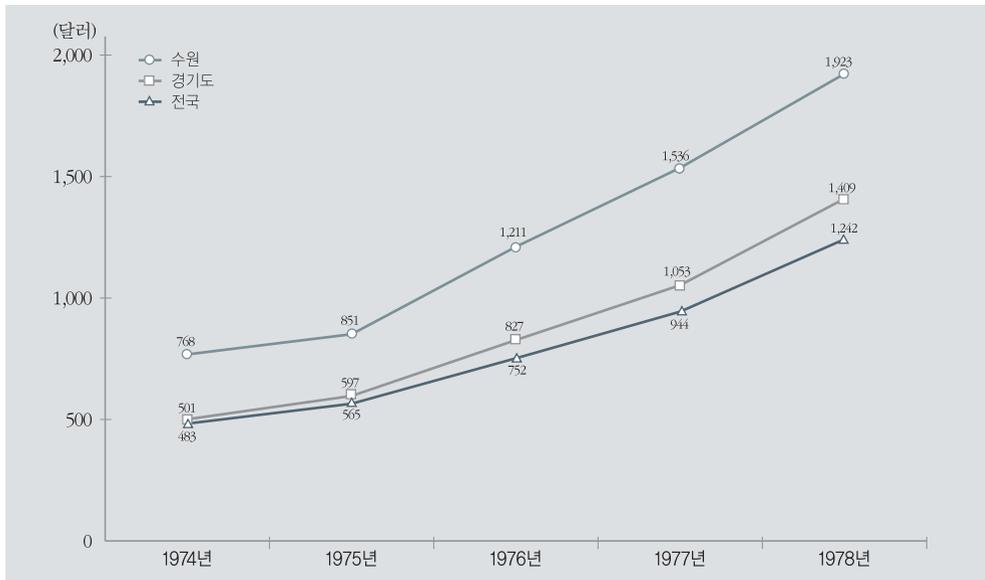
〈표 13〉 1970년대 1인당 주민소득의 추이³⁷

구분		1974	1975	1976	1977	1978
수원	천원	310,455	411,733	586,025	743,508	926,164
	달러	768	851	1,211	1,536	1,923
경기도	천원	202,488	288,919	400,504	509,701	682,058
	달러	501	597	827	1,053	1,409
전국	천원	195,380	273,355	363,950	457,030	601,198
	달러	483	565	752	944	1,242

35 장영실, 「수원시 공간구조 변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37쪽.

36 수원상공회의소, 『2000년대를 향한 수원권 개발방향에 관한 연구』, 1988, 409쪽.

37 수원시, 『수원통계연감』, 1979, 106쪽.



1970년대 1인당 주민소득의 추이

1975~1976년에는 총규모 7,696평에 달하는 공장 대확장 공사를 진행하여, 1974년 현재 7,672평 대비 수원단지의 공장규모를 배가시킴으로써 “명실공히 대단위 전자공업단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³⁸ 이 같은 상황은 삼성전자의 경영실적이 경제침체나 대외여건과 관련하여 단속적 기록을 보이는 가운데서도 전반적으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었음을 뜻한다.³⁹ 그리하여 삼성전자와 삼성전기는 수원 경제의 고용, 소득, 도시화 그리고 여타 상업부문의 활동 등에 성장 촉진 효과를 지속적으로 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70년대 수원 경제의 성장은 인구를 2배가량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당시 수원의 인구는 연평균 4.8%로 증가해 갔다. 이는 제조업의 급성장에 따른 고용흡수력의 증대가 주변지역 인구의 전입을 높인 데에 기인하였다. 수원시 인구밀도는 1971년 2,038명/km²에서 1980년 3,642명/km²으로 높아졌고, 가구당 평균 가족수는 같은 기간에 5.1명에서 4.3명으로 감소하였다. 공업화 및 도시화의 추세 속에서 핵가족화 경향이 동반

38 삼성전주식회사, 『삼성전자 20년사』, 1989, 133~135쪽, 153~154쪽, 159~160쪽, 186쪽; 삼성전기, 『삼성전기 25년사』, 1998, 29~35쪽. 기업집단 ‘삼성’이 ‘금성’에 비해 무려 11년이나 늦은 시점에 전자업종에 진출한 동기로는 ① 전자업종이 국제시장에서 유망하다는 자체 판단, ② 국내에서도 전자업종이 어느 정도 성장한 상태였다는 점, ③ 국가가 전자업종을 수출공업의 중점 육성 분야로 선정·지원하기 시작하였다는 점, ④ 소비재부문 위주로 전개한 경영방식과 부정축제사건 관련으로 비우호적인 사회여론과 대정부 관계를 개선하려는 의도, ⑤ 기존 투자부문의 수익성 저하에 따른 신규부문 투자의 모색 등이 언급될 수 있다(김용복, 『한국전자산업의 발전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박사학위논문, 1995, 108~110쪽).

39 삼성전주식회사, 『삼성전자 20년사』, 1989, 216~217쪽, 259~260쪽.



1974년 수원 삼성 전자단지 전경(삼성전자주식회사, 『삼성전자 20년사』, 1989) 삼성과 일본 SANYO의 합작공장임을 알리는 글자가 보인다.



1971년 삼성전기 생산공장의 여사원 노동집약적인 전자업종은 섬유업종과 함께 생산직 여사원들을 많이 고용함으로써 1970년대 수원시의 여성 인구가 증가하는 현상을 낳았다.

된 것이다. 이 핵가족화는 젊은 연령층 피고용인의 수원시 이주에 의한 결과로 보인다. 남자인구에 비해 여자인구가 다소 많았는데, 그것은 여성노동력을 필요로 한 섬유업종과 전자업종 중심으로 성장한 공업구조에 기인하였다고 여겨진다.⁴⁰

〈표 14〉 1970년대 인구 동향⁴¹

연도	계(명)	남자(명)	여자(명)	증가율(%)	밀도(명/km ²)	가구당 인구수(명)
1971	175,715(100%)	86,708(49%)	89,007(51%)	3.0	2,038	5.1
1975	224,177(100%)	110,667(49%)	113,510(51%)	6.2	2,679	4.8
1980	310,757(100%)	153,736(49%)	157,021(51%)	7.1	3,642	4.3

이상과 같이 1970년대에도 수원 경제는 ‘근대 산업화’의 방향으로 변모·발전해 갔다. 또한 다음과 같은 지표들을 확인하는 것이 수원 경제가 성장한 수준과 변화한 방향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수원 주민이 소유한 자가용 승용차의 수는 1972년 261대였던 것이 1979년 2,801대로 크게 늘어났다.⁴² 또 수원 주민이 보유한 주택용 전화의 수량은 1972년 2,521대였던 것이 1975년 3,790대, 1979년 1만 5,713대로 증가하였다.⁴³ 그리고 텔레비전의 보급 실태를 보면 1972년 6,552대, 1975년 1만 5,550대, 1979년 4만 7,747대(1.3세대당 1대)로 변화해 갔다.⁴⁴ 여기에서 그 내적 격차의 실체를 검토할 길은 없으나 수원 주민의 생활편의가 총합적 수준만큼은 개선되어 갔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1970년대에 더욱 빨라지고 확장된 공업화와 도시화의 흐름 속에서 농업부문은 어떤 변화를 맞이하고 있었을까? 당시 수원의 농업도 변화가 있었는데, 그것은 전반적인 축소와 약화, 주변화 등이었다.

먼저 농가인구 및 가구수를 보면 1970년대 초에는 그것이 수원 전체 대비 약 10% 내외를 차지하였으나, 10여 년이 경과한 후 약 4%에 불과할 정도로 많이 감소하였다. 집약재배를 할 수 있는 채소, 특용작물, 고등원에, 축산 부분 농가만이 현상유지를 하거나 약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경지면적도 같은 기간에 걸쳐 크게 줄어들었다.

40 장영실, 「수원시 공간구조 변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37~38쪽.

41 수원시, 『수원통계연보』, 1981, 22~23쪽.

42 수원시, 『수원통계연보』, 각 연도.

43 수원시, 『수원통계연보』, 각 연도.

44 수원시, 『수원통계연보』, 각 연도.

〈표 15〉 1970년대 농가구수와 농가인구⁴⁵

연도	총가구수 (호)	농가구수(호)				총인구수 (명)	농가인구수(명)			
		계	전업	겸업	구성비(%)		계	전업	겸업	구성비(%)
1976	47,812	3,291	1,857	1,434	6.8	235,159	19,542	10,028	9,514	8.3
1977	49,989	3,186	1,420	1,766	6.4	248,569	18,551	7,175	11,376	7.5
1978	54,771	2,477	1,260	1,217	4.5	266,135	14,115	6,450	7,665	5.3
1979	60,016	2,295	1,221	1,074	3.8	290,272	12,777	6,023	6,754	4.4

〈표 16〉 1970년대 경지면적의 변화⁴⁶

(단위 : ha)

연도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경지면적	3,440.9	2,762.8	3,289.8	3,165.6	3,100.3	3,089.4	2,609.5

품목별 현황에서도 1970년대 수원 농업의 주변화가 확인된다. 일단 단위 면적당 쌀의 생산량이 향상되었으나 그 재배면적은 큰 폭으로 감소해 갔다. 맥류의 생산은 전멸되다시피 하였고, 두류의 생산면적은 1970년 285정보에서 1979년 175정보로 크게 줄어들었다. 고구마와 감자의 경우도 생산면적이 10여 년 사이에 3분의 1로 줄어들었다. 다만 옥수수 생산면적만이 늘어나서 특이한 케이스로 기록되었다. 채소원예의 현황에서도 딸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 배추, 오이, 참외 등 대부분의 경우에서 생산면적의 큰 축소를 나타냈다. 과수의 경우는 생산성의 향상을 보이면서도 현상유지가 되거나 소폭으로 재배면적이 줄었다. 또 젓소를 비롯한 축산의 경우에선 상당 폭의 사육규모 증대 아니면 최소한의 현상유지가 나타났다.⁴⁷ 재배와 사육 품목에 따라 기계화, 전문화, 기업화, 생산성 향상 등이 있어 농업부문도 근대화 방향으로 변모해 갔음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농업부문이 수원 경제 전체에서 한층 더 주변화되어 간 것도 확실하다.

3. 1980년대 수원 경제의 변화

개발연대에 걸쳐 국민경제의 발전은 지속됐고, 더불어 수원 경제의 구조도 질적·양적 측면 모두에서 꾸준한 변화를 낳았다. 1차 산업의 비중은 계속 감소하여 농림업부문

45 수원시, 『수원시사』, 1986, 1210쪽.

46 수원시, 『수원시사』, 1986, 1210쪽.

47 수원시, 『수원시사』, 1986, 1210~1217쪽.

이 수원 경제의 성장에 기여하는 정도는 미미하게 되었다. 이외는 대조적으로 2차와 3차 산업은 성장 추세가 매우 빨라져 1980년대에 들어서는 전 산업의 생산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대부분일 정도가 되었다. 또 3차 산업만의 비중이 컸다는 점에서 당시 수원은 전자·전기업종과 섬유업종 등 공업부문이 경제적 기반을 제공하는 도시였음은 물론이고, 다양한 업종으로 구성된 서비스부문이 주민생활의 편의와 연결된 도시였다.⁴⁸

1980년대에도 수원의 공업 발전은 계속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또다시 주업종의 대체 현상과 업종 간 성장의 격차를 수반하며 이루어졌다. 당시 제조업체의 업종별 양적 현황을 살펴보면, 섬유업체가 1970년대와 비슷한 수준에서 현상유지를 하였는데 제조업 전체 대비 비중 면에선 점차 축소되었고, 1970년대 말 113개까지 되어 제조업 전체 대비 35.8%를 차지하였던 식품업체의 수는 대폭 줄어들었다. 눈에 띄는 것은 역시 전자·전기업체수의 지속적 증가이다. 1987년엔 22.8%로 제조업 전체 대비 가장 많은 수의 업체가 확인되었다. 또 기계업종에서 나타난 업체수의 증가도 상당했다. 그러나 기계업체의 수가 전자·전기업체의 수와 비슷했다지만 고용흡수력 면에선 후자에 비해 훨씬 못 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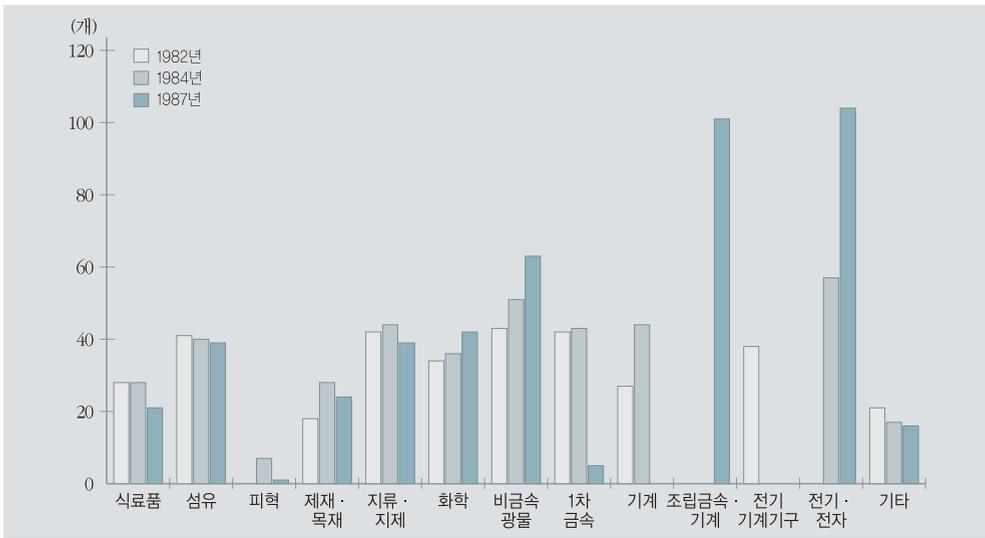
〈표 17〉 1980년대 제조업 업종별 기업체수와 피고용인수⁴⁹

(단위: 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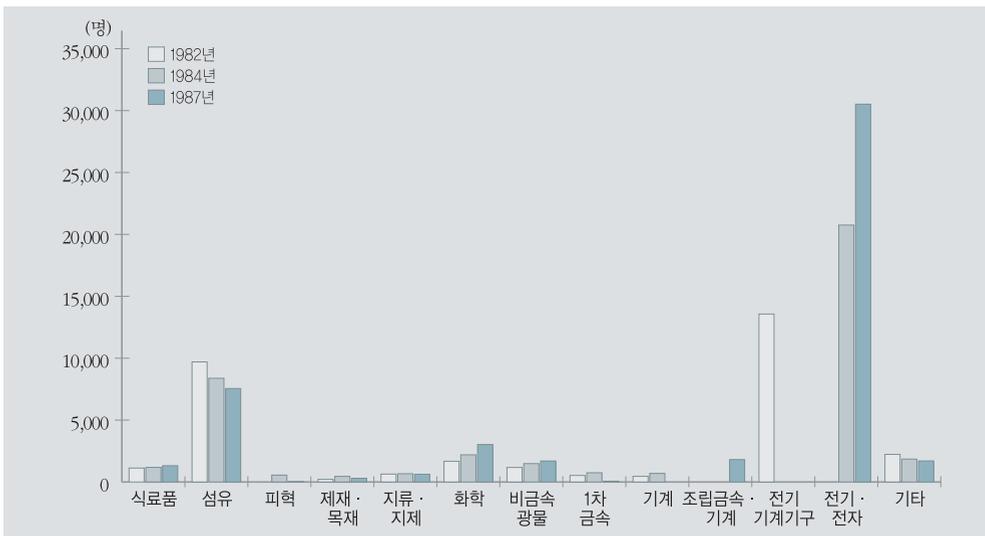
업종	1982		1984		1987	
	기업체	피고용인	기업체	피고용인	기업체	피고용인
식료품	28	1,125	28	1,184	21	1,318
섬유	41(12.28%)	9,699(30.97%)	40(10.13%)	8,378(21.50%)	39(8.57%)	7,549(15.52%)
피혁			7	560	1	25
제재·목재	18	217	28	454	24	300
지류·지제	42	641	44	669	39	627
화학	34	1,676	36	2,195	42	3,020
비금속광물	43	1,177	51	1,488	63	1,696
1차 금속	42	531	43	747	5	67
기계	27	459	44	693		
조립금속·기계					101	1,813
전기기계기구	38(11.38%)	13,567(43.31%)				
전기·전자			57(14.43%)	20,754(53.25%)	104(22.86%)	30,518(62.75%)
기타	21	2,230	17	1,851	16	1,702
계	334	31,322	395	38,973	455	48,635

48 수원상공회의소, 『2000년대를 향한 수원권 개발 방향에 관한 연구』, 1988, 414~415쪽.

49 수원상공회의소, 『수원경제현황』, 각 연도.



1980년대 제조업 업종별 기업체수



1980년대 제조업 업종별 피고용인수

당시 국가적으로 강조된 수출부문에서 자리한 각 업종의 위치를 보면 전술한 경향은 한층 선명해지고, 조금 더 긴 시계열 속에서 제조업부문 각 업종의 위상을 확인하면 지배적 부문 내에 있으면서도 퇴조해 간 섬유업종과 상승해 간 전자·전기업종의 상이한 입지가 확연하게 드러난다. 섬유업종의 현황은 특히 국내산 화학섬유제품의 국제경쟁력 상실에 연유하는 바가 컸다.⁵⁰



1983년 원천저수지 주변 공장



1984년 수원 시가지

〈표 18〉 1980년대 제조업의 업종별 수출 실적⁵¹

(단위 : 천달러, %)

구분	1982		1984		1987		
	수출액	구성비	수출액	구성비	수출액	구성비	
총계	1,211,498	100.0	1,098,440	100.0	2,329,330	100.0	
제조업	소계	1,208,452	99.7	1,095,740	99.8	2,328,412	99.96
	섬유	877,549	72.4	346,962	31.6	173,372	7.4
	화학	826	0.1	544	0.05		
	석유화학					63,456	2.7
	전기·전자	321,321	26.5	735,041	66.9	2,072,984	89.0
	합성수지					6,558	0.3
	기타	8,756	0.7	13,193	1.2	12,042	0.5

〈표 19〉 1980년대 제조업 업종별 성장률과 고용기여도(1975~1986)⁵²

(단위 : %)

구분	성장률	고용기여도	구분	성장률	고용기여도
식품	9.5	3.8	전자·전기	15.7	92.4
섬유	-3.7	-16.4	기계	6.1	1.90
의료·화학	20.0	9.0	제지	8.0	1.9

고용규모별로 제조업체의 수량을 파악하면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이어 1980년대에도 수원 경제에 대한 대기업의 지배력이 재차 확인된다. 달리 말하면 이것은 수원 주민의 생활상이 그만큼 대기업의 경제활동과 이에 연동된 협력업체와 각종 상업 내지 서비스부문의 동태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아져 갔다는 점을 의미한다.

전체 제조업체 가운데 고용규모 1~50명인 영세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82~85%였다. 반면 단 6개의 업체가 고용규모 1,000명 이상 내지 2,000명 이상을 유지하였다. 이것은 그만큼 수원 공업부문의 전체 고용흡수에서 대기업이 큰 부분을 점하고 있었다는 말이 된다. 섬유업종과 전자·전기업종에 속한 ‘선경합섬’, ‘한일합섬’, ‘대한방직’, ‘삼성전자’, ‘삼성전기’ 등이 바로 그 대기업들이었다. 또 그 같은 사실로부터 개발연대에 걸쳐 제조업부문 중견기업으로서 수원 경제에 안착한 사례가 별로 없다는 점이 지적되지 않을 수 없다.

50 이와 관련하여 수원에 대규모 섬유공장을 입주시켜 운영하고 있던 기업집단 ‘선경’이 1980년대 상반기에 걸쳐 석유화학과 정밀화학 등에 새로운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자체 구조조정을 진행하였는데, 여기에 국내산 섬유제품의 수출경쟁력이 두드러지게 하락하였고, 또 그에 대한 수요가 실제로 많이 감소하였다는 판단도 작용하였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다(선경그룹홍보실, 『선경 40년사』, 1993, 10장, 11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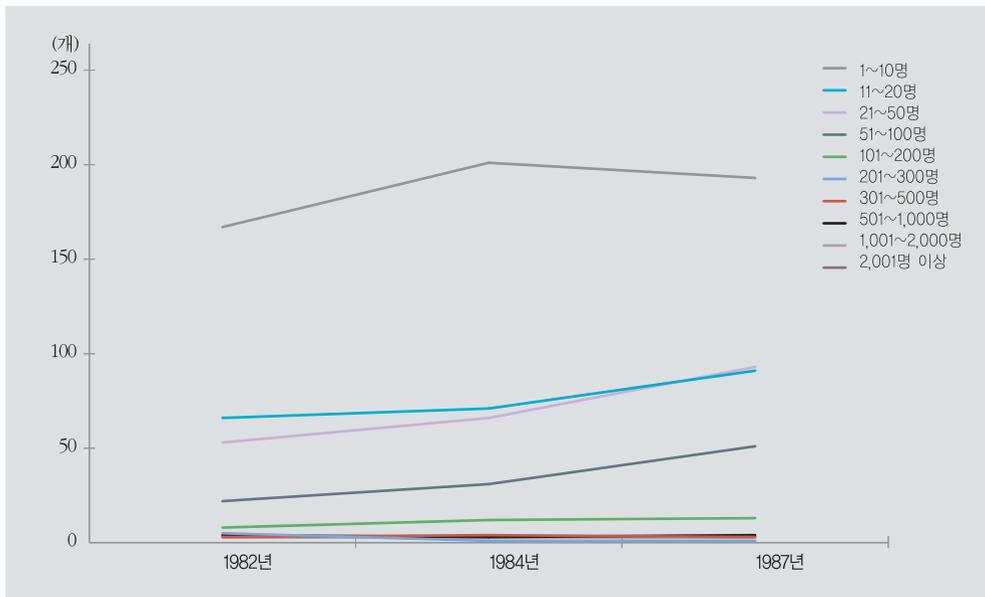
51 수원상공회의소, 『수원경제현황』, 각 연도.

52 수원상공회의소, 『2000년대를 향한 수원권 개발방향에 관한 연구』, 1988, 412쪽.

〈표 20〉 1980년대 제조업체의 고용규모별 수량⁵³

(단위 : 개)

고용규모	1982	1984	1987
1~10명	167	201	193
11~20명	66	71	91
21~50명	53	66	93
51~100명	22	31	51
101~200명	8	12	13
201~300명	5	1	1
301~500명	3	4	3
501~1,000명	4	3	4
1,001~2,000명	3	3	3
2,001명 이상	3	3	3
계	334	395	455



1980년대 제조업체의 고용규모별 수량

비제조업체에 눈을 돌려 그 현황을 보면 은행이 1980년 42개사에서 매년 증가하여 1984년에는 59개사가 되었고, 건설업체는 1980년 36개사에서 역시 매년 증가세를 보여 1984년에는 137개사에 달했으며, 대형소매점과 일반시장 등 상거래업체의 수는 1982년 이후

⁵³ 수원상공회의소, 『수원경제현황』, 각 연도.

1984년까지 15개사로 변함이 없었다. 운수·보관업체는 1980년에 53개였던 것이 계속 증가하여 1984년에는 80개사가 됐고, 기타 서비스업체(건축설계, 관광·휴양, 자동차정비·판매 등)도 1980년 36개사에서 매년 계속 증가하여 1984년에는 75개사에 달하여 4년 동안 거의 2배에 달하는 규모로 증가하였다.⁵⁴

같은 부문 고용 인원의 현황을 보면, 금융보험업의 피고용 인원이 1980년 1,332명에서 1981년과 1982년에 각각 4,057명과 4,208명으로 급증하더니, 1983년과 1984년에는 각각 2,164명과 2,287명으로 급락하였다. 그러나 이 인원도 1980년도에 비하면 그 2배에 달하는 수였다. 건설업의 경우에는 1980년 383명에서 매년 계속 증가하여 1984년에는 2,323명이 되었으며, 운수·보관업의 경우에도 1980년 2,763명에서 매년 계속 증가하여 1984년에는 4,155명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서비스업에 고용된 인원도 1980년 1,300명에서 매년 계속 증가하여 1984년에는 2,178명이 되었다.⁵⁵

상품유통시장의 점포 현황을 보면, 1981년 1,192개이던 것이 1982년 1,447개, 1983년 1,539개 등으로 계속 증가하여, 1984년에는 1,622개가 되었다. 이는 대형소매점(백화점 및 슈퍼마켓)의 수와 재래시장의 점포수가 동시에 증가한 결과이다.⁵⁶

이렇게 수원의 경제활동은 여러 부문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역시 그 비중과 정도는 산업부문 간에 균일하지 않았다. 1980년 수원의 1차, 2차, 3차 산업이 보여 준 부가가치 생산 구성비가 각각 3.2%, 49.0%, 47.8%이었는데 1987년에는 3.6%, 38.8%, 57.6%로 3차 산업 중심의 구조 개편이 심화되었다.⁵⁷ 이미 언급한 바이나 농업부문은 재론할 것이 없을 정도로 수원 경제에서 미미한 지위로 전락하였다. 제조업부문이 내부적 격차와 불안정성에도 불구하고 총합적 수준에서 지속적 발전을 보였다고 생각되는데, 그러한 차원의 확대 성장이 이루어진 정도는 상업부문, 서비스부문에는 미치지 못하였던 것이다.

3차 산업에서 내적인 변화를 보면, 1981~1986년간 성장률이 3차 산업 전체 평균을 초과한 업종으로 위생유사서비스, 종합건설, 전문직별건설, 오락문화서비스, 부동산, 도매, 운수창고를 들 수 있다. 1980년대 후반에 접어들어서는 위생유사서비스, 종합건설, 부동산, 도매, 운수창고 등의 성장률이 하락하여 전체 평균성장률을 하회하고 있으며, 전문직별 건설과 오락문화서비스는 성장률이 하락하였으면서도 여전히 전체 평균을 상회하고 있

54 수원시, 『수원시사』, 1986, 1012~1014쪽.

55 수원시, 『수원시사』, 1986, 1012~101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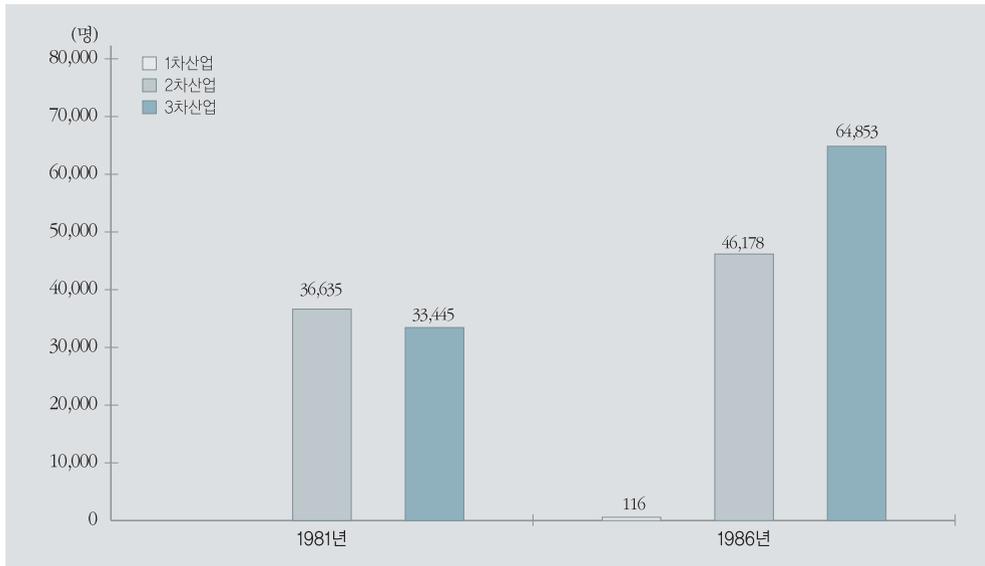
56 수원시, 『수원시사』, 1986, 1014쪽.

57 수원시, 『2011년 수원도시기본계획』, 1993, 28쪽.

〈표 21〉 1980년대 산업별 고용 현황⁵⁸

(단위 : 명)

구분	1981	1986
총계	70,080(100%)	111,147(100%)
1차산업		116(0.2%)
2차산업	36,635(52.3%)	46,178(41.5%)
3차산업	33,445(47.7%)	64,853(58.3%)



1980년대 산업별 고용 현황

다. 각 업종의 비중을 참고할 때 1980년대 수원의 3차 산업은 소매 기능이 강하고, 도매 기능은 취약하였다.⁵⁹

수원 경제는 1980년대에 들어 종전 시기에 비해 훨씬 대규모화되었다. 그리고 그 성장과 변화는 3차 산업에 의해 추동되는 측면이 상대적으로 커졌다. 또 3차 산업의 내부적인 동학에서도 일정한 변화가 일어났다. 이런 지점에서 논의해 볼 만한 부분이 금융 부문이다. 이제 금융의 성장과 순환 등이 역시 수원 경제의 중요한 일부가 되었다는 것이다.

58 수원상공회의소, 『21세기를 향한 수원 지역 발전방향』, 1996, 14쪽. 1981년도 수원 농촌인구 및 1차 산업인구를 집계한 자료는 없다.

59 이수복, 『경제의 구조적 특성』, 이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편, 『수원 지역의 현황과 과제』, 오름, 1996, 174-176쪽.

〈표 22〉 1980년대 3차산업의 고용 현황⁶⁰

(단위: 명, %)

구분	1981(a)		1986(b)		b/a
	고용인원	구성비	고용인원	구성비	
총계	33,445	100.0	64,583	100.0	1.93
전기가스증기	166	0.5	238	0.4	1.43
종합건설	725	2.2	2,955	4.6	4.08
전문직별건설	518	1.5	1,705	2.6	3.29
도매	1,783	5.3	4,296	6.7	2.41
소매	8,550	25.6	14,850	23.0	1.74
음식숙박	6,042	18.1	10,939	16.9	1.81
운수창고	2,506	7.5	4,954	7.7	1.98
통신			414	0.6	
금융	1,119	3.3	1,857	2.9	1.66
보험	1,022	3.1	1,668	2.6	1.63
부동산	777	2.3	2,190	3.4	2.82
용역	1,226	3.7	1,861	2.9	1.52
위생유사서비스	97	0.3	455	0.7	4.69
사회서비스	5,975	17.9	10,685	16.5	1.79
오락문화서비스	515	1.5	1,530	2.4	2.97
개인가사서비스	2,424	7.2	4,301	6.7	1.77

금융기관 점포수를 보면 1977년 12개(한국은행 포함)였던 것이 1986년 29개로 2.5배가 증가하였다. 이는 수원은 물론이고 인근 지역의 실물경제가 성장함에 따른 금융부문의 당연한 신장을 의미한다.

〈표 23〉 1980년대 금융기관 점포수의 추이⁶¹

구분	1977	1981	1986
점포수	12	18	29

1986년 현재 점포의 현황을 보면 시중은행이 10개, 지방은행(경기은행)이 5개, 특수금융기관(협동조합 포함)이 14개로 지방금융의 비중은 낮음을 알 수 있다.

종별 예금은행의 예금 추이를 살펴보면, 총예금은 1977년 427억 원에서 1981년에는

60 이수복, 「경제의 구조적 특성」, 이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편, 『수원 지역의 현황과 과제』, 오름, 1996, 175쪽.

61 수원상공회의소, 『2000년대를 향한 수원권 개발방향에 관한 연구』, 1988, 418쪽.



종로사거리에 개점한 경기은행 수원지점(1978년)



동방생명 수원영업소 신축 시목(1978년)

1,628억 원으로, 그리고 1985년에는 3,450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연평균 26.1%의 증가율을 보인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 대비 구성비도 1977년도 0.8% 수준에서 1985년도에는 1.11% 수준으로 신장하였다. 저축성예금과 요구불예금(통화성예금)의 구성비는 1985년 현재 66.0 대 34.0으로 저축성예금의 비중이 훨씬 컸다. 동 기간 중에 두 예금은 각각 25.4%, 27.5%의 연평균 증가율로 성장하여 그 증가 패턴은 유사하였다. 총예금 증가율 26.1%는 전국의 증가율 22.0%보다 상회하여 수원 경제의 금융자산이 신장하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빨랐음을 알려 준다. 이러한 신장세가 인근 지역의 발전에도 기여하였을 것이지만 역외 유출, 특히 수도권 역류라는 문제가 있었다.

〈표 24〉 1980년대 예금은행의 예금 추이⁶²

(단위 : 억원)

연도	예금액			
	총계	구성비(전국대비, %)	저축성	요구불
1977	427	0.80	296	131
1981	1,628	0.77	1,101	527
1985	3,450	1.11	2,266	1,184
증가율(%)	26.1		25.4	27.5

62 수원상공회의소, 『2000년대를 향한 수원권 개발방향에 관한 연구』, 1988, 419쪽.

금융기관의 여신 추이를 보면, 1977년 379억 원에서 1985년 3,156억 원으로 늘어나 전국 금융기관의 총대출액 대비 비중이 0.8%에서 0.93%로 상승하였다. 연평균 증가율로 보면 같은 기간 중 26.5%씩 여신 증가를 보여, 경기도의 23.0%, 전국의 24.6%를 약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5〉 1980년대 금융기관의 대출 추이⁶³

(단위 : 억원)

연도	수원		경기도	전국
	대출액	구성비(전국대비, %)		
1977	379	0.80	2,364	47,090
1980	892	0.56	5,671	159,550
1984	2,432	0.93	8,237	279,789
1985	3,156	0.93	14,954	338,107
증가율(%)	26.5		23.0	24.6

은행 자금 운영의 건실도를 보여 주는 지표로서 예금과 대출의 비율(예대율)을 보면 1977년 89%에서 1981년 75%로 하락하였으나, 이후 꾸준히 상승하여 1985년에는 91%에 달하였다. 이를 경기도와 전국의 수준과 비교해 보면 경기도와는 비교적 비슷한 비율을 보여 주었으나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못 미쳤다. 이러한 대출실적의 부진은 수원 경제의 지역자금사정이 충분치 않았음을 뜻한다.

〈표 26〉 1980년대 은행의 예대율 추이⁶⁴

(단위 : %)

연도	수원	경기도	전국
1977	89	81	88
1981	75	79	64
1985	91	89	109

수원 경제의 자금 순환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어음부도율을 연도별로 보면, 1982년 0.22%에서 점차 하락하여 1985년도 0.11%에 이르렀으나 1986년 다시 0.18%로 상승하였다. 같은 기간 중 전국 평균은 0.12%에서 0.07%로 하락하여 수원 경제의 기업자금사

63 수원상공회의소, 『2000년대를 향한 수원권 개발방향에 관한 연구』, 1988, 419쪽.

64 수원상공회의소, 『2000년대를 향한 수원권 개발방향에 관한 연구』, 1988, 420쪽.

정이 악화되었음을 예시한다. 특히 1986년의 경우 수원 경제의 부도율이 전국의 약 2.5 배 수준에 달하였다. 이는 수원 경제가 지역별 자금배분 정도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이것은 수원이 서울에 인접함에 따라 지역자금의 상당량이 서울로 역류하고, 자금의 수익성과 운용기회가 상대적으로 낮은 형편에서 비롯했다고 여겨진다.

〈표 27〉 1980년대 어음부도율 추이⁶⁵

(단위 : %)

연도	수원	전국	연도	수원	전국
1982	0.22	0.12	1985	0.11	0.07
1984	0.16	0.09	1986	0.18	0.07

수원의 금융부문이 일정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겪었던 어려움은 그것의 지나친 서울 의존성과 빈약한 지방화에서 기인하였다. 우선 주요 대기업의 경우 생산공장이 수원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무역금융, 투자대출, 환업무 등 주요 금융업무를 서울에서 수행함

에 따라 ‘생산’과 ‘금융’의 지역적 이원화를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지역 금융이 지역 내 중소기업에 국한되었고, 이것은 금융기관의 안정적 성장과 규모의 증대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와 같은 이원화 및 서울 의존성이 지역자금의 역류라는 금융구조의 왜곡을 초래하였으며, 금융의 서울 집중현상을 가속시켰다.⁶⁶

수원 경제는 2차산업과 3차산업의 확대 성장으로 1979~1980년에 초래된 전국적 경제위기를 넘어서면서 고도 성장기를 계속 이어 갔



경수투자금융주식회사 창립총회(1981, 수원상공회의소 소장) 지역경제 발전과 중소기업의 금융 혜택을 위해 지역의 민간자본을 주축으로 하는 투신(投信)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경수투자금융주식회사’가 설립되었다.

65 수원상공회의소, 『2000년대를 향한 수원권 개발방향에 관한 연구』, 1988, 420쪽.

66 수원상공회의소, 『2000년대를 향한 수원권 개발방향에 관한 연구』, 1988, 441~442쪽.

다. 수원 경제는 대한민국 경제 전체의 성장고는 물론이고, 경기도의 경제성장고 이상의 결과를 보여 주었다. 이 점은 지역총생산의 증가율과 1인당 주민소득의 변화에서도 확인된다.

〈표 28〉 1980년대 지역내총생산 증가율⁶⁷

(단위 : %)

구분	전국	경기도	수원
1980~1983	7.1	6.0	11.9

〈표 29〉 1980년대 1인당 주민소득 현황(1980년도 불변가격 기준)⁶⁸

(단위 : 만원)

연도	수원	경기도	연도	수원	경기도
1981	127.9	112.5	1983	140.7	115.8

1987년에 이르면 1인당 주민소득이 수원의 경우는 178만 원이 됐고, 전국의 경우는 161만 원에 머물렀다.⁶⁹ 수원 경제가 대한민국 전체와 경기도 전체 안에서 차지하고 있던 지위를 제조업과 수출부문에 초점을 두어 파악하면 다음 표들과 같다.

〈표 30〉 1982년 수원 경제의 지위⁷⁰

구분	면적(km ²)	인구(천명)	제조업체수(개)	제조업체 노동자수(명)	수출액수(백만달러)
전국	99,015.99(100%)	39,331(100%)	36,149(100%)	2,064,222(100%)	21,853(100%)
경기도	10,854.61(10.96%)	4,117(10.47%)	5,135(14.2%)	319,202(15.46%)	3,208(14.7%)
수원	84.25(0.085%)	348(0.88%)	334(0.92%)	31,322(1.51%)	1,211.5(5.5%)

〈표 31〉 1984년 수원 경제의 지위⁷¹

구분	면적(km ²)	인구(천명)	제조업체수(개)	제조업체 노동자수(명)	수출액수(백만달러)
전국	99,025.44(100%)	40,430(100%)	39,723(100%)	3,351,000(100%)	29,244.9(100%)
경기도	10,856.51(10.96%)	4,581(11.3%)	6,369(16%)	404,371(12.07%)	3,849(13.16%)
수원	96.67(0.098%)	402(0.99%)	395(0.99%)	38,973(1.16%)	1,098(3.75%)

67 수원상공회의소, 『2000년대를 향한 수원권 개발방향에 관한 연구』, 1988, 409쪽.

68 수원상공회의소, 『2000년대를 향한 수원권 개발방향에 관한 연구』, 1988, 410쪽.

69 수원상공회의소, 『21세기를 향한 수원 지역 발전방향』, 1996, 13쪽.

70 수원상공회의소, 『수원경제현황』, 1983·1988; 노동부, 『노동통계연감』, 1983.

71 수원상공회의소, 『수원경제현황』, 1985·1988; 노동부, 『노동통계연감』, 1985.

〈표 32〉 1987년 수원 경제의 지위⁷²

구분	면적(km ²)	인구(천명)	제조업체수(개)	제조업체 노동자수(명)	수출액수(백만달러)
전국	99,174.24(100%)	42,014(100%)	52,011(100%)	2,833,164(100%)	47,280.9(100%)
경기도	10,864.24(10.95%)	5,386(12.82%)	7,467(16.0%)	464,839(16.41%)	8,530.9(18.0%)
수원	105.54(0.11%)	506(1.2%)	455(0.87%)	48,635(1.72%)	2,329.3(4.93%)

높은 경제성장률을 현시한 수원 경제는 인구의 계속적 증가를 수반하였다. 당시 수원의 인구는 1981~1987년에 연평균 약 7%씩 증가하여 32만 4,225명에서 50만 6,060명으로 변화하였다. 이것은 수도권 전체의 증가율 3.7%의 2배, 경기도의 증가율 4.5%보다 훨씬 높은 증가 추세였다.⁷³ 같은 기간에 국가의 수도권 정비계획으로 수원이 '제한정비권역'에 포함되었음에도⁷⁴ 그 인구의 증가세는 약화되지 않은 것이다. 이 요인은 복합적이었을 것이나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전자·전기업종의 괄목할 만한 성장을 논외로 두기도 어려울 것이다.

〈표 33〉 1980년대 수원시 인구 증가 추이⁷⁵

연도	계(명)	남자(명)	여자(명)	증가율(%)	밀도(명/km ²)	가구당 인구수(명)
1981	324,225	159,640(49.24%)	164,585(50.76%)	4.3	3,849	4.5
1984	402,319	200,614(49.86%)	201,705(50.14%)	7.7	4,162	4.3
1987	506,060	251,153(49.63%)	254,907(50.37%)	9.4	4,795	4.1

인구 증가는 인구밀도를 높여 놓았다. 수원의 인구밀도는 1987년 현재 4,795명/km가 되어 7년 사이에 무려 1,000명/km가 늘어났다. 그에 반해 가구당 인구수는 계속 감소해서 1980년대 초에 4.5명이던 것이 1987년에 4.1명으로 줄었다. 결과적으로 이는 주택수요를 비롯한 여러 가지 공공서비스의 수요를 증대시켰다.⁷⁶

수원 경제의 발전은 도시공간의 구조에서도 변화를 초래하였다. 예컨대 제조업체의 경

72 수원상공회의소, 『수원경제현황』, 19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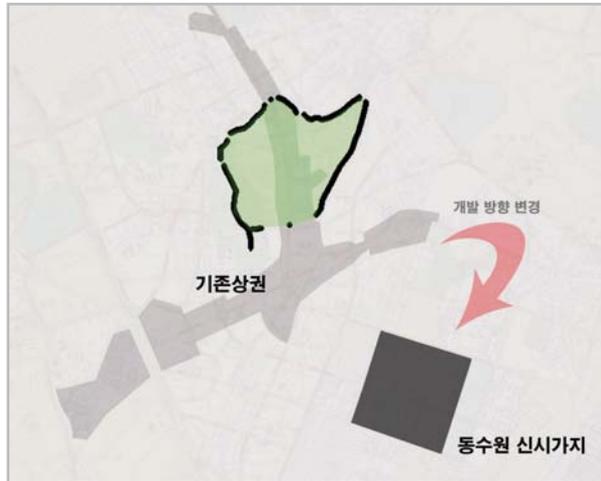
73 김광시, 「수도권의 행정수요와 효과적인 수행방안」, 『지방행정』 제38권 제5호, 1985, 21~23쪽.

74 국가는 수도권에 과밀하게 집중된 인구나 각종 산업시설을 적절하게 배치하고 조정하겠다는 취지에서 「수도권정비법」을 1983년부터 시행하였는데, 그 이후 수원은 인천, 광명, 안양, 성남 등과 함께 '제한정비권역'으로 분류되어 기존 인구집중시설의 제한적 증설만이 가능하고 신규 입지는 규제를 받는 입장에 놓였다(『매일경제신문』, 1982년 9월 17일; 『경향신문』, 1983년 5월 13일).

75 수원시, 『수원통계연보』, 1988, 54~55쪽.

76 장영실, 『수원시 공간구조 변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39·50~51쪽.

우 평동·서둔동·매탄동·원천동·곡선동 등에 집중 분포되었고, 연결기능은 수원역과 시외버스터미널이 위치한 매산동 일대에 위치하였으며, 시청과 법원 같은 기관의 중추관리 기능은 기존 도심지역인 신안동·중동·매산동에 자리해 있던 일부가 동부의 신도심 지역으로 이전해 갔다. 경제의 발전과 함께 도시공간이 서부를 중심으로 하는 단핵구조에서 양핵구조로 변화해 간 것이다.



수원시 확장에 따른 도심 이동

1960년대 이후 꾸준한 공업발전과 인구 증가로 기존 도심의 혼잡도가 높아졌고 1970년대 경부고속도로 개통과 더불어 동부에서 자유입지형인 전자·전기업종이 성장하여 그에 따른 인구 증가가 나타나 수원 동부에 새로운 시가지가 발달한 것이다.⁷⁷

수원 경제의 발전은 이전 시기와 마찬가지로 주민의 생활편의가 평균적으로 향상되는 과정이었다. 그것은 1인당 주민소득의 향상이 가져온 효과였다.

이와 관련하여 자가용 승용차 소유 현황을 보면 1982년 3,021대, 1985년 4,709대, 1988년 1만 2,153대로 계속 늘어갔다.⁷⁸ 또 주택용 전화의 보급 현황을 보면 1982년 2만 5,205대, 1985년 5만 9,533대(보급률 74.2%)로 역시 계속 증가하였다.⁷⁹ 텔레비전의 보유 현황도 마찬가지로 추세를 보였는데 1982년 6만 9,619대로 보급률 90.9%, 1984년 9만 2,000대로 보급률 98.2%이었다.⁸⁰

그러나 앞에서 시사한 바처럼 주택보급은 사정이 달랐다. 1980년대 수원은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1인당 주민소득의 증가 경향에도 불구하고 심화된 주택 부족현상과 대면해야 했다. 1979년 이후 가구수 증가는 연평균 13.0%에 이르렀으나 주택보급 증가는 연평균 10.6%로 나타나서, 주택보급률이 1979년 61.4%에서 점점 떨어져 1985년에는 56.3%로 낮

77 장영실, 『수원시 공간구조 변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56쪽.

78 수원시, 『수원통계연보』, 각 연도.

79 수원시, 『수원통계연보』, 각 연도.

80 수원상공회의소, 『수원경제현황』, 각 연도.



인계동으로 이전한 수원시청 수원시청의 이전은 동부 신도심 건설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표 34〉 1980년대 가구수와 주택보급률⁸¹

연도	총인구(명)	가구수(호)	주택수(호)	주택 보급률(%)	인구 증가율(%)	가구 증가율(%)	주택 증가율(%)	가구당 인구수(명)
1979	290,272	60,016	36,873	61.4	9.1	9.0	5.3	4.8
1981	324,225	71,844	42,174	58.7	5.8	9.9	7.2	4.5
1983	373,636	85,833	50,628	59.0	7.6	9.7	10.0	4.4
1985	430,834	106,909	60,236	56.3	7.7	12.3	9.5	4.0
연평균 증가율(%)					8.1	13.0	10.6	

아졌다. 이 수치는 전국 주택보급률 69.7%, 농촌 주택보급률 93.7%, 도시 주택보급률 57.7% 등에 비하여 낮은 것이었다.

수원 경제는 대한민국 경제의 평균화된 전체적 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수원 경제는 1960년대 초반 이후 1980년대 중반에 이르는 국가주의적 개발연대에 걸쳐 지속적이고 빠른 고도성장을 실현하였다. 오히려 속도와 정도에서 수원 경제가 다소 앞서 나갔다. 1인당 주민소득의 향상에 따라 수원 경제의 구성원들은 공업화와 도시화가 진전되기 이전 전통적 삶 속에서는 접하거나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물질적·기술적 편의의 향유 기회를 확장·확보하였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또한 외면할 수 없는 것은 그러

81 수원상공회의소, 『2000년대를 향한 수원권 개발방향에 관한 연구』, 1988, 333쪽.

한 총합적 발전과 진보가 내부적으로 일정한 격차 내지 불균형을 품고 진행된 불안정적 과정이었다는 점이다. 이것도 역시 대한민국 경제 전반이 보여 준 특징과 많은 부분 일치한다. 예컨대 농업부문의 현저한 주변화를 귀결시킨 제조업·도시부문 위주의 성장, 건설한 중소기업의 육성이 충분치 못한 상황에서 실현된 대기업 중심의 성장, 서울 경제의 비대성과 연동된 상업과 금융의 취약한 성장 등이다. 본장의 과제범위를 넘는 주제이지만 간략히 언급하면, 1980년대에 접어들어 오히려 악화된 '주택문제'의 경우는 특정 단위 경제의 성장과 발전, 진보 등이 가진 이중성을 예시하고, 동시에 그 이중성에 대한 많은 관심과 완화 내지 해소 노력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조현수 평택대학교 무역물류학과 교수

1. 수원시의 경제여건
2. 수원시의 산업환경
3. 수원시의 발전방향



제3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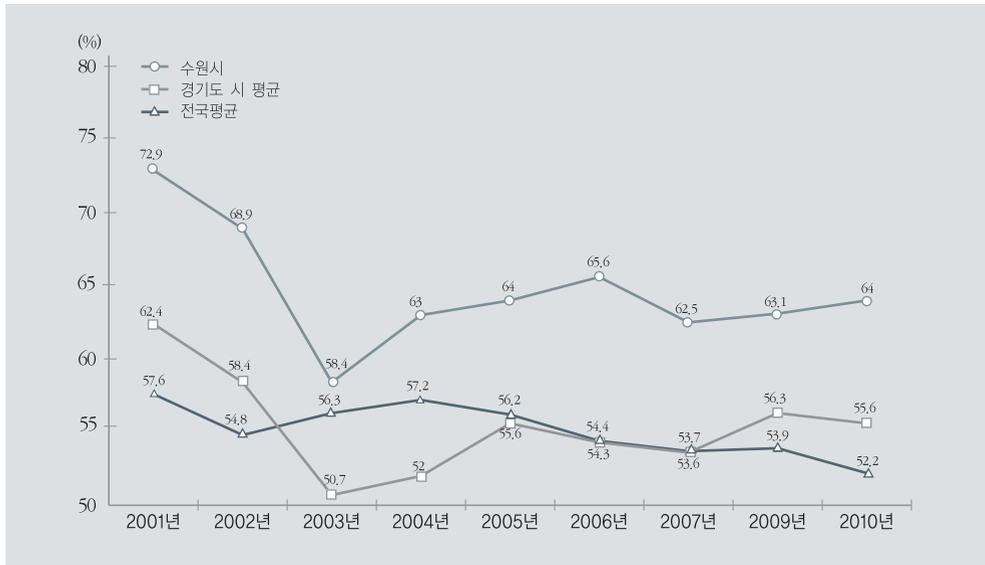
수원시의 경제여건과 발전방향

1. 수원시의 경제여건

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는 해당 시가 자주적으로 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높은 수치일수록 좋으며 100%를 초과하는 재정자립도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전국 및 경기도와 비교한 수원시의 재정자립도는 <그림 1>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이, 1998년도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2003년까지 큰 폭의 감소가 나타난 이후 60% 중반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전국 평균 및 경기도 시 평균의 재정자립도와 비교하였을 때 약 10% 이상의 높은 재정자립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경기도 지역의 시 가운데에서 2010년도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수원시의 재정자립도보다 높은 시는 성남시(67.4%), 화성시(67.1%), 용인시(66.2%) 등 3개 시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수원시의 재정자립도는 서울 등 일부 시를 제외한다면 상대적으로 높은 상태임을 알 수 있다.



(그림 1) 수원시 재정자립도¹

2010년 수치는 재정자립도에서 변경된 재정자주도²의 수치이고, 수원시의 2012년 재정자주도는 75.1%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수원시의 재정자립도는 수도권 내의 다른 시들과 비교하였을 때, 행정안전부의 2010년 경기도 주요 시군별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본다면 성남, 용인 그리고 화성시 다음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2) 지역내총생산과 1인당 지역내총생산

수원시의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의 지역내총생산(GRDP) 추이를 보면 계속해서 증가해 오고 있다. 그렇지만,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2006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를 나타내고 있어 수원시 지역 주민들의 소득 내지는 경제상황은 개선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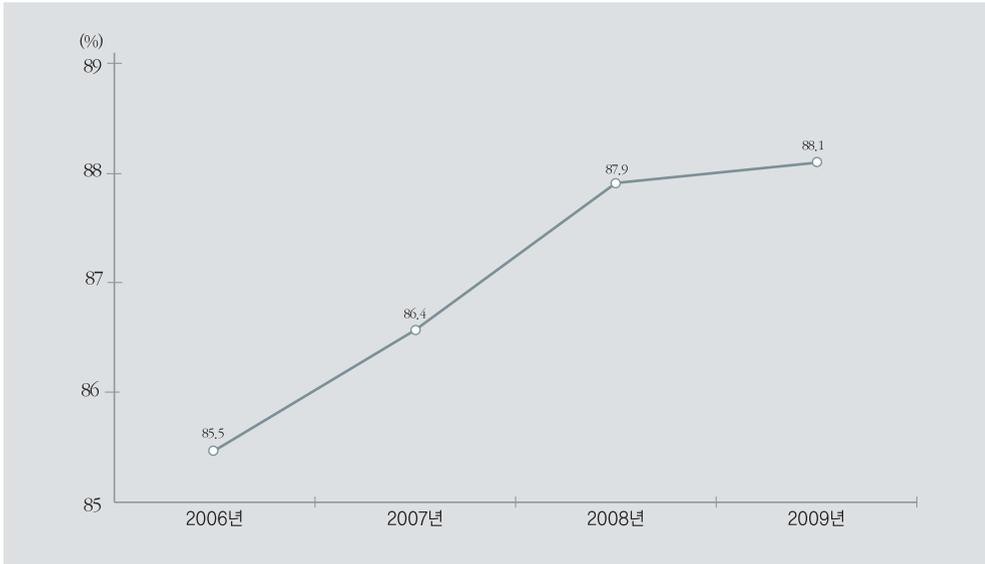
이와 같은 수원시의 지역내총생산(2006년부터 2009년까지)이 경기도 지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11.9%이다. 그리고 경기도 1인당 지역내총생산 대비 수원시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표 1>에서와 같이 2006년 경기도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 1,671만 1,000원의 85.8% 정도인 1,429만 6,000원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1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2 지방정부가 재량권을 가지고 쓸 수 있는 예산의 비중이다.

〈표 1〉 경기도 · 수원시 지역내총생산과 1인당 지역내총생산³

항목		2006	2007	2008	2009
경기도	지역내총생산(백만원)	180,851,966	193,657,734	198,948,412	208,296,101
	1인당 지역내총생산(천원)	16,711	17,543	17,688	18,197
수원시	지역내총생산(백만원)	15,143,515	16,238,814	16,665,087	17,488,174
	1인당 지역내총생산(천원)	14,296	15,155	15,543	16,027



〈그림 2〉 경기도 대비 수원시 1인당 지역내총생산 비율⁴

그 격차는 〈그림 2〉와 같이 점차 감소하여 2009년에는 경기도 1인당 지역내총생산의 88.1%로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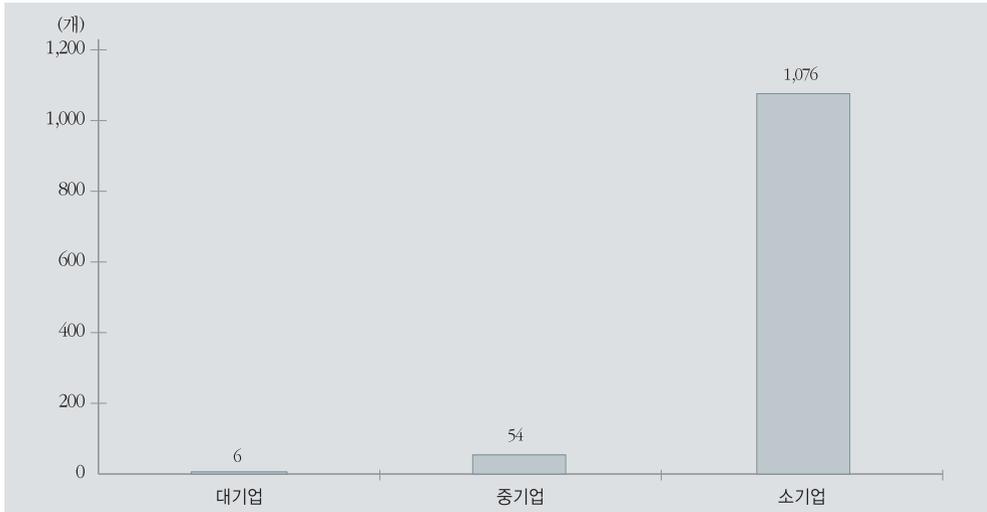
3) 규모별 · 업종별 기업체 현황

2012년 1월 현재 수원시의 규모별 기업체 현황은 〈그림 3〉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이 소기업(50명 미만)이 1,076개 업체로 약 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기업(50명 이상)이 54업체로 약 4.8%, 대기업(300명 이상)이 6개 업체로 0.5%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종업원수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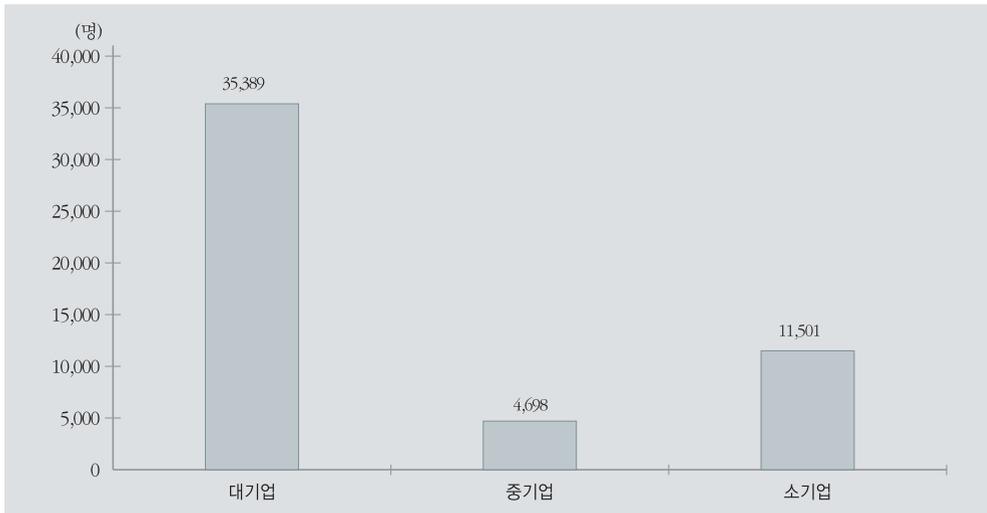
3 통계로 보는 수원(<http://stat.suwon.go.kr>).

4 통계로 보는 수원(<http://stat.suwon.go.kr>).

비교해 본다면, 대기업이 3만 5,389명으로 68.6%, 소기업이 1만 1,501명으로 22.3%, 중기업이 9.1%(4,698명)를 차지하고 있어 수원시 경제는 대기업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 2012년 1월 수원시 규모별 기업체수⁵



〈그림 4〉 2012년 1월 수원시 규모별 종업원수⁶

⁵ 통계로 보는 수원(<http://stat.suwon.go.kr>).

⁶ 통계로 보는 수원(<http://stat.suwon.go.kr>).

2012년 1월 현재 수원시의 업종별 기업체 현황은 <표 2>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이 전체 1,136개 업체 중 전기 전자업체가 495개 업체로 가장 높은 약 43.6%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기계 231개 업체로 20.3%, 의료정밀업체가 105개 업체로 9.2%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업종별 기업체 현황을 통해 수원시는 전기전자 중심의 도시임을 알 수 있다.

<표 2> 수원시 업종별 업체수⁷

(2012년 1월 1일 현재)

구분	계	식품	섬유	목재	종이 인쇄	화학 고무	비금속	1차 금속	조립 금속	전기 전자	기계	의료 정밀	운송 장비· 기타
업체수	1,136	34	26	13	55	72	7	3	61	495	231	105	34

4) 수원시 예산

수원시의 예산은 안정적인 상태로 운영되어 오고 있다. <표 3>에는 2012년 기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예산이 나타나 있으며, 그 합은 1조 7,041억 9,700만 원이다. 그 가운데 일반회계는 1조 1,710억 5,5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5,331억 4,200만 원이다. 그리고 2012년 수원시의 예산은 2011년 대비 19.40%가 증가하였다. 특히, 특별회계는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오다가 2012년 들어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2012년에는 전년도 대비 50.20%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 가운데 공기업특별회계에 속하는 공영개발사업이 141.79%(829억 3,500만 원에서 2,005억 3,400만 원으로 증가)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에서는 대지보상비가 98.04%(5억 1,100만 원에서 10억 1,200만 원으로 증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예산의 편성과 내용 면에서 본다면 수원시는 공영개발에 상당히 적극적임을 알 수 있다.

<표 3> 수원시 예산⁸

(단위 : 백만원)

회계별	2008	2009	2010	2011(당초)	2012(당초)
계	1,768,205	1,522,914	1,563,992	1,427,321	1,704,197
일반회계	1,197,982	1,002,436	1,153,279	1,072,377	1,171,055
특별회계	570,223	520,478	410,713	354,944	533,142

7 통계로 보는 수원(<http://stat.suwon.go.kr>).

8 조현수 외, 『수원시 르네상스 고용정책 기본계획』, 2012, 25~26쪽 재인용.

2. 수원시의 산업환경

1) 수원의 산업

수원시의 산업별 고용구조 측면에서 본다면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2차 산업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3차 산업의 비중이 2차 산업의 비중을 추월하기 시작하여 현재에는 완전한 3차 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전환되었다.

시대적인 산업의 주요 변화는 1980년대에는 섬유, 전기·전자산업부문, 1990년대에는 전기·전자산업과 함께 기계, 운수장비, 의료광학 부문의 증가,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는 IT 중심의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 산업의 증가와 함께 문화산업도시로의 변화가 돋보였다. 또한 2010년대에 진입해서는 IT 중심의 첨단산업기반과 연구중심산업의 집중, 도소매업과 교육, 숙박 및 음식 등의 사회서비스 관련 산업들의 성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수원시의 시대적인 변화과정은 현재의 수원시가 최첨단산업을 기반으로 한 제조산업과 서비스산업 등의 인프라를 충분히 갖춘 중심도시로서 자리 잡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수원시는 행정업무의 중심지인 경기도청 소재지로서, 사통팔달의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 및 접근성(KTX, 철도, 고속도로 등)이 뛰어나고 세계적인 글로벌기업인 삼성전자를 비롯하여 IT, BT, NT 등 산업클러스터가 잘되어 있으며, 첨단과 역사가 공존하는 역동적 도시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화성이 중심부에 있고, 2002년 월드컵 개최를 통해 도시 브랜드 가치는 상승되었다.

삼성전자 등 첨단 R&D 기업(시설) 및 성균관대, 아주대, 경기대 등 우수인력 양성이 가능한 교육기관이 다수 소재하여 첨단 산업(연구)의 잠재력이 내재되어 있다. 또한, 수원시는 우수한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서울과 인접하여 전문적 지식을 갖춘 우수



(그림 5) 광교테크노밸리 안에 있는 융합기술원

인력의 채용이 가능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2010년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다.

특히, 수원시는 광교테크노밸리 내에 경기바이오센터, 나노 특화 팹, 융합기술원, 경기 중소기업 종합지원 센터가 집적되어 있으며, 성균관대, 아주대, 경기대 등 우수한 대학 인력과 의 유기적인 연계활동을 통하여 IT, BT, NT, ET 등에 특화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표 4>의 경기도 내 권역별 현황과 비교해 보면, 수원시의 지식기반 인프라가 뛰어난을 알 수 있다.

<표 4> 경기도 권역별 특화산업 및 혁신기관 현황⁹

구분	시군	특화산업·기술	혁신클러스터(거점)		주요 산업단지
			대학(특화분야)	거점·단지	
연구 개발	수원 용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개발, 과학기술서비스 바이오 의약/나노소재 전시 및 컨벤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균관대학교(IT, NT) 아주대학교(BT) 경기대학교(ET)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교테크노밸리 	고색
지식 기반 서비스	성남 용인 이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남(IT서비스, 반도체설계, 소프트웨어, 문화컨텐츠, 섬유·신발) 용인(정보통신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원대학교(S/W, 신소재) 경희대학교(영상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판교테크노밸리 기흥벤처밸리 KNSE타워 	성남
	안양 부천 군포 과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천(만화영상, 로봇, 금형, 조명) 안양(S/W, 정밀기기, 정보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양과학대(정밀기기) 유한대학교(금형, 금속) 한세대학교(정보통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양K-센터 부천테크노파크 과천지식정보타운 	부곡
	고양 파주(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파주(출판) 고양(전시컨벤션, 정보통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항공대학교(S/W, 정밀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삼승기술단지(고양) 	
지식 기반 산업	안산 시흥 김포 화성 오산 평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산·시흥(메카트로닉스, 부품소재, 정밀화학, 바이오) 화성(제약, 자동차부품, 반도체) 김포(정보통신 부품소재) 오산(정보통신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양대학교(정보통신, BT) 산업기술대(정밀기기) 경기과학대(부품소재) 한경대학교(정정농업) 수원대학교(환경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테크노파크 송산테크노밸리 	시화 반월 발안 양촌
	파주 양주 남양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파주(디스플레이부품, 정밀기계, 전자 부품) 양주(섬유가공 소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섬유소재연구소 두원공과대 		월릉 선유
	의정부 동두천 포천 연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포천(섬유, 가구, 조립금속) 동두천(피혁, 염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진대학교 경민대학교(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대진 테크노파크 	
기타	이천 여주 광주 양평 하남 구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자기 친환경농산물 가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강문화산업대(도예) 요업기술원 		

⁹ 수원산업단지(<http://idc.suwon.ne.kr>).

2) 공업과 상업지역

수원시의 산업여건은 수도권 내의 과밀억제지역으로서 산업입지규제를 받고 있어 신규 공업지역 지정 및 공단개발이 불가능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첨단업종을 제외하고는 공업지역에서만 공장설립 및 증설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된 수원시의 공업지역은 201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수원시 전체 면적의 3.4%(412만 479㎡)로서 현재는 개발 및 입지가 대부분 완료된 상태이며, 상업지역은 수원시 전체 면적의 4.7%(572만 2,250㎡)이다. 수원시의 공업용지와 상업용지 등의 용도 지역별 분포 현황은 <표 5>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다.

<표 5> 수원시 용도지역별 면적 및 구성비¹⁰

(단위 : ㎡, %)

용도지역별		면적	구성비
합계		121,103,097	100.0
주거지역	소계	43,131,234	35.6
	전용주거지역	142,915	0.1
	일반주거지역	40,910,526	33.8
	준주거지역	2,077,793	1.7
상업지역	소계	5,722,250	4.7
	중심상업지역	1,388,231	1.1
	일반상업지역	4,108,022	3.4
	근린상업지역	225,997	0.2
공업지역	소계	4,120,479	3.4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3,894,077	3.2
	준공업지역	226,402	0.2
녹지지역	소계	68,129,134	56.3
	보존녹지지역	1,084,666	0.9
	생산녹지지역	8,182,234	6.8
	자연녹지지역	58,862,234	48.6

수도권규제정책과 높은 공업용지 가격 그리고 포화상태인 공업용지 등의 요인으로 기존 수원 지역의 중소기업·영세기업과 함께 신규 설립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용지 확보와 기업 설립이 용이한 수원시 인근 지역(화성, 용인, 평택, 충청권 등)으로 이전하고 있다.

¹⁰ 수원시 홈페이지, 도시계획과, 2011년 12월 31일 기준.

그렇지만 수원시의 중심지기능에 의해 인근 지역으로 이전한 기업들과 수원시의 사업연계는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3) 산업대분류별 사업체와 종사자수 현황

2010년 기준 수원시의 산업대분류별 사업체수는 5만 7,844개소이며, 종사자수는 34만 2,752명이다. 산업대분류별로는 <표 6>에서와 같이 도매 및 소매업체가 23.7%로 가장 많

<표 6> 수원시 산업대분류별 사업체 현황¹¹⁾

구분	사업체수(개소)				종사자수(명)			
	계	단독	공장, 지사	본사, 본점	계	단독	공장, 지사	본사, 본점
합계	57,844	54,698	2,642	504	342,752	223,426	95,031	24,295
농업, 임업 및 어업	9	5	4		253	27	226	
제조업	3,072	2,926	75	71	58,957	21,063	30,478	7,416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14	9	5		657	155	502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환경복원업	39	33	4	2	628	555	32	41
건설업	1,732	1,645	46	41	15,826	13,181	1,108	1,537
도매 및 소매업	13,703	12,932	672	99	44,563	34,842	8,571	1,150
운수업	5,537	5,439	77	21	17,428	11,482	3,455	2,491
숙박 및 음식점업	11,376	11,194	166	16	34,218	31,067	2,796	355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329	273	47	9	5,330	2,926	1,623	781
금융 및 보험업	713	126	552	35	12,950	1,009	11,066	875
부동산업 및 임대업	3,042	2,857	153	32	10,440	7,742	1,957	741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681	1,360	247	74	26,354	11,676	13,435	1,243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886	701	142	43	20,869	13,731	4,862	2,276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행정	120	118	1	1	13,920	13,707	34	179
교육서비스업	3,724	3,524	183	17	33,887	24,495	6,387	3,005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2,337	2,257	62	18	22,608	15,181	6,414	1,0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2,218	2,189	23	6	5,798	5,014	398	386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7,312	7,110	183	19	18,066	15,573	1,687	806

11 수원시, 『사업체조사보고서』, 정보통신과, 2011. 발행회사법인 사업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으며, 다음으로 숙박 및 음식점업체 19.7%,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체 12.6% 그리고 운수업체 9.6%, 교육서비스업체 6.4%, 제조업체 5.3%, 부동산 및 임대업 5.3% 순이다.

전체 사업체 중 도소매업(1만 3,703개소)와 숙박 및 음식점업(1만 1,376개소), 그리고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7,312개소) 등 3개 업종의 사업체가 전체 산업의 56%를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종사자수를 기준으로 본다면 제조업이 17.2%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는 도매 및 소매업 13%, 숙박 및 음식점업 10%, 교육서비스업 9.9%,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7%,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6.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6.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5.3% 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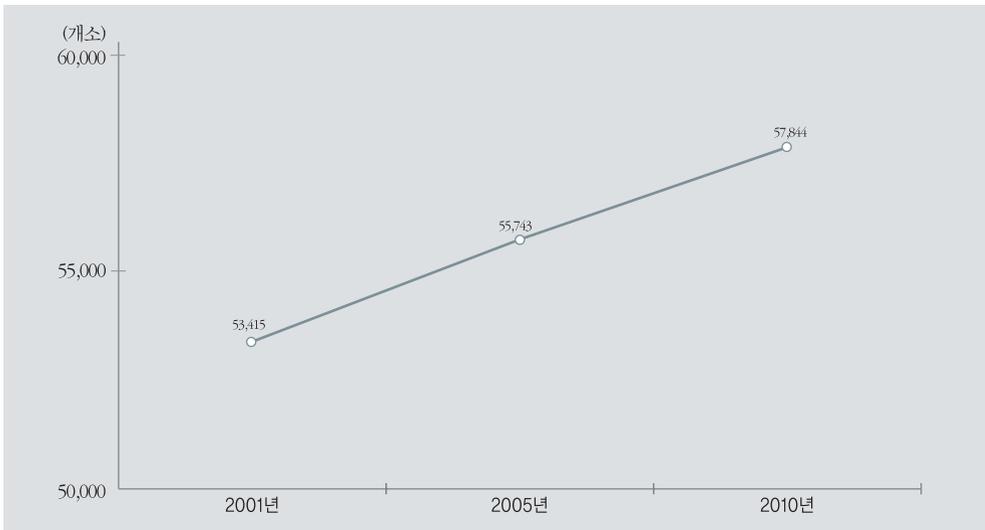
4) 사업체와 종사자수의 변화

수원시의 사업체수의 변화는 <표 7>과 <그림 6>, <그림 7>에서 알 수 있듯이 2004년과 2005년 그리고 2008년에 전년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종사자수 측면에서는 2005년 -1.4%의 감소가 나타났을 뿐이다. 즉, 전년 대비 2005년 종사자수의 감소가 높게 나타나고 있었지만, 이를 기점으로 이후에는 지속적인 증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종사자수의 변화를 5년 단위로 구분하여 증가율을 계산하여 보면, <표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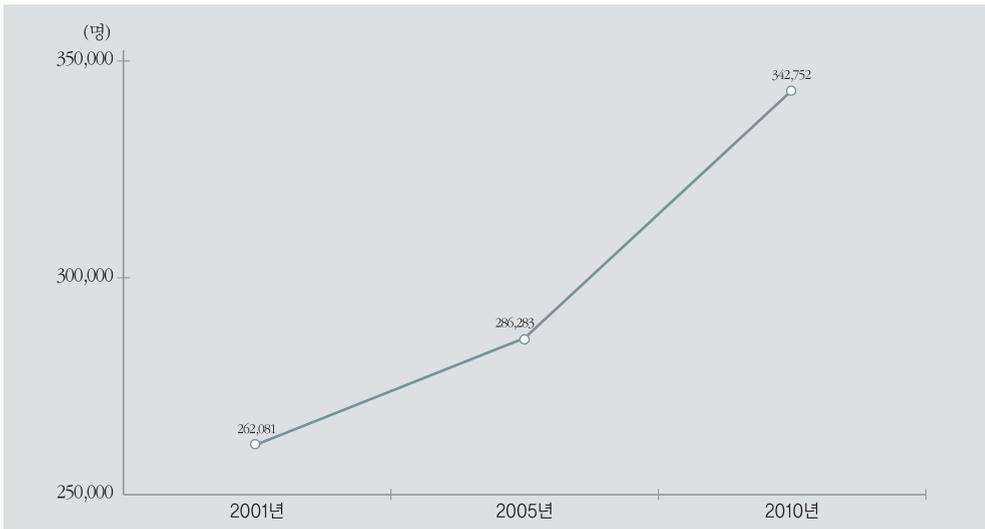
<표 7> 연도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현황¹²

연도	사업체수(개소)	증감률(%)	종사자수(명)	증감률(%)
2001	53,415	34	262,081	9.3
2002	55,995	4.8	285,569	9.0
2003	56,810	1.5	287,140	0.6
2004	56,408	-0.7	290,409	1.1
2005	55,743	-1.2	286,283	-1.4
2006	55,854	0.2	291,973	2.0
2007	56,704	1.5	302,374	3.6
2008	56,267	-0.8	313,590	3.7
2009	56,463	0.3	327,096	4.3
2010	57,844	2.4	342,752	4.7

¹² 수원시, 『2010년 기준 사업체조사보고서』, 2011.



(그림 6) 수원시 사업체수 변화¹³



(그림 7) 수원시 사업체 종사자수 변화¹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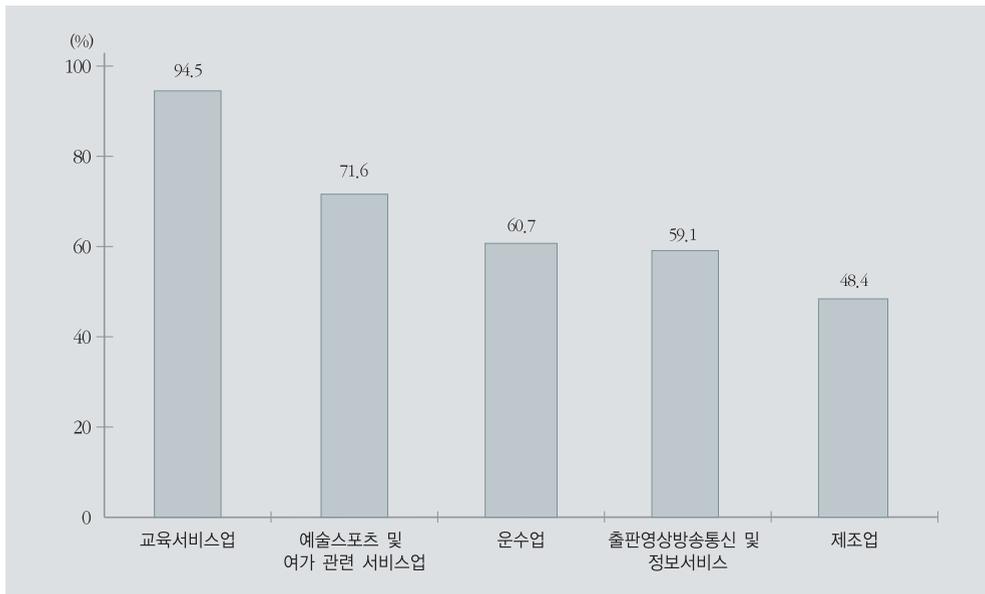
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이 2001년과 2005년 사이에는 8.5%가 증가하였고, 2005년과 2010년 사이에는 16.4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3 수원시, 『2010년 기준 사업체조사보고서』, 2011.

14 수원시, 『2010년 기준 사업체조사보고서』, 2011.

5) 산업부문별 종사자수의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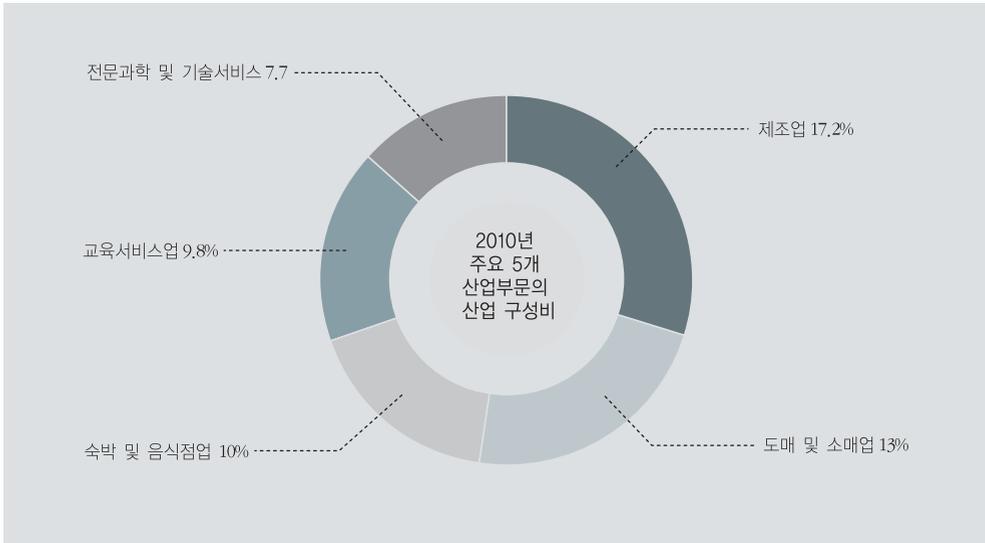
최근 연도(2007~2010년) 기준의 산업부문 순위별 종사자수 증가율은 <그림 8>에서와 같이 교육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산업서비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제조업 등의 순으로 증가하였다. 종사자수의 증가를 기준으로 본다면, 제조업이 1만 9,233명, 교육서비스업 1만 6,466명, 도매 및 소매업 1만 4,182명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8> 2007~2010년 산업부문 순위(1~5위)별 종사자수 증가율¹⁵

그리고 2010년 12월 31일 기준의 수원시 사업체 종사자수의 구성 비율을 기준으로 주요 산업부문별 가장 많은 구성비를 차지하고 있는 5개 부문은 <그림 9>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이, 제조업 17.2%, 도매 및 소매업 13%, 숙박 및 음식점업 10%, 교육서비스업 9.8%,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7% 순으로 5개 부문이 전체 산업부문의 2분의 1이 넘는 57.7%를 차지하고 있다.

¹⁵ 조현수 외, 『수원시 르네상스 고용정책 기본계획』, 수원시, 2012; 통계로 보는 수원(<http://stat.suwon.go.kr>).



(그림 9) 2010년 주요 5개 산업부문의 산업 구성비

6) 수원시 산업 집중도

경기개발연구원이 전국 대비 산업별 종사자수 및 생산액이 1% 이상이면서 입지계수가 1.2 이상인 지역을 해당 산업의 집적지로 식별, 수원시의 산업 집중도를 파악한 결과에 의하면, 수원시에 집중된 산업은 4개 업종에 불과하다. 또한 성남시, 부천시, 용인시에 비해 산업 집중도가 높은 산업이 미미하며, 대기업 입지에 의한 제조업 중심지의 대외적인 이미지와는 달리 일부 업종만 제외하고는 타 산업의 존재는 미미한 실정이다. 입지계수만을 고려할 경우, 입지계수가 큰 산업은 전자부품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업이 27.50이며, 입지계수가 1 이상인 제조업도 10개 업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당 부가가치액의 수준으로 평가한 제조업 생산성에서도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이다.

지식기반서비스업은 대도시 지향 특성을 지닌 산업이므로 서울 근접 대도시를 중심으로 편중 발달하는 경향이 있는데, 수원시의 발달규모 우세부문은 금융·보험, 연구개발·엔지니어링, 법률·회계, 마케팅·경영컨설팅, 광고·디자인·컨벤션 부문이며, 성장 추세 우세부문은 문화콘텐츠 제작부문이다. 수원시는 성장 추세가 전반적으로 취약하고, 인접 용인시는 발달상태가 전반적으로 취약하다는 점에서 새로운 업종의 발굴 육성이 필요한 것이다.

〈표 8〉 경기 남부권역 제조업 집중도¹⁶

구분	수원		성남		부천		안양		용인		광명	
	생산액	종사자										
음식료품	0.27	0.60	1.27	2.13	0.55	0.72	1.14	0.66	1.42	1.23	0.01	0.05
섬유제품	0.09	0.16	0.65	1.04	0.55	0.69	0.21	0.39	0.58	0.79	0.03	0.06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0.04	0.11	1.66	1.66	0.35	0.91	1.82	1.63	0.00	0.00	0.29	0.52
가죽가방 및 신발	0.00	0.00	4.38	6.02	2.54	1.12	0.90	0.60	1.28	0.77	0.00	0.00
목재 및 나무제품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81	1.07	0.05	0.13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0.11	0.21	0.06	0.11	0.36	0.58	0.66	0.76	2.46	3.40	0.03	0.10
출판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0.57	1.19	1.24	1.40	0.61	1.06	0.55	0.79	0.33	0.39	0.02	0.08
코크스 석유 정제품 핵연료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화합물 및 화학제품	0.47	0.80	0.14	0.50	0.44	1.42	0.52	1.10	2.25	2.42	0.01	0.06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1.61	1.02	0.26	0.30	3.32	4.76	0.42	0.64	1.63	1.87	0.08	0.16
비금속광물제품	0.88	0.34	0.10	0.12	0.81	0.69	0.64	0.49	1.22	1.01	0.06	0.03
제1차 금속산업	0.00	0.00	0.00	0.04	0.15	0.44	1.61	0.82	0.06	0.25	0.02	0.06
조립금속제품	0.18	0.88	0.18	0.24	1.82	2.82	0.29	0.38	0.81	0.76	0.10	0.14
기타기계 및 장비	0.28	0.70	0.51	0.68	1.59	2.82	0.67	0.94	0.93	1.01	0.15	0.30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1.60	2.42	1.97	2.41	0.73	1.77	2.11	3.70	0.94	1.05	0.00	0.00
기타전기기계, 전기변환장치	0.88	1.80	1.04	1.61	3.36	4.89	2.62	3.54	1.90	2.11	0.24	0.49
전자부품 영상 음향 통신장비	3.15	9.00	2.23	2.52	1.08	2.20	0.80	1.33	7.34	6.19	0.02	0.09
의료 정밀 광학기기 시계	1.18	1.72	4.40	4.31	3.14	4.04	3.18	3.26	2.62	2.41	0.20	0.25
자동차 및 트레일러	0.02	0.07	0.01	0.04	0.03	0.12	0.05	0.16	0.14	0.26	3.65	2.44
기타 운송장비	0.00	0.00	0.00	0.00	0.01	0.02	0.00	0.00	0.04	0.07	0.00	0.00
가구 및 기타	0.16	0.27	0.63	1.19	0.99	1.45	0.58	0.70	2.64	2.15	0.09	0.18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0.98	0.69	0.00	0.00	0.00	0.00	0.00	0.00	0.59	1.03	0.00	0.00

16 이상훈 외, 「산업입지 공급정책 발전방안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2010 재인용.

7) 수원시 구별 사업체와 종사자수 현황

수원시의 구별 사업체수는 <표 9>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이 팔달구가 1만 6,296개 (28.2%)로 가장 많았으며, 권선구 1만 5,512개(26.8%), 장안구 1만 4,116개(24.4%), 영통구가 1만 1,920개(20.6%) 순으로 나타났으며, 사업체수 증감내용(2009년 대비)을 구별로 보

<표 9> 2010년 수원시 구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¹⁷

구분	사업체수(개소)					종사자수(명)				
	수원시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수원시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합계	57,844	14,116	15,512	16,296	11,920	342,752	64,533	72,880	85,219	120,120
농업·임업 및 어업	9	3	4		2	253	195	45		13
광업										
제조업	3,072	455	996	763	858	58,957	3,711	7,515	2,074	45,657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14	6	2	2	4	657	182	142	254	79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활환경복원업	39	5	23	3	8	628	27	358	74	169
건설업	1,732	436	596	439	261	15,826	3,354	5,476	4,018	2,978
도매 및 소매업	13,703	2,900	4,123	4,453	2,227	44,563	9,299	12,857	13,498	8,909
운수업	5,537	2,031	1,591	964	951	17,428	4,455	6,957	3,218	2,798
숙박 및 음식점업	11,376	2,858	2,618	3,624	2,276	34,218	7,718	7,007	12,054	7,439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329	52	50	89	138	5,330	1,335	917	1,069	2,009
금융 및 보험업	713	109	123	390	91	12,950	1,714	1,339	8,795	1,102
부동산업 및 임대업	3,042	731	786	783	742	10,440	2,238	2,542	3,042	2,618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681	212	264	434	771	26,354	2,538	4,963	2,685	16,167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886	145	209	394	138	20,869	3,483	4,737	9,158	3,491
공공행정국방사회 보장행정	120	29	30	35	26	13,920	4,294	1,611	5,360	2,655
교육서비스업	3,724	1,047	860	720	1,097	33,887	9,632	5,974	6,310	11,971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2,337	615	564	552	606	22,608	4,734	4,597	6,597	6,680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2,218	607	596	583	432	5,798	1,397	1,320	1,889	1,192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7,312	1,875	2,077	2,068	1,292	18,066	4,226	4,523	5,124	4,193

17 수원시, 『제51회 수원기본통계(2010년 기준)』, 2011.



(그림 10) 수원시 산업단지 입지 현황

면 장안구(5.9%), 팔달구(1.8%), 영통구(4.6%)는 증가하였고, 권선구(-1.4%)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2010년 12월 말 현재 구별 종사자수는 영통구가 35%로 가장 많았으며, 장안구가 19%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사업체수의 입지 측면에서 권선구, 영통구, 팔달구, 장안구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종사자수를 기준으로 본다면 삼성전자가 입지해 있는 영통구에 수원시 전체 제조업의 77.4%를 차지하고 있어 수원시 제조업이 영통구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의 지역들에도 제조업체수는 많이 입지하여 있으나 종사자수를 고려한다면 대부분이 중소기업체들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영통구를 제외한 다른 구들은 주거도시의 기능적 이미지가 강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업, 운수업, 교육서비스업의 비중이 다른 사업체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3. 수원시의 발전방향

1) 수원시의 성장 잠재력

수원시의 경제규모는 경기도에서 화성시와 안산시 다음으로 크고, 높은 재정자립도 및 기업지원업종과 정보통신업종의 높은 특화산업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은 수원시의 높은 성장 잠재력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다.

특히, 수원시에는 전국 연구소의 약 4분의 1, 국공립시험연구기관의 40%가 집중되어 있으며, 자동차기업의 핵심연구소가 입지(화성의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의 자동차 애플리케이션 기반과 평택의 LG생산기술연구원,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의 무선통신 연구기반 구축)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 최고 수준의 연구 인력 및 대학,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6개 187학과 대학 및 대학교, 20개 234학과 대학원이 소재하고 있다.

수원시는 수도권 지식기반산업축의 중심도시로, 이곳에 입지해 있는 지식기반산업의 연관기업들은 다양한 분야의 축적된 IT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신소재, 바이오, New IT(반도체, 디스플레이, 차세대 무선통신, LED 조명, RFID/USN), 융합신산업 등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한 기초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다. 또한 여기에 경기도청이 소재하고 있어 행정 및 공공서비스 등의 시설지원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점은 수원시의 높은 성장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수원시는 첨단 제조업과 응용과학이 발달할 수 있는 인적, 물적 기반이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고, 포괄적 기술영역인 디지털 방송을 위한 기반기술, 융합기술, 혁신 클러스터가 구축된 총체적 역량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바이오산업에 강한 생명화학의 기초 연구개발 시설 및 정밀기계, 나노 등 융합기반이 강하다는 점은 미래지향적 성장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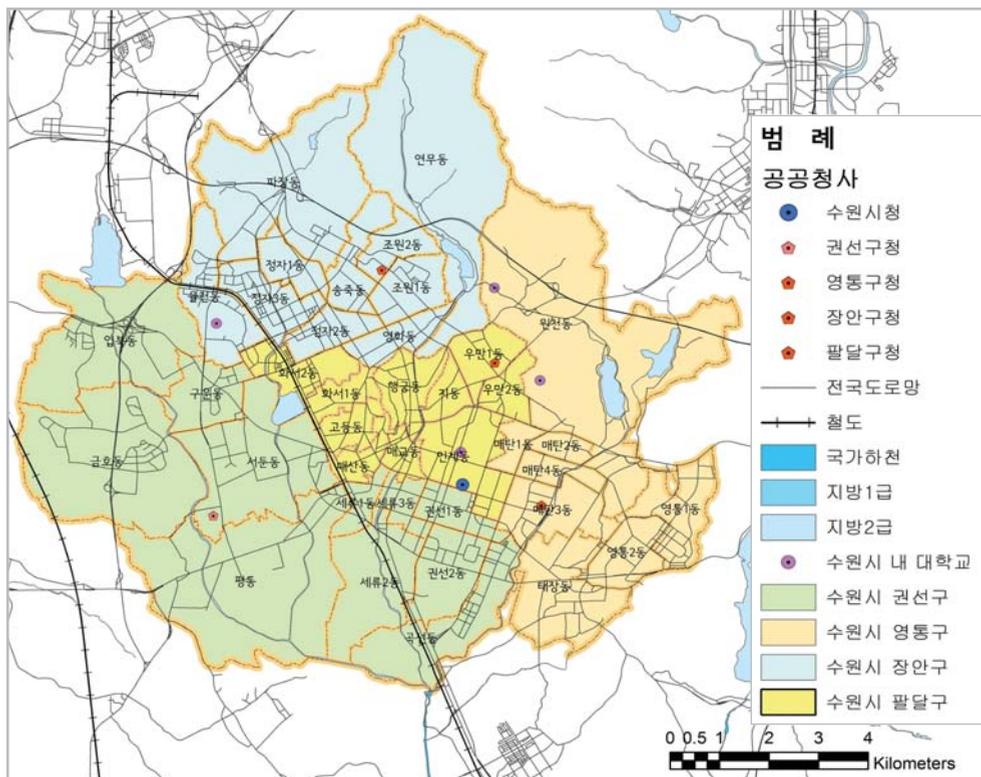
〈그림 11〉 2003년 나노 소자 특화 펩센터 개소

수원시의 특화산업기술로는 연구개발, 과학기술서비스가 있으며, 이와 연관되어 성균관대학교는 IT와 BT, 아주대학교는 BT, 경기대학교는 ET 분야의 특화산업연구의 중심이 되어 있다. 그리고 광교 지역의 광교테크노밸리를 거점으로 한 주요 산업단지는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커다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표 10>에 는 수원시 소재 대학들의 현황이 나타나 있다.

<표 10> 수원시 대학교 현황¹⁸

(2011년 4월 1일 현재, 단위: 개, 명)

구분	소재지	단과대학수	학과수	학생수	교원수
합계		29	166	43,132	1,742
성균관대학교 자연캠퍼스	장안구 천천동 300	7	23	8,413	853
국제디지털대학교	팔달구 인계동 950-12		25	2,120	14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	영통구 이의동 산94-6	12	103	17,756	354
아주대학교	영통구 원천동 산5	10	15	14,843	521



<그림 12> 수원시 대학교 현황

18 통계로 보는 수원(<http://stat.suwon.go.kr>).

2) 수원시의 경쟁력 분석(SWOT 분석)

수원시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수원시가 처해 있는 현재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SWOT 분석을 이용하기로 한다. 이 분석을 통하여 수원시 내부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수원시 외부의 기회요인과 위기적인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수원시가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 방향을 설정하여야 할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 SWOT 분석결과와 <그림 13>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다.

내부적 요인	
강점(Strengths)	약점(Weakness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은 인구나 재정자립도 • 경기 최고 수준의 연구인력 보유 • 지식기반산업의 특화도가 높음. • 중심지기능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 GRDP 중 수원의 위상이 점차 감소 • 수원 경제성장률 저하 • 생산가능 인구의 불안정성 • 특화된 산업부재 및 산업구조 혼재 • 전통 제조업 비중 낮음.
기회(Opportunities)	위기(Threa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의 본격적인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지원 예상 • 규제완화 및 기업육성책 추진 전망 • 수원시의 광역도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 인접 도시의 비약적 성장 • 신성장동력산업에 인근 도시 강제 업종 포함 • 지역기반제조업 위축 • 지역기업의 해외이전 • 세계경제 침체로 지역경제 침체 강화
외부적 요인	

(그림 13) 수원시 SWOT 분석

강점요인은 도내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어 노동인력시장의 지역적 유입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수원시 인구는 2002년 100만 명을 넘어선 이후 지속적인 증가를 보여 왔으며, 2012년 5월 말 기준으로 외국인을 포함하여 113만 7,252명이다. 그리고 인구 성장과 함께 수원시는 주변 도시에 비하여 금융·보험, 연구개발·엔지니어링, 법률·회계, 마케팅·경영컨설팅, 광고·디자인·컨벤션 등의 중심지기능이 빠르게 형성되어 가고 있다.

다음으로 산업대분류를 기준으로 입지계수¹⁹를 주변 도시와 비교해 볼 때 전국과 경기도 기준 모두 기업지원업종인 사업서비스업이 가장 특화된 산업으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정

19 입지계수가 1.0 이상인 지역을 해당산업이 특화되어 있다고 판단하였다.

보통신분야인 전자부품·영상·음향·통신장비(27.50),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7.40),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5.51),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5.25) 등의 입지계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수원시에는 지식기반산업 전문인력이 집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약점요인은 수원시 지역내총생산(GRDP) 규모가 <표 11>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이 2006년도에는 가장 높았지만, 2008년에는 용인시와 화성시에 뒤처지게 되었다. 이후 2009년에 용인시 다음으로 지역내총생산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화성시와 비슷한 수준에 있으며, 평택시의 성장 추세도 상당하여 경기도 내 수원시의 입지가 약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표 11> 경기도와 수원시 그리고 일부 시 지역내총생산 비교²⁰

(단위 : 백만원)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경기도	169,315,085	180,851,966	193,657,734	198,948,412	208,296,101
수원시	13,979,635	15,143,515	16,238,814	16,665,087	17,488,174
용인시	20,088,414	12,906,999	15,575,060	18,020,780	19,171,974
화성시	8,571,137	15,104,078	17,500,741	17,258,744	17,036,530
평택시	7,789,186	12,338,552	13,603,261	14,240,505	16,664,611
성남시	10,864,554	11,881,037	12,296,138	14,468,780	14,910,294
안산시	13,183,651	13,643,910	14,709,859	14,800,917	14,199,178

기회요인으로는 신성장동력산업 관련 부문의 각종 규제와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수도권규제법에 대한 완화를 일부 허가하고 있다. 그리고 수원시의 광역도시화 추진 분위기에 따른 주변 지역들과의 연계적 산업규모 확대 등은 수원시 광역경제권 형성과 규모의 경제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위기요인은 지역내총생산에 있어 수원 인근 도시의 비약적 성장을 들 수 있다. 수원시는 일부 제조업부문에서 입지계수가 높아 일부 제조업부문이 특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표 8>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이 제조업 집중도를 보면 주변의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안양시 등의 제조업부문은 수원시가 특화되어 있는 부문을 포함하여 더 많은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더욱 경쟁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주변 도시들의 강세로 나타나고 있는 산업부문에는 신성장동력산업 관련 산업들이 포함되어 있어, 더욱 주변 도시와의 경쟁적 관계에 놓이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

20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시군단위 지역내총생산(2005년 기준년가격).

결과 수원시 제조업의 주변 지역 이전 내지는 국외 이전 등 경쟁력 약화 요인이 연결되어 지역기반이었던 제조업의 위축 속도가 가속화될 수 있다.

3) 수원시의 발전방향²¹

(1) 지역경제의 서비스화와 지식서비스산업 육성

최근 산업 발전 모습을 보면 서비스업과 지식서비스 산업의 비중 증가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경기도의 산업구조 변화 전망에서도 나타나고 있듯이 제조업의 비중 감소와 서비스업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며, 이에 따른 서비스화의 진전으로 2020년에는 제조업 32.08%, 서비스업 67.21%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08년 9월 지식경제부는 <표 12>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이 신성장동력과 관련하여 성공가능성(우리 기술역량, 민간 투자의지, 소요기간 등)과 파급효과(시장규모, 일자리, 수출, 관련 산업 동반성장 등), 경제사회적 문제해결 측면을 고려한 6대 분야 22개 신성장동력을 발굴하여 발표하였으며, 지속적인 신성장동력 발굴과 지원을 계속해 오고 있다.

수원시는 이에 동반하여 일자리창출과 파급효과를 고려한 지식서비스산업(소프트웨어, 디자인, 헬스 케어, 문화콘텐츠)의 지속적이면서 체계적인 육성이 필요하며, 고부가가치 부분인 연구개발, IT 서비스, 콘텐츠 산업 진흥에 주력, 지식서비스산업의 핵심인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도 더욱 절실하다.

특히 수원시에는 지식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최고의 기업과 연구개발의 전문인력이 집적되어 있어, 이를 바탕으로 한 집중적인 관련 분야별 인력양성과 기술의 집적과 융합시스템을 구축해 나간다면 수원시의 지역경제는 활성화될 것이다. <표 12>와 <표 13>에는 신성장동력 분야와 발전전



<그림 14>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 콘텐츠 융합 소프트웨어 연구센터 개소식
콘텐츠 융합 소프트웨어 연구센터는 경기도·수원시·참여기업·경기대학교의 지원을 받아,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콘텐츠와 유비쿼터스 환경의 융합을 위한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의 연구개발과 지원을 목적으로 경기대학교 내에 설립되었다.

21 지우석 외, 『수원지역연구』, 경기개발연구원, 2011을 일부 수정하여 작성하였다.

략 그리고 <표 14>에는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가 나타나 있다.

<표 12> 신성장동력의 6대 분야 및 22개 신성장동력²²

6대 분야		22개 신성장동력
에너지·환경	6	무공해 석탄 에너지, 해양 바이오 연료, 태양전지, 이산화탄소 흡수 및 자원화,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원전 플랜트
수송시스템	2	그린캐(Green Car), 선박·해양 시스템
New IT	5	반도체, 디스플레이, 차세대 무선통신, LED 조명, RFID/USN
융합신산업	4	로봇, 신소재·나노융합, IT융합 시스템, 방송·통신 융합미디어
바이오	1	바이오 신약 및 의료기기
지식서비스	4	소프트웨어, 디자인, 헬스케어(Healthcare), 문화 콘텐츠

<표 13> 신성장동력의 6대 분야 및 22개 신성장동력 단계별 발전전략²³

단기(5년 이내 성장동력화)	중기(5~10년 이내 성장동력화)	장기(10년 이후 성장동력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통신 융합미디어 · 문화 콘텐츠 · 디자인 · 소프트웨어 · 반도체 · IT융합 · 선박·해양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세대 무선통신 ·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 LED 조명 · 태양전지 · RFID/USN · 원전 플랜트 · 디스플레이 · 헬스케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₂ 흡수 및 자원화 · 바이오 신약 및 의료기기 · 신소재·나노융합 · 로봇 · 해양 바이오 연료 · 무공해 석탄 에너지 · 그린카
실용화 기술개발 및 투자환경 조성	핵심기술 선점 및 시장창출	원천기술 확보 및 인력양성

<표 14>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²⁴

구분	시군	특화산업 및 기술	혁신클러스터(거점)		주요 산업단지
			대학(특화분야)	거점·단지	
연구 개발	수원 용인	연구개발, 과학기술 서비스, 바이오의약/나노소재, 전시 및 컨벤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균관대(IT, NT) · 아주대(BT) · 경기대(ET) 	· 광교테크노밸리	고색
지식 기반 서비스	성남 용인	성남(IT, 서비스, 반도체설계, 소프트웨어, 문화콘텐츠, 섬유 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원대(S/W, 신소재) · 경희대(영상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교테크노밸리 · 기흥벤처밸리 · KINS 타워 	성남
	안양 부천 군포 과천	부천(만화 영상, 로봇, 금형, 조명), 안양(소프트웨어, 정밀기기, 정보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양과학대(정밀기기) · 유한대(금형, 금속) · 한세대(정보통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양 K센터 · 부천테크노파크 · 과천지식정보타운 	부곡

22 신성장동력기획단, 「신성장동력 비전과 발전전략」, 지식경제부, 2008, 3쪽.

23 신성장동력기획단, 「신성장동력 비전과 발전전략」, 지식경제부, 2008, 4쪽.

24 지우석 외, 「수원지역연구」, 경기개발연구원, 2011, 38쪽 재인용.



(그림 15) 광교테크노밸리(광교테크노밸리 제공) 경기바이오센터, 나노 특화 캠퍼스, 융합기술원, 경기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가 들어서 있다.

(2) 수도권 남부 지역 연구개발클러스터 조성

수원의 광교테크노밸리는 연구개발 기능이 탁월하며, 지식기반 서비스 부문의 비중이 높은 지역이다.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수원시의 IT를 포함한 첨단산업부문에서 거점역할을 하고 있는 기존 대학과 연구센터의 혁신 클러스터화를 추진하고, 기존 혁신거점(대학 및 연구소)과 지역특화전략산업의 연계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동시에 수원시 북부에 새롭게 입지하여 조성되고 있는 관교테크노밸리와 연계된 연구 및 개발의 클러스터가 조성된다면, 수원시의 지식서비스산업의 발전은 더욱 배가될 것이다.

이와 함께 용인, 안양, 성남 그리고 부천과 군포, 과천 등의 지식기반산업들과의 연계를 통하여 연구개발된 지식을 고부가가치 상품화로 연결해 중추적인 거점지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수원시는 수도권 남부의 최대 지식서비스산업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수원시는 기존산업에 NT, BT, IT 등의 신기술을 접목하여 고부가가치화의 추구가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로봇, 신소재 및 나노융합, 바이오신약 및 의료기기, IT 융합시스템, 방송통신 융합미디어 등의 성장에 주력하여야 한다.

지식기반서비스산업은 전 산업에서 성장률이 높은 산업이며, 지식기반제조업은 해당



(그림 16) 고색동에 위치한 첨단벤처밸리

지역의 지역내총생산을 지속시킬 수 있는 기반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 유지기능에 커다란 역할을 한다. 그렇지만, 이와 관련해 한 축을 이루는 소프트웨어산업은 서울과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으며, 기업체수 기준으로는 서울 71%, 경기도 11%(전체 6,263개), 종사자수 기준으로는 서울 83%, 경기도 7%(전체 12만 4,269명)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수원시는 공공청사 이전에 따른 이전적지에 대한 활용을 지식기반 연구개발단지로 유도하여 광역 R&D벨트를 조성하고, 공공 R&D기능, 모바일기기 및 IT 융합기계 부문에 특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여기에 경기도청 소재지로서의 장점을 활용하여 기존 성남시 분당 지역에 입지해 있는 삼성SDS, 포스데이터, SK C&C, NHN 등 기업과 함께 판교 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산업 및 관련 기업들과의 연계를 추진하여야 한다.

(3) 지식기반서비스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수원시는 지식기반서비스산업 분야의 전문인력 확보 및 양성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이다. 지식기반서비스산업 분야의 전문인력은 실무경험을 겸비한 고급인력으로 단순개발에서 시작하여 어느 정도 분석, 설계가 가능하고 고객에게 사업적 컨설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동안 지식기반서비스산업의 인력 양성은 초급 수준의 기능인력 양성과 대학의 연구 기반시설을 이용한 중급 정도의 전문인력 양성이 이루어져 왔으나, 이제는 지식기반서비스산업의 빠른 성장과 높은 수준의 전문인력 요구에 따라서 기존의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개편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해당 분야의 양적인 측면에서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수원시는 신속하게 지식기반서비스산업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수원시는 교육과정의 산학 간 효율적 연계부족으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이 필요한 고급인력 양성을 위하여 지역 내 대학과 기업 간의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중간연

계기능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동시에 관련 기업들이 수원시 지역으로 입지해 올 수 있도록 최적의 입지여건 조성도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경기도 내 지식기반서비스업 분야 중 성장률 측면에서 본다면 마케팅·경영컨설팅 분야 다음으로 소프트웨어/IT서비스업의 성장률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입지여건의 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광역시 형성과 중심지기능 향상

수원시는 인구 100만이 넘는 광역시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경기도의 도청 소재지이므로 이에 맞는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여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수원시가 경기도 지역을 대상으로 한 행정기능은 충분히 다하고 있지만, 그 이외의 경기도 지역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재화에 대한 공급기능과 서비스기능은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요인으로 첫째는 경기도 지역이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경기 남부 지역과 경기 북부 지역으로 양분되어 있는 지리적인 요인을 들 수 있다. 둘째는 수원시 이외의 경기도 내 다른 도시들의 행정·공급·서비스 기능과 수원시의 기능이 중복적이며, 그 기능의 크기 또한 수원시가 우월하다고 보기 힘들다는 점이다. 셋째는 수원시가 경기도 내 중심지기능을 다하기에는 그 규모나 경쟁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원시가 경기도청 소재지로서, 그리고 경기 남부권의 중심도시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주변 지역과의 통합을 통해 토지면적을 넓혀야 하며, 주변 도시들과의 중복적인 도시기능과 역할을 체계화하는 광역도시권의 도시체계를 형성시켜야 할 것이다. 광역권 도시체계 형성은 광역권의 행정 및 재정적인 효율성 제고와 기업 및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부문에서의 수요와 공급의 서비스기능을 원활하게 해 줄 것이다.

제1부 장시와 상업의 발달

제1장 수원의 장시체계 변화

- 『반계수록보유(磻溪隨錄補遺)』.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
 『원행을묘정리의궤(園幸乙卯整理儀軌)』.
 『화성성역의궤(華城城役儀軌)』.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
 『천일록(千一錄)』.
 『화성일기(華城日記)』.
 『수원부읍지(水原府邑誌)』, 1792.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185책.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화성지(華城誌)』 1831.
 『수원부읍지(水原府邑誌)』(『기전영지(畿甸營誌)』中 1894).
 『기전읍지(畿甸邑誌)』, 1894.
 도지부사세국(度支部司稅局), 『한국각부군시장상황조사서(韓國各府郡市場狀況調查書)』, 1909.
 조선총독부 농상공부수산물국, 『한국수산지(韓國水産誌)』, 1910.
 조선총독부 철도국, 『조선철도연선시장일반(朝鮮鐵道沿線市場一斑)』, 1912.
 『신구대조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新舊對照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 1917.
 조선총독부, 『朝鮮人の商業』, 1923.
 조선총독부, 『朝鮮の市場』, 1924.
 조선총독부, 『市街地の商圈』, 1926.
 善生永助, 『朝鮮の市場經濟』, 1929.
 조선총독부, 『조선하천조사서』, 1929.
 「朝鮮に於ける市場取引の現況」, 『조선경제잡지』 165, 경성상공회의소, 1929.
 「朝鮮に於ける市場取引の現況」, 『경제월보』 275, 1938년 12월.
 「朝鮮に於ける市場取引の現況」, 『경제월보』 276, 1939년 1월.
 조선총독부, 『生活狀態調査(其一) 水原郡』, 조사자료 28집, 1929.
 中村資良,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 1931~1937, 동아경제시보사.
 문정창, 『朝鮮の市場』, 일본평론사, 1941.

佐伯敬二郎, 『수원상공인명부』, 수원상공회의소, 1942.
 수원시, 『수원시세일람』, 1958.
 김성훈, 『한국농촌시장의 제도와 기능연구』, 국립농업경제연구소, 1977.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경기도편 상·하), 1985.
 수원상의사편찬위원회, 『수원상의사』, 수원상공회의소, 1986.
 이창식, 「조선시대 이후의 수원시장(水原市場)」, 『기전문화』 제1집, 기전향토문화연구회, 1986.
 최영준, 「남한강 수운(水運) 연구」, 『지리학』 32, 대한지리학회, 1987.
 김호준, 「화성의 도시공간구성과 상가배치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김종혁, 「조선 후기 한강유역의 교통로와 장시」, 고려대학교 지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2.

제2장 일제하 수원의 상업과 상권 변화

『수원부읍지(水原府邑誌)』, 1792.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185책.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화성지(華城誌)』 1831.
 『수원부읍지(水原府邑誌)』(『기전영지(畿甸營誌)』, 1894).
 『기전읍지(畿甸邑誌)』, 1894.
 도지부사세국(度支部司稅局), 『한국각부군시장상황조사서(韓國各府郡市場狀況調查書)』, 1909.
 조선총독부 농상공부수산국, 『한국수산지(韓國水産誌)』, 1910.
 조선총독부 철도국, 『조선철도연선시장일반(朝鮮鐵道沿線市場一斑)』, 1912.
 『신구대조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新舊對照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 1917.
 조선총독부, 『朝鮮人の商業』, 1923.
 조선총독부, 『朝鮮の市場』, 1924.
 조선총독부, 『市街地の商圏』, 1926.
 善生永助, 『朝鮮の市場經濟』, 1929.
 조선총독부, 『조선하천조사서』, 1929.
 조선총독부, 『生活狀態調査(其一) 水原郡』, 조사자료 28집, 1929.
 「朝鮮に於ける市場取引の現況」, 『조선경제잡지』 165, 경성상공회의소, 1929.
 「朝鮮に於ける市場取引の現況」, 『경제월보』 275, 1938년 12월.
 「朝鮮に於ける市場取引の現況」, 『경제월보』 276, 1939년 1월.
 中村資良,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 동아경제시보사, 1931~1937.
 문정창, 『朝鮮の市場』, 일본평론사, 1941.
 佐伯敬二郎, 『수원상공인명부』, 수원상공회의소, 1942.
 수원시, 『수원시세일람』, 1958.
 김성훈, 『한국농촌시장의 제도와 기능연구』, 국립농업경제연구소, 1977.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경기도편 상·하), 1985.
 수원상의사편찬위원회, 『수원상의사』, 수원상공회의소, 1986.
 이창식, 「조선시대 이후의 수원시장(水原市場)」, 『기전문화』 제1집, 기전향토문화연구회, 1986.
 최영준, 「남한강 수운(水運) 연구」, 『지리학』 32, 대한지리학회, 1987.
 김호준, 「화성의 도시공간구성과 상가배치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김종혁, 「조선 후기 한강유역의 교통로와 장시」, 고려대학교 지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2.

제3장 수원 우시장의 성장과 변화

- 『화성성역의궤(華城城役儀軌)』.
 『화성지(華城誌)』 1831.
 善生永助, 『朝鮮の市場經濟』, 1929.
 수원시, 『수원시세일람』, 1958.
 김성훈, 『한국농촌시장의 제도와 기능연구』, 국립농업경제연구소, 1977.

제4장 해방 후 수원의 전통시장 변화

- 경기도사편찬위원회, 『경기도지』 중권, 1956.
 경제기획원, 「75년도 유통근대화 종합시책」(국가기록원 소장문서, 관리번호 BA0143095), 1975.
 남선녀, 「수원시 노점상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과,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문진성시 프로젝트) 2011년 사업설명회(2010년 10월 28일) 자료집」, 2010.
 수원시, 『수원도시계획사』, 1997.
 수원시, 『수원 도시변천사』, 2004.
 수원시, 『통계연보』, 각 연도.
 수원시사편찬위원회, 『수원시사』, 1984.
 수원시 공보과 편, 『시세일람』, 1956.
 이민권 · 김영기, 『전통시장 개념 재정립 연구』, 시장경영진흥원, 2010.
 조병찬, 『한국시장경제사』, 동국대학교 출판부, 1992.
 지역활성화센터, 『못골시장 이야기바구니』, 2010.
 최지운 · 김상범, 「영동시장과 수원」, 『수원학연구』 제7호, 수원학연구소, 2010.
 T. C. Bestor, “Markets: Anthropological Aspects”, Neil J. Smelser and Paul B. Baltes ed.,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 Behavioral Sciences*, Elsevier Ltd., 2001, pp. 9227~9231.

제2부 한말 · 일제하 경제의 변화와 특성

제1장 한말 · 일제 초기 영업정책과 수원 · 남양의 소금 생산

- 『조선왕조실록』, 『고종실록』, 『순종실록』, 『승정원일기』, 『통상휘찬(通商彙纂)』, 『재무주보(財務週報)』, 『관보』, 『대한매일신보』, 『시정연보』, 『황성신문』, 『동아일보』.
 농상공부 수산국, 『한국수산지』 1, 4, 1908.
 滿鐵調査課, 『關東州の鹽業 - 附 朝鮮の鹽業』, 1923.
 日本內閣 拓殖局, 『鹽 = 關スル調査』, 1911.
 朝鮮總督府, 『生活實態調査(其一) 水原郡』, 1929.
 朝鮮總督府 專賣局, 『鹽 = 關スル調査』, 1921.
 朝鮮總督府 專賣局, 『朝鮮專賣史』, 1936.
 朝鮮總督府 中樞院, 『近代日鮮關係の研究』, 民俗院, 1940.
 度支部, 『韓國稅計計劃案』, 1906.
 度支部 臨時財源調査局, 『韓國鹽業調査報告』 第1編, 1908.
 度支部 臨時財源調査局, 『韓國鹽務概況』, 1910.
 度支部 臨時財源調査局, 『韓國鹽務行政要領』, 1910.

- 統監府, 『韓國土地農産調査報告 - 京畿道, 江原道, 忠清道』, 1905.
- 韓國政府財政顧問部, 『韓國財政整理報告』, 1907.
- 韓國政府財政顧問本部, 『京畿道 水原郡 南陽郡 一部鹽業調査』, 財務週報 30호 부록, 1907.
- 강만길 외, 『한국 자본주의의 역사』, 역사비평사, 2000.
- 강만길 외, 『한국노동운동사』 ①, 지식마당, 2004.
- 강만길 외, 『식민통치 비교 자료집』, 선인, 2004.
- 고승제, 『근세한국산업사연구』, 대동문화사, 1959.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38-44, 국사편찬위원회, 2000.
- 권태억 외, 『한국 근대사회와 문화』 I,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 金光彦, 『韓國農器具攷』, 백산자료원, 1986.
- 김대준, 『고종시대의 국가재정 연구』, 태학사, 2004.
- 김용섭, 『한국근현대농업사연구』, 일조각, 1992.
- 김인호, 『식민지 조선경제의 종말』, 신서원, 2000.
- 김준보, 『한국근대경제사 특강』,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3.
- 마크 쿨란스키, 『소금』, 세종서적, 1992.
- 박명규 외, 『식민권력과 통제』,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 商工部, 『鹽白書』, 1964.
- 이영호, 『한국근대 지세제도와 농민운동』,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 전석담 외, 김인호 옮김, 『근대 조선경제의 진로』, 아세아문화사, 2000.
- 정태현, 『일제의 경제정책과 조선사회』, 역사비평사, 1996.
- 조성운, 『일제하 수원지역의 민족운동』, 국학자료원, 2003.
- 피에르 라즐로, 『소금의 문화사』, 가람기획, 2001.
- 하원호, 『한국근대경제사연구』, 신서원, 1997.
- 한국사편집위원회, 『한국사』 11~16, 한길사, 1994.
- 한국역사연구회, 『한국역사입문』 ③, 풀빛, 1996.
- 김호중, 「조선후기 염업사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 박성준, 「대한제국기 해세(海稅) 징수와 어염의 유통」,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 이 옥, 「조선후기 어염정책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2.
- 이윤상, 「1894~1910년 재정 제도와 운영의 변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 吉田敬市, 『朝鮮水産開發史』, 朝水會, 1954.
- 山口精, 『朝鮮産業誌』, 寶文館, 1910.
- 永原慶二 외, 「鹽業·漁業」, 『講座 日本技術の社會史』 第二卷, 日本論評社, 1985.
- 秋山高志 외, 『圖錄·山漁村生活史事典』, 柏書房, 1991.
- 酒井政之助, 『發展せる水原』, 1914.
- 酒井政之助, 『水原』, 1923.
- 권태억, 「1904~1910년 일제의 한국 침략구상과 '시정개선」, 『한국사론』 31,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94.
- 김승태, 「한말 캐나다장로회 선교사들의 선교활동과 일제와의 갈등, 1898~1910」, 『한국 기독교와 역사』 12호, 한국기독교연구소, 2000.
- 김의환, 「17·18세기 염세정책의 변동」, 『조선시대사학보』 6, 조선시대사학회, 1998.
- 김의환, 「조선후기 충청도의 소금생산과 생산방식」, 『조선시대사학보』 28, 조선시대사학회, 2004.
- 김일기, 「전오염 제조법에 관한 연구」, 『문화역사지리』 제3호, 1991.
- 김 준, 「소금과 국가 그리고 어민」, 『도서문화』 20,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2002.

- 나애자, 「개항기 유통구조연구의 현황」, 『역사와 현실』 3, 한국역사연구회, 1990.
- 박천우, 「한말 · 일제하의 지주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3.
- 박천우, 「일제하의 천석꾼 · 만석꾼들」, 『역사산책』, 1990년 9월, 범우사.
- 서굉일, 「한말의병전쟁과 수원지방」, 『한신논문집』 제13권, 한신대학교, 1996.
- 서영희, 「대한제국의 보호국화와 일제 통감부」, 『역사비평』 가을, 역사문제연구소, 2000.
- 유승훈, 「20세기 초 인천지역의 소금생산」, 『인천학연구』 3, 인천학연구원, 2004.
- 이동근, 「수원지역 3 · 1운동에서 천도교의 역할」, 『경기사학』 제7호, 2004.
- 이세영, 「19세기 전기 사회경제의 변동」, 『추사와 그의 시대』, 돌베개, 2002.
- 이영학, 「개항기 제염업에 대한 연구」, 『한국문화』 12, 서울대 인문학연구소, 1991.
- 이영학, 「대한제국의 경제정책」, 『역사와 현실』 26, 한국역사연구회, 1997.
- 이윤상, 「대한제국을 좌지우지한 외국인 고문들」, 『역사비평』 여름, 역사문제연구소, 1998.
- 통감부시기연구반, 「‘통감부시기’ 지방제도연구의 현황과 과제」, 『역사와 현실』 41, 2001.
- 한인수, 「우리나라 제염업의 전개과정 소고」, 『청과 노도양 박사 고회기념문집』, 명지대학교 출판부, 1979.
- 황하현, 「일제의 대한식민지 지배구조의 형성과정」, 『동양학』 제12집, 동양학연구소, 1982.
- 허영란, 「1910년대 경기남부지역 상품유통구조의 재편」, 『역사문제연구』 제2호, 역사문제연구소, 1997.
- 田中正敬, 「統監府の鹽業政策について」, 『一橋論叢』 115卷 2號, 1996.
- 田中正敬, 「朝鮮開港後の日本塩輸入とその影響-研究史整理を中心に」, 『日本鹽業の研究』 第26集, 日本鹽業研究會, 1998.
- 田中正敬, 「植民地期朝鮮の専売制度と塩業」, 『日本鹽業の研究』 第26集, 日本鹽業研會, 2000.

제4장 일제하 수원의 회사 현황과 성격

- 酒井政之助, 『水原』, 1923.
- 朝鮮總督府, 『調査資料 第28輯, 生活狀態調査(其一) 水原郡』, 1929.
- 朝鮮銀行 調査部, 『朝鮮經濟年報』, 1948.
- 수원상의사편찬위원회, 『水原商議史』, 수원상공회의소, 1986.
- 『水原市史』, 수원시사편찬위원회, 1986.
- 李昌植, 『수원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수원문화원, 2003.
- 수원상공회의소, 『水原商工會議所100年史』, 2008.

제5장 수원상공회의소의 설립과 변화

- 『(秘) 全鮮/內地人 實業家有志懇話會速記錄』,懇話會事務所, 1920.
- 酒井政之助, 『水原』, 1923.
- 田中麗水 編, 『全鮮商工會議所發達史』, 釜山日報社, 1936.
- 수원상공회의소, 『수원상공인명록』, 1942.
- 대한/서울상공회의소, 『상공회의소 구십년사(상)』, 1976.
- 대한상공회의소, 『상공회의소 백년사』, 1984.
- 수원상의사편찬위원회, 『수원상의사(水原商議史)』, 수원상공회의소, 1986.
- 수원시사편찬위원회, 『수원시사』, 1986.
- 전성현, 「일제초기 ‘조선상업회의소령’의 제정과 조선인 상업회의소의 해산」, 『한국사연구』 118집, 2002.
- 이창식, 『수원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수원문화원, 2003.
- 조재곤, 「일제강점 초기 상업기구의 식민지적 재편 과정-1910년대 상업회의소와 조선인 자본가-」, 『한국문화』 31집, 2003.

수원상공회의소, 『수원상공회의소 100년사』, 2008.
 전성현, 『일제시기 조선 상업회의소 연구』, 도서출판 선인, 2011.

제6장 일제하 수원의 공업 형성과 특성

『현대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신보』.
 경기도, 『소화 10년 잠업통계』, 1936.
 경기도, 『경기도도세개요』, 1936.
 경기도, 『상공수산통계』, 1930.
 국사편찬위원회 편, 『광업및제조업사업체명부』, 1959.
 조선총독부, 『생활상태조사-수원군』, 1929.
 조선은행조사부, 『조선경제연보』.
 식산은행조사부, 『식은조사월보』.
 「在日韓國人民族主義系團體一覽表(1933년 12월 말 현재)」, 『조선민족독립운동』 III.
 中村資良,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 東亞經濟時報社, 1937.
 경기도 경찰부장, 京高秘 제460호-2, 「수원실업협회 역원회 개최에 관한 건」, 1941년 3월 4일, 『思想에 關한 情報(14)』.
 일본경제제시보사, 『조선은행회사요록』, 1937 · 1939 · 1942.
 김인호, 「근대도시 수원의 산업적 변화와 특징」, 『수원역사문화연구』 창간호, 수원박물관, 2012.
 김인호, 「근대 수원경제의 특징과 진로」, 『수원학연구』 제2집, 수원학연구소, 2006.
 문영주, 「흔락금융조합의 금융활동」, 『식민지조선경제의 종말』, 신서원, 2000.
 이한구, 「한국재벌사 10 SK편-1화 창업주 최중건의 구슬땀이 SK의 '초석」, 『일요신문』, 2011년 12월 6일.

제3부 해방 후 경제의 변화와 특성

제1장 해방 후 수원의 귀속기업체 불하와 지역경제

국세청, 『법인주식대장(국유재산)』, 1966.
 담원 최중건 평전 간행위원회, 『공격경영으로 정면승부하라』, 넥서스Books, 2003.
 대한방직주식회사, 『대한방직사사(大韓紡織社史)』, 1997.
 상공부, 『단기 4283년도관 공장광산명부』, 1950.
 신경홍보실, 『선경 30년사』, 1983.
 수원상공회의소, 『수원상의사(水原商議史)』, 1986.
 수원시, 『시세일람(市勢一覽)』, 1956.
 재무부 연합청산사무국, 『법인대장』(작성연대 불명).
 조선상공홍신사, 『서기 1947년도관 조선상공록 - 남조선종합판』, 1947.
 조선은행조사부, 『경제연감』, 1949.
 조선총독부, 『재조선기업현상개요조서』, 1946.
 중의상공정보사, 『전국상공신용록』, 1948.
 한국은행조사부, 『생산기업체명부 - 단기 4286년 12월 현재』(출판연도 불명).
 공제육, 『1950년대 한국의 자본가 연구』, 백산서당, 1993.
 김기원, 『미군정기의 경제구조 - 귀속기업체의 처리와 노동자 자주관리운동을 중심으로』, 푸른산, 1990.
 배석만, 「해방 후 지식인층의 신국가 경제건설론」, 『지역과 역사』 7, 부경역사연구소, 2000.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카인즈(<http://www.kinds.or.kr>).

제2장 경제개발기 수원의 경제구조 변화

경기도, 『경기통계연보』, 각 연도.

경제기획원, 『한국통계연감』, 각 연도.

김광시, 「수도권의 행정수요와 효과적인 수행방안」, 『지방행정』 제38권 제5호, 1985.

김보현, 『박정희정권기 경제개발: 민족주의와 발전』, 갈무리, 2006.

김상조, 「설비자금의 동원 및 배분체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박사학위논문, 1993.

김용복, 「한국전자산업의 발전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박사학위논문, 1995.

김용환, 『임자, 자네가 사령관 아닌가』, 매일경제신문사, 2002.

김 호, 「정부주도형 불균형공업화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지역개발연구』 제32권 제1호, 2000.

내무부, 『한국도시연감』, 각 연도.

노동부, 『노동통계연감』, 각 연도.

박동철, 『한국에서 '국가주도적' 자본주의 발전 방식의 형성과정』,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박사학위논문, 1993.

삼성전기, 『삼성전기 25년사』, 1998.

삼성전자주식회사, 『삼성전자 20년사』, 1989.

선경그룹홍보실, 『선경 40년사』, 1993.

수원상공회의소, 『수원경제현황』, 각 연도.

수원상공회의소, 『수원기업체총람』, 각 연도.

수원상공회의소, 『2000년대를 향한 수원권 개발 방향에 관한 연구』, 1988.

수원상공회의소, 『21세기를 향한 수원 지역 발전 방향』, 1996.

수원시, 『수원통계연보』, 각 연도.

수원시, 『도시종합계획: 1969~78』, 1968.

수원시, 『수원도시계획 재정비』, 1984.

수원시, 『수원시사』, 1986.

수원시, 『2011년 수원도시기본계획』, 1993.

심용택 편, 『자립에의 의지: 박정희 대통령 어록』, 한림출판사, 1972.

오원철, 『한국형 경제건설: 엔지니어링 어프로치』 제1권, 기아경제연구소, 1995.

유철규 · 이경미, 「축적체제의 제도적 창출과 발전: 1970년대」, 김진업 편, 『한국자본주의 발전모델의 형성과 해체』, 나눔의집, 2001.

이대근, 『한국경제의 구조와 전개』, 창작사, 1987.

이수복, 「경제의 구조적 특성」, 아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편, 『수원 지역의 현황과 과제』, 오름, 1996.

이용우, 「개발화와 한국자본주의」, 『경제와 사회』 통권 제22호, 1994.

이정우, 「한국의 경제발전 50년」, 『경제학연구』(한국경제학회 창립 50주년 기념호), 2003.

임방현, 『근대화와 지식인』, 지식산업사, 1973.

장영실, 「수원시 공간구조 변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피재연, 「수원시 도시화과정과 도시문화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1.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경제 반세기: 정책자료집』, 1995.

末廣昭, 「發展途上國の開發主義」, 東京大學社會科學研究所 編, 『20世紀システム4: 開發主義』, 東京大學出版會, 1998.

西川潤, 『人間のための経済学』, 岩波書店, 2000.

原洋之介, 『開發經濟論』 第2版, 岩波書店, 2002.

Gustavo Esteva, "Development", Wolfgang Sachs ed., *The Development Dictionary: A Guide to knowledge as Power*, London: Zed Books, 1992.

제3장 수원시의 경제여건과 발전방향

조현수 외, 『수원시 르네상스 고용정책 기본계획』, 수원시, 2012.

2095수원발전기획단, 『수원미래제안』, 수원시, 1998.

지우석 외, 『수원지역연구』, 경기개발연구원, 2011.

이상훈 외, 「산업입지 공급정책 발전방안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2010.

수원시, 『제51회 수원기본통계(2010년 기준)』, 2011.

수원시, 『2010년 기준 사업체조사보고서』, 2012.12.

통계청(<http://kostat.go.kr>).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수원시청(<http://www.suwon.go.kr>).

| 찾아보기 |

- 가구 196
- 가구거리상점가 94
- 가네나가(金永泰勳) 242
- 가노 사이(加納サイ) 45
- 가다 나오지(賀田直治) 242
- 가마니 196
- 가모게다점 44
- 가모 마고시로(加茂孫四郎) 227, 235
- 가모약점 44
- 가사 114
- 가야마상점 44
- 가야마 히로시(香山弘) 180, 181, 182, 184, 185, 189, 225, 226, 239, 261
- 가와이 다이조(河合名代藏) 184
- 가와치 가키쓰(河内嘉吉) 181
- 가천역 17, 18
- 가축시장 79, 80
- 가쿠 에이타로(隔英太郎) 177, 235
- 가토 미치후미(加藤通文) 189
- 간자키고후쿠점 42
- 간자키상점 44
- 간자키 유사요시(神崎房吉) 44, 239
- 간관 214
- 강대봉 280, 284
- 강북역 17, 18
- 강상주식회사 194
- 거북시장 94
- 거울 207
- 건축청부 214
- 검다지 주막 38
- 게쓰레게(桀レゲ) 45
- 건포 199
- 경기대 338
- 경기대학교 102
- 경기도 109, 352
- 경기도상공경제회 242
- 경기도상공경제회 수원지부 242, 243
- 경기도 재산관리처 281
- 경기도청 298, 338, 349
- 경기만 33
- 경기면업주식회사 272
- 경기바이오센터 339
- 경기은행 323
- 경기 중소기업 종합지원 센터 339
- 경남주조(주) 173
- 경남주조주식회사 186
- 경남철공소 288
- 경부고속도로 298, 304
- 경부선 28, 29
- 경성방직 281
- 경성상업회의소 221
- 경성지방지원 257
- 경인특정지구개발 298
- 경쟁력 351
- 경전(京電) 수원지점 227, 256
- 경제 295, 304
- 경제구조 295
- 경제여건 333
- 경지면적 315
- 고광업 50
- 고노 마타이치(河野又一) 181
- 고등주조 289
- 고물 197
- 고바야시 139
- 고색 339
- 고색동 25
- 고석훈 177
- 고성목 288
- 고소(江商)주식회사 275
- 고스기(小杉謹八) 192
- 고스기구미제재공장 192
- 고압(高鴨)정미소 273, 280
- 고영희 139
- 고용 319
- 고용구조 302, 338
- 고용규모 320
- 고용기여도 319
- 고지 32
- 고즈나상회 45
- 곡반정동 62
- 곡반정동 우시장 63
- 곡선동 329
- 근도 다이키치(近藤泰吉) 189, 227, 235, 236, 242
- 근도 도라노스케(近藤虎之助) 182, 185, 225, 239
- 근도상점인쇄소 45

곤도인쇄소 236
 공업용지 340
 공주 15
 관천역 17
 관곽전 41
 관동주 130
 광교산 74
 광교테크노밸리 339, 350, 354, 355
 광주 15
 괴목정교 21
 교토직물 262
 교토직물(京都織物)주식회사 194, 277
 교통 197
 구경회 232
 구라시오 마쓰지로(藏城松次郎) 181
 구매탄시장 71, 93, 94
 구보다 유타가(久保田豊) 242
 구보 미쓰하루(久保光晴) 177
 구수만 288
 구쓰나 신파치(忽那新八) 45
 구연필 232
 구천동공구상가 96
 구천동공구시장 71
 구포 22, 25
 구포장 13
 구흥역 14, 17, 18
 국도 43호선 14, 25
 국도 42호선 15, 25, 37
 국도 39호선 31
 국도 1호선 16
 국무농장 29, 36, 163, 177
 군수공업 274
 군자 33
 군자장 64
 군포장 23, 64, 117
 군포천장 13, 16
 궁기(宮崎)연탄공장 273, 280
 궁내부 124

권석신 176
 권선가구거리상점가 71
 권선구 70, 347, 348
 권선시장 94
 권선종합시장 71, 85
 권업모범장 163, 177, 246, 295
 권운강 232
 권태동 185, 225, 232
 권현필 181
 귀속기업체 269, 270, 279, 281, 283, 284
 귀속재산 269, 291
 균역법 122
 균역청 122, 123
 그랜드마트&아울렛 영통점 89
 극동연합군사령부 260
 극장 197
 금곡천 22
 금속·기계업종 305
 금융 197, 326
 금융경제 161
 금융기관 323, 325
 금융보험업 321
 금융조합 137, 144, 146, 149, 151, 154, 157
 금융조합연합회 147
 금융활동 151
 금은대용품 197
 금촌시장 26
 기계공구 197
 기계공업 301
 기고 도시카쓰(木子歳勝) 177
 기성복 205
 기업체 335, 337
 기와제조 197
 기요하라(清原天洙) 177
 기우라 마사노리(木浦正理) 184
 기지장 13
 기쿠 노야(喜久野屋) 45
 기쿠노야상점 45
 기타무라 다다시(喜多村忠) 45

기타무라양복점 45
 기타자와 쇼하치로(北澤小八郎) 45
 기흥면 249
 김경수 281, 284
 김관현 186
 김교선 281, 284
 김귀산 187
 김노적 229
 김덕물산주식회사 187
 김덕성 280, 289
 김덕여 125
 김동규 191
 김동훈 194
 김량장 15, 23, 27, 37
 김령 18
 김령역 17
 김병호 46, 187, 232
 김사연 242
 김상호 140
 김성근 280, 282
 김성한 177
 김세원 232
 김세환 225, 229, 232
 김순갑 280
 김순구 181, 219
 김순근 280, 284, 289
 김승덕 280
 김연수 242
 김영두 288
 김영범 74
 김영준 232
 김용묵 229
 김용서 181
 김용식 232
 김용백 229
 김용덕 187, 227, 240
 김용순 189
 김인환 174
 김정실 289
 김정진 192

김종권 174, 225
 김종억 50
 김종원 140
 김주문 187, 189, 232
 김진수 232
 김진중 224
 김창수 288
 김태옥 288
 김학배 50, 190, 192, 227, 235,
 240, 252, 253, 254, 257, 258,
 259, 264, 290, 291
 김혜수 288
 김행권 232
 김현동 225
 김현정 235
 김형기 43, 50
 김홍선 174
 김희경 219
 김희배 289
 깃타 사네히라(橘田實平) 189

L 나구사(名艸登喜太) 181
 나노 특화 웹 339
 나래 112
 나무장 40
 나무전 40
 나이토 신지(內藤眞治) 235
 나카무라 구라스케(中村倉助)
 186
 나카무라 다카시(中村孝嗣) 177
 나카자키 시게조(中崎茂三) 181
 나카지마키쿠상점 42
 낙생 18
 낙생역 14, 17
 남권희 232
 남동 33
 남문로테오 96
 남문로테오시장 71, 94
 남문로테오시장상인회 101
 남문밖시장 35

남문밖장 39
 남문백화점 80
 남문시장 70, 72
 남문안시장 35
 남문안장 35
 남문의장 23, 27, 39
 남문장 40
 남문패션1번가 96
 남문패션1번가시장 71
 남북면업 288
 남북면업 수원조면공장 259
 남북면업주식회사 수원공장 190
 남북면업회사 수원공장 272,
 280, 284
 남수동 73, 79
 남양 24, 109, 122, 139
 남양광산 261, 264, 273, 281, 284
 남양광산주식회사 191, 276
 남양군 115, 116, 124, 125, 128,
 140
 남양군연합회의소 131, 132
 남양금융조합 145, 146, 150,
 151, 152, 155
 남양만 36
 남양 염민 124, 125, 127, 129,
 131, 132
 남양염전 122, 123
 남양읍 38
 남양읍내장 13
 남양장 14, 25
 남양중석 광산 251
 남양지방금융조합 139, 140,
 142, 143, 144, 145
 남태희 174
 남한강 31
 내국통운주식회사취인점 46
 내장원 125
 내포 24, 25
 노나카상점 45
 노나카 스에요시(野中末吉) 45,
 145, 182

노미조 텐이치로(野溝傳一郎)
 227
 노점상 85
 농가구수 315
 농가인구 296, 315
 농기구 198
 농민봉기 124
 농사시험장 250
 농촌진흥운동 138, 149, 150,
 151, 152, 154, 252
 농촌진흥청 295
 누룩 198
 누비점 198
 뉴코아백화점 89
 뉴코아백화점 수원점 86
 능행로 14
 니시무라(西村振一) 191
 니시자와 겐아이(西澤賢愛) 227,
 235, 236
 니시카와 와쵸(西川和藏) 185
 니야마(丹山芳樹) 177

C 다가와 쓰네지로(田川常次郎)
 242
 다나카 테쓰사부로(田中鐵三郎)
 242
 다나카 사와키치(田中澤吉) 50,
 191
 다나카상점 50
 다니구치소간물점 44
 다니타 기마(谷多喜磨) 242
 다다 준지로(多田順次郎) 181
 다이산공작소 187
 다카기 도쿠지(高木德治) 44
 다카기상점 44
 다카모리 야스오(高森安夫) 275
 다카시마 스에히코(高島末彦)
 46
 다카하시 히사키치(高橋久吉)
 181

다케시타상점 44
 다케시타 헤이사부로(竹下平三郎) 44, 174, 185, 186, 240
 담배 198
 당진 31
 대동산업주식회사 186
 대동인촌 261
 대동제지 278, 289
 대동제지주식회사 273, 280, 284
 대동제지주식회사 수원공장 192
 대륙(大陸)고무 42
 대림산업 289
 대만 130
 대만염 121
 대봉개량낫공장 288
 대성상회 262
 대성승회사 261
 대성직물공장 194
 대원요업사 191
 대일본방 253, 264
 대장성 166
 대창라사 72
 대창재생고무공업 289
 대한군인유족회 경기도지부 79
 대한방직 270, 282, 284, 286, 287, 288, 289, 319
 대한방직 수원공장 287
 대한산업 286
 대형 할인점 89
 대화유물 273
 대화유직 273
 대화유직직물 260, 278, 291
 대화유직직물주식회사 273, 280, 284
 대화유직직물주식회사 수원공장 194
 덕곡 32
 데라사와상회 45
 데라사와 스테사부로(寺澤捨三郎) 45, 174, 181, 184, 186, 189, 190, 227, 252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内正毅) 221
 덴지쓰 쓰네지로(天日常次郎) 182
 도기 198
 도다 마사오(戸田正夫) 184
 도시락 198
 도야마 니교(富山仁行) 261
 도요타(豊田)자동방직제작소 287
 도이자동차부 44
 도일장 64
 도쿄부사시노음악학교 255
 도쿠히로 쿠니타로(徳弘國太郎) 235
 독산성 20
 돈베 히테오(頓部秀雄) 276
 돗자리 199
 동산농사(주) 수원지점 174
 동산(東山)농사주식회사 163
 동산농사주식회사 경기농장 273, 281
 동산농장 29, 36, 273
 동아일보사 수원지국 284
 동아일보사 수원지국장 255
 동아직물 264, 288, 291
 동아직물공장 190, 192, 194, 254, 255, 257, 259, 278, 290
 동양면화주식회사 275
 동양인쇄 261
 동양인쇄합자회사 187
 동양척식 278
 동양척식주식회사 29, 148, 163
 동양척식주식회사 경성지점 170
 동양척식주식회사 출장소 36
 동화백화점 날염수원공장 273, 275
 동화역 14, 17, 20
 동화제지 284
 동흥직물 245, 258, 259, 260, 264, 278, 282, 284

동흥직물주식회사 277
 동흥직물주식회사 수원공장 194
 두루치기 113
 두부공장 199
 등록시장 70, 71, 92
 델감 40, 74
 떡집 199
 로테오거리축제 96

□ 마고다(孫田禮光) 242
 마나베 기요사쿠(眞鍋喜代作) 182
 마도 114, 115
 마도면 251
 마루미즈운송조 45
 마방 61, 63
 마스다 다케오(増田武雄) 227
 마쓰나가(松永壽作) 45
 마쓰나가약방 43
 마쓰다 유키오(松田幸雄) 177
 마쓰마에 야스히로(松前保弘) 177
 마쓰바라(松原兼武) 177
 마쓰바라 유타카(松原豊) 177
 마쓰우라(松浦載鷹) 177
 마쓰이제제소 184
 마치다(町田代友章) 45
 마평 32
 마포시장 117
 만종원 190
 만주 262
 만호나루 31, 56
 매교 18
 매교시장 83
 매류 32
 매산동 258
 매산로1가 73
 매산로테마거리상점가 71
 매산리 161
 매산시장 71, 73, 76, 77, 79, 80

매송면 38
 매탄동 329
 메가타 다네타로(目賀田種太郎) 137
 면강직물 288
 면류 199
 모리(森員一) 177
 모리나가 헤나(守永へナ) 45
 모리모토 슌노스케(森元俊之助) 184, 186, 240
 모리 히데오(森秀雄) 242
 모리타 기요조(森田喜代藏) 184
 목기계염직공장 182
 목욕탕 200
 목재 200
 목포전 41
 못골시장 93, 94, 97, 98, 99, 100
 못골종합시장 71, 96, 97
 못골종합시장상인회 103
 못골좁마불평합창단 100
 무극 18
 무극역 17
 무라카미구미 44
 무라카미정미소 181
 무라카미 히사이치(村上久一) 44, 174, 184
 무라타 겐지로(村田源次郎) 174, 181
 무력 200
 무사시노 45
 무촌 32
 무한기계공작소 192
 무한반물기계 288
 문구락 140
 문방구 202
 문외장 39
 문전성시 98
 문화기업 288
 미곡 200
 미곡전 41
 미군정 279

미나리광시장 40, 41, 71, 93, 94, 96
 미무라 세이이치(三村誠一) 235
 미쓰코시 194
 미쓰코시백화점 경성점 275
 미야자키재목점 45
 미야자키 조고로(宮崎長五郎) 45
 미야타 료이치(宮田良一) 181
 미양 32
 미용 201
 미장업 201
 미조카미(溝上太久馬) 50, 189
 민규식 242

ㅂ 바바 다모쓰(馬場保) 139, 140
 박건유 181, 281
 박경근 189, 190, 225, 232
 박기수 54
 박다옥 44
 박덕용 288
 박도의 74
 박동훈 232
 박병계 280
 박상복 289
 박선태 46, 187, 232
 박성실 288
 박성실철공소 288
 박송운 189
 박송운철공소 189, 288
 박승권 288
 박승근 227
 박승옥 50, 232
 박승옥 225
 박윤경 185
 박일룡 46, 232
 박일용 187
 박정렬 187, 261
 박정환 181, 241, 280, 281, 284
 박창숙 255

박창학 281, 284
 박천만 289
 박태순 280
 박홍식 242, 277
 반월장 16, 24, 25, 64
 발안 24
 발안금융조합 145, 146, 150, 151, 152, 155, 157
 발안 우시장 64
 발안장 22, 23, 25, 31, 39, 64
 발안천 22
 방구현 280, 282, 284, 288
 백석리 118
 백암장 14
 백양사 44
 백화점 77, 86
 뱀내장 64
 번지 112
 보광인쇄소 281, 284
 보험대리점 201
 복음주공소 288
 본수원 32
 부국원 45, 177, 183, 236, 273, 276, 281, 284
 부내장 23
 부내장 남문의 23
 부내장 북문의 23
 부동산중개업 201
 부사정 45
 복수동시장 35
 복수동 우시장 56
 복수동 274번지 56
 분행 18
 분행역 17
 비료 201
 비봉면 38
 비제조업 308, 309, 310
 빈정포 22, 25, 28
 빙과 211
 빙과자 202
 빵집 199



사강 25
 사강금융조합 150, 151, 152, 155, 157, 159
 사강시장 63
 사강장 26, 61
 사근평 16
 사누키상회 45
 사사다 유키(笹田ユキ) 45
 사사 키쓰네(佐佐木ツネ) 184
 시슬꽃장 13, 23
 사업체수 341, 342, 347
 사에키 게이지로(佐伯敬二郎) 235, 236
 사이토 마코토(齋藤實) 233
 사카이 마사노스케(酒井政之助) 182, 185, 224
 사카테상회 45
 사카테 요시오(坂手芳夫) 227, 235
 사카테 주사부로(坂手重三郎) 45, 181, 182, 184, 186, 239
 사카히라(坂平) 180
 사토농장 190
 사토 신이치로(佐藤愼一郎) 190
 사토 히데미쓰(佐渡秀光) 182
 사토 히데시게(佐渡秀茂) 184
 산동 329
 산미중식계획 144, 148
 산업 264, 338
 산업구조 302
 산업대분류 351
 산업 집중도 345
 산업클러스터 338
 산업환경 338
 산와 모토나리(三和基成) 191
 산와제련주식회사 수원공장 192
 산요여관 45
 산조 데쓰난(山上哲南) 177
 삼가 32
 삼곡(三谷)정미소 273, 280
 삼남 15

삼봉광산 251
 삼성산요파츠 311
 삼성전관 311
 삼성전기 311, 312, 319
 삼성전자 311, 312, 319, 338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349
 삼정홍업주식회사 191
 3차 산업 322, 323, 326
 삼창양말 288
 삼교천 24
 삼교천 방조제 31
 상공업 44
 상공업자 44
 상구사 42
 상권 35, 41, 44
 상류천 18
 상설시장 76
 상신상회 46
 상신회사 187
 상업 35
 상업용지 340
 상업회의소 217, 219, 220
 상점 41
 상직꽃리장 23
 샘내주막 38
 서기덕 50
 서둔동 329
 서문시장 70, 92
 서상학 125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295
 서운 177
 서적 202
 서정리 165
 서정열 255
 서정옥 185, 232
 서호천 21
 석곡산대장 23
 석유 202
 석현장 13, 23
 선경직물 245, 258, 260, 262, 264, 277, 282, 283, 285, 288, 297

선경직물주식회사 273, 280, 284
 선경직물주식회사 수원공장 194
 선경합섬 319
 선광장 274
 선만주단 194, 258, 262
 선만주단 수원공장 259
 선만주단주식회사 277
 선물가게 202
 선어 202
 선일견직 275
 선일견직주식회사 273, 280, 284
 선일직물 258, 259, 260, 264, 278, 288
 선일직물주식회사 수원공장 194
 선일특수가공공장 284
 설경동 270, 280, 282, 284, 285, 286, 287, 288
 섬유공업 300, 301
 섬유업종 297, 299, 305, 307, 319
 섬유업체 316
 성균관대 338
 성남시 352
 성냥 202
 성밖시장 35
 성밖우시장 56, 58
 성밖장 27, 35, 37, 38, 39, 56, 57
 성봉경 194
 성안시장 35
 성안우시장 56, 58
 성안장 27, 35, 36, 37, 39, 56, 57
 성외시장 38
 성장 잠재력 349
 성전직물공장 194
 성환장 14
 세나다자전차상회 46
 세람교 20, 21
 세람장 23, 39
 세류동 25, 258, 277
 세류종합시장 85
 세탁업 203
 소금 109, 113, 117, 250

소금가마 110, 113
 소금 생산 133
 소금 생산지 123
 소래 33
 소래장 64
 소사장 13, 14
 소에지마상점 44
 소옥영 50
 소화직물 258, 291
 소화직물공장 190, 192, 257,
 259, 260, 288, 290
 손영기 140
 송도직물 288
 송병욱 232
 송병황 186
 송원직물 288
 송인상 175, 176, 177
 송과장 53
 수공업 247
 수리산 74
 수산세 126
 수선 205
 수암장 65
 수에히로 45
 수여선 15, 28, 29, 30, 31, 32, 33
 수원 72, 109, 122, 139, 167
 『수원(水原)』 224
 수원가정직물조합 254, 256
 수원가축시장 63
 수원고무공업 289
 수원고무공업사 273, 280, 284
 수원곡물상회 173, 174, 187
 수원곡물협회 46, 227
 수원공립국민학교 236
 수원공설운동장 227
 수원공회당 225, 226
 수원국자합자회사 186
 수원국자회사 259
 수원군 114, 115, 137, 140, 168,
 246, 250
 수원군경제통제협회 234

수원군생활필수품소매상업조합
 257
 수원군수 228, 234
 수원극장 43, 190, 273, 278, 279,
 281, 284
 수원금융조합 145, 146, 147,
 154, 156, 157, 159, 255
 수원기재단 227
 수원 남문 219
 수원농상공학교 246
 수원동지구락부 227
 수원마포주식회사 259
 수원면 145
 수원물산상회 45, 50, 189
 수원박물관 72
 수원백화점 80
 수원비누 289
 수원사진관 45
 수원산업 284
 수원상공업자 경제보국 선서식
 228
 『수원상공인명록』 49, 196
 수원상공주식회사 191, 236
 수원상공회의소 194, 223, 232,
 233, 234, 235, 236, 242, 255,
 256, 257, 285
 수원 상권 43
 수원상사주식회사 45, 184
 수원상업강습소 228, 229, 230
 수원상업회의소 217, 218, 219,
 220, 223, 224, 228, 229
 수원상회 46, 187
 수원상회직물공장 248
 수원성냥공장 286
 수원성냥주식회사 273, 275, 282
 수원시 344, 351, 352
 수원시내자동차회사 186
 수원시민대운동회 227
 수원시 사업보호회 79
 수원시포목상조합 227
 수원식림종묘주식회사 184, 185

수원신사 228, 254
 수원실업협회 179, 224, 225,
 226, 227, 228, 233, 254, 256
 수원양조 50, 173, 261, 289
 수원양조주식회사 185
 수원양조합자회사 45, 181
 수원역 28, 30, 33, 36, 43, 70,
 134, 161, 162, 184
 수원역전시장 71, 82
 수원연초원매팔조합 45
 수원연탄공장 273, 280, 281, 284
 수원염직조합 직물공장 182
 수원영동 아트포라 102
 수원 우시장 26
 수원읍 49
 수원읍 남창리 189
 수원읍내장 13, 26
 수원읍장 228, 234
 수원인쇄 261
 수원인쇄주식회사 180, 184
 수원인쇄회사 45
 수원인촌 261
 수원인촌주식회사 189, 273,
 274, 280, 284
 수원임업사 192, 289
 수원자동차주식회사 180, 189
 수원자동차합자회사 189
 수원잡업시험장 262
 수원 잠종제조소 250
 수원장 13, 14, 15, 21, 22, 23, 24,
 25, 26, 29, 30, 31, 35, 36, 37,
 38, 41, 57
 수원장유 261
 수원장유제조장 273, 280
 수원장유합자회사 189
 수원재무서 139, 140
 수원전기주식회사 46, 182
 수원정미소 181, 190, 273, 280
 수원제빙소 273, 280, 284
 수원제사조합공장 182
 수원제염조합공장 182

수원제지공장 187
 수원주물 288
 수원주조 261, 289
 수원주조조합 255
 수원주조주식회사 185
 수원지방금융조합 139, 140, 141, 145
 『수원지방금융조합 대부금순보』 141
 수원직물 264, 291
 수원직물공장 190, 192, 253, 254, 257, 258, 259, 290
 수원직물조합 254, 255, 256
 수원직포주식회사 190
 수원진유기제조소 181
 수원천 18, 21, 56
 수원철공장 288
 수원철공조합 181
 수원청년구락부 230
 수원체육회 227
 수원통제조공장 191
 수원파출소 162
 수원피혁공업사 284
 수원하주운송주식회사 188, 189
 수원학교조합사무소 224
 수원합동운송주식회사 186
 수원화교공회 227
 수월당 45
 수인선 28, 29, 33
 수인양조장 181, 273, 281
 수일사 192
 수입업 117, 118, 132
 수출 327
 수출 실적 307, 308, 319
 숯돌 203
 스키모토상점 50, 189
 스키모토 슌이치(杉本俊一) 50, 189
 시계 203
 시내자동차상회 46
 시내자동차회사 232

시마 쿠니와카(島邦若) 174
 시멘트가공 203
 시모카와 가즈오(下川一雄) 177
 시민백화점 77, 90
 시민상가 96
 시민상가시장 71, 77
 시바 도쿠노리(斯波德則) 50, 189
 시바상점 50, 189
 시외버스터미널 329
 시장 67
 시장세 76
 시전 35, 42
 시중은행 323
 시흥길 17, 20, 24
 식료품 203
 식료품업종 305
 식산계 138
 식산신선 289
 식산신선공장 272, 280, 284
 식산은행 148, 152, 167
 식산정미소 284
 식품공업 301
 식품업체 316
 신갈 32
 신갈저수지 22
 신갈천 22
 신기장 13, 23
 신대 32
 신리 114, 115
 신발 204
 신성장동력 354
 신성장동력산업 352
 신수원종합시장 70, 85, 92
 신안동 329
 신용우 50
 신체균 232
 신천리 우시장 61, 63
 신탄 204
 신탄시장 73, 79, 80
 신헌익 232

신흥자본가 284
 실업 303
 심순백 232
 심원명 232
 짜전 41
 쌍서도 22
 쌍용그룹 282
 씨래 112
 쓰시 쓰야타로(都志艶太郎) 189, 261
 쓰카네 츠키치(常包重吉) 189

○ 아랫역말 18
 아베 노부유키(阿部信行) 242
 아사노 다네지로(淺野種次郎) 227, 235
 아사히카와(旭川) 234
 아산 31
 아산만 24
 아성공업사 191
 아씨한복 72
 아오키 다메이치(青木爲一) 181, 185, 190, 225, 227, 239
 아오키 다메키치(青木爲吉) 185
 아오키상회 45
 아오키여관 45
 아오키정미소 181
 아오키 하쓰지(青木初治) 185
 아이시마(相島像一) 174, 184
 아주대 338
 아트포라 조성사업 102
 안거복 232
 안경 203
 안도 마사야키(安東政昭) 170
 안산 139
 안산군 128, 140
 안산시 349, 352
 안산장 24, 64
 안성 30, 32, 167
 안성시장 30

안성 우시장 26
 안성읍내장 13
 안성장 14, 26, 27, 29, 30, 31, 36, 53
 안성천 22
 안순복 187, 225, 232
 안양시 352
 안양시장 63
 안양장 23, 61, 64
 안양참 16
 안영순 46, 187, 232
 안영태 173, 174, 181, 232
 안종열 186
 안중 31
 안중장 13, 23, 61, 63
 안홍렬 224, 225
 안홍열 186, 232
 압산중 280
 압정 114
 야나다상회 45
 야마다 한지(山田半次) 186
 야마모토 다카오(山本隆夫) 177
 야마모토여관 45
 야마오카 시게노부(山岡重信) 177
 야마자키오복점 45
 야부우치 데이조(藪内貞三) 174, 184
 야스하라 쓰루미쓰(安原鶴允) 191
 야시장 43
 약종상 204
 양규룡 50, 190, 227, 261, 279
 양규봉 50, 191, 235
 양복 205
 양성 30
 양성관 181, 182, 232, 240
 양성읍내장 13
 양성장 14
 양성하 255
 양재 18

양재도 17, 18
 양재도찰방 17
 양재역 14, 17
 양지 32
 양화 205
 어물전 41
 어음부도울 325, 326
 어정 32
 여천리 25
 여천리 주막 38
 엄주철 232
 에가시라농장 191
 에구치 모리오(江口守夫) 43, 45, 50, 190
 에구치청광당 50
 에노모토 히데오(榎本秀雄) 261
 여관 206
 여주 29, 31, 32, 33, 165
 역말 14, 18
 역원 15
 역전거리 43
 역전시장 70
 역전지하도상가 94
 역전지하도상가시장 71, 82
 역촌 18
 연무시장 71
 염료 206
 염민 122, 125
 염부세 124
 염상 117, 118
 염세 126
 「염세규정」 125, 126
 염세 수입 129
 염세저항운동 127, 128
 염업 109, 115, 118
 염업정책 109, 124
 염전 114, 115, 118, 130
 염전도구 110
 염전면적 135, 250
 염전지대 33
 염정 123

염정세 125
 염한 113
 영동 73
 영동시장 26, 35, 38, 70, 71, 73, 74, 75, 76, 79, 80, 82, 83, 86, 94, 96, 101, 102
 영동시장번영회 74
 영동시장주식회사 82
 영등포 253
 영인창지물포 284
 영통구 70, 347, 348
 영화도 17
 영화도찰방 17
 영화동 60
 영화동 우시장 61
 영화역 15, 17
 예금은행 324
 예대울 325
 예쁘다양장점 72
 예종석 221
 오가사와라(小笠原) 139
 오가타 기요시(緒方清) 190
 오노 마사이치(大野政市) 44
 오노상점 44
 오니시 헤이지(大西平次) 174
 오니오상회 50, 189
 오니오이 스에지로(鬼追末治郎) 50, 189
 오다 구니오(埜田國雄) 190
 오득영 182, 184
 오목내 쉼터 38
 오목천동 25
 오사카 275
 오산 16, 24, 41, 165
 오산금융조합 137, 145, 146, 150, 151, 152, 155, 157
 오산산업정미소 273, 281
 오산시장 63
 오산 우시장 26, 64
 오산장 13, 23, 26, 29, 30, 31, 32, 37, 41, 61, 64

- 오산장유제조장 273, 281
- 오산제2금융조합 137, 150, 151, 152, 155, 157
- 오산주조 261
- 오산주조주식회사 273, 281, 284
- 오산지방금융조합 140, 145
- 오산천 22
- 오성선 249
- 오쓰지 미토시 181
- 오야 마사이치(大屋政市) 184
- 오자키(尾崎俊甫) 142, 242
- 오자키상점 44
- 오자키 히데하치(尾崎秀八) 44, 227, 239
- 오찬영 232
- 오천 32
- 오카모토 기헤이(岡本喜平) 44
- 오쿠이 사다키치(奥井定吉) 174
- 오타 겐이치(太田源市) 227
- 오타니 죠고로(大谷長五郎) 190
- 오타장 13, 23
- 오하라 미노루(大原實) 177
- 옥구도 22
- 온누리상품권 95
- 온에어상인DJ 100
- 와키다 고지(脇田光二) 44
- 와키다 모토지로(脇田元次郎) 174
- 와키다상점 44
- 와타나베 토요히코(渡邊豊日子) 242
- 왕이 만든 시장 102
- 외야꽃 114
- 요구불예금 324
- 요리 206
- 요리오카 류조(頼岡龍藏) 44
- 요리오카 지쓰이치(頼岡實一) 44
- 요시무라 후미오(吉村文雄) 177
- 요시오카 와카이치(吉岡若市) 181
- 요시오카정미소 181
- 요시우라 히데노부(吉浦英信) 44, 235, 239
- 용교장 23
- 용수기업조합 249
- 용인 14, 30, 32, 53, 139
- 용인군 140, 249
- 용인시 352
- 용인지방금융조합 140
- 우도조 54
- 우메바야시 다쓰오(梅林龍雄) 177
- 우메하라(梅原) 228, 234
- 우시장 25, 53, 56, 58, 63
- 우에하라 로쿠로(上原陸郎) 174, 181, 184, 261
- 우영근 255, 288
- 우음도 22
- 우정 114
- 운모 206
- 운수 206
- 운크라 75
- 원뜰 주막 38
- 원세포소 46
- 원직포주식회사 190
- 원천 32
- 원천동 329
- 윗역말 18
- 유리 207
- 유바라 다쓰지로(湯原辰二郎) 242
- 유복 290
- 유산 32
- 유상 102
- 유아사 오토요(湯淺音代) 50, 189
- 유아사 이헤이(湯淺伊平) 50, 189, 225, 227, 239
- 유철전 41
- 유포 22, 25
- 유하영 232
- 유희장 207
- 윤달용 232
- 윤면후 232
- 윤병순 232
- 윤봉섭 232
- 윤용희 229, 230, 232
- 윤치소 170
- 윤태은 177
- 윤태인 232
- 윤태정 190, 232
- 윤태중 232
- 유택영 232
- 융합기술 349
- 융합기술원 339
- 음덕 114
- 음식점 207
- 읍내장 23, 35
- 이가와 고타로(井川好太郎) 45, 190, 227
- 이강현 50
- 이강현 280, 281, 282
- 이경의 46, 187, 232
- 이광현 235
- 이군옥 124, 125
- 이규인 192, 280, 289
- 이규재 229
- 이규환 139
- 이기홍 252, 254
- 이길태 232
- 이노우에 미노루(井上實) 177
- 이노현 50
- 이다 분타로(飯田文太郎) 44
- 이다상점 44
- 이다 스에히사(飯田未久) 227, 235
- 이대용 176
- 이대현 50
- 이동근 232
- 이두철 280
- 이로하 44
- 이마무라상점 44

이마무라 우타로(今村卯太郎)
 44, 239
 이마트 수원점 90
 이만중 281, 284
 이명성 281
 이무라(井村字祥) 261
 이발 208
 이백일 58
 이병덕 280
 이보장 14
 이삼만 280, 284, 288
 이삼수 281, 284
 이상숙 232
 이석구 289
 이성구 140
 이성연 232
 이성의 232
 이소자키상점 44
 이승화 227, 235
 이연 227
 이옥래 232
 이와모토 데이키치(岩本貞吉)
 181
 이와미치 사이치(岩滿佐一) 174
 이와사키 신유(岩崎眞雄) 261
 이완선 225, 227, 232
 이용기 281
 이용성 227
 이우상 232
 이유복 190, 192, 245, 252, 253,
 254, 255, 257, 258, 259, 264,
 291
 이인자 181
 이재정 50
 이정규 232
 이정용 191
 이종범 191
 이주찬 281
 이진영 232
 2차 산업 322, 326
 이창용 232

이천 31, 32, 165, 167
 2001아울렛 86
 이태용 125
 이토 군조(伊東軍造) 261
 이토 료키치(伊藤良吉) 184
 이하라 고로베(伊原五郎兵衛)
 182
 이한승 230, 232
 이화직물 288
 이화피혁상회 192
 이환영 185
 이희영 219
 인구 301, 314, 328
 인구밀도 328
 인구 성장률 301
 인력거 208
 인쇄업 208
 인정시장 70, 71, 92
 인천 28, 29, 117
 인판 209
 일본고주과중공업 276
 일본 대장성 148
 일본성냥공업조합 275
 일본염 119, 120, 121
 일본인 41
 일선염공주식회사 수원공장 194
 1인당 주민소득 311, 327
 1인당 지역내총생산 334
 1차산업 322
 임경찬 232
 임만수 177
 임백규 189
 임병진 235, 241
 임성순 235
 임원순 288
 임치재 124, 125
 임평삼 125
 임헌인 280, 284, 288
 입색전 41
 입장 14
 입지계수 351

㉠ 자기 198
 자동차 209
 자염 109, 117, 118, 120
 자염 생산고 133
 자작농 창정계획 252
 자전거 209
 작현동 20
 잠업시험소 250
 잠업시험장 295
 잡지 202
 잡화 209
 장길 15
 장도준 280
 장무한 288
 장백룡 280, 284, 289
 장성원 284, 288
 장승재 주막 38
 장시 27
 장시체계 13, 22, 28
 장안 114, 115
 장안구 70, 347, 348
 장안문거북시장 71
 장안주조 289
 장예고 54
 장유양조 210
 장죽역 14, 17, 18
 장죽역말 18
 장주규 289
 장호원 30, 31, 32
 장호원선 32
 재래시장 67, 68
 재봉기 210
 재일 32
 재정자립도 333
 재정자주도 334
 저축성예금 324
 전근재 232
 전기 210
 전당포 211
 전세영 177
 전오염 118, 120

- 전자·전기업종 305, 307, 316, 319
 전자·전기업체 306
 전통시장 67, 68, 69, 72, 78, 84, 90, 95, 96, 102
 정기시장 35
 정미업 211
 정석규 191
 정용업 191
 정원표 227
 정위교 289
 정육점 211
 정윤철 288
 정인식 124
 정자시장 94
 정자종합시장 71, 85
 정종식 140
 정주교 191
 정준화 229
 정태설 232
 제과 211
 제분업 212
 제염 109
 제염도구 110, 111
 제염법 110, 113
 제염업 109, 115, 129, 132
 제2수원천시장 79, 80
 제2차 세계대전 243
 제일관 50
 제1백화점 77
 제일사 191
 제일산업주식회사 77
 제1수원천시장 79, 80
 제조업 298, 299, 301, 304, 306, 310, 312, 320
 제조업 집중도 346
 제조업체 328
 제철 212
 켈쇼 에이스케(善生永助) 187
 조광산업 284
 조광(朝光)정미소 284
 조광직물 288
 조광직물공장 273, 280, 284
 조석기계제작소 272, 280
 조선가마공업주식회사 수원공장 192
 조선감과 289
 조선감과제조회사 273, 280, 284
 조선건직 260
 조선경동철도 261, 264
 조선경동철도주식회사 32, 33
 조선국자 173
 조선국자주식회사 190
 조선국자주식회사 수원공장 273, 281
 조선금융조합연합회 138, 149, 152, 154, 155
 조선기계공작소 272
 조선나염공업주식회사 수원공장 194
 조선날염 288
 조선날염공업 275
 조선날염공업주식회사 273, 280, 282, 284
 조선농기구 289
 조선농기구주식회사 192
 조선농기구주식회사 수원공장 272, 278, 280, 284
 조선마직 264
 조선방직 대구공장 287
 조선비행기공업주식회사 277
 조선상업 167
 조선상업은행 168
 조선식산은행 144, 147, 161, 162, 163, 170, 173, 176
 조선식산은행 수원지점 161, 164, 166, 167, 168, 169, 170, 173, 175, 177
 조선염 113, 117, 121
 조선염직 288, 291
 조선오우방직주식회사 수원공장 194
 조선운모개발판매주식회사 274
 조선운모개발판매주식회사 수원공장 273, 281, 284
 조선운모개발회사 192
 조선일보사 수원지국 226
 조선전업사 191
 조선직물 258, 278
 조선직물 수원공장 286, 287
 조선직물주식회사 280, 281, 282, 284
 조선직물주식회사 수원공장 194, 273, 277, 286
 조선총독부 140, 163, 243, 257
 조선특종광업(주) 273
 조선특종광업주식회사 276
 조암장 25, 26, 32, 64
 조원시장 71, 82, 94
 조용순 50, 232
 조인행 235
 조종탑 280
 조지야 194, 258, 262
 조지야(丁子屋)상점 277
 조한교 185, 232
 종묘 212
 종사자수 341, 342, 344, 347
 종업원수 335
 좌찬 18
 좌찬역 17
 주대윤 280, 284, 288
 주류 212
 주목 38
 주문진시장 98
 주물 212
 주민생산 302
 주민 1인당 소득 303
 주민총생산 297
 주안 131
 주안천일염 133
 주영식 232
 주천 32
 주택보급률 329, 330

죽당 32
 죽산 32
 죽산장 27
 죽세공 212
 중동 329
 중앙극장 72
 중앙목재상회 191
 중앙인쇄소 187
 중앙자동차상회 46
 중앙자동차합자회사 186
 중일전쟁 154, 179, 246, 252, 253
 지동시장 70, 71, 83, 93, 94, 96
 지물포 213
 지방금융조합 138, 141
 지방도 82호선 32
 지방은행 323
 지식기반산업 349
 지식기반서비스산업 355, 356
 지식기반제조업 355
 지식서비스산업 353, 354
 지역경제 164, 269, 284
 지역내총생산 311, 327, 334
 지역산업 287
 지지대고개 21
 지혜전 41
 직물 213, 249
 직물공장 274
 직물업 246, 252, 257
 직물회사 277
 직산 32
 직산읍장 14
 진나이 시계키치(陣內茂吉) 181
 진위군 30, 114, 139, 140
 진위읍내장 13
 진흥기계 288
 진흥기계공작소 284

㉠ 차남순 46, 185, 187, 225
 차동린 225
 차원성 232

차유순 185, 232
 차재운 186, 190, 192, 232, 235,
 252, 253, 257, 259, 260, 288,
 290, 291
 차재현 241
 차주순 232
 차준담 191, 226, 227, 235, 236,
 240, 242
 차철순 283
 차태익 232
 차한용 288
 차화선 191, 280, 284, 289
 창화직물 264, 291
 창화직물공장 190, 192, 254,
 257, 259, 290
 천덕상회 72
 천안 15, 30, 31, 32
 천일연탄 289
 천일염 113, 117, 118, 120, 122,
 130, 132
 천일염업 129
 천일염전 129, 131
 천일제탄공업장 191
 천일제탄공장 261
 철공 213
 철도교통 28
 철물점 213
 철부 110
 청계산 74
 청과물 213
 청광당서점 42, 45
 청국염 120, 121, 130, 131
 청량음료 214
 청룡 114
 청북면 31
 청호역 17
 초장 114, 115
 촌락금융조합 144
 최경우 232
 최경환 227
 최동 227

최명윤 174
 최민종 280
 최상훈 229
 최선용 232
 최성대 132
 최성운 232
 최송 232
 최영란 177
 최용민 191
 최원녕 124
 최원익 232
 최익환 173, 174, 186, 225, 232
 최재엽 226, 227, 228, 234, 256
 최재엽 사회 227
 최종건 260, 262, 264, 270, 280,
 282, 283, 284, 285, 288
 최종직 286
 최창규 229
 최철원 229
 최학배 262
 최혁래 232
 최희영 288
 축산조합 57
 축음기 214
 충주 15
 취업 303
 취향원 45

㉡ 카모토시계점 44
 크로바백화점 80
 큰말 주막 38
 김스클럽 89

E 타면소 214
 타키자와(湧澤和七) 174
 단천 22
 탑스아울렛 89
 태장면 병점리 190
 태창상점 43

태창직물 285
 태평양전쟁 241, 257, 274
 토목 214
 토부 110, 111
 토월 44
 토진 114
 토진장 23
 통류 214
 통일기업사 289
 통택(通澤)정미소 273, 281
 특수금융기관 323
 특허산업 350

II

파상회 44
 파장시장 71
 판교장 16
 판교테크노벨리 355
 판일꾼 113
 팔달구 70, 347, 348
 팔달문 21, 42, 43, 70, 72, 83, 98
 팔달문시장 70, 71, 92, 93, 96,
 102, 103
 팔달문시장거리축제 96
 팔달문지역 전통시장연합회 96
 팔미도 22
 팔탄장 13, 23
 페인트 214
 평동 329
 평양메리야스 264
 평택 31, 167
 평택시 352
 평택역 30
 평택장 61, 63
 평택지방금융조합 140
 포내 114
 포목 215
 포승면 31
 표교 32
 표구 215
 풍덕천장 16, 27

ㅎ

피고용인수 306
 피류 215
 하기노 시케타(萩野茂太) 227
 하기와라 히코조(萩原彦三) 242
 하나오카 요시후미(花岡芳文)
 189, 261
 하라다 긴소스케(原田金之祐)
 221
 하라다신문점 44
 하류친 18
 하시모토 리사부로(橋本利三郎)
 187
 하야시 시게조(林繁藏) 242
 한강 도수 298
 한광석 232
 한국산업은행 285
 한국은행 323
 한국전쟁 260, 282, 286
 한국특수제공업 284
 한대수 280
 한만교 140
 한병혁 289
 한봉수 288
 한상룡 221
 한상봉 181, 182, 184, 225, 241
 한성은행 163, 167, 168, 175, 177
 한성은행 수원지점 169
 한성재무감독국 139, 140
 한수상회 187
 한영상회 46
 한용현 140
 한익교 232
 한인수 광산 251
 한일합섬 319
 한조체육관 60
 한진나루 56
 한창현 280
 한철명 186
 한해조합 166

한희 232
 합사 112
 함수 113
 해문역 18
 해산물 215
 해수직자식염 118
 행상 39
 향남면 145
 허섭 228
 허장 289
 허진 288
 혁신클러스터 349
 현대장 23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349
 현방 54
 현방세전 54
 현암 114
 호리 가메키치(堀龜吉) 190
 호마유 215
 호서은행 167, 168, 175
 호소카와상점 44
 호소카와 오카노스케(細川岡之
 助) 44, 184
 호즈미 신로쿠로(穗積眞六郎)
 242
 혼구 210
 혼마치철공소 187
 홈플러스 북수원점 89
 홈플러스 영통점 89
 홈플러스 원천점 89
 홍건섭 182
 홍경섭 225
 홍길선 191, 227, 235, 240, 255,
 289
 홍민섭 219
 홍부성 194
 홍사극 185, 241
 홍사선 189, 190, 232
 홍사성 190, 192, 194, 278
 홍사안 173, 174, 185, 232
 홍사운 245,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4, 280,
284, 288
홍사헌 185, 189
홍사훈 189, 190, 232, 241, 252,
253, 259, 264, 279, 281, 284,
285, 290
홍석후 140
홍승렬 광산 251
홍원실 191
홍원직물 288
홍원(洪圓)직물공장 273
홍은후 132
홍익선 140
홍인권 232
홍종환 232
홍준 140
홍철후 191, 232
화서시장 71, 83
화성 14, 15, 20, 23

화성관 45
화성권면 232
화성금융조합 145, 146, 147,
150, 151, 152, 156, 157
화성시 115, 349, 352
화성자동차주식회사 186
화성학원 229, 230, 232, 284
화성학원운동장 227
화성학원유지회 232
화성홍산회사 253
화성홍업주식회사 187
화성홍한주식회사 232
화신백화점 277
화약 215
화윤재봉점 42
화춘옥 72
화학공업 301
화흥개량낫공장 288
화화성관 44

화흥원 42
환박(丸朴)정미소 284
황구지천 22
황등만 194
황익재 124, 125
황청하 259, 280, 282
후지오 미사오(藤尾みさを) 177
후지와라 슈이치(藤原修一) 177
후지홍업 278
홍한건설 284
히가시아마농사주식회사 184
히라다상점 45
히후미 45

A~Z LG생산기술연구원 349
SK그룹 270, 277, 282, 284

집필위원(가나다 순)

김보현 명지대학교 연구교수
김인호 동의대학교 사학과 교수
박민웅 한신대학교 국사학과 석사
배석만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HK연구교수
이상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
정병욱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HK교수
정승모 전 지역문화연구소 이사장
조재곤 덕성여자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연구교수
조현수 평택대학교 무역물류학과 교수
최재성 성균관대학교 연구교수

수원시사 6

수원의 산업과 경제 성장

발행일

2014년 6월 25일

발행처

수원시사편찬위원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031-228-3475 / www.suwon.go.kr

디자인 · 인쇄

홍익문화사

서울시 중구 을지로 12길 28

02-2274-8110 / www.hongkeeg.com

발간등록번호

ISBN 978-89-87738-66-6

ISBN 978-89-87738-60-4(세트)

